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 책임연구원: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홍성호(공주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이유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 동력으로 완성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 1-2항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보장은 물론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여건과 사회 환경 개선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에 대한 다각도의 통합적 지원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차적으로 이는 경쟁사회가 주는 심리적 압박과 양극과 고실업의 경제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돌봄과 배려의 부재로 이어지는 개인주의적인 사회, 나아가 이혼률, 조손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증가라는 가족해체현상이 주 요인이다. 하지만 이차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 실제 정부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힘써왔다. 하지만 영역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추진방법과 세부내용이 아쉬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고 기존 청소년정책의 보완 및 완성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3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이론적 작업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 제시된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보완, 수정 및 심화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연속과제이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부족함 부분 또는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을 세밀하게 분석함은 물론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일이다. 생산적인 결과를 토대로 연구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구체적인 활용을 위한 제언들과 2) 청소년의 만족도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인식차이를 분석 개선할 수 있는 제언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지표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행복지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별 권고안 개발 및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 및 정책제언들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행복한 청소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지역사회로 하여금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이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학교 급별 차이와 지역 간 차이를 연계 종합하여 살펴봄으로 심화 고찰하고 16개 지역별 영역별 지수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설문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9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인 관계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건강영역, 그리고 교육영역 모두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나아가 양부모가정, 한부모가 직업을 가질수록, 대도시 거주자이고, 종교를 가질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고, 주관적 웰빙의 수치가 높았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학교교육과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의 전 영역에서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 즉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 질병의 유무 그리고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셋째, 영역지수는 영역별로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관계영역은 부산에서 단연 높은 반면 전남과 울산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관적웰빙 영역은 부산에서 높고 전남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강영역은 대구와 강원에서 높고 전남과 경북에서 낮은 것으로, 교육영역은 경북과 부산에서 높고 경기와 서울에서 낮으며, 안전영역은 부산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또한 활동영역은 인천, 강원, 경기에서 높고 전남, 충북, 광주에서 낮은 것으로, 참여영역은 제주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과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환경영역은 강원과 제주에서 높고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그리고 경제영역은 경남, 충남, 울산에서 높고 강원과 전북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종합지수는 부산에서 가장 높고 인천과 제주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전남, 충북, 전북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섯째, 지역별로 9개 영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은 서울과 경기의 교육영역, 부산, 대구, 강원, 그리고 전북의 경제영역, 인천 환경영역, 광주, 충북, 전남, 그리고 제주의 활동영역, 대전, 경북, 그리고 경남의 건강영역, 울산의 참여영역, 그리고 충남의 안전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더불어 해당 지방정부의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구체적인 분야와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종합적인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행복도가 낮은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이해당사자들(청소년·학부모·교사 등) 사이의 청소년 행복에 대한 인식차이 개선 및 극복을 위한 소통 및 공존의 장 마련이 필요함. 청소년 행복지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별 권고안 개발과 모니터링, 행복지표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행복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적 투자 강화 및 컨설팅 실시, 청소년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공공 캠페인 및 실천 운동 전개, 청소년정책예산 DB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시계열 관리 및 평가, 지역별 청소년 행복지수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전담기구 설치·운영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행복지표의 관리,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 청소년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 (Local Happiness Minimum) 정립, 그 외 지역별영역별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지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 행복 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의 3차년도 연구로서 태동기인 1차년도의 이론적 작업과 성장기인 2차년도의 실천적 방안제시의 보완, 수정 및 심화를 통해 연구의 질적 도약을 이룸으로써, 4차년도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먼저 2년 차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및 지수화 과정을 심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 영향 및 친화도 측정을 위한 지표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은 물론 그 현실성과 실천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는 청소년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청소년 행복도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현실화될 것임.
- 4차년도의 연구로 이어지는 연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 2차 년도에 적시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서를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으로 추후 연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 주관적 행복감과 객관적 행복조건사이의 효율적 융합을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개별적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계, 주관적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 등 9개 영역의 세부 지표에 대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 나아가 차이가 있을 경우 결과분석을 통하여 영역별 실질적 정책제언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개별 지역사회로 하여금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이르고자 함. 특히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학교 급별 차이와 지역 간 차이를 연계 종합하여 살펴봄으로 심화 고찰하고 16개 지역별 영역별 지수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정책과제 자문을 실시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개발을 이루고자 함.

2. 연구방법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고도화를 위해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OECD 등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등 다양한 선행연구 고찰하고, 정부의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의 문헌 등을 분석하였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적 지표 조사를 위해 2015년 6~7월 사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0,783명 청소년과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계, 행정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 조사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외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워크숍,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 및 결정요인

- 연구 대상인 전체 9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인 관계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건강영역, 그리고 교육영역 모두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양부모가정, 한부모가 직업을 가질수록, 대도시 거주자이고, 종교를 가질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고, 주관적 웰빙의 수치가 높았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학교교육과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전영역과 환경영역의 경우도 조건이 추가되거나 줄어들었을 뿐 상위의 4영역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즉 안전영역은 같은 조건일 경우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의식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안전망시설(CCTV)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환경영역의 경우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음.
- 참여영역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했음. 남성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평등한 참여권이나 의사전달권 등 권리의 평등성에 대한 의식이 강했음. 이 외의 조건하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활동영역의 경우도 가족유형의 조건과 관련해서만 차이가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지역 내 운동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지표의 경우는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용돈의 충분성과 놀이친구 접근성 지표에 대해서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높게 나타났음.
- 개인의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다른 영역과 유사하나 특징적인 것은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동시에 다른 영역과 달리 자가주택 여부나 종교의 유무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음.
-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8개 영역 가운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함을 함축함. 두 영역은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관계영역이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영역의 만족도가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교육영역 만족도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관계영역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영역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거의 전 영역에서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 즉 본 연구에서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 질병의 유무 그리고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볼 수 있음. 특히 학령기 혹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외향적인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음.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인식차이

- 청소년은 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더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안전망시설(CCTV)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놀이를 할 때 쉽게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여가 활동 시간과 공간과 용돈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청소년이 학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불안함과 슬픔과 우울함을 느끼고, 을 느끼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 이웃사람,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을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며, 외향적이라고 생각함.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교과과정, 진로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함. 지역사회의 시설이 안전하고, 위기상황이 생겼을때 잘 대처한다고 생각함.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며, 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잘 말하고, 소수집단의 권리에 대해 관용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함.
-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이웃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결정에 자유가 있고,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며,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생각함

3)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지수 산출

- 청소년의 행복을 9개 영역, 68개의 세부 지표-37개의 객관적 지표와 31개의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영역별 세부 지표에 기초해 영역지수를 측정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전 영역에 걸친 종합지수를 측정하였음.
- 영역지수는 영역별로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음. 관계영역은 부산에서 단연 높은 반면 전남과 울산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관적웰빙 영역은 부산에서 높고 전남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강영역은 대구와 강원에서 높고 전남과 경북에서 낮은 것으로,

교육영역은 경북과 부산에서 높고 경기와 서울에서 낮으며, 안전영역은 부산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또한 활동영역은 인천, 강원, 경기에서 높고 전남, 충북, 광주에서 낮은 것으로, 참여영역은 제주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과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환경영역은 강원과 제주에서 높고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그리고 경제영역은 경남, 충남, 울산에서 높고 강원과 전북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합지수는 부산에서 가장 높고 인천과 제주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전남, 충북, 전북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 지역별로 9개 영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은 서울과 경기의 교육영역, 부산, 대구, 강원, 그리고 전북의 경제영역, 인천 환경영역, 광주, 충북, 전남, 그리고 제주의 활동영역, 대전, 경북, 그리고 경남의 건강영역, 울산의 참여영역, 그리고 충남의 안전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더불어 해당 지방정부의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한 구체적인 분야와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4. 정책제언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 행복도가 낮은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결과 행복도가 낮은 집단은 여자 청소년, 고등학생, 맞벌이 가구 청소년, 내향적인 청소년으로 확인됨.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 및 사회의 성차별적 풍토의 지양이 요구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시제도의 개선이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토대로 학업스트레스의 감소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제고를 위한 개입 방안이 필요함. 특히 맞벌이나 한부모일 가능성이 높은 모의 취업상황을 위해 방과 후 다양한 활동 가능성의 모색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내향적인 청소년의 경우 행복도 증진을 위해 교사와 부모의 관심, 이해 및 배려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심층연구를 통해 내향적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 제고 및 관계 맺기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 이해당사자들(청소년·학부모·교사 등) 사이의 청소년 행복에 대한 인식차이 개선 및 극복을 위한 소통 및 공존의 장 마련이 필요함.
 청소년 행복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 상당한 인식차이가 확인된바, 공감과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인 접근과 시도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토론과 논의의 기회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시킴으로, 청소년 행복지수의 측정결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행복지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별 권고안 개발과 모니터링
 지역별로 요약·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별 권고안 및 대응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연구에서 수행된 지역별 행복지수 차이의 비교를 의미화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권고안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장치를 수립될 필요가 있음. 이와 병행하여 조사 전담센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주기적인 포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행복지표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청소년관련 정책의 예산수립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년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간, 상위 지표 간, 세부 지표 간 영향의 차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파악이 필요함. 청소년관련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영역별로 구분하는 예산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이 미약한 영역을 도출하고 향후 이에 대한 정책보완 작업이 필요함.
- 행복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적 투자 강화 및 컨설팅 실시
 본 연구의 결과 전남, 충북, 전북, 광주의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따라서 향후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 동시에 청소년 행복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원인의 탐색과 이를 기초로 한 컨설팅을 실시 그리고 사회복지적 투자의 강화와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청소년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공공 캠페인 및 실천 운동 전개
 자치단체별 행복지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행복친화적 지역정책을 위한 관련 인력·조직·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 캠페인 및 실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성북구나 군산, 대구, 광주 등 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예산 DB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시계열 관리 및 평가

지자체 별 각 행복지수 영역에 대한 청소년정책 예산의 분석을 기초로 지자체별 청소년정책의 문제 도출과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과 아동예산과의 혼합으로 사업 과제별 투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현재 아동예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예산 코드를 분류하여 DB를 관리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영역별 예산 투입 실적과 산출 결과의 파악을 기초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과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을 세목별로 분류, 코드화 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DB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 예산 규모의 분석과 청소년의 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지역별 청소년 행복지수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전담기구 설치·운영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청소년 관련 예산의 집행이 청소년 행복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세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소년의 행복지수 모니터링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자료수집, 구축, 관리, 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전담은 물론 해당 자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문의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부설센터의 설치 및 연구조사팀과 조사자료팀 2팀제의 도입, 나아가 전임 연구원의 배치, 운영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정치적 간섭에 독립적인 국책연구기관에 부설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임.

○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행복지표의 관리

행복은 개개인의 기질이나 타고난 천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행복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의 구축과 이를 통한 행복지표-특히, 주관적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를 통해 개별 청소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이 가능해지고 연구자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해당 청소년 개인의 고유한 기질이나 천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나아가 자료의 시계열적 구축을 통해 지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회귀분석결과에 기초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의 타당성이 강화될 수 있음. 무엇보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기별, 지역별, 집단별로 자유로운 분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 비교를 통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화를 가능하게 함. 조사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 온라인을 통해 지역사회지표를 활용 할 수 있는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들을 접목해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로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지역별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 결과와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함.

-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
 지역사회청소년지표 관리의 체계성과 정밀성의 제고, 나아가 비용적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기관들의 조사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DB구축이 필요함.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DB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음. 나아가 장기적으로 통계청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계DB의 구축이 필요함.
- 청소년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관한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계를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해가능한 통계 자료 제시 및 인포그래픽의 제공이 요구됨.
-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정립
 각 영역별 또는 각 지역별 청소년 행복인식에 대한 최저선(Minimal Line), 적정선(Optimal Line)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즉, 사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처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등과 같은 기준선을 제시하거나, 보다 발전적으로는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2) 지역별·영역별 정책제안

○ 관계영역

본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관계 및 교육영역 만족도로 나타남. 따라서 가족, 친구, 교사, 친지 등과의 관계 개선 및 심화를 위한 기회제공이 필요함. 인간관계 기술의 교과과정 포함, 가족 간의 대화시간 증진을 위한 가족이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 귀가후 TV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의 절제를 유도할 가족규칙 제정 및 실천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관계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산지역,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관계만족도를 보인 제주지역과 경기지역의 관계영역과 관련된 청소년정책이나 교육정책의 분석을 통해 원인탐색 및 그것을 기초로 관계만족도의 확산을 위한 방안장구가 필요함.

○ 교육영역

지역사회의 청소년 행복정책은 보편적 인프라의 구축만이 아니라 인식전환, 가치교육, 긍정적 인성함양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교육영역의 세부 지표에 따르면 먼저 서울지역의 높은 학업 중단율의 원인 분석과 대책장구 및 예방을 위한 방안장구가 필요함. 기초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 클리닉 지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학업숙려제 등)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하는 한편,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학생 자치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개선하여 함께 체험하고 삶을 발견하는 학교문화가 요구됨. 특히 경기지역의 학교급별 학생수가 가장 높은 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혁신학교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과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나이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초 학력 미달학생의 발생 방지를 위한 학교의 기초학습 책무성의 고양 필요함. 또한 교과과정 만족도와 진로교육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산지역을 표본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함.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착을 위한 환경구축이 필요함. 동시에 학교 내 대중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및 교육감 선거의 청소년 참여 등을 통한 청소년 행복요구의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구축이 필요함.

○ 주관적웰빙영역

주관적 웰빙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 나아가 행복과 성공에 대한 근본적인 질적 교육이 요구됨. 서유럽의 경우처럼 수능 중심이 아닌

가치와 사고중심의 역사교육, 철학적 사유, 및 토론문화의 학교 내 정착 등이 요구됨.

○ 건강영역

각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및 청소년환자의 가정 및 경제 환경과 무관한 치료비 부담완화 및 해소를 위한 각 지자체별 노력이 필요함.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청소년 자살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함. 가정의 관심과 함께 정부차원의 교육재원 지원 및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청소년 건강지수 중심의 학교 환경 및 가정환경 개선 정책이 필요함.

○ 활동영역

활동과 참여는 여러 영역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우선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주말 활동과 문화적 기회의 다양화 가 요구됨. 일례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문화활동을 위해 개봉이 지난 영화를 상영하는 1달러 극장이 운영되고 있음. 특히 활동상태의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심한 원인을 - 일례로 전북과 전남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파악함은 물론 청소년활동 관련 지자체 예산 규모 등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

○ 참여영역

참여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제주, 대전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이, 제주지역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가, 대전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음. 울산, 전남, 전북이 청소년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16개 시도 분석에서 참여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참여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예산투입이 필요함. 청소년들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시정활동 청소년 모니터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환경영역

경기, 충북 등 5개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또 환경영역이 부정적인 바 청소년들의 일반적 여론을 고려한 차원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환경영역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하다. 일례로 아파트 건설 또는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시행 시, 기존의 녹지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중심적 지역개발이 필요함.

○ 안전영역

연구 결과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외국인이 많은 지역, 범죄사건이 빈번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범죄피해와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사회안전망, 학교안전망, 지역순찰의 강화가 요구됨. 또한 선전성과 폭력성 등과 관련한 미디어의 방송윤리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필요함.

○ 경제영역

서울지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 지니계수가, 울산지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대전지역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전북지역에서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제주지역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인천지역에서는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음. 충북지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가, 대구지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충남에서는 지니계수가, 제주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율, 실업율이, 울산에서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강원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청소년들이 경제영역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가 정신교육 및 소비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득격차 해소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11
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15
1. 국내·외 선행연구	17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과정	70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기초통계	91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자료 수집	93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실태	123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만족도 결정요인분석	292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만족도 비교 ..	299
5. 소결	331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정의와 측정	335
1. 관계영역	337
2. 주관적웰빙 영역	357
3. 건강영역	363
4. 교육영역	387
5. 안전영역	399
6. 활동영역	419
7. 참여영역	439
8. 환경영역	451
9. 경제영역	459

10. 소결	484
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산출	507
1. 삶에 대한 만족도	509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514
VI. 결론 및 정책제언	545
1. 결론	547
2. 정책제언	552
참 고 문 헌	565
부 록	577
부록 1.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	579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619
부록 3. 객관지표 통계자료	681

표 목 차

〈표 Ⅰ-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계획 연구 추진 개요	7
〈표 Ⅰ-2〉 자문회의 내용	11
〈표 Ⅰ-3〉 설문조사 개요	12
〈표 Ⅰ-4〉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3
〈표 Ⅱ-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지표의 세부 문항 간 내용 비교	24
〈표 Ⅱ-2〉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29
〈표 Ⅱ-3〉 관계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33
〈표 Ⅱ-4〉 주관적 웰빙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36
〈표 Ⅱ-5〉 건강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37
〈표 Ⅱ-6〉 교육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44
〈표 Ⅱ-7〉 안전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50
〈표 Ⅱ-8〉 활동(여가)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58
〈표 Ⅱ-9〉 참여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62
〈표 Ⅱ-10〉 환경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65
〈표 Ⅱ-11〉 경제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67
〈표 Ⅱ-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선정과정 요약과 비교(1, 2, 3차년도)	78
〈표 Ⅱ-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년도) 최종 개수	89
〈표 Ⅲ-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체계 비교	94
〈표 Ⅲ-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96
〈표 Ⅲ-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97
〈표 Ⅲ-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98
〈표 Ⅲ-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98
〈표 Ⅲ-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99
〈표 Ⅲ-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99
〈표 Ⅲ-8〉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100

〈표 Ⅲ-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100
〈표 Ⅲ-10〉 학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크기와 목표 표본크기	102
〈표 Ⅲ-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103
〈표 Ⅲ-12〉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104
〈표 Ⅲ-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104
〈표 Ⅲ-1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105
〈표 Ⅲ-15〉 보호자 표본수	106
〈표 Ⅲ-16〉 보호자 추출학급(추정)	106
〈표 Ⅲ-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설문지 구성 및 출처	110
〈표 Ⅲ-18〉 청소년 일반적 특성	114
〈표 Ⅲ-19〉 교사용 설문지 구성 및 출처	115
〈표 Ⅲ-20〉 교사의 일반적 특성	118
〈표 Ⅲ-21〉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 및 출처	119
〈표 Ⅲ-22〉 학부모 일반적 특성	122
〈표 Ⅲ-23〉 관계 영역_전반적 만족도	124
〈표 Ⅲ-24〉 관계 영역_가족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127
〈표 Ⅲ-25〉 관계 영역_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130
〈표 Ⅲ-26〉 관계 영역_친구와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133
〈표 Ⅲ-27〉 관계 영역_학교 선생님과 대화의 즐거움	135
〈표 Ⅲ-28〉 관계 영역(신뢰)_부모	138
〈표 Ⅲ-29〉 관계 영역(신뢰)_친구	140
〈표 Ⅲ-30〉 관계 영역(신뢰)_학교 선생님	143
〈표 Ⅲ-31〉 관계 영역(신뢰)_이웃 사람	146
〈표 Ⅲ-32〉 관계 영역_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149
〈표 Ⅲ-33〉 관계 영역_수업시간 외 담임선생님 면담 횟수	151
〈표 Ⅲ-34〉 관계 영역_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153

〈표 III-35〉 관계 영역_친절한 이웃	156
〈표 III-36〉 관계 영역(신뢰)_우리나라 전체	159
〈표 III-37〉 관계 영역(신뢰)_사이버 공간	161
〈표 III-38〉 관계 영역(기관 신뢰)_지역사회 전문기관	164
〈표 III-39〉 관계 영역(기관 신뢰)_지방정부	166
〈표 III-40〉 관계 영역(기관 신뢰)_중앙정부	169
〈표 III-41〉 주관적 웰빙 영역_전반적 만족도	171
〈표 III-42〉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즐거움	174
〈표 III-43〉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편안한	176
〈표 III-44〉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불안한	178
〈표 III-45〉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슬픈	181
〈표 III-46〉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우울한	183
〈표 III-47〉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행복한	186
〈표 III-48〉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낙관적인(밝은) 미래	188
〈표 III-49〉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190
〈표 III-50〉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가치있는 삶	193
〈표 III-51〉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195
〈표 III-52〉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198
〈표 III-53〉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200
〈표 III-54〉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외향적인	203
〈표 III-55〉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걱정이 많은	206
〈표 III-56〉 건강 영역_전반적 만족도	209
〈표 III-57〉 건강 영역_신체적 건강	212
〈표 III-58〉 건강 영역_정신적 건강(스트레스)	215
〈표 III-59〉 건강 영역_질병 유무	217
〈표 III-60〉 건강 영역_질병의 유형	219

〈표 Ⅲ-61〉 건강 영역_일주일 중 아침식사 빈도	221
〈표 Ⅲ-62〉 건강 영역_고카페인 음료	224
〈표 Ⅲ-63〉 교육 영역_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227
〈표 Ⅲ-64〉 교육 영역_학교의 교과과정 만족도	230
〈표 Ⅲ-65〉 교육 영역_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	232
〈표 Ⅲ-66〉 안전 영역_전반적 만족도	235
〈표 Ⅲ-67〉 안전 영역_동네 시설 안전성	238
〈표 Ⅲ-68〉 안전 영역_학교 시설 및 비품 안전성	241
〈표 Ⅲ-69〉 안전 영역_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 인지여부	243
〈표 Ⅲ-70〉 안전 영역_동네에서 우범자 마주칠 가능성	245
〈표 Ⅲ-71〉 안전 영역_생활주변 CCTV 충분성	247
〈표 Ⅲ-72〉 활동 영역_청소년 활동 여건 전반적 만족도	250
〈표 Ⅲ-73〉 활동 영역_함께 할 친구	253
〈표 Ⅲ-74〉 활동 영역_충분한 자유시간	256
〈표 Ⅲ-75〉 활동 영역_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	258
〈표 Ⅲ-76〉 활동 영역_충분한 용돈	261
〈표 Ⅲ-77〉 참여 영역_청소년의 사회 참여 보장 만족도	264
〈표 Ⅲ-78〉 참여 영역_청소년의 권리 인지도	267
〈표 Ⅲ-79〉 참여 영역_체벌 전 입장 전달 기회	270
〈표 Ⅲ-80〉 참여 영역_교내 규칙 개정시 참여 가능	272
〈표 Ⅲ-81〉 참여 영역_보편적 기회와 권리 인지도	274
〈표 Ⅲ-82〉 참여 영역_청소년대표의 의사 전달 권리	277
〈표 Ⅲ-83〉 환경 영역_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280
〈표 Ⅲ-84〉 환경 영역_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283
〈표 Ⅲ-85〉 환경 영역_생활 편리성	286
〈표 Ⅲ-86〉 환경 영역_살고 있는 집의 형태	288

〈표 Ⅲ-87〉 경제 영역_경제수준 전반적 만족도	291
〈표 Ⅲ-88〉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의 특성	294
〈표 Ⅲ-89〉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	296
〈표 Ⅲ-90〉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298
〈표 Ⅲ-91〉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299
〈표 Ⅲ-92〉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 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	303
〈표 Ⅲ-93〉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 신뢰도) 비교	306
〈표 Ⅲ-94〉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308
〈표 Ⅲ-95〉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312
〈표 Ⅲ-96〉 청소년, 부모, 교사의 성격 비교	316
〈표 Ⅲ-97〉 청소년, 부모, 교사의 건강영역 비교	318
〈표 Ⅲ-98〉 청소년, 교사의 교육영역 비교	319
〈표 Ⅲ-99〉 청소년, 부모, 교사의 안전영역 비교	321
〈표 Ⅲ-100〉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활동영역 비교	324
〈표 Ⅲ-101〉 청소년, 교사의 참여영역 비교	327
〈표 Ⅲ-102〉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환경영역 비교	329
〈표 Ⅳ-1〉 가족관계만족도	337
〈표 Ⅳ-2〉 가족관계만족도	338
〈표 Ⅳ-3〉 부모관계만족도	339
〈표 Ⅳ-4〉 부모관계만족도	340
〈표 Ⅳ-5〉 교우관계만족도	341
〈표 Ⅳ-6〉 교우관계만족도	342
〈표 Ⅳ-7〉 교사관계만족도	343
〈표 Ⅳ-8〉 교사관계만족도	344
〈표 Ⅳ-9〉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345
〈표 Ⅳ-10〉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346

〈표 IV-11〉 가족 간의 대화시간	347
〈표 IV-12〉 가족 간의 대화시간	348
〈표 IV-13〉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349
〈표 IV-14〉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350
〈표 IV-15〉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351
〈표 IV-16〉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352
〈표 IV-17〉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353
〈표 IV-18〉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354
〈표 IV-19〉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 기관, 지방·중앙 정부)	355
〈표 IV-20〉 일반신뢰도	356
〈표 IV-21〉 정서상태	357
〈표 IV-22〉 정서상태	358
〈표 IV-23〉 삶의 만족도	359
〈표 IV-24〉 삶의 만족도	360
〈표 IV-25〉 유데모니아	361
〈표 IV-26〉 유데모니아	362
〈표 IV-27〉 주관적 건강상태	363
〈표 IV-28〉 주관적 건강상태	364
〈표 IV-29〉 스트레스 정도	365
〈표 IV-30〉 스트레스 정도	366
〈표 IV-31〉 BMI(비만율)	367
〈표 IV-32〉 BMI(비만율)(2010~2014)	368
〈표 IV-33〉 질병유무	369
〈표 IV-34〉 질병유무	370
〈표 IV-35〉 청소년 자살률	371

〈표 IV-36〉 청소년 자살률 (2010~2013)	372
〈표 IV-37〉 아침식사율	373
〈표 IV-38〉 아침식사율	374
〈표 IV-39〉 고카페인 이용량	375
〈표 IV-40〉 고카페인 이용량	376
〈표 IV-41〉 평균운동시간	377
〈표 IV-42〉 평균운동시간 (2010~2014)	378
〈표 IV-43〉 평균수면시간	379
〈표 IV-44〉 평균수면시간 (2010~2014)	380
〈표 IV-45〉 청소년 흡연율	381
〈표 IV-46〉 청소년 흡연율 (2010~2014)	382
〈표 IV-47〉 청소년 음주율	383
〈표 IV-48〉 청소년 음주율 (2010~2014)	384
〈표 IV-49〉 인터넷 중독률	385
〈표 IV-50〉 인터넷 중독률 (2013, 2014)	386
〈표 IV-51〉 학업중단율	387
〈표 IV-52〉 학업중단율 (2012~2014)	388
〈표 IV-53〉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389
〈표 IV-54〉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10~2014)	390
〈표 IV-55〉 학업성취도	391
〈표 IV-56〉 학업성취도 (2011~2014)	392
〈표 IV-57〉 사교육비 지출액	393
〈표 IV-58〉 사교육비 지출액 (2010~2014)	394
〈표 IV-59〉 교과과정 만족도	395
〈표 IV-60〉 교과과정 만족도	396
〈표 IV-61〉 진로교육 만족도	397

〈표 IV-62〉 진로교육 만족도	398
〈표 IV-63〉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399
〈표 IV-64〉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400
〈표 IV-65〉 학교시설 안전도	401
〈표 IV-66〉 학교시설 안전도	402
〈표 IV-67〉 위기상황 대처능력	403
〈표 IV-68〉 위기상황 대처능력	404
〈표 IV-69〉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405
〈표 IV-70〉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0~2014)	406
〈표 IV-71〉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407
〈표 IV-72〉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0~2013)	408
〈표 IV-73〉 범죄안전도	409
〈표 IV-74〉 범죄안전도	410
〈표 IV-75〉 청소년 범죄피해율	411
〈표 IV-76〉 청소년 범죄피해율 (2010, 2012)	412
〈표 IV-77〉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413
〈표 IV-78〉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0~2014)	414
〈표 IV-79〉 학교폭력 발생률	415
〈표 IV-80〉 학교폭력 발생률 (2012~2014)	416
〈표 IV-81〉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417
〈표 IV-82〉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418
〈표 IV-83〉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419
〈표 IV-84〉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1, 2013)	420
〈표 IV-85〉 문화여가 지출비용	421
〈표 IV-86〉 문화여가 지출비용(2010, 2012, 2014)	422
〈표 IV-87〉 동아리활동 참여율	423

〈표 IV-88〉 동아리활동 참여율(2011, 2014)	424
〈표 IV-89〉 문화예술시설 비율	425
〈표 IV-90〉 문화예술시설 비율(2011~2013)	426
〈표 IV-91〉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427
〈표 IV-92〉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0~2013)	428
〈표 IV-93〉 청소년 지도사 비율	429
〈표 IV-94〉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2, 2013)	430
〈표 IV-95〉 놀이친구접근성	431
〈표 IV-96〉 놀이친구접근성	432
〈표 IV-97〉 여가활동시간만족도	433
〈표 IV-98〉 여가활동시간만족도	434
〈표 IV-99〉 여가활동공간만족도	435
〈표 IV-100〉 여가활동공간만족도	436
〈표 IV-101〉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437
〈표 IV-102〉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438
〈표 IV-103〉 아동권리인지	439
〈표 IV-104〉 아동권리인지	440
〈표 IV-105〉 징계소명권	441
〈표 IV-106〉 징계소명권	442
〈표 IV-107〉 학칙개정권	443
〈표 IV-108〉 학칙개정권	444
〈표 IV-109〉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445
〈표 IV-110〉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446
〈표 IV-111〉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447
〈표 IV-112〉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448
〈표 IV-113〉 자원봉사 참여율	449

〈표 IV-114〉 자원봉사 참여율(2011, 2013)	450
〈표 IV-115〉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451
〈표 IV-116〉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452
〈표 IV-117〉 주택만족도	453
〈표 IV-118〉 주택만족도	454
〈표 IV-119〉 통학소요시간	455
〈표 IV-120〉 통학소요시간	456
〈표 IV-121〉 녹지접근성	457
〈표 IV-122〉 녹지접근성(2012~2014)	458
〈표 IV-123〉 가정경제만족도	459
〈표 IV-124〉 가정경제만족도	460
〈표 IV-125〉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461
〈표 IV-126〉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462
〈표 IV-127〉 지니계수	463
〈표 IV-128〉 지니계수(2010~2014)	464
〈표 IV-129〉 사회복지지출 비율	465
〈표 IV-130〉 사회복지지출 비율(2010~2014)	466
〈표 IV-131〉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467
〈표 IV-13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0~2014)	468
〈표 IV-133〉 경제활동 참가율	469
〈표 IV-134〉 경제활동 참가율(2010~2014)	470
〈표 IV-135〉 실업률	471
〈표 IV-136〉 실업률(2010~2014)	472
〈표 IV-137〉 주관지표 정의서 개요	473
〈표 IV-138〉 객관지표 정의서 개요	477
〈표 IV-139〉 영역별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487

〈표 IV-140〉 도시규모별 특징	489
〈표 IV-141〉 권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측정결과 비교	494
〈표 IV-142〉 객관지표 가장 열악한 지역	498
〈표 IV-143〉 17개 시도별 · 권역별 정리	500
〈표 V-1〉 학교급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510

그림 목 차

【그림 Ⅱ-1】 청소년의 행복감 결정요인	21
【그림 Ⅱ-2】 국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지표(유니세프, 유네스코, EU웰빙, OECD웰빙, 유니세프 웰빙)	28
【그림 Ⅱ-3】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32
【그림 Ⅱ-4】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71
【그림 Ⅱ-5】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72
【그림 Ⅱ-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년도)	90
【그림 Ⅲ-1】 관계 영역_전반적 만족도	125
【그림 Ⅲ-2】 관계 영역_가족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128
【그림 Ⅲ-3】 관계 영역_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131
【그림 Ⅲ-4】 관계 영역_학교 선생님과 대화의 즐거움	136
【그림 Ⅲ-5】 관계 영역(신뢰)_친구	142
【그림 Ⅲ-6】 관계 영역(신뢰)_학교 선생님	145
【그림 Ⅲ-7】 관계 영역(신뢰)_이웃 사람	148
【그림 Ⅲ-8】 관계 영역_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150
【그림 Ⅲ-9】 관계 영역_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154
【그림 Ⅲ-10】 관계 영역_친절한 이웃	157
【그림 Ⅲ-11】 관계 영역(신뢰)_사이버 공간	162
【그림 Ⅲ-12】 관계 영역(기관 신뢰)_지역사회 전문기관	165
【그림 Ⅲ-13】 관계 영역(기관 신뢰)_중앙정부	170
【그림 Ⅲ-14】 주관적 웰빙 영역_전반적 만족도	172
【그림 Ⅲ-15】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편안한	177
【그림 Ⅲ-16】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불안한	179
【그림 Ⅲ-17】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슬픈	182
【그림 Ⅲ-18】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우울한	184
【그림 Ⅲ-19】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191

【그림 Ⅲ-20】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가치있는 삶	194
【그림 Ⅲ-21】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199
【그림 Ⅲ-22】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	202
【그림 Ⅲ-23】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외향적인	205
【그림 Ⅲ-24】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걱정이 많은	207
【그림 Ⅲ-25】 건강 영역_전반적 만족도	210
【그림 Ⅲ-26】 건강 영역_신체적 건강	213
【그림 Ⅲ-27】 건강 영역_정신적 건강(스트레스)	216
【그림 Ⅲ-28】 건강 영역_일주일 중 아침식사 빈도	223
【그림 Ⅲ-29】 건강 영역_고카페인 음료	225
【그림 Ⅲ-30】 교육 영역_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228
【그림 Ⅲ-31】 교육 영역_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	234
【그림 Ⅲ-32】 안전 영역_전반적 만족도	237
【그림 Ⅲ-33】 안전 영역_동네에서 우범자 마주칠 가능성	246
【그림 Ⅲ-34】 안전 영역_생활주변 cctv 충분성	249
【그림 Ⅲ-35】 활동 영역_청소년 활동 여건 전반적 만족도	252
【그림 Ⅲ-36】 활동 영역_함께 할 친구	254
【그림 Ⅲ-37】 활동 영역_충분한 자유시간	257
【그림 Ⅲ-38】 활동 영역_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	259
【그림 Ⅲ-39】 활동 영역_충분한 용돈	262
【그림 Ⅲ-40】 참여 영역_청소년의 사회 참여 보장 만족도	265
【그림 Ⅲ-41】 참여 영역_청소년의 권리 인지도	268
【그림 Ⅲ-42】 참여 영역_교내 규칙 개정시 참여 가능	273
【그림 Ⅲ-43】 참여 영역_보편적 기회와 권리 인지도	276
【그림 Ⅲ-44】 참여 영역_청소년대표의 의사 전달 권리	279
【그림 Ⅲ-45】 환경 영역_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284

【그림 Ⅲ-46】 환경 영역_살고 있는 집의 형태	289
【그림 Ⅲ-47】 청소년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300
【그림 Ⅲ-48】 부모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301
【그림 Ⅲ-49】 교사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302
【그림 Ⅲ-50】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302
【그림 Ⅲ-51】 청소년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304
【그림 Ⅲ-52】 부모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304
【그림 Ⅲ-53】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305
【그림 Ⅲ-54】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305
【그림 Ⅲ-55】 청소년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307
【그림 Ⅲ-56】 부모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307
【그림 Ⅲ-57】 교사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307
【그림 Ⅲ-58】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307
【그림 Ⅲ-59】 청소년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309
【그림 Ⅲ-60】 부모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310
【그림 Ⅲ-61】 교사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310
【그림 Ⅲ-62】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311
【그림 Ⅲ-63】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314
【그림 Ⅲ-64】 부모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314
【그림 Ⅲ-65】 교사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315
【그림 Ⅲ-66】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315
【그림 Ⅲ-67】 청소년의 성격 비교	317
【그림 Ⅲ-68】 부모의 성격 비교	317
【그림 Ⅲ-69】 교사의 성격 비교	317
【그림 Ⅲ-70】 청소년, 부모, 교사의 성격 비교	317

【그림 III-71】 청소년의 건강영역 비교	318
【그림 III-72】 교사의 건강영역 비교	318
【그림 III-73】 부모의 건강영역 비교	319
【그림 III-74】 청소년, 부모, 교사의 건강영역 비교	319
【그림 III-75】 청소년의 교육영역 비교	320
【그림 III-76】 교사의 교육영역 비교	320
【그림 III-77】 청소년, 교사의 교육영역 비교	320
【그림 III-78】 청소년의 안전영역 비교	322
【그림 III-79】 부모의 안전영역 비교	322
【그림 III-80】 교사의 안전영역 비교	323
【그림 III-81】 청소년, 부모, 교사의 안전영역 비교	323
【그림 III-82】 청소년의 활동영역 비교	325
【그림 III-83】 부모의 활동영역 비교	325
【그림 III-84】 교사의 활동영역 비교	326
【그림 III-85】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활동영역 비교	326
【그림 III-86】 청소년의 참여영역 비교	328
【그림 III-87】 교사의 참여영역 비교	328
【그림 III-88】 청소년, 교사의 참여영역 비교	329
【그림 III-89】 청소년의 환경영역 비교	330
【그림 III-90】 부모의 환경영역 비교	330
【그림 III-91】 교사의 환경영역 비교	330
【그림 III-92】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환경영역 비교	330
【그림 IV-1】 가족관계만족도	338
【그림 IV-2】 도시규모별 · 권역별 가족관계만족도	338
【그림 IV-3】 2015년 가족관계만족도	338
【그림 IV-4】 부모관계만족도	340

【그림 IV-5】 도시규모별 · 권역별 부모관계만족도	340
【그림 IV-6】 2015년 부모관계만족도	340
【그림 IV-7】 교우관계만족도	342
【그림 IV-8】 도시규모별 · 권역별 교우관계만족도	342
【그림 IV-9】 2015년 교우관계만족도	342
【그림 IV-10】 교사관계만족도	344
【그림 IV-11】 도시규모별 · 권역별 교사관계만족도	344
【그림 IV-12】 2015년 교사관계만족도	344
【그림 IV-13】 일반신뢰도	346
【그림 IV-14】 도시규모별 · 권역별 일반신뢰도	346
【그림 IV-15】 2015년 일반신뢰도	346
【그림 IV-16】 가족간의 대화시간	348
【그림 IV-17】 도시규모별 · 권역별 가족간의 대화시간	348
【그림 IV-18】 2015년 가족간의 대화시간	348
【그림 IV-19】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350
【그림 IV-20】 도시규모별 · 권역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350
【그림 IV-21】 2015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350
【그림 IV-22】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352
【그림 IV-23】 도시규모별 · 권역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352
【그림 IV-24】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352
【그림 IV-25】 이웃관계만족도	354
【그림 IV-26】 도시규모별 · 권역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354
【그림 IV-27】 2015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354
【그림 IV-28】 일반신뢰도	356
【그림 IV-29】 도시규모별 · 권역별 일반신뢰도	356
【그림 IV-30】 2015년 일반신뢰도	356

【그림 IV-31】 정서상태	358
【그림 IV-32】 도시규모별 · 권역별 정서상태	358
【그림 IV-33】 2015년 정서상태	358
【그림 IV-34】 삶의 만족도	360
【그림 IV-35】 도시규모별 · 권역별 삶의 만족도	360
【그림 IV-36】 2015년 삶의 만족도	360
【그림 IV-37】 유데모니아	362
【그림 IV-38】 도시규모별 · 권역별 유데모니아	362
【그림 IV-39】 2015년 유데모니아	362
【그림 IV-40】 주관적 건강상태	364
【그림 IV-41】 도시규모별 · 권역별 주관적 건강상태	364
【그림 IV-42】 2015년 주관적 건강상태	364
【그림 IV-43】 스트레스 정도	366
【그림 IV-44】 도시규모별 · 권역별 스트레스 정도	366
【그림 IV-45】 2015년 스트레스 정도	366
【그림 IV-46】 BMI(비만율)	368
【그림 IV-47】 도시규모별, 권역별 BMI(비만율)	368
【그림 IV-48】 BMI(비만율)(2014-2010)	368
【그림 IV-49】 질병유무	370
【그림 IV-50】 도시규모별 · 권역별 질병유무	370
【그림 IV-51】 2015년 질병유무	370
【그림 IV-52】 청소년 자살률	372
【그림 IV-53】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자살률(2013-2010)	372
【그림 IV-54】 청소년 자살률(2013-2010)	372
【그림 IV-55】 아침식사율	374

【그림 IV-56】 도시규모별 · 권역별 아침식사율	374
【그림 IV-57】 2015년 아침식사율	374
【그림 IV-58】 고카페인이용량	376
【그림 IV-59】 도시규모별 · 권역별 고카페인 이용량	376
【그림 IV-60】 2015년 고카페인 이용량	376
【그림 IV-61】 평균운동시간	378
【그림 IV-62】 도시규모별, 권역별 평균운동시간	378
【그림 IV-63】 평균운동시간(2014-2010)	378
【그림 IV-64】 평균수면시간	380
【그림 IV-65】 도시규모별, 권역별 평균수면시간	380
【그림 IV-66】 평균수면시간(2014-2010)	380
【그림 IV-67】 청소년 흡연율	382
【그림 IV-6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흡연율	382
【그림 IV-69】 청소년 흡연율(2014-2010)	382
【그림 IV-70】 청소년 음주율	384
【그림 IV-71】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음주율(2014-2010)	384
【그림 IV-72】 청소년 음주율(2014-2010)	384
【그림 IV-73】 인터넷 중독률	386
【그림 IV-74】 도시규모별, 권역별 인터넷 중독률	386
【그림 IV-75】 인터넷 중독률(2014-2013)	386
【그림 IV-76】 학업중단율	388
【그림 IV-77】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업중단율	388
【그림 IV-78】 학업중단율(2014-2012)	388
【그림 IV-79】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390
【그림 IV-80】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390
【그림 IV-81】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2014-2010)	390

【그림 IV-82】 학업성취도	392
【그림 IV-83】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업성취도	392
【그림 IV-84】 학업성취도(2014-2011)	392
【그림 IV-85】 사교육비 지출액	394
【그림 IV-86】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교육비 지출액	394
【그림 IV-87】 사교육비 지출액(2014-2010)	394
【그림 IV-88】 교과과정 만족도	396
【그림 IV-89】 도시규모별 · 권역별 교과과정 만족도	396
【그림 IV-90】 2015년 교과과정 만족도	396
【그림 IV-91】 진로교육 만족도	398
【그림 IV-92】 도시규모별 · 권역별 진로교육 만족도	398
【그림 IV-93】 2015년 진로교육 만족도	398
【그림 IV-94】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400
【그림 IV-95】 도시규모별 · 권역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400
【그림 IV-96】 2015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400
【그림 IV-97】 학교시설 안전도	402
【그림 IV-98】 도시규모별 · 권역별 학교시설 안전도	402
【그림 IV-99】 2015년 학교시설 안전도	402
【그림 IV-100】 위기상황 대처능력	404
【그림 IV-101】 도시규모별 · 권역별 위기상황 대처능력	404
【그림 IV-102】 2015년 위기상황 대처능력	404
【그림 IV-10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406
【그림 IV-104】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406
【그림 IV-105】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4-2013)	406
【그림 IV-106】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	408
【그림 IV-107】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	408

【그림 IV-108】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2013-2010)	408
【그림 IV-109】 범죄안전도	410
【그림 IV-110】 도시규모별 · 권역별 범죄안전도	410
【그림 IV-111】 2015년 범죄안전도	410
【그림 IV-112】 청소년 범죄피해율	412
【그림 IV-113】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414
【그림 IV-114】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414
【그림 IV-11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4-2010)	414
【그림 IV-116】 학교폭력 발생률	416
【그림 IV-117】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교폭력 발생률	416
【그림 IV-118】 학교폭력 발생률(2014-2012)	416
【그림 IV-119】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418
【그림 IV-120】 도시규모별 · 권역별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418
【그림 IV-121】 2015년 사회안전망시설 (CCTV)구축인지정도	418
【그림 IV-122】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420
【그림 IV-123】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420
【그림 IV-124】 문화예술활동 참여율(2011, 2013)	420
【그림 IV-125】 문화여가 지출비용	422
【그림 IV-126】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여가 지출비용	422
【그림 IV-127】 문화여가 지출비용(2014-2010)	422
【그림 IV-128】 동아리활동 참여율	424
【그림 IV-129】 도시규모별, 권역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424
【그림 IV-130】 동아리활동 참여율(2014-2011)	424
【그림 IV-131】 문화예술시설 비율	426
【그림 IV-132】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시설 비율	426
【그림 IV-133】 문화예술시설 비율(2013-2011)	426

【그림 IV-134】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428
【그림 IV-135】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428
【그림 IV-136】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3-2011)	428
【그림 IV-137】 청소년지도사 비율	430
【그림 IV-13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	430
【그림 IV-139】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3-2012)	430
【그림 IV-140】 놀이친구접근성	432
【그림 IV-141】 도시규모별 · 권역별 놀이친구접근성	432
【그림 IV-142】 2015년 놀이친구접근성	432
【그림 IV-143】 여가활동시간만족도	434
【그림 IV-144】 도시규모별 · 권역별 여가활동시간만족도	434
【그림 IV-145】 2015년 여가활동시간만족도	434
【그림 IV-146】 여가활동공간만족도	436
【그림 IV-147】 도시규모별 · 권역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436
【그림 IV-148】 2015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436
【그림 IV-149】 여가활동용돈만족도	438
【그림 IV-150】 도시규모별 · 권역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438
【그림 IV-151】 2015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438
【그림 IV-152】 아동권리인지	440
【그림 IV-153】 도시규모별 · 권역별 아동권리인지	440
【그림 IV-154】 2015년 아동권리인지	440
【그림 IV-155】 징계소명권	442
【그림 IV-156】 도시규모별 · 권역별 징계소명권	442
【그림 IV-157】 2015년 징계소명권	442
【그림 IV-158】 학칙개정권	444
【그림 IV-159】 도시규모별 · 권역별 학칙개정권	444

【그림 IV-160】 2015년 학칙개정권	444
【그림 IV-161】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	446
【그림 IV-162】 도시규모별·권역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	446
【그림 IV-163】 2015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	446
【그림 IV-164】 학생대표의 운영참여기회	448
【그림 IV-165】 도시규모별·권역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448
【그림 IV-166】 2015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448
【그림 IV-167】 자원봉사 참여율	450
【그림 IV-168】 도시규모별, 권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450
【그림 IV-169】 자원봉사 참여율(2013-2011)	450
【그림 IV-170】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452
【그림 IV-171】 도시규모별·권역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452
【그림 IV-172】 2015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452
【그림 IV-173】 주택만족도	454
【그림 IV-174】 도시규모별·권역별 주택만족도	454
【그림 IV-175】 2015년 주택만족도	454
【그림 IV-176】 통학소요시간	456
【그림 IV-177】 도시규모별, 권역별 통학소요시간	456
【그림 IV-178】 통학소요시간(2010)	456
【그림 IV-179】 녹지접근성	458
【그림 IV-180】 도시규모별, 권역별 녹지접근성	458
【그림 IV-181】 녹지접근성(2014-2012)	458
【그림 IV-182】 가정경제만족도	460
【그림 IV-183】 도시규모별·권역별 가정경제만족도	460
【그림 IV-184】 2015년 가정경제만족도	460
【그림 IV-185】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462

【그림 IV-186】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462
【그림 IV-187】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2013-2010)	462
【그림 IV-188】 지니계수	464
【그림 IV-189】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니계수	464
【그림 IV-190】 지니계수(2014-2010)	464
【그림 IV-191】 사회복지지출 비율	466
【그림 IV-192】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466
【그림 IV-193】 사회복지지출 비율(2014-2010)	466
【그림 IV-19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468
【그림 IV-195】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468
【그림 IV-196】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3-2010)	468
【그림 IV-197】 경제활동 참가율	470
【그림 IV-198】 도시규모별, 권역별 경제활동 참가율	470
【그림 IV-199】 경제활동 참가율(2014-2010)	470
【그림 IV-200】 실업률	472
【그림 IV-201】 도시규모별, 권역별 실업률	472
【그림 IV-202】 실업률(2014-2010)	472
【그림 V-203】 객관지표 가장 열악한 지역	497
【그림 V-1】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509
【그림 V-2】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0~4점인 경우의 비중과 9~10점인 경우의 비중	511
【그림 V-3】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513
【그림 V-4】 관계영역	515
【그림 V-5】 주관적 웰빙영역	516
【그림 V-6】 건강영역	517
【그림 V-7】 교육영역	518

【그림 V-8】 안전영역	519
【그림 V-9】 활동영역	521
【그림 V-10】 참여영역	522
【그림 V-11】 환경영역	523
【그림 V-12】 경제영역	524
【그림 V-13】 종합지수	526
【그림 V-14】 서울	527
【그림 V-15】 부산	528
【그림 V-16】 대구	529
【그림 V-17】 인천	530
【그림 V-18】 광주	531
【그림 V-19】 대전	532
【그림 V-20】 울산	533
【그림 V-21】 경기	534
【그림 V-22】 강원	535
【그림 V-23】 충북	536
【그림 V-24】 충남	538
【그림 V-25】 전북	539
【그림 V-26】 전남	540
【그림 V-27】 경북	541
【그림 V-28】 경남	542
【그림 V-29】 제주	543

제 I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¹⁾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유니세프(UNICEF)는 1999년부터 ‘청소년 친화 도시 발의 (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 친화 도시와 마을(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3,000여개 도시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UNICEF, 2013).

“우리나라도 청소년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토록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²⁾.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우대, 청소년의 건강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수립되었고,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현 주소는 영역별 정책목표와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만이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뿐, 이러한 정책과제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세부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어떠한 방법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단계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이다(김영한, 2014).

1) 본 연구는 2013년부터 ~ 2016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연속 과제로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모니터링 추진 사업 등은 과제의 기본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1차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과 2차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과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청소년기본법 제2조 1항~2항.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제6조, 제3장, 제4장.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중점과제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결정하였고, 그 세부추진과제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연구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를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제 3차년도 연구에 이르렀다.

3차년도 연구는 1차, 2차년도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음과 동시에 4차년도로 이어지는 교량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다. 즉 1차년도의 이론적 작업과 2차년도의 실천적 방안제시의 보완, 수정 및 심화를 통해 연구의 질적 도약을 이룸으로써, 4차년도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태동기에 해당하는 1차년도는 행복개념 및 청소년 행복개념의 구체화와 측정문항 연구 등의 기초연구 및 총론적 연구, 이에 추가하여 외국의 동향 분석이 수행되었다. 다음 성장기에 해당하는 2차년도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행복지표에 대한 구체적 개발 및 전국단위 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수준 진단과 청소년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등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지표개발과 측정의 결과에 대한 실천적 적용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가 이루어졌다. 이제 연구의 근본적인 도약기에 도달한 3차년도의 본 연구는 첫째, 2년 차 연구에서 개발한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및 지수화 과정을 심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 영향 및 친화도 측정을 위한 지표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은 물론 그 현실성과 실천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을 통해 확인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청소년 행복도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4차년도의 연구를 위해 전체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계성에 부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3차년도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연속성, 현실성, 효율성 그리고 구체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속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연계성이다. 연구의 진행과정이 전체 연구의 측면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지니기 위해선 각 해 연구는 전년도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어지고, 또 차년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4차년도 그리고 차후에 있을 후속연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숙고하였고, 그 결과 1, 2차 년도의 연구에는 아쉽게도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서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용이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서와 함께 설명을 추가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으로 추후 연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으로 현실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주관과 객관의 생산적인 융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과 행복한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객관적 행복조건의 조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라는 주제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의 행복을 염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필연성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2009년부터 6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한국방정환재단, 2014)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한국방정환재단이 실시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를 보면 주관적 행복지수가 74점으로 2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09년 64.3에 비하면 상승한 편이지만 아직 평균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2015년 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학생 1천8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OECD 평균 100점에 74점으로 회원국 중 22위를 기록하였다. 나아가 2015년 ‘The Good Childhood Report’에 따르면 요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15개국 10세, 12세 아동 5만 3천명을 조사한 결과 “행복하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았다(9.8%)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헤럴드 경제 2015. 4. 28). 따라서 청소년행복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지니는 당위성은 필연적 귀결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이며, 이 부분에서 청소년의 행복과 행복한 지역의 연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장기적 차원의 지역사회 행복지표 개발과 선정의 당위성은 정부가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가시성과 구체성, 나아가 현실성과 지속성을 갖춘 해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연구 역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와 정부정책을 비롯한 제반노력의 궁극적 목적은 청소년 행복이다. 행복한 사회의 문제는 정확히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행복한 사회와 행복한 청소년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부분별로 보면 양상이 다르다. 한국방정환재단의 조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행복지수 6개 영역 가운데 ‘주관적 행복’은 최하위였으나 ‘교육’(122.2점) 및 ‘행동과 생활양식’(128.8점)은 최상위였다. 그 뿐 아니라 ‘물질적 행복’(111.9점) 및 ‘보건과 안전’(111.1점) 영역도 평균보다 10점이나 높았다. 나아가 ‘가족과 친구관계’(98.9점)역시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전체행복지수에 비해선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환경, 특히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청소년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실제 ‘청소년이 그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을 행복하게 하는 지역사회는 ‘실제 그래야’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이 ‘실제 그렇게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과 지역사회의 객관적 행복조건이 지혜롭게 융합되어야 한다. 동시에 1,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된 행복지표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완, 및 심화를 통해 그 타당성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행복지표의 현실적 적용과 실천적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상 연구의 필요성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지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2차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

둘째, 1, 2차 년도에 적시되지 않은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서를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으로 추후 연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과 객관적 행복조건사이의 효율적 융합을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개별적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관계, 주관적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 등 9개 영역의 세부 지표에 대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차이가 있을 경우 결과분석을 통하여 영역별 실질적 정책제언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개별 지역사회로 하여금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이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학교 급별 차이와 지역 간 차이를 연계 종합하여 살펴봄으로 심화 고찰하고 16개 시도별 영역간 지역별 지수에 대해 심도있게 탐색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정책과제 자문을 실시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 정책 개발을 이루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 방안연구’의 3차 년도 연구로서 1차 년도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및 총론적 연구와 외국의 동향 분석이 수행되었고,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및 전국단위 조사,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수준 진단과 청소년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3차 년도에서는 청소년 행복지표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 및 친화적 환경 지표 추가 개발을 통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 및 청소년 행복도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효과성 측정과 추진전략을 개발하였다.

표 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계획 연구 추진 개요*

연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3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행복 수준 중심) ○ 청소년 행복관련 환경요인들의 실태진단 (전체영역) ○ 정책 제언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사업추진과 과제(안)에 대한 기준 및 발전방향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 전문가 등)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보고서 발간
2014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 (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속	○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15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수정,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 (17개 시도) ○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청소년제안 의견 보고서 발간 ○ 청소년이 행복도시 조성 추진 전략 연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운영(계속) ○ 지자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시군구 단위) ○ 지자체 시군구 단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1차 년도 실시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시행(1차 년도):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 및 운영 모형 개발

연도	분야	지속사업	연도별 사업
2016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 행복 지표 일부 추가, 행복 수준 측정 및 진단(17개 시도)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행복 증진 정책과제 개발 정책 현안 연구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2차 년도 3개 지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년도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시범사업 추가 및 시범지자체 확대 실시 청소년 행복도시 추진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1차 년도와 2차 년도 연구기간(2013-2022:10년)을 실행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심의 의견과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을 반영하여 3차 년도에 연구기간(2013-2016:4년)으로 수정(안)을 제시함.

본 연구의 3차 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제 II장에서는 3차 년도(2015년)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지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2차 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를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2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아동 삶의 질 지수 등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참조 지표를 제시하였고, 영역별 전문가들로부터 2차 년도 지표를 토대로 지표의 수정, 삭제, 추가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연구진회의를 통해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3차 년도 지표에서는 2차 년도에 작성된 영역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상위영역과 하위영역과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류 체계를 명료화하였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 실태 및 결정요인 탐색

제 III장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 실태 및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2015년 3차 년도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0,783명의 청소년, 학부모 2,349명, 교사 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관계, 주관적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 등 9개 영역의 세부 지표에 대해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부모 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경제적 수준, 도시규모, 종교유무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여 영역별 정책제언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9개 영역의 세부 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는 가족·부모·교우·교사·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가족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등의 집단별 차이 분석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대모니아, 건강영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아침식사율, 고카페인이용량 등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교육영역은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안전영역은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학교시설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 인지정도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활동영역은 놀이친구 접근성,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참여영역은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환경영역은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주택만족도, 경제 영역은 가정경제 만족도에 대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해 탐색하였다. 청소년 행복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회귀식의 추정에 기초하며, 개인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이외에도 8개 영역들에 대한 개별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설명변수로 회귀식에 포함함으로써 영역 간 중요도 혹은 정책수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청소년·학부모·교사의 인식 비교 분석

제 III장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0,783명의 청소년, 학부모 2,349명, 교사 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관계, 주관적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 등 9개 영역의 세부 지표에 대해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여 영역별 정책제언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정의와 측정

제 IV장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정의와 측정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첫째, 1, 2차 년도에는 지표에 대한 상세한 정의서가 없어 추후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지표에 대한 정의서를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였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대해 주관지표 지표 정의서에는 정의, 설문문항, 척도, 지표방향, 출처 등을 적시하였다. 객관지표 정의서에는 정의, 산식, 대상, 지표방향, 주기 및 구축년도, 단위, 출처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중 주관지표는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설문조사를 통해 16개 시도별, 도시규모별(시지역, 도지역),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객관지표에 대해 2014년 16개 시도 별4), 도시규모별(시지역, 도지역),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계열 현황을 제시하고 2010년~2014년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수 산출

제V장에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이용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지수화과정에서는 표준화 점수(z-score)를 활용하였다. 각 영역의 점수-즉, 영역지수는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의 수치를 이용해 도출되며, 종합지수는 다시 이들 영역지수를 이용해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학교급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간 차이,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집단(9점 혹은 10점)과 그렇지 않은 집단(0~4점)간의 학교급별 차이,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의 지역간 차이 등을 탐색하였다.

둘째, 영역별 지수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행복은 68개 세부 지표(변수)를 포함하여 이를 이용해 23개의 상위 지표를 측정한 후에 다시 이를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지수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지수를 측정하였다.

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세종시를 포함하여 17개 시도 현황을 제시하였음.

셋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6개 시도별 영역간 지역별 지수를 탐색하였다.

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정책과제 도출

제VI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은 9개 영역별 정책제언과 방법론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책과제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와 정책협의회 개최 및 정책과제 자문을 실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고도화를 위해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OECD 등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여성친화도시 평가지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등 다양한 선행연구 고찰하고, 정부의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의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을 위해 연구의 분석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설문지 개발 및 검토, 지표의 구성 및 고도화, 지수 개발, 지표와 관련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학계, 행정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1-2 자문회의 내용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공무원 5여명 • 지방 공무원 5여명 • 학계 20여명 • 현장전문가 15여명 	
2	청소년, 학부모, 교사 설문지 개발 및 검토		
3	최종 지표 개발 및 측정, 지수산출		
4	정책과제 개발		

3) 설문 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주관적 지표 조사를 위해 2015년 6~7월 사이 중화다단계집락표집을 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0,783명 청소년과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관련된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각종 사회 및 행정통계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지표들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통계자료원의 행정통계, 행정기관의 내부 자료 및 원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표 1-3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청소년조사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3 재학생 전체	
	교사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전체 (권역별·학교별 비례할당)	
	학부모	해당학생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권역별·학교별 비례할당)	
표집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교사 : 2014 교육통계 연보 • 학부모: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집 틀 없음 		
표본 수	청소년	10,783명	
	교사	361명	
	학부모	2,349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집방법: 변형비례, 중화다단계 집락표집 •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집단 면접 - 교사: 개인단위 1대 1 자기기입식 - 학부모: 학생을 통한 유치, 우편조사 		
조사 시기	2015년 5월 ~ 7월		
통합조사 참여	통합조사 참여함 (○) / 참여하지 않음 ()		

4)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계, 행정계,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년도(2014년)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OECD 지표선정기준과 CIW 지표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적합도 및 지표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조사대상 전문가	본원 전문가 Po에 등록된 학계, 현장, 행정계의 청소년 전문가 중 청소년 행복지표와 관련된 전문가	
선정방법	전문가 추천에 따른 개별 접촉	
조사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선정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시기	4월~5월	

5) 기타 연구 방법

- 정책협의회 개최
 -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협의회 개최
- 정책제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2회 개최)
 - 결과 발표 및 영역별 토론,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연구성과 발표회
 -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을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
- 청소년 삶의 질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학술논문 및 관련 정책분야 리뷰를 통한 전문가 선정, 초청
 - 국내 청소년 학계와의 연계를 통한 관련회의 개최

제 I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1. 국내·외 선행연구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과정

제 I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1. 국내 · 외 선행연구

1) 행복에 대한 결정요인

행복에 관한 연구는 삶의 질(한국사회학회, 2011; Erickson et al., 2010), 주관적 웰빙(Diener and Emmons, 1984), 심리적 안녕감(Ryff, 1989; Ryff and Keyes, 1995) 등의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Easterlin(1974)의 행복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후에 행복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이론적 혹은 실증적 연구들이 이뤄졌다.

먼저 행복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소득과 부(wealth)는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Sacks, Stevenson and Wolfers, 2010; Helliwell and Wang, 2011). 이들의 결과는 가구소득(로그)의 한 단위 증가가 행복감 혹은 주관적 웰빙을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에서 대략 0.3~0.5만큼 증가시킴을 제시한다. 국가별 자료 분석에 기초해 Stevenson and Wolfers(2008)는 주관적 웰빙과 1인당 GDP 간 정(+)의 관계와 더불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능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득의 증가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지점인, 만족점(satiation point)이 존재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실제 132개국에 대한 50년간의 자료분석결과는 국가의 부가 국민의 행복증진과 정의 관계에 있으며, 그 이유는 부유한 국가의 경우 특히 복지 인프라가 긍정적으로 정착되어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Sacks et al.(2010) 역시 소득수준의 상승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아짐을 보여준다. Helliwell and Wang(2011)의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소득은 행복감이나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감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걱정, 슬픔 혹은 노여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 행복에서 소득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전적 입장, 특히 1974년부터 인정되어온 이스털린

의 역설(Easterlin's paradox)에 대한 반론으로 보여진다. 주지하고 있는 바 이스털린의 역설은 행복과 부의 정(+)관계를 인정하고 부가 행복의 필요조건임을 인정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이론이다. 물론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런 대립적 입장에 대하여 절충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도 있다. 2002년과 2015년 각각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Daniel Kahneman과 Angus Deaton(2010)은 논문을 통해 일차적으로 소득 증대와 행복감의 증가가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2008~2009년 미국인 45만명을 분석한 결과 소득과 행복이 비례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관계는 연간 소득 7만5000달러(약 8700만원)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보다 더 많은 소득은 행복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견 이스털린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차별화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논문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을 감정적 삶의 질(Emotional well-being), 즉 행복감과 삶의 평가(Life evaluation)로 구분한다. 전자는 매일 일상의 기쁨, 스트레스, 슬픔, 화와 같은 경험 및 쾌와 불쾌를 야기하는 자극 등을 통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감정을 뜻하고 후자는 개인의 삶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뜻한다. 논문은 전자의 경우 7만 5000천 달러의 소득을 넘어서면 더 이상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속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고소득과 삶에 대한 평가는 비례하지만, 행복감은 아니며 저소득은 낮은 삶의 평가와 낮은 감정적 삶의 질 모두에 관계한다. 따라서 논문은 고소득 지향성의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관심과 배려의 필연성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업의 유무 역시 행복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실업의 행복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된다(Winkelmann and Winkelmann, 1995).⁵⁾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현실에 대한 적응으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실업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단기에 보다 크게 나타난다(Lucas, Clarke, Georgellis, and Diener, 2004). 더불어, 가정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된다(Kahneman and Krueger, 2006; Frey and Stutzer, 2008).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도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swald et al.(2003)은 주거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과 주택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거는 삶의 만족 나아가 행복에

5) Winkelmann and Winkelmann(1998)은 독일의 사회경제패널 자료를 이용해, 실업의 비금전적 비용의 중요성에 대해 검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고정효과가 통제된 이후에도 실업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요인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용진, 2013; 이재현·고봉성, 2012; 임근식, 2012; 임준홍·홍성효, 2014).

나아가 교육과 훈련의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이수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변화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제시한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Boarini et al.(2012)의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짐을 확인되었다. 또한, Blanchflower and Oswald(2004) 역시 학력(교육연수에 의해 측정)이 상승함에 따라 행복감이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관계측면을 보면,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혹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경우에 주관적 웰빙은 높게 나타난다. 특히, Kahneman and Krueger(2006)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는 소비기회의 증가에 대한 강조에서 사회적 관계의 증가에 대한 강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Helliwell and Wang(2011)은 주중(weekdays)과 비교해 주말(weekends)에 행복감, 즐거움 등으로 측정된 주관적 웰빙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주말의 주관적 웰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환경과 관련하여, 소음, 대기, 수질 등과 같은 자연환경 역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Weinhold, 2008; Silva, Johnstone and De Keulenaer, 2012).

마지막으로 장애의 문제와 관련하여 Lucas(2007)는 독일의 사회경제패널과 영국의 가구패널을 이용해 장기 장애(long-term disability)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주관적 웰빙에서의 적응(adaptation)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겪기 전에 행복감이 백분위에서 38번째로 낮은 독일 자료상의 한 개인은 “평균적인” 장애로 인해 행복감이 24번째로 낮아졌고 완전한 장애를 경험한 경우에는 13번째로 낮은 행복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준홍·홍성효(2014)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믿어졌던 필수적인 적응(inevitable adaptation)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처럼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또 사회적 존재이므로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술하였듯이 부, 직업, 주거환경, 학력, 관계, 주변환경 그리고 건강 등은 개인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성인의 경우 ‘자율적 주체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개인은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 사회, 특히 정부의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인은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행복을 쟁취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다르다. 청소년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는 적다. 부는 부모의 부가 될 것이고, 직업 역시 부모의 직업을 의미할 것이다. 주거환경이나 주변환경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청소년 스스로 결정짓는 것보다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학력의 경우도 부와 학력 대물림 현상이 있다는 점과, 또래와의 관계 역시 사회로부터 구조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경험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방식 역시 사회로부터 습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행복은 다분히 수동적이다. 엄밀히 말해 능동적이길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환경이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청소년의 행복

청소년의 행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연구는 최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먼저, 권세원 외(2012)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건강과 탄력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탄력성모형(adolescent resilience model)을 추정한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주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행동, 다양한 관계-즉,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지역사회관계-가 탄력성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다.

박소연과 이홍직(2013)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 학년, 양부모 동거여부, 부의 학력,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이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와 함께 건강상태와 일탈행위 요인-즉, 인터넷, 술, 담배, 약물 등-이 역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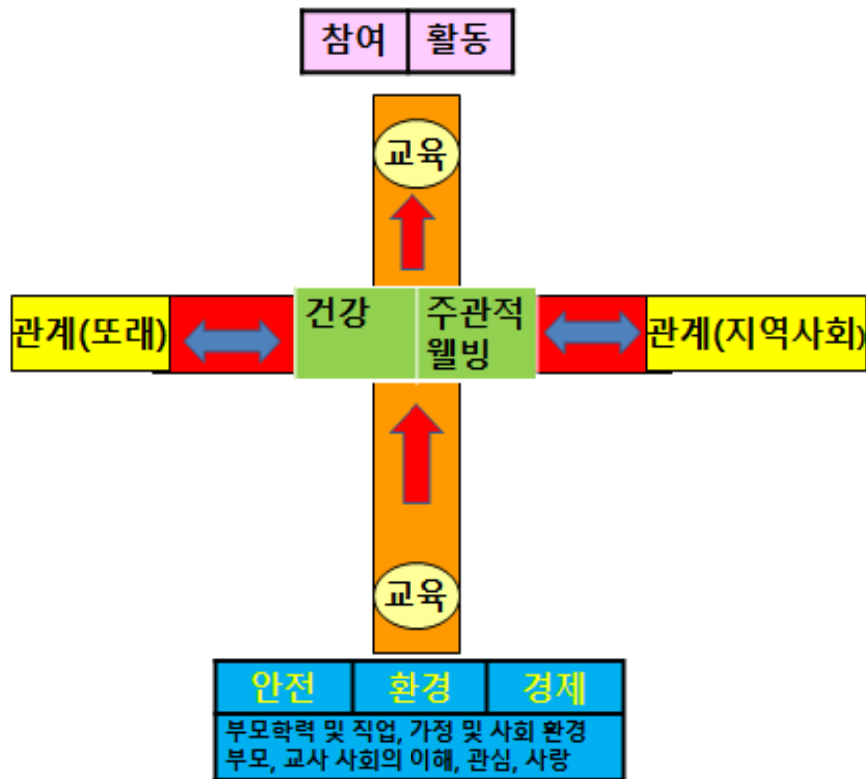
유미숙 외(2013)는 초중고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어떠한 요인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들은 아동 및 청소년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몰입, 건강과 외모, 그리고 여가 요인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와 미래에 대한 준비가 행복을 위한 우선적인 조건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진은설(2013)은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와 행복 간의 관계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적응유연성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이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김경미 외(2013)는 학교폭력 경험과 주관적 행복감 및 자살충동에 관한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경험유형-즉, 피해, 가해 등-에 상관없이 자살위험을 높이고 무경험의 경우에 비해 피해와 가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자살충동이 7.1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다만, 주관적 행복감에 있어서는 가해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피해와 가해 양자형 경험에 한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신영과 백혜정(2008)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한국청소년행복지수를 관련 문헌검토와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한다. 이들의 연구결과로서 한국청소년행복지수를 6개 영역-즉, 경제적 안녕, 자신에 대한 만족, 안전,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녕-에 걸친 총 40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한다.

이상 기존 연구들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한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 청소년의 행복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개인을 중심으로 수직과 수평의 십자형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1】 청소년의 행복감 결정요인

청소년의 행복감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십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행복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영역이 1) 안전, 2) 환경, 3) 경제이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청소년 개인의 결정권 안에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가 배려해주어야 할 영역이 된다. 다음 4) 교육영역은 마찬가지로 토대가 되는 세 영역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나, 동시에 청소년 개인의 개성과 특징 그리고 인생관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을 보면 십자구조의 토대로부터 나오는 교육영역과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교육영역이 동시에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5) 건강이나 6) 주관적 웰빙의 경우는 청소년 개인에 속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7) 관계영역은 또래와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중의 하나이다. 이상 영역들은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청소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일정한 활동과 참여를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이상 9가지 영역이 십자형태의 구조를 이루며 청소년 개인의 행복도를 본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1】 참조).

유념해야 할 점은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성인처럼 능동적으로 행복을 설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삶과 공동체 생활 나아가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일차적으로 받은 후 능동적인 자아실현의 단계로 이행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행복의 일차적 요인은 십자구조의 토대를 이루는 가족과 교사 그리고 사회적 환경 및 그 영역으로부터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그 중에서도 자아정체성의 출발점에 있는 가정이 무엇보다 핵심이라고 하겠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상태,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 여부라는 기본구조와 함께 부모양자사이의 관계, 교육의 방식,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인 교육방식 등 가정의 일차적인 제반사항을 시작으로 이차적인 학교와 교사의 배려와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되는 환경적 배려가 결국 청소년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성공관 내지 행복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학교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요인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직적 구조의 토대가 되는 영역들의 건전성과 성실성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 청소년의 개인영역인 건강과 주관적 웰빙에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외모, 성, 학년 그리고 성적 등도 역시 포함된다. 물론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나 성에 대한 선입견 내지는 평등과 차별의식 그리고 성적에 대한 강박이나 자유로움 등의 문제는 모두 성장과정에 있어서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로 이어지는 요인들,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받는 관계영역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또래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영역 역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반 관계 역시 토대가 되는 영역 들 특히 가정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임은 아들러(2009)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능동적 자기결정관이라 볼 수 있는 활동과 참여의 선택이 있다. 이는 물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하는 동력은 역시 십자구조의 하부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이 반드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의 선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의 존재이므로 오히려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을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며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의 배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해야 할 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행복은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을 포함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 스스로의 능동적인 실현보다는 수동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단계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존재이다. 나아가 ‘좋아하는 선택’과 ‘올바른 선택’ 사이의 갈림길에서 항상 후자를 택하지 않는 미성숙의 존재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청소년 행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형 구조를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행복지표의 청소년의 행복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일련의 작업이 요구된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크게 유니세프와 유네스코에서 개발된 지표이다. 유니세프의 CFC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이다. 유니세프는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친화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2010년 아동·청소년친화도시지표(Child Friendly Assessment Tool)를 개발하였다”(홍승애, 2012 재인용).

“유니세프의 평가지표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활용 목적이 있다”(UNICEF, 2010; 홍승애, 2012 재인용).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는 크게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Community Use’와 지방정부의 행정 조직, 예산, 아동권리옹호시스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도시 및 지역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Multiple Use’로 구분되어 있다”(홍승애, 2012 재인용).

“Community Use”는 주거환경, 건강과 서비스, 교육지원, 안전과 보호, 일·놀이·여가, 지역사회의 총 6개 영역의 84문항이다. ‘Multiple Use’는 정부구조, 특별한 분야 내 아동권리 보호의 2개 영역의 67문항이다”(홍승애, 2012 재인용).

표 II-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지표의 세부 문항 간 내용 비교

영역	세부 영역	내용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관련 지표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지표		
			A	B	C	D	E
건강	보건	필수예방접종	●	●	○	○	○
		의료기관, 응급시설	●				
		저체중아출생비율			○	○	○
		영아사망율			○	○	
		아동신체총실지수	●		○		○
	영양	규칙적 식사			○	○	○
		급식	●				
		영양교육	●				
		모유수유율				○	
	건강 행동	흡연, 음주, 약물남용, 에이즈, 10대임신 등 각종 건강관련 위험행동			○	○	○
		정신보건 상담센터	●				
		성교육 상담센터	●				
		건강, 영양, 발달 교육센터	●				
		부모교육 상담센터	●				
		구강관리, 건강검진 사후관리			○		

영역	세부 영역	내용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관련 지표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지표		
			A	B	C	D	E
건강	유해 환경	유해업소, 통행금지구역		●			
	교통 환경	통학로 주변 교통 안전	●				
		교통체계의 안전성	●	●			
		보행도로 안전성	●				
	주거 환경	안전한 식수	●				
		깨끗한 화장실	●				
		주거공간의 밀집도	●		○	○	
		난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도	●				
		집주변 깨끗한 환경	●		○	○	
	보호	청소년범죄, 폭행사건비율		●	○		○
		안전사고 사망률			○	○	○
		자살률				○	
		가정폭력, 학교폭력, 각종차별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기관	●				
	보호	다문화, 이주 아동을 위한 지원과 상담기관	●				
		아동보호서비스	●				
	교육	교육의 기회	보육, 초등, 중등 교육 진학률	●		○	
장애아동 교육수혜율			●				
학업성취도					○	○	
비고용, 무교육, 무훈련 청소년					○	○	
물리적 환경		학교의 식수, 화장실등 위생환경	●				
		급식실, 화장실, 학교건물외벽 등 학교시설의 안전도	●				
		책상, 걸상 등 연령에 맞는 물품	●				
		학급당 학생수	●				
학교 문화		체벌금지	●				
		남녀 차별 금지	●				
	다문화 존중	●					
	또래 간 따돌림 금지	●		●			
	교사와의 유대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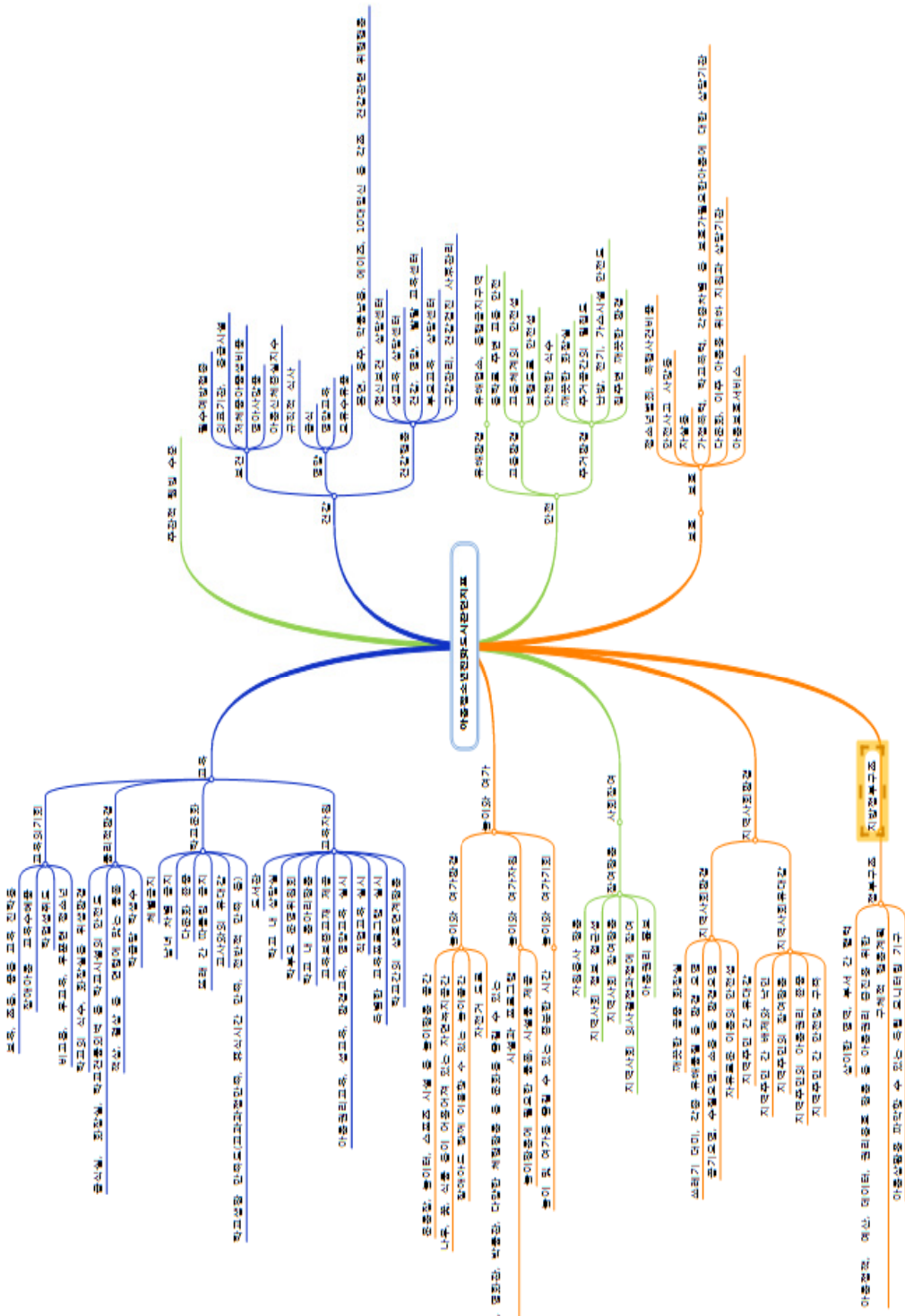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내용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관련 지표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지표		
			A	B	C	D	E
교육	학교 문화	학교생활 만족도(교과과정만족, 휴식시간 만족, 전반적 만족 등)	●		●	●	
	교육 자원	도서관	●				
		학교 내 상담실	●				
	교육 자원	학부모 운영위원회	●				○
		학교 내 동아리활동	●				
		교육보충교재 제공	●				
		이동권리교육, 성교육, 환경교육, 영양교육 실시	●				
		직업교육 실시	●		○		○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학교간의 상호연계활동	●				○		
놀이와 여가	놀이와 여가 환경	운동장, 놀이터, 스포츠 시설 등 놀이활동 공간	●	●			
		나무, 꽃, 식물 등이 어울어져 있는 자연녹지공간	●	●			
		장애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				
		자전거 도로	●				
	놀이와 여가 자원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다양한 체험활동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	●			
		놀이활동에 필요한 물품, 시설물 제공					○
놀이와 여가 기회	놀이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	●			○		
사회 참여	참여 활동	자원봉사 활동	●				○
		지역사회 정보 접근성	●				
		지역사회 참여활동	●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	●	○		
		이동권리 홍보	●				
	지역 사회 환경	깨끗한 공중 화장실	●				
		쓰레기 더미, 각종 유해물질 등 환경 오염	●	●	○	○	
		공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 환경오염	●	●	○	○	
자유로운 이동의 안전성	●	●	○				

영역	세부 영역	내용	아동·청소년 친화도시관련 지표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지표		
			A	B	C	D	E
사회 참여	지역 사회 유대감	지역주민 간 유대감	●	●			
		지역주민 간 배제와 낙인		●			
		지역주민의 참여활동	●				
		지역주민의 아동권리 존중	●				
		지역주민 간 안전망 구축	●	●			
지방 정부 구조	정부 구조	상이한 영역, 부서 간 협력	●				
		아동정책, 예산, 데이터, 권리옹호 활동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	●				
		아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독립 모니터링 기구	●				
기타		주관적 웰빙 수준					●

A: 유니세프 B: 유네스코 C: EU웰빙 D: OECD 웰빙 E: 유니세프 웰빙

●: 정성 지표, ○: 정량 지표, ◎: 정성, 정량 지표 혼용

* 출처: 홍승애(201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여 영역별 재구성



【그림 11-2】 국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지표(유니세프, 유네스코, EU웰빙, OECD웰빙, OECD웰빙, 유니세프 웰빙)

* 출처: 홍승애(201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마인드맵 구성)

표 II-2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지표범주 및 지표구성항목	지표 제한
생 존 권	1. 생활 수준	1) 아동·청소년의 빈곤율	1-1) 빈곤율(상대·절대), 차상위계층 여부
		2) 복지급여 수급여부	1-2) (아동·청소년)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연령대별 현황
		3) 생활필수품의 부족	1-3) 식품, 도서·학용품, 기초적인 가재도구의 부족
		4) 미성년 가구	1-4) 미성년 가구수 및 발생원인별 현황
		5) 보호자의 고용불안정	1-5) 가구 내 성인의 실직, 정규직 여부
	2. 주거 환경	1) 적절한 공간의 확보여부	2-1) 공간의 협소, 공동생활주택
		2) 설비 부족	2-2) 난방, 수도, 화장실, 전기 전화 설치 여부
		3) 불안정주거	2-3)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노숙, 유랑
		4) 주거환경의 안전성	2-4) 보행안전(보행환경, 야간보행 안전), 교통안전(어린이 교통 발생건수), 사회안전(무인감시시스템 설치율), 재해/재난 안전사고
		5)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2-5) 주거여건 만족도, 자연환경(녹지공원비율), 대기 수질·녹지 여건 만족도
	3. 건강	1) 사망률	3-1) 영아·아동·청소년사망률, 어린이사고·사망(총계, 원인·연령·장소별 현황)
		2) 안전사고	3-2) 아동·청소년의 교통사고, 안전사고(장소별, 품목별)
		3) 의료서비스이용	3-3) 의료시설(병상·의료인력 수), 입원·외래진료, 건강보험여부, 예방접종, 대기자명단에 있는 아동의 수
		4) 질병	3-4) 만성질환, 충치
		5) 영아건강	3-5) 저체중, 모유수유, 산전 진료, 임신 중 약물 사용
		6) 장애	3-6) 장애수당, 등록장애아의 수
		7) 생활습관	3-7) 식습관(규칙적인 식사, 결식률·결식이유), 영양상태, 비만도, 신체활동(규칙적인 운동여부)
		8) 정신건강	3-8) 자신에 대한 만족도, 아동의 행복도, 우울, 자살생각, 정신건강서비스
		9) 전반적 건강상태	3-9)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염려도, 건강문제로 인한 잦은 결석, 평소 피로 인식도,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

		지표범주 및 지표구성항목	지표 제안
보호권	1. 학대와 방임		1) 아동·청소년학대 발생률, 조치결과, 재신고현황, 방임 (방과후 방지)
	2. 사회적 보호	1) 아동·청소년 보호	2-1) 요보호아동(수, 발생유형, 보호유형), 청소년 쉼터-그룹홈 현황
		2)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2-2)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이용 현황
		3) 아동·청소년 상담	2-3) 아동·청소년 상담소 현황, 고민사항, 상담실적, 청소년긴급 전화 이용 현황
	3. 비행 및 위험 행동	1) 학교폭력	3-1) 학교폭력(아동·청소년 폭력, 따돌림): 실태 현황, 피해·가해 경험률, 단속현황
		2) 약물사용	3-2) 흡연, 음주, 환각물질, 마약류 등
		3) 범죄	3-3) 강도·절도·기물파손, 교정시설·소년원 보호관찰 현황
		4) 성적 위험	3-4) 성경험, 피임율, 10대 출산율, 미혼모 현황, 성병,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현황
		5) 유해매체·유해환경	3-5)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정화구역 내 업소현황
	발달권	1. 교육	1) 학업성취
2) 교육참여율			1-2) 취학률, 출석률, 졸업률, 유급률, 비활동(NEET) 청소년 비율
3) 공교육			1-3) 교육 관련 공적지출,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학교 만족도, 학교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특수교육 현황
4) 사교육			1-4) 사설학원수, 사교육비용·수준·접근성
2. 보육(양육)서비스		2) 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보육 서비스 현황(시설현황, 아동·청소년 현황, 이용률, 서비스의 질),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3. 문화와 여가		3) 지역 내 여가시설(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영화관람 시설)	
4. 가족환경		4) 한부모가정, 부모의 학력수준, 다문화가정 여부, 소유한 도서의 양	
5. 지역환경		5) 학교 밖 활동(방과후 교육 여부), 어린이 놀이터 (이용만족도, 개선점), 지역사회만족도,	
6.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6) 가족·부모·친구와의 관계/관계에 대한 만족, 이웃 간의 신뢰관계	
7. 아동·청소년의 사회생활과 참여		7) 자원봉사, 사회단체, 지역문화행사 참여율, 국제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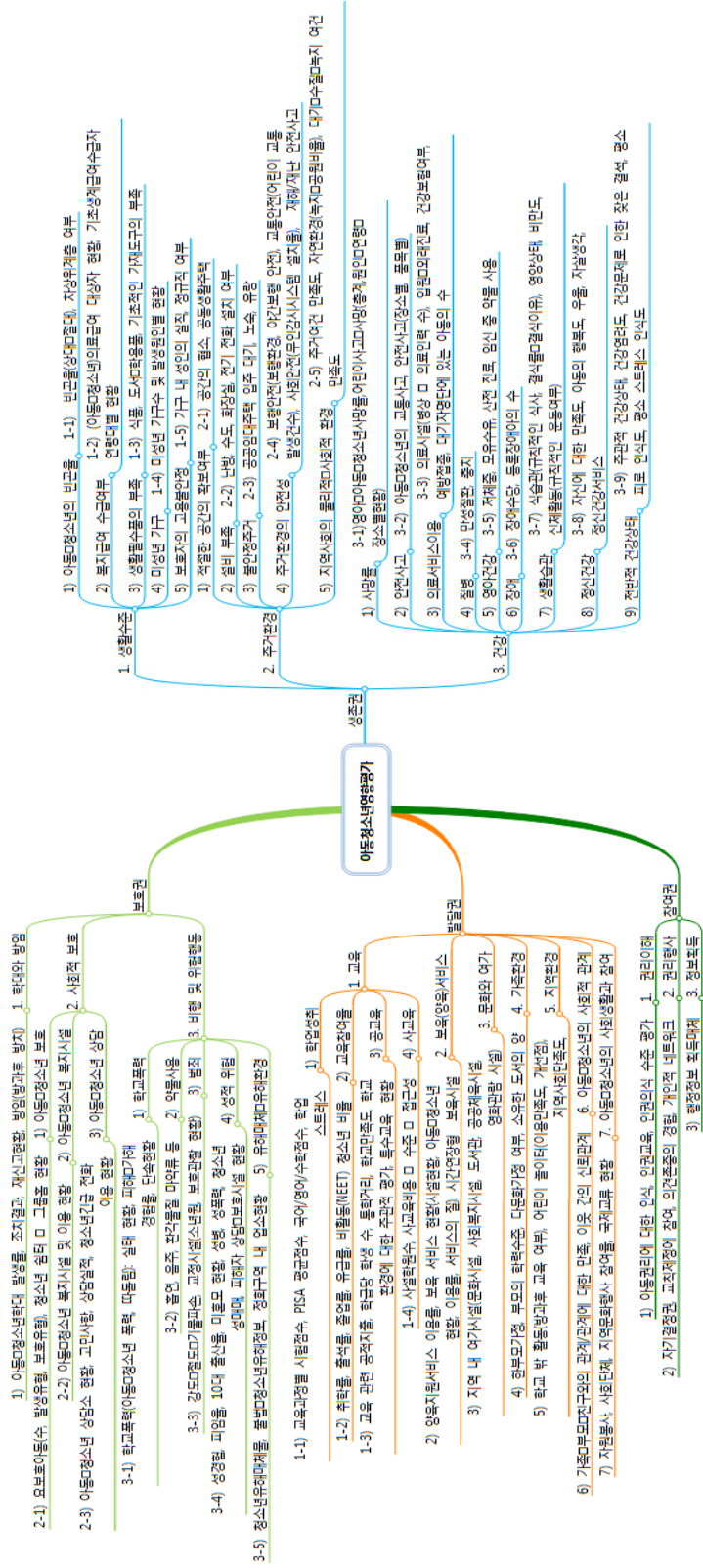
	지표범주 및 지표구성항목	지표 제안
참여권	1. 권리이해	1)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인권의식 수준 평가
	2. 권리행사	2) 자기결정권, 교칙제정에 참여, 의견존중의 경험, 개인적 네트워크
	3. 정보획득	3) 행정정보 획득매체

* 출처: 박영균, 조홍식(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재구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지표 체계는 4개 권리영역별(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항목을 다음과 같다(박영균, 조홍식, 2014).

생존권 영역은 생활수준, 주거환경, 건강 등 3개 지표범주를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었다. 보호권 영역은 학대와 방임, 사회적 보호, 비행 및 위험행동, 청소년의 경제활동으로 4개 지표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발달권 영역은 교육, 보육(양육)서비스, 문화와 여가, 가족환경, 지역환경, 아동의 사회적 관계, 아동의 사회생활과 참여로 7개 지표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박영균, 조홍식, 2014). 참여권 영역은 권리이해, 권리행사, 정보획득으로 3개 지표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비교를 하면 생존권에서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연령대별 현황과 공간의 협소, 공동생활주택, 교통안전(어린이 교통 발생건수), 사회안전(무인감시시스템 설치율), 주거여건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교통사고, 식습관(규칙적인 식사), 비만도, 신체활동(규칙적인 운동여부), 자신에 대한 만족도, 아동의 행복도, 주관적 건강상태,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가 경제영역, 안전영역, 환경영역, 건강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에 속한다. 보호권에서 학교폭력(아동·청소년 폭력), 피해·가해 경험률, 흡연, 음주는 안전영역, 건강영역에 속한다. 발달권에서 교육과정별 시험점수,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지역사회만족도, 가족·부모·친구와의 관계(관계에 대한 만족), 이웃간의 신뢰관계, 자원봉사는 교육영역, 환경영역, 관계영역에 속한다. 참여권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권은 참여영역에 속한다(박영균, 조홍식, 2014).

본 연구에서는 2차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위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청소년친화적인 환경 조성부분을 강화하였다.



【그림 II-3】 아동·청소년 영양평가 지표

* 출처: 박영규, 조흥식(2014). 아동·청소년 영양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인드맵 구성

(2) 영역별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수정보완을 위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를 관계, 주관적웰빙, 교육, 건강, 참여, 활동, 환경, 안전, 경제 등 9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참조하였다.

① 관계영역

표 II-3 관계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지수 연구	아동의 관계	가족 관계의 질	-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2013)
		또래 관계	1. 긍정적인 또래관계 정도 2. 또래관계 정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 가족·부모·친구와의 관계/관계에 대한 만족, 이웃 간의 신뢰관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관계		1. 부모님과의 관계 만족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3. 가족(부모, 형제자매)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4. 일주일 평균 가족과의 식사 횟수	
			5.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는 정도	
			6. 학교에 나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담임선생님 이외)이 있는지 여부	
			7.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	
			8.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따돌리지 않고 존중하는 정도	
			9.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10. 일주일간 교사와 평균 대화 시간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관계		11.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12. 학교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13. 친구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14. 친밀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	
			15. 이웃 사람들의 친절도	
			16.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족의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정도	
			17.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18. 이웃과의 모임(공부방, 종교단체, 조기 축구회, 지역사회 동호회 등) 참석 횟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관계	미시 체계	1. 가족 관계만족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2. 교우 관계만족도	
			3. 교사 관계만족도	
			4.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5. 일반신뢰도	
		중간 체계	1.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2. 부모-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3. 학교-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4. 일반신뢰도	
			5. 기관신뢰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1. 한부모 가정:한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한국방정환 재단(2014)
			2. 의붓 가정:의붓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부모관계	1. 함께 식사하기: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역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2. 함께 대화하기: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일상적 대활르 나누는 학생의 비율	
		친구관계	- 친구관계(친절한 급우관계):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관계	가족구조	1. 한부모 가구에 사는 아동비율	UNICEF (2007)
			2. 재혼가구에서 사는 아동비율	
		가족관계	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와 저녁식사(main meal)를 다고 보고한 아동비율	
			2.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대화시간을 할애한다고 보고한 아동비율	
또래관계	- 또래들이 '친절하고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아동비율			
From Rhetoric to Reality: Challenges in Using Data to report on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아동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1.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엄마와 쉽게 또는 매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한 0-17세 아동비율	Hea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Survey
			2.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빠와 쉽게 또는 매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한 0-17세 아동비율	
			3.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진다고 보고한 15세 아동비율	
			4.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교생활이 어떤지 논의한다고 보고한 15세 아동비율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와 저녁식사(main meal)를 한다고 보고한 15세 아동비율	
		또래와의 관계	1. 동성친구가 3명 이상이라고 보고한 10-17세 아동비율	
			2.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10-17세 아동비율	
애완동물	- 개발예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지역사회 유대관계		- 지역주민 간 유대감, 아동권리존중, 정보접근성,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정책결정과정 참여, 정책의 홍보,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의 관점 반영	UNICEF (2010)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② 주관적 웰빙

표 II-4 주관적 웰빙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행복감	1. 전반적인 행복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2013)
			2. 나에 대한 만족도	
			3.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학교에서의 만족도	1. 학업 스트레스 정도*	
			2. 학교 만족도	
가족에 대한 만족도	- 가족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 지역사회 만족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 II	주관적 웰빙		- 정서 경험,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주관적 행복	주관적 건강	-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의 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한국방정환재단 (2014)
		학교생활	-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개인 행복	1. 삶의 만족척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하는 비율 2.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전혀', '별로' 느끼지 못한 다고 생각하는 비율/주변상황에 '전혀', '별로' 적응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다소' 및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주관적 행복감	건강	- 자신의 건강을 '괜찮다' 또는 '나쁘다' 이상으로 평가한 아동 및 청소년(young people) 비율	UNICEF (2007)
		학교생활	- '학교를 무척 좋아하는' 아동·청소년 비율	
		개인의 행복	1. '생활만족도 척도'에서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 아동 비율 2. 본인의 행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한 아동 비율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드 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③ 건강 영역

표 II-5 건강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A child friendly cities (CFC)	건강		1.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UNICEF (2007)
			2.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와 구정물이 없다	
			4. 우리 동네 공기는 깨끗하고, 연기와 악취가 없다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지수 연구	건강	객관적 건강	1. 건강문제로 한 달에 일주일 이상 결석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Save the Children (2013)
			2. 만성질환 유병률*	
		주관적 건강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행동	1. 일주일 간 운동을 일주일에 4일 이상, 30분간 한 아동의 비율	
			2. 세 끼의 식사를 가정에서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	
	정신건강	- 아동의 우울 정도(내재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건강 환경		1. 집과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홍승애 (2013)
			2. 필수예방접종을 편리하게 지원 받고 있다.	
			3.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 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4. 건강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실 같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5. 10대 출산, 에이즈 등 출산,보건,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6. 흡연, 약물,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7. 우울, 공격성, 과잉행동, 자살 등 정서, 행동문제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8.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등 매체관련 중독을 예방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9.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가이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등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건강 환경		10.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모 니터링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홍승애 (2013)
			11. 학교주변 안심 먹거리(Green Food Zone) 구역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12. 결식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이 잘 지원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건강	사망률	- 영아·아동·청소년사망률, 어린이사고·사망 (총계, 원인·연령·장소별 현황)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안전사고	- 아동·청소년의 교통사고, 안전사고(장소별, 품목별)	
		의료서비스 이용	- 의료시설(병상·의료인력 수), 입원·외래진료, 건강 보험여부, 예방접종, 대기자명단에 있는 아동의 수	
		질병	- 만성질환, 충치	
		영아건강	- 저체중, 모유수유, 산전 진료, 임신 중 약물 사용	
		장애	- 장애수당, 등록장애아의 수	
		생활습관	- 식습관(규칙적인 식사, 결식률·결식이유), 영양상태, 비만도, 신체활동(규칙적인 운동여부)	
		정신건강	- 자신에 대한 만족도, 아동의 행복도, 우울, 자살 생각, 정신건강서비스	
		전반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염려도, 건강문제로 인한 자른 결석, 평소 피로 인식도, 평소 스트레스 인식도	
			1. 주관적 건강만족도	
			2.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	
			3. 집 주변의 화장실 청결 정도	
			4. 집 주변에 쓰레기 더미와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있는지 여부	
			5. 각종 약물(마약, 본드, 대마초 등) 이용 여부	
	6.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			
	7. 주중 평균 수면 시간			
	8. 정상체중률			
	9. 일주일간 아침식사 결식 비율			
	10. 청소년의 흡연율			
	11. 청소년의 음주율			
	12. 학교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13.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건강		14. 학교 식수대에 대한 만족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5. 학교 냉난방이 잘 되는지 여부					
			16. 학교에서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지 여부					
			17. 학교 화장실이 깨끗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8. 연간 개인 위생, 흡연, 음주 교육경험률					
			19. 성교육 경험률					
			20. 동네에서 피임기구(콘돔, 피임약 등)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21. 필요시 상담센터에서 각종 질병(빈혈, 감기, 우울증, 에이즈 등)에 관한 정보 및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22. 동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한 정도					
			23. 집 근처공기가 담배연기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					
			24. 동네 환경이 깨끗하며 동네에서 놀이를 해도 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					
			25. 청소년 자살률					
			26. 청소년 사망률					
			27.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 수					
			28.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센터 이용률					
			29.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수					
			30.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이용률					
			31. 응급의료시설의 수					
			32. 응급의료시설 이용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건강	건강 상태	1. 주관적 건강인지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 스트레스인지율	
							3. BMI	
						건강 결정요인	1. 아침식사율	
							2. 고카페인 이용량	
							3. 평균운동시간	
							4. 평균수면시간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건강	건강 결정요인	5. 청소년 흡연율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6. 청소년 음주율	
			7. 미디어 중독률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	건강 관련 행위	증진행위	1. 아침식사: 학교 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한국방정환 재단 (2014)
			2.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3. 과체중: 체질량지수(BMI) 25이상 비율	
			4. 운동: 지난1주일간1시간이상운동한,일수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건강과 안전	0-1세 아동의 건강	1. 출산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 영아수 2. 저체중아(2500g 미만)로 태어나는 영아비율	UNICEF (2007)
		예방보건 서비스	- 12~23개월 사이에 홍역, DPT,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는 아동비율	
		안전	- 10만명당 0-19세에 사고 및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 수	
A Child Well-Being Index at Small Area Level in England.	건강		1. 각 소지역(LSOA)에 거주하는 모든 0-18세 아동 대비 0-18세 아동이 응급입원한 비율	Hospital Episode Statistics for England 2005-2006 DWP, 2005
			2. 각 소지역(LSOA)에 거주하는 모든 0-18세 아동 대비 0-18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비율	
			3.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받는 0-16세 아동비율	
From Rhetoric to Reality: Challenges in Using Data to report on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아동의 건강	저체중아 출생	- 저체중아(2500g 미만)로 태어나는 영아비율 (출산 및 사산)	National Perinatal Reporting System Hospital In-patient Enquiry System Childcare Interim Dataset 등
		모유수유	- 병원 퇴원시점에서 (a) 모유수유만 하거나 (b) 모유수유를 병행하고 있는 신생아 비율	
		만성질환 및 입원	- 아동의 입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질환	
		장애	1. 지적장애로 등록된 18세 이하 아동 수	
			2. 신체 또는 감각장애로 등록된 18세 이하 아동 수	
		아동학대	1. 아동보호통보체계(Child Protection Notification System)를 통해 사정된 아동 수	
			2. 학대가 입증되었다고 통보된 아동 수 (substantiated notification)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건강	영아 사망률	- 출산아 1,000명 당 영아사망수	Kidsdata.org database (1995-2005)
		저체중아 출산 시 영아의 체중	- 저체중(<2,500g)으로 태어난 영아 비율	
		아동·청소년 사망률	- 1-24세의 아동/청소년 100,000명당 사망 수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률	- 0-20세 아동/청소년 100,000명 당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해로 입원한 수	
		천식 입원률	- 0-14세 아동 1,000명 당 천식 입원 수	
		임신 3개월까지 산전 진료를 받은 여성	- 임신 3개월까지 산전진료를 받은 여성의 비율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건강	출생 시 아동 건강	1. 영아 사망률(출산아 1,000명 당)	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6 OECD Health and EU Health for All Databases 2006 HNP stats 2005/06 HBSC(Currie et al, 2008)
			2. 저체중 출산아 (2.5kg 이하)	
		예방접종	1. 홍역 예방접종률 (12-23개월 아동 100명 당)	
			2. DPT3 예방접종률 (12-23개월 아동 100명 당)	
			3. Pol3 예방접종률 (12-23개월 아동 100명 당)	
		아동의 건강 행동	1. 하루에 한 번 이상 양치질하는 아동	
			2. 매일 과일을 먹는 아동	
3. 학교 가는 날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아동				
4. 아동의 신체활동				
		5. 과체중 아동(BMI)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Definition for the Measurement of Child Poverty - the case of Vietnam	건강		- 모든 2-4세 아동 대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2-4세 아동 비율	The Vietnam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6)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Core Indicators of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at the Municipal Level in Greenland	사망률 질병률 건강 상태	아동사망	- 0-17세 아동 100명 당 1년간 사망 아동 수	Off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National Register on Diagnosis (Ministry of Health) The Department of Community Dentistry and Graduate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HBSC Greenland (2006)
		주요 상해	- 0-17세 아동의 1년 간 병원 입원 발생 정도(손, 발, 머리 골절/ 감기/ 부식/ 화상/ 독극물/ 머릿속 출혈/ 자가 진단에 기초한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	
		성병 감염	- 15-17세 아동 100명 당 성병 감염으로 통보된 사례 수	
		총치	- 6세 아동 100명당 유치에 총치가 있는 아동 비율	
		건강문제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두 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주1회 이상 경험하고 있는 6-11학년(2008년부터 6-10학년) 아동 비율(두통, 위통, 등의 통증, 불안, 우울, 짜증 등)	
		주관적 건강수준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자신의 건강수준을 '나쁘다' 혹은 '괜찮다'로 평가한 6-11학년 (2008년부터 6-10학년) 아동비율	
		삶의 질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Catril 사다리 척도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평가한 6-11학년(2008년부터 6-10학년) 아동 비율	
Kids count	건강	저체중아	- 2.5키로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비율(the percentage of live birth weighing less than 2,500grams(5.5pounds):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Statistics,
		아동·청소년 100,000명 당 사망률	- 1세에서 19세 사이 아동·청소년의 100,000명 당 사망률 (the number of deaths, from all causes, to children between ages 1 and 19 per 100,000 children in this age range)	Death statistic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Statistics.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Kids count	건강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	- 18세 미만 아동 중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비율(the percentage of children under age 18 not covered by any health insurance)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알코올과 마약을 악용하는 청소년	- 12세부터17세 청소년들 가운데 약물에 의존하거나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된 청소년의 백분율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건강과 사회 서비스		- 집 주변 쓰레기·부적합한 생활용수, 담배연기와 악취, 아동의 건강·영양·발달 교육제공, 부모교육 실시, 아동상담센터, 정신보건상담센터, 응급의료서비스, 필수예방접종, 보육지원센터, 에이즈예방교육, 피임기구 접근성, 지역사회 내 의견반영기구설치	UNICEF (2010)
청소년친화마을	누구나 건강한 마을	영양·급식	- 규칙적인 식사, 영양상태, 학교주변 안전 먹거리 장소, 학교급식 모니터링 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건강	- 정상신체중실도, 만성질환유병률, 장애청소년지원 프로그램, 0교시수업과 야간자율학습미실시비율,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보급 및 공공의료진 수	
		정서·행동	- 정신건강 문제, 행동문제, 흡연 및 음주, 인터넷 게임중독	
		인프라	- 건강, 정서·행동문제 상담 및 예방센터, 건강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건강교육 호보, 전문인력 확보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④ 교육영역

표 II-6 교육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A child friendly cities (CFC)	교육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UNICEF (2007)
			2. 학교에서는 남녀를 동등하게 대한다	
			3. 나는 종이, 연필, 책, 학용품을 가질 수 있다	
			4. 나는 필요 시 선생님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는다	
			5. 학교에서 건강해지는 법을 배운다	
			6. 학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다	
			7.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아동권리협약을 배웠다	
			8. 학교에서 안전한 성생활을 가르쳐준다	
			9. 학교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10. 학교에서 시험, 운동, 휴식하고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11. 우리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수질 좋은 물이 넉넉하다	
			12. 우리 학교에는 손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이 있다	
			13. 우리 학교에는 내 고민과 기분을 안심하고 이야기할 어른이 있다	
A child friendly cities (CFC)	교육		14. 우리 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종교, 인종, 국적, 문화를 초월해 존중받는다	UNICEF (2007)
			15. 우리 학교는 장애우를 존중하고 차별없이 똑같이 대한다	
			16. 우리 동네와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다	
			17. 우리 학교는 차별없이 훈계한다	
			18. 학교 결정에 내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있다	
			19. 우리 학교나 지역 사회에 미래 직업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20. 우리 학교는 장애우들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제 II 장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교육	성취	1. 학업성취도(전반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Save the Children (2013)
			2. 학업성취도(국어)	
			3. 학업성취도(영어)	
			4. 학업성취도(수학)	
		참여	1. 학교 밖에서 정규 과목 외 다른 과목 배우기	
			2. 학교 밖에서 재미를 위한 책 읽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 환경	1.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	홍승애 (2013)	
		2.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빈곤, 다문화, 조손 가정, 시설보호 아동 등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5.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보충 수업자료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6. 장애 아동·청소년도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많다.		
		7. 학교시설은(운동장, 여가활동 공간 등)가족과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8. 학교의 교실 면적, 복도 면적, 책상, 의자 등 교실의 시설물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맞게 구비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9. 학교의 급식시설, 화장실 등 시설물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10. 학교는 채광, 난방, 환기, 전기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11. 학교는 학교운동장(바깥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다.		
		12. 집과 가까운 거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도서관이 있다.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이동· 청소년영향 평가	교육	학업성취	- 교육과정별 시험점수, PISA 평균점수, 국어/영어/수학 점수, 학업 스트레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교육 참여율	- 취학률, 출석률, 졸업률, 유급률, 비활동(NEET) 청소년 비율	
		공교육	- 교육 관련 공적지출,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학교만족도, 학교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특수교육 현황	
		사교육	- 사설학원수, 사교육비용 수준 접근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교육		1. 책 보유비율(200권 이상)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2.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	
			3.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 여부	
			4. 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용	
			5.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6.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7. 장애 청소년 취학률	
			8. 학업중도 탈락률	
			9. 학교급당 학생 수	
			10.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11.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수	
			12. 학교 내 상담소 설치 학교 수	
			13. 학교 내 설치된 도서관 수	
			14. 대안학교 수	
			15.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16.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교육	
	19. 지역아동센터 수			
	20.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21. 방과후아카데미 수			
	22. 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교육	교육 기회	1. 직업교육 훈련기회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2. 학교중단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1. 학교급당 학생수	
			2. 학업성취도	
			3. 사교육비 지출액	
		교육 효과	1. 교과과정 만족도	
2. 방과후 교육활동				
3. 프로그램 만족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	교육	학업성취	- 15세 학업성적: 일기시험점수/수학시험점수/과학시험점수	한국방정환 재단 (2014)
		교육참여	-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고용으로의 전환	-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교육 복지	15세 때 학업성취	1. 문해능력의 평균적 성취정도	UNICEF (2007)
			2. 수리능력의 평균적 성취정도	
			3. 과학능력의 평균적 성취정도	
		의무교육 초과비율	- 교육을 지속하는 15-19세 비율	
취업으로의 이행률	1. 교육, 훈련, 취업 중에 있지 않은 15-19세 비율			
	2. 저숙련직을 찾으려고 하는 15세의 비율			
A Child Well-Being Index at Small Area Level in England	교육	Key Stage 2	- Key Stage 2(11세) 시험점수의 2년 연속 평균	PLASC (2004-2005) NPD (2004-2005) DfE Absence rate data (2004-2005) Child Benefit (2004-2006)
		Key Stage 3	- Key Stage 3(14세) 시험점수의 2년 연속 평균	
		Key Stage 4	- Key Stage 4(16세) 시험점수의 2년 연속 최고평균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 8과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관련 자격 중 가장 좋은 점수)	
		중등학교 결석률	- 해당 지역의 2년 평균 학교결석률 대비 중등학교 결석률	
		재학률(staying on rate)	- 학교를 다니거나 진학 또는 훈련 중이 아닌 16세 이상 아동비율	
		고등교육 진학률	-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21세 이하 비율 (2002-2005 4년 평균)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A Geographical Profile of Chil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교육	교육적 결핍	1. 9-15세 아동 중 연령에 맞지 않는 학년의 아동 수	Census of South Africa (2001)
			2. 7-15세 아동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수 생활환경 결핍	
From Rhetoric to Reality:Cha llenges in Using Data to report on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아동의 교육	유아교육· 보육서비스 (ECEC)등록 ECEC의질 학교출석 학교등록/ 학업완료 교육적성취	- 다양한 보육교육(ECEC)서비스를 이용하는 13세이하 아 동수 개발 예정 지난해 학교를 20일 이상 결석한 아동수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아동 비율(The percentage of children leaving primary school by destination)	Quarterly National Household Survey National Educationa l Welfare Board Statistics
			- PISA의 국제 문해능력 척도에서 15세 아동평균점수	
			- PISA의 국제 수리능력 척도에서 15세 아동평균점수	
			- PISA의 국제 과학능력 척도에서15세아동평균점수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교육적 성취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코스 수료	- 공립학교 12학년 졸업자 중 UC(University of California 혹은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입학에 필요한 코스를 "C" 학점 이상으로 수료한 비율	Kids data. org data base (1995-2005)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	- 고등학교에서 중도 퇴학한 아이들의 비율을 인종/민족에 따라 추정(한 해 동안 수집한 자료에 기반하여 4년 내 중도퇴학할 아이들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	
		보육서비 스를 받는 아동	- 부모가 일하는 0-13세 아동 중 인가받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 비율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교육	성취	1. 문해능력 점수	OECD PISA(2008) OECD Educationa taGlance(2 007)2006 WorldDevel opmentIndi cators
			2. 수리능력 점수	
			3. 과학능력점수	
		참여/등록	1. 모든 교육기관의 종일제 혹은 시간제 학생 (15-19세 청소년비율)	WorldDevel opmentIndi cators
2. 학령 전 아동들의 학교등록률(전체 아동 대비)				
비활동 청소년	- 15-19세의 비활동 청소년(NEET) 비율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Definition for the Measurement of Child Poverty - the case of Vietnam	교육		1. 모든 5세 아동 대비 학령전 교육을 받지 않는 5세 아동 비율	The Vietnam MICS(Multi pleIndicator Cluster Survey) (2006)
			2. 모든6-10세 아동 대비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6-10세 아동 비율	
			3. 모든11-15세 아동 대비 중등 교육(lower secondary school)을 받지 않는11-15세 아동비율	
			4. 모든11-15세 아동 대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11-15세 아동 비율	
Kids count	교육	유아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 3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에 다니지 않은 아동의 비율	U.S.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읽기가 능숙하지 않은 4학년 학생들	- 4학년 학생 중에 NAEP가 측정한 읽기 능력이 능숙하다고 판정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	
		수학이 능숙하지 않은 8학년 학생들	- 8학년 학생 중에 NAEP가 측정한 수학 능력이 능숙하다고 판정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교육 자원		- 교육혜택, 통화로, 교과과정만족도, 남녀차별여부, 교육보충교재제공여부, 교사의 신뢰 및 유대감 만족도, 영양교육, 환경보호교육, 아동권리교육, 성교육, 교사와의 의사소통, 학교물리적환경의 안전성, 충분한 휴식시간, 안전한 식수 공급, 화장실위생, 학교상담사, 다문화 존중, 학교도서관, 학교의회참여, 체벌금지, 학부모운영위원회, 또래 간 따돌림 및 폭력, 직업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프로그램	UNICEF (2010)
청소년친화 마을	배움의 누리는 마을	교육기회	- 학교 중도탈락률, 학업성취 수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학습동아리 구성,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1)
		교육연계	- 학교급간의 상호연계활동, 하교와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 인재나눔 프로그램 운영, 공공 및 민간 도서관	
		진로·직업	-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공시설 연계직업 체험 학습 기회	
		인프라	- 교육 및 진로관련 지원센터 배움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관련 전문인력 확보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⑤ 안전영역

표 II-7 안전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A child friendly cities(CFC)	안전과 보호		1. 나는 버스나 기타 교통편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UNICEF (2007)
			2. 나는 우리 동네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 안전하다	
			3.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도움을 구할 곳을 알고 있다	
			4. 우리 동네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다	
			5. 나는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6. 학교 교육을 받을 곳이 있다	
			7. 나는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곳을 안다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위험과 안전	폭력행동	1. 학교 폭력 피해(폭력) 아동의 비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Save the Children (2013)
			2. 학교 폭력 피해(따돌림) 아동의 비율*	
	위험행동	1. 아동의 지위비행 정도*		
		2. 아동의 범죄비행 정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안전과 보호 환경		1.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상수도, 목욕시설, 화장실, 난방 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	홍승애 (2013)
			2.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의 구조물(외벽, 가스시설, 전기 시설, 부엌, 조리도구 등)은 내가 생활하기에 위험하지 않다.	
			3.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한방에서 4명이상이 함께 생활 하지 않는다.	
			4. 쓰레기 더미 유해물질, 담배연기, 약취, 공기오염, 소음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5. 아동·청소년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이 잘 되어 있다.	
			6. 아동·청소년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잘 설치되어 있다.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안전과 보호 환경		7. 건물과 시설, 공원 등에는 아동·청소년을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의자,화장실, 손잡이, 발판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	홍승애 (2013)
		8. 건물과 시설, 공원 등에는 장애 아동·청소년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엘리베이터,화장실, 의자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		
		9. 나무와 숲 등 자연환경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동물과도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11. 버스운전기사는 승하차 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배려한다.		
		12. 아동·청소년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선이나 시간표 등 대중교통정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13.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아동·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손잡이, 의자, 승,하차 발판 등)이 마련되어 있다.		
		14. 버스승강장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5. (내가 자주 이용하는 길의)보도는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서 다칠 위험이 적다.		
		16. 차도와 인도는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		
		17. 아동·청소년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다.		
		18.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예:가로등의 간격과 가로등의 밝기, 색깔)이 설치되어 있다.		
		19.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에 적당하다.		
		20. 학교주변은 스쿨존 알림판, 안전패스, 교통안전 표지판 등 안전을 위한 장치마련이 되어 있다.		
		21. 신체장애 아동·청소년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안전과 보호 환경		22. 학교 주변, 집 주변 등에서 성인용 광고 전단지과 성인용 광고판을 쉽게 볼 수 없다.	홍승애 (2013)
			23. 학교 주변, 집 주변 등에 단란주점, 모텔,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가 가까이에 없다.	
			24. 학교 주변, 집 주변에 술에 취한 사람, 폭력을 행사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없다.	
			25. 아동,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어렵다.	
			26.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이 잘되고 있다.	
			27. 아동·청소년이용시설(PC방, 노래방, 멀티방, 보드게임방, 청소년전용클럽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규(심야시간 출입금지,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고용 금지 등)을 준수하고 있다	
			28. 유해매체(음란인터넷사이트, 케이블 방송의 성인용 영화 광고, 인터넷 도박게임 등)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이 잘 되어 있다.	
			29. 아동학대, 방임, 유기, 성폭력, 가정폭력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되고 있다.	
			30.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31. 취약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보호권	학대와 방임	- 아동·청소년학대 발생률, 조치결과, 재신고현황, 방임(방과후 방치)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사회적 보호	1. 아동·청소년보호: 요보호아동(수, 발생유형, 보호유형), 청소년쉼터·그룹홈현황	
			2.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2-2)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및 이용 현황	
			3. 아동·청소년 상담 2-3) 아동·청소년 상담소 현황, 고민사항, 상담실적, 청소년긴급 전화 이용 현황	
		비행 및 위험 행동	1. 학교폭력: 학교폭력(아동·청소년 폭력, 따돌림): 실태 현황, 피해·가해 경험률, 단속현황	
			2. 약물사용: 흡연, 음주, 환각물질, 마약류 등	
3. 범죄: 강도·절도·기물파손, 교정시설(소년원, 보호관찰 현황)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보호권	비행 및 위험 행동	4. 성적 위험: 성경험, 피임율, 10대 출산율, 미혼모 현황, 성병,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현황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5. 유해매체·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정화구역 내 업소현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안전		1.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2. 가정 내 사고(화재, 가스누출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3. 불량주택비율	
			4. 학대, 방임 발생률	
			5. 학교에서 실제적 체벌을 가하지 않는지 여부	
			6.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정도	
			7.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도	
			8.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9. 혼자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0.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1. 학교폭력 발생률	
			12. 배움터지킴이 운영단 수	
			13. 고화질 CCTV 설치 비율	
			14.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 받거나 구타를 당할 때 동네 이웃 어른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5. 종교,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들로부터 존중 받는 정도	
			16.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17. 동네 나쁜 어른이나 동네 나쁜 형들의 부당한 폭력 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18. 혼자 집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19. 집 밖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20. 동네의 도로와 보도, 신호등, 건널목 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안전		21. 만약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아는 정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22.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동네 환경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23.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24.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정도	
			25. 동네를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26.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수	
			27.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단속 실적	
			28.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	
			29. 청소년 성폭행피해 발생률	
			30. 청소년 성매매 발생률	
			31. 청소년 범죄율	
			32.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률	
			3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 건수	
			34.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안전	사고	1.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2. 학교시설 안전도	
			3. 위기상황대처 능력	
			4. 유해환경	
			5. 청소년 도로사고율	
			6.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범죄	1. 범죄 안전도	
			2. 청소년 범죄피해율	
			3.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4. 학교폭력 발생률	
5. 청소년 범죄율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1. 영아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출산 1,000명당) 2.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한국방정환 재단 (2014)
		예방접종	-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예방접종(12~23개월), 소아마비 예방접종(12~23개월), DTP3 예방접종(12~23개월)	
		사고사	-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10만 명당)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건강과 안전	0-1세 아동의 건강	1. 출산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 영아수 2. 저체중아(2500g 미만)로 태어나는 영아비율	UNICEF (2007)
		예방보건 서비스	- 12~23개월 사이에 홍역, DPT,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는 아동비율	
		안전	- 10만명당 0-19세에 사고 및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 수	
A Geographical Profile of Chil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적절한 보호	적절한 보호의 결핍	1. 부모 모두 살아있지 않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아동 수 2. 소년소녀 가장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수	Census of South Africa (2001)
Care and Freedom: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of Children's Well-Being in Germany	보호와 자유 사이의 균형	가정, 학교, 여가 시간에서 아동의 시간사용	- 성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보호의 지표로 평가	the second World Vision Survey "Children in Germany 2010"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	- 혼자 보내는 시간: 자기결정 및 자유의 경험	
		개인적인 네트워크	- 만나는 사람(성인, 또래)의 수와 만나는 장소	
			-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5가지 질문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험	- 다른 사람들이 아동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여부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1995-2005	안전/행동문제	십대 출산률	- 15-19세 소녀 1,000명당 출산 수	Kidsdata.org database (1995-200)
		청소년 범죄 체포율	- 10-17세 1,000명 당 청소년범죄로 인한 체포 수	
		청소년 약물과 알코올 체포율	- 10-17세 1,000명 당 약물 및 알코올로 인한 체포 수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위험과 안전	폭력과 폭력행동	1.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신체적 싸움에 관련 되었던 아동 2. 지난 2개월 동안 최소 2번 이상 다른 친구를 따돌린 경험이 있는 아동	2005/06 HBSC(Currie et al, 2008)
		아동사망	- 아동 100,000명 당 19세 미만 아동 사망수	
		위험 행동	1.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자청소년 1,000명 당 출산수)	
			2. 성관계 경험이 있는 15세 청소년	
			3.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세 청소년	
			4. 주 1회 이상 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	
5. 최소 2번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13-15세 청소년				
6. 대마초 흡연 경험이 있는 15세 청소년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Definition for the Measurement of Child Poverty - the case of Vietnam	사회 통합과 보호		- 모든 0-4세 아동 대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0-4세 아동 비율	The Vietnam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6)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Core Indicators of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at the Municipal Level in Greenland	건강결정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아동의 생활양식 결정요인	출산시 저체중	- 출산아 100명 당 2,500g 이하 몸무게로 태어난 영아의 비율	Off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HBSC Greenland (2006)
		임신 중 담배 노출	- 출산아 100명 당 임신 중 어머니의 흡연으로 담배에 노출된 아동 비율	
		임신	- 15-17세 소녀 100명 당 임신비율	
		사탕이나 청량음료 섭취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사탕이나 청량 음료를 매일 먹는다고 보고한 6-11학년(2008년부터 6-10학년) 아동 비율	
		매일 흡연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한 15세 아동 비율	
		음주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음주로 취한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다고 보고한 15세 아동 비율	
		대마초 흡연 시도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음주로 취한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다고 보고한 15세 아동 비율	
		신체활동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신체활동을 하루 1시간 이하로 한다고 보고한 6-11세 아동 비율	
		콘돔 사용	-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15-17세 아동 비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안전과 보호		- 교통체계의 안전성, 독립적 이동성, 범죄 및 폭력으로 부터 안전성, 통학로의 안전성, 깨끗한 환경, 아동보호 기관설치여부, 다문화존중사회, 청결한공중화장실, 자전거도로, 약물금지, 폭력예방센터	UNICEF (2010)
청소년친화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물리적 환경	- 가정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청소년시설 안전도, 가로등, 보안등 수, 밝기 적정성, 안전한 보행로 확보, 학교주변 교통안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유해환경	- 청소년 비행발생, 성범죄로부터 안전, 유해업소 수, 통행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범위	
		위기응급 상황	-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학교폭력 상담 서비스, 체벌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 마을주민 안전보호망 운영	
		인프라	- 가정폭력지원 및 예방센터, 학교폭력, 체벌, 차별 지원 및 예방센터, 안전관련 기관 연계체계구축, 안전생활 보호, 전문인력확보, 안전모니터링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 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⑥ 활동(여가)

표 II-8 활동(여가)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A child friendly cities(CFC)	놀이와 여가		1. 우리 동네에는 놀이, 시합,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UNICEF (2007)
			2.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3. 우리 동네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있다	
			4. 우리 동네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5. 나는 축제, 문화행사, 타종교에 참여 또는 체험할 수 있다	
			6. 나는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단체 또는 활동에 참가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놀이와 여가 환경		1.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즐기며 활동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전용 시설이 있다.	홍승애 (2013)
			2. 아동·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공공기관)에는 다양한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3. 아동·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 아동·청소년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 시설(유스센터,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5. 집과 가까운 거리에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자유롭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넓고광활한 놀이 공간이 있다.	
			6.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 공간 및 공원이 있다.	
			7. 집과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있다.	
			8.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놀이와 여가 환경		9. 지역사회 내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즐기고,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픈된 장소가 있다.	홍승애 (2013)
			10. 성인의 감독 없이 아동·청소년끼리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다.	
			11. 놀이터나 놀이 공원 주변에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깨진 유리 등 더럽고 위험한 물건이 잘 정비되어 있다.	
			12. 놀이시설은 차도와 분리되어 있어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13. 놀이시설물은 녹슬거나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았다.	
			14.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도 함께 놀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이 있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문화와 여가		- 지역 내 여가시설(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영화관람 시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활동		1.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2.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의 충분도	
			3. 교과 외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간	
			4. 동네에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	
			5. 동네에서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	
			6.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7. 동네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공원, 산, 들, 바다, 녹지 공간 등)이 가까운 곳이 있는지의 여부	
			8. 학교이외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여부	
			9.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	
			10.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활동		11. 청소년 수련시설 경험률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12. 인구 1인당 녹지, 공원 면적	
			13. 도서관 수	
			14. 도서관 이용률	
			15. 체육시설 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활동	활동 상태	1.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2. 문화여가 지출비용	
			3. 동아리활동 참여율	
			4. 녹지 접근성	
			5. 문화예술시설 수	
			6. 청소년 활동시설 수	
	활동 기반	-	놀이친구 접근성	
	활동 인식		1. 여가활동 시간인식	
			2. 여가활동 공간인식	
3. 여가활동 용돈인식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건강한 행동		1. 아침을 먹는 아동의 비율	UNICEF (2007)
			2. 날마다 과일을 먹는 비율	
			3. 신체적으로 활발한 비율	
			4. 과체중 비율	
	위험행동		1. 15세 아동 흡연비율	
			2. 2번 이상 취한 적이 있는 아동비율	
			3. 대마초를 사용하는 비율	
			4. 15세까지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	
			5.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	
			6. 10대 출산율	
	폭력경험		1. 지난 12개월 동안 싸움을 한 적이 있는 11세, 13세, 15세의 비율	
			2. 지난 2개월간 또래 괴롭힘(왕따)을 당했다고 보고한 아동비율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Definition for the Measurement of Child Poverty – the case of Vietnam	여가		1. 모든 0-4세 아동 대비 집에서 만들거나 구입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0-4세 아동 비율	The Vietnam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6)
			2. 모든 0-4세의 아동 대비 그림책이나 아동용 책을 1개도 가지고 있지 않는 0-4세 아동비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일·놀이·여가		- 아동노동금지, 접근처 안전한 놀이공간,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 충분한 놀이와 여가 시간, 장애 아도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 녹지공간, 지역 사회 문화행사	UNICEF (2010)
청소년친화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활동여가	-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참여, 동아리활동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활동 및 여가시간·공간	-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방과 후 활동 및 여가 시간, 학교 활동 및 여가 공간, 지역사회 활동 및 여가 공간,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공공기관 활용도, 야외 녹지공간 확보	
		인프라	- 활동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센터, 활동 및 여가 기관 연계체계 구축, 활동 및 여가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기구 보급, 활동 및 여가관련 전문인력 확보	
		인프라	- 건강, 정서·행동문제 상담 및 예방센터, 건강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건강교육 홍보, 전문인력 확보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⑦ 참여 영역

표 II-9 참여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A child friendly cities(CFC)	참여와 시민권		1. 나는 우리 동네 변화 프로젝트를 돕는다	UNICEF (2007)
			2. 나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획이나 결정에 참여한다	
			3. 정부는 내 생활이나 동네에 관한 나의 생각을 묻는다 시 의회, 시장 등	
			4. 공영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아동 권리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5. 나는 인터넷에 접속해 우리 동네 너머 일어나는 일들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6. 나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내 의견을 전달한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사회 참여		1.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홍승애 (2013)
			2. 아동·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구정활동등)에 참여하고 있다.	
			5.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행사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7.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	
			8. 내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인종, 문화,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 없이 서로 잘 지낸다.	
			9.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	
			10. 내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원봉사, 자조모임, 동호회 등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한다.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사회 참여		11. 내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아동·청소년을 배려하고 권리는 존중해주며 친절하게 대해준다.	홍승애 (2013)
			12.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나서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13. 내가 사는 지역주민들은 주민끼리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4.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애착감을 느낀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참여	참여권	1. 권리이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인권 의식 수준 평가 2. 권리행사: 자기결정권, 교칙제정에 참여, 의견존중의 경험, 개인적 네트워크 3. 정보획득: 행정정보 획득매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발달권	- 아동·청소년의 사회생활과 참여: 자원봉사, 사회단체, 지역문화행사 참여율, 국제교류 현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참여		1.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2.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3.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4. 학교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는지 여부	
			5.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의사 표명 정도	
			6.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대표가 학교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7.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지 여부	
			8.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허용 여부	
			9.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10.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11.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참여		12.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3. 청소년이 시 의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 유무	
			14.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15. 우리 동네는 문화, 종교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축제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정도	
			16. 자원봉사 참여율	
			17.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율	
			18. 국제교류활동 참여율	
			19. 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참여	참여 결정요인	1. 아동권리 인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 징계소명권	
			3. 학칙개정권	
		관용성	-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역능성	
		사회 참여	1.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도	
2. 자원봉사 참여율				
Spatial Trends in the Risk of Social Exclusion for Australian Children: Patterns from 2001-2006	정치 및 조직 참여	가구 내 교육	- 가구 구성원 중 대졸자(complete year 12)가 아무도 없는 가구에 사는 0-15세 아동비율	2001 and 2006 Censuses of Population and Housing by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친화 마을	함께 참여하는 마음	의견존중	- 상급학교 선택 시 자녀의 의견 반영,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반영,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견 반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표현의 자유	- 교내 징계 시 학생의 의사 소명권 보장,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학교 운영회 학생참여 보장, 교내 자치회 운영,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 및 상담 기관	
		사회참여	- 봉사활동 및 참여위원회, 온라인·미디어매체활동,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국제교류 활동	
		인프라	- 참여관련지원센터, 참여기관연계체계구축, 참여 관련정보의접근성, 전문인력확보, 청소년참여 모니터링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⑧ 환경 영역

표 II-10 환경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주거 환경	주거 과밀	- 주거 과밀 상황의 아동 비율*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2013)
		지역사회 환경	1. 거주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2. 아동의 방과후 방치율*	
			3. 사회적 자본(지역생활환경) 정도	
거주지 불안정	- 거주지 불안정 상황의 아동 비율*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주거 환경	적절한 공간의 확보여부	- 공간의 협소, 공동생활주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설비 부족	- 난방, 수도, 화장실, 전기 전화 설치 여부	
		불안정주거	-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 노숙, 유랑	
		주거환경의 안전성	- 보행안전(보행환경, 야간보행 안전), 교통안전(어린이 교통 발생건수), 사회안전(무인감시시스템 설치율), 재해/재난 안전사고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 주거여건 만족도, 자연환경(녹지공원비율), 대기·수질·녹지 여건 만족도	
		가족환경	- 한부모가정, 부모의 학력수준, 다문화가정 여부, 소유한 도서의 양	
		지역환경	- 학교 밖 활동(방과후 교육 여부), 어린이 놀이터 (이용만족도, 개선점), 지역사회만족도,	
A Child Well-Being Index at Small Area Level in England.	환경	환경의 질	1. 공기의 질: 공기의 질 종합지표	Geography Department at Staffordshire University, European Environment Agency's CLC database 등
			2. 자연환경: 녹지와 삼림지대의 비율; 새의 종류 수	
			3. 도로안전: 16세 이하 아동 1,000명당 심각성에 따라 가중치를 둔 사고의 수	
		환경에 대한 접근성	1. 스포츠 및 여가기회의 이용가능성: 11-16세 아동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스포츠와 여가시설의 평균 수	
2. 학교까지의 거리: 4-10세 아동이 초등학교까지 가는 평균 거리 11-16세 아동을 위한 중등학교				
A Geographical Profile of Chil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생활 환경	생활환경 결핍	1. 주택 안이나 마당 또는 200m 이내에 수도시설이 없는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수	Census of South Africa(2001)
			2. 환기시설이 있는 재래식 화장실 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아동 수	
			3. 전기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사는 아동 수	
			4.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가구에 사는 아동 수	
			5. 판잣집에 사는 아동 수	
			6. (가구구성원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했을 때) 과밀한 가구에 사는 아동 수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주거 및 환경	과밀거주	- 아동 가구의 인원 당 방의 개수	EU-SILC (2006)
		환경	- 지역 내의 범죄가 문제라고 보고한 아동가구	
		주거문제	1. 지역 내 공해 또는 먼지가 문제라고 보고한 아동 가구	
			2. 주거 문제가 1개 이상 보고된 아이가 있는 가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주거 환경		- 안전한 식수, 깨끗한 화장실, 생활용수공급의 안전성, 주거공간의 견고성, 집 주변 유해환경	UNICEF (2010)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⑨ 경제 영역

표 II-11 경제 영역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친화적 환경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물질적 상황	물질적 결핍	1. 물질적 결핍 상황에 있는 아동의 비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Save the Children (2013)
			2.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정도	
			3. 소유한 재화(1): 재화목록 중 가지고 있지 못한 물건의 수*	
			4. 소유한 재화(2): 재화목록 중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의 수*	
			5. 소유한 도서의 양이 10권 미만인 아동의 비율*	
		빈곤	- 차상위 빈곤가구 비율*	
	경제활동 미참여	- 부모의 경제활동 미참여 비율*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생활수준	아동·청소년의 빈곤율	- 빈곤율(상대·절대), 차상위계층 여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복지급여 수급여부	- (아동·청소년)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연령대별 현황	
		생활필수품의 부족	- 식품, 도서·학용품, 기초적인 가재도구의 부족	
		미성년 가구	- 미성년 가구수 및 발생원인별 현황	
		보호자의 고용 불안정	- 가구 내 성인의 실직, 정규직 여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경제		1.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 한부모 가정 비율	
			3. 실업률	
			4.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자료를 제공받는지 여부	
			5. 무상급식지원 예산	
			6. 방과 후 교육 지원 예산	
			7. 아동 빈곤율	
			8.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9. 근로청소년비율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경제		10.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3)
			11. 총인구대비 청소년 인구 구성비	
			12.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예산	
			13. 청소년 담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 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경제	소득/소비	1. 가정경제만족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4)
			2. 지역경제수준	
			3. 지니계수	
		복지	- 사회복지지출 비율	
		주거	- 통학소요시간	
고용	- 경제활동 참가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한국방정환 재단 (2014)
		미취업 가정	-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결핍	1.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6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2.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 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물질적 풍요		1. 소득부조를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DWP (2005), HMRC (2005)
			2. 소득에 기반한 구직수당을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3. 최저생계보장연금(Pension Credit)을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4. (주택수당을 제외한) 소득이 주거비용을 포함한 중위 소득(the median before housing cost)의 60% 이하이면서 아동세액공제를 받고 근로세액공제를 신청한	
			5.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6. (주택수당을 제외한) 소득이 주거비용을 포함한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소득부조, 소득기반 구직수당, 최저생계보장연금 또는 근로세액공제의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아동세액공제를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연구제목	영역	지표종류	지표설명	Data Source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가족의 경제적 안녕	빈곤 아동	-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가구에 사는 0-17세 아동 비율	Kidsdata.org database (1995-2005)
		중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	- 중위소득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비율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물질적인 상황	결핍	1. 소비재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아동가구(비율)	2006 EU-SILC 2006 OECD PISA (2008)
			2. 경제적 부담을 보고하는 아동 가구(비율)	
			3. 교육적인 물건이 6개 이하인 학생 (비율)	
			4. 집에 책이 10권 이하인 학생 (비율)	
빈곤	1. 0-17세 빈곤 아동(이전 후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2. 0-17세 아동의 상대적 빈곤격차(중위소득의 60%)			
실직	- 직업이 없는 가구에 살고 있는 0-17세 아이들			
Kids count	경제적 안녕	아동 빈곤	- 가구소득이 미국 빈곤선의 100% 이하인 가족의 구성원인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높은 주택 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	- 세전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백분율	
		고용이 불안정한 부모를 둔 아동	- 부모 모두가 일년내내 풀타임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 16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일을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	

* 출처: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지표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재구성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과정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타당화

(1) 지표의 작성 및 선정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에 대한 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도 1차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과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총 6개 영역 157개의 항목(객관지표 69개, 주관지표 88개)으로 구성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를 구성([그림 II-3])하였다. UNICEF의 청소년 행복지표를 기본 바탕으로 설정하고, 여러 선행연구 종합하여 지표를 통합한 것이다. 지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교사 및 공무원 등 현장전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장근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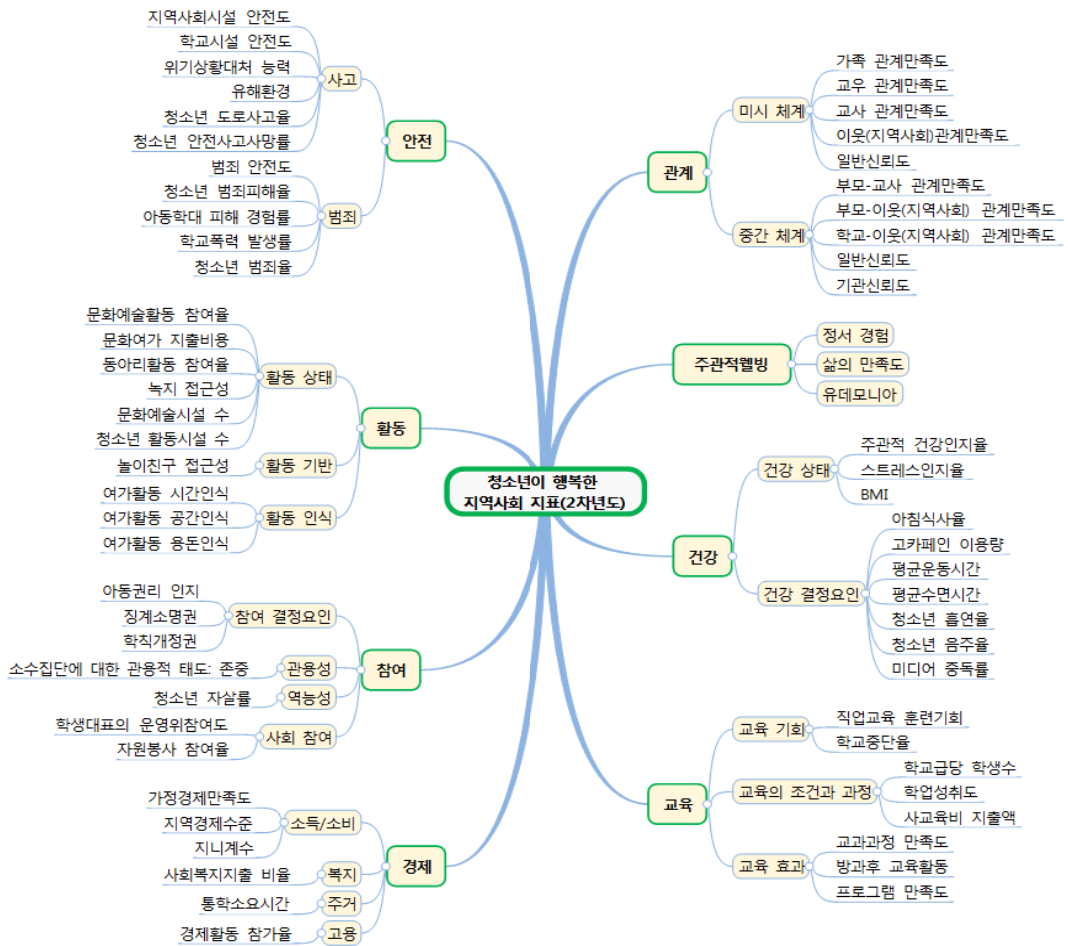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차별도)

관계	건강	교육	안전	활용	참여	경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역할의 역할 정도 가족회의 역할 정도 가족으로 함께해오던 정도 일요일 캠프 가족회차 식사 할 수 있는 정도 가족이름이 있는 아이들 가족이름이 없는 아이들 어제나 내일엔 그 만큼 생생한 기억을 남기며 교외활동의 대안 제공 정도 학교 밖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고 참여하는 정도 다른 기관에서 대안 제공 받을 수 있는 시간 학생 인권 관련 민원 수 학교에서 관리되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학교의 프로그램 관련 민원 수 24시간 응급 대응 가능 시간 학교의 위급 대응 능력 학교의 위기대응 능력 학교의 위기대응 절차 학교의 위기대응 교육 학교의 위기대응 훈련 학교의 위기대응 점검 학교의 위기대응 평가 학교의 위기대응 개선 학교의 위기대응 강화 학교의 위기대응 협력 학교의 위기대응 공유 학교의 위기대응 확산 학교의 위기대응 정착 학교의 위기대응 문화 학교의 위기대응 생태 학교의 위기대응 진화 학교의 위기대응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학교에서의 안전 훈련 학교에서의 안전 점검 학교에서의 안전 평가 학교에서의 안전 강화 학교에서의 안전 협력 학교에서의 안전 공유 학교에서의 안전 확산 학교에서의 안전 정착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학교에서의 안전 생태 학교에서의 안전 진화 학교에서의 안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학교에서의 안전 훈련 학교에서의 안전 점검 학교에서의 안전 평가 학교에서의 안전 강화 학교에서의 안전 협력 학교에서의 안전 공유 학교에서의 안전 확산 학교에서의 안전 정착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학교에서의 안전 생태 학교에서의 안전 진화 학교에서의 안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학교에서의 안전 훈련 학교에서의 안전 점검 학교에서의 안전 평가 학교에서의 안전 강화 학교에서의 안전 협력 학교에서의 안전 공유 학교에서의 안전 확산 학교에서의 안전 정착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학교에서의 안전 생태 학교에서의 안전 진화 학교에서의 안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학교에서의 안전 훈련 학교에서의 안전 점검 학교에서의 안전 평가 학교에서의 안전 강화 학교에서의 안전 협력 학교에서의 안전 공유 학교에서의 안전 확산 학교에서의 안전 정착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학교에서의 안전 생태 학교에서의 안전 진화 학교에서의 안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학교에서의 안전 훈련 학교에서의 안전 점검 학교에서의 안전 평가 학교에서의 안전 강화 학교에서의 안전 협력 학교에서의 안전 공유 학교에서의 안전 확산 학교에서의 안전 정착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학교에서의 안전 생태 학교에서의 안전 진화 학교에서의 안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학교에서의 안전 훈련 학교에서의 안전 점검 학교에서의 안전 평가 학교에서의 안전 강화 학교에서의 안전 협력 학교에서의 안전 공유 학교에서의 안전 확산 학교에서의 안전 정착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학교에서의 안전 생태 학교에서의 안전 진화 학교에서의 안전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학교에서의 안전 훈련 학교에서의 안전 점검 학교에서의 안전 평가 학교에서의 안전 강화 학교에서의 안전 협력 학교에서의 안전 공유 학교에서의 안전 확산 학교에서의 안전 정착 학교에서의 안전 문화 학교에서의 안전 생태 학교에서의 안전 진화 학교에서의 안전 완성

【그림 II-4】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 출처: 장영연·이현연·배성로·성은모·이용교·홍승애·김균화(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망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바탕으로 마인드맵 구성

“2014년 2차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지표를 토대로 총 8개 영역 64개의 항목(객관지표 30개, 주관지표 34개)으로 구성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를 [그림 II-4]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지표는 개인 단위 자기응답식 지표와 2차 자료를 활용한 객관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1차년도(2013년)에 개발된 157개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타당도의 재점검, 지표 체계의 영역 구성 검토 등의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그림 II-5】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 출처: 김지경·하헌주·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지역사회 진단·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마인드맵 구성

2015년 3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는 2차 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를 기본 틀로 설정하고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2차 연도의 지표를 토대로 총 9개 영역 68개의 항목(객관지표 37개, 주관지표 31개)으로 구성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를 구성하였다. 이 지표는 개인 단위 자기응답식 지표와 2차자료를 활용한 객관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2차 년도(2014년)에 개발된 64개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1회에 걸쳐 지표의 적합도를 OECD 지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표의 우선순위, 지표의 삭제, 수정 및 지표의 추가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타당도의 재점검, 지표 체계의 영역 구성 검토 등의 영역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2차년도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가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2 : 영역별 전문가 의견조사지 참조). 전문가 선정시 행복에 관한 연구 수행 경험 및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영역별 지표 집필 수행 경험 등이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3차 년도(2015년)에서는 청소년의 행복 지표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2차 년도 청소년 행복지표를 보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2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아동 삶의 질 지수 등 국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9개 영역별로 분류(<표II-2> ~ <표II-10>)하여 참조 지표를 제시하였고, 영역별 전문가에게 2차 년도 지표를 토대로 지표의 수정, 삭제, 지표 추가 등을 질문하였고, 그에 따른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회의와 연구진회의를 통해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2차 년도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지표의 삭제 및 추가, 수정 시 고려하도록 하였다. OECD 지표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① 결과(outcome)지표, ② 시계열 측정, ③ 가변성, ④ 보편성, ⑤ 영역 간 중복, ⑥ 간결성, 그리고 ⑦ 적용성이며 지표 선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는 ◎ : 매우 적합함, ○ : 대체로 적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분류된다(이희걸 외, 2012).

나아가 조사된 지표들의 통합체계를 정립하였는데 이를 위해 특히 Moore and Theokas(2008)의 ‘좋은 아동지표의 원칙’을 고려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전체성과 양면성, 균형이나 반복성,

그리고 실용성과 이해가능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봉주 외, 2013).

둘째, 3차년도 지표에서는 2차년에 작성된 지표영역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상위영역과 하위영역과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류 체계를 명료화하였다. 2차년도 지표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지표의 이론적 틀로 삼고 지표의 영역이나 지표 구성을 하였다. 전문가회의에서 생태체계이론에 중간체계에서의 만족도는 아이들의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어 관계영역에서 중간체계부분을 삭제하였다. 중간체계는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기 보다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중간체계의 역할은 미시와 거시체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조건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 교사 만족도를 청소년에게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이 많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영역 분류 및 지표 구성에 참조하기 위해 CIW(Canada Index of Well-being) 지표 분류 기준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함께 체크하도록 하였다. CIW(Canada Index of Well-being) 지표 분류 기준은 ①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은 인간이 개인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②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은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은 한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생산 가능한 자원 ③ 생태체계자원(ecosystem resources)은 환경만을 포함하는 웰빙을 위한 자원으로 구분(하였고 지표 분류 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체크하였다(이희길, 심수진, 박주언, 배현혜, 2013).

셋째, 지표 선정과정을 1, 2차 년도를 토대로 비교(<표 II-11> 참조)하였는데에 2차년도 지표에 대해 지표반영은 ○으로 표시하고 지표가 변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표명 수정, 신규, 영역이동으로 구체적 변경 사유를 표시하고 지표의 성격도 객관, 주관지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2차년도 지표를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라고 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계영역

관계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에서 삭제된 지표는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부모-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학교-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이다.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부모 관계만족도, 가족간의 대화시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다. 추가된 이유는 관계의 만족도 측정은 결과 분석이 애매할 수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2차년도의 미시체계일반신뢰도가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로, 거시체계 일반신뢰도와 거시체계

기관신뢰도가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로 지표 명이 수정되었다. 관계영역 지표는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보호자)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 관계 만족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정부), 가족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으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9개에서 3차년도 10개로 1개 증가했다.

② 주관적웰빙영역

주관적 웰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의 정서경험이 정서상태로 지표명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이유는 2차년도의 정서경험의 질문지 내용이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에서 3차년도에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셨습니까?’로 수정하였으므로 지표명도 정서경험에서 정서상태로 수정하는것이 타당하다. 주관적 웰빙영역 지표는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등 총 3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지표 3개에서 3차년도 3개로 개수의 변화는 없다.

③ 건강영역

건강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 지표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질병유무이다. 2차년도의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주관적 건강상태로, 스트레스 인지율이 스트레스 정도로, 미디어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률로 지표명이 수정되었다. 2차년도에서 참여영역에 있던 청소년 자살률을 건강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건강영역의 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아침식사율,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BMI, 인터넷 중독률, 질병유무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10개에서 3차년도 12개로 2개 증가했다.

④ 교육영역

교육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에서 삭제된 지표는 직업교육 훈련기회,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만족도이다.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진로교육만족도이다. 2차년도의 학교중단율이 학업중단율로, 학교급당 학생수가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로 지표 명이 수정되었다. 교육영역의 지표는 사교육비 지출액, 교과과정 만족도, 학교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진로교육만족도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8개에서 3차년도 6개로 2개 감소하였다.

⑤ 안전영역

안전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삭제되었다. 1차년도의 고화질 CCTV 설치 비율이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인지정도로 지표명이 수정되었다. 2차년도의 유해환경이 지역사회유해환경안전도로 지표명이 수정되고, 환경영역으로 이동되었다. 안전영역의 지표는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시설 안전도,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 인지정도, 범죄 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청소년 교통사고사상률, 청소년범죄피해율, 청소년안전사고 사망률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11개에서 3차년도 10개로 1개 증가하였다.

⑥ 활동영역

활동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3차년도에서 청소년 지도사 비율이 추가되었다. 2차년도의 여가활동 시간 인식이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로, 여가활동 공간 인식이 여가활동 공간 만족도로, 문화예술시설 수가 문화예술시설 비율로, 청소년활동시설 수가 청소년활동시설 비율로, 여가활동 용돈인식이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로 지표명이 수정되었다. 2차년도의 녹지접근성을 환경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활동영역의 지표는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놀이친구 접근성,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10개에서 3차년도 10개로 개수의 변화없다.

⑦ 참여영역

참여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의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가 학생대표의 운영의 참여기회로 지표명이 수정되었다. 2차년도의 청소년 자살률이 건강영역으로 영역이동하였다. 참여영역의 지표는 아동권리 인지,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자원봉사 참여율,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으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7개에서 3차년도 6개로 1개 감소하였다.

⑧ 환경영역

환경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주택만족도이다. 지역사회유해환경 안전도는 안전영역에서 환경영역으로 이동했고, 통학소요시간은 경제영역에서 환경영역으로 이동했고, 녹지접근성은 활동영역에서 환경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환경영역의 지표는 지역사회

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 통학소요시간, 녹지접근성으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0개에서 3차년도 4개로 4개 증가하였다.

⑨ 경제영역

경제영역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혜비율이다. 통학소요시간은 경제영역에서 활동영역으로 이동하였다. 경제영역의 지표는 가정경제만족도, 실업률, 지니계수,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국민기초생활수혜비율로 구성되었다. 2차년도 6개에서 3차년도 7로 1개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년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보호자)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 관계 만족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정부), 가족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 총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주관적웰빙 영역에서는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 등 총 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건강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아침식사율,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BMI, 인터넷 중독률, 질병유무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교육영역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액, 교과과정 만족도, 학교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진로교육만족도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안전영역에서는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시설 안전도,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범죄 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청소년 교통사고사상률, 청소년범죄피해율, 청소년안전사고 사망률 등 총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활동영역에서는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놀이친구 접근성,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등 총 1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참여영역에서는 아동권리 인지,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자원봉사 참여율,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환경영역에서는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 통학소요시간, 녹지접근성 등 총 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경제영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 실업률, 지니계수, 지역경제수준,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 활동 참가율, 국민기초생활수혜비율 등 총 7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3차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는 9개 영역 68개의 항목(객관지표 37개, 주관지표 31개)으로 구성하였다(<표Ⅲ-22>, 【그림 Ⅲ-5】 참조).

표 II-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선정과정 요약과 비교(1, 2, 3차년도)⁶⁾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만족도	X				주관
	가족과의 관계만족도	O	가족 관계 만족도	O	가족 관계 만족도	주관
	가족(부모, 형제(자매)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X				주관
	일주일 평균 가족과의 식사 횟수	X				주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X				주관
	학교에 나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외)이 있는지 여부	X				주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	X				주관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따돌리지 않고 존중하는 정도	O	교우 관계 만족도	O	교우 관계 만족도	주관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X				주관
	일주일간 교사와 평균 대화 시간	X				주관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X				주관
	학교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X				주관
	친구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X				주관
	친밀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	X				주관
	이웃 사람들의 친절도	X				주관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족의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정도	X				주관

6) 출처: 장근영 외(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김지경외(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과제를 요약정리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관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X				주관
	이웃과의 모임(공부방, 종교단체, 조기 축구회, 지역사회 동호회 등) 참석 횟수	X				주관
		O (신규)	교사 관계만족도	O	교사 관계만족도	주관
		O (신규)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O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주관
		O (신규)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삭제		주관
		O (신규)	부모-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삭제		주관
		O (신규)	학교-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삭제		주관
		O (신규)	미시체계 일반신뢰도	O (지표명 수정)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	주관
		O (신규)	거시체계 일반신뢰도	O (지표명 수정)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통합)	주관
		O (신규)	거시체계 기관신뢰도	O (지표명 수정)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통합))	주관
				O (신규)	부모 관계만족도	주관
				O (신규)	가족간의 대화시간	객관
				O (신규)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객관
				O (신규)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객관
	총 18개		총 9개 지표		총 10개 지표	
주관적	자아존중감	X				주관
웰빙	자아탄력성	X				주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주관적 웰빙	자기효능감	X				주관
		O (신규)	정서경험	O (지표명 수정)	정서 상태	주관
		O (신규)	삶의 만족도	O	삶의 만족도	주관
		O (신규)	유데모니아	O	유데모니아	주관
	총 3개 지표		총 3개 지표		총 3개 지표	
건강	주관적 건강만족도	O	주관적 건강인지율	O (지표명 수정)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	O	스트레스 인지율	O (지표명 수정)	스트레스 정도	주관
	집 주변의 화장실 청결 정도	X				주관
	집 주변에 쓰레기 더미와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있는지 여부	X				주관
	각종 약물(마약, 본드, 대마초 등) 이용 여부	O	고카페인 이용량	O	고카페인 이용량	주관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	O	평균운동시간	O	평균운동시간	객관
	주중 평균 수면 시간	O	평균수면시간	O	평균수면시간	객관
	정상 체중률	X				객관
	일주일간 아침식사 결식 비율	O	아침식사율	O	아침식사율	객관
	청소년의 흡연율	O	청소년 흡연율	O	청소년 흡연율	객관
	청소년의 음주율	O	청소년 음주율	O	청소년 음주율	객관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X				주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X				주관
	학교 식수대에 대한 만족도	X				주관
	학교 냉난방이 잘 되는지 여부	X				주관
	학교에서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지 여부	X				주관
학교 화장실이 깨끗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X				주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건강	연간 개인 위생, 흡연, 음주 교육 경험률	X				객관
	성교육 경험률	X				객관
	동네에서 피임기구(콘돔, 피임약 등)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X				주관
	필요시 상담센터에서 각종 질병(빈혈, 감기, 우울증, 에이즈 등)에 관한 정보 및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X				주관
	동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한 정도	X				주관
	집 근처공기가 담배연기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	X				주관
	동네 환경이 깨끗하며 동네에서 놀이를 해도 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	X				주관
	청소년 자살률	영역 이동	청소년 자살률 (참여영역으로 이동)	O (영역 이동)	청소년 자살률 (참여영역에서 이동)	객관
	청소년 사망률	X				객관
	신체 및 정신건강 (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관련 상담센터 수	X				객관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 센터 이용률	X				객관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 센터 수	X				객관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 센터 이용률	X				객관
	응급의료시설의 수	X				객관
	응급의료시설 이용률	X				객관
		O (신규)	BMI	O	BMI	객관
		O (신규)	미디어 중독률	O (지표명 수정)	인터넷 중독률	객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건강				○ (신규)	질병유무	객관
	총 32개 지표		총 10개 지표		총 12개 지표	
교육	책 보유비율(200권 이상)	X				주관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정도	X				주관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여부	X				객관
	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용	○	사교육비 지출액	○	사교육비 지출액	객관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직업교육 훈련기회	삭제		주관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	교과과정 만족도	○	교과과정 만족도	주관
	장애 청소년 취학률	X				객관
	학업중도 탈락률	○	학교중단율	○ (지표명 수정)	학업중단율	객관
	학교급당 학생 수	○	학교급당 학생수	○ (지표명 수정)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객관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X				객관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수	X				객관
	학교 내 상담소 설치 학교 수	X				객관
	학교 내 설치된 도서관 수	X				객관
	대안학교 수	X				객관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X				주관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	X				주관
	도서관 수	X				객관
	도서관 이용률	X				객관
	지역아동센터 수	X				객관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X				객관
방과후아카데미 수	X				객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교육	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X				객관
		O (신규)	방과후교육활동	삭제		주관
		O (신규)	프로그램 만족도	삭제		주관
		O (신규)	학업성취도	O	학업성취도	객관
				O (신규)	진로교육만족도	주관
	총 22개 지표		총 8개 지표		총 6개 지표	
안전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O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통합)	O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통합)	주관
	가정 내 사고(화재, 가스누출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X				주관
	불량주택비율	X				객관
	학대, 방임 발생률	O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O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객관
	학교에서 실제적 체벌을 가하지 않는지 여부	X				주관
	학교 학생들이 피부색,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정도	영역 이동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참여영역으로 이동)			주관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도	X				주관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O	학교시설 안전도	O	학교시설 안전도	주관
	혼자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통합)		지역사회시설 안전도(통합)	주관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O	유해환경(통합)	영역 이동/ 지표명 수정	지역사회 유해환경안전도 (환경영역으로 이동, 통합)	주관
	학교폭력 발생률	O	학교폭력 발생률	O	학교폭력 발생률	객관
	배움터지킴이 운영단 수	X				객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안전	고화질 CCTV 설치 비율	X		0 (지표명 수정)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인지정도	주관
	다른 사람으로 부터 학대 받거나 구타를 당할 때 동네 이웃 어른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X				주관
	종교,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 들로부터 존중 받는 정도	X				주관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X				주관
	동네 나쁜 어른이나 동네 나쁜 형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0	범죄 안전도(통합)	0	범죄 안전도 (통합)	주관
	혼자 집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통합)		지역사회시설 안전도(통합)	주관
	집 밖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X				주관
	동네의 도로와 보도, 신호등, 건물목 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통합)		지역사회시설 안전도(통합)	주관
	만약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아는 정도	0	위기상황 대처능력	0	위기상황 대처능력	주관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동네 환경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X				주관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유해환경(통합)	영역 이동/ 지표명 수정	지역사회 유해 환경안전도 (환경영역으로 이동, 통합)	주관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정도	X				주관
	동네를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 하다고 느끼는 정도		범죄 안전도 (통합)		범죄 안전도 (통합)	주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수	X				객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단속 실적	X				객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안전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	○	청소년 도로사고율	○ (지표명 수정)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객관
	청소년 성폭행피해 발생률	○	청소년 범죄 피해율(통합)	○	청소년 범죄 피해율(통합)	객관
	청소년 성매매 발생률		청소년 범죄 피해율(통합)		청소년 범죄 피해율(통합)	객관
	청소년 범죄율	○	청소년 범죄율	삭제		객관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률	X				객관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 건수	X				객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수	X				객관
		○ (신규)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객관
	총 34개 지표		총 11개 지표		총 10개 지표	
활동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	여가활동 시간 인식	○ (지표명 수정)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주관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의 충분도	○	여가활동 공간 인식(통합)	○ (지표명 수정)	여가활동 공간 만족도(통합)	주관
	교과 외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간	○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객관
	동네에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		(여가활동 공간 인식(통합))		(여가활동 공간만족도(통합))	주관
	동네에서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	○	놀이친구 접근성	○	놀이친구 접근성	주관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	녹지 접근성	영역 이동	녹지접근성 (환경영역으로 이동)	객관
	동네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공원 산 들 바다 녹지 공간 등)이 가까운 곳이 있는지의 여부	X				주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활동	학교이외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지 여부	X				주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	O	동아리활동 참여율	O	동아리활동 참여율	객관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X				객관
	청소년 수련시설 경험률	X				객관
	인구 1인당 녹지, 공원 면적	X				객관
	도서관 수	X				객관
	도서관 이용률	X				객관
	체육시설 수	X				객관
		O (신규)	문화여가 지출비용	O	문화여가 지출비용	객관
		O (신규)	문화예술 시설 수	O (지표명 수정)	문화예술시설 비율	객관
		O (신규)	청소년활동 시설 수	O (지표명 수정)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객관
		O (신규)	여가활동 용돈인식	O (지표명 수정)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주관
				O (신규)	청소년 지도사 비율	객관
	총 15개 지표		총 10개 지표		총 10개 지표	
	참여	가정 중요사항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X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X				주관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X				주관
학교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는지 여부		O	아동권리 인지	O	아동권리 인지	주관
학교 공식 매체(학교방송, 학교신문, 학교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의사 표명 정도		X				주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참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도	○ (지표명 수정)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주관
	교내 징계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지 여부	○	징계소명권	○	징계소명권	주관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허용 여부	○	학칙개정권	○	학칙개정권	주관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X				객관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곳으로 만들기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X				주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X				주관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등)에서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	X				주관
	청소년이 시 의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 유무	X				주관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X				주관
	우리 동네는 문화, 종교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축제 나이벤트에 참가 하는 정도	X				주관
	자원봉사 참여율	○	자원봉사 참여율	○	자원봉사 참여율	객관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율	X				객관
	국제교류활동 참여율	X				객관
	청소년 자치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수	X				객관
		○ (영역 이동)	청소년 자살률 (건강영역에서 이동)	영역 이동	청소년 자살률 (건강영역으로 이동)	객관
		○ (영역 이동)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안전영역에서 이동)	○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주관
	총 19개 지표		총 7개 지표		총 6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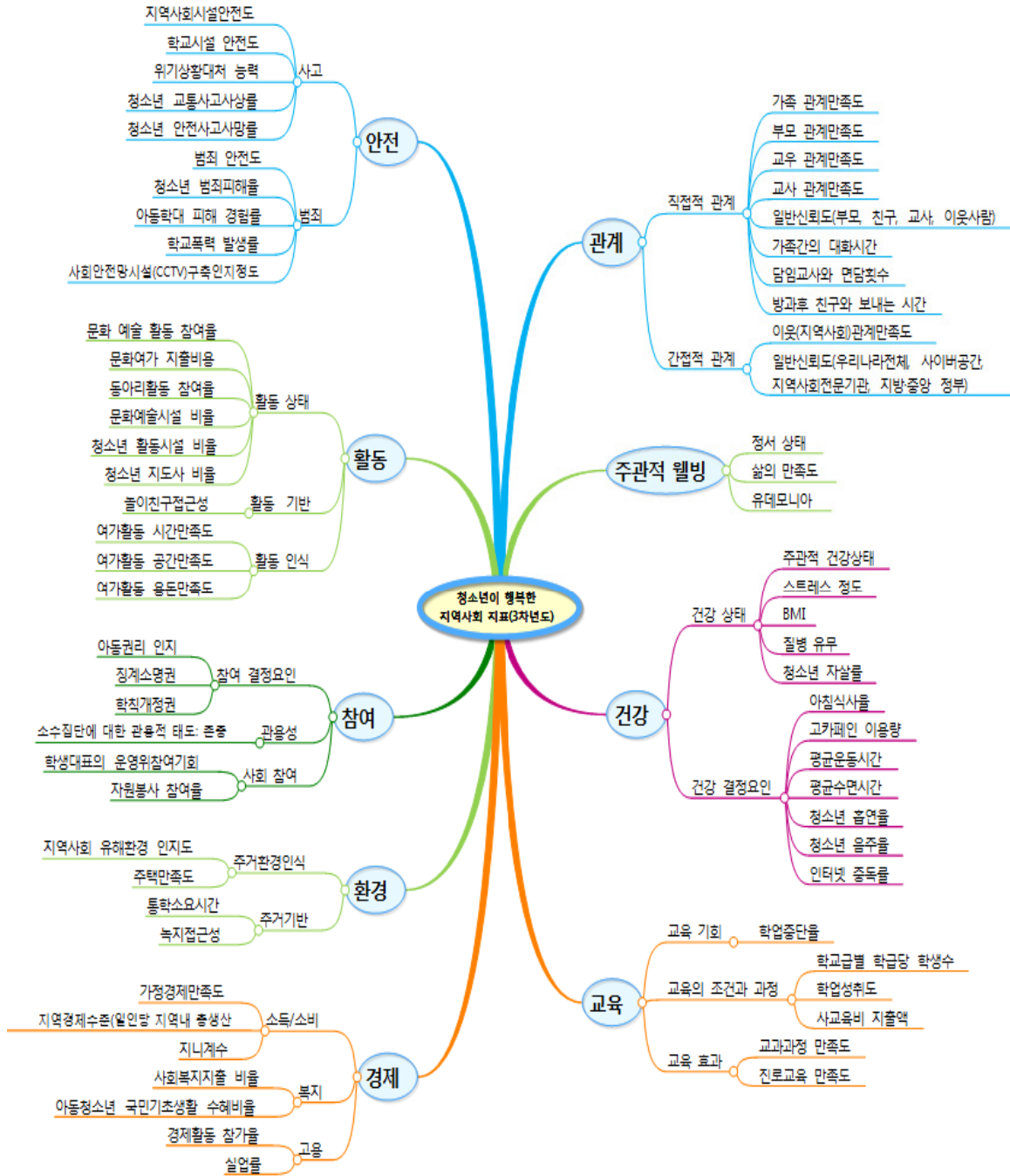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환경				○ (영역 이동)	지역사회 유해환경안전도 (안전 영역에서 이동)	주관
				○ (신규)	주택만족도	주관
				○ (영역 이동)	통학소요시간 (경제영역에서 이동)	객관
				○ (영역 이동)	녹지접근성 (활동 영역에서 이동)	객관
	총 0개 지표		총 0개 지표		총 4개 지표	
경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	가정경제 만족도	○	가정경제만족도	주관
	한부모 가정비율	X				주관
	실업률	X		○	실업률	객관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자료를 제공받는지 여부	X				주관
	무상급식지원 예산	X				객관
	방과 후 교육 지원 예산	X				객관
	아동 빈곤율	○	지니계수	○	지니계수	객관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	X				객관
	근로청소년비율	X				객관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X				객관
	총인구대비 청소년 인구 구성비	X				객관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예산	X				객관
	청소년 담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 수	X				객관
	청소년 담당 공무원의 평균 청소년 담당 근속연수	X				객관
		○ (신규)	지역경제수준	○	지역경제수준 (GRDP)	객관
		○ (신규)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지출 비율	객관

영역	1차년도 지표(2013)	지표 반영	2차년도 지표(2014)	지표 반영	3차년도 지표(2015)	지표 성격
경제		○ (신규)	통학소요시간	영역 이동	통학소요시간 (환경영역으로 이동)	객관
		○ (신규)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 참가율	객관
				○ (신규)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객관
	총 14개 지표			총 6개 지표		총 7개 지표

* 출처: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이용교·홍승애·김균희(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하현주·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지역사회 진단·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I-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 년도) 최종 개수

지표 영역	주관지표	객관지표	합계
관계	7	3	10
주관적 웰빙	3	0	3
건강	2	10	12
교육	2	4	6
안전	5	5	10
활동	4	6	10
참여	5	1	6
환경	2	2	4
경제	1	6	7
합계	31	37	68



[그림 II-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3차년도)

제 Ⅲ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기초통계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자료 수집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실태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만족도 결정요인분석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만족도 비교
5. 소결

제 III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기초통계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자료 수집

1) 조사 개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성(<표III-1> 참조)되는데 주관적 지표조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다. 1차 년도 조사는 2013년 이루어졌다. 대상은 16개 시·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공무원이었다. 2차 년도의 경우는 그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조사가 17개 시·도로 늘어났고, 특히 학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상위의 조사범위인 고등학교 2학년은 동일했다. 그리고 2015년 3차 년도는 설문조사 상위조사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객관적 지표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장근영, 2013).

표 III-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체계 비교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1차 년도)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2차 년도)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3차 년도)
문헌연구		• 문헌 및 선행연구 비교분석		
평가지표 예비 문항 구성		• CFCI(Child Friendly Cities Intimate)의 지표와 국내 환경을 반영한 지표 1차 초안 구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의 1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의 2차 년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내용타당도 검증 (델파이 조사)		• YHCI의 주관적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문항별 전문가 타당도 평가결과 및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최종 지표 선정	• 1차 년도(2013년)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의 적합도 및 중요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 간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표 타당도의 재 점검 및 지표 체계 구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	• 2차 년도(2014년) 지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총 1회에 걸쳐 공무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OECD 지표선정 기준과 CIW 지표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적합도 및 지표 우선 순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타당도의 재점검 및 지표체계 구성에 관하여 논의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
예비조사		이론 탐색과 심층면접을 통해 예비 문항 선정		
본 조사	청소년 조사	전국 16개 시도 중1~고2 재학생 전체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2 재학생 전체	전국 17개 시도의 초4~고3 재학생 전체
	교사	해당 학급 담당교사 전체	해당 학급 담당교사 전체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 전체 (권역별·학교별 비례할당)
	학부모	해당학생을 자녀로 둔 성인 남녀 전체	초4~고2학생을 첫째 자녀로 둔 성인남녀 전체	해당학생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권역별·학교별 비례할당)
	공무원	17개 시도 청소년 담당 공무원 및 227개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	17개 시도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1차년도)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2차년도)	2015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3차년도)	
본 조사	최종 표 집	청소년	16,510명	10,000명	10,783명
		교사	820명	300명	361명
		학부모	1,944명	3,000명	2,349명
		공무원	600명	150명	
	조사 방법	청소년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교사	1:1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학부모	학생을 통한 우편조사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학생을 통한 유치조사
		공무원	개인단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지 표	지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수준, 생존영역 (경제적웰빙, 건강/보건, 보호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교육, 놀이와 여가, 참여), 청소년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차원의 노력 총 6개 영역 최종지표수 157개 (객관지표69개, 주관지표 8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영역, 건강영역, 안전영역, 교육영역, 관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개인 특성 총 8개 영역 최종지표수 64개 (객관지표 30개, 주관지표 3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영역, 건강영역, 안전영역, 교육영역, 관계영역, 활동영역, 참여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환경영역, 개인 특성 총 9개 영역 최종지표수 68개 (객관지표 37개, 주관지표 31개)
		지표분 석방법	z-score/가중치 적용	z-score/가중치 적용 안함	z-score/가중치 적용 안함
		청소년, 학부모, 교사, 공무원 조사 활용	영역별 인식 차이 비교 (※ 7개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 공무원만 비교)	주관지표 문항별 인식차이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지표 문항별 청소년·학부모·교사 인식차이 비교 주관객관지표 지역별 비교 객관지표 5년간 시계열 비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영역에 대한 교사의 인식 수준이 청소년 부모에 비해 높음(놀이 및 여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각지역의 지수 비교 지역별 각영역지 수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각 지역의 지수 비교 지역별 각 영역의 지수 비교

(1) 설문조사⁷⁾

① 조사대상

가. 모집단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이 선별되었다.

나. 모집단 분석

16개 광역 시도 각각을 <표 III- 2>와 <표 III-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교급별과 학년별로 분류하였다.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고 1,295,108명(26.4%), 자율고 143,783명(2.9%), 특성화고 336,239명(6.8%), 특수목적고 51,794명(1.1%)이다.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일반고(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자율고(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실업, 해양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과학, 국제, 예술, 외국어고등학교)로 나누었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III- 4> ~ <표 III-9>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6,480	78,984	77,406	86,604	99,910	98,528	598	598	598	383	383	381
경기	121,311	124,487	120,637	135,545	152,525	148,525	1,200	1,202	1,203	603	602	602
인천	25,505	26,907	25,956	29,581	33,146	33,004	238	240	243	132	133	134
강원	13,279	13,722	14,161	15,985	17,822	17,779	328	335	340	162	162	162
충북	14,342	14,656	14,795	17,018	18,798	18,651	259	259	264	128	128	128
충남	20,176	20,407	20,131	23,145	25,552	24,933	419	420	420	201	201	200
대전	15,218	15,759	15,398	17,410	19,636	19,229	144	146	146	88	88	87
경북	21,204	22,267	22,188	25,716	29,391	29,327	403	410	425	286	287	287
경남	30,668	31,606	31,321	36,103	40,842	40,468	468	472	474	273	273	272

7)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로 수행하였으며, 본 모집단 및 표본설계는 한국리서치에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재정리하였음.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부산	25,743	27,376	26,914	31,646	35,826	35,934	304	304	305	170	169	170
대구	21,790	23,591	22,936	26,925	30,647	31,168	219	219	219	124	123	123
울산	10,708	11,334	10,898	13,055	14,871	14,909	120	119	120	62	61	61
전북	16,811	17,580	17,947	20,732	23,258	22,799	383	385	388	209	208	209
전남	15,699	16,406	16,771	19,437	22,115	22,094	412	408	422	253	253	254
광주	15,419	16,603	16,280	18,764	21,453	21,091	151	151	151	88	88	87
제주	6,179	6,555	6,423	7,340	8,110	7,799	112	110	110	44	44	43
합계	450,532	468,240	460,162	525,006	593,902	586,238	5,758	5,778	5,828	3,206	3,203	3,200

표 III-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7,833	72,214	73,359	13,752	14,051	13,848	17,616	16,745	16,646	4,079	4,303	4,227
경기	121,161	121,388	119,903	4,262	4,197	3,955	20,391	21,363	20,705	3,888	3,969	4,018
인천	22,494	23,667	23,976	1,782	1,859	1,823	7,626	7,537	6,914	1,060	1,053	1,022
강원	14,600	14,714	14,601	157	149	149	3,587	3,439	3,180	370	373	304
충북	11,554	11,901	11,960	1,616	1,556	1,533	5,504	5,398	5,250	432	415	345
충남	17,425	17,508	17,314	2,245	1,913	1,868	6,074	5,977	5,999	663	635	470
대전	12,831	12,831	12,946	3,039	2,807	2,929	3,565	3,597	3,611	753	872	785
경북	19,897	20,881	20,904	2,669	2,675	2,699	6,779	6,827	6,667	594	593	481
경남	31,087	31,479	31,871	2,854	2,880	2,836	5,813	6,033	6,223	734	699	537
부산	22,687	24,152	24,920	3,619	3,737	3,905	8,461	8,241	8,694	2,148	2,179	2,074
대구	18,703	19,946	20,133	5,815	5,996	6,125	6,336	6,355	6,414	846	843	809
울산	10,774	11,562	12,202	957	997	686	3,269	3,219	2,870	419	345	291
전북	17,036	17,081	17,304	1,351	1,327	1,338	5,392	5,345	5,294	581	559	443
전남	13,963	13,968	14,087	2,295	2,331	2,365	6,344	6,604	6,458	468	450	339
광주	15,520	15,825	15,492	1,440	1,349	1,360	4,273	4,631	4,437	359	322	256
제주	5,779	5,910	5,765	225	225	237	1,474	1,543	1,519	141	142	106
합계	423,344	435,027	436,737	48,078	48,049	47,656	112,504	112,854	110,881	17,535	17,752	16,507

표 III-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2	182	180	44	44	44	74	74	74	18	18	18
경기	341	336	325	13	13	12	79	79	79	18	18	18
인천	79	79	77	7	7	7	29	29	29	7	7	7
강원	86	86	86	1	1	1	25	25	25	4	4	4
충북	46	45	46	6	6	6	27	27	27	4	4	4
충남	72	70	70	10	9	9	36	36	36	6	6	5
대전	37	37	36	8	8	8	12	12	12	5	5	5
경북	119	119	118	11	11	11	55	55	55	6	6	6
경남	136	136	135	10	10	10	38	38	38	6	6	6
부산	80	80	80	14	14	14	38	39	38	11	11	11
대구	50	50	50	17	17	17	20	20	20	5	5	5
울산	35	35	35	4	4	3	11	11	11	4	3	3
전북	89	89	89	5	5	5	34	34	34	4	4	4
전남	82	84	84	8	8	8	51	51	51	5	5	5
광주	45	45	45	5	5	5	14	14	14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499	1,493	1,476	164	163	161	550	551	550	108	107	106

표 III-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9,390	40,825	40,025	37,090	38,159	37,381	45,084	52,251	51,523	41,520	47,659	47,005
경기	62,467	64,322	62,579	58,844	60,165	58,058	70,375	79,349	76,846	65,170	73,176	71,679
인천	13,132	13,777	13,413	12,373	13,130	12,543	15,250	17,134	17,190	14,331	16,012	15,814
강원	6,923	7,087	7,392	6,356	6,635	6,769	8,375	9,418	9,246	7,610	8,404	8,533
충북	7,501	7,615	7,737	6,841	7,041	7,058	8,830	9,824	9,715	8,188	8,974	8,936
충남	10,384	10,544	10,558	9,792	9,863	9,573	11,868	13,282	13,007	11,277	12,270	11,926
대전	7,828	8,126	8,063	7,390	7,633	7,335	9,135	10,161	10,054	8,275	9,475	9,175
경북	11,217	11,684	11,775	9,987	10,583	10,413	13,562	15,645	15,564	12,154	13,746	13,763
경남	16,192	16,723	16,499	14,476	14,883	14,822	19,063	21,756	21,175	17,040	19,086	19,293
부산	13,234	14,300	14,040	12,509	13,076	12,874	16,525	18,868	19,029	15,121	16,958	16,905
대구	11,412	12,386	12,308	10,378	11,205	10,628	14,179	16,280	16,463	12,746	14,367	14,705
울산	5,657	6,049	5,731	5,051	5,285	5,167	6,950	7,862	7,842	6,105	7,009	7,067
전북	8,655	9,016	9,491	8,156	8,564	8,456	10,604	12,031	11,767	10,128	11,227	11,032
전남	8,174	8,498	8,712	7,525	7,908	8,059	10,159	11,598	11,537	9,278	10,517	10,557
광주	7,992	8,726	8,481	7,427	7,877	7,799	9,681	11,214	10,942	9,083	10,239	10,149
제주	3,261	3,432	3,464	2,918	3,123	2,959	3,879	4,168	4,077	3,461	3,942	3,722
합계	233,419	243,110	240,268	217,113	225,130	219,894	273,519	310,841	305,977	251,487	283,061	280,261

표 III-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4,170	36,152	36,817	9,450	9,684	9,476	8,497	7,850	7,871	1,197	1,343	1,258
경기	62,855	62,743	62,482	2,092	2,105	2,016	11,279	11,433	11,410	1,204	1,247	1,386
인천	11,751	12,111	12,386	1,073	1,120	1,146	3,940	3,892	3,565	444	468	425
강원	7,253	7,168	7,217	85	88	82	2,373	2,261	2,103	173	179	127
충북	5,789	5,900	6,044	936	914	946	3,097	2,900	2,839	186	181	131
충남	8,852	8,818	8,882	1,268	1,102	1,101	3,551	3,435	3,525	232	212	147
대전	6,152	6,133	6,208	1,951	1,842	1,925	2,148	2,112	2,163	310	347	292
경북	9,766	10,265	10,333	1,743	1,743	1,732	4,254	4,151	4,203	261	243	163
경남	15,006	15,253	15,943	2,311	2,268	2,219	3,618	3,653	3,816	316	308	216
부산	11,505	12,238	12,834	2,051	2,118	2,259	5,420	5,004	5,367	841	794	718
대구	9,384	9,797	10,035	3,258	3,348	3,454	4,083	4,016	3,996	366	336	304
울산	5,596	5,900	6,496	495	529	346	2,015	1,931	1,691	168	125	82
전북	8,138	8,279	8,264	1,222	1,201	1,211	3,178	3,057	3,006	222	227	149
전남	6,395	6,378	6,497	1,698	1,717	1,769	3,717	3,771	3,728	191	192	112
광주	7,806	7,828	7,719	869	858	856	2,265	2,518	2,422	177	155	92
제주	3,137	3,275	3,204	0	0	0	746	771	723	63	59	42
합계	213,555	218,238	221,361	30,502	30,637	30,538	64,181	62,755	62,428	6,351	6,416	5,644

표 III-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3,663	36,062	36,542	4,302	4,367	4,372	9,119	8,895	8,775	2,882	2,960	2,969
경기	58,306	58,645	57,421	2,170	2,092	1,939	9,112	9,930	9,295	2,684	2,722	2,632
인천	10,743	11,556	11,590	709	739	677	3,686	3,645	3,349	616	585	597
강원	7,347	7,546	7,384	72	61	67	1,214	1,178	1,077	197	194	177
충북	5,765	6,001	5,916	680	642	587	2,407	2,498	2,411	246	234	214
충남	8,573	8,690	8,432	977	811	767	2,523	2,542	2,474	431	423	323
대전	6,679	6,698	6,738	1,088	965	1,004	1,417	1,485	1,448	443	525	493
경북	10,131	10,616	10,571	926	932	967	2,525	2,676	2,464	333	350	318
경남	16,081	16,226	15,928	543	612	617	2,195	2,380	2,407	418	391	321
부산	11,182	11,914	12,086	1,568	1,619	1,646	3,041	3,237	3,327	1,307	1,385	1,356
대구	9,319	10,149	10,098	2,557	2,648	2,671	2,253	2,339	2,418	480	507	505
울산	5,178	5,662	5,706	462	468	340	1,254	1,288	1,179	251	220	209
전북	8,898	8,802	9,040	129	126	127	2,214	2,288	2,288	359	332	294
전남	7,568	7,590	7,590	597	614	596	2,627	2,833	2,730	277	258	227
광주	7,714	7,997	7,773	571	491	504	2,008	2,113	2,015	182	167	164
제주	2,642	2,635	2,561	225	225	237	728	772	796	78	83	64
합계	209,789	216,789	215,376	17,576	17,412	17,118	48,323	50,099	48,453	11,184	11,336	10,863

표 III-8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4.4	24.3	24.0	29.1	31.2	31.3
경기	23.6	23.5	23.3	31.7	32.0	31.9
인천	22.9	22.7	22.2	29.2	32.0	32.2
강원	14.5	14.3	14.2	20.9	23.6	23.4
충북	16.5	16.6	16.5	24.1	25.7	25.7
충남	16.4	16.6	16.4	25.0	26.4	25.9
대전	22.5	22.2	22.2	30.3	32.1	32.0
경북	17.5	17.2	16.9	20.8	21.7	21.9
경남	17.9	17.8	18.0	25.2	26.9	26.9
부산	21.4	21.7	21.4	28.5	30.8	31.0
대구	21.9	22.3	21.7	28.8	31.5	32.7
울산	21.5	21.8	21.2	27.9	30.9	30.8
전북	15.3	15.0	15.1	22.4	23.2	23.3
전남	14.8	15.2	15.1	22.1	22.6	23.1
광주	22.5	22.5	22.5	30.8	32.8	33.6
제주	17.9	18.1	18.3	27.9	29.1	29.0
합계	19.8	19.8	19.6	26.6	28.1	28.2

표 III-9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	33.6	34.0	30.7	30.4	29.8	26.3	24.8	24.7	29.9	30.3	31.0
경기	32.7	33.5	34.0	31.5	30.9	31.1	28.8	29.3	28.1	29.0	29.4	28.3
인천	28.8	30.5	30.7	30.3	31.0	29.7	28.6	28.3	25.9	26.5	26.3	23.7
강원	28.0	28.1	27.6	14.3	13.5	13.5	23.8	22.3	20.6	26.2	29.6	23.3
충북	33.2	33.6	33.2	30.6	29.4	29.8	29.1	28.5	27.6	24.3	23.8	20.0
충남	31.5	31.9	31.7	29.7	29.0	28.7	25.8	25.6	24.9	26.8	26.1	23.2
대전	34.5	34.8	35.3	35.8	32.8	33.1	28.6	28.3	28.5	26.8	28.6	25.7
경북	27.6	28.3	28.3	30.8	31.1	31.3	25.1	25.0	23.9	29.2	29.0	22.1
경남	30.7	30.7	30.6	31.4	31.1	30.9	24.0	24.1	24.1	24.9	24.6	18.6
부산	30.2	31.6	32.2	29.7	30.3	29.8	25.1	23.7	24.5	26.6	26.8	26.4
대구	32.5	34.6	34.9	33.3	33.6	34.2	28.1	27.5	27.3	27.5	26.5	24.7
울산	32.4	34.9	36.4	29.8	31.1	31.0	31.1	29.9	27.8	23.0	22.8	19.7
전북	28.0	27.7	28.5	30.9	30.4	30.8	25.7	24.9	24.5	27.0	25.5	20.0
전남	27.7	27.8	27.5	32.4	33.0	34.0	22.2	22.5	21.3	25.2	23.1	19.0
광주	35.9	36.7	37.5	36.0	34.5	35.7	30.9	31.4	30.2	27.5	26.7	22.1
제주	34.6	35.0	34.1	32.1	32.1	33.9	28.6	29.7	29.8	22.5	22.9	17.0
합계	31.0	31.8	32.0	31.3	31.1	31.0	26.4	26.0	25.2	27.3	27.4	24.9

② 표본설계

가.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본 연구는 학교를 1차 표본추출 단위로 하고, 그로부터 표본학급을 분류해 낸 후 전수조사하는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실질적 목표오차를 d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표본크기가 산출 값을 상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희진, 2014).

표본 크기의 전체목표는 9,500명이다. 이 경우 표본오차의 예상치는 95% 신뢰수준에 약 $\pm 1.0\%$ 인데, 이는 단순임의추출을 전제하는 경우이다. 물론 그 오차는 층화집락추출의 경우 더 클 것이지만 통상적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김경준 외, 2014).

나. 층화

조사모집단의 경우 201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른 전국 초, 중, 고 학생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층화변수로는 광역시도(16개) 등의 지역과 학교 그리고 학년 등이 사용되었는데 광역시도별 층화가 쉽지 않은 경우는 지역을 권역으로 연결하여 실시하였다(김경준 외, 2014).

표 III-10 학교급 및 학년별 모집단크기와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50,532	1,378,934 (28.1%)	2,667 (28.1%)	2,700 (28.4%)		
		5	468,240					
		6	460,162					
중학교	중학교	1	525,006	1,705,146 (34.7%)	3,298 (34.7%)	3,132 (32.9%)		
		2	593,902					
		3	586,238					
고등학교	일반고	1	423,344	1,295,108 (26.4%)	2,505 (26.4%)	2,400 (25.2%)		
		2	435,027					
		3	436,737					
	자율고	1	48,078	143,783 (2.9%)	278 (2.9%)	480 (5.0%)		
		2	48,049					
		3	47,656					
	특성화고	1	112,504	336,239 (6.8%)	650 (6.8%)	648 (6.8%)		
		2	112,854					
		3	110,881					
	특수 목적고	1	17,535	51,794 (1.1%)	100 (1.1%)	156 (1.6%)		
		2	17,752					
		3	16,507					
합계			4,911,004 (100.0%)	9,500 (100.0%)	9,516 (100.0%)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다. 표본배분

표본학교의 학년과 학급 당 하나를 선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따라서 <표 III-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사대상이 되는 학교의 수는 층별 표본크기를 해당 층의 학급당 학생수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임희진, 2014).

물론 이러한 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이 있다. 단순비례배분의 경우 각 층에 배분되는 표본크기가 불균형적일 수 있다(모상현 외, 2013). 또한 한 학급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므로 학년 당 실질적 조사대상이 30명이 되고 이 경우 표본크기의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전라지역 자율고의 경우 숫자를 줄여 표본크기를 낮추어야 한다. 즉 변형비례배분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표 III-10>이 보여주는 것처럼 각 층의 표본크기가 현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결국 일련의 원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형비례배분을 실시하였다(안선영 외, 2013).

나아가 학년 별 층별 모집단 크기와 학교수의 할당이 비례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본크기도 지역구분 및 학교급별 모집단크기와 비례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다. 이상 보완을 통한 조사 학생수를 <표 III-13>, <표 III-14>이 보여준다(모상현 외, 2013).

교사의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 및 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하였다.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36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담임교사수는 300명을 넘도록 하였다.

표 III-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55	555	412	42	179	95	
경기	716	850	699	69	77		
인천	153	186	135				
강원	80	100	85	45	86		
충북	86	106	68				
충남	119	143	101				
대전	91	110	74				
경북	128	164	119				
경남	183	228	182	75	208		
부산	156	201	138				
대구	134	173	113				
울산	64	83	67				
전북	102	130	99	44	68		
전남	96	124	81				
광주	94	119	90				
제주	37	45	34				
합계	2,696	3,318	2,498	275	618		95

* 총계: 9,500명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III-12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2.8	19.1	12.9	1.3	6.6	3.7
경기	35.8	29.3	21.8	2.2	2.8	
인천	7.7	6.4	4.2			
강원	4.0	3.5	2.6	1.4	3.2	
충북	4.3	3.7	2.1			
충남	5.9	4.9	3.1			
대전	4.5	3.8	2.3			
경북	6.4	5.7	3.7	2.4	7.7	
경남	9.1	7.9	5.7			
부산	7.8	6.9	4.3			
대구	6.7	6.0	3.5			
울산	3.2	2.9	2.1	1.4	2.5	
전북	5.1	4.5	3.1			
전남	4.8	4.3	2.5			
광주	4.7	4.1	2.8			
제주	1.9	1.6	1.1			
합계	134.8	114.4	78.1	8.7	22.8	3.7

* 총계: 362.47개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III-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1(7)	18(6)	12(4)	3(1)	6(2)	6(2)
경기	33(11)	27(9)	18(6)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9(3)	6(2)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6(2)	3(1)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35(45)	108(36)	75(25)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3(121)개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표 III-1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20	522	384	96	162	156	
경기	660	783	576	96	81		
인천	180	174	96				
강원	60	87	96	96	81		
충북	60	87	96				
충남	120	174	96				
대전	120	87	96				
경북	120	174	96	96	243		
경남	180	261	192				
부산	180	174	96				
대구	120	174	96				
울산	60	87	96	96	81		
전북	120	87	96				
전남	120	87	96				
광주	120	87	96				
제주	60	87	96				
합계	2,700	3,132	2,400	480	648		156

* 총계: 9,516명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보호자의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보호자는 해당학급 전체학생들에게 학부모용 설문지를 보내어 학부모가 응답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보호자의 표본수는 권역별, 교급 등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였으며, 조사될 목표 학부모수는 1,500명을 넘도록 하였다. 보호자 표본수와 추출학급은 <표 III-15>, <표 II-16>과 같다.

라. 표본추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 13>이 제시하는 표본배분 결과에 따라 확률비례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안선영 외, 2013), 이를 통해 초등학교는 2개 이상, 중·고등학교는 3개 이상, 특히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명 이상인 학교추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임희진, 2012). 나아가 표본학교의 학년 당 1개의 표본학급이 무작위로 선정, 전수조사 되었다(임희진, 2014). 만약 학교 측의 거절 등 특정한 이유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을 시는 무작위 대체하였다. 조사는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을 함께 고려하였고, 우열반, 특수반 등의 학급인 경우는 배제하였다. 나아가 필요에 따른 대체표본 명부를 마련하였다(김경준, 외, 2014).

표 III-15 보호자 표본수

권역별	계	초등학교 (4-6 학년)	중학교 (1-3 학년)	고등학교 (1-3 학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 목적고
계	1,500	422	521	557	398	44	95	20
1. 서울	255	71	87	97			24	20
2. 부산/울산/경남	230	63	80	87			24	
3. 대구/경북	152	41	53	58			24	
4. 대전/세종/충청	162	46	56	60			23	
5. 광주/호남	168	46	59	63		22		
6. 경기/인천	467	136	163	168		22		
7. 강원	46	13	16	17				
8. 제주	20	6	7	7				

* 학급 전수 조사 수행, 보호자 수가 최종 할당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표 III-16 보호자 추출학급(추정)

권역별	계	초등학교 (4-6 학년)	중학교 (1-3 학년)	고등학교 (1-3 학년)	일반 고	자율 고	특성 화고	특수 목적고	
계	69	26	21	22	15	2	4	1	
1. 서울	11	4	3	4			1	1	★ 시도, 학년별로교루 ★ 시도, 학년별로교루 ★ 시도, 학년별로교루 ★ 시도, 학년별로교루 ★ 시도, 학년별로교루 ★ 시도, 학년별로교루 ★ 초등4학년, 중학교2 학년, 고등학교3학년 ★ 초등6학년, 중학교1 학년, 고등학교2학년
2. 부산/울산/경남	10	4	3	3			1		
3. 대구/경북	7	3	2	2			1		
4. 대전/세종/충청	7	3	2	2			1		
5. 광주/호남	9	3	3	3		1			
6. 경기/인천	19	7	6	6		1			
7. 강원	3	1	1	1					
8. 제주	3	1	1	1					

* 출처: 이 표는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마. 성별 사후층화

기본적으로 성별은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표본설계와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므로 성별의 고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별분포의 편향가능성을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조절하였다(김경준 외, 2014)

③ 가중치와 모수추정

가. 가중치

본 조사가 도입하고 있는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으로 볼 수 있으며, 층으로 간주되는 것은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이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임희진, 2012).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김경준 외, 2014).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김영한 외, 2013).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나. 모수추정

가)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나)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되었다.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다)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하였다.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라) 분산의 추정

- $\widehat{V}(\bar{Y}) = \sum_{h=1}^H \wide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n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 \dots$$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마)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이다.

④ 설문지 구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 설문조사 내용 구성 및 객관지표 내용구성(<표 III-17> 참조)과 일반적 특성(<표 III-18> 참조), 교사의 행복지표 설문조사 내용 구성(<표 III-19> 참조)과 일반적 특성(<표 III-20> 참조), 학부모의 행복지표 설문조사 내용구성(<표 III-21>)과 일반적 특성(<표 III-22> 참조)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지 내용 검토를 위해 4월 말부터 5월초에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설문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교사용, 학부모용 총 4종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참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계영역에서는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관계 2개 상위 지표로 나누어졌으며, 직접적 관계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 부모

(보호자)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 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가족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등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간접적 관계에서는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웰빙은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영역은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 2개 상위 지표로 나누어졌으며,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결정요인은 아침식사율, 고카페인이용량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영역은 교육효과 상위지표에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안전 영역은 사고영역 상위지표에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학교시설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영역은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 인지정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영역은 활동기반 상위지표에 놀이친구 접근성 1개 문항, 활동인식 상위지표에서는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영역은 참여결정 상위지표에 이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관용성 상위지표에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참여 상위지표에 학생 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영역은 주거환경인식 상위지표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주택만족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제 영역은 소득/소비 상위지표에 가정경제 만족도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설문지 구성 및 출처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관계	직접적 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1)	YHCI(2014) Q9-1)	주관
		부모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2)	YHCI(2014)	주관
		교우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6-3)	YHCI(2014) Q9-2)	주관
		교사관계 만족도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문6-4)	YHCI(2014) Q9-3)	주관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관계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	부모님	문7-1)	YHCI(2014) Q15-1)	주관
			친구들	문7-2)	YHCI(2014) Q15-2)	주관
			학교 선생님	문7-3)	YHCI(2014) Q15-3)	주관
			이웃 사람들	문7-4)	YHCI(2014) Q15-4)	주관
		가족간의 대화시간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9	연구진	객관
		담임 교사와 면담횟수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문10		객관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학생은 방과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11		객관
	간접적 관계	이웃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문6-5)	YHCI(2014) Q9-4)	주관
		일반신뢰도	우리나라 전체	문7-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주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7-6)		주관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 하나요?	문7	YHCI(2014) Q16-1),2),3)	주관
1) 지역사회전문기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						
주관적 웰빙	정서상태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문2	OECD(2012) 서은국, 구제선 (2011)	주관	
		1) 즐거운				
		2) 편안한				
		3) 불안한				
		4) 슬픈				
		5) 우울한				
	6) 행복한					
삶의 만족도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1	OECD(2012)	주관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주관적 웰빙	유데모니아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문3-1)	OECD(2012)	주관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문3-2)		주관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문3-3)		주관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목표한 것을 이룬다고 느낀다(성취감)	문3-4)		주관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문3-5)		주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문3-6)		주관
건강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문13-1)	YHCI(2014) Q1-1)	주관
		스트레스 정도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문13-2)	YHCI(2014) Q1-2)	주관
	질병유무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문16,	한국주거환경학회(2014)	객관
			1)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2)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문16-1	한국주거환경학회(2014)	객관
	건강 결정 요인	아침식사율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문15	YHCI(2014) Q2-1)	객관
		고카페인 이용량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문14	YHCI(2014) Q2-2)	객관
교육	교육 효과	교과과정 만족도	나는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문18-2)	YHCI(2013) Q14-2)	주관
		진로교육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문18-3)		주관
안전	사고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 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문20-2)	YHCI(2014) Q10-2)	주관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문20-1)	YHCI(2014) Q10-1)	주관
		위기상황대처능력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있다	문20-4)	YHCI(2014) Q10-4)	주관
	범죄	범죄안전도	나는 우리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20-3)	YHCI(2014) Q10-3)	주관

영역	세부 영역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안전	범죄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인식정도	나의 생활 주변 (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있다	문20-5)	YHCI(2013) 교육부(2013)	주관
활동	활동 기반	놀이친구 접근성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문24-4)	YHCI(2013) Q16-4)	주관
	활동 인식	여기활동 시간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문24-1)	YHCI(2014) Q14-1)	주관
		여기활동 공간만족도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문24-2)	YHCI(2014) Q14-2)	주관
		여기활동 용돈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문24-3)	YHCI(2014) Q14-3)	주관
참여	참여 결정	이동권리 인지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문22-1)	YHCI(2013) Q18-4), 11)	주관
		징계소명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2)	YHCI(2013) Q18-7)	주관
		학칙개정권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3)	YHCI(2013) Q18-8)	주관
	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문22-5)	YHCI(2013) Q3-2)	주관
	사회 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 기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문22-4)	YHCI(2013) Q18-6)	주관
환경	주거 환경 인식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문27-1)	YHCI(2013) Q2-10)	주관
		주택만족도	우리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 이다	문27-2)	충남발전연구원(2012)	주관
경제	소득/ 소비	가정경제 만족도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25	통계개발원, 한국의사회동향(2012)	주관

* 출처: YHCI(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년차), OECD(2012, 2013), Draft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 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동거가족,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성적, 희망교육수준, 종교유무, 해당종교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8 청소년 일반적 특성

항목	설문문항
동거가족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부모의 학력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의 직업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성적	학생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희망교육수준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종교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교사용 행복지표 설문지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9개 영역으로 관계, 주관적 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로 구성되었다. 관계영역은 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계 두 가지 상위지표로 구분되었으며, 직접적 관계는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간접적 관계영역은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관적 웰빙은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영역은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의 두 가지 상위지표로 구분되었으며,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건강결정요인은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영역은 교육효과 상위지표에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영역은 사고와 범죄 상위지표로 구분하여 사고 영역에서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범죄 영역은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 시설(CCTV)구축인지정도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영역은 활동기반, 활동인식 상위지표로 구분하였으며 활동기반 영역은 놀이친구 접근성 1개, 활동 인식영역은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참여 영역은 3가지 상위지표로 참여결정요인, 관용성, 사회참여로 구분되었으며, 참여결정요인에서는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등 3개 문항으로, 관용성 영역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1개,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경 영역에서는 주거환경인식 상위지표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주택만족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경제 영역은 소득/소비의 상위지표에 가정경제만족도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19 교사용 설문지 구성 및 출처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관계	직접적 관계	가족관계만족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10-1)	YHCI(2014) Q10-1)	주관	
		부모관계만족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10-2)	YHCI(2014)	주관	
		교우관계만족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10-3)	YHCI(2014) Q10-2)	주관	
		교사관계만족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문10-4)	YHCI(2014) Q10-3)	주관	
			우리 학급 학생들	문11-1)	YHCI(2014) Q17-1)	주관	
			우리 학급 학생들의 학부모	문11-2)	YHCI(2014) Q17-2)	주관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	문11-3)	YHCI(2014) Q17-3)	주관	
	간접적 관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동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문10-5)	YHCI(2014) Q17-4)	주관	
		일반신뢰도		우리나라 전체	문11-4)	YHCI(2014)	주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11-5)	YHCI(2014)	주관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 하나요? 1) 지역사회전문기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	문12	YHCI(2014) Q18-1),2),3)	주관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주관적 웰빙	정서 상태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즐거운 2) 편안한 3) 불안한 4) 슬픈 5) 우울한 6) 행복한	문2	OECD(2012) 서은국, 구제선 (2011)	주관	
			귀하는 최근 어느 정도 행복했습니까?	문6	OECD(2012)	주관	
	삶의 만족도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	OECD(2012)	주관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5	OECD(2012)	주관	
	유데모니아		우리 학급 학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문3-1)	OECD(2012)	주관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결정 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문3-2)		주관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문3-3)		주관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문3-4)	OECD(2012)	주관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이 매우 긍정적 이라고 느낀다	문3-5)		주관	
			우리 학급 학생들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문3-6)		주관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		주관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우리 학급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문14-1)	YHC(2014) Q1-1)	주관
				스트레스 정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문14-2)	YHC(2014) Q1-2)
건강 결정 요인			아침식사율	우리 학급 학생들은 아침을 먹는다	문16	YHC(2014) Q2-1)	객관
			고카페인 이용량	우리 학급 학생들은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문15	YHC(2014) Q2-2)	객관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교육	교육 효과	교과과정 만족도	내(교사)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문18-2)	YHC(2013) Q14.-2)	주관
		진로교육 만족도	내(교사)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문18-3)	YHC(2014)	주관
안전	사고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문20-2)	YHC(2014) Q12-2)	주관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문20-1)	YHC(2014) Q12-1)	주관
		위기상황대처 능력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문20-4)	YHC(2014) Q12-4)	주관
	범죄	범죄안전도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20-3)	YHC(2014) Q12-3)	주관
		사회안전망시설 (CCTV)구축 인지정도	우리 학교의 생활주변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문20-5)	YHC(2013) 교육부(2013)	주관
활동	활동 기반	놀이친구 접근성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문24-4)	YHC(2013) Q16.-2)	주관
	활동 인식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문24-1)	YHC(2014) Q16-1)	주관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우리 학교에는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문24-2)	YHC(2014) Q15-2)	주관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우리 학급 학생들은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문24-3)	YHC(2014) Q16-3)	주관
참여	참여 결정 요인	아동권리 인지	우리 학교는 권리에 대해 가르친다	문22-1)	YHC(2014) Q15-1)	주관
		징계소명권	우리 학교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2)	YHC(2014) Q15-2)	주관
		학칙개정권	우리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문22-3)	YHC(2014) Q15-3)	주관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참여	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우리 학급 학생들은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문22-5)	YHC(2014) Q15-5)	주관
	사회 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22-4)	YHC(2014) Q15-4)	주관
환경	주거 환경 인식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우리 학교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문27-1)	YHC(2013) Q2-10)	주관
		주택만족도	우리 학교는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문27-2)	충남발전연구원 (2012)	주관
경제	소득/ 소비	가정경제만족도	귀하 담당 학급 학생들은 전반적인 가정 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5	통계개발원, 한국의사회동향 (2012)	주관

* 출처: YHC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년차, 2년차), OECD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013)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학력, 경력, 담당학급학생의 희망교육수준, 종교유무, 해당종교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20 교사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설문문항
학력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경력	귀하의 교사 경력은 몇 년 몇 개월 입니까?
담당학급학생의 희망 교육수준	귀하는 담당 학급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종교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학부모 설문지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7개 영역으로 관계, 주관적웰빙, 건강, 안전, 활동, 환경, 경제로 구성하였다. 관계영역은 직접적관계와 간접적관계의 상위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직접적 관계는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접적관계 영역은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 일반신뢰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웰빙 영역은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데미니아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건강영역은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의 두가지 상위지표로 구성되어 건강상태 영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정도 등 2개 문항으로, 건강결정요인 영역은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 영역은 사고와 범죄의 두가지 상위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사고 영역은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학교시설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등 3개 문항으로, 범죄 영역은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인지 정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영역은 활동기반, 활동인식의 두 가지 상위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반은 놀이친구 접근성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활동인식 영역은 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경 영역은 주거환경인식의 상위지표에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주택만족도 등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경제영역은 소득/소비의 상위지표에 가정경제만족도 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21 학부모용 설문지 구성 및 출처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관계	직접적 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우리 자녀는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10-1)	YHCI(2014) Q9-1)	주관
		부모관계 만족도	우리 자녀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10-2)	YHCI(2014)	주관
		교우관계 만족도	우리 자녀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문10-3)	YHCI(2014) Q9-2)	주관
		교사관계 만족도	우리 자녀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	문10-4)	YHCI(2014) Q9-3)	주관
		일반 신뢰도	우리 자녀	문11-1)	YHCI(2014) Q16-1)	주관
			우리 자녀의 친구들	문11-2)	YHCI(2014) Q16-2)	주관
		일반신뢰도	우리 자녀의 담임 선생님	문11-3)	YHCI(2014) Q16-3)	주관
	간접적 관계	이웃 (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우리 자녀는 동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문10-5)	YHCI(2014) Q9-4)	주관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관계	간접적 관계	일반 신뢰도	이웃 사람들	문11-4)	YHCI(2014) Q16-4)	주관	
			우리나라 전체	문11-4)	YHCI(2014)	주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문11-5)	YHCI(2014)	주관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 하나요? 1) 지역사회전문기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	문12	YHCI(2014) Q17-1),2),3)	주관	
주관적 웰빙	정서 상태		귀하 자녀는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즐거운 2) 편안한 3) 불안한 4) 슬픈 5) 우울한 6) 행복한	문2	OECD(2012) 서은국, 구제선 (2011)	주관	
			귀하는 최근 어느 정도 행복했습니까?	문6	OECD(2012)	주관	
	삶의 만족도		귀하의 자녀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1	OECD(2012)	주관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5	OECD(2012)	주관	
	유데모니아		우리 자녀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 (낙관적) 생각한다	문3-1)	OECD(2012)	주관	
			우리 자녀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문3-2)		주관	
			우리 자녀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문3-3)		주관	
			우리 자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문3-4)		주관	
			우리 자녀는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문3-5)		주관	
			우리 자녀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문3-6)		OECD(2012)	주관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 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7			주관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건강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우리 자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문14-1)	YHCI(2014) Q1-1)	주관
		스트레스 정도	우리 자녀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문14-2)	YHCI(2014) Q1-2)	주관
	건강 결정 요인	아침식사율	우리 자녀는 아침을 먹는다	문16	YHCI(2014) Q2-1)	객관
		고카페인 이용량	우리 자녀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문15	YHCI(2014) Q2-2)	객관
안전	사고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우리 자녀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문19-2)	YHCI(2014) Q10-2)	주관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자녀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자녀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문19-1)	YHCI(2014) Q10-1)	주관
		위기상황 대처 능력	우리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문19-4)	YHCI(2014) Q10-4)	주관
	범죄	범죄안전도	우리 자녀가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19-3)	YHCI(2014) Q10-3)	주관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인식정도	우리 자녀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문19-5)	YHCI(2013) 교육부(2013)	주관
활동	활동 기반	놀이친구 접근성	우리 자녀의 동네에는 자녀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문22-4)	YHCI(2013) Q16-4)	주관
	활동 인식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우리 자녀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문22-1)	YHCI(2014) Q14-1)	주관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우리 자녀의 동네에는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문22-2)	YHCI(2014) Q14-2)	주관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우리 자녀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문22-3)	YHCI(2014) Q14-3)	주관	
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각종 유해 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문25-1)	YHCI(2013) Q2, 10)	주관

영역	세부	지표	설문문항	지표조사 측정문항	출처	지표 성격
환경		주택만족도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문25-2)	충남발전연구원 (2012)	주관
경제	소득/ 소비	가정경제 만족도	귀하 자녀는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3	통계개발원, 한국의사회동향 (2012)	주관

* 출처: YHCI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1년차, 2년차),
OECD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013)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동거가족, 학력, 직업, 자녀의 희망교육수준, 자녀의 성업성적, 월 평균 소득, 집의 형태, 종교유무, 해당종교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2 학부모 일반적 특성

항목	설문문항
동거가족	귀하 자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학력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직업	귀하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하여 표시를 해주십시오.
자녀의 학업성적	귀하 자녀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희망학력 수준	귀하의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십니까?
집의 형태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 평균 소득	귀하 가정의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종교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실태

1) 인간관계 영역

(1) 인간관계 대한 전반적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7.45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7.60)가 여자(7.29)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8.246,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8.02), 중학교(7.45), 고등학교(7.03)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17.669,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8.03), 중(6.38), 하(5.70)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161.304,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부모가정(7.50)이 한부모가정(7.00)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486,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60)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7.21),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7.15),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98), 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57)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98),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7.21)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았다($F=29.634,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58)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57)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7.19)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7.04),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7.24)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9.928$,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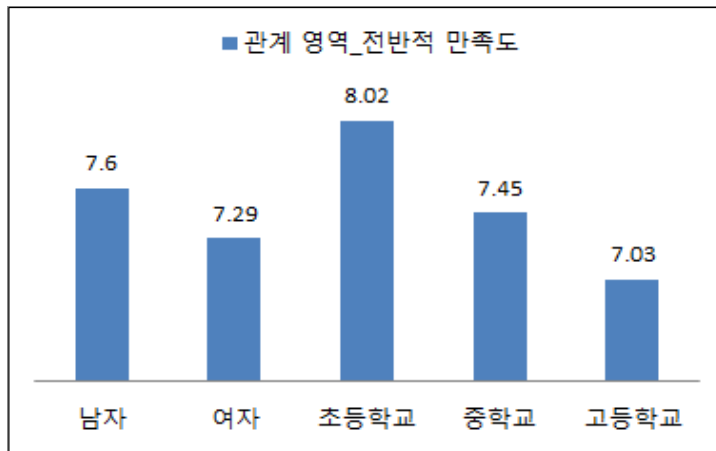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47)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57)이 기타 청소년(7.09) 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6.787$,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관계 영역_전반적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22)	7.45	1.99	-
성별	남자	(5,593)	7.60	1.97	8.246***
	여자	(5,129)	7.29	1.99	
학교급	초등학교	(3,007)	8.02	1.96	217.669***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32)	7.45	1.96	
	고등학교	(3,982)	7.03	1.93	
경제적 수준	상	(7,191)	8.03	1.71	1161.304*** 상 > 중 > 하
	중	(2,910)	6.38	1.87	
	하	(582)	5.70	2.49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55)	7.50	1.96	17.486***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7.00	2.14	
	조손가정	(92)	7.24	2.06	
	기타	(205)	7.35	2.38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5)	6.98	2.26	29.634***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고졸,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고졸
	중졸 이하	(197)	7.15	2.10	
	고졸	(2,347)	7.21	1.99	
	전문대졸 이상	(4,191)	7.57	1.90	
	잘 모르겠음	(3,213)	7.60	1.98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4)	7.19	2.06	19.928***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5)	7.04	2.04	
	고졸	(2,917)	7.24	1.97	
	전문대졸 이상	(3,767)	7.58	1.94	
	잘 모르겠음	(3,249)	7.57	2.01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44)	7.47	1.97	16.787***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50)	7.57	1.93	
	양부모직업없음	(43)	7.29	2.64	
	기타	(1,185)	7.09	2.17	
도시규모	대도시	(4,551)	7.51	2.01	5.006** 대도시 > 농산어촌
	중소도시	(4,699)	7.43	1.95	
	농산어촌	(1,472)	7.33	2.03	
종교유무	없다	(6,116)	7.43	1.97	1.587
	있다	(4,585)	7.49	2.01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 관계 영역_전반적 만족도

(2) 직접적 관계

① 가족 관계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즐거움에서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4.02로 즐겁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4.08)가 남자(3.98)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t=5.698,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34), 중학교(3.96), 고등학교(3.8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298.014,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25), 중(3.64), 하(3.11)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평소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948.900,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 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4.06)이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3.76), 기타(3.81) 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F=34.608,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09),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90),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7) 순으로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09)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11)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90) 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한편,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11),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90),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7) 순으로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F=43.123,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09)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10)이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95),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73),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0)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39.978,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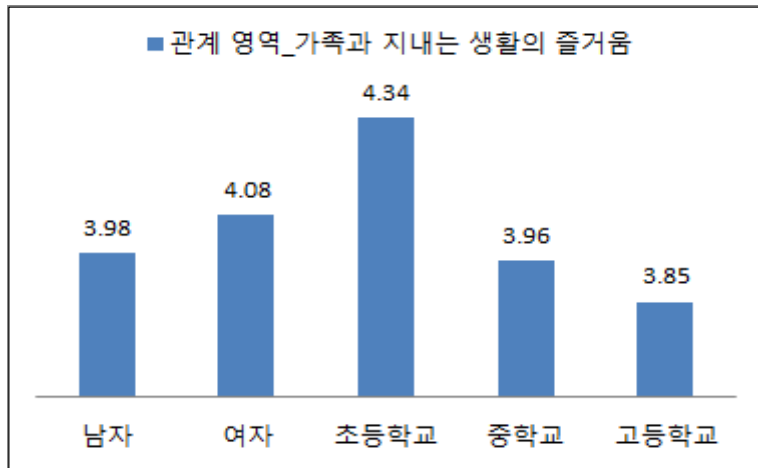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10),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03), 기타 청소년(3.78) 순으로 평소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 ($F=38.954,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4.05)이 없는 청소년(4.00)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t=2.975, p<.01$).

표 III-24 관계 영역_가족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6)	4.02	0.90	-
성별	남자	(5,626)	3.98	0.91	5.698***
	여자	(5,170)	4.08	0.88	
학교급	초등학교	(3,032)	4.34	0.85	298.014***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7)	3.96	0.91	
	고등학교	(4,017)	3.85	0.86	
경제적 수준	상	(7,230)	4.25	0.79	948.900*** 상 > 중 > 하
	중	(2,927)	3.64	0.87	
	하	(587)	3.11	1.07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4)	4.06	0.88	34.608***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기타
	한부모가정	(873)	3.76	0.96	
	조손가정	(93)	3.85	1.01	
	기타	(207)	3.81	1.1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77	1.01	43.123*** 전문대졸이상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97)	3.82	0.99	
	고졸	(2,363)	3.90	0.89	
	전문대졸 이상	(4,220)	4.09	0.85	
	잘 모르겠음	(3,238)	4.11	0.91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70	1.06	39.978***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 중졸이하,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86)	3.73	0.98	
	고졸	(2,937)	3.95	0.87	
	전문대졸 이상	(3,792)	4.09	0.86	
	잘 모르겠음	(3,273)	4.10	0.9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7)	4.03	0.89	38.954***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4.10	0.86	
	양부모직업없음	(46)	3.96	0.95	
	기타	(1,189)	3.78	1.00	
도시규모	대도시	(4,595)	4.04	0.90	0.899
	중소도시	(4,722)	4.01	0.89	
	농산어촌	(1,479)	4.02	0.91	
종교유무	없다	(6,154)	4.00	0.88	2.975**
	있다	(4,621)	4.05	0.92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 관계 영역_가족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② 부모 관계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즐거움에서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4.04로 즐겁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4.09)가 남자(3.98)보다 보호자와 지내는 생활이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t=6.616$,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37), 중학교(3.96), 고등학교(3.8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호자와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325.129$,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25), 중(3.66), 하(3.20)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평소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842.869,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4.06)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78) 보다 보호자와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F=26.521,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08)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14)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85),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81),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89)보다 보호자와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42.230,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08)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13)이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95),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72),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4) 보다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39.959,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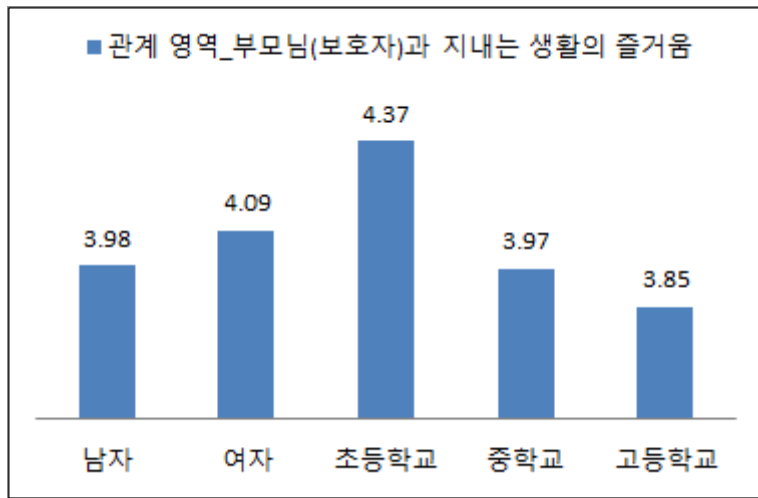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05)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09)이 기타 청소년(3.82) 보다 평소 보호자와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27.788,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 영역에서는 $F=3.801,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4.06)이 없는 청소년(4.01)보다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t=2.803, p<.01$).

표 III-25 관계 영역_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4)	4.04	0.90	-
성별	남자	(5,624)	3.98	0.91	6.616***
	여자	(5,170)	4.09	0.88	
학교급	초등학교	(3,031)	4.37	0.84	325.129***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7)	3.97	0.91	
	고등학교	(4,016)	3.85	0.87	
경제적 수준	상	(7,230)	4.25	0.80	842.896*** 상 > 중 > 하
	중	(2,926)	3.66	0.86	
	하	(586)	3.20	1.0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3)	4.06	0.88	26.521***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78	0.98	
	조손가정	(93)	3.98	0.96	
	기타	(207)	3.93	1.16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85	1.00	42.230***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7)	3.81	0.99	
	고졸	(2,363)	3.89	0.90	
	전문대졸 이상	(4,220)	4.08	0.86	
	잘 모르겠음	(3,236)	4.14	0.90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74	1.05	39.959***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 중졸이하,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86)	3.72	0.95	
	고졸	(2,937)	3.95	0.87	
	전문대졸 이상	(3,792)	4.08	0.87	
	잘 모르겠음	(3,272)	4.13	0.9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6)	4.05	0.89	27.788***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4.09	0.86	
	양부모직업없음	(46)	3.93	0.97	
	기타	(1,188)	3.82	1.0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도시규모	대도시	(4,593)	4.06	0.90	3.801*
	중소도시	(4,722)	4.02	0.89	
	농산어촌	(1,479)	4.01	0.92	
종교유무	없다	(6,153)	4.01	0.89	2.803**
	있다	(4,620)	4.06	0.91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 관계 영역_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③ 교우 관계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즐거움에서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4.23로 즐겁다고 응답했다. 즉, 청소년은 가족, 부모(보호자)의 관계보다 같은 또래와의 관계에 더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41), 중학교(3.24), 고등학교(4.09)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소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147.57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40), 중(3.93), 하(3.70)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581.013,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4.25)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4.07) 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F=16.240,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28)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28)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4.06),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4.10),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4.16)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F=24.885,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28),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4.18),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4.07) 순으로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28)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27)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4.04) 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한편,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27),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4.18),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4.07) 순으로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F=19.438,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24)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28)이 기타 청소년(4.08) 보다 평소 보호자와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20.241,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88)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73) 보다 평소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5.164, p<.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4.26)이 없는 청소년(4.21)보다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했다($t=3.483, p<.001$).

표 III-26 관계 영역_친구와 지내는 생활의 즐거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4)	4.23	0.77	-
성별	남자	(5,624)	4.24	0.78	0.716
	여자	(5,170)	4.23	0.76	
학교급	초등학교	(3,031)	4.41	0.79	147,57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7)	4.24	0.76	
	고등학교	(4,017)	4.09	0.73	
경제적 수준	상	(7,230)	4.40	0.69	581,013*** 상 > 중 > 하
	중	(2,926)	3.93	0.77	
	하	(587)	3.70	1.0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3)	4.25	0.76	16,240***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4.07	0.82	
	조손가정	(93)	4.11	0.88	
	기타	(207)	4.13	0.9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4.06	0.88	24,885***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97)	4.10	0.80	
	고졸	(2,364)	4.15	0.76	
	전문대졸 이상	(4,220)	4.28	0.73	
	잘 모르겠음	(3,235)	4.28	0.7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4.07	0.85	19,438*** 전문대졸이상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86)	4.04	0.85	
	고졸	(2,938)	4.18	0.74	
	전문대졸 이상	(3,791)	4.28	0.75	
	잘 모르겠음	(3,272)	4.27	0.8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6)	4.24	0.76	20,241***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4.28	0.75	
	양부모직업없음	(46)	3.97	0.96	
	기타	(1,188)	4.08	0.84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도시규모	대도시	(4,594)	4.26	0.77	5.164**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2)	4.21	0.76	
	농산어촌	(1,478)	4.20	0.80	
종교유무	없다	(6,153)	4.21	0.77	3.483***
	있다	(4,620)	4.26	0.77	

주) * $p < .05$, ** $p < .01$, *** $p < .001$

④ 교사 관계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즐거움에서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57로 즐겁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65)가 남자(3.50)보다 평소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t=8.045$,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83), 중학교(3.48), 고등학교(3.47)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153.89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73), 중(3.28), 하(3.05)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43.075$,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58)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45) 보다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였다($F=5.597$,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4)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4),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47)보다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18.336$,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5)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9),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50)보다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5)이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7),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2)보다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15.016, p<.001$).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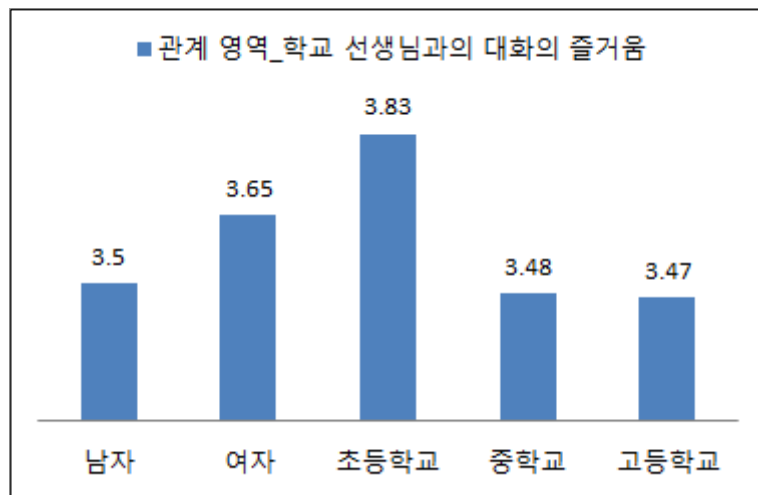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7)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1)이 기타 청소년(3.47) 보다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F=6.085,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60)이 없는 청소년(3.55)보다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했다($t=3.000, p<.01$).

표 III-27 관계 영역_학교 선생님과 대화의 즐거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3)	3.57	0.96	-
성별	남자	(5,624)	3.50	0.97	8.045***
	여자	(5,169)	3.65	0.94	
학교급	초등학교	(3,028)	3.83	0.98	153.892***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48	0.97	
	고등학교	(4,017)	3.47	0.89	
경제적 수준	상	(7,229)	3.73	0.94	343.075*** 상 > 중 > 하
	중	(2,925)	3.28	0.87	
	하	(587)	3.05	1.0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2)	3.58	0.96	5.597***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45	0.95	
	조손가정	(93)	3.54	1.01	
	기타	(207)	3.58	1.03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44	0.97	18.336***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고졸
	중졸 이하	(197)	3.44	0.99	
	고졸	(2,363)	3.47	0.90	
	전문대졸 이상	(4,219)	3.64	0.95	
	잘 모르겠음	(3,236)	3.60	0.9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49	0.97	15.016***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고졸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3.32	0.93	
	고졸	(2,937)	3.50	0.91	
	전문대졸 이상	(3,792)	3.65	0.95	
	잘 모르겠음	(3,271)	3.57	1.0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6)	3.57	0.95	6.085***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3.61	0.96	
	양부모직업없음	(46)	3.45	1.06	
	기타	(1,188)	3.47	0.97	
도시규모	대도시	(4,593)	3.59	0.98	1.849
	중소도시	(4,722)	3.56	0.95	
	농산어촌	(1,478)	3.56	0.95	
종교유무	없다	(6,153)	3.55	0.95	3.000**
	있다	(4,618)	3.60	0.97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4】 관계 영역_학교 선생님과의 대화의 즐거움

⑤ 일반신뢰도

가. 부모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신뢰에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평균 4.50로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73), 중학교(4.45), 고등학교(4.37)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부모님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F=206.911,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66), 중(4.21), 하(3.8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54.518,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4.52)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4.29)과 기타(4.29) 보다 부모님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948, p<.001$). 그러나 한부모가정과 기타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53)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56)이 아버지가 고졸인 청소년(4.43),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4.32)보다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 학력을 모른다는 청소년(4.56)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4.36)보다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4.516,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54),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4.45),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4.20) 순으로 부모님을 신뢰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54)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56)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4.30) 보다 부모님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한편,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54),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4.45),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4.20) 순으로 부모님을 신뢰한다고 하였다($F=43.123,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51)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55)이 기타 청소년(4.30) 보다 부모님을 신뢰한다고 하였다($F=32.880,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4.50)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4.51)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4.45) 보다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56, p<.05$). 그러나 대도시 거주 청소년과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4.51)이 없는 청소년(4.48)보다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954, p<.05$).

표 III-28 관계 영역(신뢰)_부모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8)	4.50	0.76	-
성별	남자	(5,628)	4.49	0.78	0.716
	여자	(5,170)	4.50	0.74	
학교급	초등학교	(3,032)	4.73	0.61	206.91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4.45	0.78	
	고등학교	(4,016)	4.37	0.80	
경제적 수준	상	(7,231)	4.66	0.61	654.516*** 상 > 중 > 하
	중	(2,929)	4.21	0.86	
	하	(586)	3.86	1.1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6)	4.52	0.74	30.948***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기타
	한부모가정	(873)	4.29	0.88	
	조손가정	(93)	4.36	0.99	
	기타	(207)	4.29	1.05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4.32	0.92	24.516***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4.36	0.89	
	고졸	(2,364)	4.43	0.79	
	전문대졸 이상	(4,219)	4.53	0.72	
	잘 모르겠음	(3,238)	4.56	0.74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4.20	1.00	36.656*** 전문대졸이상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86)	4.30	0.89	
	고졸	(2,938)	4.45	0.77	
	전문대졸 이상	(3,793)	4.54	0.71	
	잘 모르겠음	(3,273)	4.56	0.7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90)	4.51	0.75	32.880***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4.55	0.71	
	양부모직업없음	(46)	4.54	0.65	
	기타	(1,189)	4.30	0.92	
도시규모	대도시	(4,594)	4.50	0.77	4.156* 대도시, 중소도시 >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4)	4.51	0.74	
	농산어촌	(1,479)	4.45	0.81	
종교유무	없다	(6,155)	4.48	0.77	2.029*
	있다	(4,622)	4.51	0.76	

주) * $p < .05$, ** $p < .01$, *** $p < .001$

나. 친구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신뢰에서 친구들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평균 3.85로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85)가 여자(3.83)보다 친구들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659, p<.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3.90)가 초등학교(3.82), 고등학교(3.82) 보다 친구들에 신뢰가 더 높았다($F=10.856, p<.001$). 그러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98), 중(3.61), 하(3.41)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들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82.718,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86)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73) 보다 친구들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287,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9)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85)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3)보다 친구들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했다($F=7.160,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8)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4)보다 친구들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했다($F=5.07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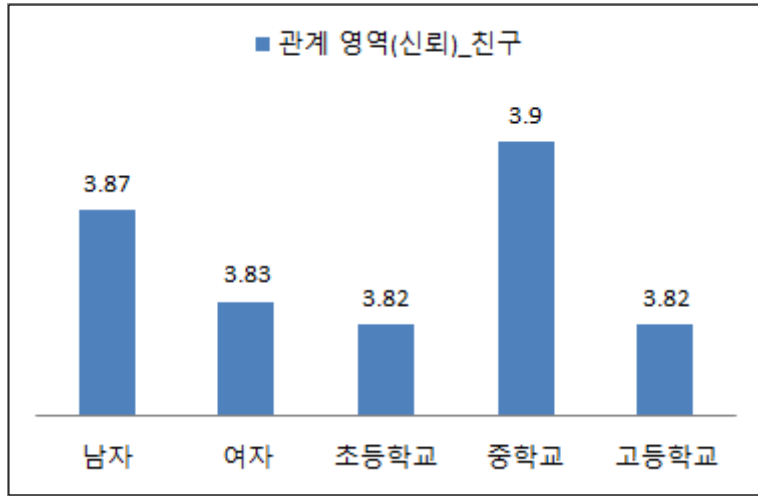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6)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7)이 기타 청소년(3.74) 보다 친구들을 신뢰한다고 하였다($F=7.173,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87)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80) 보다 친구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452, p<.05$).

표 III-29 관계 영역(신뢰)_친구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6)	3.85	0.86	-
성별	남자	(5,628)	3.87	0.87	2.659**
	여자	(5,168)	3.83	0.84	
학교급	초등학교	(3,032)	3.82	0.93	10,856*** 중학교 >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90	0.85	
	고등학교	(4,016)	3.82	0.80	
경제적 수준	상	(7,229)	3.98	0.81	282,718*** 상 > 중 > 하
	중	(2,928)	3.61	0.85	
	하	(587)	3.41	1.05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3)	3.86	0.85	7.287***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73	0.91	
	조손가정	(93)	3.82	1.05	
	기타	(207)	3.75	1.00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73	0.97	7.160*** 전문대졸이상, 잘 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98)	3.76	0.95	
	고졸	(2,363)	3.82	0.84	
	전문대졸 이상	(4,219)	3.89	0.84	
	잘 모르겠음	(3,237)	3.85	0.87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74	0.95	5.075***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86)	3.74	0.97	
	고졸	(2,937)	3.83	0.84	
	전문대졸 이상	(3,793)	3.88	0.84	
	잘 모르겠음	(3,272)	3.85	0.88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7)	3.86	0.85	7.173***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3.87	0.84	
	양부모직업없음	(46)	3.69	0.99	
	기타	(1,189)	3.74	0.93	
도시규모	대도시	(4,593)	3.87	0.86	4.452* 대도시 >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3)	3.84	0.85	
	농산어촌	(1,479)	3.80	0.87	
종교유무	없다	(6,155)	3.86	0.85	1.074
	있다	(4,620)	3.84	0.87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5】 관계 영역(신뢰)_친구

다. 담임교사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신뢰에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평균 3.83으로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90)가 여자(3.76)보다 학교 선생님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8.097,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24), 중학교(3.75), 고등학교(3.60)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F=452.655,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00), 중(3.54), 하(3.2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93.429,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3.84)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69) 보다 학교 선생님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712,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5)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4)보다 편안함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고,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84), 아버지가 고등학교

까지 졸업인 청소년(3.70)보다 학교 선생님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 중졸 이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95)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69)보다 선생님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9.695,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6)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3),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70)보다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6),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5),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71) 순으로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9.48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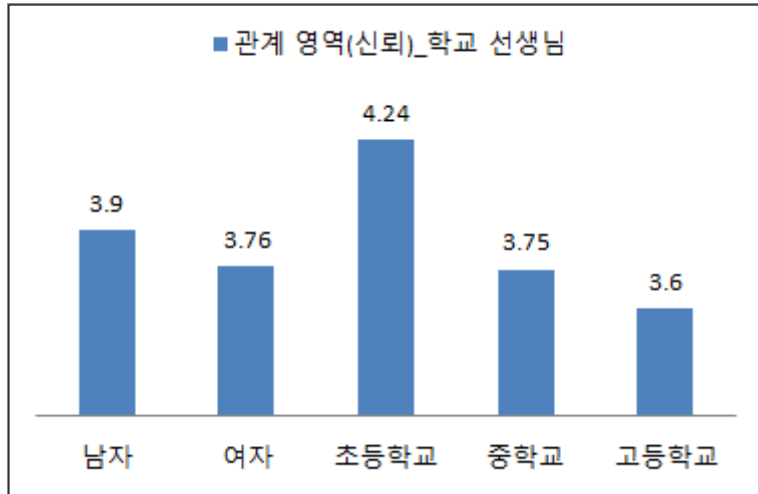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4)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5)이 기타 청소년(3.73) 보다 선생님을 신뢰한다고 하였다(F=5.945,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86)이 없는 청소년(3.81)보다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23, p<.05).

표 III-30 **관계 영역(신뢰)_학교 선생님**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1)	3.83	0.94	-
성별	남자	(5,627)	3.90	0.94	8.097***
	여자	(5,164)	3.76	0.92	
학교급	초등학교	(3,030)	4.24	0.86	452.655***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5)	3.75	0.93	
	고등학교	(4,016)	3.60	0.90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25)	4.00	0.88	393.429*** 상 > 중 > 하
	중	(2,927)	3.54	0.90	
	하	(587)	3.26	1.1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0)	3.84	0.93	7.712***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69	0.97	
	조손가정	(93)	3.84	0.94	
	기타	(207)	3.87	1.06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72	0.99	29.695***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3.69	1.11	
	고졸	(2,361)	3.70	0.91	
	전문대졸 이상	(4,216)	3.84	0.93	
	잘 모르겠음	(3,238)	3.95	0.92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73	1.00	29.485***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86)	3.70	0.88	
	고졸	(2,938)	3.71	0.93	
	전문대졸 이상	(3,789)	3.84	0.92	
	잘 모르겠음	(3,271)	3.96	0.9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3.84	0.93	5.945***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3.85	0.92	
	양부모직업없음	(45)	3.61	1.10	
	기타	(1,188)	3.73	0.98	
도시규모	대도시	(4,591)	3.84	0.95	0.828
	중소도시	(4,721)	3.83	0.92	
	농산어촌	(1,479)	3.81	0.95	
종교유무	없다	(6,151)	3.81	0.94	2.223*
	있다	(4,619)	3.86	0.93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6】 관계 영역(신뢰)_학교 선생님

라. 이웃 사람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신뢰에서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평균 2.95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이웃 간에 범죄가 증가하고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웃을 신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03)가 여자(2.86)보다 이웃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8.918, p<.001$). 그러나 여자는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18), 중학교(2.97), 고등학교(2.7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이웃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F=174.218, p<.001$). 그러나 중청소년과 고등청소년은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98), 중(3.61), 하(3.41)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들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82.718,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2.96)과 기타 가정의 청소년(3.06)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2.81) 보다 이웃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287,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과 기타 가정의 청소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부모님 안 계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05)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96)보다 이웃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2.82),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84)보다 이웃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F=22.595, p<.001$). 그러나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04)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90)보다 이웃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04),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96),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2.83) 순으로 이웃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27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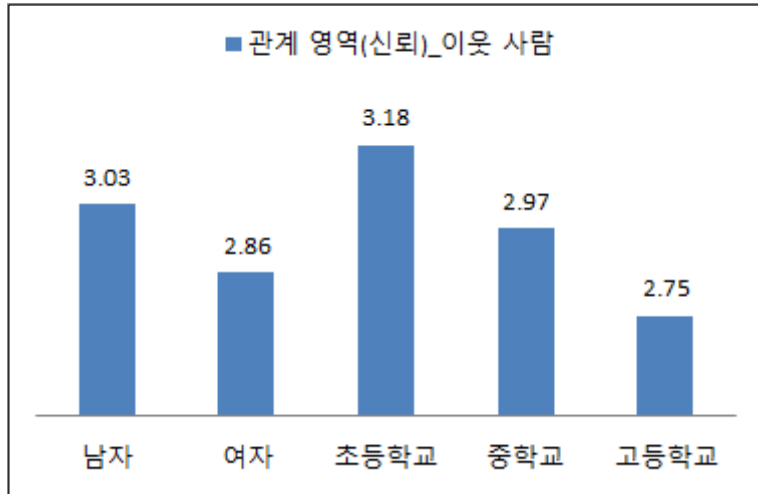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청소년(2.87)이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2.99) 보다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F=4.500, p<.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2.99)이 대도시(2.97)와 농산어촌(2.99)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5.511, p<.01$). 그러나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없는 청소년(2.93)이 있는 청소년(2.97) 보다 이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2.116, p<.05$).

표 III-31 관계 영역(신뢰)_이웃 사람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1)	2.95	0.97	-
성별	남자	(5,620)	3.03	1.00	8.918***
	여자	(5,161)	2.86	0.92	
학교급	초등학교	(3,025)	3.18	1.02	174.21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2)	2.97	0.95	
	고등학교	(4,014)	2.75	0.89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14)	3.08	0.96	278,846*** 상 > 중 > 하
	중	(2,928)	2.72	0.88	
	하	(587)	2.35	1.0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0)	2.96	0.96	7.287*** 양부모가정,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2.81	0.96	
	조손가정	(93)	3.00	1.13	
	기타	(207)	3.06	1.03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2.84	0.99	22,595***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97)	2.88	1.06	
	고졸	(2,363)	2.82	0.93	
	전문대졸 이상	(4,207)	2.96	0.95	
	잘 모르겠음	(3,236)	3.05	0.98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2.90	1.01	19,279***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86)	2.91	0.97	
	고졸	(2,938)	2.83	0.92	
	전문대졸 이상	(3,781)	2.96	0.96	
	잘 모르겠음	(3,269)	3.04	0.99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6)	2.94	0.96	4,500**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2)	2.99	0.96	
	양부모직업없음	(46)	2.84	1.05	
	기타	(1,187)	2.87	0.99	
도시규모	대도시	(4,588)	2.97	0.99	5,511** 대도시,농산어촌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7)	2.91	0.95	
	농산어촌	(1,475)	2.99	0.96	
종교유무	없다	(6,146)	2.93	0.96	2,116*
	있다	(4,614)	2.97	0.97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7】 관계 영역(신뢰)_이웃 사람

⑥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초중고 청소년들의 관계 영역 중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에 대해 전체 10,783명 중 45.8%의 청소년이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49.0%)가 남자(42.8%)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74.193$, $p<.00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59.6%), 중학교(48.7%), 고등학교(32.7%) 순으로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가족과 대화한다고 응답했다($\chi^2=686.482$, $p<.001$).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52.3%), 중(33.5%), 하(26.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들과 오래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07.206$, $p<.001$).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46.6%), 기타(40.0%), 한부모가정(38.1%), 조손가정(26.2%) 순으로 나타났다($\chi^2=81.367$, $p<.001$).

부학력에서는 잘 모르겠음(48.3%), 중졸 이하(48.1%), 전문대졸 이상(47.9%), 부모님 안 계심(40.6%), 고졸(40.2%) 순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가족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2.957$, $p<.001$). 모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47.9%)과 잘 모르겠음(47.9%)이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중졸 이하(43.9%), 고졸(42.5%), 부모님 안 계심(37.4%) 순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가족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6.596$, $p<.001$). 부모의 직업유무별로는 한부모직업있음(50.8%), 양부모 직업있음(44.8%), 기타(39.3%), 양부모직업없음(36.9%) 순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가족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4.080$, $p<.001$).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47.0%), 대도시(45.5%), 농산어

촌(42.9%) 순으로 나타났으며($\chi^2=51.640,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47.7%)의 비율이 없는 청소년(44.3%)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13.757,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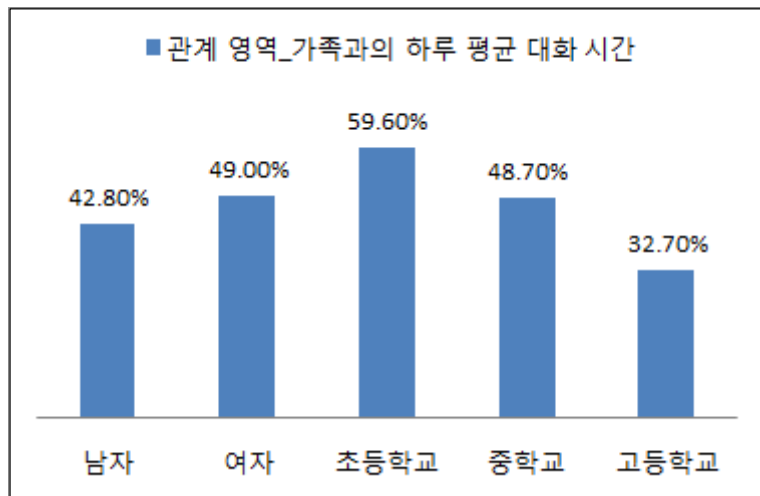
표 III-32 관계 영역_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구분		사례수(명)	①	②	③	④	⑤	χ^2
전체		(10,783)	2.1	20.5	31.5	22.6	23.2	-
성별	남자	(5,620)	2.9	21.3	33.0	22.2	20.6	74.193***
	여자	(5,163)	1.4	19.7	30.0	23.0	26.0	
학교급	초등학교	(3,028)	1.8	15.2	23.4	24.0	35.6	686.482***
	중학교	(3,742)	1.4	17.4	32.5	24.4	24.3	
	고등학교	(4,012)	3.0	27.5	36.8	19.8	12.9	
경제적 수준	상	(7,218)	1.2	15.6	31.0	25.0	27.3	607.206***
	중	(2,927)	3.7	29.3	33.4	18.4	15.1	
	하	(586)	5.7	37.6	30.0	13.1	13.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3)	1.8	19.9	31.7	22.9	23.7	81.367***
	한부모가정	(871)	3.8	26.3	31.8	19.8	18.3	
	조손가정	(93)	5.8	21.5	26.4	25.7	20.5	
	기타	(206)	7.2	25.4	27.4	19.6	20.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4.0	25.9	29.5	20.0	20.6	112.957***
	중졸 이하	(198)	3.1	20.6	28.1	26.6	21.5	
	고졸	(2,360)	1.8	21.7	36.3	21.5	18.7	
	전문대졸 이상	(4,213)	2.0	18.4	31.7	24.0	23.9	
	잘 모르겠음	(3,236)	2.0	21.2	28.5	21.9	26.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6.4	25.6	30.6	20.0	17.4	136.596***
	중졸 이하	(186)	2.4	23.0	30.8	22.3	21.6	
	고졸	(2,935)	1.5	20.7	35.3	22.8	19.7	
	전문대졸 이상	(3,785)	2.1	18.6	31.4	23.2	24.7	
	잘 모르겠음	(3,270)	2.0	21.6	28.6	22.2	25.7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1)	2.2	21.4	31.6	22.2	22.6	114.080***
	한부모직업있음	(2,968)	1.1	16.7	31.4	24.6	26.2	
	양부모직업없음	(46)	0.0	18.8	44.2	8.4	28.5	
	기타	(1,188)	4.3	25.3	31.0	20.2	19.1	

구분		사례수(명)	①	②	③	④	⑤	χ^2
도시규모	대도시	(4,589)	1.7	20.4	32.5	22.8	22.7	51.640***
	중소도시	(4,715)	2.0	19.7	31.3	22.9	24.1	
	농산어촌	(1,478)	4.1	23.8	29.1	20.8	22.1	
종교유무	없다	(6,145)	2.1	21.0	32.5	22.2	22.1	13.757**
	있다	(4,617)	2.1	19.9	30.2	23.0	24.7	

주) * $p < .05$, ** $p < .01$, *** $p < .001$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그림 III-8】 관계 영역_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⑦ 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 담임선생님과 면담 횟수

초중고 청소년들의 관계 영역 중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면담 횟수에 대해 전체 10,766명 중 63.2%의 청소년이 '없다'라고 응답했고,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 종교유무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66.8%), 중학교(64.8%), 초등학교(56.4%) 순으로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chi^2=467.447$, $p < .001$).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67.6%), 중(66.3%), 상(61.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면담 횟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5.746$, $p < .001$).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64.8%), 양부모가정(63.2%), 기타(60.7%), 조손가정(57.6%) 순으로 나타났다($\chi^2=21.666$, $p < .05$).

부학력에서는 고졸(64.2%), 중졸 이하(63.4%), 잘 모르겠음(63.1%), 전문대졸 이상(63.0%), 부모님 안 계심(62.6%) 순으로 나타났다($\chi^2=68.523, p<.001$). 모학력에서는 중졸 이하(66.0%), 고졸(64.8%), 부모님 안 계심(63.0%), 잘 모르겠음(62.7%), 전문대졸 이상(62.4%) 순으로 나타났다($\chi^2=52.656, p<.001$).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65.9%), 중소도시(61.5%), 농산어촌(60.7%) 순으로 나타났으며($\chi^2=29.476,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없는 청소년(65.2%)의 비율이 있는 청소년(60.7%)보다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면담 횟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7.746, p<.001$).

표 III-33 관계 영역_수업시간 외 담임선생님 면담 횟수

구분		사례수 (명)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χ^2
전체		(10,766)	63.2	21.2	7.8	3.7	4.1	-
성별	남자	(5,609)	63.4	21.8	7.4	3.6	3.8	6.394
	여자	(5,157)	63.0	20.6	8.2	3.8	4.3	
학교급	초등학교	(3,011)	56.4	17.2	11.0	7.2	8.1	467.447***
	중학교	(3,741)	64.8	21.1	7.5	3.1	3.4	
	고등학교	(4,014)	66.8	24.2	5.7	1.6	1.7	
경제적 수준	상	(7,211)	61.6	21.3	8.2	4.3	4.6	55.746***
	중	(2,918)	66.3	21.5	6.8	2.6	2.7	
	하	(585)	67.6	18.8	7.4	2.1	4.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1)	63.2	21.2	7.7	3.7	4.1	21.666*
	한부모가정	(870)	64.8	21.7	7.9	2.7	2.9	
	조손가정	(91)	57.6	23.6	7.6	8.6	2.7	
	기타	(205)	60.7	17.9	10.8	3.6	6.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3)	62.6	21.7	8.5	3.3	3.9	68.523***
	중졸 이하	(198)	63.4	21.9	11.5	1.8	1.5	
	고졸	(2,362)	64.2	23.7	7.4	2.6	2.2	
	전문대졸 이상	(4,212)	63.0	21.0	7.6	4.1	4.3	
	잘 모르겠음	(3,221)	63.1	19.4	8.0	4.2	5.3	

구분		사례수 (명)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이상	χ^2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4)	63.0	20.2	8.7	4.2	3.9	52.656***
	중졸 이하	(186)	66.0	20.2	9.1	1.4	3.4	
	고졸	(2,935)	64.8	22.6	7.3	2.5	2.8	
	전문대졸 이상	(3,785)	62.4	21.7	7.6	4.1	4.2	
	잘 모르겠음	(3,257)	62.7	19.6	8.3	4.3	5.1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4)	63.1	21.3	7.9	3.7	3.9	12.029
	한부모직업있음	(2,965)	63.0	21.3	7.4	3.9	4.5	
	양부모직업없음	(44)	82.2	8.8	2.4	2.8	3.8	
	기타	(1,184)	63.8	21.0	8.4	3.1	3.7	
도시규모	대도시	(4,586)	65.9	19.3	7.4	3.5	3.8	29.476***
	중소도시	(4,705)	61.5	22.1	8.3	3.7	4.3	
	농산어촌	(1,475)	60.7	24.0	7.3	4.2	3.8	
종교유무	없다	(6,135)	65.2	21.0	7.0	3.3	3.5	37.746***
	있다	(4,611)	60.7	21.4	8.9	4.3	4.8	

주) * $p < .05$, ** $p < .01$, *** $p < .001$

⑧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초중고 청소년들의 관계 영역 중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전체 10,761명 중 53.6%의 청소년이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으며, 앞 문항에서 청소년들은 평소에 부모님(보호자)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더 즐겁다는 문항과 일맥상통한다.

성별로는 남자(57.0%)가 여자(49.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chi^2=63.341$, $p < .001$). 학교급별로는 중학교(55.3%), 초등학교(53.7%), 고등학교(51.9%) 순으로 방과 후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친구와 보낸다고 응답했다($\chi^2=101.844$, $p < .001$).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55.9%), 중(49.6%), 하(45.8%)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8.195$, $p < .001$).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55.9%), 양부모가정(53.5%), 조손가정(49.6%), 기타(48.9%)

순으로 나타났다($\chi^2=26.027$, $p<.05$).

부학력에서는 중졸 이하(55.2%), 고졸(55.2%), 부모님 안 계심(55.0%), 잘 모르겠음(54.6%), 전문대졸 이상(52.0%), 순으로 나타났다($\chi^2=51.591$, $p<.001$). 모학력에서는 고졸(55.5%), 잘 모르겠음(55.1%), 중졸 이하(54.0%), 부모님 안 계심(53.0%), 전문대졸 이상(51.1%) 순으로 나타났다($\chi^2=48.420$, $p<.001$).

부모의 직업유무별로는 양부모직업있음(54.9%), 기타(53.8%), 양부모직업없음(51.6%), 한부모 직업있음(50.8%) 순으로 방과 후 하루 1시간 이상 친구와 함께 보낸다고 응답했다($\chi^2=46.925$, $p<.001$). 도시규모별로는 농산어촌(59.9%), 중소도시(53.2%), 대도시(52.0%) 순으로 나타났다($\chi^2=43.17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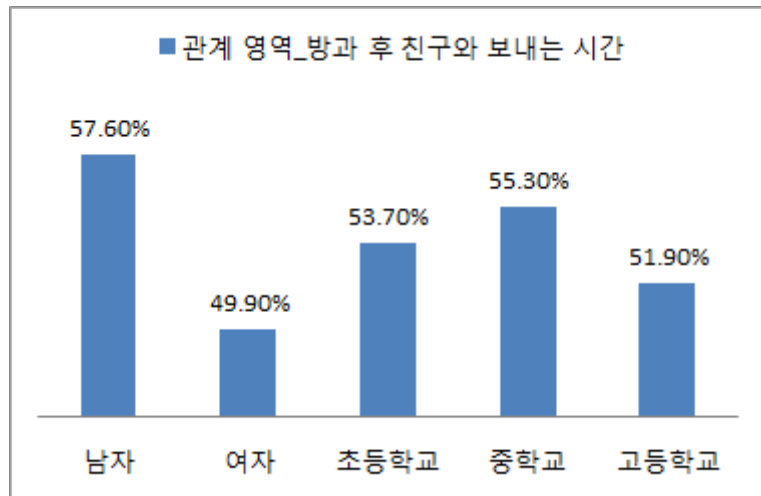
표 III-34 관계 영역_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구분		사례수(명)	①	②	③	④	⑤	χ^2
전체		(10,761)	8.7	18.2	19.5	19.1	34.5	-
성별	남자	(5,602)	8.7	16.2	18.1	19.8	37.2	63.341***
	여자	(5,158)	8.8	20.3	21.0	18.3	31.6	
학교급	초등학교	(3,010)	9.1	17.2	20.1	22.4	31.3	101.844***
	중학교	(3,737)	7.1	17.4	20.2	20.6	34.7	
	고등학교	(4,013)	10.0	19.6	18.4	15.1	36.8	
경제적 수준	상	(7,205)	7.0	17.5	19.7	19.9	36.0	168.195***
	중	(2,920)	10.8	19.7	19.9	18.0	31.6	
	하	(584)	20.6	19.1	14.6	15.2	30.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0)	8.5	18.3	19.7	19.3	34.2	26.027*
	한부모가정	(864)	10.8	16.6	16.7	17.4	38.5	
	조손가정	(92)	13.0	11.4	26.0	18.1	31.5	
	기타	(205)	11.8	20.1	19.2	17.1	31.8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69)	12.6	16.5	17.9	17.5	35.5	51.591***
	중졸 이하	(197)	13.4	14.1	17.4	17.4	37.8	
	고졸	(2,360)	7.9	18.1	18.7	18.6	36.6	
	전문대졸 이상	(4,210)	8.3	19.8	19.9	18.2	33.8	
	잘 모르겠음	(3,225)	8.7	16.7	20.0	21.1	33.5	

구분		사례수(명)	①	②	③	④	⑤	χ^2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4)	11.0	17.4	19.2	17.6	34.8	48.420***
	중졸 이하	(185)	12.3	12.2	21.4	20.7	33.3	
	고졸	(2,931)	8.9	17.6	18.2	18.5	36.8	
	전문대졸 이상	(3,783)	8.1	20.1	20.6	17.8	33.3	
	잘 모르겠음	(3,257)	8.7	16.9	19.2	21.3	33.8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3)	8.2	17.5	19.5	19.4	35.5	46.925***
	한부모직업있음	(2,965)	8.8	20.4	20.1	19.2	31.6	
	양부모직업없음	(46)	20.7	8.9	18.8	10.6	41.0	
	기타	(1,177)	11.3	16.9	17.9	17.6	36.2	
도시규모	대도시	(4,583)	8.6	19.2	20.3	19.5	32.5	43.179***
	중소도시	(4,702)	9.1	18.5	19.1	18.6	34.6	
	농산어촌	(1,475)	7.9	14.1	18.1	19.4	40.5	
종교유무	없다	(6,136)	8.9	18.7	20.0	18.5	33.9	8.469
	있다	(4,603)	8.5	17.5	18.8	19.9	35.2	

주) * $p < .05$, ** $p < .01$, *** $p < .001$

①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그림 III-9】 관계 영역_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3) 간접적 관계

①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즐거움에서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67로 친절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3.71)가 남자(3.64)보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응답했다($t=3.444,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97), 중학교(3.65), 고등학교(3.47)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동네 이웃사람들이 본인에게 친절하다고 응답했다($F=267.260,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83), 중(3.38), 하(3.1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응답했다($F=376.977,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3.68)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58) 보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였다($F=5.073, p<.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2)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2)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9),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56)보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였다($F=15.933,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3)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9),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58)보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하였다($F=14.723,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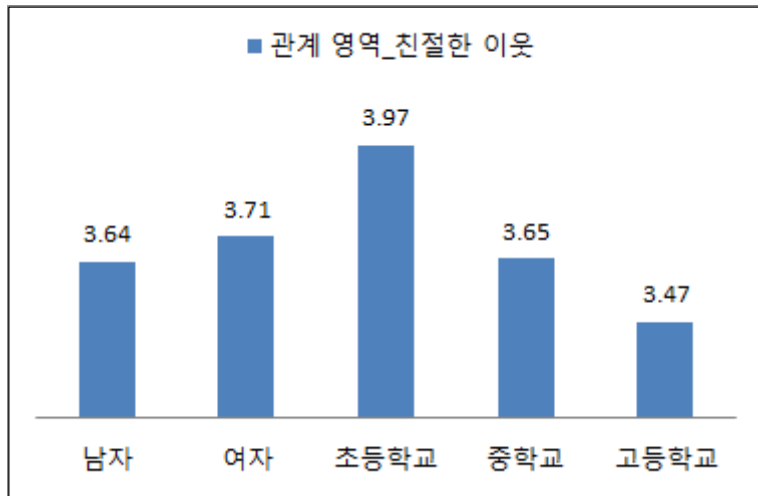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8)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71)이 기타 청소년(3.59) 보다 동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응답했다 ($F=5.330, p<.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71)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3) 보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응답했다 ($F=9.068,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74)이 없는 청소년(3.62)보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응답했다($t=6.871, p<.001$).

표 III-35 관계 영역_친절한 이웃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1)	3.67	0.92	-
성별	남자	(5,618)	3.64	0.95	3.444***
	여자	(5,164)	3.71	0.89	
학교급	초등학교	(3,025)	3.97	0.97	267.260***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5)	3.65	0.90	
	고등학교	(4,011)	3.47	0.84	
경제적 수준	상	(7,223)	3.83	0.90	376.977*** 상 > 중 > 하
	중	(2,921)	3.38	0.85	
	하	(586)	3.16	1.0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0)	3.68	0.92	5.073**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56	0.90	
	조손가정	(93)	3.66	0.89	
	기타	(207)	3.72	1.11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59	0.94	15.933***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고졸
	중졸 이하	(197)	3.62	0.91	
	고졸	(2,363)	3.56	0.88	
	전문대졸 이상	(4,211)	3.72	0.91	
	잘 모르겠음	(3,232)	3.72	0.95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59	0.96	14.723***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고졸
	중졸 이하	(186)	3.62	0.90	
	고졸	(2,935)	3.58	0.88	
	전문대졸 이상	(3,785)	3.73	0.91	
	잘 모르겠음	(3,269)	3.71	0.95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9)	3.68	0.92	5.330**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9)	3.71	0.90	
	양부모직업없음	(45)	3.51	1.08	
	기타	(1,188)	3.59	0.95	
도시규모	대도시	(4,589)	3.71	0.93	9.068***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4)	3.63	0.91	
	농산어촌	(1,478)	3.69	0.92	
종교유무	없다	(6,147)	3.62	0.92	6.871***
	있다	(4,613)	3.74	0.92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0】 관계 영역_친절한 이웃

② 일반신뢰도

가. 우리나라 전체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신뢰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평균 2.56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2.34), 중학교(2.58), 초등학교(2.81) 순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191.566,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평균 1.99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중(2.36), 상(2.68) 순으로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215.850,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51),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2.43)이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67)보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2.43),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55),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67), 순으로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9.962,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2.47)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54)이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65)보다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2.701, p<.001$). 그러나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2.52)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2.56)에 비해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6.169, p<.01$).

표 III-36 관계 영역(신뢰)_우리나라 전체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5)	2.56	1.00	-
성별	남자	(5,622)	2.55	1.06	0.920
	여자	(5,163)	2.56	0.93	
학교급	초등학교	(3,024)	2.81	1.11	191.566***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3)	2.58	0.97	
	고등학교	(4,017)	2.34	0.90	
경제적 수준	상	(7,222)	2.68	1.02	215.850*** 상 > 중 > 하
	중	(2,925)	2.36	0.89	
	하	(586)	1.99	0.9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3)	2.56	1.00	0.727
	한부모가정	(873)	2.52	1.00	
	조손가정	(93)	2.66	1.09	
	기타	(207)	2.58	1.16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2.51	1.05	19.962***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8)	2.43	0.98	
	고졸	(2,363)	2.43	0.96	
	전문대졸 이상	(4,213)	2.55	0.99	
	잘 모르겠음	(3,232)	2.67	1.0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2.58	1.04	12.701*** 잘모르겠음 > 고졸, 전문대졸이상
	중졸 이하	(186)	2.47	1.06	
	고졸	(2,937)	2.47	0.94	
	전문대졸 이상	(3,786)	2.54	1.00	
	잘 모르겠음	(3,269)	2.65	1.05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8)	2.54	1.00	1.700
	한부모직업있음	(2,971)	2.59	0.99	
	양부모직업없음	(46)	2.56	1.10	
	기타	(1,189)	2.54	1.04	
도시규모	대도시	(4,588)	2.59	1.04	6.169**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9)	2.52	0.98	
	농산어촌	(1,477)	2.57	0.99	
종교유무	없다	(6,146)	2.54	0.99	1.287
	있다	(4,617)	2.57	1.02	

주) * p<.05, ** p<.01, *** p<.001

나. 사이버 공간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인간관계 영역 중 관계 간의 신뢰에서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평균 2.24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소년이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받거나, 상업적 목적을 지닌 성인, 유해 정보 등을 접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2.18)가 남자(2.29)보다 사이버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5.705,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청소년(2.07)이 초등청소년(2.31)과 중청소년(2.35)보다 사이버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90.317, p<.001$). 그러나 초등청소년과 중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하(2.01), 중(2.15), 상(2.29)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이버 공간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34.66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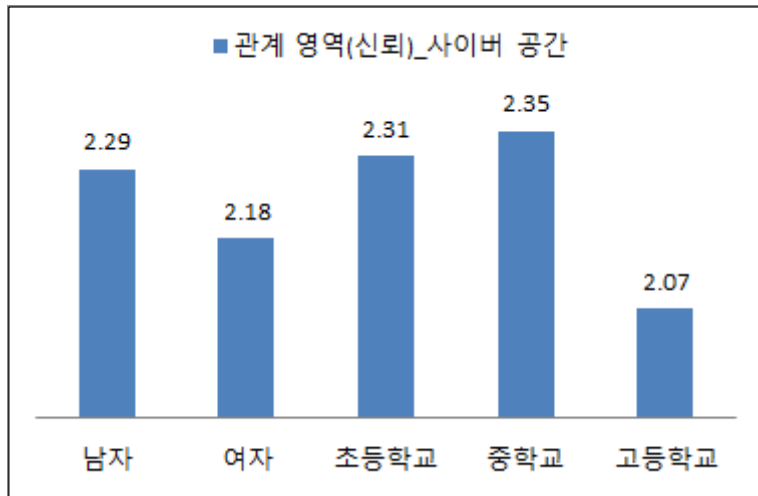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고졸인 청소년(2.17)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21)이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31)보다 사이버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8.243, p<.001$). 그러나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2.17)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34)보다 사이버 공간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음,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2.17),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21)이 어머니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2.31)보다 사이버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24, p<.001$). 그러나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한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2.20)이 대도시(2.26)와 농산어촌(2.28)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사이버 공간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5.168, p<.01$). 그러나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관계 영역(신뢰)_사이버 공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0)	2.24	1.00	-
성별	남자	(5,625)	2.29	1.04	5.705***
	여자	(5,164)	2.18	0.95	
학교급	초등학교	(3,027)	2.31	1.07	90.317***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5)	2.35	1.01	
	고등학교	(4,018)	2.07	0.91	
경제적 수준	상	(7,222)	2.29	1.02	34.663*** 상 > 중 > 하
	중	(2,929)	2.15	0.94	
	하	(587)	2.01	1.0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8)	2.23	0.99	1.636
	한부모가정	(873)	2.27	1.05	
	조손가정	(93)	2.34	1.05	
	기타	(207)	2.34	1.13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2.29	1.05	8.243*** 잘모르겠음 > 고졸,전문대졸이상
	중졸 이하	(198)	2.21	1.08	
	고졸	(2,363)	2.17	0.96	
	전문대졸 이상	(4,215)	2.21	0.98	
	잘 모르겠음	(3,236)	2.31	1.03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2.34	1.09	10.124*** 부모님안계심 > 고졸 잘모르겠음 > 고졸,전문대졸이상
	중졸 이하	(186)	2.28	1.06	
	고졸	(2,937)	2.17	0.95	
	전문대졸 이상	(3,789)	2.21	0.99	
	잘 모르겠음	(3,270)	2.31	1.0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2.23	1.00	1.101
	한부모직업있음	(2,970)	2.24	0.98	
	양부모직업없음	(46)	2.25	1.02	
	기타	(1,189)	2.28	1.06	
도시규모	대도시	(4,591)	2.26	1.02	5.168** 대도시,농산어촌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3)	2.20	0.98	
	농산어촌	(1,476)	2.28	1.02	
종교유무	없다	(6,151)	2.24	0.99	0.479
	있다	(4,618)	2.23	1.01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1】 관계 영역(신뢰)_사이버 공간

다.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관계 영역 중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신뢰에서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3.66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68)가 여자(3.63)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66,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10), 중학교(3.60), 고등학교(3.38)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F=572.788,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82), 중(3.36), 하(3.0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3.984,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68)과 조손가정의 청소년(3.78)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45) 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7.051,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청소년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사이,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80)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8)보다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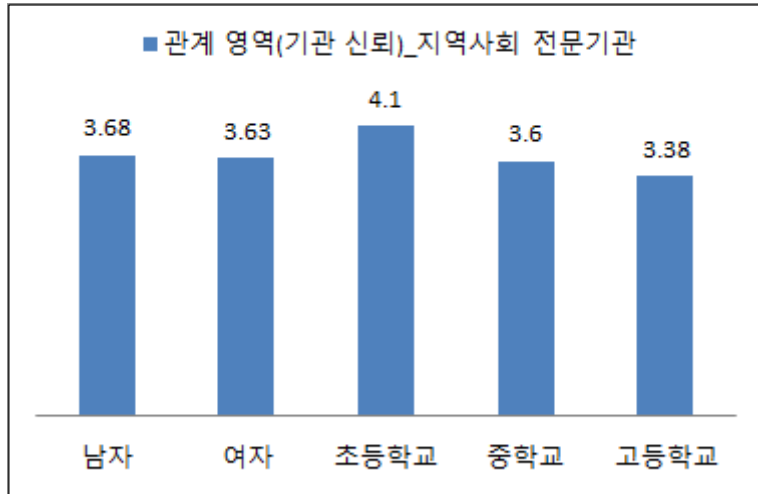
전문기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4),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51)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중졸, 잘 모르겠음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4.201,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사이,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9)이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8)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2),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48)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중졸, 잘 모르겠음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79)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48)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8.054,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6)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71)이 기타 청소년(3.48) 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더 신뢰한다고 하였다($F=17.398,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 청소년(3.70)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2)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543,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64)이 없는 청소년(3.63) 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t=3.218, p<.01$).

표 III-38 관계 영역(기관 신뢰)_지역사회 전문기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4)	3.66	0.94	-
성별	남자	(5,628)	3.68	0.99	2.866**
	여자	(5,165)	3.63	0.89	
학교급	초등학교	(3,031)	4.10	0.86	572,78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3.60	0.91	
	고등학교	(4,014)	3.38	0.91	
경제적 수준	상	(7,229)	3.82	0.89	403,984*** 상 > 중 > 하
	중	(2,927)	3.36	0.88	
	하	(587)	3.06	1.1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3)	3.68	0.93	17,051***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45	0.98	
	조손가정	(93)	3.78	0.89	
	기타	(207)	3.55	1.1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44	1.03	44,201***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3.53	0.99	
	고졸	(2,363)	3.51	0.92	
	전문대졸 이상	(4,217)	3.68	0.92	
	잘 모르겠음	(3,239)	3.80	0.9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52	1.03	38,054***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3.48	1.00	
	고졸	(2,936)	3.52	0.91	
	전문대졸 이상	(3,790)	3.68	0.92	
	잘 모르겠음	(3,274)	3.79	0.94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9)	3.66	0.94	17,389***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0)	3.71	0.90	
	양부모직업없음	(46)	3.75	1.11	
	기타	(1,188)	3.48	1.01	
도시규모	대도시	(4,594)	3.70	0.94	7,543***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1)	3.62	0.94	
	농산어촌	(1,479)	3.64	0.94	
종교유무	없다	(6,154)	3.63	0.94	3,218**
	있다	(4,618)	3.69	0.94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2】 관계 영역(기관 신뢰)_지역사회 전문기관

라. 지방 정부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관계 영역 중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신뢰에서 ‘지방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3.30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75), 중학교(3.24), 고등학교(3.03)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F=564.596,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46), 중(3.02), 하(2.72)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364.288,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32)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14)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828,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사이,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49)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0)보다 지방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0),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3)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중졸, 잘 모르겠음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49)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6)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9.307,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46)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6),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9)보다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46),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29),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15) 순으로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4.000,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30),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36)이 기타 청소년(3.18) 보다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더 신뢰한다고 하였다($F=10.147,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 청소년(3.35)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26)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06, p<.001$),($F=10.106, p<.001$).

표 III-39 관계 영역(기관 신뢰)_지방정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2)	3.30	0.95	-
성별	남자	(5,627)	3.31	1.00	0.365
	여자	(5,164)	3.30	0.88	
학교급	초등학교	(3,031)	3.75	0.91	564.596***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24	0.90	
	고등학교	(4,013)	3.03	0.88	
경제적 수준	상	(7,226)	3.46	0.93	364.288*** 상 > 중 > 하
	중	(2,927)	3.02	0.84	
	하	(587)	2.72	1.05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0)	3.32	0.94	9.828***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14	0.98	
	조손가정	(93)	3.38	0.87	
	기타	(207)	3.31	1.1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12	1.00	59.307***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3.16	0.92	
	고졸	(2,363)	3.13	0.90	
	전문대졸 이상	(4,216)	3.30	0.94	
	잘 모르겠음	(3,238)	3.49	0.9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26	1.01	44.000***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86)	3.19	0.91	
	고졸	(2,936)	3.15	0.91	
	전문대졸 이상	(3,788)	3.29	0.94	
	잘 모르겠음	(3,274)	3.46	0.95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7)	3.30	0.94	10.147***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0)	3.36	0.92	
	양부모직업없음	(46)	3.23	1.02	
	기타	(1,188)	3.18	1.00	
도시규모	대도시	(4,594)	3.35	0.96	10.106***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0)	3.26	0.93	
	농산어촌	(1,478)	3.28	0.94	
종교유무	없다	(6,154)	3.27	0.94	3.458***
	있다	(4,616)	3.34	0.95	

주) * p<.05, ** p<.01, *** p<.001

마. 중앙정부 신뢰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관계 영역 중 우리나라 주요 기관의 신뢰에서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분석 결과, 평균 2.84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2.72)가 여자(2.97)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1.456,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2.35), 중학교(2.70), 초등학교(3.65) 순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1416.17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하(2.20), 중(2.56), 상(3.00)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257.177,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청소년(2.69), 양부모가정의 청소년(2.56), 기타(3.10) 순으로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한부모가정의 청소년(2.62)이 조손가정의 청소년(3.10) 보다 중앙정부를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9.81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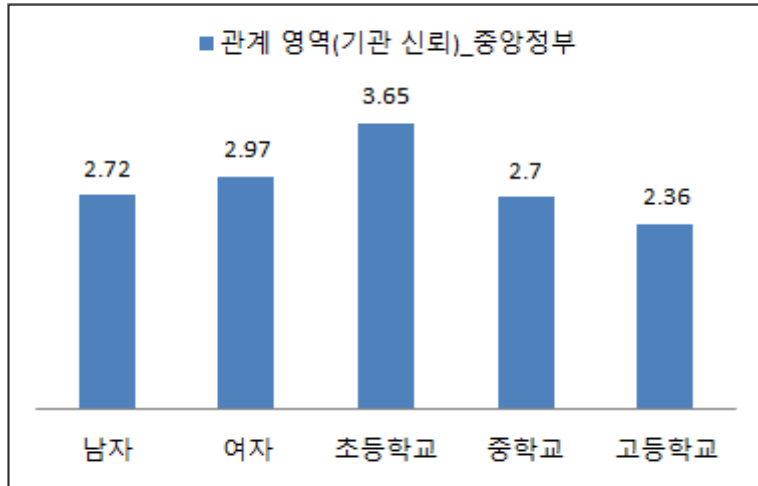
부학력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2.59)이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16),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75),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76) 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와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2.76)이 아버지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16)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97.125, p<.001$). 모학력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2.62)이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14),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89),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75) 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와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2.80)이 어머니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14)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90.035,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2.81)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2.87)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4.040,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없는 청소년(2.78)이 없는 청소년(2.93) 보다 중앙정부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3.218, p<.01$).

표 III-40 관계 영역(기관 신뢰)_중앙정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9)	2.84	1.16	-
성별	남자	(5,624)	2.72	1.24	11.456***
	여자	(5,164)	2.97	1.05	
학교급	초등학교	(3,031)	3.65	1.04	1416.17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7)	2.70	1.08	
	고등학교	(4,011)	2.36	0.98	
경제적 수준	상	(7,224)	3.00	1.18	257.177*** 상 > 중 > 하
	중	(2,926)	2.56	1.01	
	하	(587)	2.20	1.1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8)	2.85	1.16	9.811*** 기타 >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2.69	1.15	
	조손가정	(93)	3.10	1.09	
	기타	(207)	3.10	1.2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2.75	1.15	97.125***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2.76	1.14	
	고졸	(2,362)	2.59	1.08	
	전문대졸 이상	(4,214)	2.76	1.17	
	잘 모르겠음	(3,237)	3.16	1.1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2.89	1.20	90.035***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2.80	1.06	
	고졸	(2,936)	2.62	1.07	
	전문대졸 이상	(3,787)	2.75	1.18	
	잘 모르겠음	(3,273)	3.14	1.15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2.84	1.16	1.646
	한부모직업있음	(2,970)	2.87	1.16	
	양부모직업없음	(46)	2.95	1.23	
	기타	(1,188)	2.79	1.17	
도시규모	대도시	(4,594)	2.87	1.19	4.040*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7)	2.81	1.14	
	농산어촌	(1,478)	2.86	1.13	
종교유무	없다	(6,152)	2.78	1.14	6.814***
	있다	(4,615)	2.93	1.18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3】 관계 영역(기관 신뢰)_중앙정부

2)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영역

(1)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6.93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7.05)가 여자(6.79)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5.792,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7.79), 중학교(6.98), 고등학교(6.22) 순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40.718,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7.61), 중(5.73), 하(4.39)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다($F=1362.244,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부모가정(6.98)이 한부모가정(6.35)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0.900,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계심, 고졸, 전문대 졸업 이상, 잘 모르겠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23),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6.9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41),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6.58) 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9.662,$

p<.001). 그러나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21),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0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51),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6.62)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21)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49) 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73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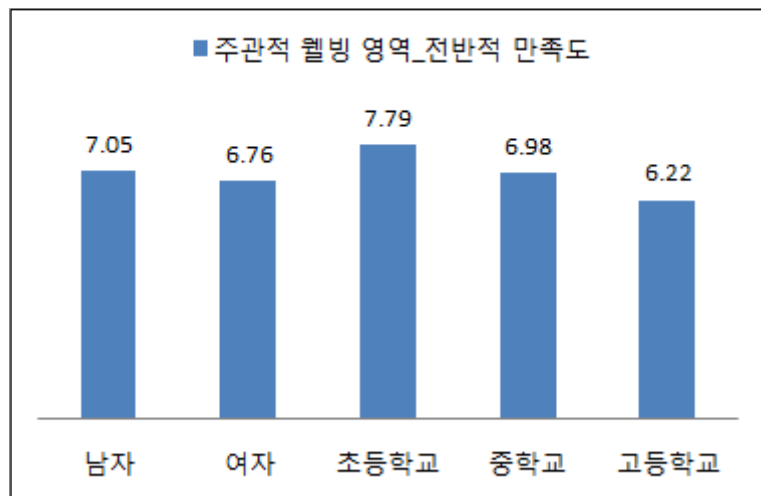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 직업 있음과 양부모 직업 있음, 기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한부모 직업 있음(7.09), 양부모 직업 있음(6.93), 기타(6.4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F=21.496,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6.98) 청소년이 없는(6.89) 청소년보다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995, p<.05).

표 III-41 주관적 웰빙 영역_전반적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03)	6.93	2.28	-
성별	남자	(5,571)	7.05	2.29	5.792***
	여자	(5,131)	6.79	2.25	
학교급	초등학교	(2,999)	7.79	2.13	440.71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25)	6.98	2.15	
	고등학교	(3,978)	6.22	2.26	
경제적 수준	상	(7,176)	7.61	2.00	1362.244*** 상 > 중 > 하
	중	(2,905)	5.73	1.99	
	하	(582)	4.39	2.5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38)	6.98	2.25	20.900***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67)	6.35	2.42	
	조손가정	(93)	6.84	2.32	
	기타	(205)	6.82	2.65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4)	6.41	2.50	39.662***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96)	6.76	2.43	
	고졸	(2,339)	6.58	2.26	
	전문대졸 이상	(4,183)	6.99	2.23	
	잘 모르겠음	(3,210)	7.23	2.23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2)	6.51	2.45	33.734***
	중졸 이하	(183)	6.49	2.45	잘모르겠음 >
	고졸	(2,912)	6.62	2.24	전문대졸이상 >
	전문대졸 이상	(3,757)	7.01	2.26	부모님안계심, 고졸
	잘 모르겠음	(3,247)	7.21	2.24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32)	6.93	2.26	21.496***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44)	7.09	2.20	
	양부모직업없음	(45)	7.30	2.50	
	기타	(1,182)	6.47	2.46	
도시규모	대도시	(4,552)	6.92	2.31	0.013
	중소도시	(4,682)	6.93	2.24	
	농산어촌	(1,468)	6.93	2.27	
종교유무	없다	(6,107)	6.89	2.27	2.111*
	있다	(4,576)	6.98	2.27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4】 주관적 웰빙 영역_전반적 만족도

(2) 정서 상태

① 즐거운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최근 삶에 대한 즐거운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91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18), 중학교(3.92), 고등학교(3.71)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266.192,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4.10), 중(3.56), 하(3.30) 순으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F=645.041,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3.93)이 한부모가정(3.78)보다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01),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9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6),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81)보다 즐거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고졸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01)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76) 보다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26.864,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93)과 어머니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0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9),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71),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83)보다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다($F=22.153,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른다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 이하,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이 있는 양부모 가정과 직업이 있는 한부모 가정, 기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93)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93)은 기타(3.79)보다 최근 즐거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F=9.277,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즐거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6)	3.91	0.86	-
성별	남자	(5,629)	3.91	0.88	0.461
	여자	(5,167)	3.92	0.84	
학교급	초등학교	(3,032)	4.18	0.83	266.19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3.92	0.84	
	고등학교	(4,016)	3.71	0.85	
경제적 수준	상	(7,232)	4.10	0.80	645.041*** 상 > 중 > 하
	중	(2,928)	3.56	0.82	
	하	(585)	3.30	0.9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4)	3.93	0.85	8.754***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78	0.90	
	조손가정	(93)	3.83	0.84	
	기타	(207)	3.87	1.0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76	0.92	26.864***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3.76	0.85	
	고졸	(2,362)	3.81	0.85	
	전문대졸 이상	(4,220)	3.93	0.84	
	잘 모르겠음	(3,237)	4.01	0.86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79	0.94	22.153***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71	0.90	
	고졸	(2,936)	3.83	0.84	
	전문대졸 이상	(3,794)	3.93	0.85	
	잘 모르겠음	(3,272)	4.00	0.86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8)	3.93	0.85	9.277***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3.93	0.85	
	양부모직업없음	(46)	3.90	0.98	
	기타	(1,189)	3.79	0.92	
도시규모	대도시	(4,596)	3.92	0.87	0.850
	중소도시	(4,721)	3.90	0.85	
	농산어촌	(1,479)	3.91	0.86	
종교유무	없다	(6,153)	3.90	0.85	1.107
	있다	(4,622)	3.92	0.87	

주) * p<.05, ** p<.01, *** p<.001

② 편안한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최근 삶에 대한 편안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58로 편안함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62)가 여자(3.55)보다 최근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3.875,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88), 중학교(3.63), 고등학교(3.32) 순으로 편안함을 자주 느낀다고 하였다($F=314.418,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3.79), 중(3.21), 하(2.8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최근 편안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F=612.015, p<.001$). 가족유형별 하위집단별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부모가정(3.60)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3.41)의 청소년보다 편안함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다($F=11.559,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1)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9)보다 편안함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고,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2),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6),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7)보다 편안함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다($F=31.673,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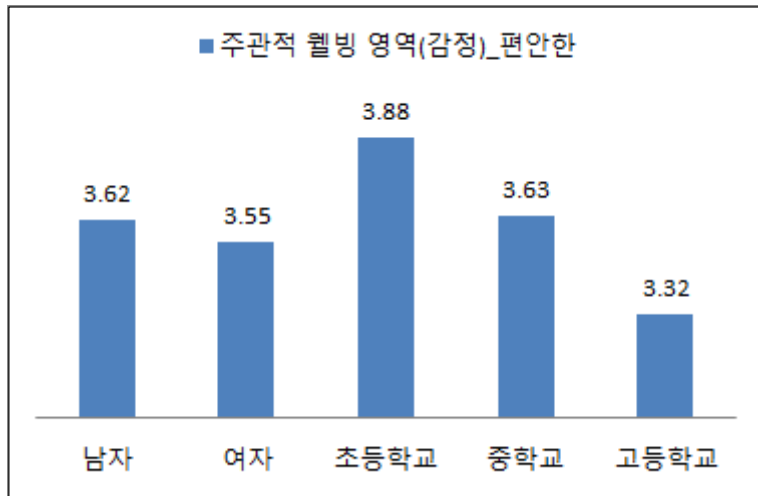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0)이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9)보다 편안함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고,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2),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4),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9)보다 편안함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다($F=27.391,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9)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4)이 기타(3.4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13.576,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편안한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4)	3.58	0.96	-
성별	남자	(5,627)	3.62	0.97	3.875***
	여자	(5,167)	3.55	0.95	
학교급	초등학교	(3,029)	3.88	0.96	314.41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50)	3.63	0.92	
	고등학교	(4,015)	3.32	0.94	
경제적 수준	상	(7,228)	3.79	0.93	612.015*** 상 > 중 > 하
	중	(2,929)	3.21	0.86	
	하	(585)	2.88	1.0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2)	3.60	0.96	11,559***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41	0.95	
	조손가정	(93)	3.41	0.94	
	기타	(207)	3.60	1.1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42	0.98	31.673***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8)	3.36	0.94	
	고졸	(2,362)	3.47	0.94	
	전문대졸 이상	(4,219)	3.59	0.97	
	잘 모르겠음	(3,236)	3.71	0.96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42	1.00	27.391***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34	0.92	
	고졸	(2,936)	3.49	0.95	
	전문대졸 이상	(3,793)	3.59	0.97	
	잘 모르겠음	(3,271)	3.70	0.96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6)	3.59	0.96	13.576***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2)	3.64	0.95	
	양부모직업없음	(46)	3.83	1.00	
	기타	(1,189)	3.43	0.99	
도시규모	대도시	(4,593)	3.61	0.97	2,354
	중소도시	(4,722)	3.57	0.95	
	농산어촌	(1,479)	3.57	0.96	
종교유무	없다	(6,150)	3.58	0.96	0.427
	있다	(4,622)	3.59	0.97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5】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 편안함

③ 불안한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최근 삶에 대한 불안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73으로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2.81)가 남자(2.6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t=7.509, p<.001$). 학교급별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3.09), 중학교(2.70), 초등학교(2.30) 순으로 불안함을 더 느낀다고 응답했다($F=542.400,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3.31), 중(3.00), 상(2.57)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함을 더 자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F=286.992,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80),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인 청소년(2.83),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2.84),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93)이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50)보다 불안함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다($F=57.138,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74),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인 청소년(2.93),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2.84),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83)이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50)보다 불안함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다($F=58.432,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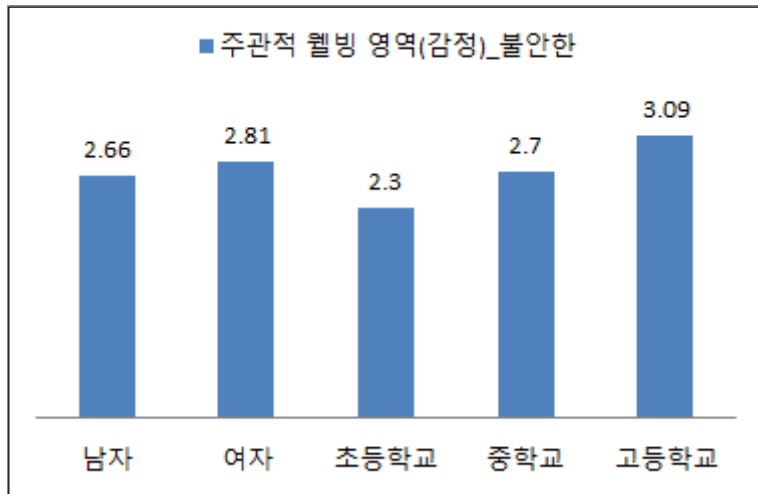
도시규모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도시에 사는 청소년과 농산어촌에 사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2.77)이 농산어촌에 사는 청소년(2.68)보다 불안감을 자주 느꼈다고 응답했다($F=5.142, p<.01$).

표 III-44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불안한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9)	2.52	1.00	-
성별	남자	(5,623)	2.38	0.99	15.623***
	여자	(5,167)	2.68	0.97	
학교급	초등학교	(3,026)	2.33	1.01	98.435***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3,748)	2.53	0.98	
	고등학교	(4,015)	2.66	0.97	
경제적 수준	상	(7,225)	2.38	0.98	265.156*** 하 > 중 > 상
	중	(2,926)	2.76	0.93	
	하	(587)	3.09	1.0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7)	2.51	0.99	8.468*** 한부모가정 >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2.67	1.06	
	조손가정	(93)	2.56	1.00	
	기타	(207)	2.65	1.0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2.70	1.07	15.758*** 부모님안계심 > 고졸,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97)	2.59	1.06	
	고졸	(2,364)	2.56	0.96	
	전문대졸 이상	(4,215)	2.54	0.99	
	잘 모르겠음	(3,236)	2.42	1.00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2.64	1.02	15.702***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85)	2.71	1.10	
	고졸	(2,937)	2.59	0.97	
	전문대졸 이상	(3,789)	2.53	0.99	
	잘 모르겠음	(3,271)	2.42	1.0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2)	2.52	0.99	8.037*** 기타 >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 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2,972)	2.48	0.97	
	양부모직업없음	(46)	2.49	1.16	
	기타	(1,189)	2.65	1.05	
도시규모	대도시	(4,591)	2.54	1.02	1.657
	중소도시	(4,723)	2.50	0.97	
	농산어촌	(1,476)	2.52	0.99	
종교유무	없다	(6,150)	2.48	0.99	5.395***
	있다	(4,618)	2.58	1.00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6】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불안한

④ 슬픔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최근 삶에 대한 슬픔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52로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남자(2.38)가 여자(2.68)보다 슬픔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15.623$,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2.66), 중학교(2.53), 초등학교(2.33) 순으로 나타났다($F=98.435$,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3.09), 중(2.76), 상(2.38)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슬픔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265.156$, $p<.001$). 가족유형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2.67)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2.51)보다 슬픔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8.468$,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계심, 고졸, 전문대 졸업 이상, 잘 모르겠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70)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2.56),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54),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42)보다 슬픔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5.758$, $p<.001$). 그러나 부모님이 고등학교 졸업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64),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2.71),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2.59),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52)이 어머니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42)보다 슬픔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5.702$,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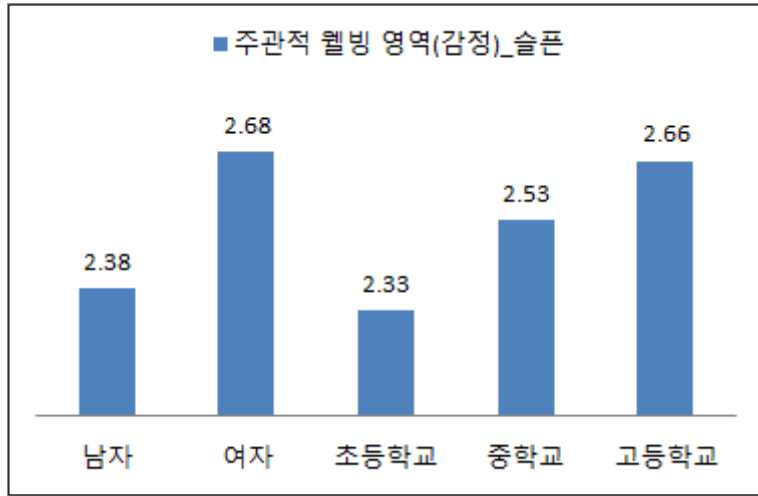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2.65)의 응답이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2.52),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2.48) 보다 슬픔을 자주 느꼈다($F=8.037$,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2.58) 청소년이 없는(2.48) 청소년 보다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5.395$, $p<.001$).

표 III-45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슬픈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9)	2.52	1.00	-
성별	남자	(5,623)	2.38	0.99	15.623***
	여자	(5,167)	2.68	0.97	
학교급	초등학교	(3,026)	2.33	1.01	98.435***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3,748)	2.53	0.98	
	고등학교	(4,015)	2.66	0.97	
경제적 수준	상	(7,225)	2.38	0.98	265.156*** 하 > 중 > 상
	중	(2,926)	2.76	0.93	
	하	(587)	3.09	1.0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7)	2.51	0.99	8.468*** 한부모가정 >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2.67	1.06	
	조손가정	(93)	2.56	1.00	
	기타	(207)	2.65	1.0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2.70	1.07	15.758*** 부모님안계심 > 고졸,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97)	2.59	1.06	
	고졸	(2,364)	2.56	0.96	
	전문대졸 이상	(4,215)	2.54	0.99	
	잘 모르겠음	(3,236)	2.42	1.00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2.64	1.02	15.702***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85)	2.71	1.10	
	고졸	(2,937)	2.59	0.97	
	전문대졸 이상	(3,789)	2.53	0.99	
	잘 모르겠음	(3,271)	2.42	1.0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2)	2.52	0.99	8.037*** 기타 >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2,972)	2.48	0.97	
	양부모직업없음	(46)	2.49	1.16	
	기타	(1,189)	2.65	1.05	
도시규모	대도시	(4,591)	2.54	1.02	1.657
	중소도시	(4,723)	2.50	0.97	
	농산어촌	(1,476)	2.52	0.99	
종교유무	없다	(6,150)	2.48	0.99	5.395***
	있다	(4,618)	2.58	1.00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17】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슬픈

⑤ 우울한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최근 삶에 대한 우울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46로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2.65)가 남자(2.29)보다 우울함을 더 자주 느꼈다($t=16.960,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2.78), 중학교(2.45), 초등학교(2.04) 순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우울함을 자주 느꼈다($F=420.663, p<.001$). 경제적 수준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3.23)가 중(2.79), 상(2.27)에 비해 우울함을 더 자주 느꼈다($F=410.261, p<.001$). 가족유형별 사후분석에서는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2.65)이 양부모가정(2.44)보다 수치가 높았다($F=9.533,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67),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51),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25) 순으로 우울함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2.63)과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2.57)이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25)보다 우울함을 자주 느꼈다($F=44.925, p<.001$). 그러나 중졸이하와 고졸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56),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2.70),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2.59), 어머니가 전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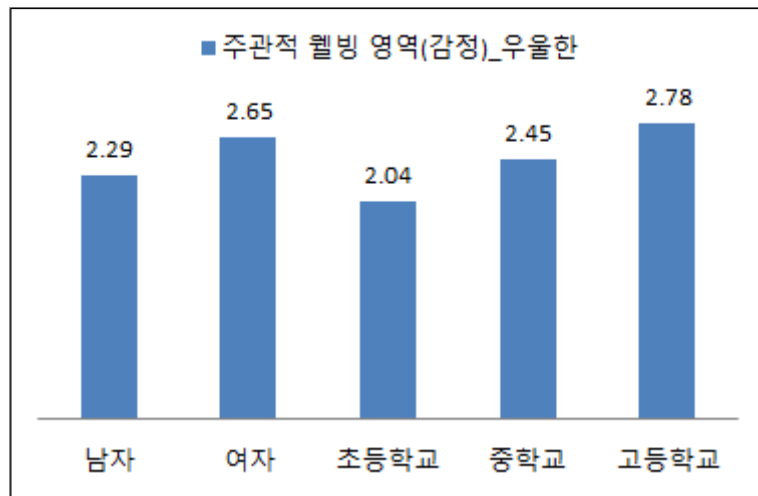
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50)이 어머니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26)보다 우울함을 더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41.350,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별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2.61)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2.46),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2.40) 보다 우울함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9.890,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2.49)이 없는 청소년(2.44)보다 우울함을 더 자주 느꼈다($t=2.137, p<.05$).

표 III-46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우울한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9)	2.46	1.10	-
성별	남자	(5,618)	2.29	1.07	16.960***
	여자	(5,161)	2.65	1.11	
학교급	초등학교	(3,022)	2.04	1.06	420.663***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3,745)	2.45	1.05	
	고등학교	(4,012)	2.78	1.08	
경제적 수준	상	(7,219)	2.27	1.07	410.261*** 하 > 중 > 상
	중	(2,922)	2.79	1.03	
	하	(586)	3.23	1.1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2)	2.44	1.09	9.553*** 한부모가정 >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69)	2.65	1.15	
	조손가정	(93)	2.54	1.13	
	기타	(206)	2.51	1.21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2.67	1.18	44.925*** 부모님안계심 >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이하,고졸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98)	2.63	1.09	
	고졸	(2,360)	2.57	1.06	
	전문대졸 이상	(4,210)	2.51	1.11	
	잘 모르겠음	(3,234)	2.25	1.08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3)	2.56	1.13	41.350***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86)	2.70	1.17	
	고졸	(2,934)	2.59	1.07	
	전문대졸 이상	(3,785)	2.50	1.11	
	잘 모르겠음	(3,271)	2.26	1.09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6)	2.46	1.10	9.890*** 기타 >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2,972)	2.40	1.08	
	양부모직업없음	(46)	2.45	1.20	
	기타	(1,184)	2.61	1.16	
도시규모	대도시	(4,580)	2.48	1.12	1.952
	중소도시	(4,721)	2.44	1.09	
	농산어촌	(1,478)	2.44	1.10	
종교유무	없다	(6,147)	2.44	1.09	2.137*
	있다	(4,611)	2.49	1.12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18】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우울한

⑥ 행복한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최근 삶에 대한 행복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3.85로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25), 중학교(3.85), 고등학교(3.55) 순으로 초등청소년이 월등히 행복함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했다($F=546.297,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07), 중(3.44), 하(3.18) 순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자주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727.852, p<.001$). 가족유형별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3.86)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3.71) 청소년보다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7.705,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3),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69)보다 더 자주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9),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3),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74) 순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33.293, p<.001$).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8)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4),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65)보다 더 자주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8),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4),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74) 순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32.242,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5)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8)이 기타(3.74)보다 행복을 더 자주 느꼈다($F=7.317,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89)이 없는 청소년(3.82)보다 행복함을 더 자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t=3.651, p<.001$).

표 III-47 주관적 웰빙 영역(감정)_행복한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2)	3.85	0.92	-
성별	남자	(5,623)	3.85	0.94	0.282
	여자	(5,159)	3.85	0.90	
학교급	초등학교	(3,021)	4.25	0.88	546.297***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85	0.89	
	고등학교	(4,013)	3.55	0.87	
경제적 수준	상	(7,221)	4.07	0.86	727.852*** 상 > 중 > 하
	중	(2,924)	3.44	0.85	
	하	(585)	3.18	1.0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1)	3.86	0.91	7.705***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71	0.95	
	조손가정	(92)	3.80	0.97	
	기타	(207)	3.89	1.11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73	0.99	33.293***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8)	3.69	0.92	
	고졸	(2,360)	3.74	0.90	
	전문대졸 이상	(4,213)	3.83	0.92	
	잘 모르겠음	(3,234)	3.99	0.91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74	0.99	32.242***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86)	3.65	0.97	
	고졸	(2,933)	3.74	0.90	
	전문대졸 이상	(3,786)	3.84	0.91	
	잘 모르겠음	(3,270)	3.98	0.92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9)	3.85	0.91	7.317***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9)	3.88	0.91	
	양부모직업없음	(46)	4.04	0.93	
	기타	(1,188)	3.74	0.98	
도시규모	대도시	(4,589)	3.84	0.94	0.126
	중소도시	(4,717)	3.85	0.91	
	농산어촌	(1,476)	3.86	0.93	
종교유무	없다	(6,146)	3.82	0.91	3.651***
	있다	(4,614)	3.89	0.93	

주) * p<.05, ** p<.01, *** p<.001

(2) 유데모니아

① 낙관적인(밝은) 미래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삶에 대한 사고에서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55로 그렇다고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00), 중학교(3.50), 고등학교(3.25) 순으로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15.422, p<.001$). 경제적 수준의 사후분석에서는 상(3.77), 중(3.15), 하(2.7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F=629.199, p<.001$). 가족유형별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정(3.56)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3.38) 청소년에 비해 미래에 더 낙관적이라고 응답했다($F=8.870,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1)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4)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3),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38) 보다 미래에 더 낙관적이라고 응답했다($F=29.636,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3)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1)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4),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39)보다 미래에 더 낙관적이라고 응답했다($F=36.812,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3),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3), 기타(3.43) 순으로 미래에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13.032,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61)이 없는 청소년(3.50) 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밝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t=5.299, p<.001$).

표 III-48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낙관적인(밝은) 미래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9)	3.55	1.02	-
성별	남자	(5,628)	3.56	1.02	0.867
	여자	(5,171)	3.54	1.01	
학교급	초등학교	(3,032)	4.00	0.92	515.42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50)	3.50	0.98	
	고등학교	(4,016)	3.25	1.01	
경제적 수준	상	(7,232)	3.77	0.95	629.199*** 상 > 중 > 하
	중	(2,928)	3.15	0.94	
	하	(587)	2.78	1.1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7)	3.56	1.01	8.870***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38	1.06	
	조손가정	(93)	3.55	1.10	
	기타	(207)	3.59	1.12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44	1.08	29.636***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8)	3.33	1.07	
	고졸	(2,363)	3.38	1.00	
	전문대졸 이상	(4,220)	3.61	1.01	
	잘 모르겠음	(3,239)	3.63	0.9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41	1.08	36.812***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24	1.10	
	고졸	(2,937)	3.39	1.00	
	전문대졸 이상	(3,794)	3.63	1.01	
	잘 모르겠음	(3,274)	3.63	1.0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9)	3.53	1.01	13.032***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3.63	0.99	
	양부모직업없음	(46)	3.47	1.11	
	기타	(1,189)	3.43	1.07	
도시규모	대도시	(4,595)	3.56	1.03	1.137
	중소도시	(4,724)	3.53	1.01	
	농산어촌	(1,479)	3.55	0.98	
종교유무	없다	(6,155)	3.50	1.01	5.299***
	있다	(4,623)	3.61	1.02	

주) * p<.05, ** p<.01, *** p<.001

②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삶에 대한 사고에서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79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80)가 남자(3.77)보다 삶의 결정에 대해 더 자유롭다고 응답했다($t=1.985, p<.05$).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03), 중학교(3.76), 고등학교(3.62)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삶의 결정에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F=167.413, p<.001$). 경제적 수준의 사후분석에서는 상(3.97), 중(3.45), 하(3.1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결정에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F=458.538, p<.001$). 가족유형별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80)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68)보다 삶의 결정에 대해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F=4.758, p<.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6)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0),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60),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68)보다 삶의 결정에 대해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0)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68)보다 삶의 결정에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F=17.780, p<.001$).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8)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80)이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69),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64)보다 삶의 결정에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8)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64)보다 삶에 결정에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F=21.792,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78),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3)이 기타 청소년(3.69)보다 삶의 결정에 대해 자유롭다고 응답했다($F=7.111,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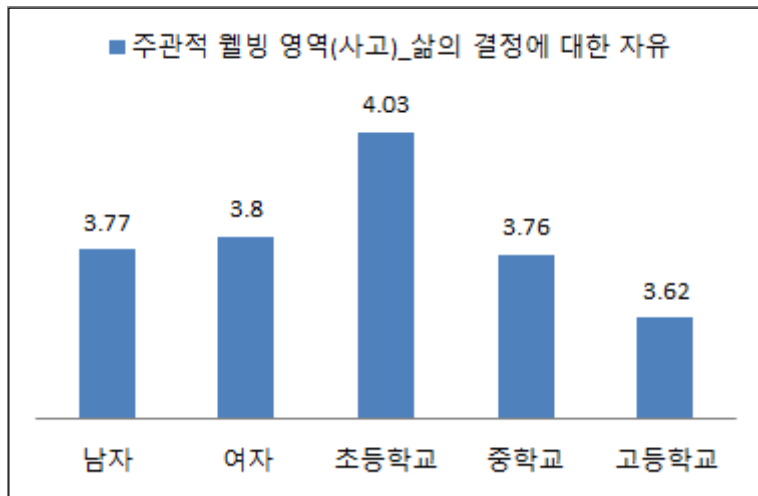
차이는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청소년(3.83)이 중소도시의 청소년(3.76)보다 삶의 결정에 대해 더 자유롭다고 하였다($F=7.197,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81)이 없는 청소년(3.77)보다 삶을 결정하는데 자유롭다고 응답했다($t=2.121, p<.05$).

표 III-49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9)	3.79	0.96	-
성별	남자	(5,629)	3.77	0.97	1.985*
	여자	(5,170)	3.80	0.95	
학교급	초등학교	(3,032)	4.03	0.93	167.413***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50)	3.76	0.93	
	고등학교	(4,017)	3.62	0.96	
경제적 수준	상	(7,232)	3.97	0.89	458.538*** 상 > 중 > 하
	중	(2,928)	3.45	0.92	
	하	(587)	3.18	1.1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8)	3.80	0.95	4.758**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68	1.02	
	조손가정	(93)	3.69	0.98	
	기타	(207)	3.73	1.0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70	1.02	17.780***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98)	3.60	1.00	
	고졸	(2,364)	3.68	0.96	
	전문대졸 이상	(4,220)	3.86	0.94	
	잘 모르겠음	(3,239)	3.80	0.95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64	1.04	21.792***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고졸,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3.64	0.96	
	고졸	(2,937)	3.69	0.95	
	전문대졸 이상	(3,794)	3.88	0.94	
	잘 모르겠음	(3,274)	3.80	0.96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91)	3.78	0.95	7.111***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3.83	0.95	
	양부모직업없음	(46)	3.88	0.93	
	기타	(1,188)	3.69	1.03	
도시규모	대도시	(4,597)	3.83	0.97	7.197***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3)	3.76	0.95	
	농산어촌	(1,479)	3.76	0.94	
종교유무	없다	(6,155)	3.77	0.94	2.121*
	있다	(4,623)	3.81	0.98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19】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③ 가치있는 삶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삶에 대한 사고에서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85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3.87)가 여자(3.83)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낀다 하였다($t=2.298, p<.05$).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16), 중학교(3.81), 고등학교(3.66)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고 하였다($F=281.574,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07), 중(3.46), 하(3.1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F=716.118,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87)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71)보다 삶이 가치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F=8.27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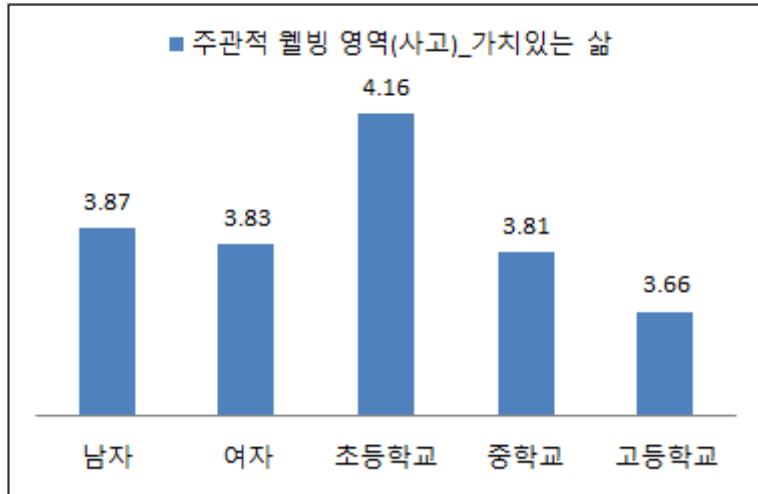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92)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8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73)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63),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74)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낀다 하였다($F=23.106,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92)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68)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59),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76)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느낀다 하였다($F=23.381,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93),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4), 기타 청소년(3.72) 순으로 자신의 삶이 가치 있음을 느낀다고 응답했다($F=16.013,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88)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80)보다 삶이 가치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F=4.156,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89)이 없는 청소년(3.82)보다 삶을 결정하는데 자유롭다고 응답했다($t=4.111, p<.001$).

표 III-50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가치있는 삶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2)	3.85	0.92	-
성별	남자	(5,622)	3.87	0.93	2.298*
	여자	(5,171)	3.83	0.90	
학교급	초등학교	(3,030)	4.16	0.90	281,574***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81	0.89	
	고등학교	(4,014)	3.66	0.90	
경제적 수준	상	(7,226)	4.07	0.83	716,118*** 상 > 중 > 하
	중	(2,929)	3.46	0.87	
	하	(587)	3.16	1.1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2)	3.87	0.91	8,274***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71	0.96	
	조손가정	(93)	3.78	0.90	
	기타	(205)	3.75	1.0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73	0.97	23,106***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98)	3.63	0.99	
	고졸	(2,363)	3.74	0.90	
	전문대졸 이상	(4,215)	3.92	0.90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68	1.00	23,381***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86)	3.59	0.97	
	고졸	(2,937)	3.76	0.89	
	전문대졸 이상	(3,789)	3.92	0.9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4)	3.84	0.92	16,013***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3.93	0.88	
	양부모직업없음	(46)	3.76	1.05	
	기타	(1,188)	3.72	0.98	
도시규모	대도시	(4,593)	3.88	0.94	4,156* 대도시 >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2)	3.84	0.89	
	농산어촌	(1,478)	3.80	0.93	
종교유무	없다	(6,152)	3.82	0.91	4,111***
	있다	(4,619)	3.89	0.92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0】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가치있는 삶

④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삶에 대한 사고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목표한 것을 이룬다고 느낀다(성취감)’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75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98), 중학교(3.77), 고등학교(3.56)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목표한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F=191.129,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94), 중(3.40), 하(3.09)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하는 일에 대해 목표한 것을 이룬다고 응답했다($F=577.593,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76)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64)보다 목표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F=5.900,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4),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6)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64)과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63)보다 목표한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F=22766,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5)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64),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61)보다 목표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85),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4), 어머니가 고등학교 까지 졸업한 청소년(3.66) 순으로 목표한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F=20.435,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83),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73), 기타 청소년(3.65) 순으로 목표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F=12.252,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88)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73),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80) 보다 삶이 가치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다($F=4.156, p<.05$).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79)이 없는 청소년(3.72)보다 삶을 결정하는데 자유롭다고 응답했다($t=3.703, p<.001$).

표 III-51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9)	3.75	0.91	-
성별	남자	(5,619)	3.76	0.92	1.482
	여자	(5,160)	3.74	0.90	
학교급	초등학교	(3,025)	3.98	0.94	191.129***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3)	3.77	0.86	
	고등학교	(4,011)	3.56	0.89	
경제적 수준	상	(7,218)	3.94	0.85	577.593*** 상 > 중 > 하
	중	(2,925)	3.40	0.85	
	하	(585)	3.09	1.07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7)	3.76	0.91	5.900***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64	0.95	
	조손가정	(93)	3.78	0.85	
	기타	(207)	3.65	1.0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64	0.97	22.766***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중졸 이하	(198)	3.63	0.92	
	고졸	(2,360)	3.63	0.89	
	전문대졸 이상	(4,215)	3.84	0.90	
	잘 모르겠음	(3,229)	3.76	0.92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64	0.96	20.435***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86)	3.61	0.98	
	고졸	(2,933)	3.66	0.89	
	전문대졸 이상	(3,790)	3.85	0.90	
	잘 모르겠음	(3,264)	3.74	0.9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8)	3.73	0.91	12.252***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6)	3.83	0.90	
	양부모직업없음	(46)	3.68	0.97	
	기타	(1,189)	3.65	0.96	
도시규모	대도시	(4,588)	3.79	0.91	8.560***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16)	3.73	0.91	
	농산어촌	(1,475)	3.70	0.92	
종교유무	없다	(6,144)	3.72	0.91	3.703***
	있다	(4,614)	3.79	0.92	

주) * $p < .05$, ** $p < .01$, *** $p < .001$

⑤ 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삶에 대한 사고에서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66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 남자(3.70)가 여자(3.62)보다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t=4.229,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83), 중학교(3.69), 고등학교(3.51)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F=89.375,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85), 중(3.33), 하(2.99) 순으로 자신이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느끼지 않다고 응답했다($F=451.234, p<.001$). 가족유형별로는 $F=3.129,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71)이 기타 청소년(3.57)보다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F=6.01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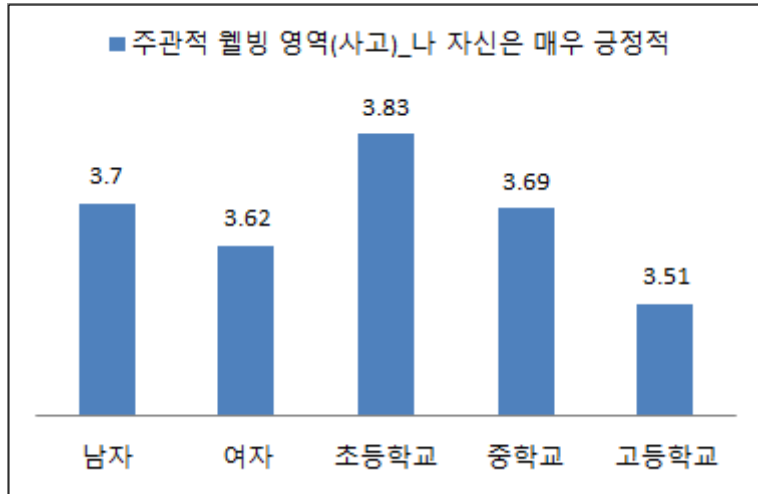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8),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49),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58)보다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8), 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58)보다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F=10.230,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3),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47),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60)보다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3),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60)보다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F=9.849,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70)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4)보다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느낀다고 하였다($F=4.785, p<.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69)이 없는 청소년(3.64)보다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t=2.676, p<.01$).

표 III-52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4)	3.66	1.00	-
성별	남자	(5,620)	3.70	0.99	4.229***
	여자	(5,164)	3.62	1.01	
학교급	초등학교	(3,025)	3.83	1.00	89.375***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5)	3.69	0.98	
	고등학교	(4,014)	3.51	1.00	
경제적 수준	상	(7,222)	3.85	0.94	451,234*** 상 > 중 > 하
	중	(2,925)	3.33	0.96	
	하	(585)	2.99	1.1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3)	3.67	1.00	3.129*
	한부모가정	(873)	3.58	1.01	
	조손가정	(92)	3.66	1.05	
	기타	(207)	3.56	1.15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58	1.04	10,230***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96)	3.49	1.04	
	고졸	(2,364)	3.58	0.99	
	전문대졸 이상	(4,211)	3.71	1.00	
	잘 모르겠음	(3,235)	3.68	0.9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53	1.04	9,849***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고졸
	중졸 이하	(186)	3.47	1.06	
	고졸	(2,935)	3.60	0.98	
	전문대졸 이상	(3,787)	3.71	1.01	
	잘 모르겠음	(3,269)	3.69	1.0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1)	3.65	1.00	6.010***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9)	3.71	0.98	
	양부모직업없음	(46)	3.68	1.14	
	기타	(1,188)	3.57	1.03	
도시규모	대도시	(4,590)	3.70	1.00	4.785**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0)	3.64	1.00	
	농산어촌	(1,474)	3.63	0.98	
종교유무	없다	(6,147)	3.64	1.00	2.676**
	있다	(4,616)	3.69	1.00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1】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⑥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삶에 대한 사고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8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3.56)가 여자(3.39)보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t=8.936,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67), 중학교(3.47), 고등학교(3.3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 올 수 있다고 응답했다($F=90.13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64), 중(3.19), 하(2.9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F=298.298, p<.001$).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 올 수 없다고 응답했다.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49)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35)보다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 올 수 있다고 하였다($F=5.608, p<.001$).

부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4)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5),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41)보다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F=10.278, p<.001$).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5)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9),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8),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0)보다 좋지 않은 일을 겪은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0),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0)보다 삶의 결정에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F=13.56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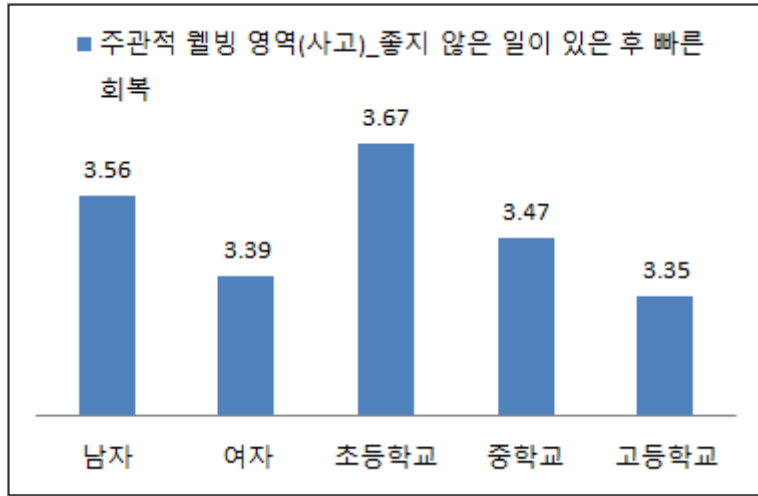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48),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2), 기타 청소년(3.38) 순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6.052,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54)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43),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45)보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F=15.591, p<.001$).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9)	3.48	1.01	-
성별	남자	(5,618)	3.56	1.00	8.936***
	여자	(5,160)	3.39	1.01	
학교급	초등학교	(3,024)	3.67	1.05	90.13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3)	3.47	0.98	
	고등학교	(4,012)	3.35	0.98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18)	3.64	0.98	298,298*** 상 > 중 > 하
	중	(2,924)	3.19	0.96	
	하	(585)	2.97	1.1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9)	3.49	1.00	5,608***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35	1.04	
	조손가정	(93)	3.37	0.99	
	기타	(205)	3.48	1.13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3.35	1.06	10,278***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중졸 이하	(198)	3.35	1.06	
	고졸	(2,360)	3.41	0.98	
	전문대졸 이상	(4,215)	3.54	1.01	
	잘 모르겠음	(3,229)	3.50	1.01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39	1.03	13,565***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86)	3.28	1.09	
	고졸	(2,931)	3.40	0.99	
	전문대졸 이상	(3,789)	3.55	1.01	
	잘 모르겠음	(3,266)	3.50	1.01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8)	3.48	1.00	6,052*** 양부모직업없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7)	3.52	0.99	
	양부모직업없음	(46)	3.54	1.02	
	기타	(1,187)	3.38	1.06	
도시규모	대도시	(4,585)	3.54	1.01	15,591***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15)	3.43	1.01	
	농산어촌	(1,478)	3.45	0.99	
종교유무	없다	(6,142)	3.48	0.99	0,557
	있다	(4,615)	3.49	1.03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22】 주관적 웰빙 영역(사고)_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3) 개인의 성격

① 외향적인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개인의 성격의 외향적인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평균 3.69로 외향적이라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71)가 여자(3.67)보다 더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2.109, p<.05$).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98), 중학교(3.66), 고등학교(3.49)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211.387,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86), 중(3.34), 하(3.22)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외향적이라고 응답했다($F=365.783,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70)과 기타 가정의 청소년(3.84)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52)보다 다른 사람과 더 쉽게 어울린다고 하였다($F=10.121,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과 기타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6),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5)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44),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57)

보다 다른 사람과 더 쉽게 어울린다고 하였다($F=21.355,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64),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2),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58),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6)이 어머니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2)보다 다른 사람과 더 쉽게 어울린다고 하였다($F=20.553,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58)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2)보다 다른 사람과 더 쉽게 어울린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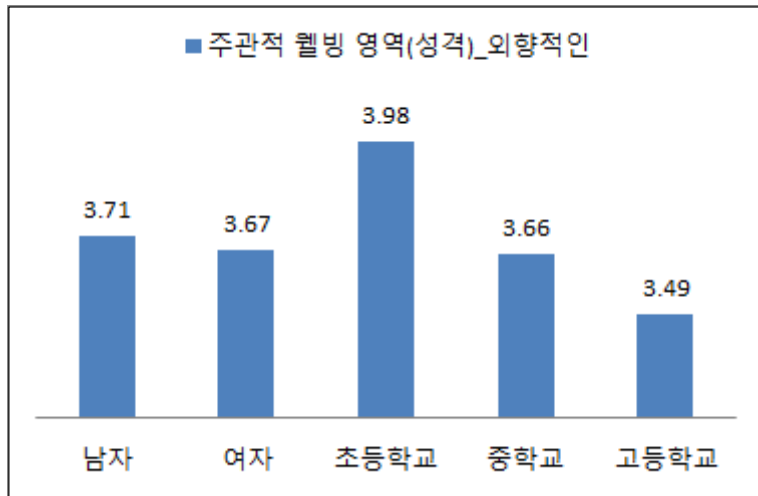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70)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70)이 양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3.22)과 기타 청소년(3.58) 보다 더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8.132,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청소년과 기타 청소년의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72)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7),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364) 보다 더 외향적이라고 하였다($F=4.898, p<.01$).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75)이 없는 청소년(3.64)보다 더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5.731, p<.001$).

표 III-54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외향적인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5)	3.69	1.01	-
성별	남자	(5,627)	3.71	1.02	2.109*
	여자	(5,168)	3.67	1.00	
학교급	초등학교	(3,030)	3.98	0.99	211.387***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3.66	0.99	
	고등학교	(4,016)	3.49	0.99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28)	3.86	0.96	365.783*** 상 > 중 > 하
	중	(2,929)	3.34	0.98	
	하	(586)	3.22	1.2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3)	3.70	1.00	10.121*** 양부모가정, 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52	1.07	
	조손가정	(93)	3.64	1.07	
	기타	(207)	3.83	1.05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55	1.08	21.355***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8)	3.44	1.03	
	고졸	(2,362)	3.57	0.99	
	전문대졸 이상	(4,219)	3.76	1.00	
	잘 모르겠음	(3,238)	3.73	1.01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64	1.06	20.553*** 부모님안계심 > 중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3.32	1.16	
	고졸	(2,936)	3.58	0.99	
	전문대졸 이상	(3,793)	3.76	1.00	
	잘 모르겠음	(3,272)	3.72	1.01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6)	3.70	1.00	8.132***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없음,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3.70	1.01	
	양부모직업없음	(46)	3.22	1.21	
	기타	(1,189)	3.58	1.07	
도시규모	대도시	(4,595)	3.72	1.03	4.898**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1)	3.67	1.00	
	농산어촌	(1,479)	3.64	0.99	
종교유무	없다	(6,155)	3.64	1.01	5.731***
	있다	(4,619)	3.75	1.01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3】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외향적인

② 걱정이 많은

초중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 영역 중 개인의 성격의 걱정이 많은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평균 3.06으로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18)가 남자(2.95)보다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다($t=11.075,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3.43), 중학교(3.09), 초등학교(2.58) 순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666.877, p<.001$). 반면 초등청소년은 걱정이 많지 않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하(3.74), 중(3.32), 상(2.91)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걱정이 많지 않다고 응답했다($F=279.331,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22)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05)과 기타 가정의 청소년(2.92) 보다 걱정이 많다고 하였다($F=7.533,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과 기타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19)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6)이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른다는 청소년(2.87)보다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22),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10), 아버지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87) 순으로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다($F=43.940,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25)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08),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07), 어머니의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87)보다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9)이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2.87)보다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다($F=50.56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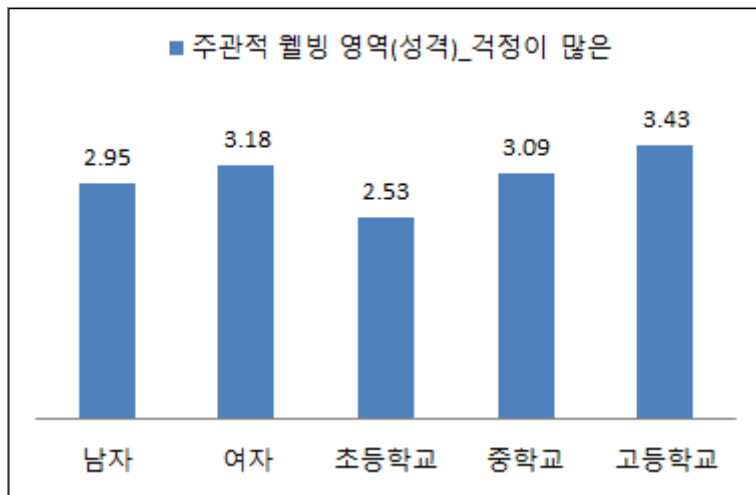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기타 청소년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청소년(3.14)이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03) 보다 더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3.020, p<.05$).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08)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00)보다 걱정이 많다고 응답했다($F=3.302, p<.05$).

표 III-55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걱정이 많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1)	3.06	1.09	-
성별	남자	(5,622)	2.95	1.08	11.075***
	여자	(5,169)	3.18	1.08	
학교급	초등학교	(3,028)	2.53	1.12	666.877***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3,749)	3.09	1.03	
	고등학교	(4,014)	3.43	0.95	
경제적 수준	상	(7,225)	2.91	1.11	279.331*** 하 > 중 > 상
	중	(2,927)	3.32	0.96	
	하	(587)	3.74	0.9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0)	3.05	1.09	7.533*** 한부모가정 > 양부모가정, 기타
	한부모가정	(872)	3.22	1.06	
	조손가정	(93)	2.93	1.16	
	기타	(205)	2.92	1.20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3.19	1.10	43.940***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 잘모르겠음 고졸 >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98)	3.16	1.03	
	고졸	(2,360)	3.22	1.03	
	전문대졸 이상	(4,219)	3.10	1.09	
	잘 모르겠음	(3,238)	2.87	1.10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08	1.09	50.560*** 고졸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이하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86)	3.29	1.05	
	고졸	(2,935)	3.25	1.02	
	전문대졸 이상	(3,791)	3.07	1.10	
	잘 모르겠음	(3,272)	2.87	1.1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3)	3.06	1.09	3.020* 기타 > 한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2,974)	3.03	1.08	
	양부모직업없음	(46)	3.14	1.20	
	기타	(1,188)	3.14	1.10	
도시규모	대도시	(4,594)	3.07	1.11	3.302* 중소도시 >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0)	3.08	1.07	
	농산어촌	(1,477)	3.00	1.07	
종교유무	없다	(6,150)	3.08	1.07	1.619
	있다	(4,620)	3.04	1.11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4】 주관적 웰빙 영역(성격)_걱정이 많은

3) 청소년의 건강 영역

(1) 건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건강 영역 중 건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7.33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7.47)가 여자(7.18)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6.699,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7.98), 중학교(7.44), 고등학교(6.74)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81.736,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7.94), 중(6.22), 하(5.31)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006.418,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부모가정(7.38)이 한부모가정(6.87)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4.897, p<.001$).

부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40)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52)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7.13),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84)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음, 중졸 이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님 학력을 모른다는 청소년(7.52)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94)보다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432,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41),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52)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95),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81),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7.12)보다 목표한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F=20.264,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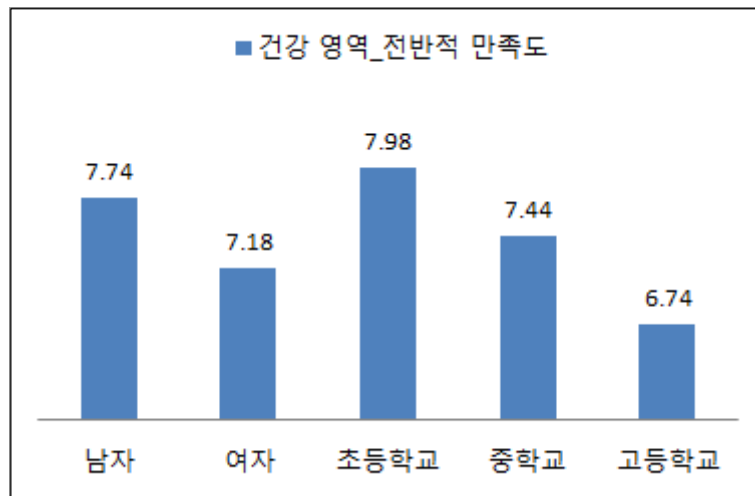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37)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41)이 기타 청소년(6.92) 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5.396,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40)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28) 보다 건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3.896,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7.39)이 없는 청소년(7.29)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2.284, p<.05).

표 III-56 건강 영역_전반적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68)	7.33	2.25	-
성별	남자	(5,619)	7.47	2.27	6.699***
	여자	(5,149)	7.18	2.22	
학교급	초등학교	(3,026)	7.98	2.10	281.736***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39)	7.44	2.17	
	고등학교	(4,004)	6.74	2.28	
경제적 수준	상	(7,223)	7.94	1.98	1006.418*** 상 > 중 > 하
	중	(2,924)	6.22	2.12	
	하	(583)	5.31	2.77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98)	7.38	2.23	14,897***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6.87	2.34	
	조손가정	(92)	7.02	2.23	
	기타	(206)	7.13	2.56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6.84	2.41	22.432***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7)	6.94	2.28	
	고졸	(2,353)	7.13	2.24	
	전문대졸 이상	(4,212)	7.40	2.23	
	잘 모르겠음	(3,229)	7.52	2.22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6.95	2.37	20.264***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86)	6.81	2.22	
	고졸	(2,929)	7.12	2.23	
	전문대졸 이상	(3,784)	7.41	2.22	
	잘 모르겠음	(3,263)	7.52	2.26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68)	7.37	2.24	15.396***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6)	7.41	2.22	
	양부모직업없음	(46)	7.65	2.30	
	기타	(1,188)	6.92	2.37	
도시규모	대도시	(4,581)	7.40	2.26	3.896*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1)	7.28	2.22	
	농산어촌	(1,476)	7.27	2.31	
종교유무	없다	(6,137)	7.29	2.23	2.284*
	있다	(4,610)	7.39	2.28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25】 건강 영역_전반적 만족도

(2) 건강상태

① 주관적 건강상태

초중고 청소년들의 건강 영역 중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11로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20)가 남자(3.20)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t=8.618,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3.31), 중학교(3.12), 초등학교(2.82) 순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초등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78.861,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하(3.99), 중(3.44), 상(2.92)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F=419.942,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30)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09)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F=9.442,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9),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9)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청소년(3.09)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이하, 고졸,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9)과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9)이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02)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16.278,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중졸 이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6),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3.22)이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07)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과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3.22)이 어머니의 학력을 모른다는 청소년(3.02)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18.28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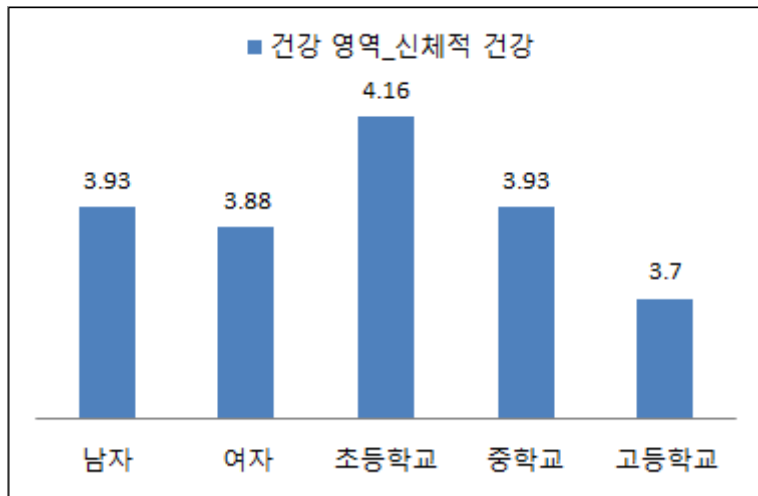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청소년(3.24)이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11)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05)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F=8.686,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건강 영역_신체적 건강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2)	3.91	0.92	-
성별	남자	(5,626)	3.93	0.94	3.224**
	여자	(5,165)	3.88	0.91	
학교급	초등학교	(3,030)	4.16	0.86	221.49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93	0.91	
	고등학교	(4,014)	3.70	0.93	
경제적 수준	상	(7,227)	4.10	0.84	595.322*** 상 > 중 > 하
	중	(2,926)	3.56	0.90	
	하	(587)	3.20	1.1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9)	3.92	0.91	8.850***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76	0.96	
	조손가정	(93)	3.82	0.94	
	기타	(207)	3.92	1.0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76	0.99	13.189***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중졸 이하	(198)	3.78	0.92	
	고졸	(2,362)	3.84	0.90	
	전문대졸 이상	(4,218)	3.93	0.92	
	잘 모르겠음	(3,236)	3.97	0.9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79	0.98	14.845***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64	1.04	
	고졸	(2,936)	3.84	0.90	
	전문대졸 이상	(3,791)	3.95	0.91	
	잘 모르겠음	(3,271)	3.96	0.9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6)	3.92	0.92	7.916***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1)	3.93	0.91	
	양부모직업없음	(45)	3.87	0.94	
	기타	(1,189)	3.79	0.98	
도시규모	대도시	(4,593)	3.95	0.92	8.699***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0)	3.88	0.91	
	농산어촌	(1,479)	3.87	0.95	
종교유무	없다	(6,150)	3.88	0.92	3.026**
	있다	(4,620)	3.94	0.93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6】 건강 영역_신체적 건강

② 스트레스 정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건강 영역 중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11로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20)가 남자(3.20)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t=8.618,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3.31), 중학교(3.12), 초등학교(2.82) 순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초등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178.861,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하(3.99), 중(3.44), 상(2.92)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F=419.942,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30)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09)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F=9.442,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9),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9)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청소년(3.09)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이하, 고졸,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9)과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9)이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02)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16.278,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중졸 이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6),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3.22)이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07)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과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3.22)이 어머니의 학력을 모른다는 청소년(3.02)보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18.284,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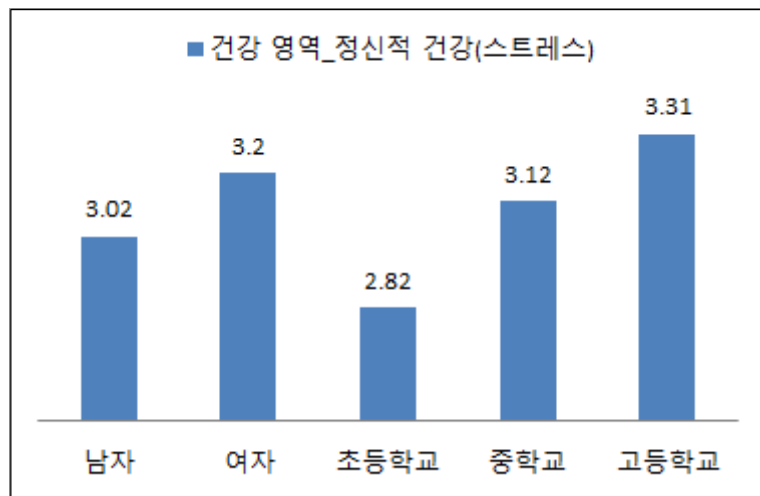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청소년(3.24)이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11)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05)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F=8.686$,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건강 영역_정신적 건강(스트레스)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69)	3.11	1.09	-
성별	남자	(5,615)	3.02	1.10	8.618***
	여자	(5,154)	3.20	1.06	
학교급	초등학교	(3,018)	2.82	1.21	178.861***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3,742)	3.12	1.04	
	고등학교	(4,009)	3.31	0.98	
경제적 수준	상	(7,216)	2.92	1.09	419,942*** 하 > 중 > 상
	중	(2,915)	3.44	0.92	
	하	(587)	3.88	0.9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1)	3.09	1.08	9.442*** 한부모가정 >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30	1.07	
	조손가정	(92)	3.05	1.18	
	기타	(205)	3.09	1.2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5)	3.29	1.12	16,278*** 부모님안계심, 고졸 > 전문대졸이상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 잘 모르겠음
	중졸 이하	(198)	3.29	1.06	
	고졸	(2,357)	3.19	1.01	
	전문대졸 이상	(4,211)	3.09	1.08	
	잘 모르겠음	(3,228)	3.02	1.13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6)	3.20	1.12	18.284*** 중졸이하,고졸 > 전문대졸이상 부모님안계심,중졸이하, 고졸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83)	3.36	1.12	
	고졸	(2,928)	3.22	1.00	
	전문대졸 이상	(3,791)	3.07	1.09	
	잘 모르겠음	(3,261)	3.02	1.1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69)	3.11	1.08	8.686*** 기타 >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2,969)	3.05	1.07	
	양부모직업없음	(45)	3.10	1.16	
	기타	(1,186)	3.24	1.11	
도시규모	대도시	(4,587)	3.12	1.10	0.330
	중소도시	(4,706)	3.10	1.07	
	농산어촌	(1,476)	3.10	1.10	
종교유무	없다	(6,135)	3.11	1.07	-0.425
	있다	(4,613)	3.11	1.10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27】 건강 영역_정신적 건강(스트레스)

(3) 질병유무

①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 유무

초중고 청소년들의 건강 영역 중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 제외) 유무에 대해 전체 10,773명 중 19.1%의 청소년이 있다고 응답했고,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20.8%), 중학교(18.8%), 초등학교(17.3%) 순으로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다($\chi^2=14.417$, $p<.001$).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28.1%), 중(20.8%), 상(17.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5.957$, $p<.001$). 가족유형별로는 기타(25.4%), 한부모가정(21.3%), 조손가정(19.1%), 양부모가정(18.8%) 순으로 나타났다($\chi^2=8.428$, $p<.05$).

부학력에서는 중졸 이하(27.1%), 부모님 안 계심(22.1%), 전문대졸 이상(20.8%), 고졸(19.5%), 잘 모르겠음(15.4%) 순으로 나타났다($\chi^2=49.7276$, $p<.001$). 모학력에서는 중졸 이하(25.0%), 부모님 안 계심(22.1%), 고졸(20.1%), 전문대졸 이상(20.0%), 잘 모르겠음(16.3%) 순으로 나타났다($\chi^2=28.216$, $p<.001$).

부모의 직업유무별로는 기타(21.9%), 양부모직업있음(18.9%), 한부모직업있음(18.7%), 양부모 직업없음(11.7%) 순으로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283$,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21.1%)의 비율이 없는 청소년(17.6%)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20.947$, $p<.001$).

표 III-59 건강 영역_질병 유무

구분		사례수(명)	① 없다	② 있다	χ^2
전체		(10773)	80.9	19.1	-
성별	남자	(5,616)	81.4	18.6	1.738
	여자	(5,157)	80.4	19.6	
학교급	초등학교	(3,027)	82.7	17.3	14.417***
	중학교	(3,741)	81.2	18.8	
	고등학교	(4,005)	79.2	20.8	
경제적 수준	상	(7,214)	82.3	17.7	45.957***
	중	(2,921)	79.2	20.8	
	하	(586)	71.9	28.1	

구분		사례수(명)	① 없다	② 있다	χ^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6)	81.2	18.8	8.428*
	한부모가정	(870)	78.7	21.3	
	조손가정	(93)	80.9	19.1	
	기타	(204)	74.6	25.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3)	77.9	22.1	49.727***
	중졸 이하	(198)	72.9	27.1	
	고졸	(2,360)	80.4	19.6	
	전문대졸 이상	(4,211)	79.2	20.8	
	잘 모르겠음	(3,231)	84.6	15.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6)	77.9	22.1	28.216***
	중졸 이하	(186)	75.0	25.0	
	고졸	(2,931)	79.9	20.1	
	전문대졸 이상	(3,784)	80.0	20.0	
	잘 모르겠음	(3,266)	83.7	16.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8)	81.1	18.9	8.283*
	한부모직업있음	(2,965)	81.3	18.7	
	양부모직업없음	(46)	88.3	11.7	
	기타	(1,184)	78.1	21.9	
도시규모	대도시	(4,588)	81.0	19.0	0.099
	중소도시	(4,710)	80.8	19.2	
	농산어촌	(1,475)	80.8	19.2	
종교유무	없다	(6,138)	82.4	17.6	20.947***
	있다	(4,613)	78.9	21.1	

주) * $p < .05$, ** $p < .01$, *** $p < .001$

② 질병 유형

초중고 청소년들의 건강 영역 중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 제외)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전체 2,014명 중 70.4%의 청소년이 후천적 질병이라고 응답했고, 학교급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73.8%), 초등학교(73.6%), 중학교(63.9%) 순으로 후천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chi^2=21.857$, $p<.001$).

표 III-60 건강 영역_질병의 유형

구분		사례수(명)	① 선천적 질병	② 후천적 질병	③ 선천적 + 후천적 질병	χ^2
전체		(2,014)	29.1	70.4	0.45	-
성별	남자	(1,017)	28.8	70.9	0.24	3.025
	여자	(997)	29.5	69.9	0.65	
학교급	초등학교	(506)	25.8	73.6	0.58	21.857***
	중학교	(684)	35.6	63.9	0.46	
	고등학교	(824)	25.8	73.8	0.35	
경제적 수준	상	(1,249)	29.6	69.9	0.45	0.775
	중	(593)	29.0	70.6	0.42	
	하	(163)	26.2	73.2	0.5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764)	29.1	70.4	0.51	2.547
	한부모가정	(183)	28.8	71.2	0.00	
	조손가정	(17)	40.7	59.3	0.00	
	기타	(51)	28.3	71.7	0.00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168)	30.4	69.6	0.00	4.724
	중졸 이하	(54)	24.9	75.1	0.00	
	고졸	(449)	26.4	73.0	0.65	
	전문대졸 이상	(863)	30.7	68.8	0.48	
	잘 모르겠음	(480)	29.0	70.6	0.3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132)	26.0	74.0	0.00	5.885
	중졸 이하	(45)	30.2	69.8	0.00	
	고졸	(581)	27.4	72.1	0.51	
	전문대졸 이상	(743)	31.9	67.6	0.56	
	잘 모르겠음	(514)	27.9	71.8	0.37	

구분		사례수(명)	① 선천적 질병	② 후천적 질병	③ 선천적 + 후천적 질병	χ^2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1,212)	29.2	70.2	0.59	2.677
	한부모직업있음	(543)	29.3	70.4	0.35	
	양부모직업없음	(4)	53.3	46.7	0.00	
	기타	(255)	28.3	71.7	0.00	
도시규모	대도시	(854)	28.6	70.7	0.73	4.041
	중소도시	(883)	28.7	71.0	0.32	
	농산어촌	(277)	32.3	67.7	0.00	
종교유무	없다	(1,056)	30.5	69.0	0.47	1.885
	있다	(955)	27.7	71.9	0.43	

주) * $p < .05$, ** $p < .01$, *** $p < .001$

(2) 건강 결정요인

① 아침 식사율

초중고 청소년들의 건강 영역 중 일주일 동안의 아침식사 빈도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5.12로 일주일 약 5회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5.26)가 여자(4.98)보다 아침식사를 더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t=6.078$,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5.80), 중학교(5.07), 고등학교(4.6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F=220.778$,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5.41), 중(4.63), 하(3.99)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일주일 동안 약 2회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다($F=187.819$,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5.21)과 조손가정(5.18), 기타가정(5.15)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4.18)보다 아침식사를 자주 먹는다고 하였다($F=50.580$,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5.47),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5.1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4.49),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4.61),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4.64)보다 아침식사를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F=65.015,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5.48),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5.2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4.53),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4.55),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4.72)보다 아침식사를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F=56.129,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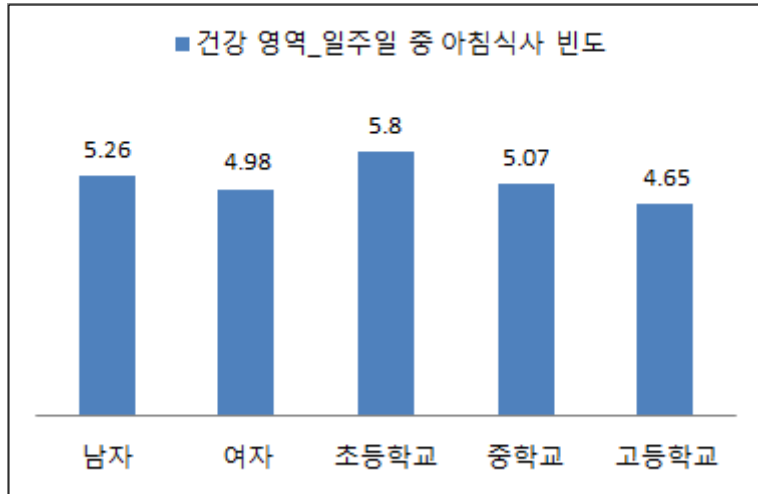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5.46),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5.10), 기타 청소년(4.42) 순으로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5.321,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5.18)이 없는 청소년(5.08)보다 아침식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57, p<.05$).

표 III-61 건강 영역_일주일 중 아침식사 빈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2)	5.12	2.38	-
성별	남자	(5,625)	5.26	2.31	6.078***
	여자	(5,167)	4.98	2.44	
학교급	초등학교	(3,032)	5.80	1.98	210.77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4)	5.07	2.39	
	고등학교	(4,016)	4.65	2.5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28)	5.41	2.23	187,819*** 상 > 중 > 하
	중	(2,927)	4.63	2.52	
	하	(586)	3.99	2.6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0)	5.21	2.33	50,580*** 양부모가정, 조손가정,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4.18	2.68	
	조손가정	(93)	5.18	2.31	
	기타	(207)	5.15	2.3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4.49	2.63	65,015***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98)	4.61	2.58	
	고졸	(2,360)	4.64	2.55	
	전문대졸 이상	(4,217)	5.47	2.17	
	잘 모르겠음	(3,239)	5.19	2.3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4.53	2.58	56,129***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86)	4.55	2.58	
	고졸	(2,935)	4.72	2.51	
	전문대졸 이상	(3,791)	5.48	2.19	
	잘 모르겠음	(3,273)	5.21	2.3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5.10	2.37	55,321***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2)	5.46	2.21	
	양부모직업없음	(46)	5.08	2.60	
	기타	(1,189)	4.42	2.63	
도시규모	대도시	(4,595)	5.11	2.37	1,223
	중소도시	(4,718)	5.16	2.37	
	농산어촌	(1,479)	5.06	2.40	
종교유무	없다	(6,151)	5.08	2.40	2,157*
	있다	(4,621)	5.18	2.34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8】 건강 영역_일주일 중 아침식사 빈도

②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빈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건강 영역 중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빈도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2.44로 적게 먹는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2.49)가 여자(2.39)보다 고카페인 음료를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t=5.302,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청소년(2.47)과 고등청소년(2.46)이 초등청소년(2.38)보다 고카페인 음료를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F=16.558, p<.001$). 그러나 중청소년과 고등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10), 중(3.56), 하(3.20)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했다($F=595.322, p<.001$). 가족유형 영역에서는 $F=4.158, p<.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52),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2.61), 아버지가 고졸인 청소년(2.48),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2.48)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36)보다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F=13.250,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졸인 청소년,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2.51),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2.50),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2.48)이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2.35)보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F=13.210,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이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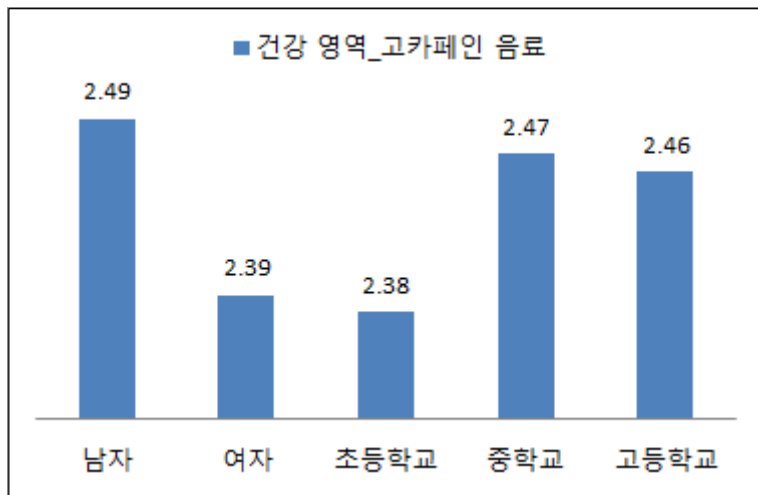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2.47)과 기타 청소년(2.50)이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2.35) 보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신다고 응답했다($F=11.709,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기타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건강 영역_고카페인 음료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6)	2.44	0.98	-
성별	남자	(5,617)	2.49	0.98	5.302***
	여자	(5,159)	2.39	0.98	
학교급	초등학교	(3,020)	2.38	0.90	7.799*** 중학교, 고등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3,746)	2.47	1.00	
	고등학교	(4,010)	2.46	1.01	
경제적 수준	상	(7,217)	2.40	0.97	16.558*** 중,하 > 상
	중	(2,921)	2.52	0.98	
	하	(587)	2.51	1.0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6)	2.43	0.97	4.158**
	한부모가정	(870)	2.53	1.02	
	조손가정	(93)	2.64	0.94	
	기타	(207)	2.37	1.10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2.52	1.06	13,250***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중졸 이하	(198)	2.61	1.07	
	고졸	(2,357)	2.48	0.97	
	전문대졸 이상	(4,212)	2.36	0.99	
	잘 모르겠음	(3,232)	2.48	0.93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6)	2.51	1.01	13,210*** 부모님안계심,고졸,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중졸 이하	(185)	2.52	1.01	
	고졸	(2,931)	2.50	0.99	
	전문대졸 이상	(3,787)	2.35	0.99	
	잘 모르겠음	(3,267)	2.48	0.94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5)	2.47	0.97	11,709*** 양부모직업있음,기타 > 한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2,968)	2.35	0.97	
	양부모직업없음	(46)	2.55	1.02	
	기타	(1,187)	2.50	1.03	
도시규모	대도시	(4,583)	2.42	1.00	1,864
	중소도시	(4,715)	2.46	0.97	
	농산어촌	(1,478)	2.44	0.95	
종교유무	없다	(6,144)	2.44	0.98	0.074
	있다	(4,612)	2.44	0.97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29】 건강 영역_고카페인 음료

4) 청소년의 교육 영역

(1) 교육에 대한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교육 영역 중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7.08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7.17)가 여자(6.99)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4.132,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7.90), 중학교(7.21), 고등학교(6.34)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67.788,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7.74), 중(5.87), 하(4.93)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269.333,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부모가정(7.12)이 한부모가정(6.66)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754,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18),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32)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62),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53),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6.78)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516,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18),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3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88),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50),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6.79)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7.885,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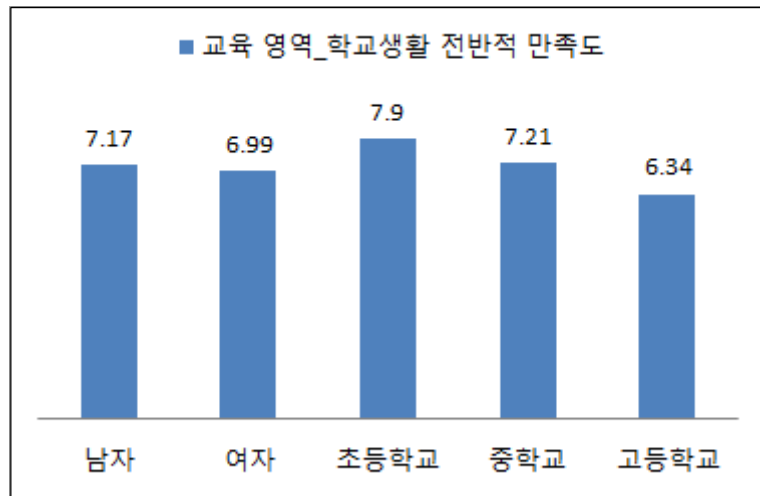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26),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07), 기타 청소년(6.73) 순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6.756,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14)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03) 보다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3.133,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7.16)이 없는 청소년(7.03)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3.068, p<.01).

표 III-63 교육 영역_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2)	7.08	2.22	-
성별	남자	(5,619)	7.17	2.27	4.132***
	여자	(5,153)	6.99	2.17	
학교급	초등학교	(3,027)	7.90	2.09	467.78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4)	7.21	2.11	
	고등학교	(4,001)	6.34	2.19	
경제적 수준	상	(7,223)	7.74	1.96	1269.333*** 상 > 중 > 하
	중	(2,926)	5.87	1.96	
	하	(584)	4.93	2.6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99)	7.12	2.19	11.754***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6.66	2.40	
	조손가정	(93)	6.95	2.34	
	기타	(207)	7.03	2.53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6.62	2.43	33.516***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97)	6.53	2.49	
	고졸	(2,354)	6.78	2.16	
	전문대졸 이상	(4,213)	7.18	2.17	
	잘 모르겠음	(3,230)	7.32	2.23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6.88	2.37	27.885***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고졸
	중졸 이하	(186)	6.50	2.45	
	고졸	(2,927)	6.79	2.17	
	전문대졸 이상	(3,788)	7.18	2.19	
	잘 모르겠음	(3,263)	7.31	2.23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3)	7.07	2.21	16.756***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3)	7.26	2.14	
	양부모직업없음	(46)	6.83	2.57	
	기타	(1,189)	6.73	2.43	
도시규모	대도시	(4,587)	7.14	2.25	3.133*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0)	7.03	2.18	
	농산어촌	(1,475)	7.06	2.28	
종교유무	없다	(6,139)	7.03	2.23	3.068**
	있다	(4,611)	7.16	2.21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0】 교육 영역_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2) 교육 효과

① 교과과정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교육 영역 중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35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청소년(3.95), 중청소년(3.29)이 고등청소년(2.96) 순으로 학교의 교과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청소년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1052.754,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54), 중(3.00), 하(2.71)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F=487.626,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 조손가정의 청소년(3.53), 기타(3.44)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20)보다 학교 수업내용에 만족한다고 하였다($F=8.624,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6)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5),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4)보다 교과과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6),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3),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17) 순으로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3.138, p<.001$).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4)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4),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4),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7)보다 수업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과 중졸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4)이 어머니 학력이 중졸 이하인 청소년(3.15)보다 교과과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6.861,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40)이 기타 청소년(3.29)보다 학교 교과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4.792, p<.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39)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31)보다 수업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803, p<.001$). 종교유무 영역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40)이 없는 청소년(3.31)보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t=4.824, p<.001$).

표 III-64 교육 영역_학교의 교과과정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0)	3.35	0.98	-
성별	남자	(5,624)	3.36	1.01	1,288
	여자	(5,166)	3.34	0.95	
학교급	초등학교	(3,029)	3.95	0.89	1052.754***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3.29	0.89	
	고등학교	(4,012)	2.96	0.91	
경제적 수준	상	(7,226)	3.54	0.96	487.626*** 상 > 중 > 하
	중	(2,926)	3.00	0.85	
	하	(586)	2.71	1.0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9)	3.36	0.97	8.624***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20	1.01	
	조손가정	(93)	3.53	0.95	
	기타	(206)	3.44	1.18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25	1.04	63.138***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8)	3.14	1.03	
	고졸	(2,359)	3.17	0.92	
	전문대졸 이상	(4,218)	3.33	1.01	
	잘 모르겠음	(3,239)	3.56	0.94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34	1.02	56.861***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3.15	0.91	
	고졸	(2,933)	3.17	0.93	
	전문대졸 이상	(3,791)	3.34	1.01	
	잘 모르겠음	(3,273)	3.54	0.96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6)	3.34	0.97	4.792**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0)	3.40	0.98	
	양부모직업없음	(46)	3.49	1.10	
	기타	(1,188)	3.29	1.03	
도시규모	대도시	(4,594)	3.39	1.01	7.803***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8)	3.31	0.96	
	농산어촌	(1,478)	3.38	0.95	
종교유무	없다	(6,148)	3.31	0.97	4.824***
	있다	(4,620)	3.40	0.99	

주) * p<.05, ** p<.01, *** p<.001

② 진로교육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교육 영역 중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30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33)가 여자(3.27)보다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316,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청소년(3.90), 중청소년(3.28)이 고등청소년(2.87) 순으로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청소년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1019.297,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49), 중(2.96), 하(2.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중간인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은 진로교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421.296,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31), 조손가정의 청소년(3.58), 기타(3.42)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19)보다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고 하였다($F=6.328,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4),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25),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0)보다 진로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과 중졸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3)이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인 청소년(3.11)보다 진로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9.029,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2),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28),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11)보다 진로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잘 모르겠음과 중졸 이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1)이 어머니 학력이 중졸 이하인 청소년(3.10)보다 진로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2.18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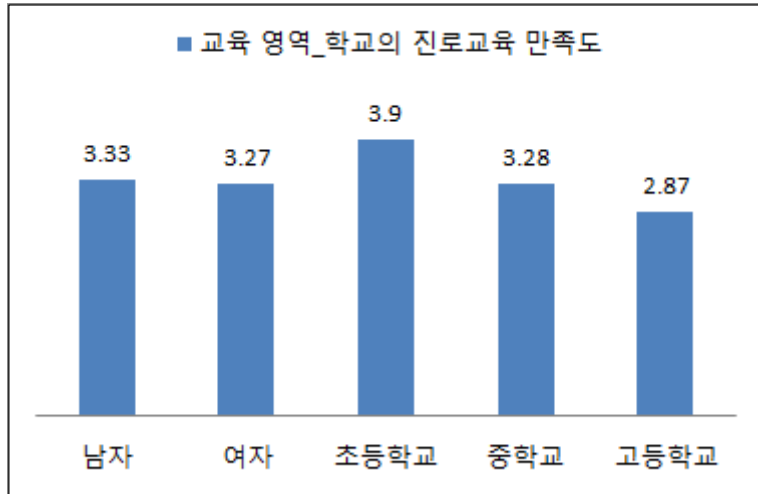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34)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26)보다 진로교육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8.466, p<.001$). 종교유무 영역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36)이 없는 청소년(3.25)보다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t=5.483, p<.001$).

표 III-65 교육 영역_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6)	3.30	1.03	-
성별	남자	(5,620)	3.33	1.05	3.316***
	여자	(5,165)	3.27	1.01	
학교급	초등학교	(3,025)	3.90	0.91	1019.297***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28	0.96	
	고등학교	(4,013)	2.87	0.96	
경제적 수준	상	(7,222)	3.49	1.02	421.296*** 상 > 중 > 하
	중	(2,926)	2.96	0.89	
	하	(586)	2.66	1.14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6)	3.31	1.03	6.328***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19	1.04	
	조손가정	(93)	3.58	1.06	
	기타	(206)	3.42	1.23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24	1.08	69.029***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3.11	1.10	
	고졸	(2,359)	3.10	0.99	
	전문대졸 이상	(4,216)	3.25	1.06	
	잘 모르겠음	(3,236)	3.53	0.97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6)	3.32	1.07	62.187***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3.10	1.00	
	고졸	(2,934)	3.11	0.99	
	전문대졸 이상	(3,788)	3.28	1.06	
	잘 모르겠음	(3,272)	3.51	1.0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3.30	1.03	1.093
	한부모직업있음	(2,968)	3.33	1.03	
	양부모직업없음	(45)	3.22	1.18	
	기타	(1,187)	3.27	1.06	
도시규모	대도시	(4,592)	3.34	1.06	8.466***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6)	3.26	1.01	
	농산어촌	(1,478)	3.32	1.03	
종교유무	없다	(6,145)	3.25	1.02	5.483***
	있다	(4,619)	3.36	1.05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1】 교육 영역_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

5) 청소년의 안전 영역

(1) 안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교육 영역 중 안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7.08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7.19)가 여자(6.95)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6.167,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7.89), 중학교(7.09), 고등학교(6.4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64.4518,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7.68), 중(5.94), 하(5.25)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252.245,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부모가정(7.12)이 한부모가정(6.62)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6.4994,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39)이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13)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64),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51),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6.74)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0.109,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35)이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13)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고,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7.13),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45),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6.80)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F=36.005,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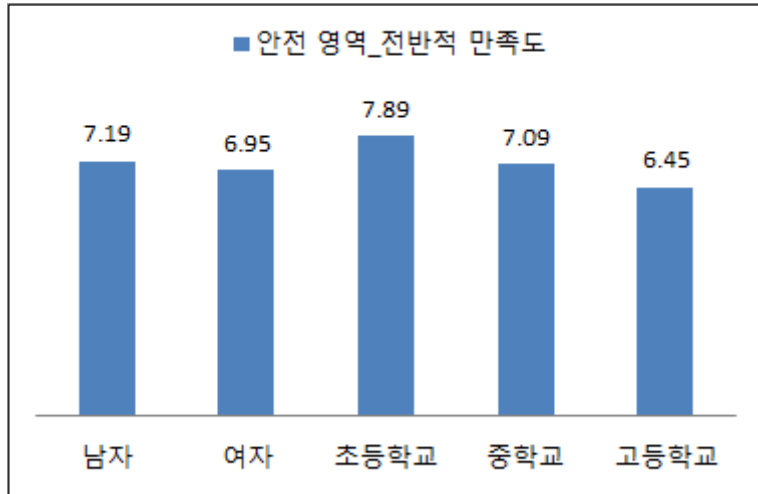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10)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17)이 기타 청소년(6.73) 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3.756,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10)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6.98) 보다 안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1.546,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7.14)이 없는 청소년(7.03)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2.760, p<.01$).

표 III-66 안전 영역_전반적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67)	7.08	2.04	-
성별	남자	(5,613)	7.19	2.07	6.167***
	여자	(5,154)	6.95	1.99	
학교급	초등학교	(3,024)	7.89	1.98	464.45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36)	7.09	1.96	
	고등학교	(4,007)	6.45	1.94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19)	7.68	1.82	1252.245*** 상 > 중 > 하
	중	(2,925)	5.94	1.74	
	하	(586)	5.25	2.3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98)	7.12	2.01	16,499***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6.62	2.15	
	조손가정	(92)	7.17	2.17	
	기타	(206)	6.92	2.4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6.64	2.21	50.109***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7)	6.51	2.14	
	고졸	(2,359)	6.74	1.99	
	전문대졸 이상	(4,208)	7.13	2.01	
	잘 모르겠음	(3,228)	7.39	2.00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4)	6.79	2.25	36.005***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6.45	2.30	
	고졸	(2,932)	6.80	1.94	
	전문대졸 이상	(3,781)	7.13	2.04	
	잘 모르겠음	(3,264)	7.35	2.02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1)	7.10	2.01	13.756***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5)	7.17	2.01	
	양부모직업없음	(46)	6.78	2.18	
	기타	(1,186)	6.73	2.20	
도시규모	대도시	(4,588)	7.18	2.07	10,546***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08)	6.98	2.00	
	농산어촌	(1,472)	7.06	2.02	
종교유무	없다	(6,144)	7.03	2.03	2,760**
	있다	(4,602)	7.14	2.05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2】 안전 영역_전반적 만족도

(2) 사고

①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안전 영역 중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56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73)가 중학교(3.50)와 고등학교(3.49) 보다 동네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82518, p<.001$).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70), 중(3.29), 하(3.15)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동네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324.008,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57)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45)보다 동네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5.156, p<.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1)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3),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8),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47)보다 동네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18.760,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0),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41),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8)보다 동네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9)이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8)보다 동네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14.339$,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1)이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5), 기타 청소년(3.48) 보다 동네의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7.458$,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청소년과 기타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1)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52),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54) 보다 동네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13.628$, $p<.001$).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안전 영역_동네 시설 안전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6)	3.56	0.85	-
성별	남자	(5,626)	3.57	0.89	1.684
	여자	(5,170)	3.54	0.81	
학교급	초등학교	(3,030)	3.73	0.92	82.518***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50	0.85	
	고등학교	(4,018)	3.49	0.77	
경제적 수준	상	(7,231)	3.70	0.85	324.008*** 상 > 중 > 하
	중	(2,927)	3.29	0.75	
	하	(586)	3.15	0.92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4)	3.57	0.85	5.156**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45	0.85	
	조손가정	(93)	3.60	0.99	
	기타	(207)	3.52	0.9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43	0.90	18.760***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8)	3.38	0.84	
	고졸	(2,363)	3.47	0.81	
	전문대졸 이상	(4,218)	3.61	0.84	
	잘 모르겠음	(3,238)	3.60	0.87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50	0.90	14.339***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86)	3.41	0.91	
	고졸	(2,936)	3.48	0.80	
	전문대졸 이상	(3,793)	3.61	0.86	
	잘 모르겠음	(3,273)	3.59	0.87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9)	3.55	0.85	7.458***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2)	3.61	0.84	
	양부모직업없음	(46)	3.48	0.92	
	기타	(1,189)	3.48	0.88	
도시규모	대도시	(4,594)	3.61	0.88	13.628***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4)	3.52	0.82	
	농산어촌	(1,479)	3.54	0.84	
종교유무	없다	(6,154)	3.56	0.84	0.526
	있다	(4,621)	3.55	0.86	

주) * p<.05, ** p<.01, *** p<.001

② 학교시설 안전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안전 영역 중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62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88)가 중학교(3.51)와 고등학교(3.51) 보다 학교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192.064, p<.001$).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77), 중(3.34), 하(3.18)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시설이 안전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F=335.707,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63)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51)보다 학교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5.672,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9)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8)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8)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41),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9) 보다 학교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28.790,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68),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8)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1)과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50)보다 학교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25.328,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7),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1), 기타 청소년(3.52) 순으로 학교의 시설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8.670,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8)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56),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61) 보다 학교 시설 및 비품이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20.548, p<.001$).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8 안전 영역_학교 시설 및 비품 안전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8)	3.62	0.89	-
성별	남자	(5,629)	3.61	0.94	1.597
	여자	(5,169)	3.63	0.83	
학교급	초등학교	(3,032)	3.88	0.90	192.064***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3,750)	3.51	0.89	
	고등학교	(4,016)	3.52	0.84	
경제적 수준	상	(7,232)	3.77	0.86	335.707*** 상 > 중 > 하
	중	(2,929)	3.34	0.82	
	하	(585)	3.18	1.0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8)	3.63	0.88	5.672***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3.51	0.90	
	조손가정	(93)	3.59	0.95	
	기타	(207)	3.52	1.0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48	0.96	28.790***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8)	3.41	0.92	
	고졸	(2,364)	3.49	0.86	
	전문대졸 이상	(4,220)	3.68	0.87	
	잘 모르겠음	(3,237)	3.68	0.90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6)	3.51	0.96	25.328***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중졸 이하	(186)	3.51	0.91	
	고졸	(2,938)	3.50	0.85	
	전문대졸 이상	(3,794)	3.68	0.88	
	잘 모르겠음	(3,274)	3.68	0.9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91)	3.61	0.89	8.670***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3.67	0.87	
	양부모직업없음	(46)	3.56	0.99	
	기타	(1,187)	3.52	0.93	
도시규모	대도시	(4,597)	3.68	0.91	20.548***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4)	3.56	0.87	
	농산어촌	(1,477)	3.61	0.88	
종교유무	없다	(6,156)	3.60	0.89	1.841
	있다	(4,621)	3.64	0.89	

주) * p<.05, ** p<.01, *** p<.001

③ 위기상황대처능력

초중고 청소년들의 안전 영역 중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65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96), 중학교(3.64), 고등학교(3.43)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었다($F=290.61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80), 중(3.38), 하(3.18)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299.876, p<.001$). 가족유형은 $F=2.642,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1)과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이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40)보다 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F=17.951,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2)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7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6),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6),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54)보다 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F=22.912,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9)이 기타 청소년(3.58) 보다 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5.188, p<.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9)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2),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61) 보다 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7.360, p<.001$).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69)이 없는 청소년(3.62)보다 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을 인지하고 있었다($t=3.286, p<.01$).

표 III-69 안전 영역_위험한 상황 시 대처법 인지여부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6)	3.65	0.95	-
성별	남자	(5,617)	3.66	0.98	1.515
	여자	(5,159)	3.64	0.91	
학교급	초등학교	(3,016)	3.96	0.98	290.61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5)	3.64	0.93	
	고등학교	(4,015)	3.43	0.88	
경제적 수준	상	(7,215)	3.80	0.93	299.876*** 상 > 중 > 하
	중	(2,923)	3.38	0.87	
	하	(586)	3.18	1.0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4)	3.66	0.95	2.642*
	한부모가정	(872)	3.57	0.94	
	조손가정	(93)	3.66	1.06	
	기타	(207)	3.61	1.13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59	0.96	17.951***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98)	3.50	0.99	
	고졸	(2,360)	3.52	0.91	
	전문대졸 이상	(4,214)	3.70	0.94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56	1.04	22.912***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36	1.03	
	고졸	(2,934)	3.54	0.89	
	전문대졸 이상	(3,789)	3.72	0.94	
	잘 모르겠음	(3,260)	3.70	0.98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8)	3.65	0.95	5.188**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4)	3.69	0.94	
	양부모직업없음	(45)	3.38	1.16	
	기타	(1,188)	3.58	0.98	
도시규모	대도시	(4,589)	3.69	0.95	7.360***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11)	3.62	0.94	
	농산어촌	(1,476)	3.61	0.96	
종교유무	없다	(6,145)	3.62	0.94	3.286**
	있다	(4,609)	3.69	0.96	

주) * p<.05, ** p<.01, *** p<.001

(2) 범죄

① 범죄안전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안전 영역 중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7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78)가 남자(3.18)보다 동네에서 우범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t=29.134,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51)와 중학교(3.49)가 고등학교(3.42) 보다 동네에서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339, p<.01$).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중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위계층(3.58)이 중위계층(3.44)보다 동네에서 우범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F=3.813, p<.05$). 가족유형은 $F=2.622,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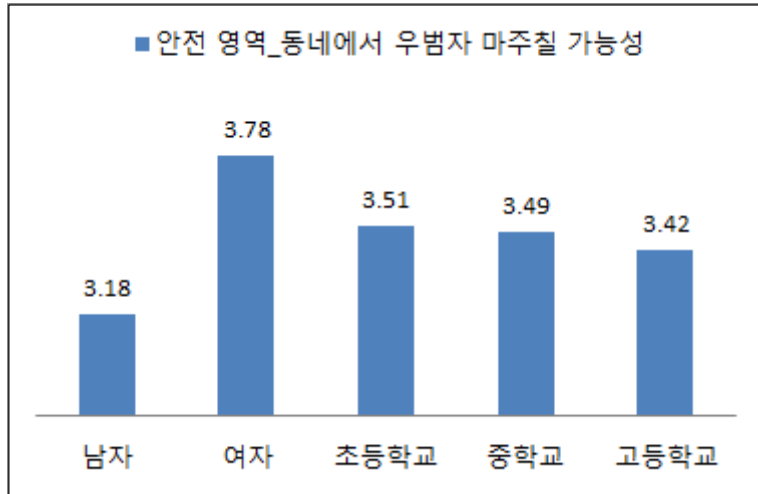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1)이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40)보다 동네에서 우범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F=4.745,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51)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1)이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39)보다 동네에서 우범자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F=7.976,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48)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49)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39) 보다 동네에서 우범자를 만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F=4.403, p<.05$).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53)이 없는 청소년(3.43)보다 삶을 결정하는데 자유롭다고 응답했다($t=4.600, p<.001$).

표 III-70 안전 영역_동네에서 우범자 마주칠 가능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2)	3.47	1.12	-
성별	남자	(5,623)	3.18	1.16	29.134***
	여자	(5,169)	3.78	0.98	
학교급	초등학교	(3,028)	3.51	1.21	6.339**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7)	3.49	1.09	
	고등학교	(4,018)	3.42	1.07	
경제적 수준	상	(7,229)	3.47	1.13	3.813* 하 > 중
	중	(2,926)	3.44	1.06	
	하	(586)	3.58	1.2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0)	3.47	1.11	2.622*
	한부모가정	(873)	3.48	1.09	
	조손가정	(93)	3.39	1.26	
	기타	(207)	3.26	1.30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45	1.18	4.745***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97)	3.50	1.11	
	고졸	(2,361)	3.48	1.09	
	전문대졸 이상	(4,218)	3.51	1.09	
	잘 모르겠음	(3,238)	3.40	1.15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39	1.13	7.976*** 고졸,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중졸 이하	(185)	3.60	1.09	
	고졸	(2,934)	3.51	1.07	
	전문대졸 이상	(3,793)	3.51	1.11	
	잘 모르겠음	(3,272)	3.39	1.16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7)	3.47	1.11	0.304
	한부모직업있음	(2,970)	3.48	1.11	
	양부모직업없음	(46)	3.56	1.29	
	기타	(1,189)	3.45	1.14	
도시규모	대도시	(4,594)	3.48	1.12	4.403* 대도시, 중소도시 > 농산어촌
	중소도시	(4,721)	3.49	1.12	
	농산어촌	(1,478)	3.39	1.12	
종교유무	없다	(6,153)	3.43	1.12	4.600***
	있다	(4,618)	3.53	1.10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3】 안전 영역_동네에서 우범자 마주칠 가능성

②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안전 영역 중 '나의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7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41)가 남자(3.53)보다 생활주변에 CCTV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t=6.549,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72), 중학교(3.45), 고등학교(3.30)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생활주변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했다($F=169.847,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61), 중(3.21), 하(2.9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주변에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나 하위계층은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F=278.023,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48)과 기타(3.54)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28)보다 생활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했다($F=12.040,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3)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3),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5),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35)보다 생활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했다($F=22.609,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0),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7),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36)보다 생활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고졸,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2)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7),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36)보다 생활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했다($F=20.713,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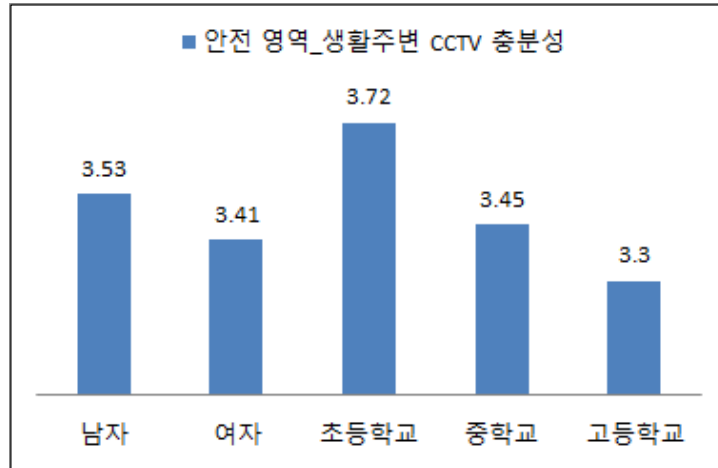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4)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46)이 양부모가 모두 직업이 없는 청소년(3.05), 기타 청소년(3.35) CCTV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14.215,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청소년과 기타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50)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44)보다 생활주변에 CCTV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4.479,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50)이 없는 청소년(3.45)보다 생활주변에 CCTV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t=2.837, p<.01$).

표 III-71 안전 영역_생활주변 CCTV 충분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9)	3.47	0.97	-
성별	남자	(5,619)	3.53	0.99	6.549***
	여자	(5,160)	3.41	0.93	
학교급	초등학교	(3,017)	3.72	1.01	169.847***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4)	3.45	0.93	
	고등학교	(4,018)	3.30	0.92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17)	3.61	0.95	278.023*** 상 > 중 > 하
	중	(2,924)	3.21	0.90	
	하	(586)	2.96	1.0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9)	3.48	0.96	12.040*** 양부모가정, 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3.28	0.96	
	조손가정	(93)	3.53	1.10	
	기타	(207)	3.54	1.15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33	1.03	22.609***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8)	3.25	1.10	
	고졸	(2,359)	3.35	0.95	
	전문대졸 이상	(4,214)	3.53	0.96	
	잘 모르겠음	(3,231)	3.53	0.95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40	1.01	20.713***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17	1.10	
	고졸	(2,931)	3.36	0.94	
	전문대졸 이상	(3,789)	3.53	0.97	
	잘 모르겠음	(3,266)	3.52	0.96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9)	3.46	0.96	14.215***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없음,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6)	3.54	0.95	
	양부모직업없음	(46)	3.05	1.06	
	기타	(1,187)	3.35	1.00	
도시규모	대도시	(4,582)	3.50	0.97	4.479*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8)	3.44	0.95	
	농산여촌	(1,479)	3.47	0.99	
종교유무	없다	(6,146)	3.45	0.94	2.837**
	있다	(4,611)	3.50	0.99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4】 안전 영역_생활주변 cctv 충분성

6) 활동 영역

(1)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 중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6.86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7.06)가 여자(6.65)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8.469,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8.07), 중학교(6.98), 고등학교(5.8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99.098, p<.001$). 그러나 고등청소년이 초등청소년에 비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7.52), 중(5.64), 하(4.7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968.451,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부모가정(6.89)이 한부모가정(6.49)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367,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중졸 이하, 부모님 안 계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7.38)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54),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43)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38),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6.76),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6.50)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5.689,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중졸 이하, 부모님 안 계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38)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67),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28)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38),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6.77),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6.48)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9.69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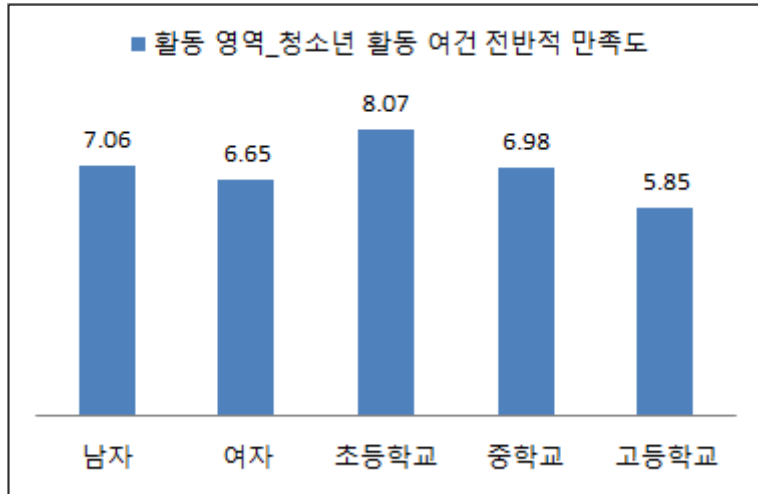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6.87),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6.96), 기타 청소년(6.63) 순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177, p<.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6.97)이 없는 청소년(6.78)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4.012, p<.001$).

표 III-72 활동 영역_청소년 활동 여건 전반적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67)	6.86	2.48	-
성별	남자	(5,618)	7.06	2.50	8.469***
	여자	(5,149)	6.65	2.43	
학교급	초등학교	(3,021)	8.07	2.16	799.098***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1)	6.98	2.31	
	고등학교	(4,006)	5.85	2.4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19)	7.52	2.28	968.451*** 상 > 중 > 하
	중	(2,923)	5.64	2.15	
	하	(586)	4.77	2.8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98)	6.89	2.46	7.367***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6.49	2.54	
	조손가정	(93)	7.01	2.51	
	기타	(206)	7.00	2.8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6.54	2.61	55.689***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7)	6.43	2.62	
	고졸	(2,358)	6.50	2.41	
	전문대졸 이상	(4,207)	6.76	2.50	
	잘 모르겠음	(3,229)	7.38	2.36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5)	6.67	2.60	59.699***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86)	6.28	2.41	
	고졸	(2,934)	6.48	2.39	
	전문대졸 이상	(3,779)	6.77	2.54	
	잘 모르겠음	(3,264)	7.38	2.37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2)	6.87	2.47	5.177**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3)	6.96	2.44	
	양부모직업없음	(46)	6.48	2.97	
	기타	(1,186)	6.63	2.57	
도시규모	대도시	(4,580)	6.88	2.54	1.368
	중소도시	(4,715)	6.83	2.45	
	농산어촌	(1,472)	6.95	2.36	
종교유무	없다	(6,140)	6.78	2.48	4.012***
	있다	(4,606)	6.97	2.47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5】 활동 영역_청소년 활동 여건 전반적 만족도

(2) 활동 기반

① 놀이친구 접근성

초중고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 중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53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62)가 여자(3.44)보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222,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60)와 중학교(3.60)이 고등학교(3.42)보다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F=34.887, p<.001$).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72), 중(3.21), 하(2.80)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활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F=404.935,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55)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40)보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F=6.471, p<.001$).

부학력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51),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6)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4)

보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F=7.233, p<.001$). 그러나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7)과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5)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8)보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F=5.314,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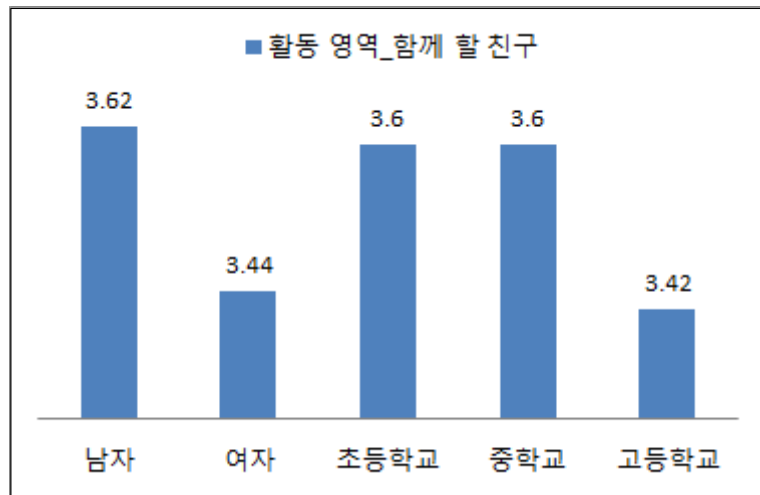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6)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4)가 기타 청소년(3.41) 보다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친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F=8.384,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58)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50),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48) 보다 친구를 언제든지 만나서 활동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47.636, p<.001$).

표 III-73 **활동 영역_함께 할 친구**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50)	3.53	1.09	-
성별	남자	(5,596)	3.62	1.09	8,222***
	여자	(5,154)	3.44	1.09	
학교급	초등학교	(3,010)	3.60	1.18	34,887*** 초등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30)	3.60	1.05	
	고등학교	(4,010)	3.42	1.04	
경제적 수준	상	(7,201)	3.72	1.06	404,935*** 상 > 중 > 하
	중	(2,911)	3.21	0.99	
	하	(587)	2.80	1.2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81)	3.55	1.08	6,471***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40	1.12	
	조손가정	(92)	3.55	1.12	
	기타	(206)	3.39	1.22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3.34	1.13	7.233*** 고졸,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98)	3.50	1.14	
	고졸	(2,359)	3.51	1.06	
	전문대졸 이상	(4,197)	3.56	1.09	
	잘 모르겠음	(3,221)	3.56	1.0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5)	3.43	1.15	5.314***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5)	3.28	1.22	
	고졸	(2,930)	3.50	1.06	
	전문대졸 이상	(3,775)	3.57	1.09	
	잘 모르겠음	(3,255)	3.55	1.1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62)	3.56	1.08	8.384***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56)	3.54	1.09	
	양부모직업없음	(46)	3.16	1.19	
	기타	(1,187)	3.41	1.13	
도시규모	대도시	(4,577)	3.58	1.10	7.636*** 대도시 > 중소도시, 농산어촌
	중소도시	(4,701)	3.50	1.08	
	농산어촌	(1,472)	3.48	1.10	
종교유무	없다	(6,127)	3.52	1.08	-1.061
	있다	(4,602)	3.55	1.11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36】 활동 영역_함께 할 친구

(3) 활동 인식

①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 중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2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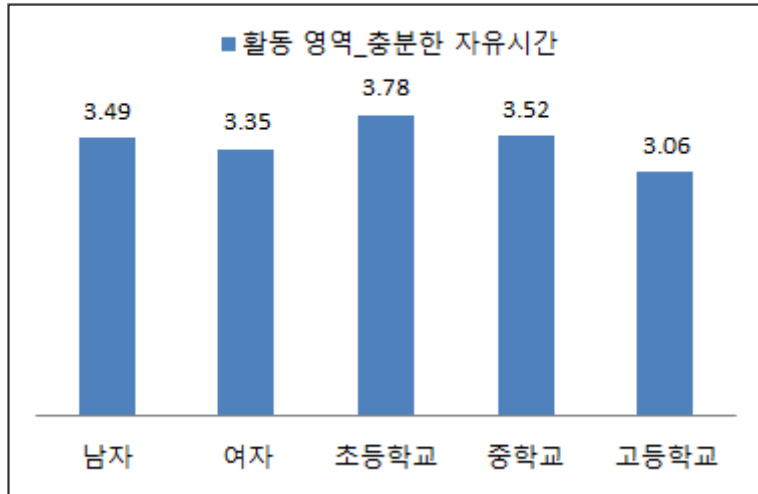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부학력, 모학력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49)가 여자(3.35)보다 충분한 자유시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214$,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78), 중학교(3.52), 고등학교(3.06)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자유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396.81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59), 중(3.12), 하(2.8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유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261.440$, $p<.001$).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유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62)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0),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32),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32),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4)보다 자유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35.220$,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62)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43),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32),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3)보다 자유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38.050$, $p<.001$).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4 활동 영역_충분한 자유시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8)	3.42	1.14	-
성별	남자	(5,627)	3.49	1.15	6.214***
	여자	(5,171)	3.35	1.12	
학교급	초등학교	(3,032)	3.78	1.11	396.81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50)	3.52	1.08	
	고등학교	(4,016)	3.06	1.12	
경제적 수준	상	(7,231)	3.59	1.12	261.440*** 상 > 중 > 하
	중	(2,928)	3.12	1.07	
	하	(587)	2.86	1.2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6)	3.42	1.14	0.226
	한부모가정	(873)	3.43	1.13	
	조손가정	(93)	3.46	1.12	
	기타	(207)	3.47	1.28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40	1.16	35.220***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중졸 이하	(196)	3.32	1.23	
	고졸	(2,364)	3.32	1.13	
	전문대졸 이상	(4,219)	3.34	1.15	
	잘 모르겠음	(3,239)	3.62	1.10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43	1.16	38.050***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전문대졸이상
	중졸 이하	(186)	3.37	1.21	
	고졸	(2,937)	3.32	1.13	
	전문대졸 이상	(3,793)	3.33	1.16	
	잘 모르겠음	(3,274)	3.62	1.09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9)	3.41	1.14	1.852
	한부모직업있음	(2,974)	3.44	1.12	
	양부모직업없음	(46)	3.75	1.05	
	기타	(1,189)	3.44	1.15	
도시규모	대도시	(4,595)	3.43	1.17	0.457
	중소도시	(4,724)	3.41	1.12	
	농산어촌	(1,479)	3.43	1.12	
종교유무	없다	(6,155)	3.41	1.13	0.974
	있다	(4,622)	3.43	1.16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7】 활동 영역_충분한 자유시간

②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 중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1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47)가 여자(3.35)보다 동네에 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이 있다고 응답했다($t=5.749$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81), 중학교(3.37), 고등학교(3.16) 순으로 동네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고 하였다($F=332.40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61), 중(3.06), 하(2.75)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동네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F=408.744$,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정(3.77),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42),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29) 순으로 동네에 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다($F=7.320$,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중졸이하,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4)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6),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3)보다 동네에 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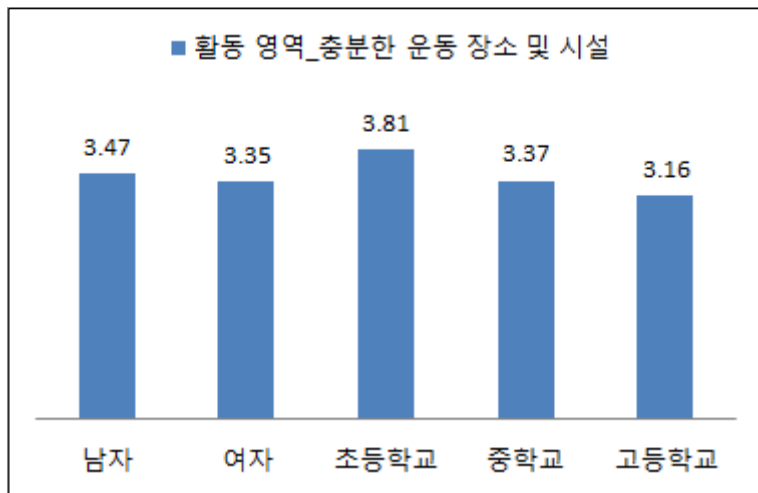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4),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40),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30) 순으로 동네에 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다 ($F=20.524, p<.001$). 한편, 모학력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5)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8),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41),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09)보다 동네에 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과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55)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29)보다 동네에 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다 ($F=26.277, p<.001$).

표 III-75 활동 영역_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8)	3.41	1.09	-
성별	남자	(5,621)	3.47	1.10	5.749***
	여자	(5,168)	3.35	1.06	
학교급	초등학교	(3,025)	3.81	1.07	332.40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7)	3.37	1.06	
	고등학교	(4,017)	3.16	1.04	
경제적 수준	상	(7,226)	3.61	1.06	408.744*** 상 > 중 > 하
	중	(2,924)	3.06	0.98	
	하	(587)	2.75	1.19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7)	3.42	1.08	7.320*** 조손가정 >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29	1.08	
	조손가정	(93)	3.77	1.21	
	기타	(205)	3.40	1.2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7)	3.36	1.15	20,524***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8)	3.23	1.13	
	고졸	(2,362)	3.30	1.06	
	전문대졸 이상	(4,213)	3.40	1.09	
	잘 모르겠음	(3,238)	3.54	1.07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38	1.11	26,277***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중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86)	3.09	1.15	
	고졸	(2,936)	3.29	1.05	
	전문대졸 이상	(3,787)	3.41	1.10	
	잘 모르겠음	(3,273)	3.55	1.07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4)	3.42	1.08	1,587
	한부모직업있음	(2,970)	3.42	1.09	
	양부모직업없음	(46)	3.32	1.35	
	기타	(1,188)	3.35	1.12	
도시규모	대도시	(4,593)	3.40	1.11	1,023
	중소도시	(4,718)	3.42	1.06	
	농산어촌	(1,477)	3.45	1.08	
종교유무	없다	(6,151)	3.40	1.07	-1,820
	있다	(4,616)	3.44	1.10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8】 활동 영역_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

③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 중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4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47)가 여자(3.40)보다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t=3.585$,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61), 중학교(3.49), 고등학교(3.26)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F=92.565$,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69), 중(3.49), 하(3.26)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용돈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F=728,070$, $p<.001$).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용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46)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26)보다 용돈이 충분하다고 하였다($F=9.227$,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0),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4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4),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32)보다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18.144$,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0)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4),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34)보다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48)이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청소년(3.34)보다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12.684$,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45)과 한부모만 직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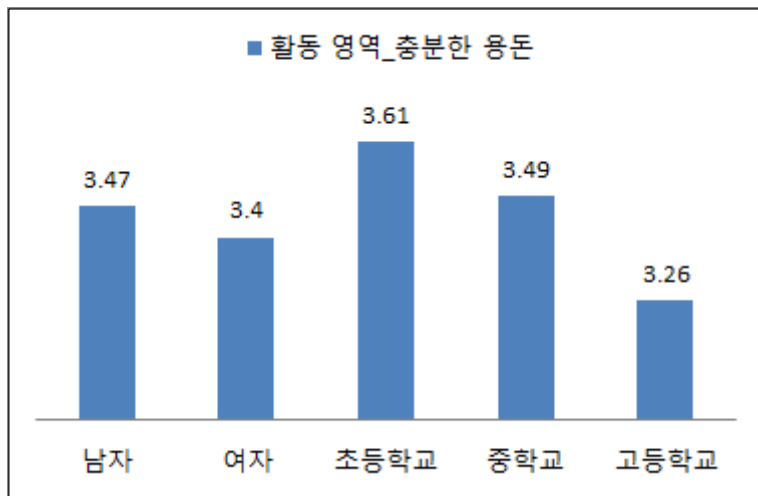
있는 가정의 청소년(3.46)이 기타 청소년(3.28) 보다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F=8.587, p<.0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없는 청소년(3.46)이 있는 청소년(3.41)보다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t=2.398, p<.05).

표 III-76 활동 영역_충분한 용돈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74)	3.44	1.10	-
성별	남자	(5,611)	3.47	1.12	3.585***
	여자	(5,163)	3.40	1.07	
학교급	초등학교	(3,019)	3.61	1.18	92.565***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2)	3.49	1.07	
	고등학교	(4,013)	3.26	1.03	
경제적 수준	상	(7,218)	3.69	1.04	728.070*** 상 > 중 > 하
	중	(2,919)	3.02	0.97	
	하	(587)	2.45	1.1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4)	3.46	1.09	9.227***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3.26	1.14	
	조손가정	(93)	3.46	1.18	
	기타	(206)	3.35	1.2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3.24	1.17	18.144***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중졸 이하	(198)	3.34	1.12	
	고졸	(2,362)	3.32	1.06	
	전문대졸 이상	(4,208)	3.50	1.09	
	잘 모르겠음	(3,230)	3.49	1.11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36	1.16	12.684*** 전문대졸이상 > 중졸이하, 고졸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86)	3.24	1.19	
	고졸	(2,936)	3.34	1.04	
	전문대졸 이상	(3,782)	3.50	1.11	
	잘 모르겠음	(3,264)	3.48	1.1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6)	3.45	1.08	8.587***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5)	3.46	1.10	
	양부모직업없음	(46)	3.43	1.22	
	기타	(1,187)	3.28	1.17	
도시규모	대도시	(4,586)	3.45	1.11	0.906
	중소도시	(4,712)	3.42	1.09	
	농산어촌	(1,476)	3.44	1.10	
종교유무	없다	(6,140)	3.46	1.08	2.398*
	있다	(4,613)	3.41	1.12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39】 활동 영역_충분한 용돈

7) 참여 영역

(1) 사회참여 전반적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영역 중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참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6.70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남자(6.14)가 여자(6.01)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2.624, p<.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7.38), 중학교(6.13), 고등학교(4.13)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청소년의 만족도가 초등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F=848.776,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6.66), 중(5.02), 하(4.13)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685.073,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부모가정(6.11)과 조손가정(6.47) 한부모가정(5.64) 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693,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중졸이하,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6.64)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5.77),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5.69)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6.64),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5.96),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5.64) 순으로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4.376,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중졸 이하, 잘 모르겠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6.62)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5.90),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5.79)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6.62),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5.96),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5.67)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9.620,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6.09)과 한부모만 직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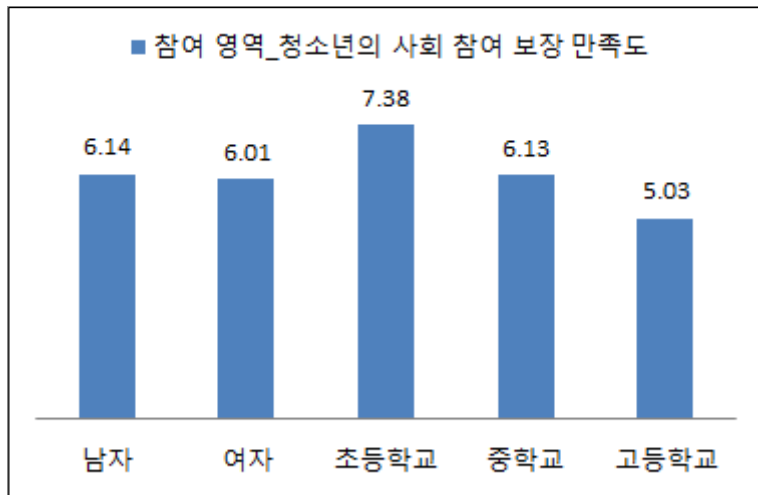
있는 가정의 청소년(6.15)이 기타 청소년(5.81)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054, p<.01$). 그러나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 $F=3.915, p<.05$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6.18)이 없는 청소년(6.00)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33.626, p<.001$).

표 III-77 참여 영역_청소년의 사회 참여 보장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61)	6.07	2.55	-
성별	남자	(5,614)	6.14	2.65	2.624**
	여자	(5,147)	6.01	2.44	
학교급	초등학교	(3,025)	7.38	2.18	848.776***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35)	6.13	2.40	
	고등학교	(4,001)	5.03	2.48	
경제적 수준	상	(7,216)	6.66	2.49	685.073*** 상 > 중 > 하
	중	(2,922)	5.02	2.10	
	하	(586)	4.13	2.7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92)	6.11	2.54	9.693***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5.64	2.58	
	조손가정	(93)	6.47	2.49	
	기타	(205)	6.16	2.69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5.77	2.60	64.376***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7)	5.69	2.72	
	고졸	(2,359)	5.64	2.47	
	전문대졸 이상	(4,206)	5.96	2.63	
	잘 모르겠음	(3,223)	6.64	2.37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5)	5.90	2.63	59.620***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86)	5.79	2.64	
	고졸	(2,935)	5.67	2.48	
	전문대졸 이상	(3,777)	5.96	2.66	
	잘 모르겠음	(3,258)	6.62	2.37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67)	6.09	2.54	5.054**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2)	6.15	2.55	
	양부모직업없음	(46)	6.18	2.56	
	기타	(1,186)	5.81	2.60	
도시규모	대도시	(4,585)	6.12	2.63	3.915*
	중소도시	(4,702)	6.00	2.50	
	농산어촌	(1,473)	6.18	2.44	
종교유무	없다	(6,138)	6.00	2.54	3.626***
	있다	(4,601)	6.18	2.57	

주) * p<.05, ** p<.01, *** p<.001



【그림 Ⅲ-40】 참여 영역_청소년의 사회 참여 보장 만족도

(2) 참여 결정요인

① 아동권리 인지

초중고 청소년들의 참여 영역 중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65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청소년이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참여는 건강한(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67)가 여자(3.62)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t=3.145, p<.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90), 중학교(3.68), 고등학교(3.43)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258.715,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81), 중(3.35), 하(3.1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권리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25.465,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66)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56), 기타(3.46)보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F=6.862,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8)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67)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3),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53)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3)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50)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25.705,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부모님 안 계심, 전문대졸 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3)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55)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73)이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66), 어머니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41),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3.56)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21.533, p<.001$).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어머니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졸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5)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69)이 기타 청소년(3.55) 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8.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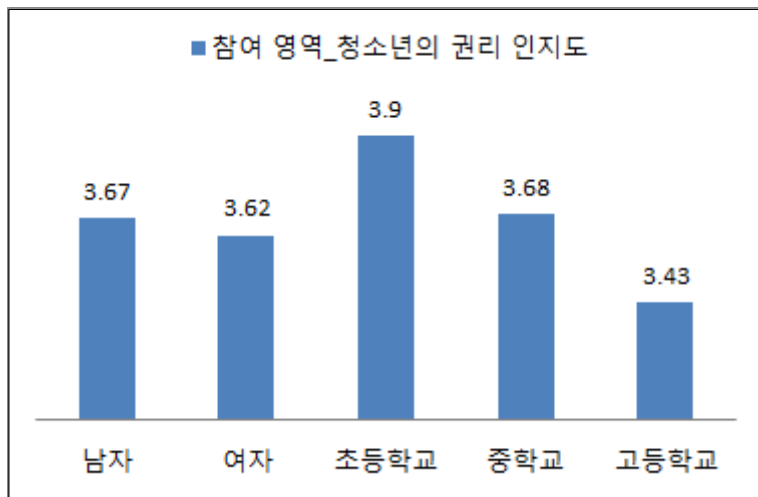
p<.001). 그러나 양부모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9)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62)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F=7.750,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69)이 없는 청소년(3.62)보다 본인의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t=3.943, p<.001).

표 III-78 참여 영역_청소년의 권리 인지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7)	3.65	0.87	-
성별	남자	(5,628)	3.67	0.89	3.145**
	여자	(5,169)	3.62	0.85	
학교급	초등학교	(3,031)	3.90	0.91	258.715***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50)	3.68	0.83	
	고등학교	(4,017)	3.43	0.83	
경제적 수준	상	(7,230)	3.81	0.85	425.465*** 상 > 중 > 하
	중	(2,928)	3.35	0.77	
	하	(587)	3.17	1.0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5)	3.66	0.86	6.862***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기타
	한부모가정	(873)	3.56	0.87	
	조손가정	(93)	3.64	0.92	
	기타	(207)	3.46	1.17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53	0.94	25.705***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전문대졸이상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98)	3.50	0.88	
	고졸	(2,364)	3.53	0.84	
	전문대졸 이상	(4,220)	3.73	0.87	
	잘 모르겠음	(3,238)	3.67	0.87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55	0.93	21.533*** 전문대졸이상 > 부모님안계심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41	0.87	
	고졸	(2,938)	3.56	0.83	
	전문대졸 이상	(3,793)	3.73	0.88	
	잘 모르겠음	(3,272)	3.66	0.87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9)	3.65	0.87	8.263***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3.69	0.86	
	양부모직업없음	(46)	3.60	0.97	
	기타	(1,189)	3.55	0.92	
도시규모	대도시	(4,595)	3.69	0.88	7.750***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3)	3.62	0.85	
	농산어촌	(1,479)	3.63	0.89	
종교유무	없다	(6,155)	3.62	0.86	3.943***
	있다	(4,621)	3.69	0.88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41】 참여 영역_청소년의 권리 인지도

② 징계소명권

초중고 청소년들의 참여 영역 중 ‘우리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36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78), 중학교(3.31), 고등학교(3.10)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벌 전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F=418.871$, $p < .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52), 중(3.08), 하(2.88)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체벌 전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F=274.915, p<.001$). 가족유형별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38)과 조손가정의 청소년(3.62)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19)보다 체벌 전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F=10.902,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 간 차이는 없었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부모님 안 계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5)보다 체벌 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1),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7),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19) 순으로 체벌 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F=35.897, p<.001$).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중졸 이하, 부모님 안 계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3),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2)보다 체벌 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0),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6),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23) 순으로 체벌 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F=28.014, p<.001$).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36)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40)이 기타 청소년(3.26)보다 체벌 전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였다($F=5.636, p<.001$). 그러나 양부모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청소년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42)이 없는 청소년(3.32)보다 체벌 전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t=5.055, p<.001$).

표 III-79 참여 영역_체벌 전 입장 전달 기회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9)	3.36	1.03	-
성별	남자	(5,627)	3.35	1.08	1.419
	여자	(5,162)	3.38	0.98	
학교급	초등학교	(3,025)	3.78	1.00	418.87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31	1.01	
	고등학교	(4,016)	3.10	0.97	
경제적 수준	상	(7,223)	3.52	1.02	274.915*** 상 > 중 > 하
	중	(2,928)	3.08	0.93	
	하	(586)	2.88	1.1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1)	3.38	1.02	10.902***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0)	3.19	1.04	
	조손가정	(92)	3.62	0.91	
	기타	(207)	3.33	1.25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4)	3.25	1.10	35.897***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8)	3.33	1.03	
	고졸	(2,363)	3.19	0.99	
	전문대졸 이상	(4,217)	3.37	1.05	
	잘 모르겠음	(3,237)	3.51	0.9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3.33	1.05	28.014***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86)	3.22	1.07	
	고졸	(2,937)	3.23	1.00	
	전문대졸 이상	(3,788)	3.36	1.06	
	잘 모르겠음	(3,272)	3.50	1.0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3.36	1.03	5.636***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3)	3.40	1.02	
	양부모직업없음	(46)	3.50	1.25	
	기타	(1,186)	3.26	1.06	
도시규모	대도시	(4,594)	3.37	1.06	0.911
	중소도시	(4,718)	3.35	1.01	
	농산어촌	(1,477)	3.38	1.00	
종교유무	없다	(6,153)	3.32	1.02	5.055***
	있다	(4,615)	3.42	1.03	

주) * p<.05, ** p<.01, *** p<.001

③ 학칙개정권

초중고 청소년들의 참여 영역 중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34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38)가 남자(3.30)보다 교내 규칙 개정 시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t=3.848,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74), 중학교(3.32), 고등학교(3.07)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내 규칙 개정 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였다($F=376.011,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49), 중(3.08), 하(3.85)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내 규칙 개정 시 참여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F=227.502,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35)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21)보다 학교에서 규칙을 바꿀 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였다($F=5.501,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모르겠음, 중졸 이하, 부모님 안 계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47)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3),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2)보다 학교에서 규칙을 바꿀 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잘 모르겠음, 전문대졸 이상, 고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47),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4),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22) 순으로 교에서 학교에서 규칙을 바꿀 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F=22.546, p<.001$).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45),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34),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인 청소년(3.24) 순으로 학교에서 규칙을 바꿀 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졸 이하와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3.45)이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6)보다 학교에서 규칙을 바꿀 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응답했다($F=16.64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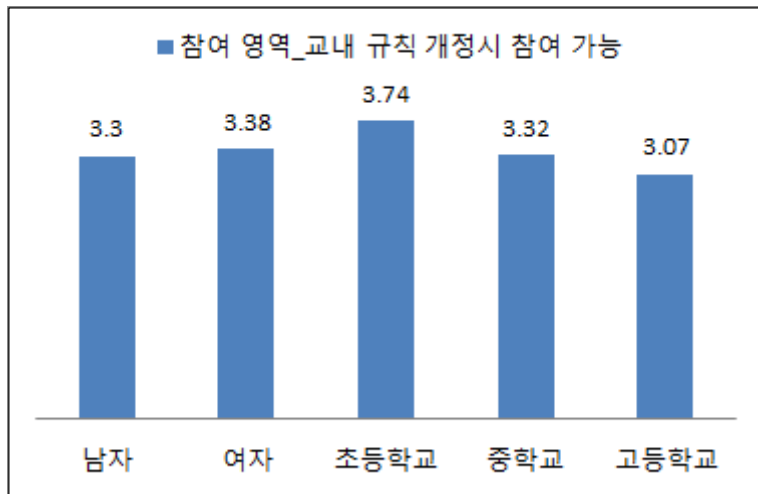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과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38)이 기타 청소년(3.25) 보다 교내 규칙 개정 시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4.147, p<.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41)이 없는 청소년(3.29)보다 교내 규칙 개정 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였다($t=5.550, p<.001$).

표 III-80 참여 영역_교내 규칙 개정시 참여 가능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3)	3.34	1.06	-
성별	남자	(5,617)	3.30	1.10	3.848***
	여자	(5,165)	3.38	1.01	
학교급	초등학교	(3,022)	3.74	1.01	376.01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4)	3.32	1.02	
	고등학교	(4,017)	3.07	1.04	
경제적 수준	상	(7,218)	3.49	1.05	227.502*** 상 > 중 > 하
	중	(2,927)	3.08	0.97	
	하	(586)	2.85	1.1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4)	3.35	1.05	5.501***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0)	3.21	1.08	
	조손가정	(93)	3.45	1.11	
	기타	(207)	3.32	1.18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3.23	1.11	22,546***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중졸 이하	(197)	3.22	0.96	
	고졸	(2,362)	3.22	1.00	
	전문대졸 이상	(4,215)	3.34	1.11	
	잘 모르겠음	(3,233)	3.47	1.01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6)	3.34	1.07	16,642*** 잘모르겠음 > 전문대졸이상 > 고졸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5)	3.16	1.02	
	고졸	(2,934)	3.24	1.02	
	전문대졸 이상	(3,789)	3.34	1.11	
	잘 모르겠음	(3,268)	3.45	1.02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2)	3.34	1.05	4.147**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8)	3.38	1.05	
	양부모직업없음	(46)	3.34	1.02	
	기타	(1,186)	3.25	1.09	
도시규모	대도시	(4,590)	3.36	1.08	1.667
	중소도시	(4,716)	3.32	1.05	
	농산어촌	(1,477)	3.36	0.99	
종교유무	없다	(6,144)	3.29	1.05	5.550***
	있다	(4,617)	3.41	1.06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42】 참여 영역_교내 규칙 개정시 참여 가능

(2) 관용성

①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초중고 청소년들의 참여 영역 중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95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의 문항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 권리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4.00)가 남자(3.90)보다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t=5.408,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15), 중학교(3.97), 고등학교(3.77)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누구나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 하였다($F=128.360,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위계층(4.09)이 중위(3.67), 하위(3.60)보다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응답했다($F=216.883, p<.001$). 그러나 중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F=3.346, p<.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97)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98)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88)보다 누구나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응답했다($F=4.614, p<.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는 $F=3.889, p<.01$ 수준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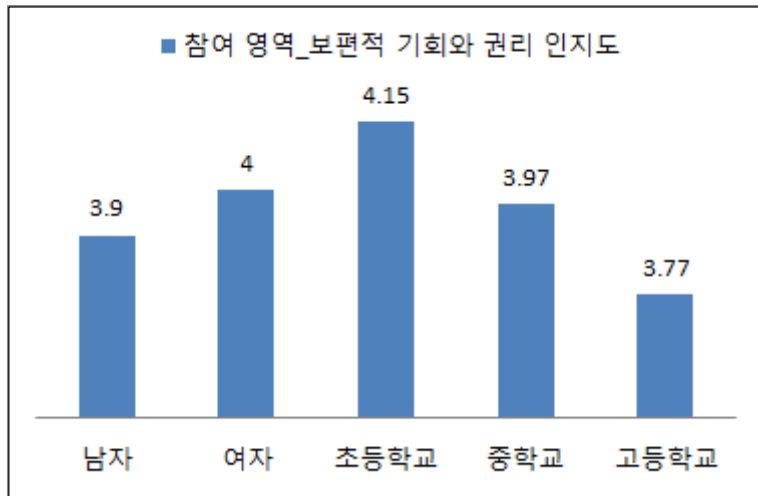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97)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92)보다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응답했다($F=3.699,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4.01)이 없는 청소년(3.90)보다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응답했다($t=5.095, p<.001$).

표 III-81 참여 영역_보편적 기회와 권리 인지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3)	3.95	1.03	-
성별	남자	(5,627)	3.90	1.06	5.408***
	여자	(5,166)	4.00	0.98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학교급	초등학교	(3,030)	4.15	0.95	128,360***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8)	3.97	0.97	
	고등학교	(4,016)	3.77	1.09	
경제적 수준	상	(7,228)	4.09	0.98	216,883*** 상 > 중, 하
	중	(2,927)	3.67	1.00	
	하	(587)	3.60	1.3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1)	3.95	1.02	3,346*
	한부모가정	(873)	3.87	1.06	
	조손가정	(93)	4.11	0.95	
	기타	(207)	3.83	1.20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89	1.11	4,614**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98)	3.94	1.06	
	고졸	(2,361)	3.88	1.02	
	전문대졸 이상	(4,217)	3.97	1.05	
	잘 모르겠음	(3,239)	3.98	0.97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87	1.06	3,889**
	중졸 이하	(186)	3.85	1.08	
	고졸	(2,935)	3.90	1.02	
	전문대졸 이상	(3,791)	3.98	1.07	
	잘 모르겠음	(3,273)	3.97	0.97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3.95	1.01	2,365
	한부모직업있음	(2,973)	3.97	1.03	
	양부모직업없음	(46)	3.72	1.38	
	기타	(1,189)	3.89	1.07	
도시규모	대도시	(4,592)	3.97	1.05	3,699*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23)	3.92	1.01	
	농산어촌	(1,478)	3.97	0.98	
종교유무	없다	(6,151)	3.90	1.03	5,095***
	있다	(4,621)	4.01	1.02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43】 참여 영역_보편적 기회와 권리 인지도

(3) 사회 참여

①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

초중고 청소년들의 참여 영역 중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청소년대표(청소년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54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3.60)가 남자(3.49)보다 청소년대표가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t=5.773, p<.001$).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77), 중학교(3.51), 고등학교(3.38)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대표가 청소년을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142.182,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68), 중(3.27), 하(3.08)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대표의 의사전달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F=260.715,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55)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38)보다 청소년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F=8.667, p<.001$).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7)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9)과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7)보다 청소년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11.757,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 사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9)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7)이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3.46)보다 청소년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F=9.485,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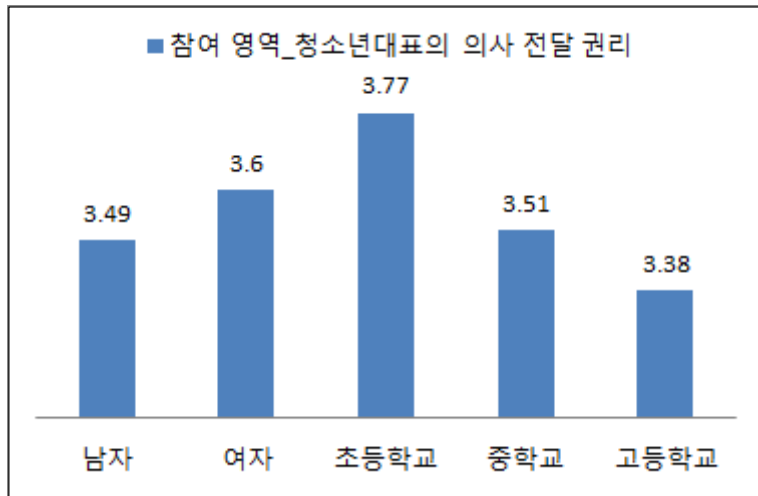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53)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7)이 기타 청소년(3.43) 보다 청소년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F=5.921, p<.001$).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3.60)이 없는 청소년(3.50)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청소년대표가 청소년을 대표하여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t=5.235, p<.001$).

표 III-82 참여 영역_청소년대표의 의사 전달 권리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94)	3.54	0.98	-
성별	남자	(5,626)	3.49	1.02	5.773***
	여자	(5,168)	3.60	0.93	
학교급	초등학교	(3,030)	3.77	1.02	142.18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3.51	0.93	
	고등학교	(4,016)	3.38	0.96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29)	3.68	0.97	260.715*** 상 > 중 > 하
	중	(2,929)	3.27	0.89	
	하	(585)	3.08	1.1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2)	3.55	0.97	8.667***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3)	3.38	1.00	
	조손가정	(93)	3.62	0.99	
	기타	(207)	3.53	1.13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39	1.04	11.757***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고졸
	중졸 이하	(198)	3.41	0.98	
	고졸	(2,363)	3.47	0.94	
	전문대졸 이상	(4,218)	3.57	1.01	
	잘 모르겠음	(3,237)	3.59	0.95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48	1.01	9.485***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중졸 이하	(186)	3.38	1.04	
	고졸	(2,937)	3.46	0.95	
	전문대졸 이상	(3,792)	3.59	1.01	
	잘 모르겠음	(3,271)	3.57	0.96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5)	3.55	0.98	5.921*** 양부모직업없음, 한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4)	3.57	0.96	
	양부모직업없음	(46)	3.55	0.96	
	기타	(1,189)	3.43	1.02	
도시규모	대도시	(4,593)	3.56	1.00	2.764
	중소도시	(4,724)	3.52	0.97	
	농산어촌	(1,477)	3.51	0.94	
종교유무	없다	(6,153)	3.50	0.97	5.235***
	있다	(4,620)	3.60	0.99	

주) * p<.05, ** p<.01, *** p<.001



【그림 III-44】 참여 영역_청소년대표의 의사 전달 권리

8) 환경 영역

(1) 지역사회 질 환경에 대한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환경 영역 중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6.75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7.59), 중학교(6.76), 고등학교(6.09)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의 질 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42.449,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7.52), 중(5.35), 하(4.0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높은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071.194,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6.81)과 조손가정(6.90), 기타(6.64)가 한부모가정(6.10)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8.751,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6.91)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00)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6.19),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07),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6.34)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2.230,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6.94)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6.99)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31),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5.94),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6.37)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1.612,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6.91),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6.77), 기타 청소년(6.26) 순으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6.896,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6.83)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6.65) 보다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7.913, p<.05$).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6.81)이 없는 청소년(6.70)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2.530, p<.05$).

표 III-83 환경 영역_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67)	6.75	2.18	-
성별	남자	(5,613)	6.76	2.28	0.799
	여자	(5,154)	6.73	2.07	
학교급	초등학교	(3,021)	7.59	2.10	442.449***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1)	6.76	2.12	
	고등학교	(4,005)	6.09	2.08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수준	상	(7,220)	7.52	1.91	2071,194*** 상 > 중 > 하
	중	(2,928)	5.35	1.60	
	하	(585)	4.07	2.25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597)	6.81	2.16	28,751***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2)	6.10	2.25	
	조손가정	(93)	6.90	2.18	
	기타	(205)	6.64	2.54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6.19	2.32	55,519***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6)	6.07	2.25	
	고졸	(2,359)	6.34	2.09	
	전문대졸 이상	(4,205)	6.91	2.14	
	잘 모르겠음	(3,229)	7.00	2.19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7)	6.31	2.32	51,612***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5.94	2.45	
	고졸	(2,931)	6.37	2.04	
	전문대졸 이상	(3,784)	6.94	2.18	
	잘 모르겠음	(3,260)	6.99	2.2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1)	6.77	2.17	26,896***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1)	6.91	2.12	
	양부모직업없음	(46)	6.18	2.50	
	기타	(1,188)	6.26	2.33	
도시규모	대도시	(4,584)	6.83	2.22	7,913***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09)	6.65	2.15	
	농산어촌	(1,474)	6.80	2.14	
종교유무	없다	(6,136)	6.70	2.17	2,530*
	있다	(4,610)	6.81	2.20	

주) * p<.05, ** p<.01, *** p<.001

(2) 주거환경 인식

①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환경 영역 중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3.44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46)가 여자(3.42)보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t=2.308, p<.05$).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3.65), 중학교(3.43), 고등학교(3.29)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F=119.761,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3.61), 중(3.13), 하(2.82)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405.500, p<.001$). 한편,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3.46), 조손가정(3.54), 기타(3.48)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23)보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5.900, p<.001$). 그러나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부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49)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2)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29),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19),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31)보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27.091,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3.51)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3.51)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32),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25),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3.32)보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54.100,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사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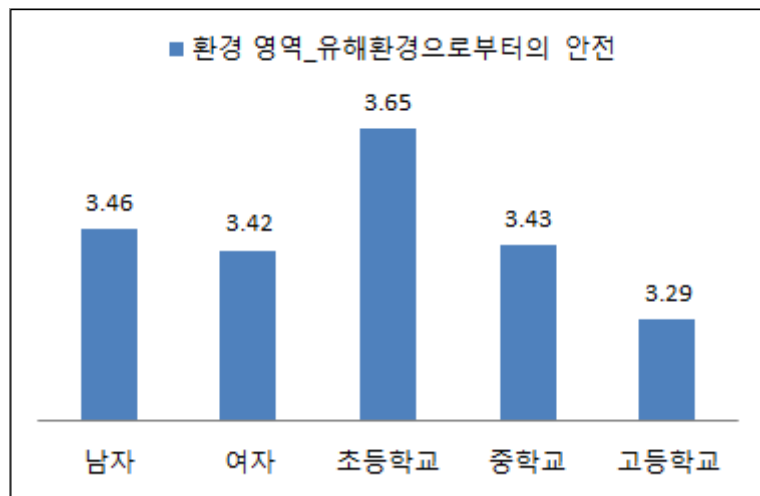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 기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50),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3.44), 기타 청소년(3.30) 순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11.655, p<.001).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47)과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3.51)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3.39) 보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F=11.082, p<.001). 그러나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4 환경 영역_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2)	3.44	0.98	-
성별	남자	(5,620)	3.46	1.02	2.308*
	여자	(5,162)	3.42	0.94	
학교급	초등학교	(3,019)	3.65	0.94	119.76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3.43	0.96	
	고등학교	(4,015)	3.29	1.00	
경제적 수준	상	(7,224)	3.61	0.95	405.500*** 상 > 중 > 하
	중	(2,924)	3.13	0.89	
	하	(585)	2.82	1.1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3)	3.46	0.97	15.094***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3.23	1.03	
	조손가정	(93)	3.54	0.89	
	기타	(207)	3.48	1.11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3.29	1.04	27.091***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97)	3.19	1.05	
	고졸	(2,360)	3.31	0.97	
	전문대졸 이상	(4,215)	3.49	0.99	
	잘 모르겠음	(3,234)	3.52	0.94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32	1.03	24.100***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고졸
	중졸 이하	(186)	3.25	1.06	
	고졸	(2,935)	3.32	0.96	
	전문대졸 이상	(3,789)	3.51	0.99	
	잘 모르겠음	(3,265)	3.51	0.95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9)	3.44	0.97	11.655***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없음 >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72)	3.50	0.97	
	양부모직업없음	(45)	3.31	0.99	
	기타	(1,186)	3.30	1.04	
도시규모	대도시	(4,587)	3.47	0.99	11.082*** 대도시, 농산어촌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9)	3.39	0.97	
	농산어촌	(1,476)	3.51	0.98	
종교유무	없다	(6,145)	3.43	0.97	1.701
	있다	(4,616)	3.46	0.99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III-45】 환경 영역_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② 주택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환경 영역 중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4.14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4.32), 중학교(4.14), 고등학교(4.01)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F=102.897, p<.001$). 경제적 수준별 사후분석에서는 상(4.40), 중(3.70), 하(3.13)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살고 있는 집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F=1297.274, p<.001$). 가족유형의 사후분석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4.17)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3.83), 기타(3.93)보다 집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고, 조손가정의 청소년(4.13)은 한부모가정 청소년(3.83)보다 집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였다($F=44.654, p<.001$). 그러나 한부모가정과 기타가정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23)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19)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4.03),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82),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86)보다 집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F=48.905,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나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중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24),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4.17),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3.89) 순으로 집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모님 안 계심, 고졸, 전문대졸 이상, 잘 모르겠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24), 어머니의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4.17), 어머니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소년(4.05),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84) 순으로 집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F=41.429, p<.001$).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 어머니 학력을 모르는 청소년,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4.08)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4.14)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3.85)보다 친구들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했다($F=42.230,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16)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4.21)은 양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청소년(3.73)과 기타 청소년(3.88) 보다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다($F=45.278, p<.001$). 그러나 양부모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청소년 그리고 양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청소년과 기타 가정의 청소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4.18)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4.11)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였다($F=6.278, p<.01$).

표 III-85 환경 영역_생활 편리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80)	4.14	0.89	-
성별	남자	(5,617)	4.13	0.90	1.834
	여자	(5,164)	4.16	0.86	
학교급	초등학교	(3,021)	4.32	0.89	102.897***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9)	4.14	0.87	
	고등학교	(4,010)	4.01	0.87	
경제적 수준	상	(7,218)	4.40	0.73	1298.274*** 상 > 중 > 하
	중	(2,927)	3.70	0.87	
	하	(586)	3.13	1.1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12)	4.17	0.87	44.654***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기타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1)	3.83	0.96	
	조손가정	(93)	4.13	0.96	
	기타	(205)	3.93	1.12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5)	3.86	1.01	48.905***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 중졸이하,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97)	3.82	0.97	
	고졸	(2,361)	4.03	0.89	
	전문대졸 이상	(4,213)	4.23	0.83	
	잘 모르겠음	(3,235)	4.19	0.88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6)	3.84	1.02	41.429***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중졸이하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86)	3.89	1.02	
	고졸	(2,934)	4.05	0.87	
	전문대졸 이상	(3,788)	4.24	0.84	
	잘 모르겠음	(3,266)	4.17	0.90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82)	4.16	0.87	45.974*** 양부모직업있음,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없음,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7)	4.21	0.86	
	양부모직업없음	(46)	3.73	1.06	
	기타	(1,186)	3.88	0.99	
도시규모	대도시	(4,588)	4.18	0.88	6.278**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16)	4.11	0.89	
	농산어촌	(1,476)	4.12	0.90	
종교유무	없다	(6,143)	4.14	0.88	0.539
	있다	(4,616)	4.15	0.89	

주) * p<.05, ** p<.01, *** p<.001

③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

초중고 청소년들의 환경 영역 중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에 대해 전체 10,800명 중 46.6%의 청소년이 부모 등 가족이 소유한 자가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 종교유무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47.7%)가 남자(45.6%) 보다 자가에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2.084$, $p<.01$).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56.0%), 중학교(47.8%), 초등학교(32.6%) 순으로 자가에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chi^2=767.208$, $p<.001$).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49.8%), 중(42.2%), 하(30.5%) 순으로 나타났다($\chi^2=295.045$, $p<.001$).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48.5%), 조손가정(42.5%), 한부모가정(29.9%), 기타(29.2%) 순으로 나타났다($\chi^2=292.648$, $p<.001$).

부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59.3%), 고졸(50.6%), 중졸 이하(40.6%), 잘 모르겠음(31.2%), 부모님 안 계심(30.8%) 순으로 나타났다($\chi^2=1366.434$, $p<.001$). 모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58.8%), 고졸(50.9%), 중졸 이하(45.7%), 부모님 안 계심(33.9%), 잘 모르겠음(30.9%) 순으로

나타났다($\chi^2=1224.872$, $p<.001$).

부모의 직업유무별로는 한부모직업있음(51.7%), 양부모직업있음(47.3%), 기타(30.9%), 양부모 직업없음(20.9%) 순으로 자가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93.684$, $p<.001$). 도시규모별로는 농산어촌(48.3%), 중소도시(47.4%), 대도시(45.1%) 순으로 나타났으며($\chi^2=44.815$, $p<.001$),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가 없는 청소년(47.7%)의 비율이 있는 청소년(45.2%)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17.228$,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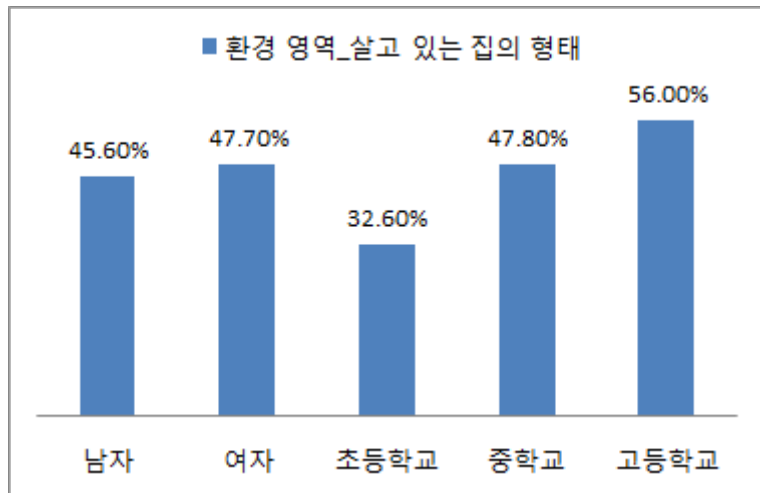
표 III-86 환경 영역_살고 있는 집의 형태

		사례수(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
전체		(10,800)	46.6	12.4	4.0	0.9	0.4	0.3	35.4	-
성별	남자	(5,629)	45.6	12.9	4.5	1.0	0.6	0.4	35.2	22.084**
	여자	(5,171)	47.7	11.9	3.5	0.8	0.2	0.2	35.7	
학교급	초등학교	(3,032)	32.6	9.8	2.9	0.8	0.4	0.3	53.2	767.208***
	중학교	(3,750)	47.8	11.9	3.1	1.1	0.4	0.3	35.5	
	고등학교	(4,018)	56.0	14.9	5.7	0.8	0.4	0.3	21.9	
경제적 수준	상	(7,232)	49.8	11.8	2.5	0.8	0.3	0.3	34.5	295.045***
	중	(2,929)	42.2	13.5	5.8	0.9	0.6	0.2	36.8	
	하	(587)	30.5	14.6	13.0	2.8	0.6	1.1	37.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28)	48.5	12.5	3.3	0.8	0.3	0.3	34.3	292.648***
	한부모가정	(873)	29.9	12.3	11.6	1.9	0.9	0.5	42.9	
	조손가정	(93)	42.5	11.2	0.9	1.0	1.1	1.4	41.9	
	기타	(207)	29.2	11.2	5.2	0.0	1.4	1.7	51.2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8)	30.8	12.4	9.6	2.0	1.1	0.9	43.2	1366.434** *
	중졸 이하	(198)	40.6	11.6	14.3	3.2	0.0	0.0	30.3	
	고졸	(2,364)	50.6	14.2	5.1	1.1	0.3	0.4	28.3	
	전문대졸 이상	(4,220)	59.3	14.8	3.3	0.7	0.3	0.3	21.3	
	잘 모르겠음	(3,239)	31.2	8.0	2.2	0.6	0.5	0.2	57.4	

		사례수(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χ^2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8)	33.9	11.6	8.0	0.4	1.2	1.1	43.9	1224.872** *
	중졸 이하	(186)	45.7	10.6	8.8	0.7	0.4	0.0	33.8	
	고졸	(2,938)	50.9	14.4	6.0	1.3	0.3	0.3	26.8	
	전문대졸 이상	(3,794)	58.8	14.5	3.3	0.9	0.4	0.3	21.9	
	잘 모르겠음	(3,274)	30.9	8.4	2.1	0.7	0.4	0.2	57.2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91)	47.3	11.9	3.6	0.9	0.3	0.2	35.8	293.684***
	한부모직업있음	(2,974)	51.7	13.7	2.6	0.7	0.4	0.3	30.6	
	양부모직업없음	(46)	20.9	13.5	3.2	2.2	1.9	2.1	56.3	
	기타	(1,189)	30.9	11.9	9.7	1.5	1.0	0.7	44.3	
도시규모	대도시	(4,597)	45.1	14.5	4.3	0.9	0.5	0.2	34.5	44.815***
	중소도시	(4,724)	47.4	11.1	3.8	0.9	0.3	0.5	36.0	
	농산어촌	(1,479)	48.3	10.2	3.6	0.8	0.4	0.3	36.4	
종교유무	없다	(6,156)	47.7	12.1	3.8	0.8	0.4	0.2	35.0	17.228**
	있다	(4,623)	45.2	12.7	4.2	1.0	0.4	0.5	35.9	

주) * p<.05, ** p<.01, *** p<.001

① 자가(부모 등 가족소유),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있음), ④ 월세(보증금 없음), ⑤ 무상, ⑥ 기타, ⑦ 모름



【그림 III-46】 환경 영역_살고 있는 집의 형태

9) 경제 영역

(1) 경제수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초중고 청소년들의 경제수준 영역 중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7.32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학력, 모학력, 부모의 직업유무, 도시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8.21), 중학교(7.43), 고등학교(6.25) 순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17.574, p<.001$).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8.63), 중(5.15), 하(2.10)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19775.221, p<.001$). 가족유형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부모가정(7.46)이 한부모가정(6.01), 기타(6.60)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조손가정(7.35)이 한부모가정(6.01)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22.558, p<.001$). 그러나 한부모가정과 기타가정 사이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68)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55)이 아버지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6.83),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32),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19)보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129.948, p<.001$). 그러나 아버지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아버지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나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의 사후분석에서는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7.71)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7.52)이 어머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인 청소년(6.86),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6.25),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6.44)보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104.928, p<.001$). 그러나 어머니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인 청소년과 어머니 학력을 잘 모르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나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청소년과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유무의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부모만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58), 양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7.41)이 양부모 모두 직업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6.17)과 기타(6.23) 보다 전반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117.723 p<.001). 그러나 양부모 직업이 없는 가정과 기타 가정 사이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후분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39)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7.27) 보다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F=3.860, p<.05).

표 III-87 경제 영역_경제수준 전반적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10,748)	7.32	2.23	-
성별	남자	(5,601)	7.36	2.25	1.641
	여자	(5,147)	7.29	2.21	
학교급	초등학교	(3,001)	8.21	2.02	517.574***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중학교	(3,745)	7.43	2.13	
	고등학교	(4,002)	6.56	2.21	
경제적 수준	상	(7,232)	8.63	1.15	19775.221*** 상 > 중 > 하
	중	(2,929)	5.15	0.64	
	하	(587)	2.10	1.0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604)	7.46	2.15	122.558*** 양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기타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870)	6.01	2.45	
	조손가정	(93)	7.35	2.41	
	기타	(182)	6.60	3.01	
부학력	부모님 안계심	(776)	6.19	2.63	129.948*** 전문대졸이상, 잘모르겠음 > 고졸 > 중졸이하, 부모님안계심
	중졸 이하	(196)	6.32	2.50	
	고졸	(2,358)	6.83	2.22	
	전문대졸 이상	(4,208)	7.68	2.06	
	잘 모르겠음	(3,210)	7.55	2.16	
모학력	부모님 안계심	(604)	6.44	2.63	104.928*** 전문대졸이상 > 잘모르겠음 > 고졸 > 부모님안계심, 중졸이하
	중졸 이하	(186)	6.25	2.53	
	고졸	(2,932)	6.86	2.22	
	전문대졸 이상	(3,785)	7.71	2.05	
	잘 모르겠음	(3,242)	7.52	2.21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F
부모의 직업유무	양부모직업있음	(6,577)	7.41	2.15	117.723*** 한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있음 > 양부모직업없음, 기타
	한부모직업있음	(2,962)	7.58	2.12	
	양부모직업없음	(46)	6.17	3.04	
	기타	(1,163)	6.23	2.57	
도시규모	대도시	(4,566)	7.39	2.24	3.860* 대도시 > 중소도시
	중소도시	(4,706)	7.27	2.22	
	농산어촌	(1,476)	7.30	2.25	
종교유무	없다	(6,122)	7.33	2.19	0.160
	있다	(4,605)	7.32	2.29	

주)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만족도 결정요인분석⁸⁾

1)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결정요인

(1) 분석모형

행복은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명확한 정의조차 용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원론적 연구를 포함해 이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모색이 최근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학문적 영역도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 개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비록 행복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연구자들 간 시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어렵지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한 정도와 상당히 유사한 관계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청소년 행복증진 정책을 도출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탐색하는 것이 정책의 실행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8) 성윤숙, 홍성호(2015).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제언. 대전: 통계개발원 워크숍 자료집.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

$$y_j = \alpha + C_j\beta + A_j\gamma + \sum_k^{16} \zeta_k region_{k,j} + \epsilon_j$$

여기서, 종속변수는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며, 설명변수는 해당 학생의 성별, 연령,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 질병 유무, 친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직업 유무, 학급 내 성적, 자가 주택 여부, 종교 유무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C_j), 개별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A_j), 그리고 개별 광역시도(k)에 대한 더미변수($region_{k,j}$)를 포함한다.

분석자료는 본 연구를 위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표본은 광역시도를 지리적 단위로 추출되었으며, 가중치를 포함한다. 실제 분석에 포함된 학생수는 10,503명에 해당한다.

(2) 분석결과

① 개인의 특성

분석결과는 <표 III-88>과 <표 III-89>로 나누어져 보고된다. 먼저, <표 III-88>에는 개인의 특성들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표 III-89>는 <표 III-88>의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열과 학교급별 분석의 열들에 8개 영역별 만족도(11점 척도)가 설명변수로 추가된 모형의 추정결과에서 영역별 만족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의 차이만을 제시한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첫 번째 열에서 제시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학생이 남학생이거나 연령이 적거나 외향적인 성격이거나 질병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두 번째 열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를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 혹은 양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후천적인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열은 해당 학생의 가정환경과 종교 유무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친부모와 동거하거나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거나 학급 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자가 주택 여부나 종교의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기존의 성인 대상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은 학교급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혹은 동일한 요인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며, 외향적 성격과 같은 기질에 의한 차이는 오히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부모 동거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학급 내 성적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학교급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88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의 특성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0.231** (5.13)	0.231** (5.22)	0.219** (4.50)	0.013 (0.17)	0.204** (3.19)	0.443** (3.91)
연령	-0.204** (-14.87)	-0.204** (-14.80)	-0.168** (-14.34)	-0.149** (-3.64)	-0.149* (-2.64)	-0.177** (-4.33)
외향적인 성격	0.640** (32.52)	0.640** (32.69)	0.588** (33.00)	0.667** (15.17)	0.605** (16.72)	0.518** (15.46)
질병	-0.351** (-10.57)		-0.325** (-10.15)	-0.428** (-6.01)	-0.296* (-2.26)	-0.266* (-2.60)
선천적		-0.304** (-3.12)				
후천적		-0.377** (-7.50)				
선천적 + 후천적		0.482 (0.55)				
친부모 동거			0.37** (4.82)	0.578** (3.90)	0.256 (1.71)	0.366** (3.04)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의 직업						
		0.028 (0.37)	-0.071 (-0.40)	0.108 (0.74)	-0.042 (-0.28)	
모의 직업		-0.124* (-2.26)	-0.105 (-1.36)	-0.110 (-1.27)	-0.176* (-2.79)	
학급 내 성적		0.369** (11.54)	0.309** (6.81)	0.384** (9.19)	0.387** (10.34)	
자가 주택		-0.054 (-1.24)	-0.021 (-0.29)	-0.088 (-1.44)	-0.028 (-0.33)	
종교		-0.011 (-0.41)	-0.028 (-0.33)	0.000 (0.00)	0.006 (0.09)	
상수항	7.246** (35.51)	7.240** (35.36)	5.530** (28.59)	5.386** (11.91)	5.331** (6.10)	5.608** (7.37)
Adj. R2	0.1685	0.1685	0.1994	0.1532	0.1449	0.1250
관측수	10,503	10,503	10,503	3,135	3,381	3,987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p<.05, **p<.01

② 영역별 중요성

청소년 관련 모든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청소년의 행복증진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예산제약을 전제로 영역별 만족도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간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거시적인 정책방향 혹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은 특정의 미시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 III-89>는 <표 III-88>의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마지막 열 혹은 학교급별 분석에 대한 열에 8개 영역에 대한 개별 영역의 만족도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8개 영역 가운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함을 함축한다. 특히, 교육영역 만족도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관계영역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영역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II-89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 관계

	청소년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반적인 만족도				
관계	0.238** (22.63)	0.301** (12.36)	0.243** (8.30)	0.203** (10.61)
건강	0.082** (6.28)	0.048* (2.56)	0.084** (8.22)	0.101** (4.16)
교육	0.292** (16.44)	0.225** (7.17)	0.245** (10.21)	0.362** (27.02)
안전	0.105** (6.93)	0.149** (4.87)	0.112** (3.38)	0.070** (3.42)
참여	0.037** (7.49)	0.030+ (2.12)	0.042* (2.57)	0.040** (3.15)
활동	0.113** (9.92)	0.089** (5.42)	0.151** (9.01)	0.101** (3.88)
경제	0.112** (9.23)	0.082** (3.37)	0.120** (4.98)	0.128** (5.93)
환경	0.014 (1.13)	0.034 (1.68)	-0.001 (-0.07)	0.014 (0.79)
상수항	-0.327+ (-1.92)	0.041 (0.10)	-0.824+ (-1.86)	-0.359 (-0.48)
Adj. R2	0.5825	0.5650	0.5589	0.5397
관측수	10,503	3,135	3,381	3,987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함께 개인의 특성들-성별, 연령, 성격, 질병 유무, 친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직업 유무, 학급 내 성적, 자가 주택 여부, 종교 유무-를 포함하고 있음.

*p<.05, **p<.01

반면,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영역에 비해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이 두 영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관계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영역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나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안전영역의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

③ 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

<표 III- 90>는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음의 회귀식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

$$y_j = \alpha + C_j\beta + \sum_k^{16} \zeta_k region_{k,j} + \epsilon_j$$

여기서, 종속변수는 개별 영역에 대한 11점 척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

먼저, 분석결과는 설문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다방면에서 확인한다. 이를테면, 질병이 있는 경우는 8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낮춤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일수록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타 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보다 크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에 의해 측정-이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질병의 유무와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표 III-90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

	관계	건강	교육	안전	참여	활동	경제	환경
남학생	0.272** (10.40)	0.258** (6.73)	0.142** (3.18)	0.223** (5.15)	0.116* (2.20)	0.381** (7.26)	0.053 (1.26)	0.027 (0.64)
연령	-0.074** (-8.51)	-0.117** (-8.88)	-0.168** (-17.05)	-0.175** (-18.08)	-0.331** (-19.42)	-0.300** (-29.32)	-0.223** (-21.20)	-0.193** (-16.63)
외향적인 성격	0.923** (71.16)	0.715** (37.85)	0.728** (38.63)	0.565** (41.78)	0.500** (24.27)	0.589** (24.22)	0.477** (23.50)	0.525** (27.12)
질병	-0.273** (-5.39)	-0.978** (-14.63)	-0.325** (-5.51)	-0.406** (-9.02)	-0.445** (-8.71)	-0.347** (-9.57)	-0.273** (-4.64)	-0.386** (-6.04)
친부모 동거	0.275** (3.42)	0.253* (2.18)	0.301** (3.36)	0.235** (3.86)	0.115 (1.25)	0.107 (1.43)	0.573** (6.37)	0.324** (3.98)
부의 직업	0.030 (0.43)	0.056 (0.47)	-0.006 (-0.07)	0.055 (0.86)	0.080 (0.66)	0.093 (1.11)	0.585** (4.95)	0.148 (1.56)
모의 직업	-0.066+ (-2.11)	-0.005 (-0.12)	-0.143** (-4.74)	-0.041 (-1.33)	-0.081+ (-2.11)	-0.081+ (-1.78)	-0.112+ (-1.90)	-0.095 (-1.37)
학급 내 성적	0.193** (9.25)	0.256** (17.24)	0.329** (9.91)	0.211** (11.01)	0.119** (3.55)	0.160** (5.87)	0.286** (22.12)	0.213** (7.75)
자가 주택	0.045 (0.98)	0.035 (0.97)	0.035 (0.98)	0.022 (0.61)	-0.101+ (-2.00)	-0.068 (-1.51)	0.500** (17.59)	0.210** (4.86)
종교	-0.050 (-1.43)	0.015 (0.44)	-0.005 (-0.19)	-0.008 (-0.24)	0.004 (0.11)	0.030 (0.82)	-0.135** (-3.60)	-0.014 (-0.31)
상수항	4.208** (25.10)	5.290** (20.52)	5.583** (29.65)	6.634** (35.25)	8.437** (25.11)	8.206** (47.25)	6.818** (26.96)	6.506** (27.38)
Adj. R2	0.2959	0.2163	0.2431	0.2053	0.1971	0.2142	0.2178	0.175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이 광역시도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되며, 표본추출의 가중치가 분석에 적용됨. 모든 회귀식에 개별 광역시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음. 분석에 포함된 학생수는 10,503명에 해당함.

*p<.05, **p<.01

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만족도 비교

1) 청소년·부모·교사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비교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관계, 건강, 교육, 안전, 활동, 환경 경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인간관계 만족도는 청소년(7.5점)이 학부모(7.3점)에 비해 평균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858, p<.001$). 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녀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건강 만족도는 교사(7.8점), 학부모(7.5점), 학생(7.3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2.766, p<.001$). 교육영역에서는 교사(7.6점), 청소년(7.1점), 학부모(7.4점) 순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7.680, p<.001$). 전반적인 안전영역에서는 청소년(7.1점)과 교사(7.3점)가 학부모(7.0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F=6.441,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6.9점)과 교사(6.8점)가 학부모(5.7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F=213.845,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영역에서는 청소년(6.8점)과 교사(6.7점)가 학부모(6.3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F=41.748,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제 만족도에서는 청소년(7.3점), 학부모(6.7점), 교사(6.3점) 순으로 나타났다($F=117.087, p<.001$).

표 III-91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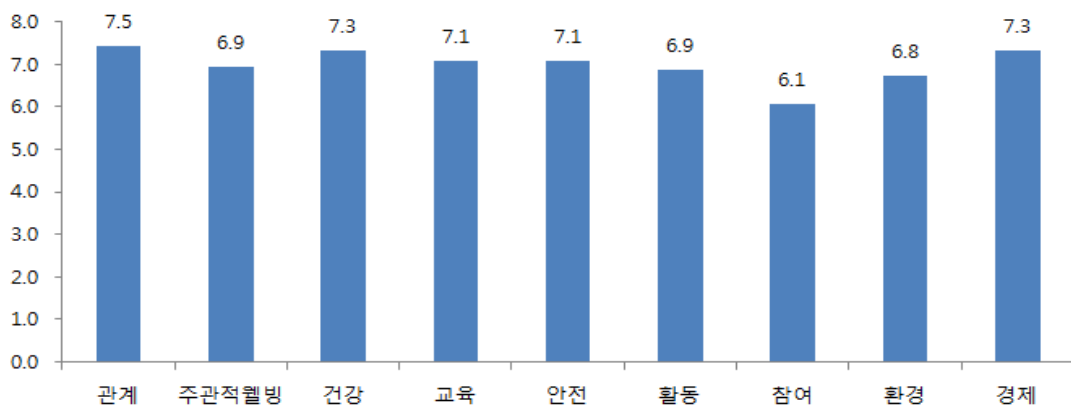
영역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관계	10,722	7.5	2.0	2,344	7.3	1.8	360	7.4	1.4	8.858***	학생)학부모
주관적 웰빙	10,703	6.9	2.3	2,327	7.1	1.8	358	7.0	1.8	2.971	-
건강	10,768	7.3	2.3	2,346	7.5	1.8	361	7.8	1.5	12.766***	교사)학부모)학생
교육	10,772	7.1	2.2	2,347	7.4	1.7	361	7.6	1.4	27.680***	교사)학생)학부모
안전	10,767	7.1	2.0	2,341	7.0	1.7	360	7.3	1.5	6.441**	학생,교사)학부모

영역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활동	10,767	6.9	2.5	2,349	5.7	2.0	361	6.8	1.8	213.845***	학생,교사)학부모
참여	10,761	6.1	2.6	2,349	5.8	2.0	361	6.7	2.0	-4.036***	-
환경	10,767	6.8	2.2	2,346	6.3	1.9	361	6.7	1.9	41.748***	학생,교사)학부모
경제	10,748	7.3	2.2	2,345	6.7	1.9	361	6.3	1.9	117.087***	학생)학부모)교사

* $p < .05$, ** $p < .01$, *** $p < .001$

(1) 청소년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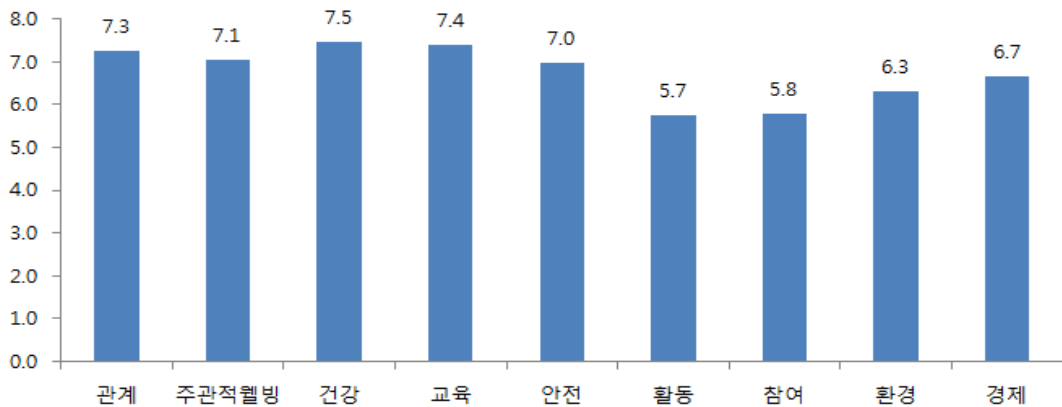
청소년의 행복지표 9개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관계영역에서 인간관계 만족도 평균은 7.5점으로 9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또래에 비해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와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7.3점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안전영역의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7.1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영역의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활동영역의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6.9점으로 나타났다. 환경영역에서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은 6.8점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영역에서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1점으로 전체 9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47】 청소년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2) 부모의 전반적인 영역별 만족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행복지표 9개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건강영역에서 자녀의 또래에 비해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4점으로 나타났다. 관계영역에서 자녀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도 하는지 질문한 결과 7.3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웰빙 영역에서 자녀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7.1점으로 나타났다. 안전영역에서 자녀의 평소 생활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7.0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영역 중 자녀는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질문한 결과 6.7점으로 나타났다. 환경영역에서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6.3점으로 나타났다. 참여영역에서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5.8점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서 자녀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5.7점으로 9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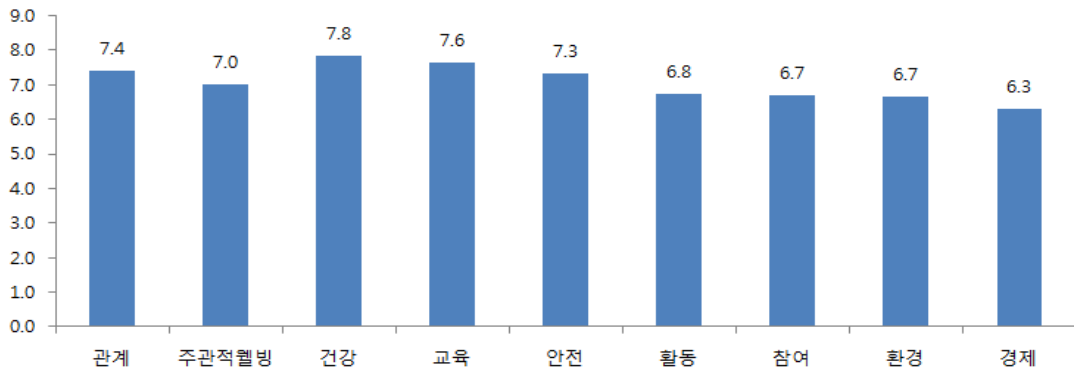


【그림 III-48】 부모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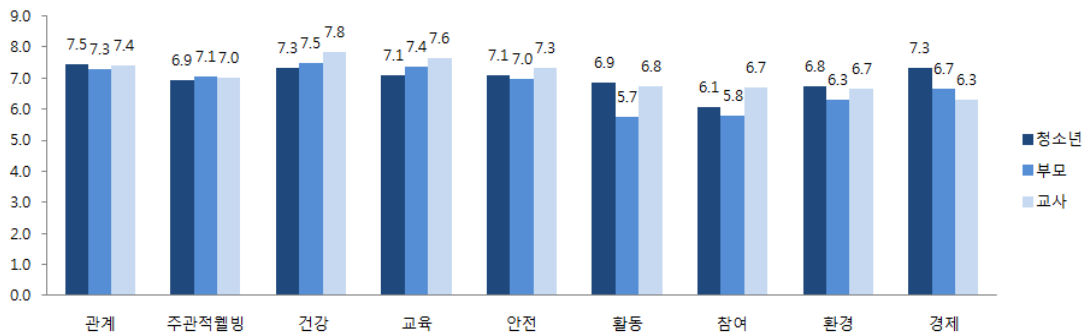
(3) 교사의 전반적인 만족도

교사의 담당 학급 학생들에 대한 행복지표 9개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건강 영역에서 또래 집단과 비교하여 담당 학급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7.8점으로 9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 영역에서 담당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7.6점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에서 담당 학급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7.4점으로 나타났다. 안전 영역에서 담당 학급 학생들의 평소 생활전반에 걸친 안전 만족도에 대한 질문한 결과 7.3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담당 학급 학생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0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활동 영역에서 담당 학급 학생들의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6.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 영역 중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담당 학급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6.7점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영역에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평균 6.7점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의 담당 학급 학생들은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6.3점으로 전체 9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49】 교사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그림 III-50】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전반적 만족도 비교

2)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 비교

(1) 직접적 관계

① 직접적 관계 만족도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직접적 관계 만족도에서는 부모관계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 만족도에서는 청소년(4.0점)이 학부모(4.0점)와 교사(3.9점)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552,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만족도에서는 청소년(4.2점)과 교사(4.3점)가 학부모(4.1점)에 비해 평균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835,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만족도에서는 교사(4.0점), 학부모(3.7점), 청소년(3.6점) 순으로 나타났다($F=45.04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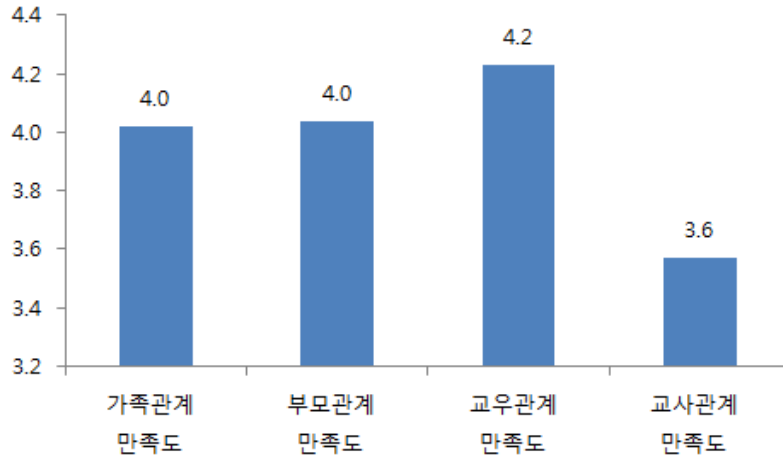
표 III-92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상위 지표	하위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직접적 관계	가족 관계 만족도	10,796	4.0	0.9	2,350	4.0	0.7	361	3.9	0.6	3.556*	-
	부모 관계 만족도	10,794	4.0	0.9	2,348	4.0	0.8	361	3.9	0.6	8.552***	학생) 학부모, 교사
	교우 관계 만족도	10,794	4.2	0.8	2,344	4.1	0.7	361	4.3	0.6	17.835***	학생, 교사) 학부모
	교사 관계 만족도	10,793	3.6	1.0	2,343	3.7	0.8	361	4.0	0.6	45.045***	교사) 학부모) 학생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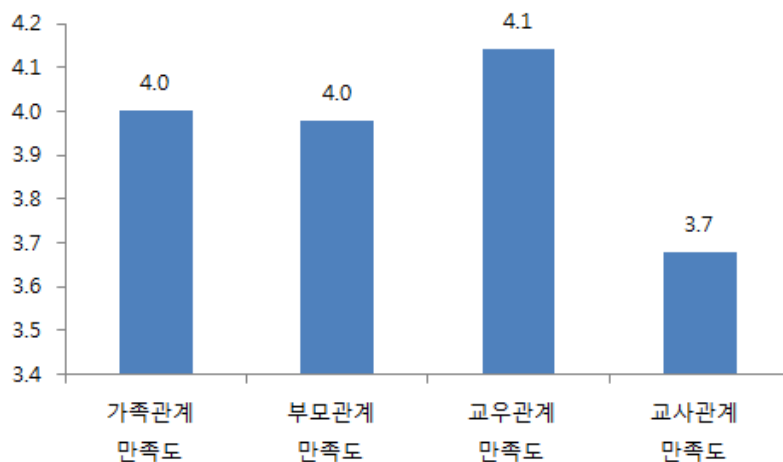
청소년의 직접적 관계 4개 영역별 직접적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4.2점으로 4개의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와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한 평균이 4.0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만족도는 3.6점으로 전체 4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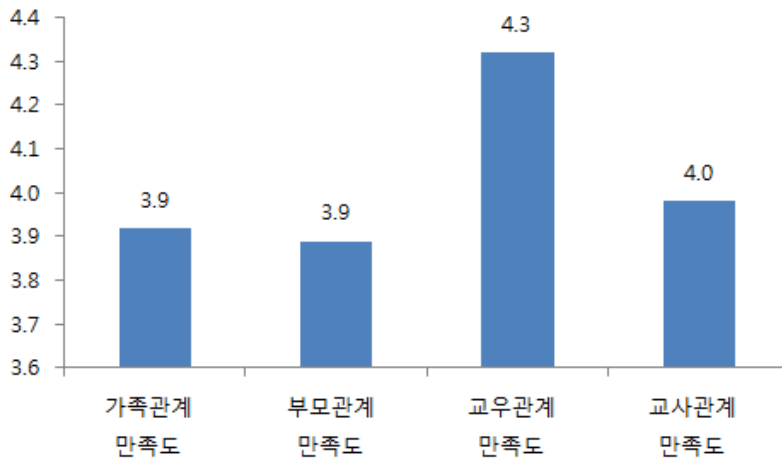
【그림 III-51】 청소년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부모의 직접적 관계 4개 영역별 직접적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4.1점으로 4개의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가족관계 만족도와 부모관계 만족도에 대한 평균이 4.0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만족도는 3.7점으로 전체 4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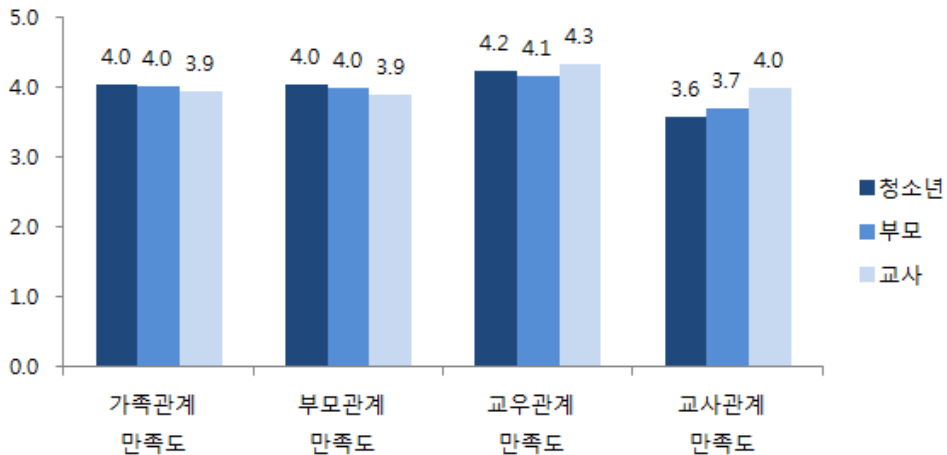


【그림 III-52】 부모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교사의 직접적 관계 4개 영역별 직접적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4.3점으로 4개의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관계 만족도에 대한 평균이 4.0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교우 다음으로 가족, 부모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과 다른 결과이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부모관계 만족도는 평균 4.0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전체 4개 영역의 만족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53】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그림 III-54】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직접적 관계 만족도) 비교

② 직접적 신뢰도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직접적 관계 신뢰도에서는 부모관계 신뢰도, 교우관계 만족도, 이웃관계 신뢰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 신뢰도에서는 청소년(4.5점), 학부모(4.3점)와 교사(3.9점) 순으로 관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93.405$, $p<.001$). 교우관계 신뢰도에서는 교사(4.2점), 학생(3.9점), 학부모(3.8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6.072$, $p<.001$). 이웃관계 신뢰도 영역에서는 학부모(점)와 교사(점)가 청소년(3.6점) 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31.776$,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3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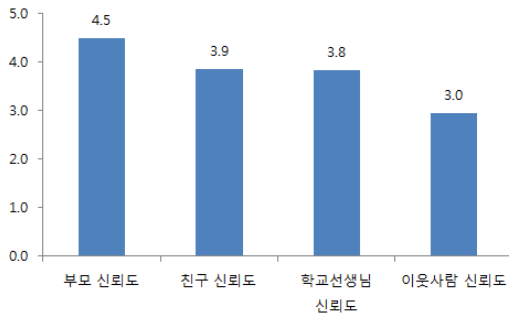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T/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직접적 관계	부모 신뢰도	10,798	4.5	0.8	2,348	4.3	0.7	361	3.9	0.7	193.405***	학생) 학부모) 교사
	친구 신뢰도	10,796	3.9	0.9	2,348	3.8	0.7	361	4.2	0.6	46.072***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 신뢰도	10,791	3.8	0.9	2,347	4.0	0.7				-8.852***	-
	이웃 사람 신뢰도	10,781	3.0	1.0	2,344	3.5	0.7	361	3.5	0.7	331.776***	학부모, 교사) 학생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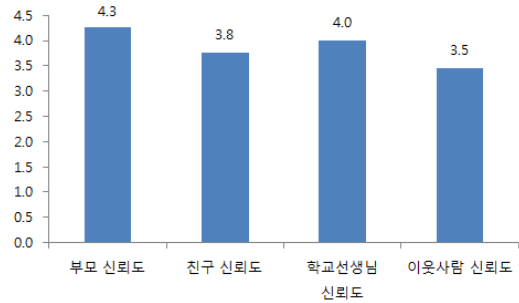
청소년의 직접적 관계 4개 영역별 직접적 관계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부모관계 신뢰도 영역에서 평균 4.5점으로 4개 영역의 신뢰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우관계 신뢰도에 대한 평균이 3.9점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신뢰도에 대한 평균은 3.8점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 신뢰도는 3.0점으로 전체 4개 영역의 신뢰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접적 관계 신뢰도에 대한 결과는 부모관계 신뢰도 영역에서 평균 4.3점으로 4개의 영역의 신뢰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교사관계 신뢰도에 대한 평균이 4.0점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신뢰도는 3.8점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 신뢰도는 3.5점으로 전체 4개 영역의 신뢰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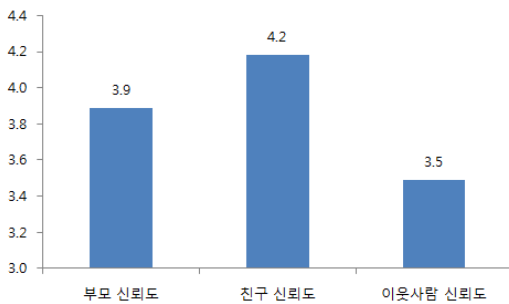
교사의 직접적 관계에서는 교우관계 신뢰도에 대한 평균이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관계 신뢰도는 3.9점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 신뢰도는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4개 영역의 신뢰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부모, 교사의 응답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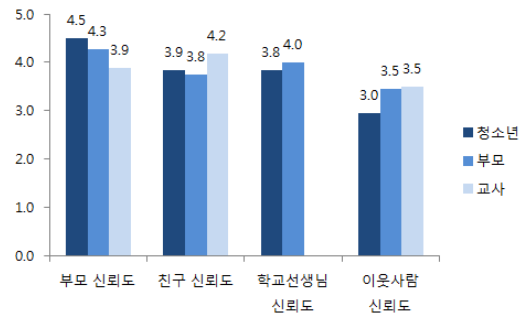
【그림 III-55】 청소년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그림 III-56】 부모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그림 III-57】 교사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그림 III-58】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 (직접적 관계:신뢰도) 비교

(2) 간접적 관계

청소년, 부모, 교사의 영역별 간접적 관계에서는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 우리나라 전체 신뢰도, 사이버공간 신뢰도,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도, 지방정부 신뢰도, 중앙정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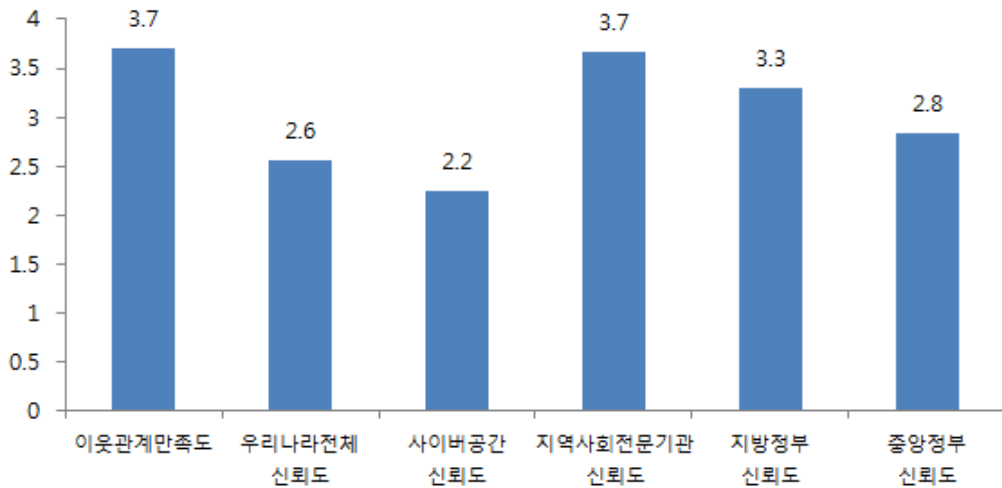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에서는 학부모(3.7점)가 청소년(3.7점), 교사(3.6점)보다 이웃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959, p<.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신뢰도 영역에서는 교사(3.1점), 학부모(2.9점), 청소년(2.6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00.684, p<.001$). 사이버공간 신뢰도 영역에서는 학부모(2.5점)와 교사(2.5점)가 청소년(2.2점)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1.845,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도에서는 교사(3.9점), 청소년(3.7점), 학부모(3.4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94.315, p<.001$). 지방정부 신뢰도에서 역시 교사(3.5점), 청소년(3.3점), 학부모(3.2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7.680, p<.001$). 중앙정부 신뢰도는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부모(2.9점)가 학생(2.8점)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566, p<.05$).

표 III-94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간접적 관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10,781	3.7	0.9	2,345	3.7	0.8	360	3.6	0.7	5.959**	학부모) 학생, 교사
	우리나라 전체신뢰도	10,785	2.6	1.0	2,345	2.9	0.8	361	3.1	0.8	200.684***	교사) 학부모) 학생
	사이버공간 신뢰도	10,790	2.2	1.0	2,347	2.5	0.9	361	2.5	0.9	61.845***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도	10,794	3.7	0.9	2,350	3.4	0.7	361	3.9	0.7	94.315***	교사) 학생) 학부모
	지방정부 신뢰도	10,792	3.3	1.0	2,350	3.2	0.8	361	3.5	0.8	27.680***	교사) 학생) 학부모
간접적 관계	중앙정부 신뢰도	10,789	2.8	1.2	2,349	2.9	0.9	361	2.9	1.0	4.566*	학부모)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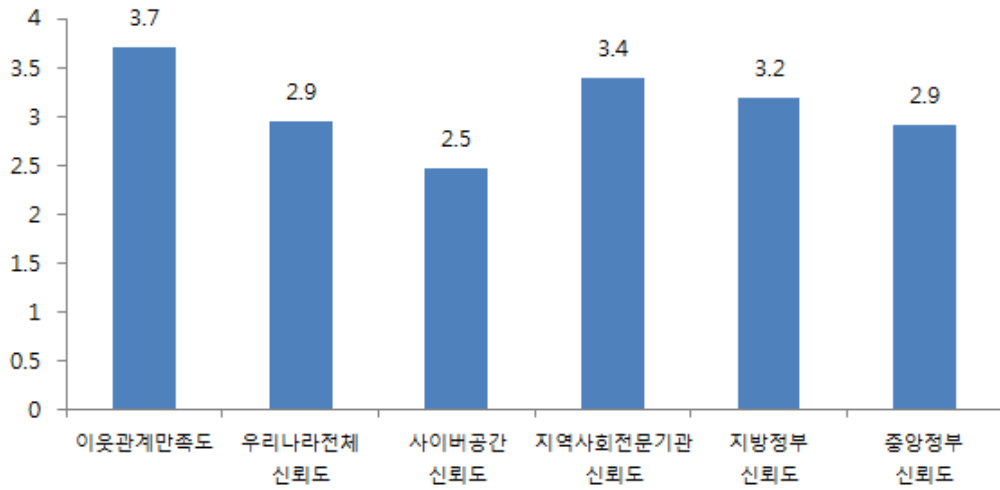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청소년의 6개 영역별 간접적 관계 만족도 및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과 신뢰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와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도가 평균 3.7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 신뢰도가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신뢰도는 2.8점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전체 신뢰도는 2.6점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간 신뢰도는 평균 2.2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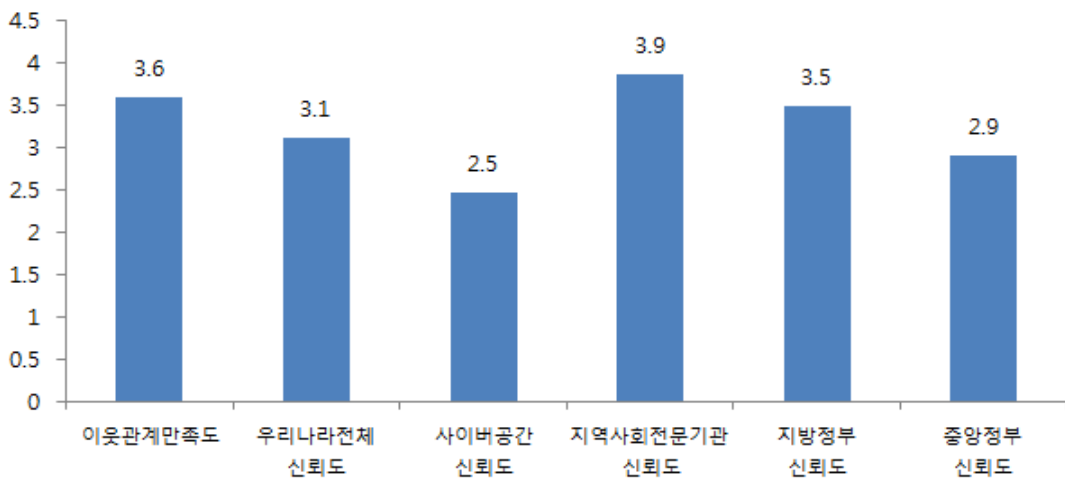
【그림 III-59】 청소년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학부모의 6개 영역별 간접적 관계 만족도 및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과 신뢰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가 평균 3.7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도는 평균 3.2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 신뢰도가 3.2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신뢰도와 중앙정부 신뢰도는 평균 2.9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이버공간 신뢰도는 평균 2.5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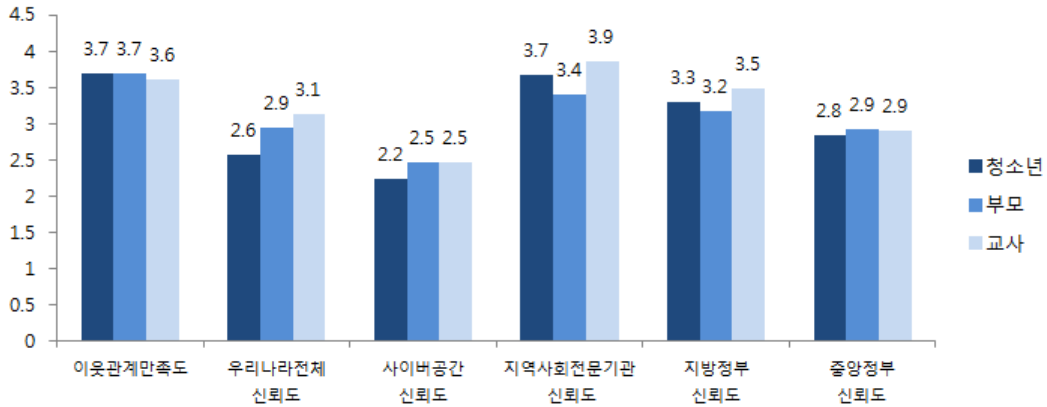


【그림 III-60】 부모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교사의 6개 영역별 간접적 관계 만족도 및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과 신뢰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지역사회 전문기관 신뢰도가 평균 3.9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가 평균 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신뢰도는 평균 3.5점이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신뢰도는 3.1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신뢰도는 2.9점으로 나타났고, 사이버공간 신뢰도는 평균 2.5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학부모, 교사는 사이버공간을 다른 영역 보다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1】 교사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그림 III-62】 청소년, 부모, 교사의 관계영역(간접적 관계) 비교

3)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1) 주관적 웰빙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 중 정서상태(감정)에서는 즐거운,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정서상태는 청소년(3.9점)과 교사(4.0점)가 학부모(3.8점)에 비해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6.630,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한 감정상태에서는 학부모(3.7점)와 교사(3.8점)가 청소년(3.6점)에 비해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9.885,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한 감정상태는 청소년(2.7점)과 교사(2.6점)가 학부모(점2.4)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91.606, p<.001$). 슬픈 정서상태에서는 청소년(2.5점)이 학부모(2.2점)와 교사(2.2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108.838,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정서상태에서 역시 청소년(2.5점)이 학부모(2.2점)와 교사(2.3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76.870,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정서상태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3.9점)이 학부모(3.7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F=15.674, p<.001$).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 중 유데모니아에서는 낙관적인(밝은)미래,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적인(밝은)미래에서 학부모(3.8점)와 교사(3.7점)가 청소년(3.6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9.393,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에서는 학부모(3.9점), 청소년(3.8점), 교사(3.6점)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8.803, p<.001$).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부모(3.9점)가 청소년(3.8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4.552, p<.001$). 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에서는 학부모(3.9점)와 교사(3.8점)가 학생(3.7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47.793, p<.001$),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에서 역시 학부모(3.8점)와 교사(3.9점)가 학생(3.5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151.611, p<.001$).

표 III-95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정서 상태 (감정)	즐거움	10,796	3.9	0.9	2,346	3.8	0.7	361	4.0	0.7	36.630***	학생,교사) 학부모
	편안함	10,794	3.6	1.0	2,348	3.7	0.7	361	3.8	0.7	29.885***	학부모,교사) 학생
	불안함	10,792	2.7	1.0	2,342	2.4	0.9	361	2.6	0.8	91.606***	학생,교사) 학부모
	슬픈	10,789	2.5	1.0	2,343	2.2	0.8	361	2.2	0.7	108.838***	학생)학부모,교사
	우울함	10,779	2.5	1.1	2,342	2.2	0.9	360	2.3	0.8	76.870***	학생)학부모,교사
	행복함	10,782	3.9	0.9	2,339	3.7	0.8	361	3.8	0.7	15.674***	학생)학부모
삶의 만족도		10,703	6.9	2.3	2,327	7.1	1.8	358	7.0	1.8	2.9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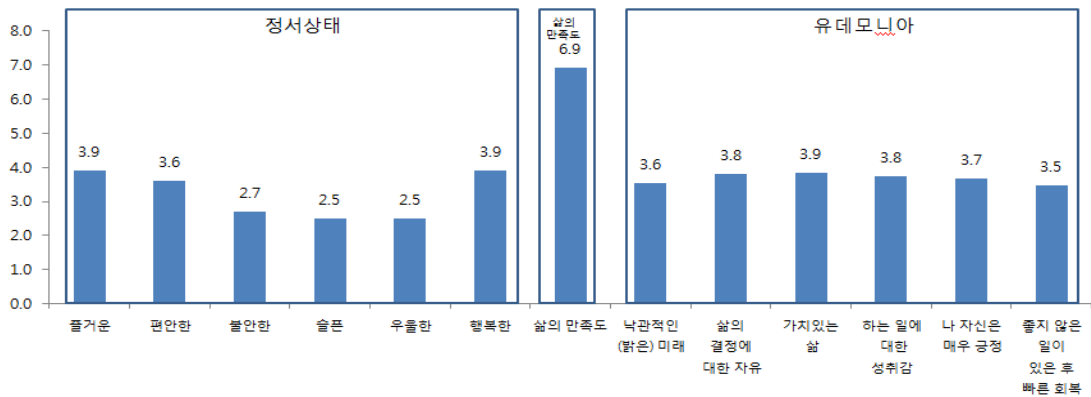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유데 모니아	낙관적인 (밝은) 미래	10,799	3.6	1.0	2,349	3.8	0.9	360	3.7	0.9	48.398***	학부모,교사)학생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10,799	3.8	1.0	2,350	3.9	0.8	361	3.6	0.9	18.803***	학부모) 학생)교사
	가치 있는 삶	10,792	3.9	0.9	2,348	3.9	0.8	360	3.8	0.8	2.685	-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10,779	3.8	0.9	2,346	3.9	0.8	360	3.8	0.8	14.552***	학부모)학생
	나 자신은 매우 긍정	10,784	3.7	1.0	2,345	3.9	0.8	361	3.8	0.8	47.793***	학부모,교사)학생
	즐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10,779	3.5	1.0	2,348	3.8	0.8	361	3.9	0.8	151.611***	학부모,교사)학생

*p<.05, ** p<.01, ***p<.001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중 정서상태(감정)을 살펴보기 위해 6개 영역별 감정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즐거움과 행복함 영역에서 평균이 3.9점으로 6개 영역의 감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편안함 영역에서 평균 3.6점으로 나타났고, 불안함에서 2.7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슬픔과 우울함 영역에서는 평균 2.5점으로 전체 6개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평균 6.9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중 유데미니아를 살펴보기 위해 6개 영역별 유데미니아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치 있는 삶 영역에서 평균 3.9점으로 6개 영역의 유데미니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와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영역에서 평균 3.8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영역에서는 3.7점으로 나타났고, 낙관적인(밝은) 미래 영역에서는 3.6점으로 나타났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영역에서는 평균 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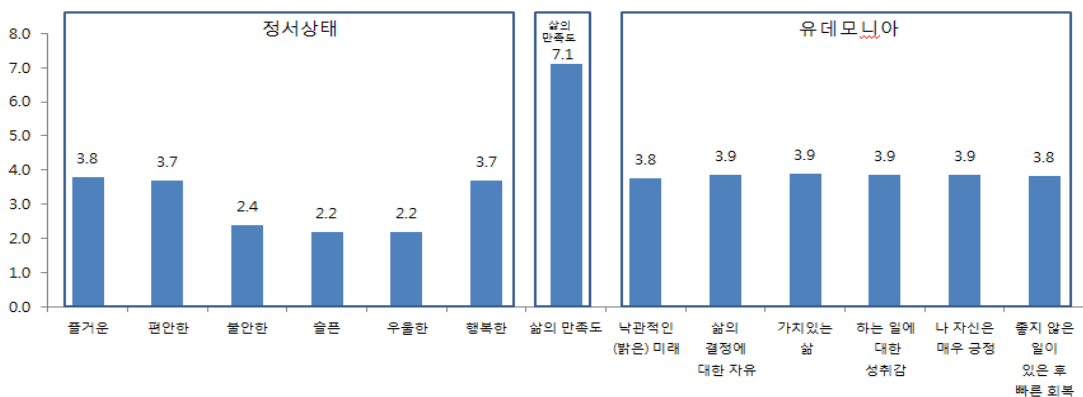


【그림 III-63】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학부모의 주관적 웰빙 중 정서상태(감정)을 살펴보기 위해 6개 영역별 감정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즐거움 영역에서 평균이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편안함과 행복함이 평균 3.7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불안함에서는 2.4점으로 나타났다. 슬픔과 우울함 영역에서는 평균 2.2점으로 전체 6개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평균 7.1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중 유테모니아를 살펴보기 위해 6개 영역별 유테모니아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와 가치 있는 삶,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나 자신은 매우 긍정적 영역에서 평균 3.9점으로 전체 6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낙관적인(밝은) 미래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영역에서는 평균 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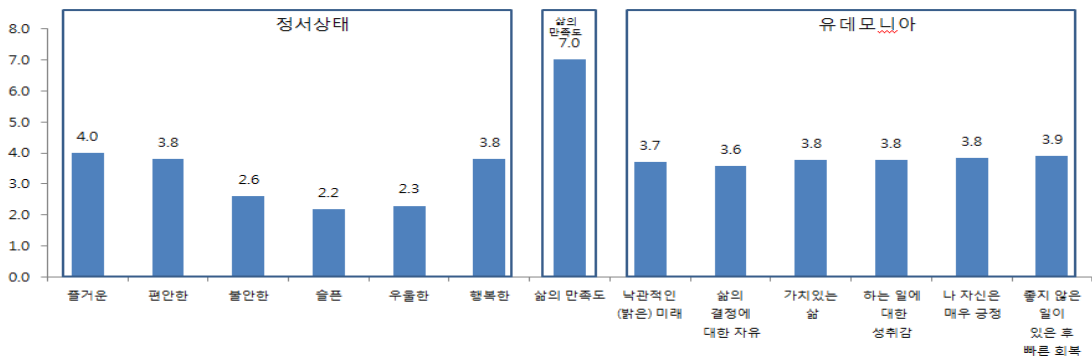


【그림 III-64】 부모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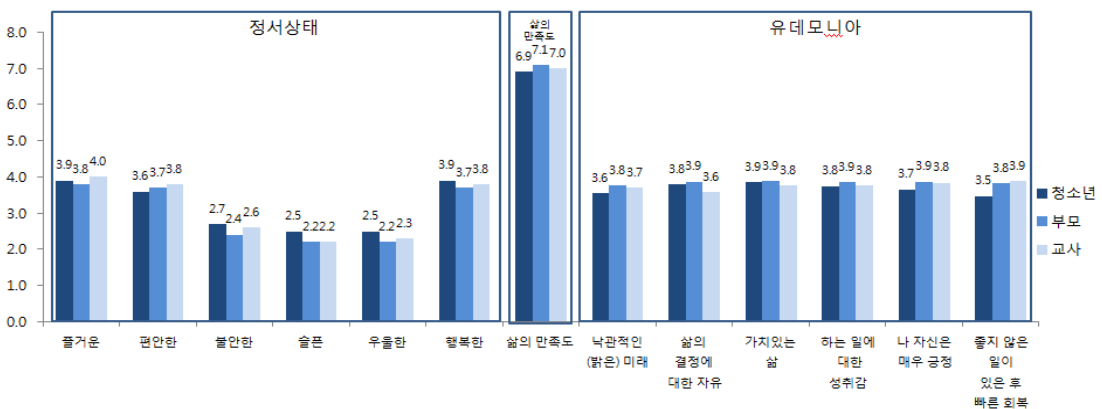
교사의 주관적 웰빙 중 정서상태(감정)를 살펴보기 위해 6개 영역별 감정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즐거움 영역에서 평균이 4.0점으로 6개 영역의 감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안함과 행복함 영역에서 평균 3.8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불안함 영역에서는 2.6점으로 나타났고 우울함에서는 2.3점으로 나타났다. 슬픔 영역에서는 평균 2.2점으로 전체 6개 감정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중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평균 7.0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중 유데모니아를 살펴보기 위해 6개 영역별 유데모니아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회복 영역에서 평균 3.9점으로 6개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 나 자신은 매우 긍정 영역에서 3.8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낙관적인(밝은) 미래 영역에서는 3.7점으로 나타났고, 삶의 결정에 대한 자유 영역에서는 평균 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65】 교사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그림 III-66】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영역 비교

(2) 성격

청소년, 부모, 교사의 주관적 웰빙 중 성격에서는 외향적인 성격, 걱정이 많은 성격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적인 성격에서는 교사(3.9점)가 청소년(3.7점)과 학부모(3.7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9.795, p<.001$). 그러나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이 많은 성격에서는 학생(3.1점)이 학부모(2.7점)와 교사(2.6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74.679,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6 청소년, 부모, 교사의 성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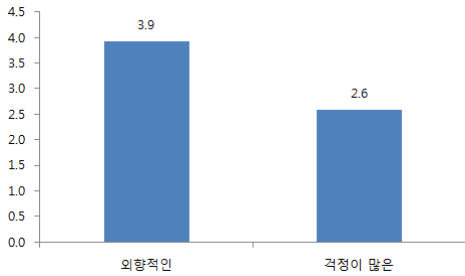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성격	외향적인	10,795	3.7	1.0	2,347	3.7	0.9	361	3.9	0.7	9.795***	교사)학생, 학부모
	걱정이 많은	10,791	3.1	1.1	2,327	2.7	0.9	358	2.6	0.8	174.679***	학생)학부모, 교사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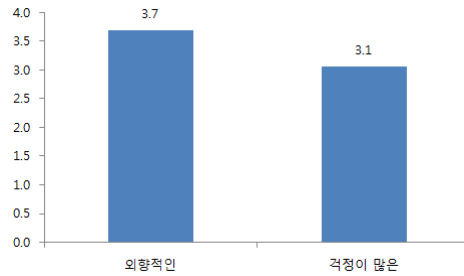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중 2개 영역별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성격 특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외향적인 성격이 평균 3.7점으로 2개의 영역의 성격 특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걱정이 많은 성격이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격 특성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 평균 3.7점으로 나타났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 평균 2.7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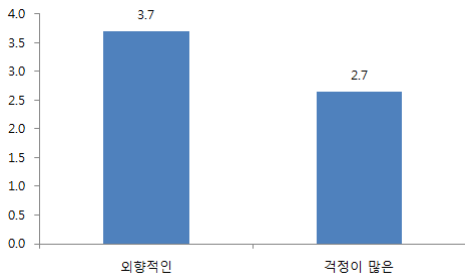
한편, 교사의 성격 특성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이 평균 3.9점으로 나타났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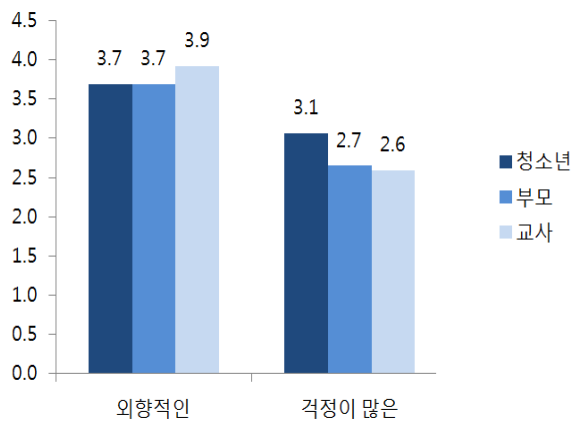
【그림 III-67】 청소년의 성격 비교



【그림 III-68】 부모의 성격 비교



【그림 III-69】 교사의 성격 비교



【그림 III-70】 청소년, 부모, 교사의 성격 비교

4) 청소년, 부모, 교사의 건강영역 비교

청소년, 부모, 교사의 건강 영역 중 건강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스트레스 정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는 학부모(4.0점)와 교사(4.1점)가 청소년(3.9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2.612,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청소년(3.1점), 학부모(2.8점), 교사(3.0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83.755, p<.001$).

한편, 건강 영역 중 건강결정 요인에서는 고카페인 이용량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2.7점), 청소년(2.4점), 학부모(2.3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9.068, p<.001$).

표 III-97 청소년, 부모, 교사의 건강영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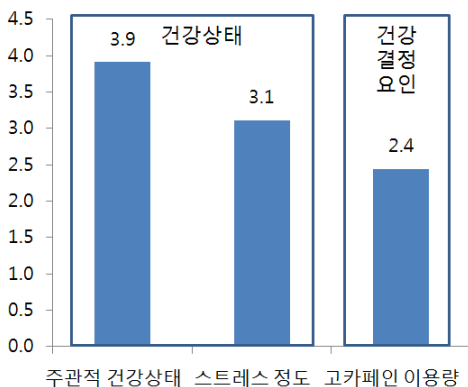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10,792	3.9	0.9	2,349	4.0	0.8	361	4.1	0.7	22.612***	학부모,교사) 학생
	스트레스 정도	10,769	3.1	1.1	2,330	2.8	0.8	359	3.0	0.9	83.755***	학생)학부모) 교사
건강결정 요인	고카페인 이용량	10,776	2.4	1.0	2,348	2.3	0.9	361	2.7	0.9	39.068***	교사)학생) 학부모

*p<.05,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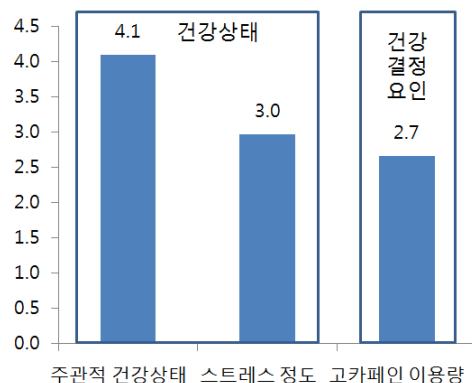
청소년의 건강 영역 중 2개 영역별 건강상태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주관적 건강 상태 영역에서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정도는 3.1점으로 나타났다. 건강 결정 요인의 고카페인 이용량 영역에서는 평균 2.4점을 나타냈다.

학부모의 건강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영역에서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정도는 2.8점으로 나타났다. 건강 결정 요인의 고카페인 이용량 영역에서는 평균 2.3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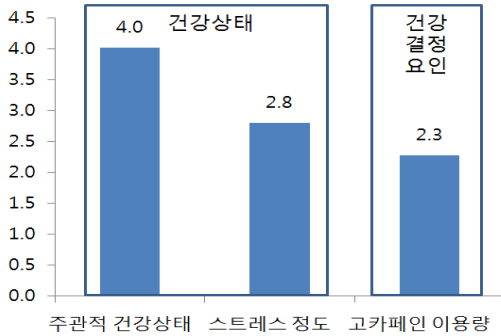
한편, 교사의 건강상태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영역에서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 정도는 3.0점으로 나타났다. 건강 결정 요인의 고카페인 이용량 영역에서는 평균 2.7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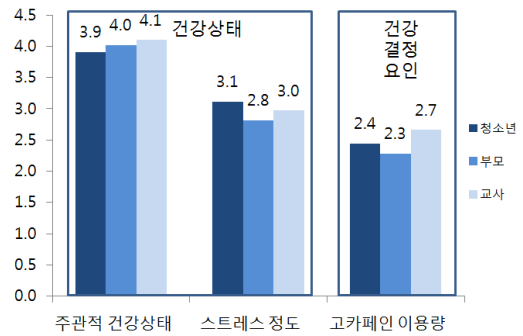
【그림 III-71】 청소년의 건강영역 비교



【그림 III-72】 교사의 건강영역 비교



【그림 III-73】 부모의 건강영역 비교



【그림 III-74】 청소년, 부모, 교사의 건강영역 비교

5) 청소년, 교사의 교육영역 비교

청소년, 교사의 교육 영역 중 교육효과에서는 교과과정 만족도와 진로교육 만족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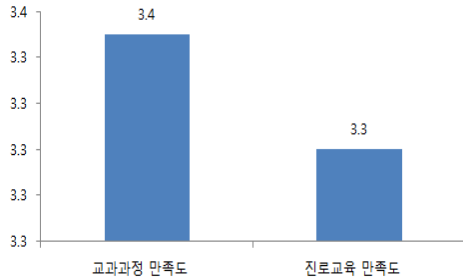
교과과정 만족도에서는 교사(3.7점)가 청소년(3.4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6.600, p<.001$). 진로교육 만족도에서는 교사(3.5점)가 청소년(3.3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t=3.849, p<.001$).

표 III-98 청소년, 교사의 교육영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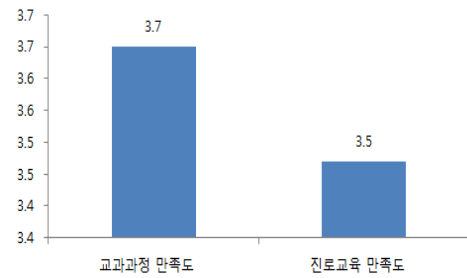
상위 지표	하위지표	청소년			교사			T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교육 효과	교과과정 만족도	10,790	3.4	1.0	361	3.7	0.8	6.600***
	진로교육 만족도	10,786	3.3	1.0	361	3.5	0.8	3.849***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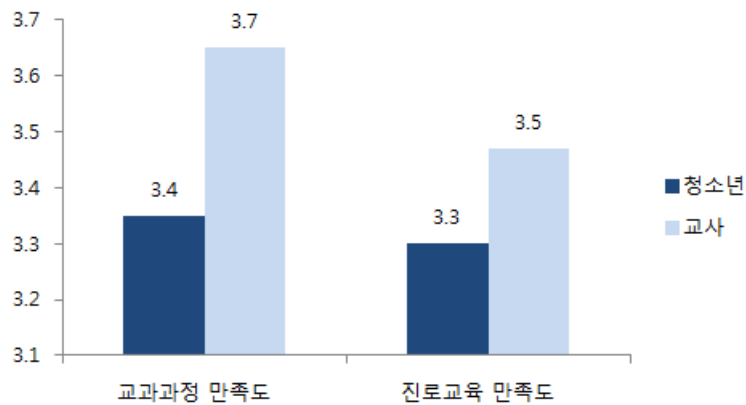
청소년의 교육효과의 2개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만족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교과과정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3.4점으로 진로교육 만족도(3.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교육효과의 만족도에서는 교과과정 만족도(3.7점)가 진로교육 만족도의 평균 3.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75】 청소년의 교육영역 비교



【그림 III-76】 교사의 교육영역 비교



【그림 III-77】 청소년, 교사의 교육영역 비교

6) 청소년, 부모, 교사의 안전영역 비교

청소년, 부모, 교사의 안전 영역 중 사고에서는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학교 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에서는 교사(3.9점), 청소년(3.6점), 학부모(3.4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7.221, p<.001$). 학교시설 안전도에서 역시 교사(4.0점), 청소년(3.6점), 학부모(3.6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34.484, p<.001$). 위기상황대처 능력에서는 교사(3.9점), 청소년(3.7점), 학부모(3.5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41.280, p<.001$).

한편, 안전 영역 중 범죄에서는 범죄 안전도와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 인지 정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안전도에서는 학부모(3.8점)가 청소년(3.5점)과 교사(3.4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6.301,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시설(CCTV)구축 인지 정도에서는 청소년(3.5점)과 교사(3.6점)가 학부모(3.0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202.148,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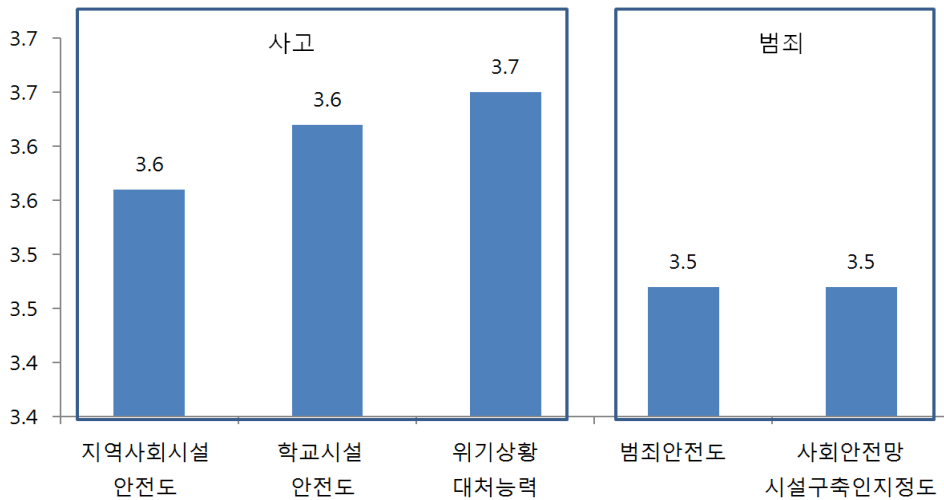
표 III-99 청소년, 부모, 교사의 안전영역 비교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고	지역사회시설 안전도	10,796	3.6	0.9	2,348	3.4	0.7	361	3.9	0.7	67.221***	교사>학생>학부모
	학교 시설 안전도	10,798	3.6	0.9	2,350	3.6	0.7	360	4.0	0.7	34.483***	교사>학생>학부모
	위기상황대처 능력	10,776	3.7	1.0	2,346	3.5	0.8	361	3.9	0.7	41,280***	교사>학생>학부모
범죄	범죄안전도	10,792	3.5	1.1	2,349	3.8	0.8	361	3.4	0.9	66.301***	학부모>학생,교사
	사회안전망 시설(CCTV)구축 인지정도	10,779	3.5	1.0	2,349	3.0	0.9	361	3.6	0.9	202.148***	학생,교사>학부모

*p<.05, ** p<.01, ***p<.001

청소년의 안전영역 중 3개 영역별 안전에 대한 사고를 살펴보기 위해 사고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위기상황대처 능력 영역에서 평균 3.7점으로 3개의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와 학교 시설 안전도에서는 평균 3.6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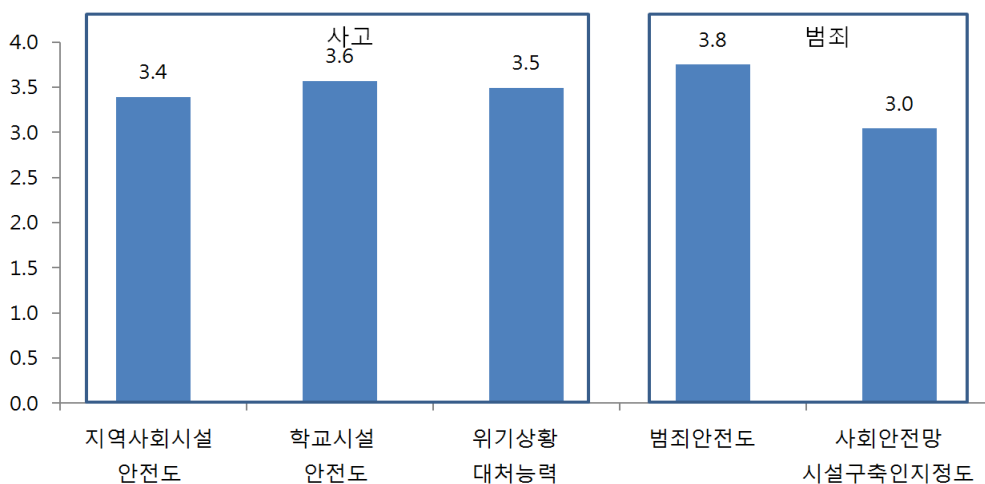
한편, 안전영역 중 2개 영역별 안전에 대한 범죄에서는 범죄 안전도와 사회안전망 시설(CCTV)구축 인지 정도 영역에서 평균 3.5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II-78】 청소년의 안전영역 비교

부모의 안전영역 중 3개 영역별 안전에 대한 사고를 살펴보기 위해 사고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교 시설 안전도에서 평균 3.6점으로 3개의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위기상황대처 능력 영역에서는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에서는 평균 3.4점으로 전체 3개 영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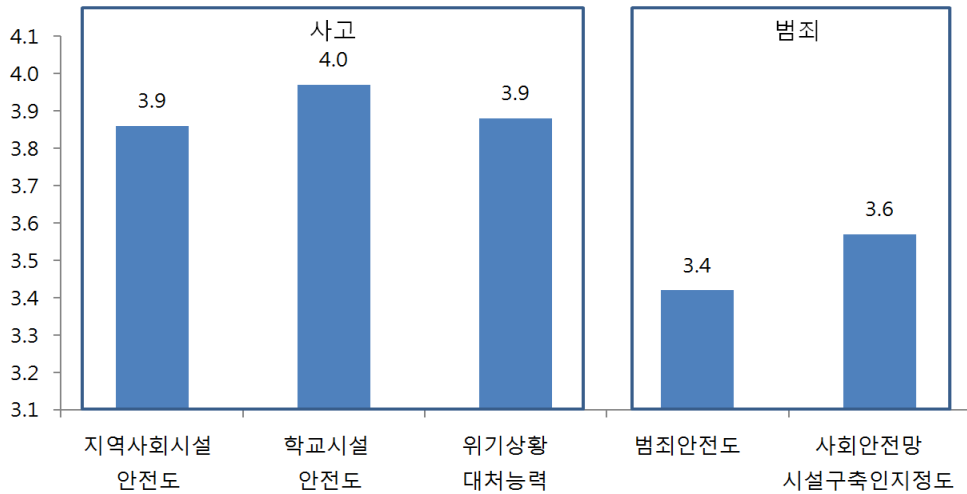
한편, 안전영역 중 2개 영역별 안전에 대한 범죄에서는 범죄 안전도가 평균 3.8점으로 사회안전망 시설(CCTV)구축 인지 정도(3.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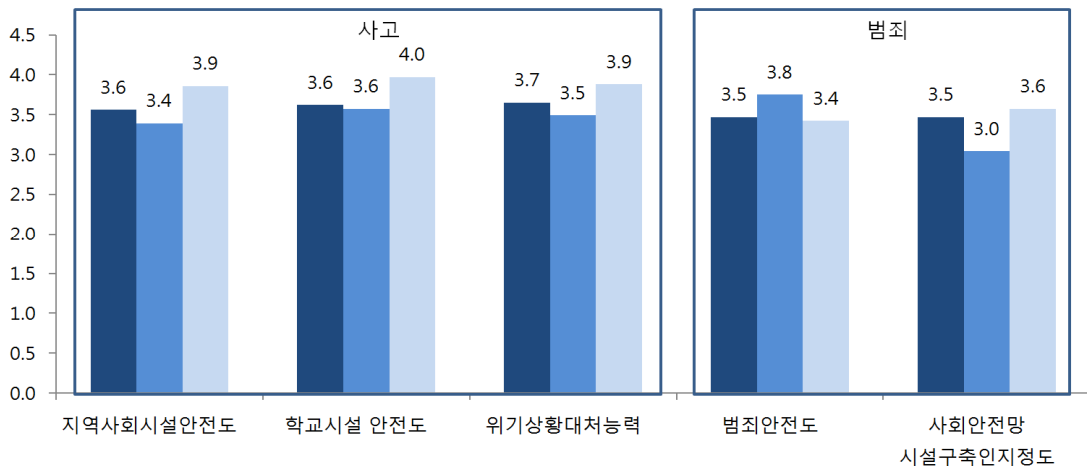
【그림 III-79】 부모의 안전영역 비교

교사의 안전영역 중 3개 영역별 안전에 대한 사고를 살펴보기 위해 사고의 정도를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교 시설 안전도에서 평균 4.0점으로 3개의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와 위기상황대처 능력 영역에서는 평균 3.9점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안전영역 중 2개 영역별 안전에 대한 범죄에서는 사회안전망 시설구축인지정도가 평균 3.6점으로 범죄 안전도(3.4)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II-80】 교사의 안전영역 비교



【그림 III-81】 청소년, 부모, 교사의 안전영역 비교

7)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활동영역 비교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활동 영역별 활동기반에서는 놀이친구 접근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3.5점)과 교사(3.5점)가 학부모(3.3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35.981,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인식 영역에서는 여가활동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여가활동용돈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시간 만족도에서는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3.4점)이 교사(3.3점)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690, p<.01$). 여가활동공간 만족도에서는 청소년(3.4점)과 교사(3.4점)가 학부모(3.1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14.856, p<.001$). 그러나 청소년과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용돈 만족도에서는 청소년(3.4점)이 학부모(3.3점)와 교사(3.2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4.841,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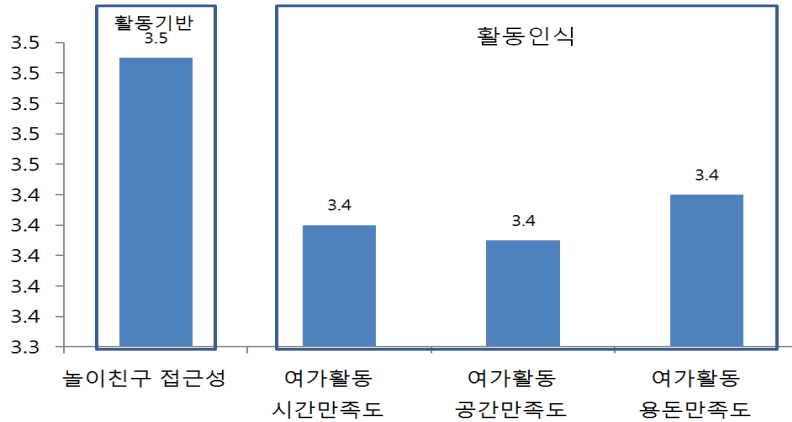
표 III-100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활동영역 비교

상위 지표	하위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활동 기반	놀이 친구 접근성	10,750	3.5	1.1	2,340	3.3	0.9	361	3.5	0.9	35.981***	학생,교사 >학부모
활동 인식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10,798	3.4	1.1	2,349	3.4	1.0	360	3.3	1.0	4.690**	학생>교사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10,788	3.4	1.1	2,345	3.1	0.9	361	3.4	0.9	114.856***	학생,교사 >학부모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10,774	3.4	1.1	2,342	3.3	0.8	361	3.2	0.8	24.841***	학생>학부모,교사

* $p<.05$, ** $p<.01$, *** $p<.001$

청소년의 활동영역 중 활동기반을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놀이친구 접근성 영역에서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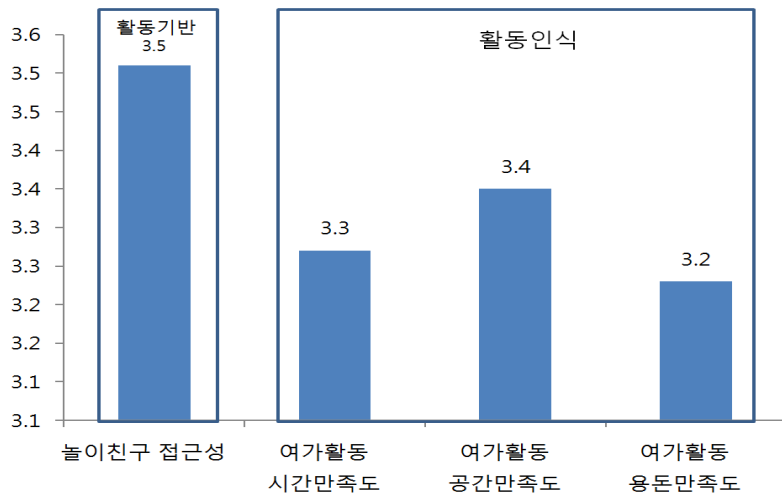
활동영역 중 3개 영역별 활동인식에서는 여가활동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의 평균이 3.4점으로 모두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Ⅲ-82】 청소년의 활동영역 비교

학부모의 활동영역 중 활동기반을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놀이친구 접근성 영역에서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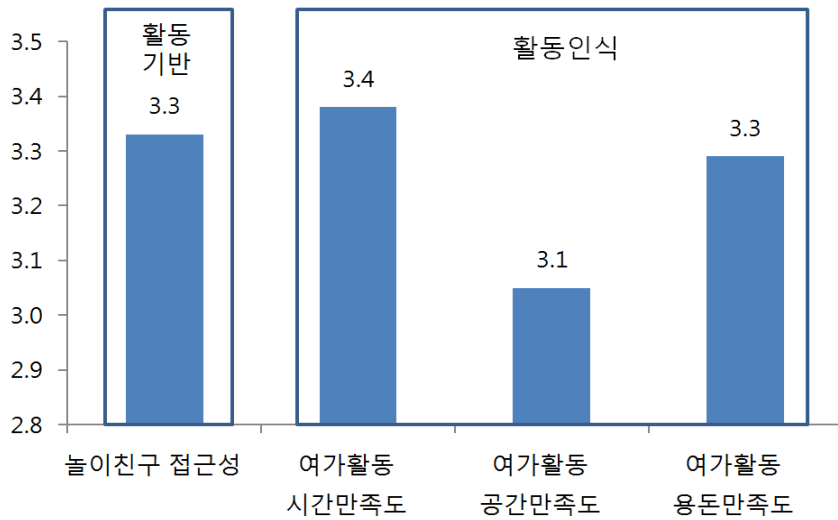
활동영역 중 3개 영역별 활동인식에서는 여가활동시간 만족도가 평균 3.4점으로 전체 3개 영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용돈 만족도가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공간 만족도에서는 평균 3.1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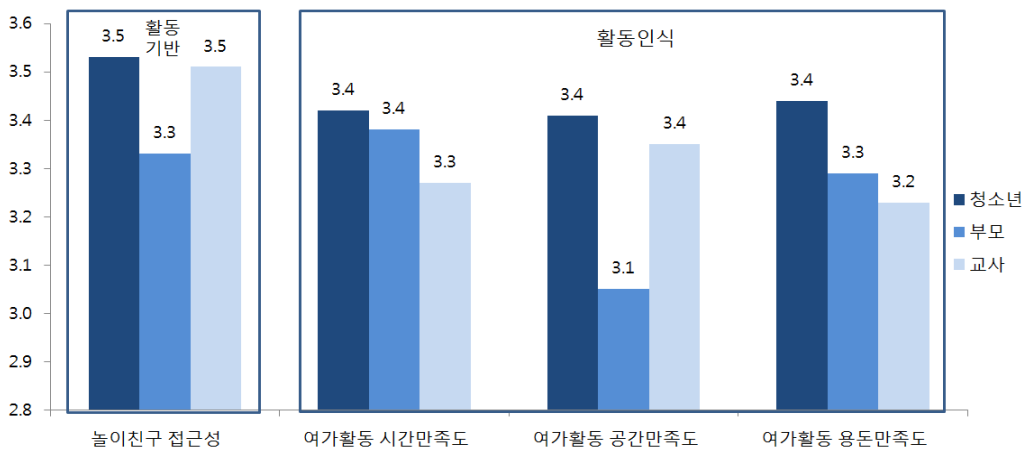
【그림 Ⅲ-83】 부모의 활동영역 비교

교사의 활동영역 중 활동기반을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놀이친구 접근성 영역에서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 중 3개 영역별 활동인식에서는 여가활동공간 만족도가 평균 3.4점으로 전체 3개 영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시간 만족도가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용돈 만족도에서는 평균 3.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III-84】 교사의 활동영역 비교



【그림 III-85】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활동영역 비교

8) 청소년, 부모, 교사의 참여영역 비교

청소년, 교사의 참여 영역별 참여결정요인에서는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인지에서는 교사(3.8점)가 청소년(3.7점)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t=4.036, p<.001$). 징계소명권에서는 교사(4.2점), 청소년(3.4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22.097, p<.001$). 학칙개정권에서는 교사(3.9점)가 청소년(3.3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2.30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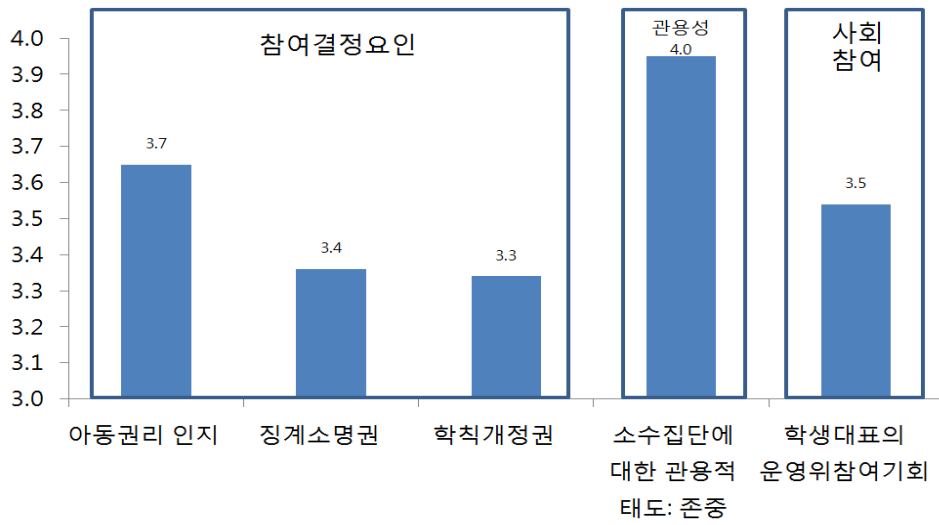
참여 영역별 관용성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에서 교사(4.3점)가 청소년(4.0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0.533, p<.001$). 한편, 사회참여에서는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서 청소년(3.5점)이 교사(3.2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t=5.232, p<.001$).

표 III-101 청소년, 교사의 참여영역 비교

상위 지표	하위지표	청소년			교사			T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참여 결정 요인	아동권리 인지	10,797	3.7	0.9	361	3.8	0.8	4.036***
	징계소명권	10,789	3.4	1.0	361	4.2	0.7	22.097***
	학칙개정권	10,783	3.3	1.1	361	3.9	0.8	12.302***
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10,793	4.0	1.0	361	4.3	0.7	10.533***
사회 참여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10,794	3.5	1.0	361	3.2	1.2	5.23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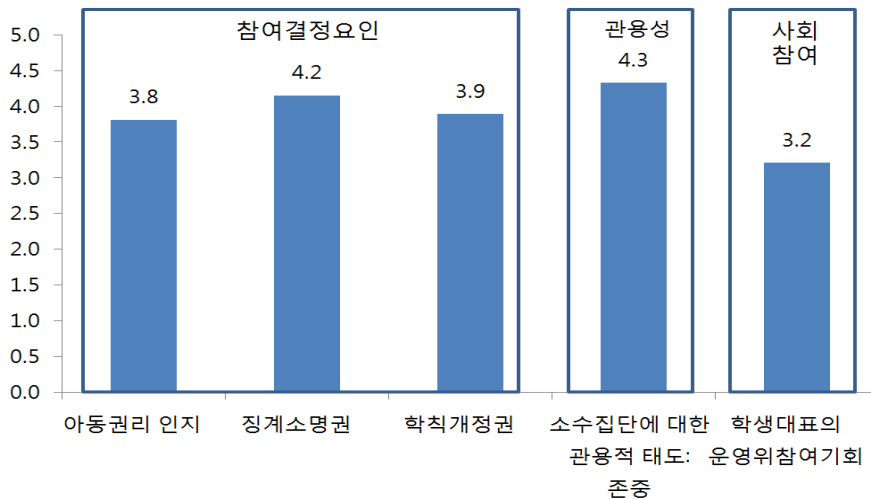
청소년의 참여영역 중 3개 영역별 참여결정요인을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아동권리 인지 영역에서 평균 3.7점으로 3개의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징계소명권에서는 평균이 3.4점으로 나타났다. 학칙개정권에서는 평균 3.3점으로 전체 3개 영역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관용성 영역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가 평균 4.0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 영역의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서는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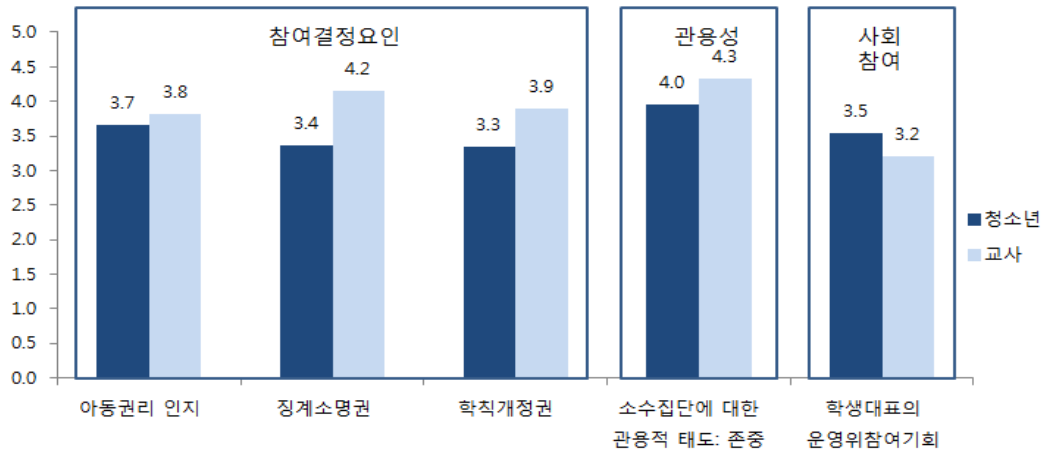
【그림 III-86】 청소년의 참여영역 비교

교사의 참여영역 중 3개 영역별 참여결정요인을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징계소명권에서 평균 4.2점으로 3개의 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칙개정권에서 평균이 3.9점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인지 영역에서는 평균 3.8점으로 전체 3개 영역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관용성 영역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존중)가 평균 4.3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참여 영역의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서는 평균 3.2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87】 교사의 참여영역 비교



【그림 III-88】 청소년, 교사의 참여영역 비교

9)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환경영역 비교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환경 영역별 주거환경인식에서는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주택 만족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에서는 교사(3.84점), 청소년(3.44점), 학부모(4.44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45.210, p<.001$). 주택만족도에서는 청소년(4.14점)이 학부모(3.79점)와 교사(3.8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71.672, p<.001$).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2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환경영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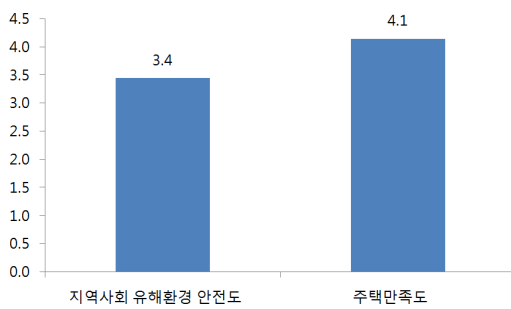
상위 지표	하위지표	청소년			부모			교사			F	사후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주거 환경 인식	지역사회 유해환경 안전도	10,782	3.44	0.98	2,341	3.33	0.89	361	3.84	0.87	45.210***	교사>학생>학부모
	주택 만족도	10,780	4.14	0.89	2,337	3.79	0.75	360	3.8	0.88	171.672***	학생>학부모,교사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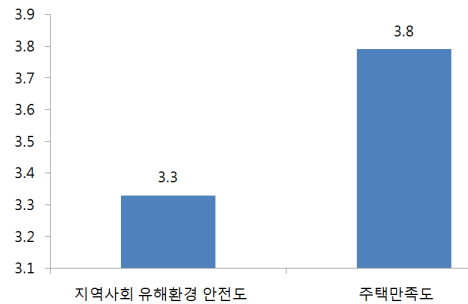
청소년의 환경 영역 중 2개 영역별 주거환경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0-5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주택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4.14점으로 지역사회유해환경 안전도 영역(3.4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주거환경인식에서는 주택 만족도 영역이 평균 3.79점으로 지역사회유해환경 안전도 영역의 평균 3.3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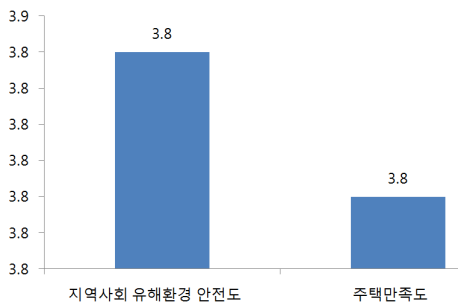
한편, 교사의 주거환경인식에서는 지역사회유해환경 안전도 영역(3.8점)이 주택 만족도 영역(3.8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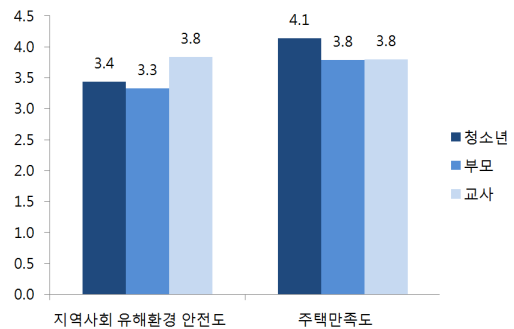
【그림 III-89】 청소년의 환경영역 비교



【그림 III-90】 부모의 환경영역 비교



【그림 III-91】 교사의 환경영역 비교



【그림 III-92】 청소년, 부모, 교사의 환경영역 비교

5. 소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영역별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관계(7.5점), 건강·경제(7.3점), 교육·안전(7.1점), 주관적웰빙·활동(6.9점), 환경(6.8점), 참여(6.1점) 영역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및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9개 영역에 따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 남학생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편이고 친구, 교사, 이웃사람,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전문기관에 대한 신뢰가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족관계와 부모관계, 이웃관계에 만족하는 편이고,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길고, 수업시간외에 담임 선생님과 면담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일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수업시간 외 담임선생님과 면담횟수 지표를 제외한 모든 하위 지표들에서 경제적 수준이 상위인 청소년들이 관계만족도가 높으며,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비슷하고 조손가정보다 한부모 가정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조손가정이 한부모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양부모 가정이 가장 높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부모 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중앙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긴 편이고, 가족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부모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이 맞벌이 가정 청소년에 비해 가족관계만족도가 높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가족과 하루 평균대화 시간이 길고, 수업시간 외 담임교사와의 면담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있는 청소년과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편안한 정서 상태이며, 삶이 가치있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느끼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르게 회복하는 편이고, 성격이 외향적이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상태이고, 삶을 결정하는데 자유를 느끼며,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 한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며, 종교가 있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며, 일주일 중 아침식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 종교가 있을수록 건강하다고 느끼며, 후천적인 질병, 스트레스 정도에서 고등학생, 경제적수준이 낮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진로교육만족도는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 대도시에 거주하고 종교가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에서 남학생은 사회안전망시설(CCTV)의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여학생은 동네에서 우범자와 마주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 한부모가 직업을 가질수록, 종교가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에 긍정적이며,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고, 사회안전망시설(CCTV)이 충분히 설치되었다고 답변했다.

참여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내 규칙 개정 시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청소년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즉 남학생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한 반면 여학생은 평등한 참여권이나 의사전달권 등 권리의 평등성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 종교가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영역에서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 종교가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네에 충분한 운동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만족감은 조손가정, 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용돈의 충분성과 놀이친구 접근성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이며,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환경영역에서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주변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이거나 연령이 적거나 외향적인 성격이거나 질병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를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 혹은

양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천적인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친부모와 동거하거나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거나 학급 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가 주택 여부나 종교의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기존의 성인 대상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며, 외향적 성격과 같은 기질에 의한 차이는 오히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 동거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초등학교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성적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학교급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8개 영역 가운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함을 함축한다. 특히, 교육영역 만족도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관계영역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영역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하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영역에 비해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이 두 영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관계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영역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나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안전영역의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

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질병이 있는 경우 8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낮춤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일수록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타 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보다 크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 즉 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질병의 유무와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더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시설(CCTV)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놀이를 할 때 쉽게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여가 활동 시간과 공간과 용돈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이 학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불안함과 슬픔과 우울함을 느끼고, 을 느끼고, 걱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 이웃사람,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을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며, 외향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교과과정, 진로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시설이 안전하고, 위기상황이 생겼을때 잘 대처한다고 생각했다.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며, 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잘 말하고, 소수집단의 권리에 대해 관용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이웃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결정에 자유가 있고,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제 I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정의와 측정

1. 관계영역
2. 주관적웰빙영역
3. 건강영역
4. 교육영역
5. 안전영역
6. 활동영역
7. 참여영역
8. 환경영역
9. 경제영역
10. 소결

제 I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정의와 측정

1. 관계영역

1) 직접적 관계

(1) 가족관계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1 가족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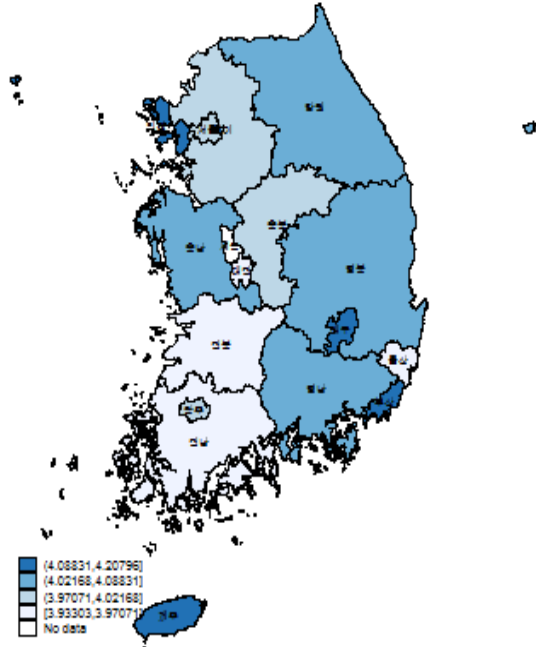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출처	YHCI(2014) Q9-1)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가족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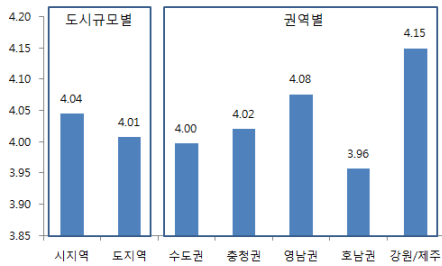
전국 가족관계만족도는 제주가 가장 높은 평균 4.21를 나타내고, 부산(4.18), 대구(4.11), 인천(4.09), 강원(4.09)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전(3.96), 울산(3.96)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가족관계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4.04로 도지역(4.01)보다 0.03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가족관계만족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4.08), 충청권(4.02), 수도권(4.00), 호남권(3.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가족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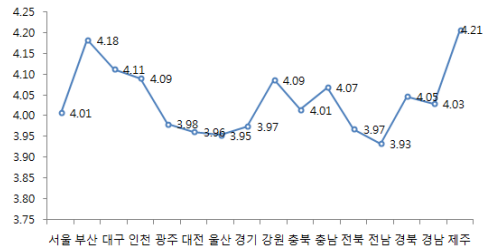
시도	가족관계만족도
서울	4.01
부산	4.18
대구	4.11
인천	4.09
광주	3.98
대전	3.96
울산	3.95
경기	3.97
강원	4.09
충북	4.01
충남	4.07
전북	3.97
전남	3.93
경북	4.05
경남	4.03
제주	4.21



【그림 IV-1】 가족관계만족도



【그림 IV-2】 도시규모별 · 권역별 가족관계만족도



【그림 IV-3】 2015년 가족관계만족도

(2) 부모관계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부모관계 만족도는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3 부모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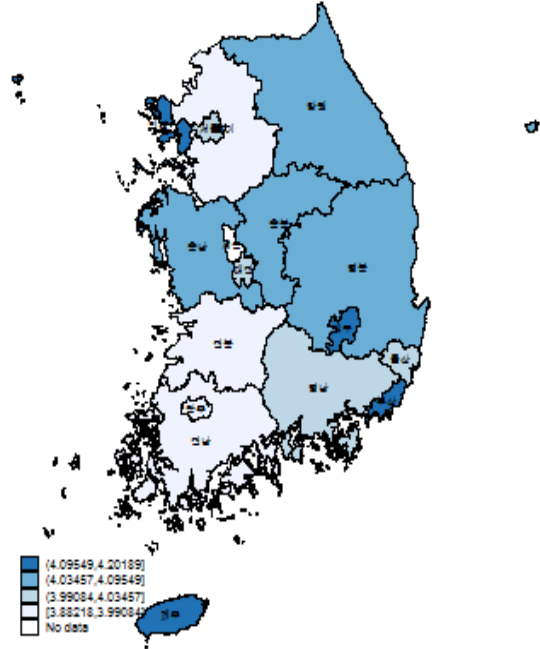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출처	YHCI(2014)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부모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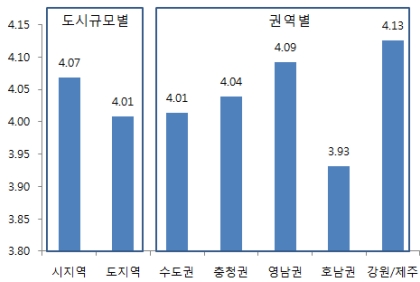
전국 부모관계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4.20을 나타내고, 대구(4.14), 인천(4.12), 제주(4.17)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97), 경기(3.99), 전북(3.96), 전남(3.88)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부모관계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4.07로 도지역(4.01)보다 0.06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부모관계만족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4.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4.09), 충청권(4.04), 수도권(4.01), 호남권(3.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부모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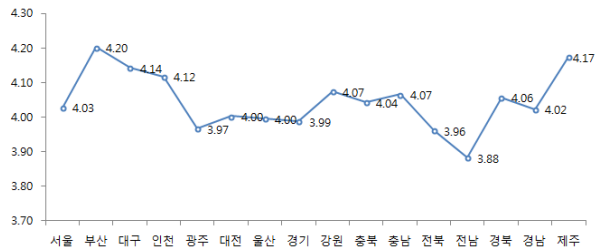
시도	부모관계만족도
서울	4.03
부산	4.20
대구	4.14
인천	4.12
광주	3.97
대전	4.00
울산	4.00
경기	3.99
강원	4.07
충북	4.04
충남	4.07
전북	3.96
전남	3.88
경북	4.06
경남	4.02
제주	4.17



【그림 IV-4】 부모관계만족도



【그림 IV-5】 도시규모별·권역별 부모관계만족도



【그림 IV-6】 2015년 부모관계만족도

(3) 교우관계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교우관계 만족도는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5 **교우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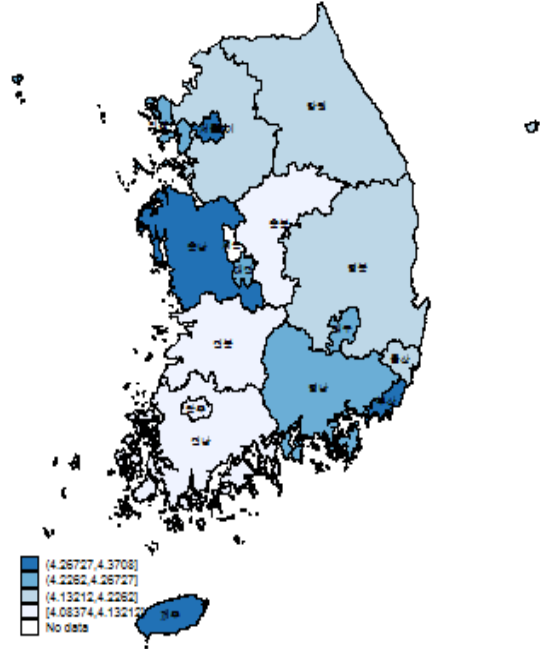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출처	YHCI(2014) Q9-2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교우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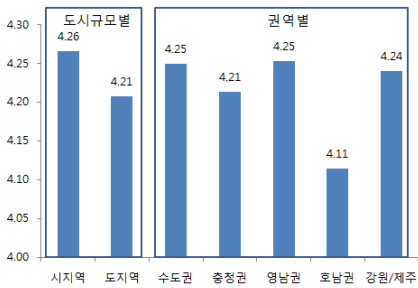
전국 교우관계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4.37을 나타내고, 서울(4.29), 충남(4.28), 제주(4.29)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4.08), 전북(4.11), 전남(4.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교우관계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4.26으로 도지역(4.21)보다 0.05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교우관계만족도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평균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4.24), 충청권(4.21), 호남권(4.11)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교우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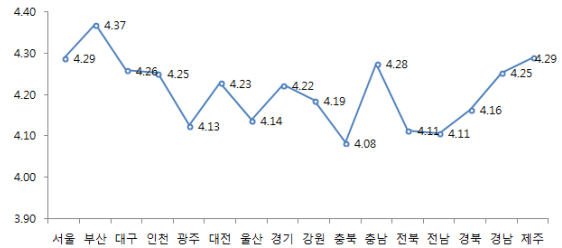
시도	교우관계만족도
서울	4.29
부산	4.37
대구	4.26
인천	4.25
광주	4.13
대전	4.23
울산	4.14
경기	4.22
강원	4.19
충북	4.08
충남	4.28
전북	4.11
전남	4.11
경북	4.16
경남	4.25
제주	4.29



【그림 IV-7】 교우관계만족도



【그림 IV-8】 도시규모별 · 권역별 교우관계만족도



【그림 IV-9】 2015년 교우관계만족도

(4) 교사관계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교사관계 만족도는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7 교사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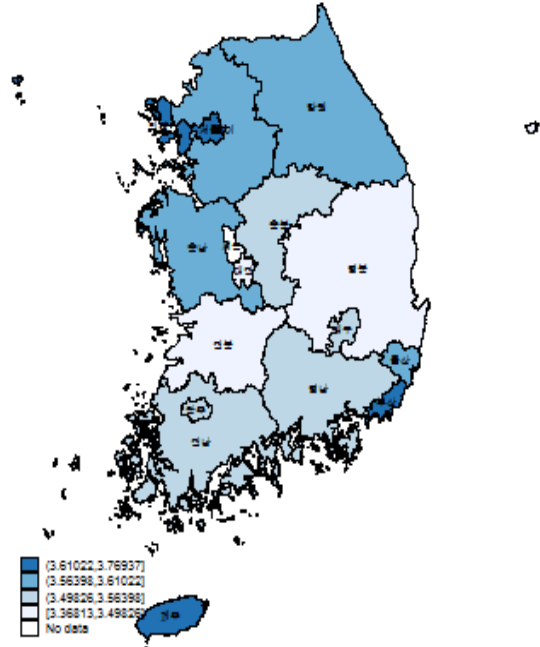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출처	YHCI(2014) Q9-3)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교사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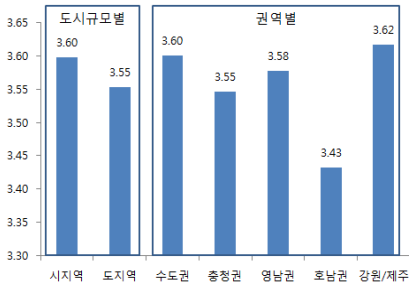
전국 교사관계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77을 나타내고, 서울(3.61), 인천(3.65), 강원(3.61), 제주(3.62)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37), 전북(3.41), 경북(3.46)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교사관계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60으로 도지역(3.55)보다 0.05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교사관계만족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3.60), 영남권(3.58), 충청권(3.55), 호남권(3.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교사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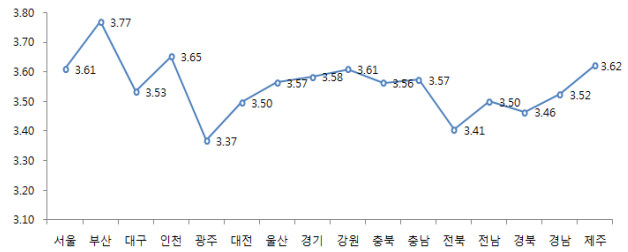
시도	교사관계만족도
서울	3.61
부산	3.77
대구	3.53
인천	3.65
광주	3.37
대전	3.50
울산	3.57
경기	3.58
강원	3.61
충북	3.56
충남	3.57
전북	3.41
전남	3.50
경북	3.46
경남	3.52
제주	3.62



【그림 IV-10】 교사관계만족도



【그림 IV-11】 도시규모별·권역별 교사관계만족도



【그림 IV-12】 2015년 교사관계만족도

(5) 일반신뢰도

① 지표정의서

일반신뢰도는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사람들에 관해 얼마나 신뢰하나요’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9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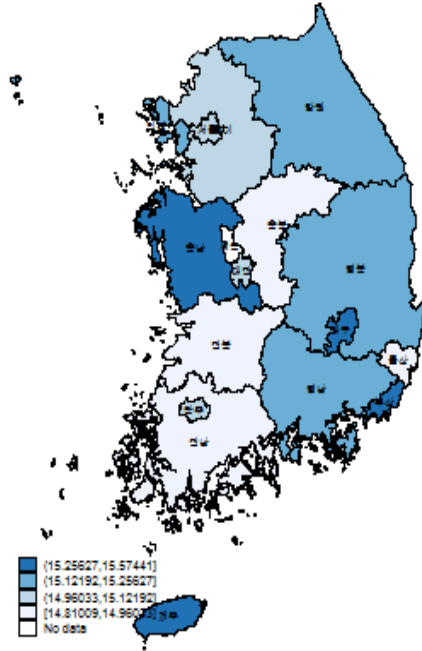
설문문항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사람에 관해 얼마나 신뢰하나요?
출처	YHCI(2014) Q9-3)
척도	20점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척도에 4문항
지표방향	+

② 전국 일반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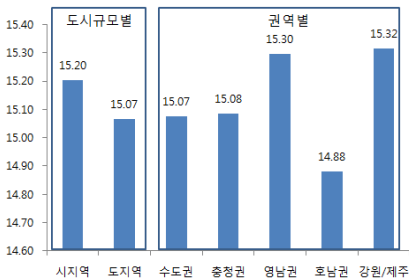
전국 일반신뢰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15.6을 나타내고, 대구(15.4), 제주(15.5)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14.8), 전북(14.9), 전남(14.8)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일반신뢰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15.20으로 도지역(15.07)보다 0.13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일반신뢰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4.08), 충청권(4.02), 수도권(4.00), 호남권(3.9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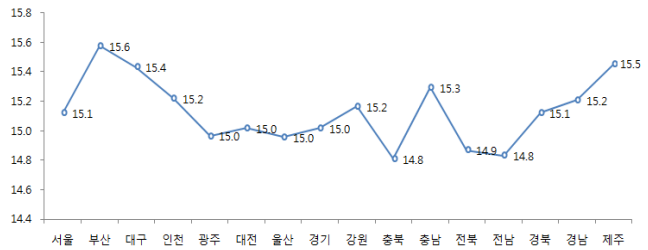
시도	일반신뢰도
서울	15.1
부산	15.6
대구	15.4
인천	15.2
광주	15.0
대전	15.0
울산	15.0
경기	15.0
강원	15.2
충북	14.8
충남	15.3
전북	14.9
전남	14.8
경북	15.1
경남	15.2
제주	15.5



【그림 IV-13】 일반신뢰도



【그림 IV-14】 도시규모별 · 권역별 일반신뢰도



【그림 IV-15】 2015년 일반신뢰도

(6) 가족 간의 대화시간

① 지표정의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은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11 가족 간의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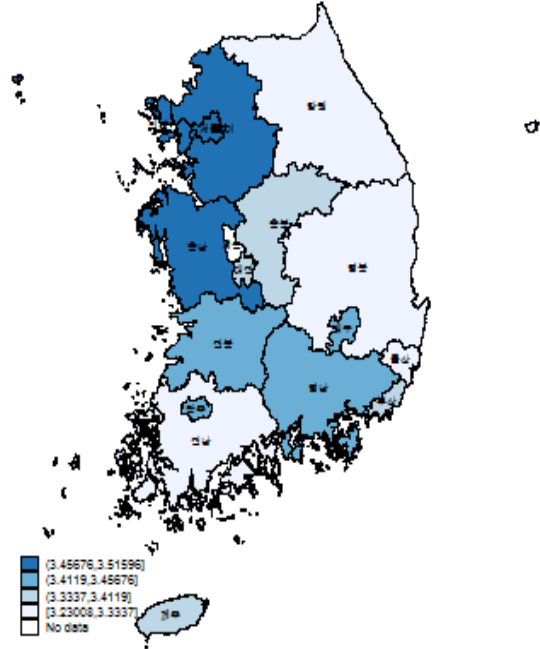
설문문항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척도	5점(없음, 30분 미만, 30분이상~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 이상)
지표방향	+

② 전국 가족 간의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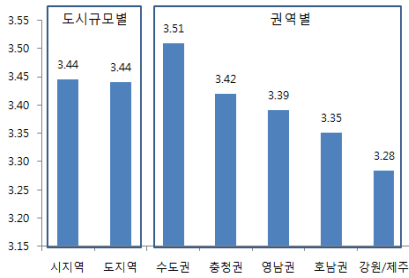
전국 가족 간의 대화시간에서는 경기가 가장 높은 평균 3.52를 나타내고, 서울(3.50), 인천(3.49), 충남(3.47)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전(3.39), 울산(3.26), 강원(3.23), 전남(3.32)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가족 간의 대화시간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3.44로 같게 나타났다. 권역별 가족 간의 대화시간에서는 수도권이 평균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3.42), 영남권(3.39), 호남권(3.35), 강원/제주(3.28)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가족 간의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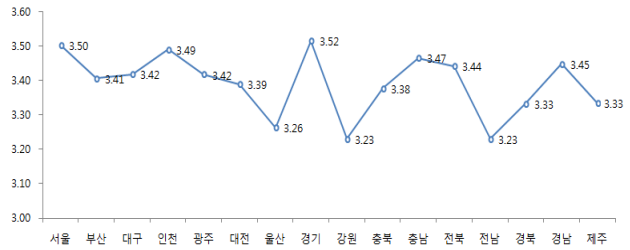
시도	가족간의 대화시간
서울	3.50
부산	3.41
대구	3.42
인천	3.49
광주	3.42
대전	3.39
울산	3.26
경기	3.52
강원	3.23
충북	3.38
충남	3.47
전북	3.44
전남	3.23
경북	3.33
경남	3.45
제주	3.33



【그림 IV-16】 가족간의 대화시간



【그림 IV-17】 도시규모별·권역별 가족간의 대화시간



【그림 IV-18】 2015년 가족간의 대화시간

(7)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① 지표정의서

담임교사와 면담횟수는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13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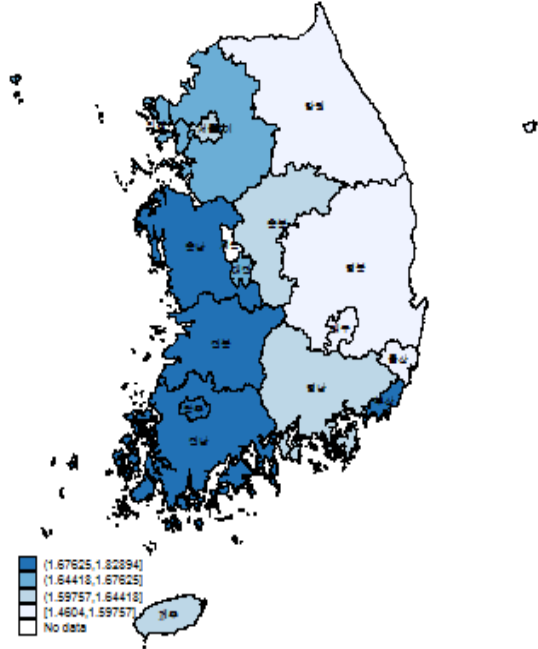
설문문항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척도	5점(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지표방향	+

② 전국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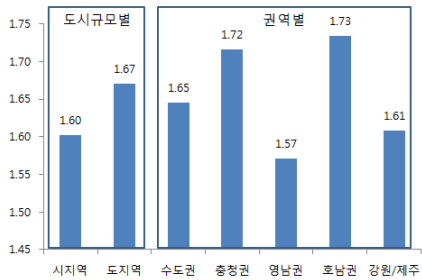
전국 가족관계만족도는 전북이 가장 높은 평균 1.83을 나타내고, 충남(1.80), 전남(1.71)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구(1.47), 울산(1.46)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에서는 도지역이 평균 1.67로 시지역(1.60)보다 0.07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호남권이 평균 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1.72), 수도권(1.65), 강원/제주(1.61), 영남권(1.57)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4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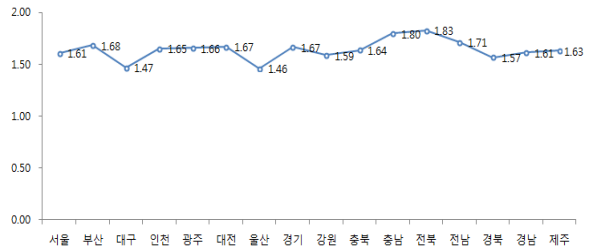
시도	담임교사 면담횟수
서울	1.61
부산	1.68
대구	1.47
인천	1.65
광주	1.66
대전	1.67
울산	1.46
경기	1.67
강원	1.59
충북	1.64
충남	1.80
전북	1.83
전남	1.71
경북	1.57
경남	1.61
제주	1.63



【그림 IV-19】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그림 IV-20】 도시규모별 · 권역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그림 IV-21】 2015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8)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① 지표정의서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표 IV-15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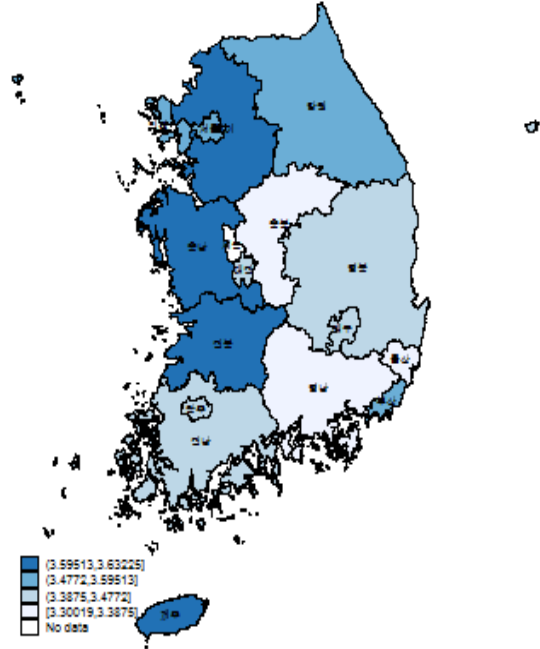
설문문항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척도	5점(없음, 30분 미만, 30분이상~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지표방향	+

② 전국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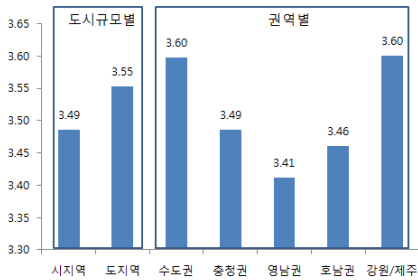
전국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제주가 가장 높은 평균 3.63을 나타냈고, 서울(3.58), 충남(3.61), 전북(3.62)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37), 울산(3.30), 충북(3.38)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서는 도지역이 평균 3.55로 시지역(3.49)보다 0.06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을 살펴보면, 경기와 강원/제주가 평균 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3.49), 호남권(3.46), 영남권(3.41)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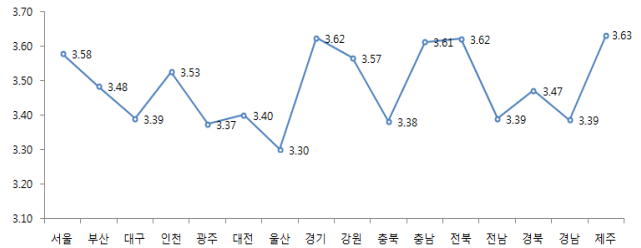
시도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서울	3.58
부산	3.48
대구	3.39
인천	3.53
광주	3.37
대전	3.40
울산	3.30
경기	3.62
강원	3.57
충북	3.38
충남	3.61
전북	3.62
전남	3.39
경북	3.47
경남	3.39
제주	3.63



【그림 IV-22】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그림 IV-23】 도시규모별·권역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그림 IV-24】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2) 간접적 관계

(1)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이웃(지역사회) 관계 만족도는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17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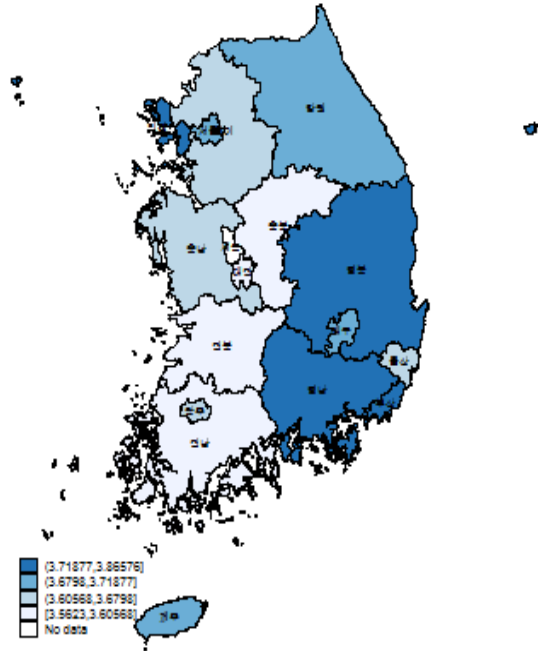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출처	YHCI(2014) Q9-4)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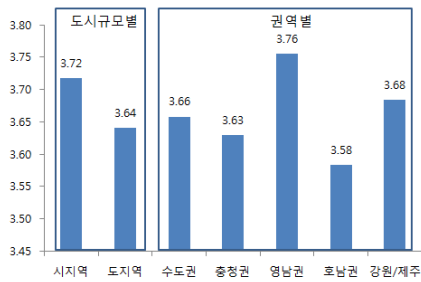
전국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3.87을 나타내고, 대구(3.72), 인천(3.74), 경북(3.78), 경남(3.72)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59), 전북(3.56), 전남(3.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72로 도지역(3.64)보다 0.08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영남권이 평균 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3.68), 수도권(3.66), 충청권(3.63), 호남권(3.58)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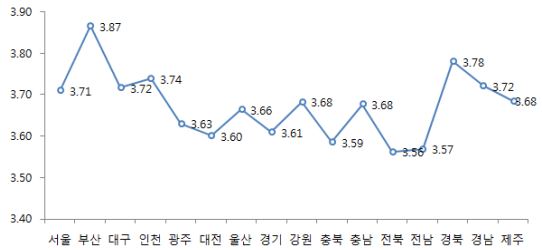
시도	이웃관계만족도
서울	3.71
부산	3.87
대구	3.72
인천	3.74
광주	3.63
대전	3.60
울산	3.66
경기	3.61
강원	3.68
충북	3.59
충남	3.68
전북	3.56
전남	3.57
경북	3.78
경남	3.72
제주	3.68



【그림 IV-25】 이웃관계만족도



【그림 IV-26】 도시규모별·권역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그림 IV-27】 2015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2) 일반신뢰도

① 지표정의서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나요’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IV-19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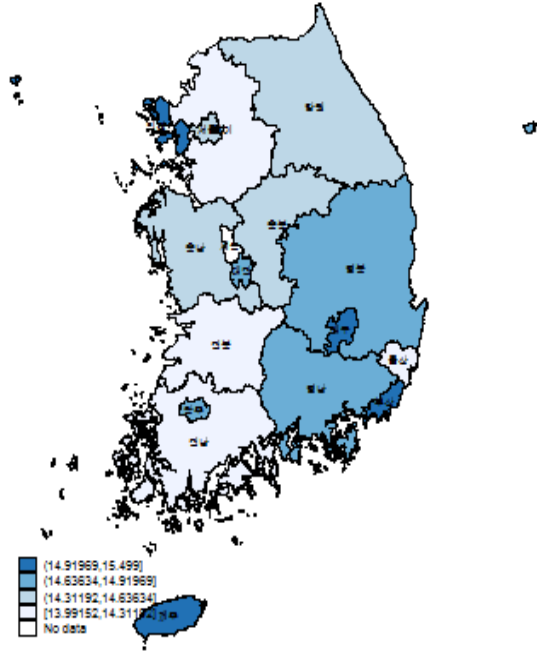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출처	YHCI(2014) Q9-4)
척도	25점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척도에 5문항
지표방향	+

② 전국 일반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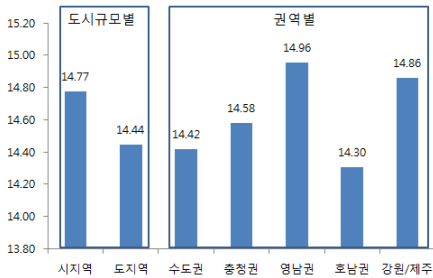
전국 이웃사람,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의 일반신뢰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15.5를 나타내고, 대구(15.0), 경북(14.9), 경남(14.9), 제주(15.1)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14.0), 경기(14.2), 전남(14.1)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이웃사람,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의 일반신뢰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14.77로 도지역(14.44)보다 0.33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영남권(14.96), 강원/제주(14.86), 충청권(14.58), 수도권(14.42), 호남권(14.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일반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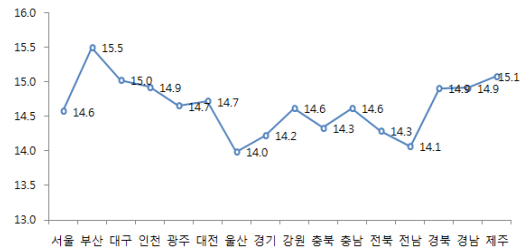
시도	일반신뢰도
서울	14.6
부산	15.5
대구	15.0
인천	14.9
광주	14.7
대전	14.7
울산	14.0
경기	14.2
강원	14.6
충북	14.3
충남	14.6
전북	14.3
전남	14.1
경북	14.9
경남	14.9
제주	15.1



【그림 IV-28】 일반신뢰도



【그림 IV-29】 도시규모별·권역별 일반신뢰도



【그림 IV-30】 2015년 일반신뢰도

2. 주관적웰빙영역⁹⁾

1) 정서상태

(1) 지표정의서

정서상태는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까(즐거운,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IV-21 정서상태

설문문항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즐거운,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출처	OECD(2013)
척도	-15점(불안한, 슬픈, 우울한 3문항 5점) ~15점(즐거운, 편안한, 행복한 3문항 5점) 5점(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지표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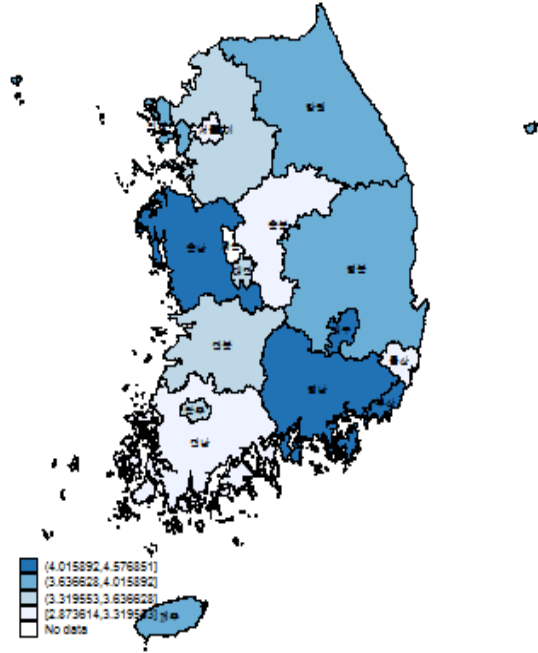
(2) 전국 정서상태

전국 정서 상태(즐거운,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4.58을 나타내고, 대구(4.25), 충남(4.09), 경남(4.17)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3.13), 충북(2.87)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정서 상태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3.63으로 같은 수치를 보였다. 권역별에서는 영남권이 평균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3.88), 충청권(3.56), 수도권(3.42), 호남권(3.35)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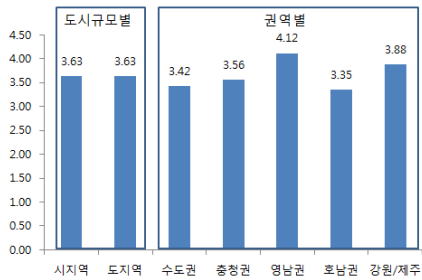
9) 성윤숙, 홍성호(2015).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제언, 대전: 통계개발원 워크숍 자료집

표 IV-22 정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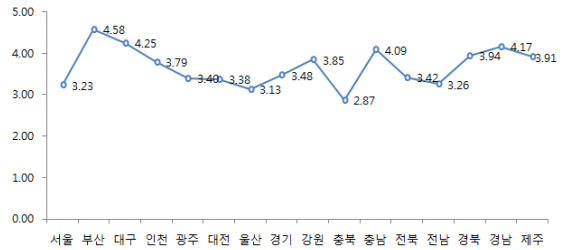
시도	정서상태
서울	3.23
부산	4.58
대구	4.25
인천	3.79
광주	3.40
대전	3.38
울산	3.13
경기	3.48
강원	3.85
충북	2.87
충남	4.09
전북	3.42
전남	3.26
경북	3.94
경남	4.17
제주	3.91



【그림 IV-31】 정서상태



【그림 IV-32】 도시규모별 · 권역별 정서상태



【그림 IV-33】 2015년 정서상태

2) 삶의 만족도

(1) 지표정의서

삶의 만족도는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측정하였다.

표 IV-23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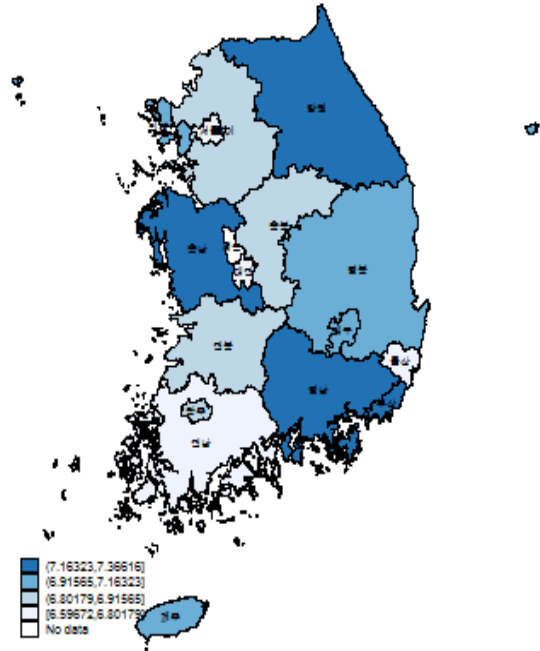
설문문항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출처	OECD(2013)
척도	11점 척도(0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은 매우 만족한다)
지표방향	+

(2) 전국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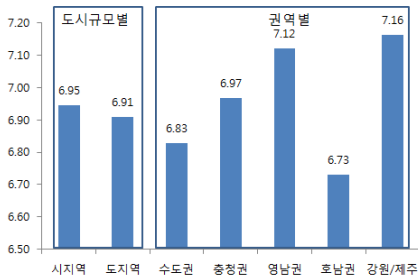
전국 삶의 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7.4를 나타내고, 대구(7.2), 인천(7.1), 강원(7.2), 경남(7.2), 제주(7.2)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6.7), 전남(6.6)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삶의 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6.95로 도지역(6.91)보다 0.04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삶의 만족도에서는 강원/제주(7.16), 영남권(7.12), 충청권(6.97), 수도권(6.83), 호남권(6.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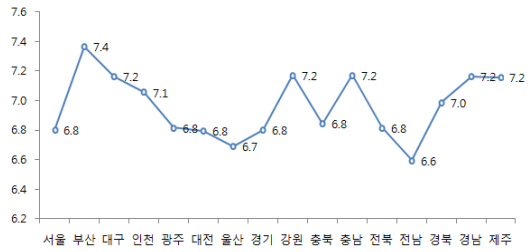
시도	삶의 만족도
서울	6.8
부산	7.4
대구	7.2
인천	7.1
광주	6.8
대전	6.8
울산	6.7
경기	6.8
강원	7.2
충북	6.8
충남	7.2
전북	6.8
전남	6.6
경북	7.0
경남	7.2
제주	7.2



【그림 IV-34】 삶의 만족도



【그림 IV-35】 도시규모별·권역별 삶의 만족도



【그림 IV-36】 2015년 삶의 만족도

3) 유데모니아

(1) 지표정의서

유데모니아는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로 측정하였다.

표 IV-25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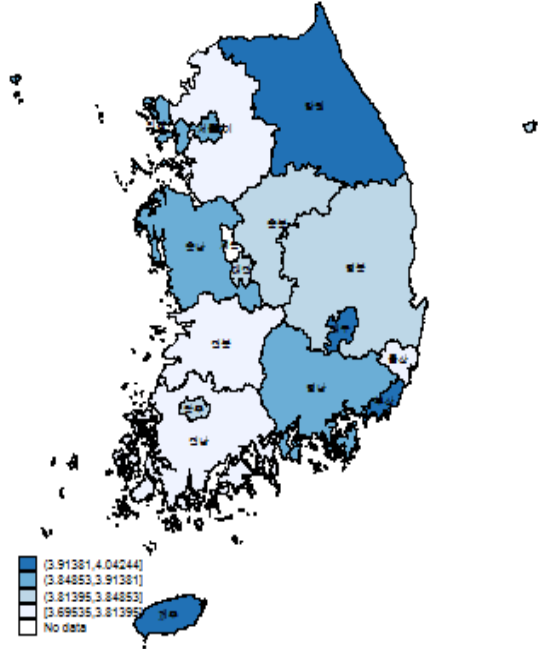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출처	OECD(2013)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2) 전국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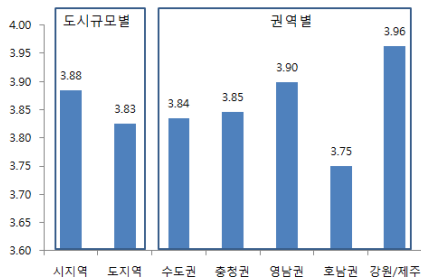
전국 유데모니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4.04를 나타내고, 대구(3.94), 인천(3.90), 강원(3.99)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3.74), 전북(3.76), 전남(3.70)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유데모니아는 시지역이 평균 3.88로 도지역(3.83)보다 0.05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남권(3.90), 충청권(3.85), 수도권(3.84), 호남권(3.75)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유데모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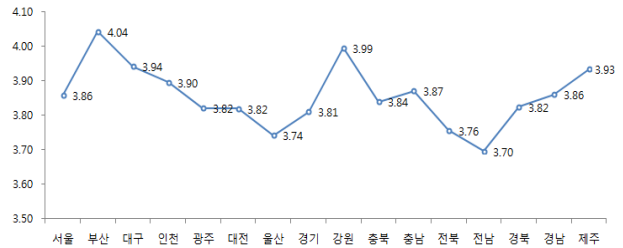
시도	유데모니아
서울	3.86
부산	4.04
대구	3.94
인천	3.90
광주	3.82
대전	3.82
울산	3.74
경기	3.81
강원	3.99
충북	3.84
충남	3.87
전북	3.76
전남	3.70
경북	3.82
경남	3.86
제주	3.93



【그림 IV-37】 유데모니아



【그림 IV-38】 도시규모별·권역별 유데모니아



【그림 IV-39】 2015년 유데모니아

3. 건강영역

1) 건강상태

(1) 주관적 건강상태

① 지표정의서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27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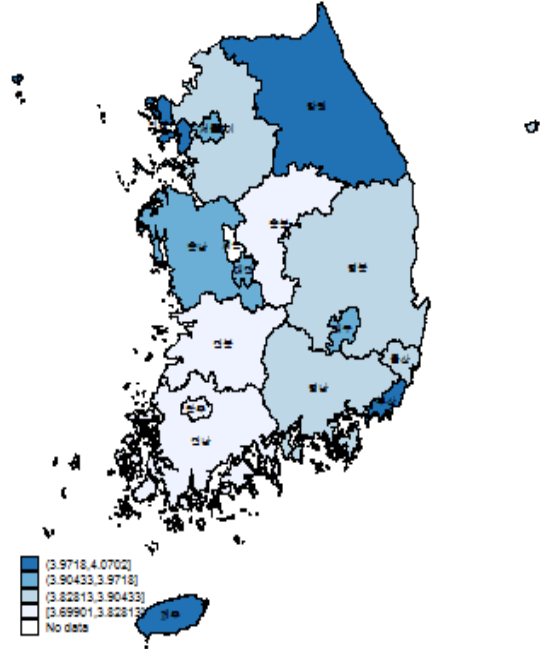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출처	YHCI(2014) Q1-1)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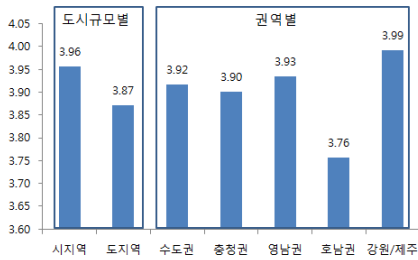
전국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4.07을 나타내고, 인천(4.01), 제주(4.00)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전북(3.70), 전남(3.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시지역(3.96)이 도지역(3.87)보다 0.06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3.93), 수도권(3.92), 충청권(3.90), 호남권(3.76)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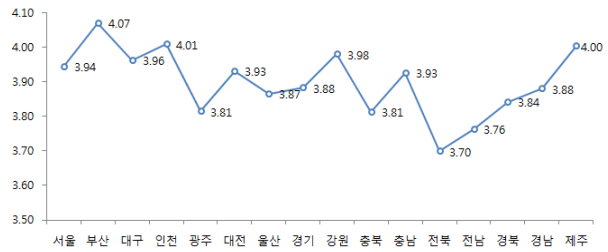
시도	주관적 건강상태
서울	3.94
부산	4.07
대구	3.96
인천	4.01
광주	3.81
대전	3.93
울산	3.87
경기	3.88
강원	3.98
충북	3.81
충남	3.93
전북	3.70
전남	3.76
경북	3.84
경남	3.88
제주	4.00



【그림 IV-40】 주관적 건강상태



【그림 IV-41】 도시규모별 · 권역별 주관적 건강상태



【그림 IV-42】 2015년 주관적 건강상태

(2) 스트레스 정도

① 지표정의서

스트레스 정도는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29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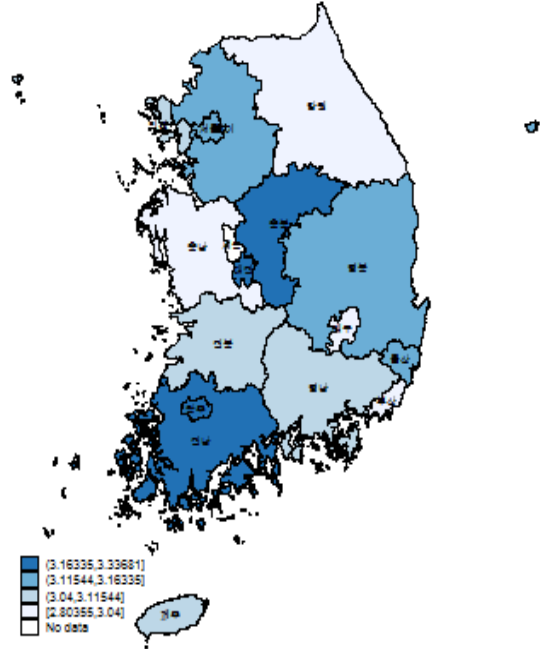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출처	YHCI(2014) Q1-2)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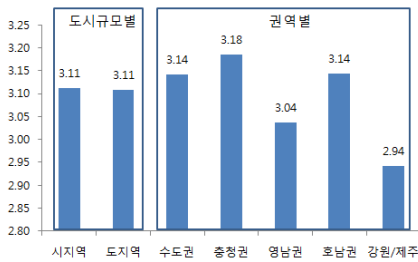
전국 스트레스 정도는 대전이 가장 높은 평균 3.34를 나타내고, 서울(3.16), 광주(3.16), 충북(3.25), 전남(3.17)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산(2.99), 대구(2.92), 강원(2.80)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3.11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충청권이 평균 3.18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3.14)과 호남권(3.14)이 같았고, 영남권(3.04), 강원/제주(2.94)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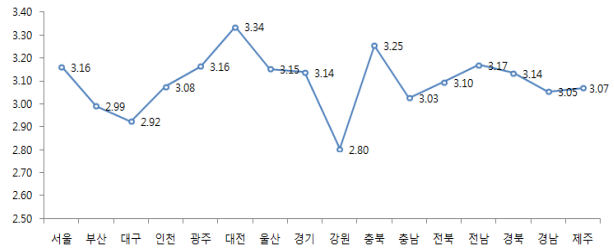
시도	스트레스정도
서울	3.16
부산	2.99
대구	2.92
인천	3.08
광주	3.16
대전	3.34
울산	3.15
경기	3.14
강원	2.80
충북	3.25
충남	3.03
전북	3.10
전남	3.17
경북	3.14
경남	3.05
제주	3.07



【그림 IV-43】 스트레스 정도



【그림 IV-44】 도시규모별·권역별 스트레스 정도



【그림 IV-45】 2015년 스트레스 정도

(3) 청소년 비만률(BMI)

① 지표정의서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표 IV-31 BMI(비만율)

정의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¹⁰⁾
단위	%
산식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
대상	중·고등학생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94-197.

② 전국 BMI(비만율)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비만율은 10.1%이며, 광역 시도별로는 제주가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고 강원(11.8%), 경북(11.8%), 충남(11.3%), 인천(11.1%)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경기(9.1%), 광주(9.2%), 충북(9.7%), 전남(9.7%)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0년에서 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북(3.0%p), 경북(3.0%p)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경기와 경남의 경우 1%p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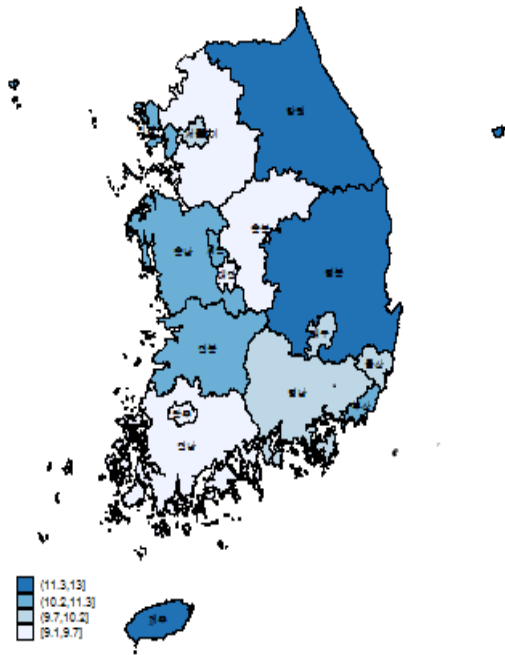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청소년 비만율에서는 도지역이 10.8%로 시지역(10.1%)보다 0.7%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청소년 비만율에서는 강원/제주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10.5%), 충청권(10.2%), 수도권(10.0%), 호남권(9.8%) 순으로 나타났다.

10)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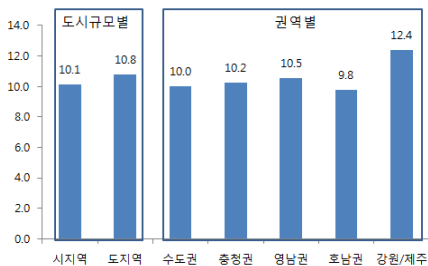
표 IV-32 BMI(비만율)(2010~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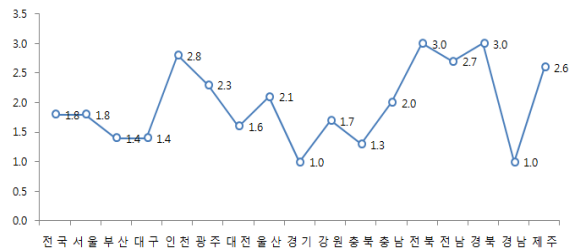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8.3	8.6	9.2	9.8	10.1	1.8
서울	8.1	9.1	8.8	9.2	9.9	1.8
부산	9.1	9.3	9.4	9.6	10.5	1.4
대구	8.8	8.9	9.3	9.6	10.2	1.4
인천	8.3	8.5	9.3	10.6	11.1	2.8
광주	6.9	8.8	8.9	9.4	9.2	2.3
대전	8.1	9.1	8.3	10.3	9.7	1.6
울산	8.1	8.3	8.8	10.4	10.2	2.1
경기	8.1	7.7	8.3	9.7	9.1	1.0
강원	10.1	10.8	12.9	10.3	11.8	1.7
충북	8.4	8.9	9.1	10.2	9.7	1.3
충남	9.3	9.2	9.8	10.1	11.3	2.0
전북	7.5	8.0	10.8	9.6	10.5	3.0
전남	7.0	7.4	9.8	7.9	9.7	2.7
경북	8.8	9.0	10.0	11.2	11.8	3.0
경남	9.0	9.0	9.1	10.0	10.0	1.0
제주	10.4	9.8	11.4	13.7	13.0	2.6



【그림 IV-46】 BMI(비만율)



【그림 IV-47】 도시규모별, 권역별 BMI(비만율)



【그림 IV-48】 BMI(비만율)(2014-2010)

(4) 질병유무

① 지표정의서

질병유무는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IV-33 **질병유무**

설문문항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출처	한국주거환경학회(2014)
척도	2점(없다, 있다)
지표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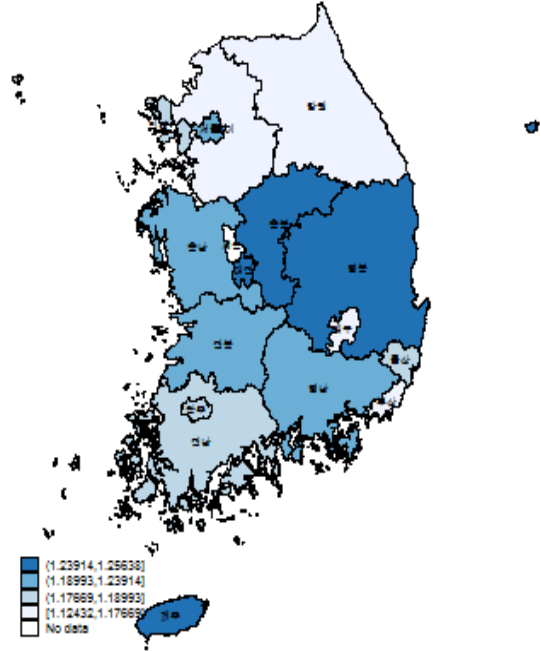
② 전국 청소년 질병유무

전국 청소년 질병유무는 제주가 가장 높은 평균 1.26을 나타내고, 대전(1.25), 충북(1.25), 경북(1.24)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구(1.12), 경기(1.17), 강원(1.16)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1.19로 같게 나타났다. 권역별 청소년 질병유무에서는 충청권이 평균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1.21), 호남권(1.20), 수도권(1.18), 영남권(1.18)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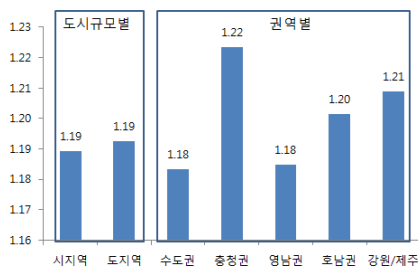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청소년 질병유무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1.19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권역별 청소년 질병유무에서는 충청권이 평균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1.21), 호남권(1.20), 수도권(1.18), 영남권(1.18)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질병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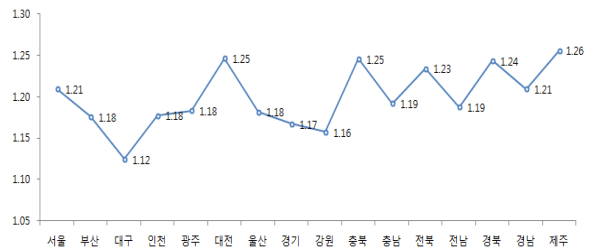
시도	질병유무
서울	1.21
부산	1.18
대구	1.12
인천	1.18
광주	1.18
대전	1.25
울산	1.18
경기	1.17
강원	1.16
충북	1.25
충남	1.19
전북	1.23
전남	1.19
경북	1.24
경남	1.21
제주	1.26



【그림 IV-49】 질병유무



【그림 IV-50】 도시규모별·권역별 질병유무



【그림 IV-51】 2015년 질병유무

(5) 청소년 자살률

① 지표정의서

청소년 자살률은 고의적 자해로 인해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35 청소년 자살률

정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¹¹⁾
단위	명(10만명당)
산식	청소년 자살률 =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대상	10~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 ~ 2013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12 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② 전국 청소년 자살률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자살률은 8.2%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은 13.1%를 나타내고 인천(6.8%), 울산(6.3%), 세종(5.0%)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2010년에서 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충북이 5.4%p로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했고, 반면 전남은 3.3%p 증가하였다.

도시규모별 청소년 자살률에서는 도지역이 8.7%로 시지역(7.7%)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호남권이 9.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8.3%), 충청권(8.1%), 수도권(7.9%), 영남권(7.7%)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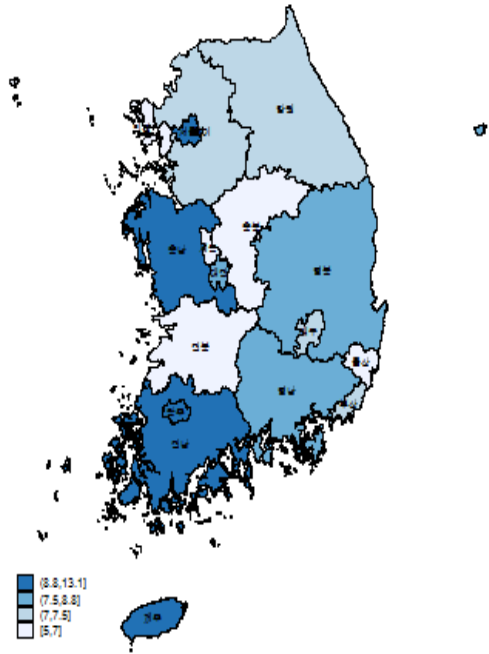
11)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V-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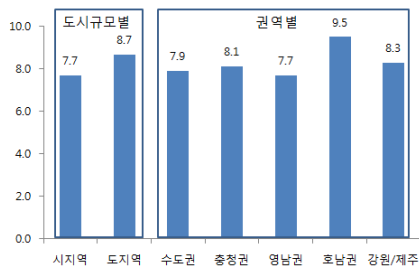
청소년 자살률 (2010~201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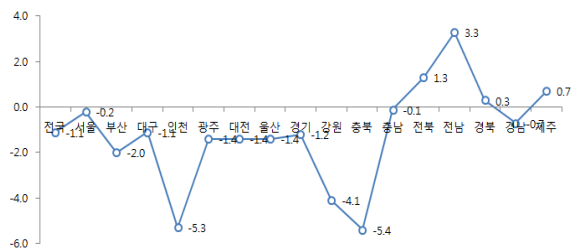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2010
전국	9.3	9.4	8.4	8.2	-1.1
서울	9.6	8.4	7.9	9.4	-0.2
부산	9.2	9.6	10.0	7.2	-2.0
대구	8.5	9.2	6.4	7.4	-1.1
인천	12.1	11.1	10.4	6.8	-5.3
광주	9.8	9.5	10.4	8.4	-1.4
대전	9.6	10.6	10.7	8.2	-1.4
울산	7.7	10.6	8.2	6.3	-1.4
세종			11.3	5.0	
경기	8.7	8.9	7.5	7.5	-1.2
강원	11.4	10.0	9.0	7.3	-4.1
충북	12.4	9.5	6.9	7.0	-5.4
충남	9.3	11.6	7.8	9.2	-0.1
전북	5.7	10.6	8.2	7.0	1.3
전남	9.8	9.6	12.0	13.1	3.3
경북	8.5	9.9	9.5	8.8	0.3
경남	9.4	9.1	6.1	8.7	-0.7
제주	8.6	6.8	13.6	9.3	0.7



【그림 IV-52】 청소년 자살률



【그림 IV-53】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자살률(2013-2010)



【그림 IV-54】 청소년 자살률(2013-2010)

2) 건강결정요인

(1) 아침식사율

① 지표정의서

아침식사율은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식사를 하십니까’라는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IV-37 아침식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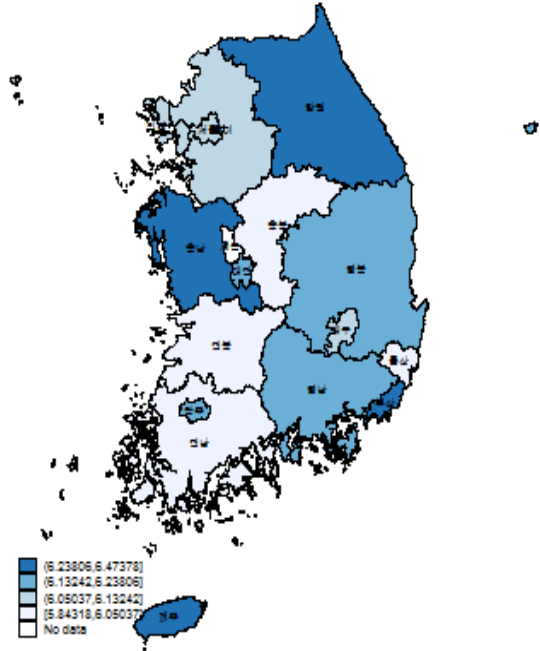
설문문항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출처	YHCI(2014) Q2-1)
척도	8점(0일 ~ 7일)
지표방향	+

② 전국 아침식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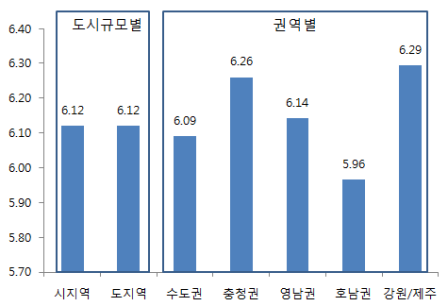
전국 청소년 아침식사율은 충남이 가장 높은 평균 6.47을 나타내고, 부산(6.29), 강원(6.30), 제주(6.29)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5.89), 전북(5.96), 전남(6.84)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아침 식사율은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6.12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6.26), 영남권(6.14), 수도권(6.09), 호남권(5.96)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아침식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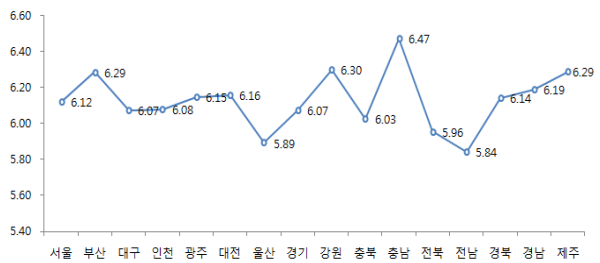
시도	아침식사율
서울	6.12
부산	6.29
대구	6.07
인천	6.08
광주	6.15
대전	6.16
울산	5.89
경기	6.07
강원	6.30
충북	6.03
충남	6.47
전북	5.96
전남	5.84
경북	6.14
경남	6.19
제주	6.29



【그림 IV-55】 아침식사율



【그림 IV-56】 도시규모별 · 권역별 아침식사율



【그림 IV-57】 2015년 아침식사율

(2) 고카페인 이용량

① 지표정의서

고카페인 이용량은 '나는 고카페인 음료(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문항을 측정하였다.

표 IV-39 고카페인 이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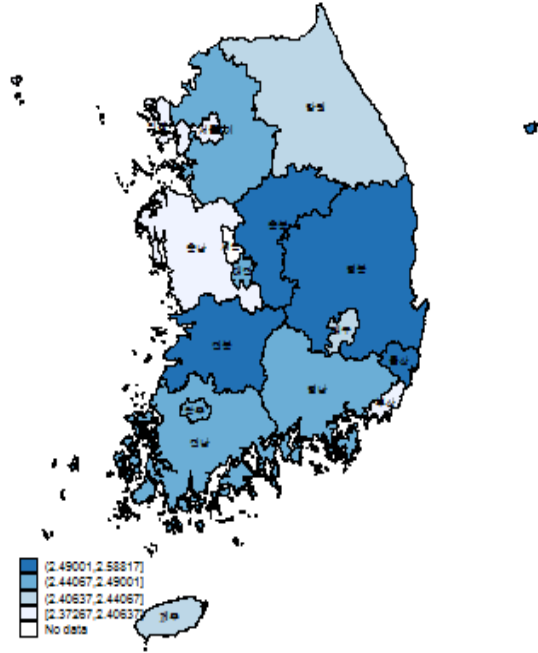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출처	YHCI(2014) Q2-2)
척도	5점(안먹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지표방향	-

② 전국 고카페인 이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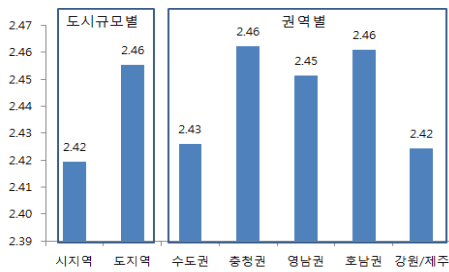
전국 고카페인 이용량은 충청이 평균 2.59로 가장 높았고, 울산(2.55), 전북(2.50), 경북(2.50)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산(2.38), 인천(2.38), 충남(2.37)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도지역이 평균 2.46으로 시지역(2.42)보다 0.04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고카페인 이용량에서는 충청권, 호남권이 평균 2.46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영남권(2.45), 수도권(2.43), 강원/제주(2.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0 고카페인 이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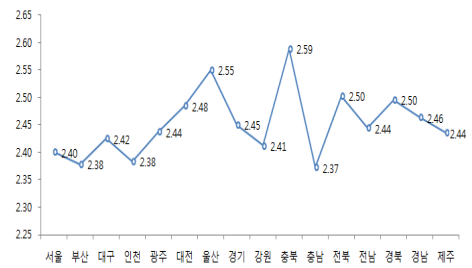
시도	고카페인 이용량
서울	2.40
부산	2.38
대구	2.42
인천	2.38
광주	2.44
대전	2.48
울산	2.55
경기	2.45
강원	2.41
충북	2.59
충남	2.37
전북	2.50
전남	2.44
경북	2.50
경남	2.46
제주	2.44



【그림 IV-58】 고카페인이용량



【그림 IV-59】 도시규모별 · 권역별 고카페인 이용량



【그림 IV-60】 2015년 고카페인 이용량

(3) 평균 운동시간

① 지표정의서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41 평균운동시간

정의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38-141.

② 전국 평균운동시간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평균 운동시간은 13.8시간이며, 광역시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4.9시간으로 나타났고, 부산(14.5시간), 제주(14.5시간), 대구(14.4시간), 경기(14.2시간)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경북(11시간), 대전(12.2시간), 충북(12.2시간), 전남(12.5시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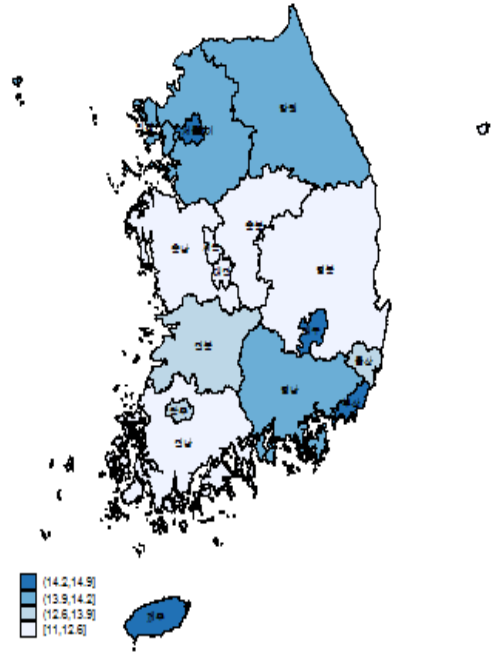
한편, 2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제주에서 5.1시간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의 경우 2.4시간 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평균운동시간에서는 시지역이 13.9시간으로 도지역(13.1시간)보다 0.8시간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14.4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14.3시간), 영남권(13.4시간), 호남권(13.1시간), 충청권(12.3시간)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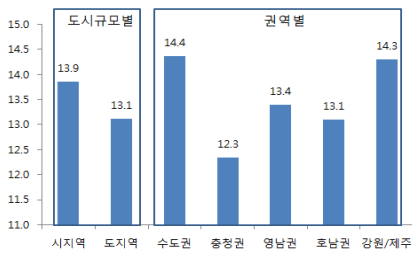
표 IV-42 평균운동시간 (2010~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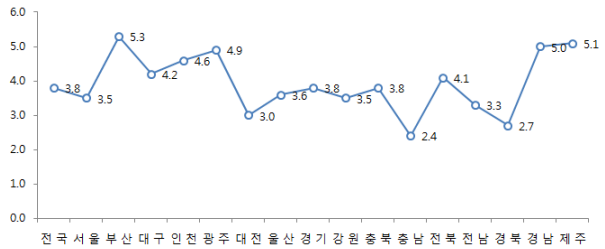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10.0	10.8	12.0	12.6	13.8	3.8
서울	11.4	12.7	12.5	13.1	14.9	3.5
부산	9.2	9.6	11.6	12.8	14.5	5.3
대구	10.2	9.3	12.5	12.8	14.4	4.2
인천	9.4	11.4	12.2	13.0	14.0	4.6
광주	9.0	9.0	10.8	12.1	13.9	4.9
대전	9.2	10.0	12.4	14.7	12.2	3.0
울산	9.5	10.1	12.7	12.7	13.1	3.6
경기	10.4	11.3	12.1	12.2	14.2	3.8
강원	10.6	9.5	11.6	12.2	14.1	3.5
충북	8.4	10.0	12.0	13.0	12.2	3.8
충남	10.2	9.7	10.7	12.6	12.6	2.4
전북	8.8	10.3	12.6	12.0	12.9	4.1
전남	9.2	9.4	10.6	12.2	12.5	3.3
경북	8.3	9.5	11.1	11.0	11.0	2.7
경남	9.0	10.8	12.6	12.3	14.0	5.0
제주	9.4	9.9	10.0	14.5	14.5	5.1



【그림 IV-61】 평균운동시간



【그림 IV-62】 도시규모별, 권역별 평균운동시간



【그림 IV-63】 평균운동시간(2014-2010)

(4) 평균수면시간

① 지표정의서

평균 수면 시간은 조사시점 직전 지난 주 주중(월 ~ 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이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중1부터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표 IV-43 **평균수면시간**

정의	지난 주 주중(월 ~ 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단위	시간
대상	중·고등학생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46-249.

② 전국 평균수면시간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6.3시간이며, 광역시별로 충남이 가장 높은 6.6시간을 나타냈고, 강원(6.5시간), 충북(6.5시간)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6.2시간), 광주(6.2시간), 대전(6.2시간)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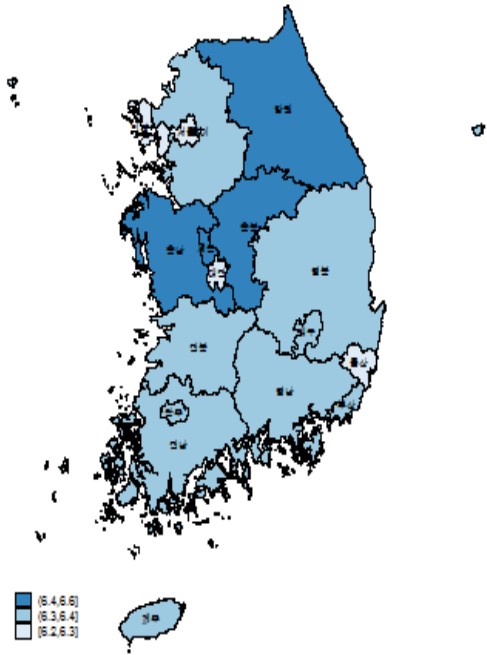
한편, 2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충남에서 3시간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 대전, 울산, 전남, 경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평균수면시간에서는 도지역이 6.4시간으로 시지역(6.3시간)보다 0.1시간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6.5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6.4시간), 영남권(6.4시간), 수도권(6.3시간), 호남권(6.3시간)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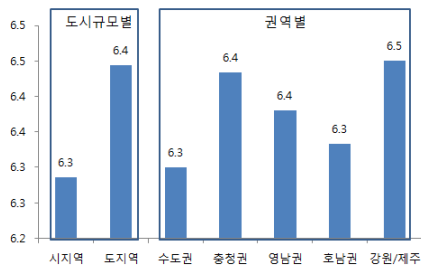
표 IV-44 평균수면시간 (2010~2014)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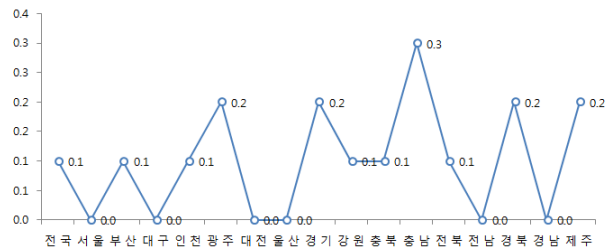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6.2	6.4	6.4	6.4	6.3	0.1
서울	6.2	6.2	6.2	6.3	6.2	0.0
부산	6.3	6.3	6.3	6.3	6.4	0.1
대구	6.4	6.4	6.4	6.4	6.4	0.0
인천	6.2	6.3	6.3	6.4	6.3	0.1
광주	6.0	6.2	6.2	6.2	6.2	0.2
대전	6.2	6.2	6.2	6.3	6.2	0.0
울산	6.3	6.3	6.3	6.3	6.3	0.0
경기	6.2	6.4	6.4	6.4	6.4	0.2
강원	6.4	6.6	6.6	6.7	6.5	0.1
충북	6.4	6.5	6.5	6.5	6.5	0.1
충남	6.3	6.5	6.5	6.5	6.6	0.3
전북	6.3	6.3	6.4	6.5	6.4	0.1
전남	6.4	6.4	6.5	6.5	6.4	0.0
경북	6.2	6.5	6.4	6.5	6.4	0.2
경남	6.4	6.4	6.4	6.4	6.4	0.0
제주	6.2	6.5	6.2	6.3	6.4	0.2



【그림 IV-64】 평균수면시간



【그림 IV-65】 도시규모별, 권역별 평균수면시간



【그림 IV-66】 평균수면시간(2014-2010)

(5) 청소년 흡연율

① 지표정의서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이다.

표 IV-45 청소년 흡연율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201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② 전국 청소년 흡연율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흡연율은 9.2%이며, 광역시도별로는 경북이 가장 높은 11.3%를 나타내고, 전남(11%), 충북(10.8%), 충남(10.4%), 울산(10.2%)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구(7.8%), 강원(8.1%), 제주(8.6%), 서울(8.7%)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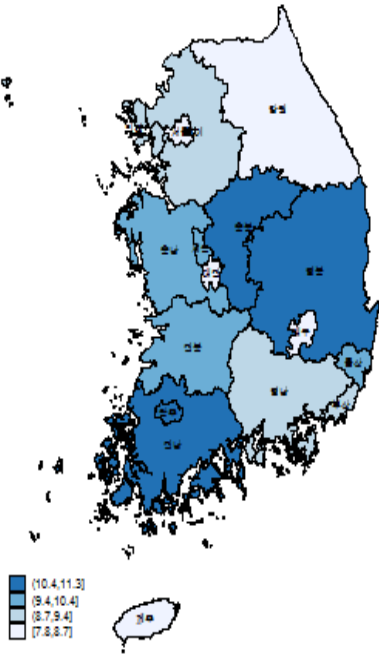
한편, 2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강원에는 9.7%p의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경북은 1.4%p 증가하였다.

도시규모별 청소년 흡연율에서는 도지역이 9.8%로 시지역(9.0%)보다 0.8%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청소년 흡연율에서는 호남권이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9.9%), 영남권(9.6%), 수도권(8.8%), 강원/제주(8.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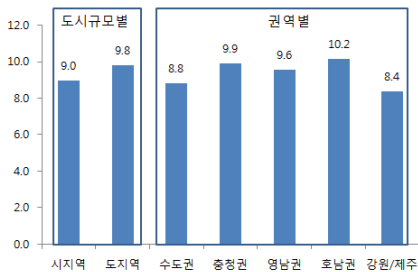
표 IV-46 청소년 흡연율 (2010~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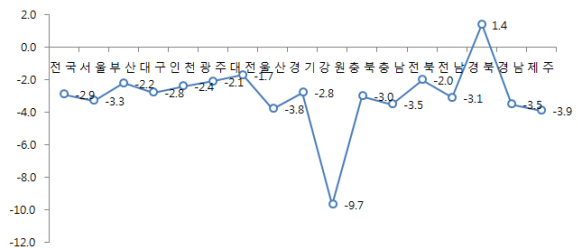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12.1	12.1	11.4	9.7	9.2	-2.9
서울	12.0	11.2	10.4	8.5	8.7	-3.3
부산	11.3	11.3	9.7	9.2	9.1	-2.2
대구	10.6	11.4	10.3	8.6	7.8	-2.8
인천	11.3	11.6	10.2	9.5	8.9	-2.4
광주	11.7	11.9	12.0	11.0	9.6	-2.1
대전	10.2	11.8	10.8	9.1	8.5	-1.7
울산	14.0	11.8	10.9	11.8	10.2	-3.8
경기	11.7	12.4	11.2	10.0	8.9	-2.8
강원	17.8	15.0	17.7	11.5	8.1	-9.7
충북	13.8	15.6	12.6	10.0	10.8	-3.0
충남	13.9	12.4	13.4	11.7	10.4	-3.5
전북	11.9	12.1	13.3	11.4	9.9	-2.0
전남	14.1	12.6	13.0	8.8	11.0	-3.1
경북	9.9	12.5	10.5	10.2	11.3	1.4
경남	12.9	12.6	11.6	9.7	9.4	-3.5
제주	12.5	11.0	13.0	10.8	8.6	-3.9



【그림 IV-67】 청소년 흡연율



【그림 IV-6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흡연율



【그림 IV-69】 청소년 흡연율(2014-2010)

(6) 청소년 음주율

① 지표정의서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표 IV-47 청소년 음주율

정의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단위	%
대상	중·고등학생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201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96-99.

② 전국 청소년 음주율

2014년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 음주율은 16.7%이며, 광역시별로는 충남이 가장 높은 20.8%를 나타내고, 전남(19.4%), 충북(18.6%), 전북(17.9%), 경기(16.7%)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강원(14.4%), 대구(14.7%), 제주(14.7%), 광주(14.8%)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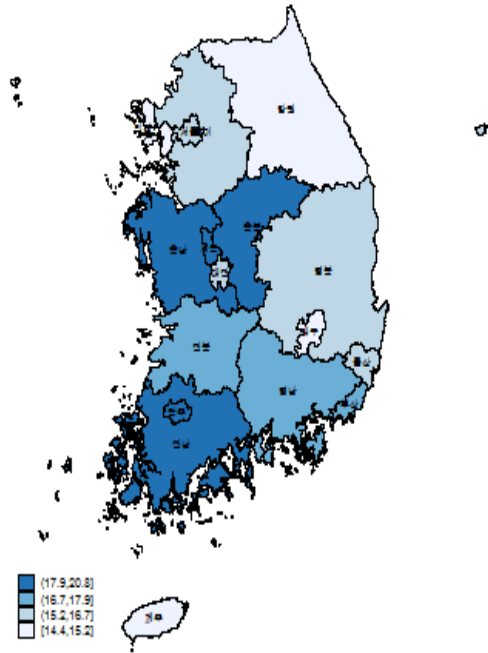
한편, 2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에서 11%p로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의 경우 2.3%p의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도시규모별 청소년 음주율에서는 도지역이 17.4%로 시지역(15.8%)보다 1.6%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충청권이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17.4%), 영남권(16.4%), 수도권(16.2%), 강원/제주(14.6%)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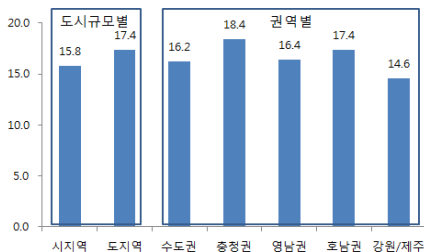
표 IV-48 청소년 음주율 (2010~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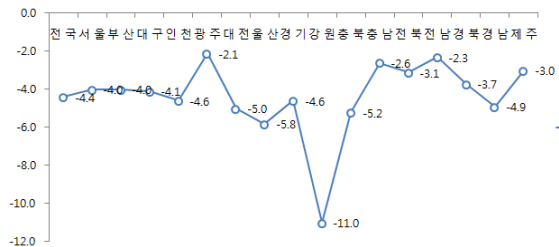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21.1	20.6	19.4	16.3	16.7	-4.4
서울	20.7	19.3	18.3	15.1	16.7	-4.0
부산	20.9	20.9	18.3	16.1	16.9	-4.0
대구	18.8	19.8	17.9	14.6	14.7	-4.1
인천	19.8	19.4	17.7	14.6	15.2	-4.6
광주	16.9	16.0	16.2	13.5	14.8	-2.1
대전	20.8	21.4	19.4	16.0	15.8	-5.0
울산	22.2	20.3	19.2	16.7	16.4	-5.8
경기	21.3	21.4	20.3	17.0	16.7	-4.6
강원	25.4	23.3	23.7	17.8	14.4	-11.0
충북	23.8	24.2	22.1	16.2	18.6	-5.2
충남	23.4	23.1	22.1	18.9	20.8	-2.6
전북	21.0	20.6	19.1	16.8	17.9	-3.1
전남	21.7	18.4	20.6	16.4	19.4	-2.3
경북	20.0	22.0	18.1	18.6	16.3	-3.7
경남	22.5	20.6	20.3	16.6	17.6	-4.9
제주	17.7	19.1	18.7	14.4	14.7	-3.0



【그림 IV-70】 청소년 음주율



【그림 IV-71】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음주율(2014-2010)



【그림 IV-72】 청소년 음주율(2014-2010)

(7) 인터넷 중독률

① 지표정의서

인터넷 중독률은 인터넷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이다.

표 IV-49 인터넷 중독률

정의	인터넷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단위	%
대상	9~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4~201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

② 전국 인터넷 중독률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5%이며,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이 가장 높은 21.7%를 나타내고, 대전(16.0%), 울산(17.9%), 경남(15.0%)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구(4.4%), 충북(6.9%), 충남(6.7%), 제주(5.4%)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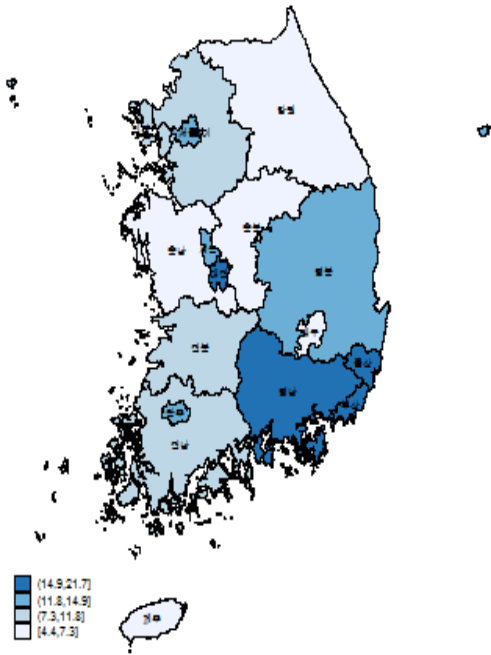
한편, 2013-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부산에 10.7%p의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제주는 5.7%p 감소하였다.

도시규모별 인터넷 중독률에서는 시지역이 13.8%로 도지역(9.8%)보다 4.0%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영남권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12.2%), 호남권(11.4%), 충청권(9.9%), 강원/제주(6.4%)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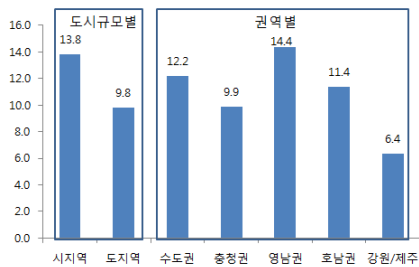
표 IV-50 인터넷 중독률 (2013, 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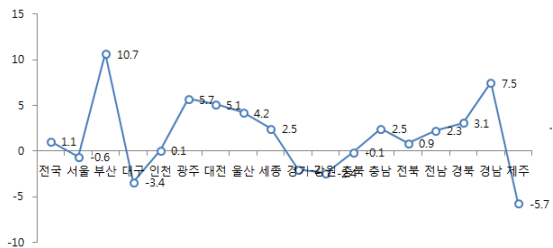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4-2013
전국	11.4	12.5	1.1
서울	15.5	14.9	-0.6
부산	11.0	21.7	10.7
대구	7.8	4.4	-3.4
인천	9.8	9.9	0.1
광주	6.4	12.1	5.7
대전	10.9	16.0	5.1
울산	13.7	17.9	4.2
세종	9.6	12.1	2.5
경기	13.8	11.8	-2.0
강원	9.7	7.3	-2.4
충북	7.0	6.9	-0.1
충남	4.2	6.7	2.5
전북	9.8	10.7	0.9
전남	9.1	11.4	2.3
경북	9.8	12.9	3.1
경남	7.5	15.0	7.5
제주	11.1	5.4	-5.7



【그림 IV-73】 인터넷 중독률



【그림 IV-74】 도시규모별, 권역별 인터넷 중독률



【그림 IV-75】 인터넷 중독률(2014-2013)

4. 교육영역

1) 교육기회

(1) 학업중단율

① 지표정의서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51 학업중단율

정의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사망, 자살 제외) ¹²⁾
단위	%
산식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 학생수/학생수)×100
대상	초·중·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0~2014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연보/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학업중단율

2014년 우리나라 전국 학업중단율은 0.9%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고, 부산(0.9%), 대전(1.1%), 경기(1.1%)등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학업중단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서울(-0.2%p)과 부산(-0.1%p), 대전(-0.2%p)등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도시규모별 학업중단율에서는 시지역이 0.9%로 도지역(0.8%)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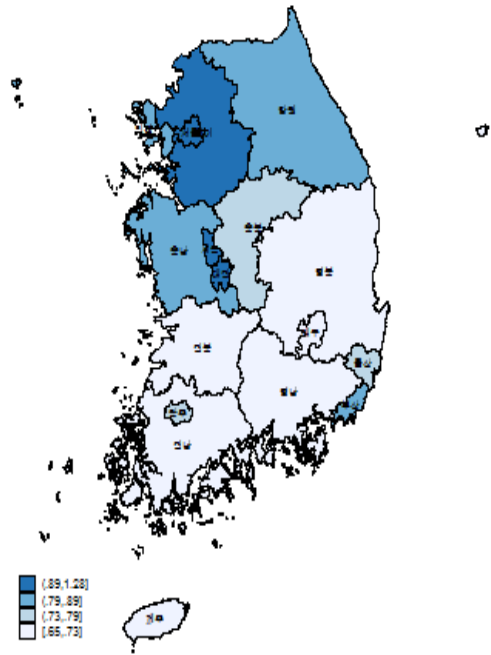
12)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율에서는 수도권이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0.9%), 영남권(0.8%), 강원/제주 (0.8%), 호남권(0.7%)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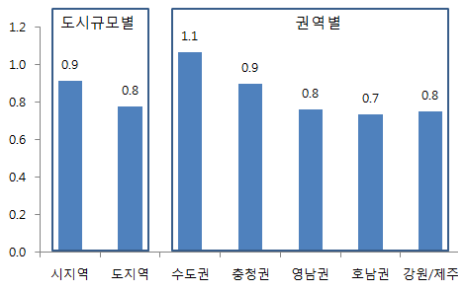
표 IV-52 학업중단율 (2012~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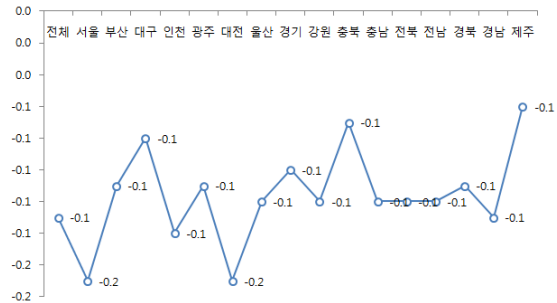
시도	2012	2013	2014	2014-2012
전체	1.1	1.0	0.9	-0.1
서울	1.5	1.4	1.3	-0.2
부산	1.0	1.0	0.9	-0.1
대구	0.8	0.8	0.7	-0.1
인천	1.0	0.9	0.8	-0.1
광주	0.9	0.8	0.8	-0.1
대전	1.2	1.1	1.1	-0.2
울산	0.9	0.8	0.8	-0.1
세종			0.9	
경기	1.2	1.2	1.1	-0.1
강원	1.0	1.0	0.8	-0.1
충북	0.9	0.8	0.8	-0.1
충남	0.9	0.9	0.8	-0.1
전북	0.9	0.8	0.7	-0.1
전남	0.9	0.8	0.7	-0.1
경북	0.8	0.7	0.7	-0.1
경남	0.8	0.7	0.7	-0.1
제주	0.7	0.7	0.7	-0.1



【그림 IV-76】 학업중단율



【그림 IV-77】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업중단율



【그림 IV-78】 학업중단율(2014-2012)

2) 교육의 조건과 과정

(1)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① 지표정의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학급 수 대비 학생 수이며,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표 IV-53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정의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단위	명
산식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 학생수/학급수
대상	초·중·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65~2014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4년 우리나라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26.7명이며,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28.5명을 나타내고, 서울(27.5명), 광주(28.3명), 대전(27.4명)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세종(21.8명), 강원(23.4명), 전남(23.2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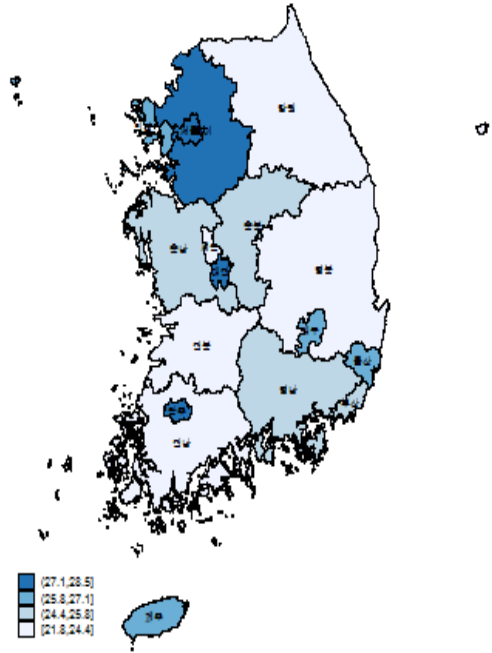
한편, 2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대구에 4.7명의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은 전남이 20명으로 가장 낮게 감소하였다.

도시규모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시지역이 27.2명으로 도지역(25.2명)보다 2명 더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27.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26.0명), 충청권(25.9명), 호남권(25.3명), 강원/제주(25.2명)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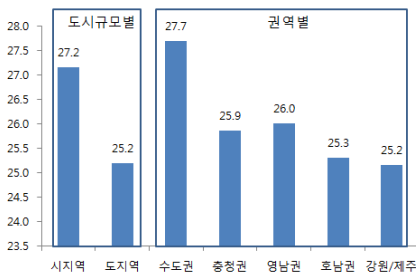
표 IV-54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2010~201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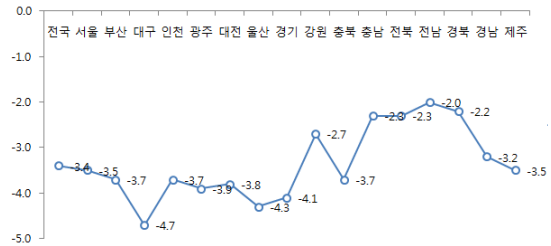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30.1	29.2	28.3	27.4	26.7	-3.4
서울	31.0	30.1	29.0	28.2	27.5	-3.5
부산	29.5	28.7	27.7	26.8	25.8	-3.7
대구	31.7	30.6	29.4	28.0	27.0	-4.7
인천	30.8	29.5	28.6	27.8	27.1	-3.7
광주	32.2	31.1	30.0	29.2	28.3	-3.9
대전	31.2	30.1	28.9	28.0	27.4	-3.8
울산	31.3	30.3	29.2	28.2	27.0	-4.3
세종				23.8	21.8	
경기	32.6	31.7	30.6	29.7	28.5	-4.1
강원	26.1	25.3	24.7	23.9	23.4	-2.7
충북	28.9	27.4	26.7	25.9	25.2	-3.7
충남	27.3	26.6	26.0	25.6	25.0	-2.3
전북	26.7	26.2	25.6	24.8	24.4	-2.3
전남	25.2	24.5	24.1	23.7	23.2	-2.0
경북	26.6	25.8	25.5	25.0	24.4	-2.2
경남	29.0	28.0	27.3	26.3	25.8	-3.2
제주	30.4	29.5	28.7	27.7	26.9	-3.5



【그림 IV-79】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그림 IV-80】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그림 IV-81】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2014-2010)

(2) 학업성취도

① 지표정의서

학업성취도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이상 비율의 평균 결과이다.

표 IV-55 학업성취도

정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¹³⁾
단위	%
대상	중3, 고2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출처	교육부(2014), 2014년 학업성취도 보도자료

② 전국 학업성취도

2014년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학업성취도는 대구가 가장 높은 86.1%를 나타내고 대전(85.1%), 울산(85.7%), 충북(85.8%)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세종(77.0%), 강원(76.8%)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에서 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부산(4.7%p)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광주와 전북의 경우 0.6%p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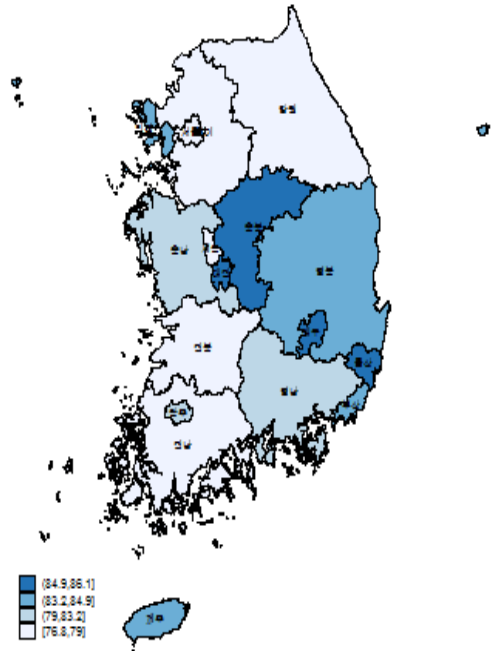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학업성취도에서는 시지역이 84.0%로 도지역(80.7%)보다 3.3%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영남권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83.5%), 수도권(80.5%), 강원/제주(80.5%), 호남권(80.2%)순으로 나타났다.

13)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이상 비율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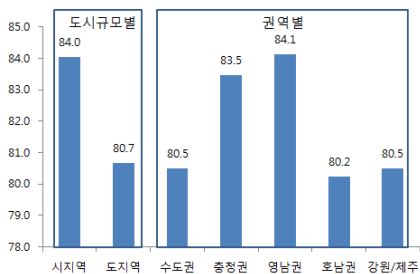
표 IV-56 학업성취도 (2011~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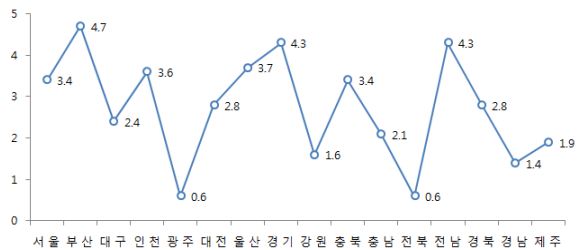
시 도	2011	2012	2013	2014	2014-2011
서울	75.6	76.9	79.0	79.0	3.4
부산	80.2	83.2	84.3	84.9	4.7
대구	83.7	84.9	85.2	86.1	2.4
인천	80.6	82.1	83.0	84.2	3.6
광주	82.6	82.1	83.0	83.2	0.6
대전	82.3	84.2	83.7	85.1	2.8
울산	82.0	84.7	85.9	85.7	3.7
세종		71.4	73.2	77.0	
경기	74.0	73.9	76.5	78.3	4.3
강원	75.2	76.4	76.4	76.8	1.6
충북	82.4	85.5	87.5	85.8	3.4
충남	77.4	79.6	79.2	79.5	2.1
전북	78.4	80.1	79.3	79.0	0.6
전남	74.2	75.6	79.0	78.5	4.3
경북	81.5	84.2	85.1	84.3	2.8
경남	78.2	78.9	79.4	79.6	1.4
제주	82.3	83.5	84.8	84.2	1.9



【그림 IV-82】 학업성취도



【그림 IV-83】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업성취도



【그림 IV-84】 학업성취도(2014-2011)

(3) 사교육비 지출액

① 지표정의서

사교육비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57 사교육비 지출액

정의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¹⁴⁾
단위	만원
대상	초·중·고
지표방향	※(선행연구에 따라 +, -가 달라지는 가치중립적 지표)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9~2014
출처	통계청(2014).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1일 인출.

② 전국 사교육비 지출액

2014년 우리나라 전체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4.2만원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33.5만원을 나타냈고, 경기(26만원), 대전(25.7만원), 대구(24.2만원), 광주(23.1만원)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전남(16.4만원), 강원(16.7만원), 충남(18.1만원), 전북(18.3만원)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 대전, 전북에서 1.9%p로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은 1.7%p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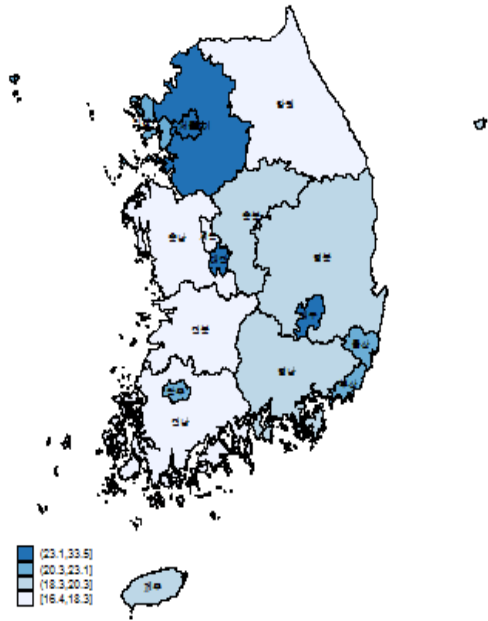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사교육비 지출액에서는 시지역이 24.6만원으로 도지역(18.3만원)보다 6.3만원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26.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21.7만원), 충청권(20.9만원), 호남권(19.3만원), 강원/제주(18.3만원)순으로 나타났다.

14)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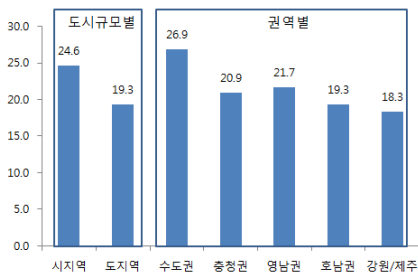
표 IV-58 사교육비 지출액 (2010~2014)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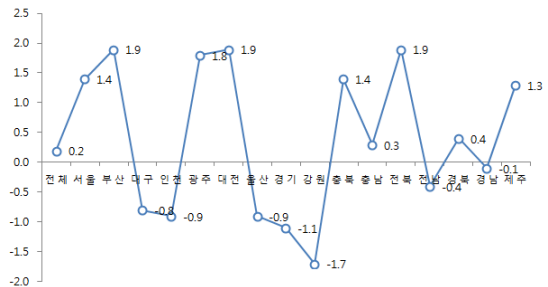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 체	24.0	24.0	23.6	23.9	24.2	0.2
서울	32.1	32.8	31.2	32.8	33.5	1.4
부산	20.8	20.7	23.0	22.9	22.7	1.9
대구	25.0	24.4	24.8	24.2	24.2	-0.8
인천	22.0	21.4	20.3	20.8	21.1	-0.9
광주	21.3	21.6	23.1	23.9	23.1	1.8
대전	23.8	23.4	24.3	25.9	25.7	1.9
울산	23.1	22.9	22.4	22.4	22.2	-0.9
경기	27.1	26.9	24.9	25.3	26.0	-1.1
강원	18.4	18.0	18.2	17.2	16.7	-1.7
충북	17.4	17.4	17.7	18.8	18.8	1.4
충남	17.8	17.9	17.7	17.4	18.1	0.3
전북	16.4	15.5	17.9	17.5	18.3	1.9
전남	16.8	16.7	17.2	16.8	16.4	-0.4
경북	18.7	19.0	19.5	18.7	19.1	0.4
경남	20.4	20.2	21.2	20.8	20.3	-0.1
제주	18.6	19.8	20.3	19.6	19.9	1.3



【그림 IV-85】 사교육비 지출액



【그림 IV-86】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교육비 지출액



【그림 IV-87】 사교육비 지출액(2014-2010)

3) 교육 효과

(1) 교과과정 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교과과정 만족도는 ‘나는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라는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IV-59 교과과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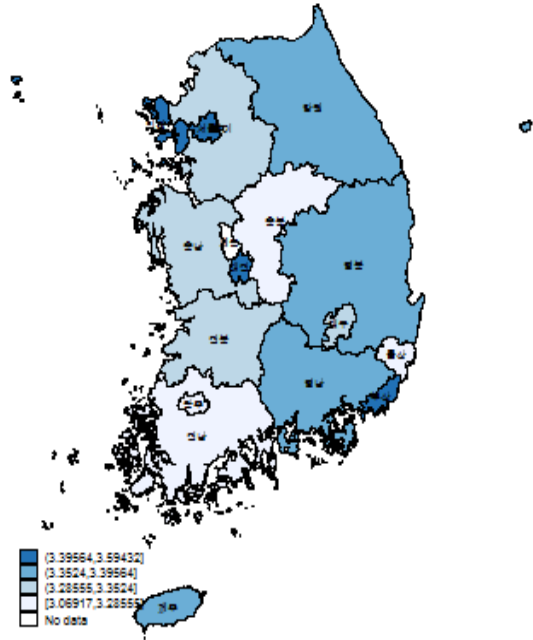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출처	YHCI(2013) Q14-2)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교과과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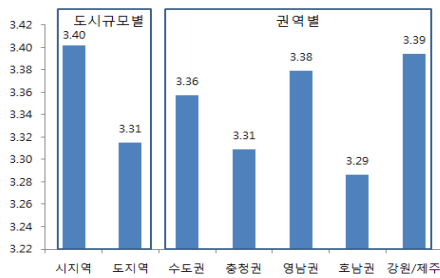
전국 교과과정 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59를 나타내고, 서울(3.43), 인천(3.47), 대전(3.40), 강원(3.4)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26), 울산(3.07), 충북(3.14)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교과과정 만족도는 시지역이 평균 3.40으로 도지역(3.31)보다 0.09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3.38), 수도권(3.36), 충청권(3.31), 호남권(3.29)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0 교과과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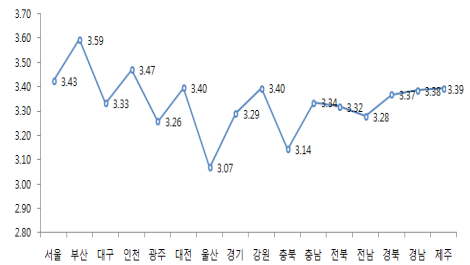
시도	교과과정 만족도
서울	3.43
부산	3.59
대구	3.33
인천	3.47
광주	3.26
대전	3.40
울산	3.07
경기	3.29
강원	3.40
충북	3.14
충남	3.34
전북	3.32
전남	3.28
경북	3.37
경남	3.38
제주	3.39



【그림 IV-88】 교과과정 만족도



【그림 IV-89】 도시규모별·권역별 교과과정 만족도



【그림 IV-90】 2015년 교과과정 만족도

(2) 진로교육 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진로교육 만족도는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V-61 **진로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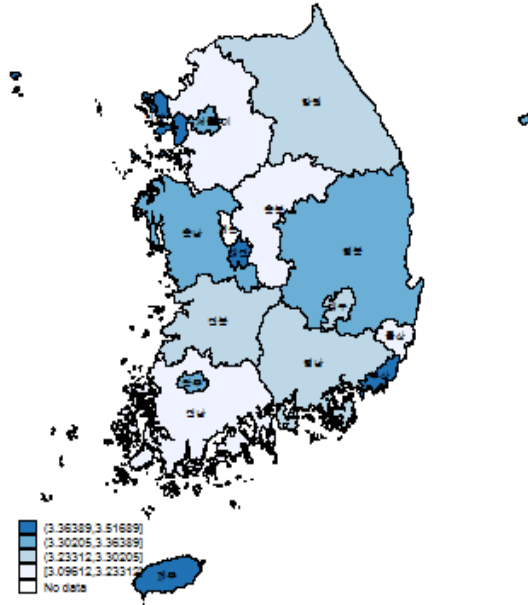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진로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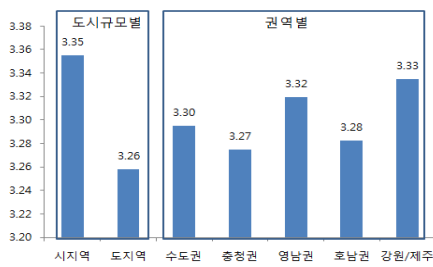
전국 진로교육 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52를 나타내고, 서울(3.35), 인천(3.45), 광주(3.36), 경북(3.35), 제주(3.43)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3.12), 충북(3.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시지역(3.35)이로 도지역(3.26)보다 0.09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진로교육 만족도는 강원/제주가 평균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3.32), 수도권(3.30), 호남권(3.28), 충청권(3.27)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2 진로교육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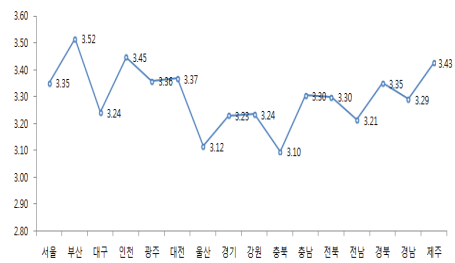
시도	진로교육 만족도
서울	3.35
부산	3.52
대구	3.24
인천	3.45
광주	3.36
대전	3.37
울산	3.12
경기	3.23
강원	3.24
충북	3.10
충남	3.30
전북	3.30
전남	3.21
경북	3.35
경남	3.29
제주	3.43



【그림 IV-91】 진로교육 만족도



【그림 IV-92】 도시규모별·권역별 진로교육 만족도



【그림 IV-93】 2015년 진로교육 만족도

5. 안전영역

1) 사고

(1)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① 지표정의서

지역사회 시설안전도는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IV-63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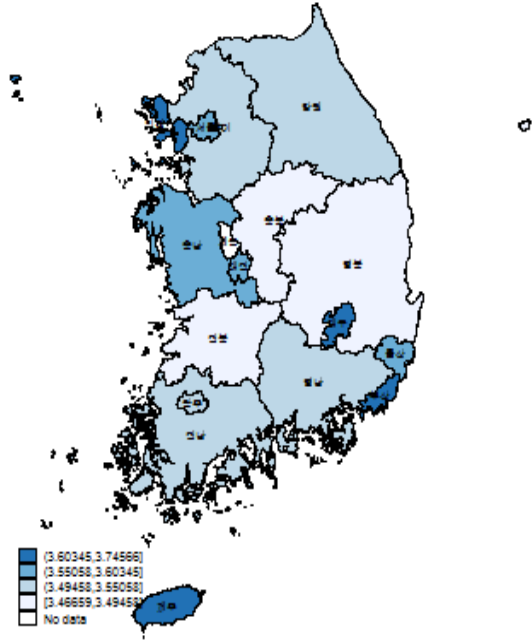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출처	YHCI(2014) Q10-2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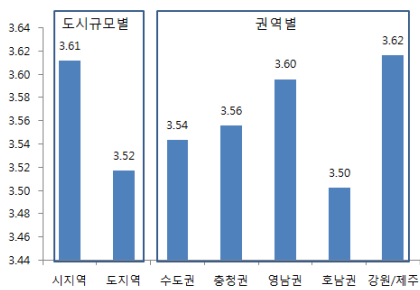
전국 지역사회 시설안전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75를 나타내고, 서울(3.60), 대구(3.62), 인천(3.61), 제주(3.71)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47), 전북(3.47)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는 시지역이 평균 3.61로 도지역(3.52)보다 0.09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3.62), 영남권(3.60), 충청권(3.56), 수도권(3.54), 호남권(3.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4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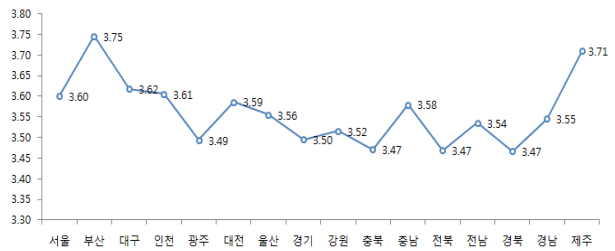
시도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서울	3.60
부산	3.75
대구	3.62
인천	3.61
광주	3.49
대전	3.59
울산	3.56
경기	3.50
강원	3.52
충북	3.47
충남	3.58
전북	3.47
전남	3.54
경북	3.47
경남	3.55
제주	3.71



【그림 IV-94】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그림 IV-95】 도시규모별·권역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그림 IV-96】 2015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2) 학교시설 안전도

① 지표정의서

학교시설 안전도는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IV-65 학교시설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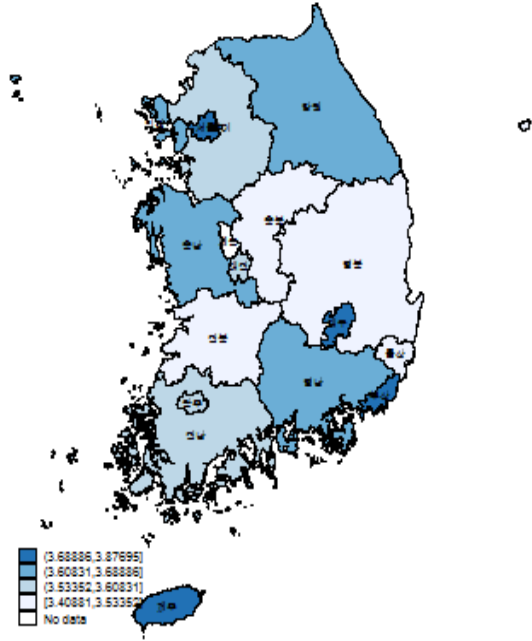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출처	YHCI(2014) Q10-1)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학교시설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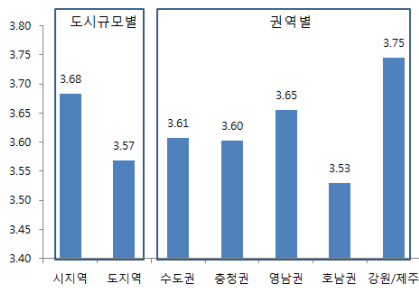
전국 학교시설 안전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88을 나타내고, 대구(3.70), 인천(3.68), 제주(3.86)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3.44), 전북(3.4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학교시설 안전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68로 도지역(3.57)보다 0.11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3.65), 수도권(3.61), 충청권(3.60), 호남권(3.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6 학교시설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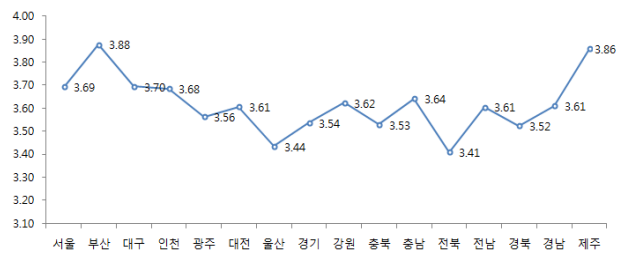
시도	학교시설안전도
서울	3.69
부산	3.88
대구	3.70
인천	3.68
광주	3.56
대전	3.61
울산	3.44
경기	3.54
강원	3.62
충북	3.53
충남	3.64
전북	3.41
전남	3.61
경북	3.52
경남	3.61
제주	3.86



【그림 IV-97】 학교시설 안전도



【그림 IV-98】 도시규모별·권역별 학교시설 안전도



【그림 IV-99】 2015년 학교시설 안전도

(3) 위기상황 대처능력

① 지표정의서

표 IV-67 **위기상황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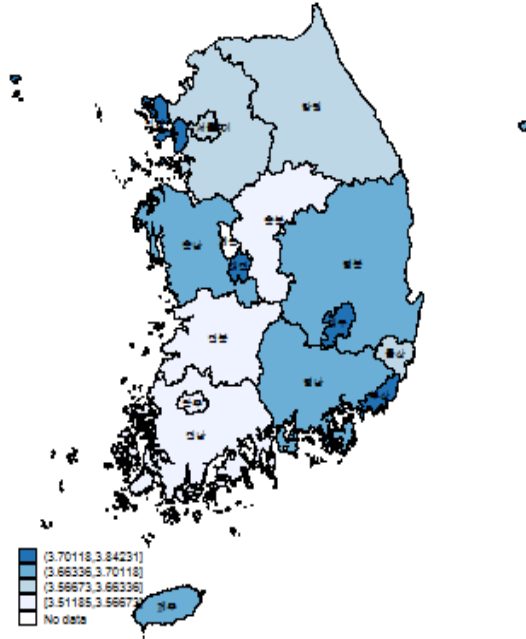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출처	YHC(2014) Q10-4)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위기상황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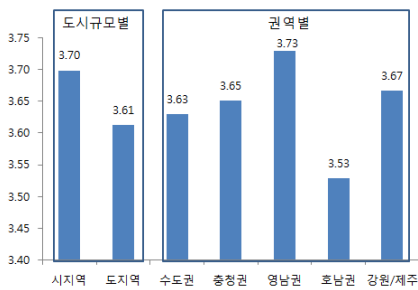
전국 위기상황 대처능력은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84를 나타내고, 대구(3.77), 인천(3.79), 대전(3.71)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55), 충북(3.52), 전북(3.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시지역(3.70)이 도지역(3.61)보다 0.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위기상황 대처능력에서는 영남권(3.73), 강원/제주(3.67), 충청권(3.65), 수도권(3.63), 호남권(3.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8 위기상황 대처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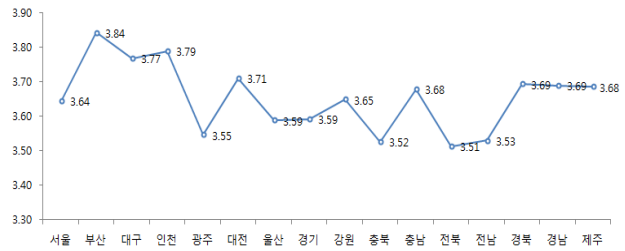
시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서울	3.64
부산	3.84
대구	3.77
인천	3.79
광주	3.55
대전	3.71
울산	3.59
경기	3.59
강원	3.65
충북	3.52
충남	3.68
전북	3.51
전남	3.53
경북	3.69
경남	3.69
제주	3.68



【그림 IV-100】 위기상황 대처능력



【그림 IV-101】 도시규모별 · 권역별 위기상황 대처능력



【그림 IV-102】 2015년 위기상황 대처능력

(4)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① 지표정의서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은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69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정의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 ¹⁵⁾
단위	명(십만명당)
산식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대상	10~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7~2014
출처	· 도로교통공단 통합 DB처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4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4년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은 2,118명이며, 광역시도별로는 강원이 가장 높은 2,694명을 나타내고 대구(2,512명), 광주(2,582명), 충남(2,670명)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1,733명), 부산(1,757명), 세종(827명)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2010년에서 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대구(538명)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대전의 경우 12명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에서는 도지역이 2,255명으로 시지역(2,090명)보다 165명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2,51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2,426명), 호남권(2,251명), 영남권(2,076명), 수도권(1,830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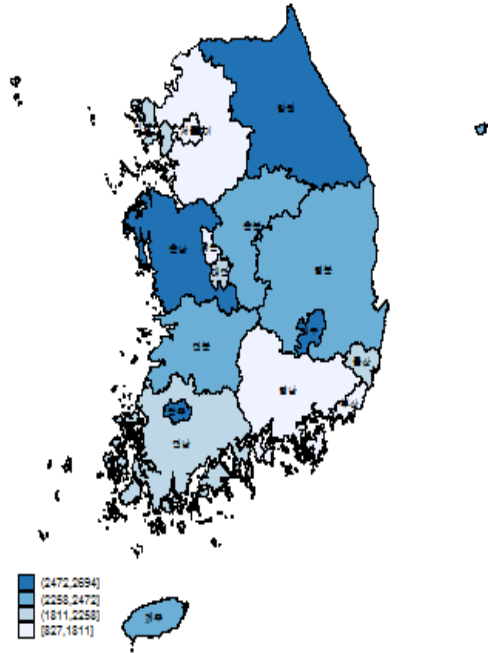
15) ① 지역 미상인 부상자수 6,261명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을 계산 시 포함하였음(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② 출처: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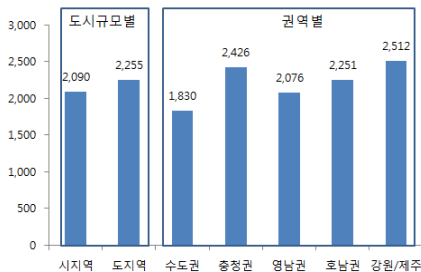
표 IV-70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0~201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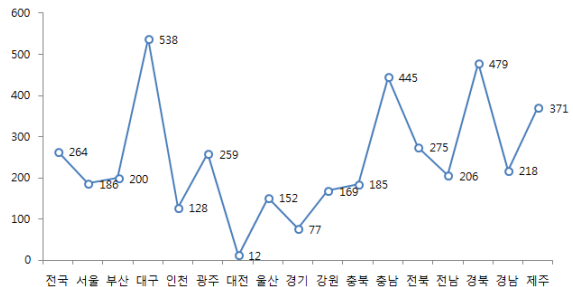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1,855	1,767	2,075	2,026	2,118	264
서울	1,547	1,470	1,711	1,619	1,733	186
부산	1,556	1,527	1,672	1,668	1,757	200
대구	1,973	2,103	2,307	2,264	2,512	538
인천	1,816	1,749	2,029	1,893	1,945	128
광주	2,322	2,189	2,514	2,616	2,582	259
대전	2,246	1,981	2,263	2,212	2,258	12
울산	1,691	1,552	1,806	1,813	1,843	152
세종			571	586	827	
경기	1,734	1,622	1,829	1,708	1,811	77
강원	2,525	2,378	2,695	2,634	2,694	169
충북	2,165	2,006	2,426	2,316	2,350	185
충남	2,224	2,227	2,639	2,575	2,670	445
전북	2,031	1,874	2,230	2,210	2,306	275
전남	1,660	1,550	1,821	1,805	1,866	206
경북	1,993	1,911	2,229	2,327	2,472	479
경남	1,577	1,466	1,700	1,660	1,794	218
제주	1,958	1,861	2,117	2,015	2,329	371



【그림 IV-103】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그림 IV-104】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그림 IV-105】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2014-2013)

(5)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① 지표정의서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국외 사망자 인원을 제외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이다.

표 IV-71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정의	운수사고,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 ¹⁶⁾
단위	명(십만명당)
산식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 (10~2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대상	10~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0~2013
출처	· 통계청(201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3년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6.6명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제주가 가장 높은 11.0명을 나타내고, 울산(10.9명), 강원(9.8명), 충남(10.1명)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4.0명), 인천(5.2명), 대전(4.4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0-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북이 9.0명의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울산은 2.8명 증가하였다.

도시규모별 안전사고 사망률에서는 도지역이 8.6명으로 시지역(6.1명)보다 2.5명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10.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7.8명), 영남권(7.7명),

16) ① 국외 사망자 인원은 제외함 (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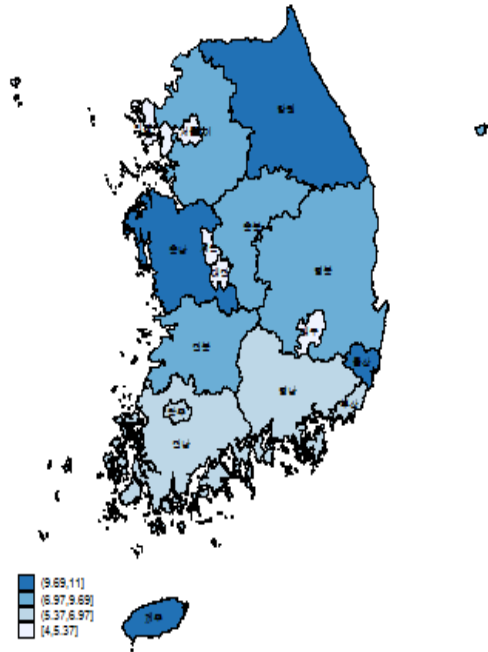
② 출처: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호남권(6.9명), 수도권(5.4명)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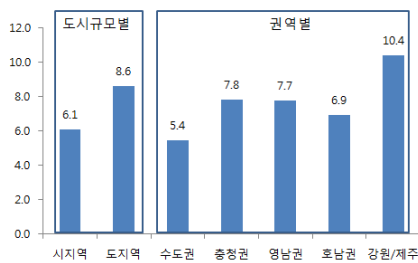
표 IV-72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2010~201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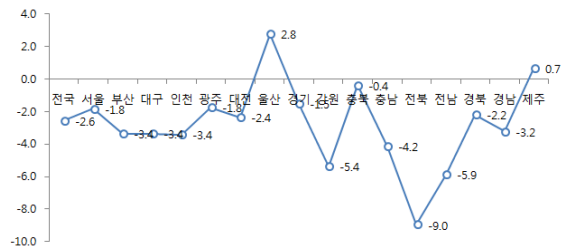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3-2010
전국	9.2	8.2	7.4	6.6	-2.6
서울	5.8	6.0	4.6	4.0	-1.8
부산	9.7	6.0	7.8	6.3	-3.4
대구	8.7	5.6	6.8	5.4	-3.4
인천	8.6	4.7	6.2	5.2	-3.4
광주	7.9	8.2	8.0	6.2	-1.8
대전	6.8	9.7	7.2	4.4	-2.4
울산	8.1	9.4	6.6	10.9	2.8
세종			11.3	5.0	
경기	8.6	7.2	7.1	7.1	-1.5
강원	15.1	12.0	13.1	9.8	-5.4
충북	9.4	12.7	9.9	9.0	-0.4
충남	14.2	12.9	10.0	10.1	-4.2
전북	16.5	9.2	8.0	7.5	-9.0
전남	12.8	14.9	8.0	7.0	-5.9
경북	11.9	12.0	9.5	9.7	-2.2
경남	9.6	10.1	8.8	6.4	-3.2
제주	10.4	8.5	11.9	11.0	0.7



【그림 IV-106】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그림 IV-107】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그림 IV-108】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2013-2010)

2) 범죄

(1) 범죄안전도

① 지표정의서

범죄안전도는 ‘나는 우리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 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을 측정하였다.

표 IV-73 범죄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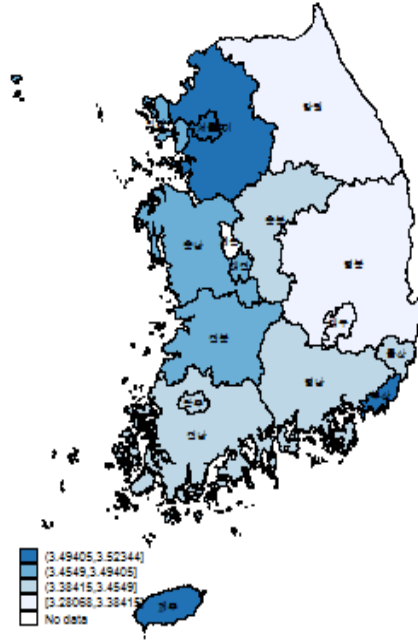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우리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YHCI(2014) Q10-3)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범죄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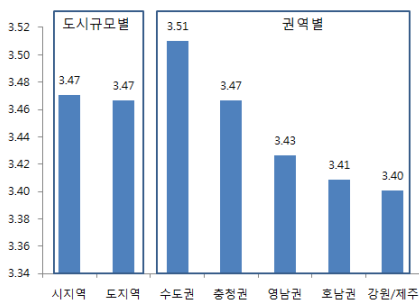
전국 범죄안전도는 서울과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인 3.52를 나타내고, 경기(3.51), 제주(3.51)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구(3.36), 광주(3.34), 경북(3.36)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범죄안전도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3.47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3.51), 충청권(3.47), 영남권(3.43), 호남권(3.41), 강원/제주(3.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4 범죄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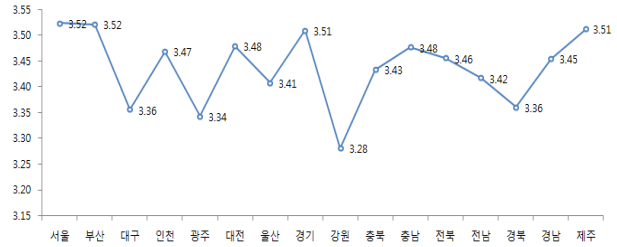
시도	범죄안전도
서울	3.52
부산	3.52
대구	3.36
인천	3.47
광주	3.34
대전	3.48
울산	3.41
경기	3.51
강원	3.28
충북	3.43
충남	3.48
전북	3.46
전남	3.42
경북	3.36
경남	3.45
제주	3.51



【그림 IV-109】 범죄안전도



【그림 IV-110】 도시규모별 · 권역별 범죄안전도



【그림 IV-111】 2015년 범죄안전도

(2) 청소년 범죄피해율

① 지표정의서

청소년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75 **청소년 범죄피해율**

정의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성추행, 성폭력, 강간, 소매치기, 손괴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 ¹⁷⁾
단위	명
대상	14~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8~2012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② 전국 청소년 범죄피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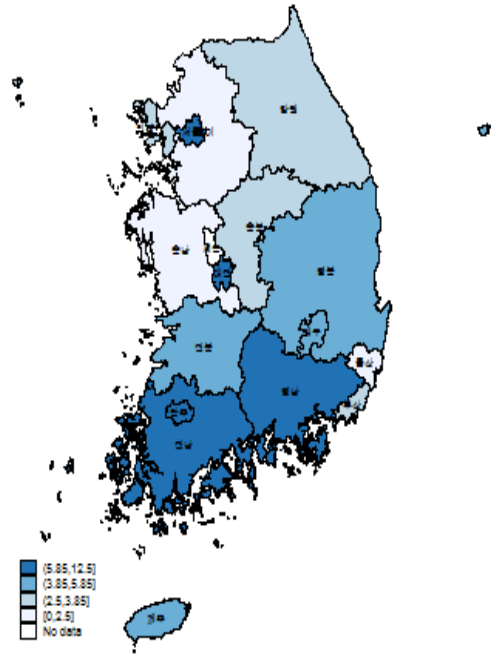
2012년 우리나라 전국 범죄피해 학생은 4.7명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은 12.5명을 나타내고 서울(8.8명), 대전(11.7명)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산(2.6명), 광주(2.4명), 경기(1.4명, 충남(1.1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울산에서는 0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17) ②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V-76 청소년 범죄피해율 (2010, 2012)

(단위: 명)

구분	2010 ¹⁸⁾	2012
전국	6.3	4.7
서울	4.5	8.8
부산	6.0	2.6
대구	4.0	5.2
인천	9.6	3.4
광주	8.9	2.4
대전	8.0	11.7
울산	8.5	0.0
경기	5.6	1.4
강원	8.4	3.8
충북	7.3	3.3
충남	7.7	1.1
전북	5.4	3.9
전남	9.7	12.5
경북	8.5	4.7
경남	4.8	6.5
제주	8.7	4.2



【그림 IV-112】 청소년 범죄피해율

18)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협박 및 괴롭힘, 성폭력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① 지표정의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건수이다.

표 IV-77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정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건수 ¹⁹⁾
단위	10만명당 건수
산식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대상	18세미만 아동·청소년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3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4년 주민등록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4년 우리나라 전국 아동학대 피해 경험 수는 107.9건이며, 광역 시도별로는 전북이 가장 높은 272.4건을 나타내고, 전남(193.3건), 제주(232.5건)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59.2건), 광주(52.9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136.2건의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광주에서는 13.5건 감소하였다.

19) ① 세종시는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임. 세종시 인구는 충남에 포함하여 산출함.

② 3연앙인구는 年央인 7.1일의 인구를 의미하며 캘린더의 7.1일 인구가 아닌 연초(1.1일)와 연말(12.31) 인구의 산술평균 개념을 사용하여 계산된 인구로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도 반올림없이 그대로 사용(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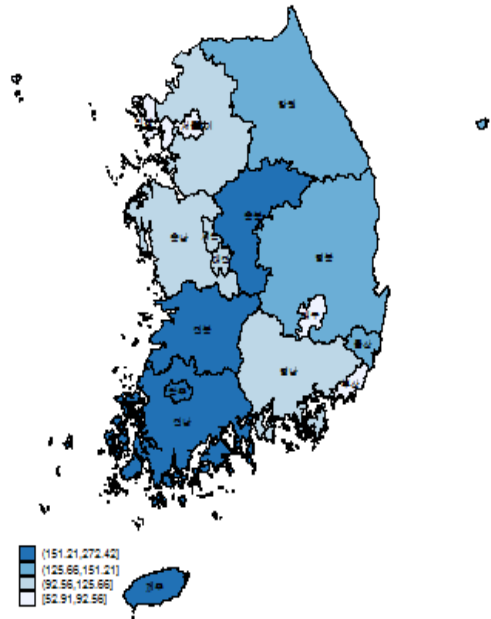
③ 출처: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도시규모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에서는 도지역이 163.6건으로 시지역(96.0건)보다 67.6건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184.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172.9건), 충청권(125.2건), 영남권(111.4건), 수도권(84.6건)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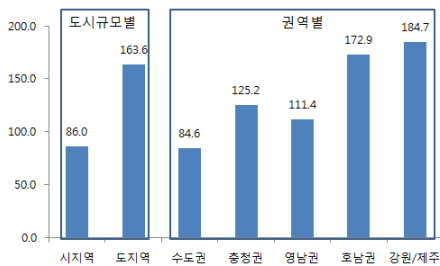
표 IV-78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2010~2014)

(단위: 10만명당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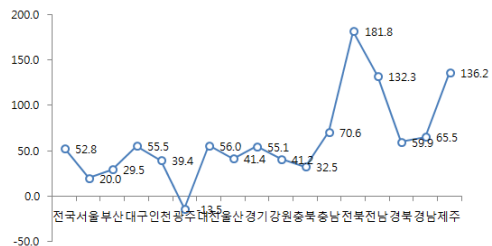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55.1	60.4	65.4	71.2	107.9	52.8
서울	39.2	46.8	41.6	48.8	59.2	20.0
부산	42.1	48.1	59.3	52.1	71.6	29.5
대구	25.0	27.3	37.2	40.9	80.5	55.5
인천	53.2	42.7	60.1	62.3	92.6	39.4
광주	66.4	39.7	30.4	36.9	52.9	-13.5
대전	38.0	51.7	46.2	66.4	94.0	56.0
울산	109.8	84.5	60.2	62.2	151.2	41.4
경기	46.8	55.1	58.8	60.6	101.9	55.1
강원	95.5	102.6	97.1	85.9	136.8	41.2
충북	123.3	129.6	141.9	128.7	155.8	32.5
충남	55.1	74.0	84.1	88.7	125.7	70.6
전북	90.6	98.3	109.9	181.5	272.4	181.8
전남	61.1	81.9	100.1	108.5	193.3	132.3
경북	75.8	92.7	100.3	101.0	135.7	59.9
경남	52.7	47.4	76.1	88.4	118.2	65.5
제주	96.3	119.9	114.6	109.6	232.5	136.2



【그림 IV-113】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그림 IV-114】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그림 IV-115】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2014-2010)

(4) 학교폭력 발생률

① 지표정의서

학교폭력 발생률은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중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을 행한 가해 학생 비율이다.

표 IV-79 학교폭력 발생률

정의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중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을 행한 가해 학생 비율
단위	학생 1000명당 가해 건수
산식	학교폭력 발생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수/학생수)×1000
대상	초·중·고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12~2014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 2013년 주민등록연암연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학교폭력 발생률

2014년 우리나라 전국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4.6건이며, 광역시도별로는 대구가 가장 높은 7.5건을 나타내고, 세종(5.4건), 강원(5.4건), 전남(5.9건), 경북(5.5건)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산(3.9건), 경기(3.9건), 경남(3.6건)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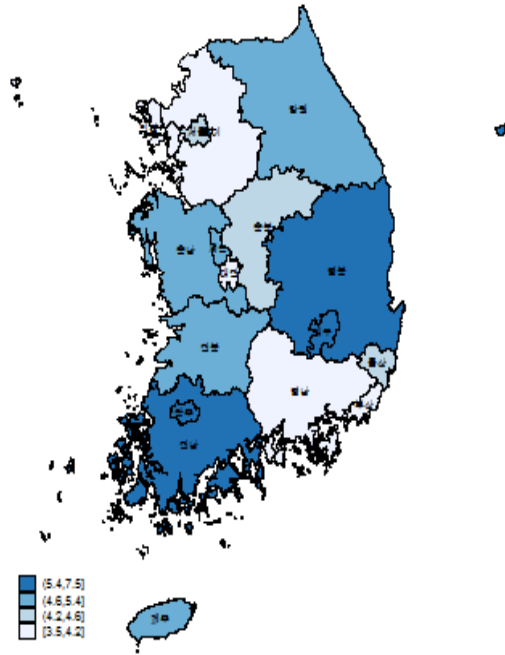
한편, 2012-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북에 4.0건의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제주는 1.2건 증가하였다.

도시규모별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서는 도지역이 4.9건으로 시지역(4.7건)보다 0.2건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호남권과 강원/제주가 5.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5.0건), 충청권(4.4건), 수도권(4.2건)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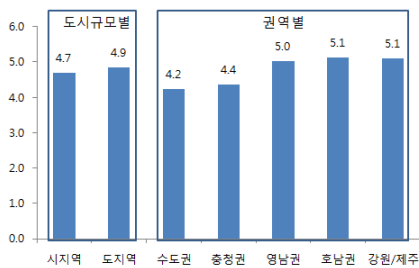
표 IV-80 학교폭력 발생률 (2012~2014)

(단위: 학생 1000명당 가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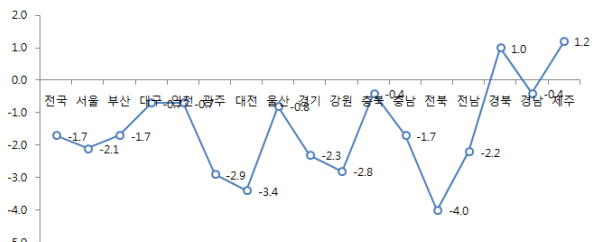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4-2012
전국	6.3	4.5	4.6	-1.7
서울	6.7	4.7	4.6	-2.1
부산	5.6	4.4	3.9	-1.7
대구	8.2	7.8	7.5	-0.7
인천	4.9	3.9	4.2	-0.7
광주	7.4	5.0	4.5	-2.9
대전	7.0	5.9	3.5	-3.4
울산	5.4	3.1	4.6	-0.8
세종		5.5	5.4	
경기	6.2	3.4	3.9	-2.3
강원	8.3	5.5	5.4	-2.8
충북	5.1	4.3	4.6	-0.4
충남	6.7	6.0	5.0	-1.7
전북	9.0	5.2	5.0	-4.0
전남	8.1	5.9	5.9	-2.2
경북	4.5	5.6	5.5	1.0
경남	4.0	2.9	3.6	-0.4
제주	3.5	4.0	4.8	1.2



【그림 IV-116】 학교폭력 발생률



【그림 IV-117】 도시규모별, 권역별 학교폭력 발생률



【그림 IV-118】 학교폭력 발생률(2014-2012)

(5)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① 지표정의서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는 ‘나의 생활 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IV-81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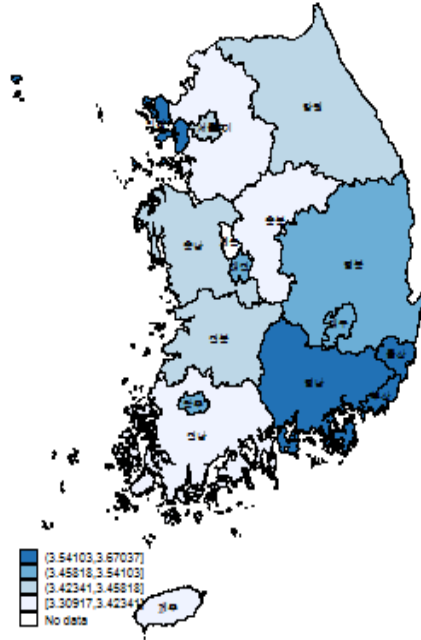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의 생활 주변 (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있다
출처	YHCI(2013), 교육부(2013)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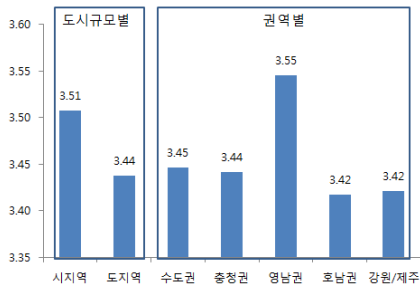
전국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는 인천이 가장 높은 평균 3.67을 나타내고, 부산(3.61), 울산(3.59)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40), 전남(3.31), 제주(3.40)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51로 도지역(3.44)보다 0.07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에서는 영남권이 평균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3.45), 충청권(3.44), 호남권(3.42), 강원/제주(3.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2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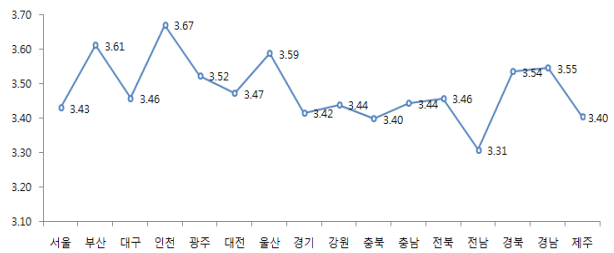
시도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서울	3.43
부산	3.61
대구	3.46
인천	3.67
광주	3.52
대전	3.47
울산	3.59
경기	3.42
강원	3.44
충북	3.40
충남	3.44
전북	3.46
전남	3.31
경북	3.54
경남	3.55
제주	3.40



【그림 IV-119】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그림 IV-120】 도시규모별·권역별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그림 IV-121】 2015년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

6. 활동영역

1) 활동 상태

(1)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① 지표정의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다.

표 IV-83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정의	지난 1년 동안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²⁰⁾
단위	%
대상	13~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4~2013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원자료.

② 전국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3년 우리나라 전국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84.0%이며, 광역시도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은 92.7%를 나타내고 서울(86.9%), 부산(86.9%), 광주(85.5%)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75.1%), 전남(73.2%)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1년에서 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대전(14.1%p)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낸 반면, 전남의 경우 7.2%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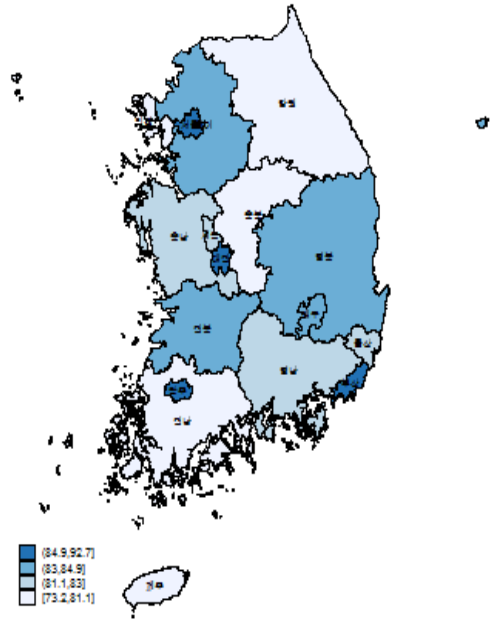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우리나라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에서는 시지역이 85.7%로 도지역(80.3%)보다 5.4.0%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83.0%), 호남권(81.2%), 강원/제주(78.2%)순으로 나타났다.

20)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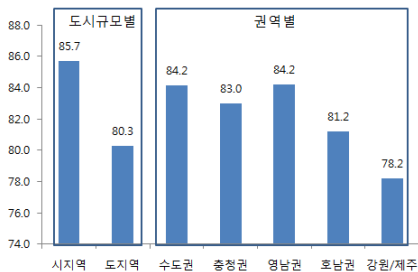
표 IV-84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1, 2013)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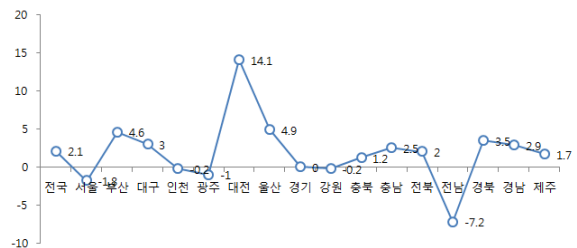
시도	2011	2013	2013-2011
전국	81.9	84.0	2.1
서울	88.7	86.9	-1.8
부산	82.3	86.9	4.6
대구	80.9	83.9	3.0
인천	81.3	81.1	-0.2
광주	86.5	85.5	-1.0
대전	78.6	92.7	14.1
울산	78.1	83.0	4.9
경기	84.5	84.5	0.0
강원	78.5	78.3	-0.2
충북	73.9	75.1	1.2
충남	78.7	81.2	2.5
전북	82.9	84.9	2.0
전남	80.4	73.2	-7.2
경북	81.4	84.9	3.5
경남	79.5	82.4	2.9
제주	76.4	78.1	1.7



【그림 IV-122】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그림 IV-123】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그림 IV-124】 문화예술활동 참여율(2011, 2013)

(2) 문화여가 지출비용

① 지표정의서

문화여가 지출비용은 한 달 평균 여가활동비용이다.

표 IV-85 문화여가 지출비용

정의	한달 평균 여가활동 비용
단위	원
대상	15세 이상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6~2014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② 전국 문화여가 지출비용

2014년 우리나라 전국 문화여가 지출비용은 울산이 가장 높은 163,278원을 나타내고 인천(144,377원), 대전(145,543원), 경북(148,255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산(112,735원), 세종(112,152원)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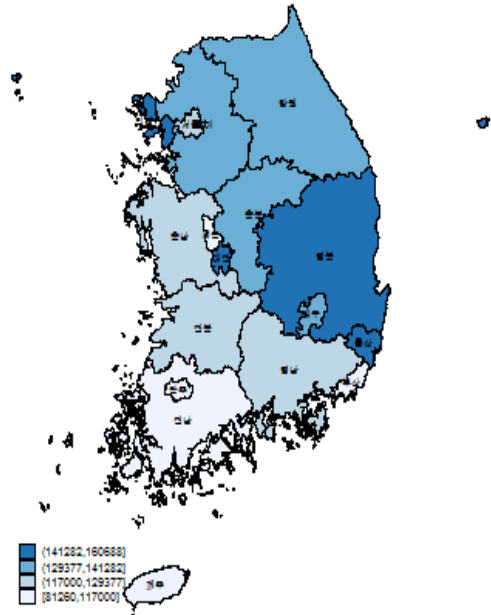
한편, 2010년에서 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남에서 13,310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반면 부산은 158,866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문화여가 지출비용에서는 시지역이 133,918원으로 도지역(123,587원)보다 10,331원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영남권이 136,37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134,555원), 수도권(133,020원), 강원/제주(125,260원), 호남권(104,564원)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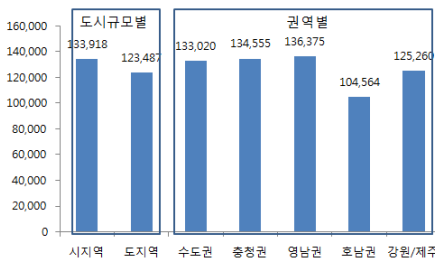
표 IV-86 문화여가 지출비용(2010, 2012, 2014)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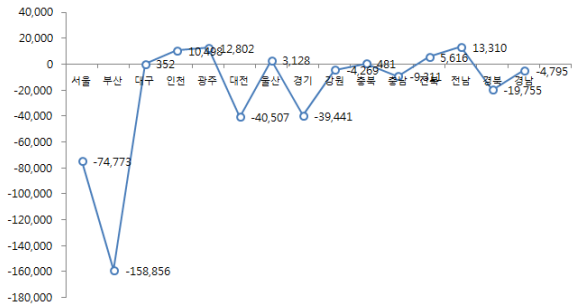
지역	2010 ²¹⁾	2,012 ²²⁾	2014	2014-2010
서울	197,502	133,699	122,729	-74,773
부산	271,591	141,318	112,735	-158,856
대구	141,111	130,308	141,463	352
인천	133,879	111,568	144,377	10,498
광주	116,310	128,482	129,112	12,802
대전	186,050	147,356	145,543	-40,507
울산	160,150	224,096	163,278	3,128
세종			112,152	
경기	171,995	108,294	132,554	-39,441
강원	142,225	89,184	137,956	-4,269
충북	130,896	126,752	131,377	481
충남	136,788	124,139	127,477	-9,311
전북	125,612	138,683	131,228	5,616
전남	75,820	142,580	89,130	13,310
경북	168,010	109,437	148,255	-19,755
경남	128,634	115,932	123,839	-4,795
제주		174,766	120,843	



【그림 IV-125】 문화여가 지출비용



【그림 IV-126】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여가 지출비용



【그림 IV-127】 문화여가 지출비용(2014-2010)

21) 여가비용
22) (지난 1년) 한달 평균 여가활동 지출비용

(3) 동아리 활동 참여율

① 지표정의서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종교단체 제외한 청소년시설·단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다.

표 IV-87 동아리활동 참여율

정의	종교단체 제외한 청소년시설·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기관의 단체 포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예 :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단체 포함)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²³⁾
단위	%, 회
대상	9~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3년,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② 전국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4년 우리나라 전국 동아리활동 참여율은 52.3%이며, 광역시도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은 83.1%를 나타내고 울산(68.8%), 제주(64.6%)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세종(39.2%), 전북(40.3%), 전남(44.6%)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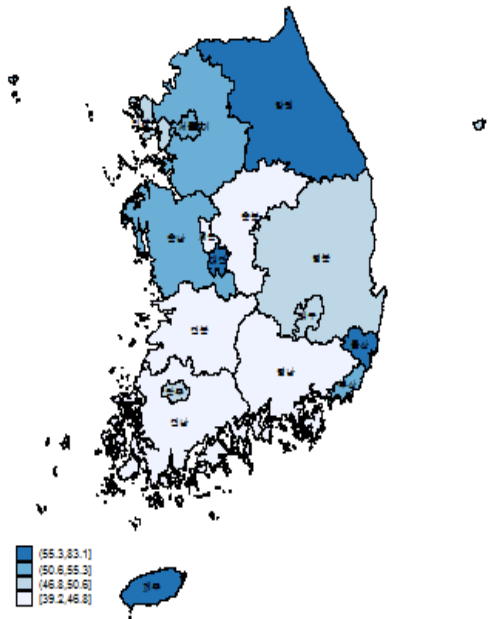
한편, 2011년에서 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울산(46.6%)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전북의 경우 11.6%p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동아리활동 참여율에서는 시지역이 58.1%로 도지역(50.8%)보다 7.3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60.1%), 영남권(54.0%), 수도권(52.3%), 호남권(44.8%)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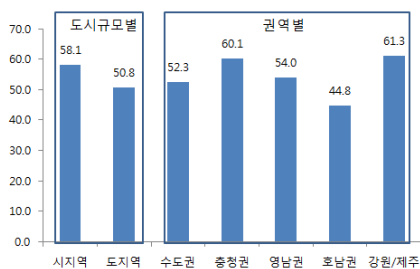
23) 김지경, 하한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V-88 동아리활동 참여율(2011,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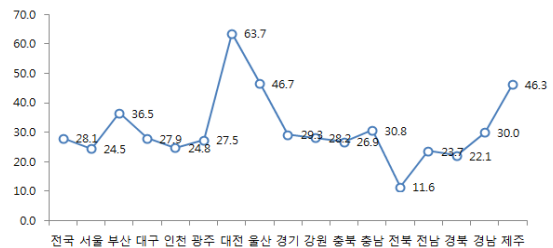
구분	2011	2014	2014-2011
전국	24.2	52.3	28.1
서울	28.8	53.3	24.5
부산	16.5	53.0	36.5
대구	22.7	50.6	27.9
인천	23.6	48.4	24.8
광주	21.9	49.4	27.5
대전	19.4	83.1	63.7
울산	22.1	68.8	46.7
세종		39.2	
경기	26.0	55.3	29.3
강원	29.6	57.8	28.2
충북	18.4	45.3	26.9
충남	21.1	51.9	30.8
전북	28.7	40.3	11.6
전남	20.9	44.6	23.7
경북	28.5	50.6	22.1
경남	16.8	46.8	30.0
제주	18.4	64.7	46.3



【그림 IV-128】 동아리활동 참여율



【그림 IV-129】 도시규모별, 권역별 동아리활동 참여율



【그림 IV-130】 동아리활동 참여율(2014-2011)

(4) 문화예술시설 비율

① 지표정의서

문화예술시설 비율은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 수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89 문화예술시설 비율

정의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 ²⁴⁾
단위	인구 10만 명당 개소
산식	문화예술 시설 수=(문화예술 시설 수/인구수)×100,000
대상	전연령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79~2013
출처	· 통계청(2013), 한국의 사회지표, p.344-345.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문화예술시설 비율(2013,개소)

2013년 우리나라 전국 문화예술시설 수는 32.3개소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은 60.1개소를 나타내고, 강원(59.4개소), 제주(59.9개소)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부산(23.8개소), 대구(24.7개소), 인천(23.9개소).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11-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대전(3.2개소)이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남은 2.1개소 증가하였다.

도시규모별 문화예술시설에서는 도지역이 47.4개소로 시지역(25.9개소)보다 21.5개소 높게

24) ① 문화예술 시설 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감」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발췌함(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② 공연장 수는 모름과 무응답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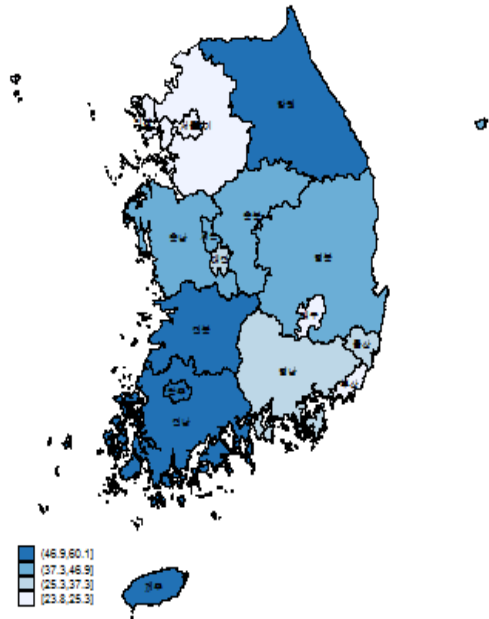
③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59.7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46.5개소), 충청권(38.7개소), 영남권(31.6개소), 수도권(24.8개소)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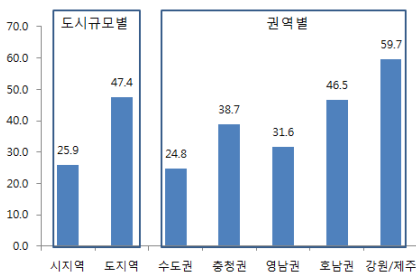
표 IV-90 문화예술시설 비율(2011~2013)

(단위: 인구 10만명당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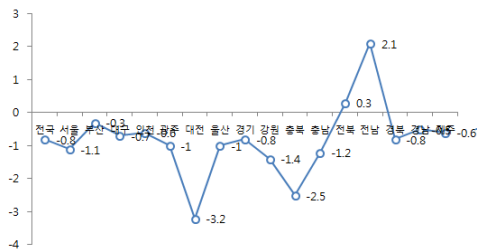
지역	2011	2012	2013	2013-2011
전국	33.0	33.2	32.2	-0.8
서울	26.4	27.3	25.3	-1.1
부산	24.1	24.4	23.8	-0.3
대구	25.4	25.4	24.7	-0.7
인천	24.5	24.7	23.9	-0.6
광주	29.9	29.5	28.9	-1.0
대전	31.5	31.8	28.3	-3.2
울산	27.2	26.8	26.2	-1.0
세종		51.3	45.4	
경기	26.0	26.1	25.2	-0.8
강원	60.8	59.7	59.4	-1.4
충북	43.5	42.2	41.0	-2.5
충남	48.1	47.4	46.9	-1.2
전북	50.3	50.5	50.6	0.3
전남	58.0	60.2	60.1	2.1
경북	46.9	46.6	46.1	-0.8
경남	37.8	38.1	37.3	-0.5
제주	60.5	60.9	59.9	-0.6



【그림 IV-131】 문화예술시설 비율



【그림 IV-132】 도시규모별, 권역별 문화예술시설 비율



【그림 IV-133】 문화예술시설 비율(2013-2011)

(5)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① 지표정의서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당 청소년 활동시설 수를 산출하였다.

표 IV-91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정의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²⁵⁾
단위	인구 10만 명당 개소
산식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수/10~24세 청소년 인구)×100,000
대상	9~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1~2013
출처	· 여성가족부(2014). 2013 청소년백서, p.418.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014년 우리나라 전체의 청소년 활동시설 수는 781개이며,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149개로 나타났고, 강원(87개), 경남(71개), 경북(64개), 서울(64개)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8개), 광주(11개), 대전(13개), 대구(14개)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1010-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강원에서 10개의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울산의 경우는 1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도지역이 68.6개로 시지역(23.3개)보다 45.3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청소년 활동시설에서는 수도권이 80.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66.0개), 호남권(38.0개), 영남권(36.8개), 충청권(36.0개)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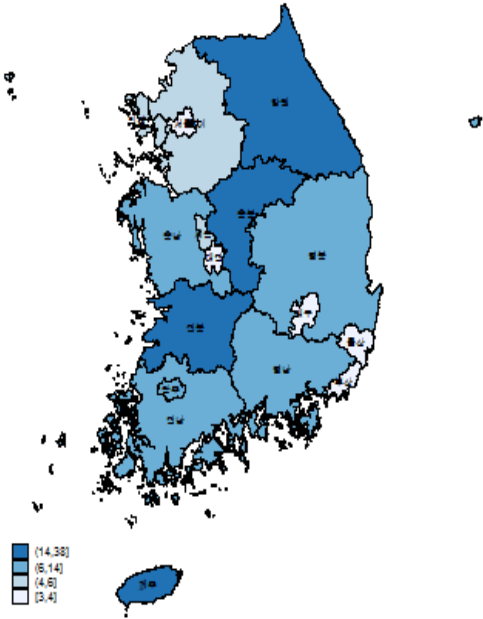
25) 청소년 활동시설 수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특화시설, 유스호텔의 수를 의미함. 국립청소년시설 3개(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은 포함되었으며, '13.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는 상기 통계 미포함됨. 자료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임(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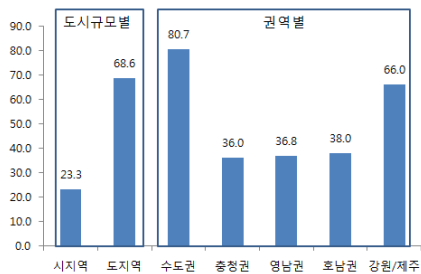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0~2013)

(단위: 인구 10만 명당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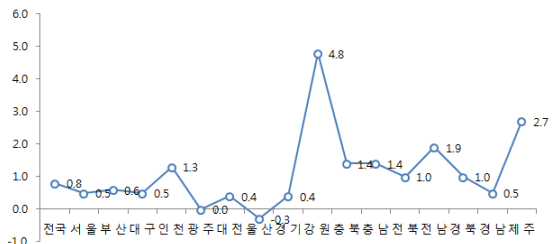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3-2010
전국	7.3	7.5	7.7	8.1	0.8
서울	3.1	3.1	3.3	3.6	0.5
부산	3.2	3.4	3.7	3.8	0.6
대구	2.3	2.3	2.5	2.8	0.5
인천	3.9	4.2	4.6	5.2	1.3
광주	3.4	3.4	3.4	3.4	0.0
대전	3.7	4.0	4.1	4.1	0.4
울산	3.6	3.7	3.7	3.3	-0.3
세종			5.7	5.0	
경기	5.8	6.0	6.0	6.2	0.4
강원	25.5	26.5	28.0	30.3	4.8
충북	14.3	14.0	15.2	15.7	1.4
충남	11.6	11.8	13.2	13.0	1.4
전북	14.3	14.4	14.8	15.3	1.0
전남	12.0	12.4	12.6	13.9	1.9
경북	13.1	13.4	13.0	14.1	1.0
경남	10.8	11.0	11.1	11.3	0.5
제주	35.4	36.7	36.5	38.1	2.7



【그림 IV-134】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그림 IV-135】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그림 IV-136】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2013-2011)

(6) 청소년 지도사 비율

① 지표정의서

청소년 지도사 비율은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를 산출하였다.

표 IV-93 청소년 지도사 비율

정의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
단위	명
산식	청소년 지도사 비율=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출처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3). 2013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청소년 지도사 비율

2013년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 지도사 수는 0.9명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제주에서 가장 높은 1.0명을 나타내고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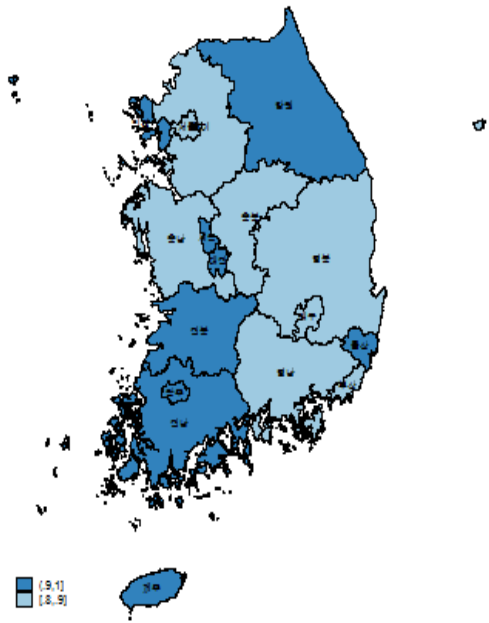
한편, 2012년에서 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제주(0.2명)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반면 부산, 대구, 광주의 경우 0.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0.9명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1.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0.9명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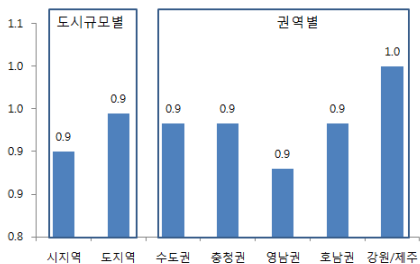
표 IV-94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2, 201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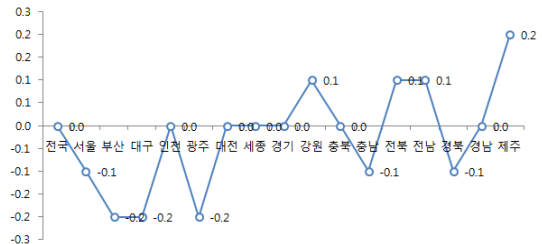
	2012	2013	2013-2012
전국	0.9	0.9	0.0
서울	1.0	0.9	-0.1
부산	1.0	0.8	-0.2
대구	1.0	0.8	-0.2
인천	1.0	1.0	0.0
광주	1.0	0.8	-0.2
대전	1.0	1.0	0.0
울산		1.0	
세종	1.0	1.0	0.0
경기	0.9	0.9	0.0
강원	0.9	1.0	0.1
충북	0.9	0.9	0.0
충남	1.0	0.9	-0.1
전북	0.9	1.0	0.1
전남	0.9	1.0	0.1
경북	1.0	0.9	-0.1
경남	0.9	0.9	0.0
제주	0.8	1.0	0.2



【그림 IV-137】 청소년지도사 비율



【그림 IV-138】 도시규모별, 권역별 청소년 지도사 비율



【그림 IV-139】 청소년 지도사 비율(2013-2012)

2) 활동기반

(1) 놀이친구접근성

① 지표정의서

놀이친구접근성은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95 놀이친구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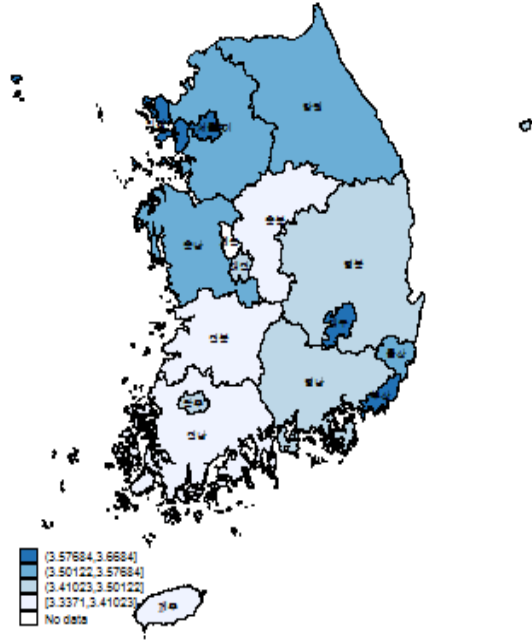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출처	YHCI(2013) Q16-4)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놀이친구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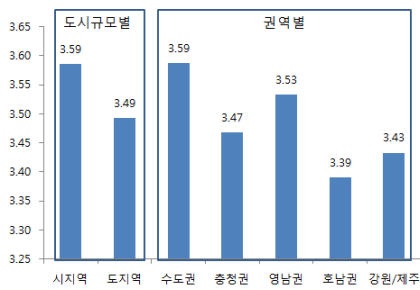
전국 놀이친구접근성은 인천이 가장 높은 평균 3.67을 나타내고, 서울(3.61), 부산(3.59), 대구(3.60)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37), 전남(3.34), 제주(3.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놀이친구접근성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59로 도지역(3.49)보다 0.1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평균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3.53), 충청권(3.47), 강원/제주(3.43), 호남권(3.39)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6 놀이친구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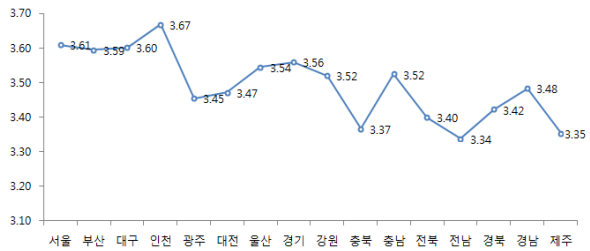
시도	놀이친구접근성
서울	3.61
부산	3.59
대구	3.60
인천	3.67
광주	3.45
대전	3.47
울산	3.54
경기	3.56
강원	3.52
충북	3.37
충남	3.52
전북	3.40
전남	3.34
경북	3.42
경남	3.48
제주	3.35



【그림 IV-140】 놀이친구접근성



【그림 IV-141】 도시규모별 · 권역별 놀이친구접근성



【그림 IV-142】 2015년 놀이친구접근성

3) 활동인식

(1) 여가활동시간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여가활동시간만족도는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97 여가활동시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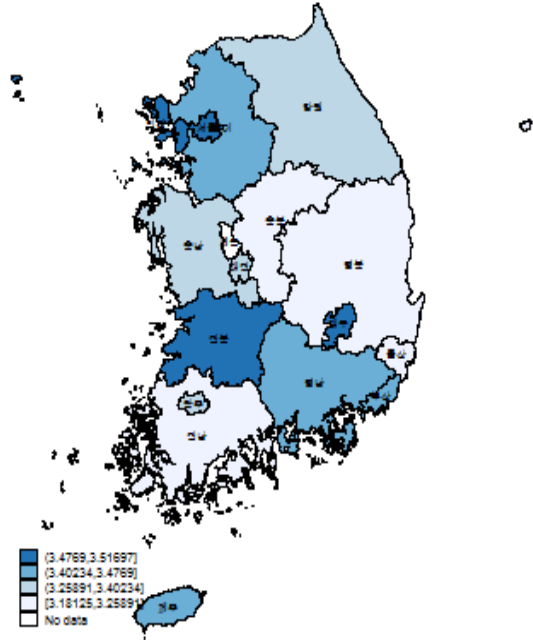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출처	YHCI(2014) Q14-1)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여가활동시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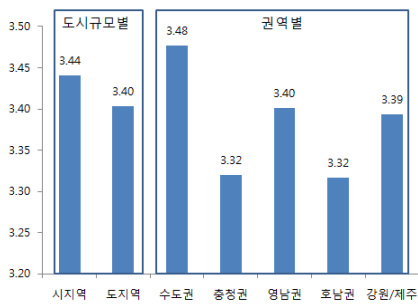
전국 여가활동시간만족도는 전북이 가장 높은 평균 3.52를 나타내고, 대구(3.51), 인천(3.49), 경기(3.47)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27), 울산(3.24), 충북(3.19), 전남(3.18)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여가활동시간만족도는 시지역이 평균 3.44로 도지역(3.40)보다 0.04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3.48), 영남권(3.40), 강원/제주(3.39), 충청권(3.32), 호남권(3.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8 여가활동시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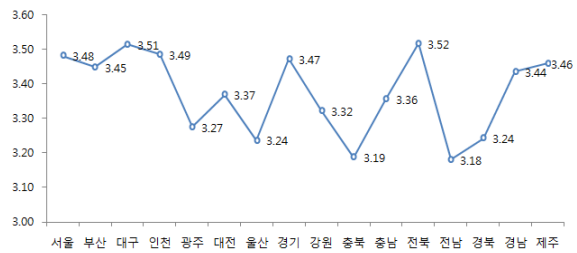
시도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서울	3.48
부산	3.45
대구	3.51
인천	3.49
광주	3.27
대전	3.37
울산	3.24
경기	3.47
강원	3.32
충북	3.19
충남	3.36
전북	3.52
전남	3.18
경북	3.24
경남	3.44
제주	3.46



【그림 IV-143】 여가활동시간만족도



【그림 IV-144】 도시규모별 · 권역별 여가활동시간만족도



【그림 IV-145】 2015년 여가활동시간만족도

(2) 여가활동공간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여가활동공간만족도는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99 여가활동공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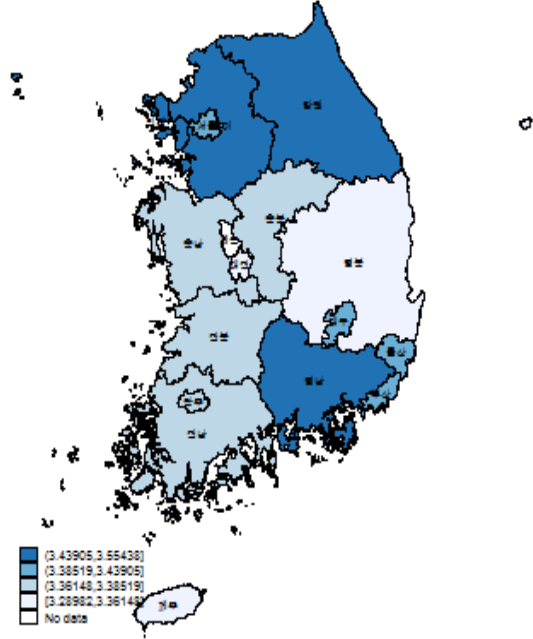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출처	YHCI(2014) Q14-2)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여가활동공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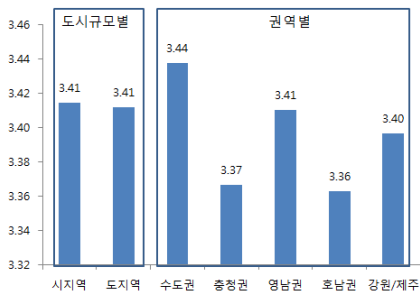
전국 여가활동공간만족도는 인천이 가장 높은 평균 3.55를 나타내고, 부산(3.43), 경기(3.44), 강원(3.45), 경남(3.46)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34), 대전(3.34), 제주(3.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시지역과 도지역이 평균 3.41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여가활동공간만족도에서는 수도권이 평균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영남권(3.41), 강원/제주(3.40), 충청권(3.37), 호남권(3.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0 여가활동공간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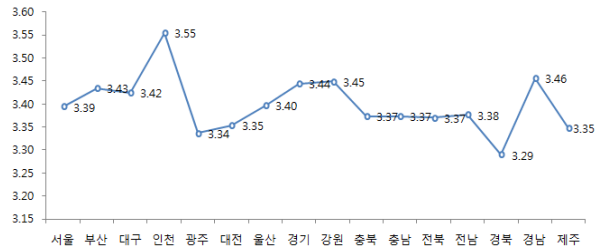
시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서울	3.39
부산	3.43
대구	3.42
인천	3.55
광주	3.34
대전	3.35
울산	3.40
경기	3.44
강원	3.45
충북	3.37
충남	3.37
전북	3.37
전남	3.38
경북	3.29
경남	3.46
제주	3.35



【그림 IV-146】 여가활동공간만족도



【그림 IV-147】 도시규모별·권역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그림 IV-148】 2015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3)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는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101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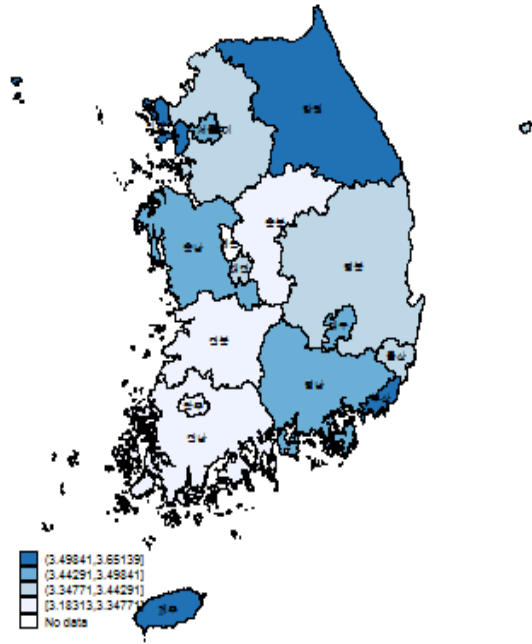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출처	YHCI(2014) Q14-3)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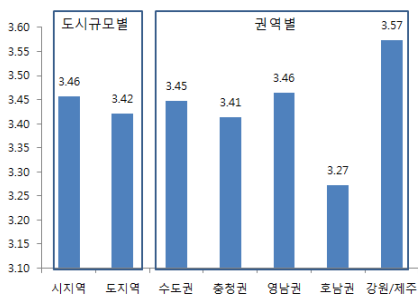
전국 여가활동 용돈만족도는 강원이 가장 높은 평균 3.65를 나타내고, 부산(3.57), 인천(3.52) 제주(3.50)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31), 전북(3.32), 전남(3.18)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46으로 도지역(3.42)보다 0.04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3.46), 수도권(3.45), 충청권(3.41), 호남권(3.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2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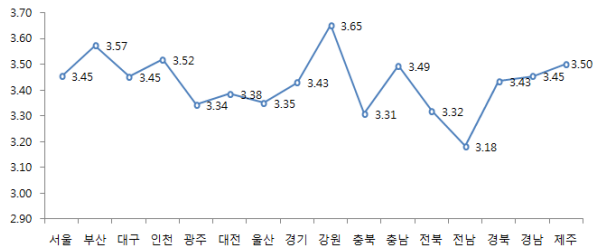
시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서울	3.45
부산	3.57
대구	3.45
인천	3.52
광주	3.34
대전	3.38
울산	3.35
경기	3.43
강원	3.65
충북	3.31
충남	3.49
전북	3.32
전남	3.18
경북	3.43
경남	3.45
제주	3.50



【그림 IV-149】 여가활동용돈만족도



【그림 IV-150】 도시규모별·권역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그림 IV-151】 2015년 여가활동용돈만족도

7. 참여영역

1) 참여결정

(1) 아동권리인지

① 지표정의서

아동권리인지는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103 아동권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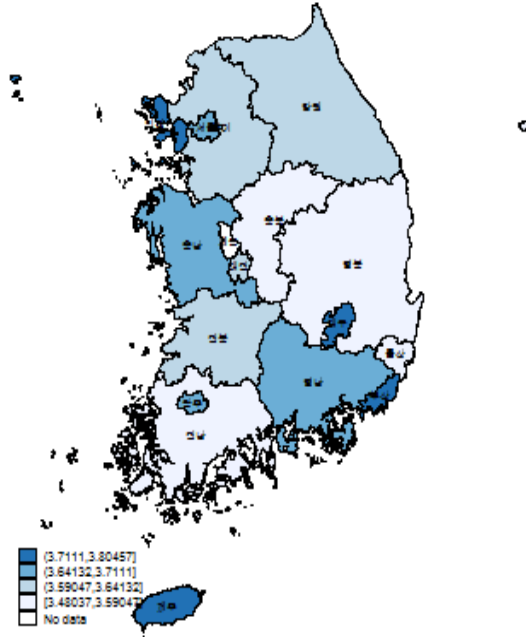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출처	YHCI(2013) Q18-4, 11)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아동권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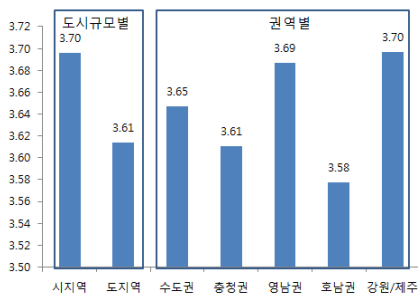
전국 아동권리인지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80을 나타내고, 대구(3.76), 인천(3.78), 제주(3.76)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53), 전남(3.48)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아동권리인지에서는 시지역(3.70)이 도지역(3.61)보다 0.09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3.70), 영남권(3.69), 수도권(3.65), 충청권(3.61), 호남권(3.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4 아동권리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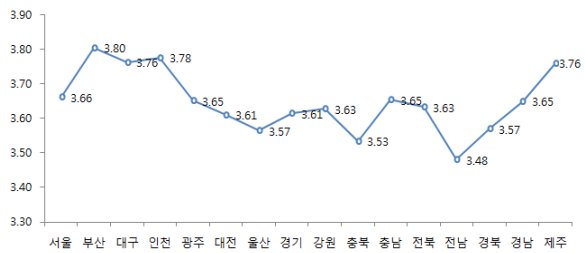
시도	아동권리인지
서울	3.66
부산	3.80
대구	3.76
인천	3.78
광주	3.65
대전	3.61
울산	3.57
경기	3.61
강원	3.63
충북	3.53
충남	3.65
전북	3.63
전남	3.48
경북	3.57
경남	3.65
제주	3.76



【그림 IV-152】 아동권리인지



【그림 IV-153】 도시규모별 · 권역별 아동권리인지



【그림 IV-154】 2015년 아동권리인지

(2) 징계소명권

① 지표정의서

징계소명권은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105 징계소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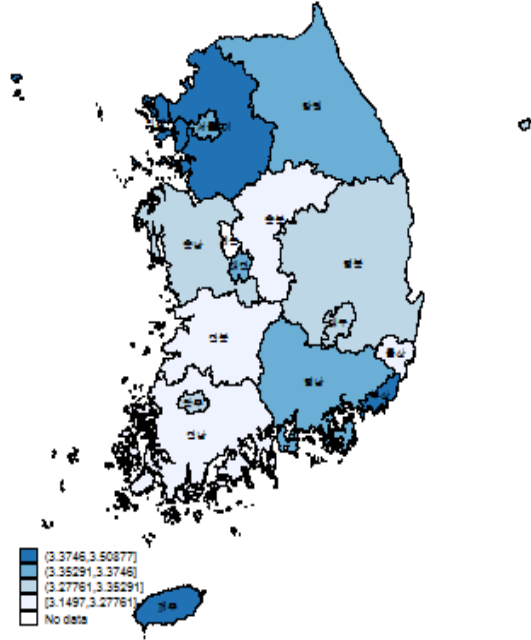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출처	YHCI(2013) Q18-7)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징계소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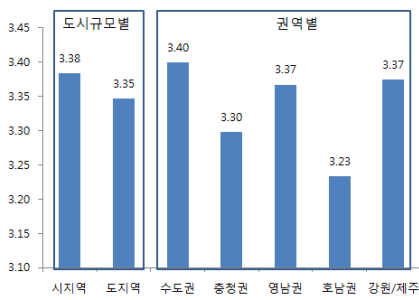
전국 징계소명권은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51을 나타내고, 인천(3.47), 경기(3.41)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17), 전남(3.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징계소명권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38로 도지역(3.35)보다 0.03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3.40), 영남권(3.37), 강원/제주(3.37), 충청권(3.30), 호남권(3.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6 징계소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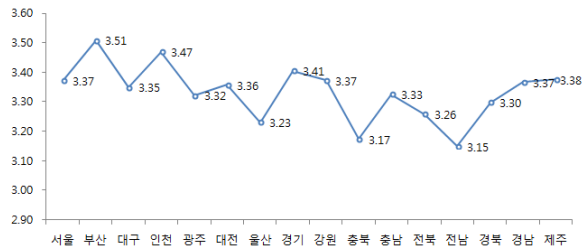
시도	징계소명권
서울	3.37
부산	3.51
대구	3.35
인천	3.47
광주	3.32
대전	3.36
울산	3.23
경기	3.41
강원	3.37
충북	3.17
충남	3.33
전북	3.26
전남	3.15
경북	3.30
경남	3.37
제주	3.38



【그림 IV-155】 징계소명권



【그림 IV-156】 도시규모별 · 권역별 징계소명권



【그림 IV-157】 2015년 징계소명권

(3) 학칙개정권

① 지표정의서

학칙개정권은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107 학칙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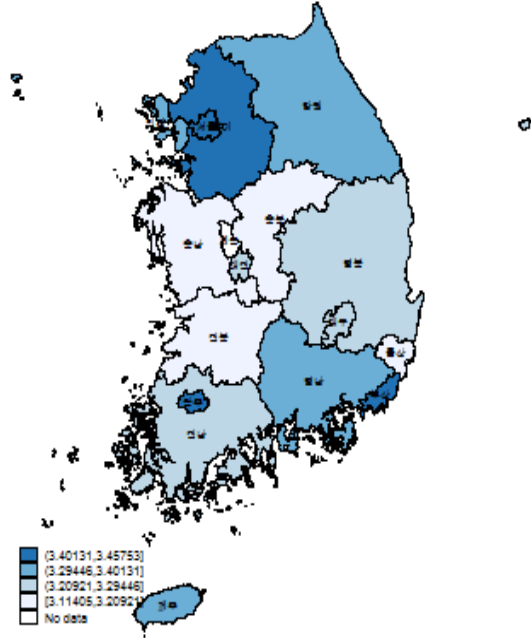
설문문항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출처	YHCI(2013) Q18-8)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학칙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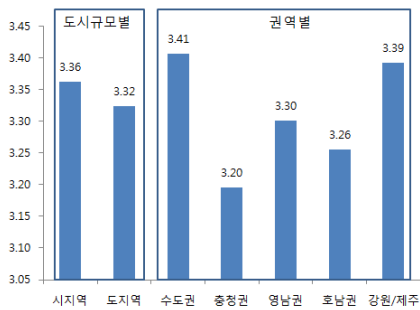
전국 학칙개정권은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3.46을 나타내고, 서울(3.41), 광주(3.41), 경기(3.41)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3.17), 충북(3.12), 전북(3.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학칙개정권에서는 시지역(3.36)이 도지역(3.32)보다 0.04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평균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3.39), 영남권(3.30), 호남권(3.26), 충청권(3.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8 학칙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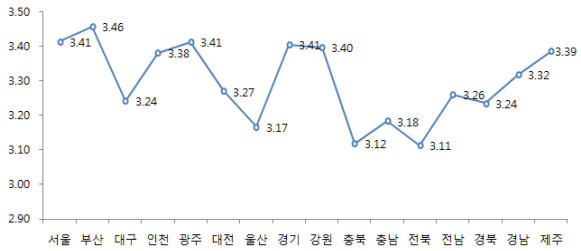
시도	학칙개정권
서울	3.41
부산	3.46
대구	3.24
인천	3.38
광주	3.41
대전	3.27
울산	3.17
경기	3.41
강원	3.40
충북	3.12
충남	3.18
전북	3.11
전남	3.26
경북	3.24
경남	3.32
제주	3.39



【그림 IV-158】 학칙개정권



【그림 IV-159】 도시규모별·권역별 학칙개정권



【그림 IV-160】 2015년 학칙개정권

2) 관용성

(1)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① 지표정의서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인 존중은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109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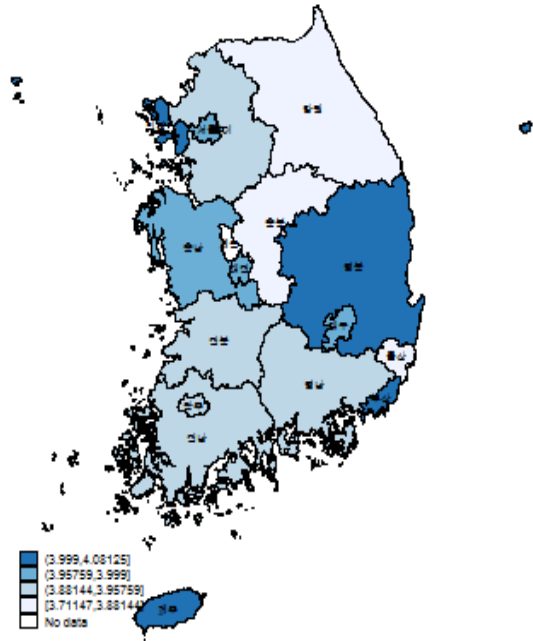
설문문항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출처	YHCI(2013) Q3-2)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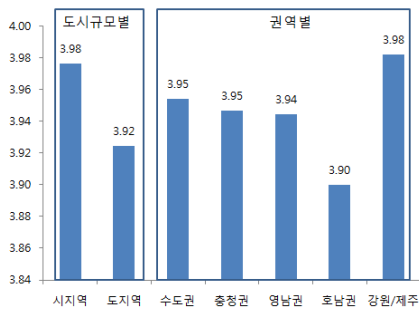
전국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제주가 가장 높은 평균 4.08을 나타내고, 부산(4.07), 인천(4.07)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3.71), 충북(3.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98로 도지역(3.92)보다 0.06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3.95), 충청권(3.95), 영남권(3.94), 호남권(3.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0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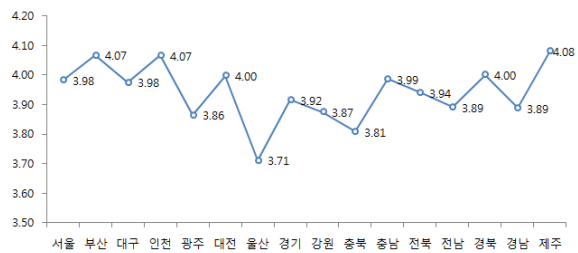
시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서울	3.98
부산	4.07
대구	3.98
인천	4.07
광주	3.86
대전	4.00
울산	3.71
경기	3.92
강원	3.87
충북	3.81
충남	3.99
전북	3.94
전남	3.89
경북	4.00
경남	3.89
제주	4.08



【그림 IV-161】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그림 IV-162】 도시규모별 · 권역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그림 IV-163】 2015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3) 사회참여

(1)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

① 지표정의서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III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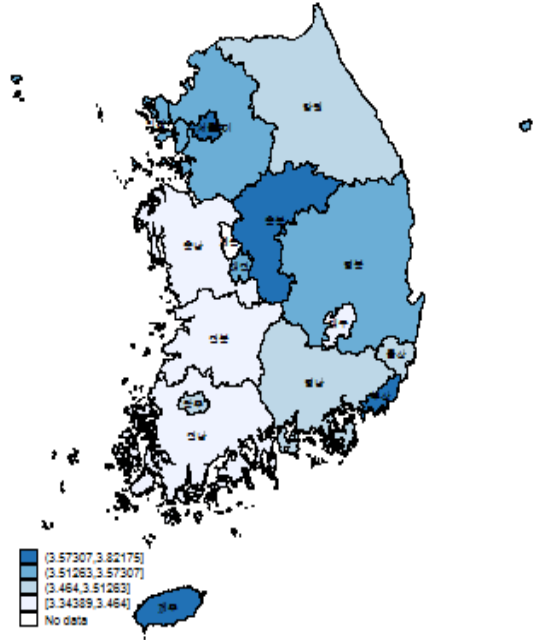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출처	YHCI(2013) Q18-6)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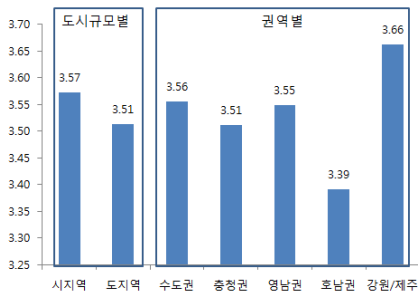
전국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는 제주가 가장 높은 평균 3.82를 나타내고, 서울(3.60), 부산(3.75)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전북(3.34), 전남(3.38)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3.57로 도지역(3.51)보다 0.06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3.66), 수도권(3.56), 영남권(3.55), 충청권(3.51), 호남권(3.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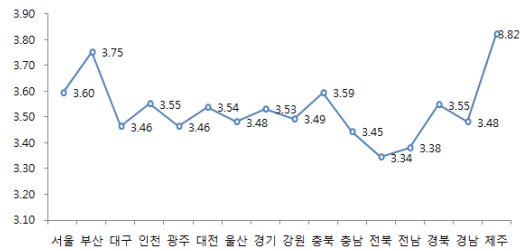
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서울	3.60
부산	3.75
대구	3.46
인천	3.55
광주	3.46
대전	3.54
울산	3.48
경기	3.53
강원	3.49
충북	3.59
충남	3.45
전북	3.34
전남	3.38
경북	3.55
경남	3.48
제주	3.82



【그림 IV-164】 학생대표의 운영참여기회



【그림 IV-165】 도시규모별·권역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그림 IV-166】 2015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2) 자원봉사 참여율

① 지표정의서

자원봉사 참여율은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산출했다.

표 IV-113 **자원봉사 참여율**

정의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²⁶⁾
단위	%
대상	13세 이상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2년, 2004~2013
출처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SP151R&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자원봉사 참여율

2013년 우리나라 전국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이며, 광역 시도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은 24.8%를 나타내고, 광주(23.5%), 경남(23.4%), 제주(24.2%)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서울(17.7%), 전북(1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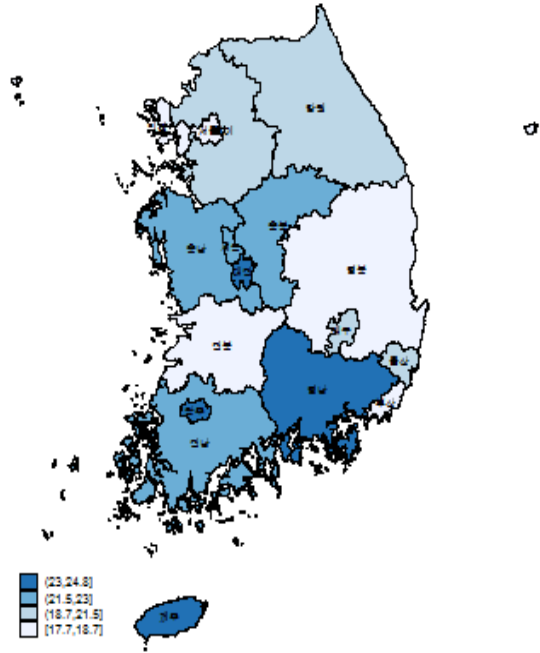
한편, 2011년, 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경북에 6.1%p의 가장 높은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대전은 4.5%p 증가하였다.

26) 설문문항은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시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각각의 항목(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환경보전/범죄예방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지역 및 시설 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횟수와 평균시간으로 조사되었음(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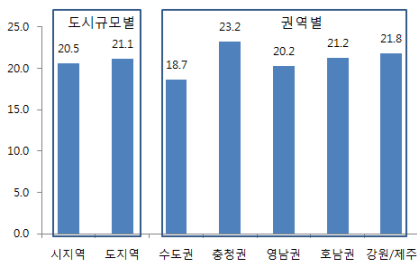
표 IV-114 자원봉사 참여율(2011, 2013)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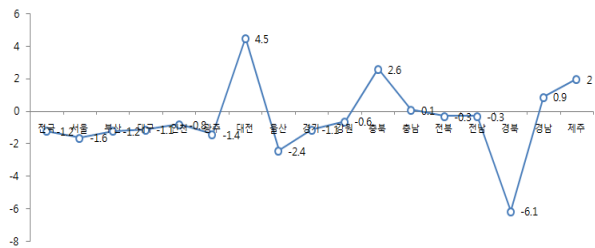
시도	2011	2013	2013-2011
전국	21.1	19.9	-1.2
서울	19.3	17.7	-1.6
부산	19.9	18.7	-1.2
대구	20.1	19.0	-1.1
인천	19.4	18.6	-0.8
광주	24.9	23.5	-1.4
대전	20.3	24.8	4.5
울산	23.9	21.5	-2.4
경기	20.8	19.7	-1.1
강원	20.0	19.4	-0.6
충북	19.1	21.7	2.6
충남	22.9	23.0	0.1
전북	18.3	18.0	-0.3
전남	22.4	22.1	-0.3
경북	24.6	18.5	-6.1
경남	22.5	23.4	0.9
제주	22.2	24.2	2.0



【그림 IV-167】 자원봉사 참여율



【그림 IV-168】 도시규모별, 권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그림 IV-169】 자원봉사 참여율(2013-2011)

8. 환경영역

1) 주거환경인식

(1)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① 지표정의서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는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115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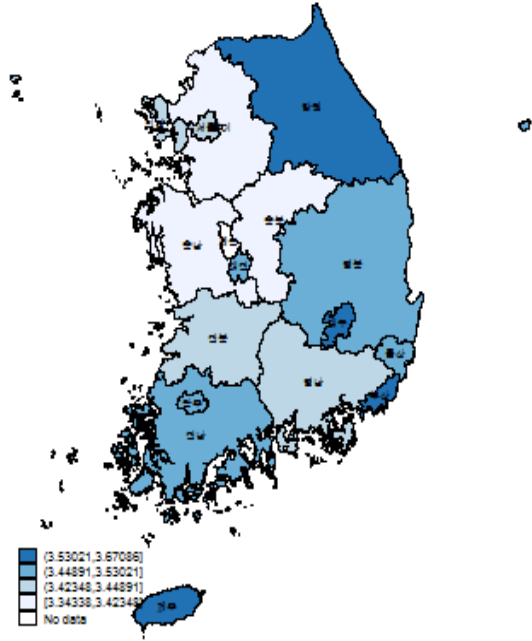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출처	YHCI(2013) Q2-10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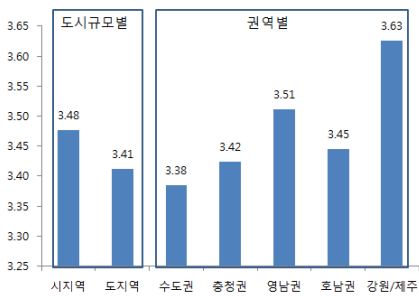
전국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는 제주가 평균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3.56), 대구(3.57), 강원(3.58)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광주(3.42), 충북(3.40), 충남(3.4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에서는 시지역(3.48)이 도지역(3.41)보다 0.07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남권(3.51), 호남권(3.45), 충청권(3.42), 수도권(3.38)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6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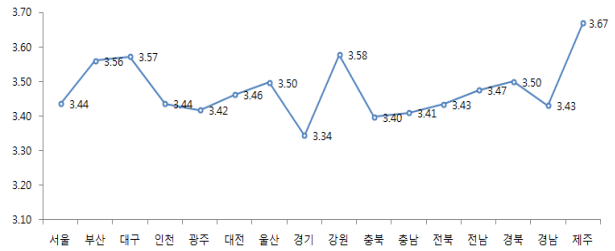
시도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서울	3.44
부산	3.56
대구	3.57
인천	3.44
광주	3.42
대전	3.46
울산	3.50
경기	3.34
강원	3.58
충북	3.40
충남	3.41
전북	3.43
전남	3.47
경북	3.50
경남	3.43
제주	3.67



【그림 IV-170】 지역사회유해환경인지도



【그림 IV-171】 도시규모별·권역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그림 IV-172】 2015년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2) 주택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주택만족도는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항목을 측정했다.

표 IV-117 주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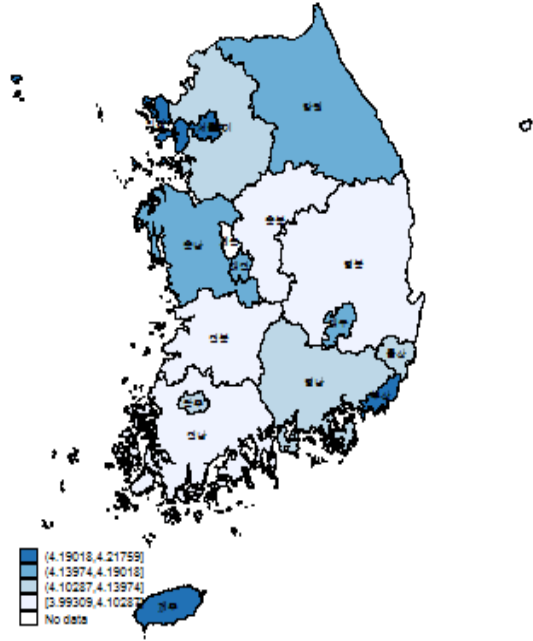
설문문항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출처	충남발전연구원(2012)
척도	5점(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표방향	+

② 전국 주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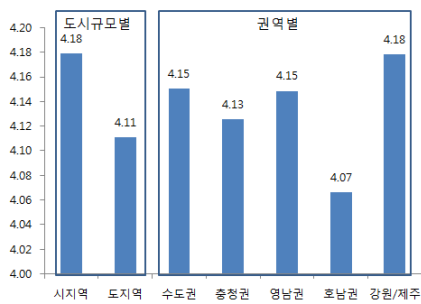
전국 주택만족도는 부산이 가장 높은 평균 4.22를 나타내고, 서울(4.20), 인천(4.21)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북(3.99), 전북(4.07), 전남(4.02)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주택만족도에서는 시지역이 평균 4.18로 도지역(4.11)보다 0.07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평균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도권(4.15), 영남권(4.15), 충청권(4.13), 호남권(4.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8 주택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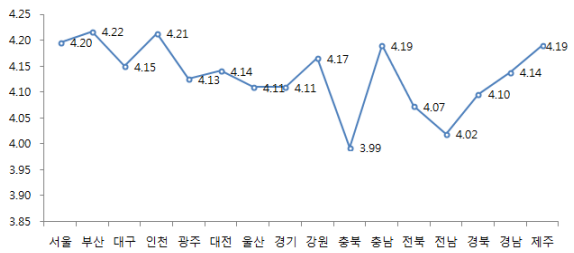
시도	주택만족도
서울	4.20
부산	4.22
대구	4.15
인천	4.21
광주	4.13
대전	4.14
울산	4.11
경기	4.11
강원	4.17
충북	3.99
충남	4.19
전북	4.07
전남	4.02
경북	4.10
경남	4.14
제주	4.19



【그림 IV-173】 주택만족도



【그림 IV-174】 도시규모별·권역별 주택만족도



【그림 IV-175】 2015년 주택만족도

2) 주거기반

(1) 통학소요시간

① 지표정의서

통학소요시간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표 IV-II9 통학소요시간

정의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 ²⁷⁾
단위	분
대상	12세 이상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5년, 2010
출처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018&conn_path=I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통학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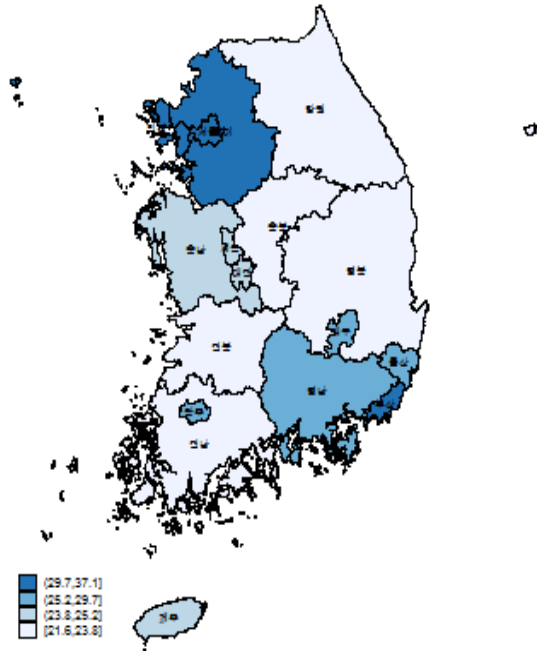
2010년 우리나라 전국 통학소요시간은 30.5분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인천이 가장 높은 37.1분을 나타내고, 서울(35.5분), 경기(34.5분)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강원(21.6분), 충북(23.5분), 전남(23.1분)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통학소요시간에서는 도지역이 30.3분으로 시지역(25.0분)보다 5.3분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35.7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27.4분), 호남권(24.5분), 충청권(24.2분), 강원/제주(23.4분) 순으로 나타났다.

27) 통학/통근시간의 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하였음.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된 소요시간 계급별 인구 자료로부터 산출하였음. 단, 통학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 계급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하였음(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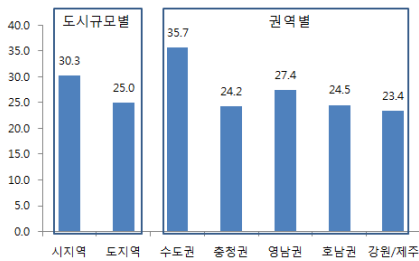
표 IV-120 통학소요시간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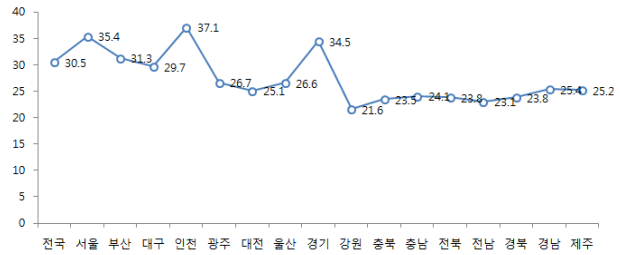
시도	통학소요시간
전국	30.5
서울	35.4
부산	31.3
대구	29.7
인천	37.1
광주	26.7
대전	25.1
울산	26.6
경기	34.5
강원	21.6
충북	23.5
충남	24.1
전북	23.8
전남	23.1
경북	23.8
경남	25.4
제주	25.2



【그림 IV-176】 통학소요시간



【그림 IV-177】 도시규모별, 권역별 통학소요시간



【그림 IV-178】 통학소요시간(2010)

(2) 녹지접근성

① 지표정의서

녹지접근성은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이다.

표 IV-121 녹지접근성

정의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²⁸⁾
단위	m ²
산식	도시 공원 조성면적/도시지역인구+녹지면적/인구
대상	전연령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5 ~ 2013(결정면적), 2012~2014(조성면적)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2014년말 도시공원현황 2015년 8월 15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녹지접근성

2014년 우리나라 전국 녹지접근성은 11.0m²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세종이 가장 높은 176.5m²를 나타내고 울산(16.5m²), 전남(26.1m²)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구(6.4m²), 제주(5.2m²)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2년에서 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남(10.4m²)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반면 세종의 경우 18.9m²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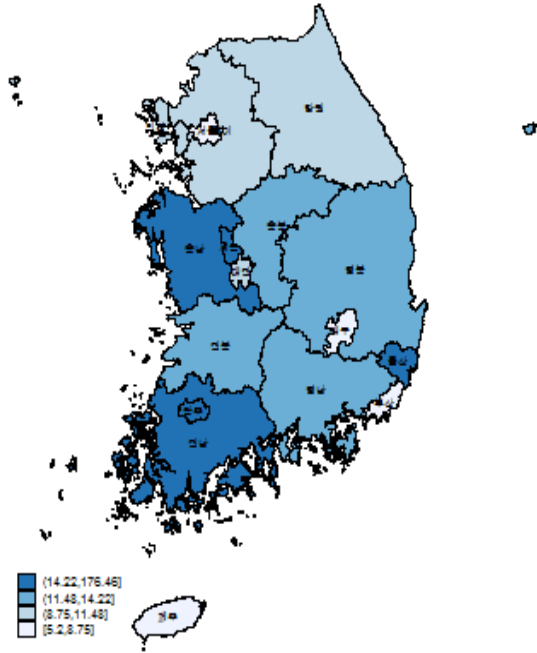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녹지접근성에서는 도지역이 13.3m²로 시지역(9.7m²)보다 3.6m²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호남권이 16.0m²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13.1m²), 영남권(11.4m²), 수도권(9.1m²), 강원/제주(7.7m²) 순으로 나타났다.

28)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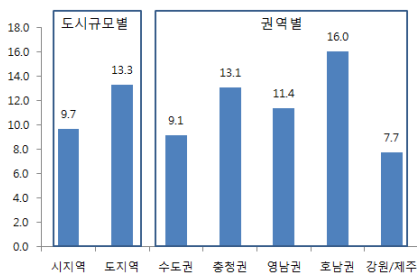
표 IV-122 녹지접근성(2012~2014)

(단위: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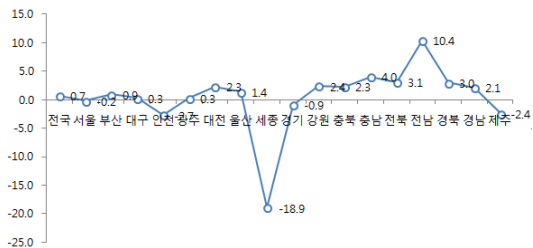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4-2012
전국	10.3	11.0	11.0	0.7
서울	9.0	8.8	8.8	-0.2
부산	7.0	7.0	7.9	0.9
대구	6.0	6.4	6.4	0.3
인천	11.7	6.9	9.0	-2.7
광주	7.5	7.5	7.8	0.3
대전	9.2	11.6	11.5	2.3
울산	15.2	16.4	16.5	1.4
세종	195.4	227.7	176.5	-18.9
경기	10.5	10.6	9.6	-0.9
강원	7.9	9.5	10.2	2.4
충북	10.1	12.6	12.4	2.3
충남	11.3	15.7	15.4	4
전북	11.1	14.2	14.2	3.1
전남	15.7	21.7	26.1	10.4
경북	9.1	12.1	12.2	3
경남	12.0	13.8	14.1	2.1
제주	7.6	8.2	5.2	-2.4



【그림 IV-179】 녹지접근성



【그림 IV-180】 도시규모별, 권역별
녹지접근성



【그림 IV-181】 녹지접근성(2014-2012)

9. 경제영역

1) 소득/소비

(1) 가정경제만족도

① 지표정의서

가정경제만족도는 ‘학생의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항을 측정하였다.

표 IV-123 가정경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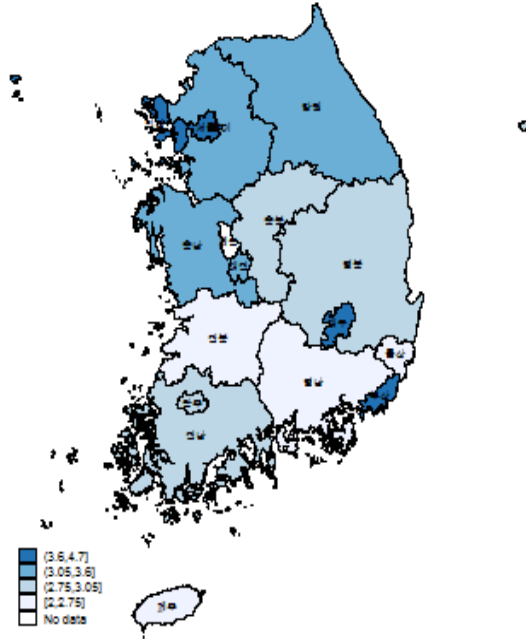
설문문항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출처	통계개발원, 한국의사회동향(2012)
척도	11점(0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10점 매우 만족한다)
지표방향	+

② 전국 가정경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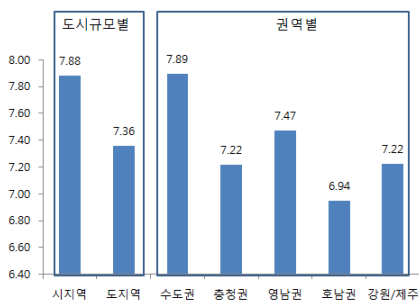
전국 가정경제만족도는 서울이 가장 높은 평균 8.60을 나타내고, 부산(7.88), 경남(7.92)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충북(6.77), 전남(6.79)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시지역(7.88)이 도지역(7.36)보다 0.52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평균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남권(7.47), 충청권(7.22), 강원/제주(7.22), 호남권(6.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4 가정경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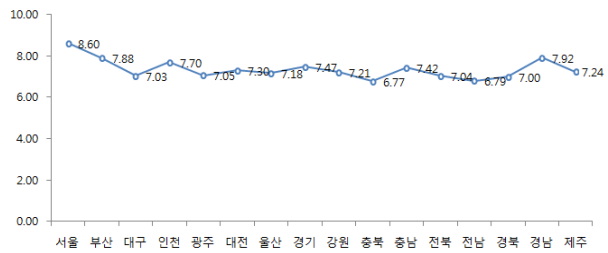
시도	가정경제만족도
서울	8.60
부산	7.88
대구	7.03
인천	7.70
광주	7.05
대전	7.30
울산	7.18
경기	7.47
강원	7.21
충북	6.77
충남	7.42
전북	7.04
전남	6.79
경북	7.00
경남	7.92
제주	7.24



【그림 IV-182】 가정경제만족도



【그림 IV-183】 도시규모별·권역별 가정경제만족도



【그림 IV-184】 2015년 가정경제만족도

(2)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① 지표정의서

지역경제수준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에 의해 측정되며, 이는 해당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에 해당한다.

표 IV-125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정의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
단위	백만원
대상	전연령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3~2013
출처	재정고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I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201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울산이 가장 높은 60.56백만 원을 나타내고, 그 다음은 충남(45.63백만 원), 전남(35.37백만 원), 경북(33.75백만 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반면, 대구(18.16백만 원), 광주(19.66백만 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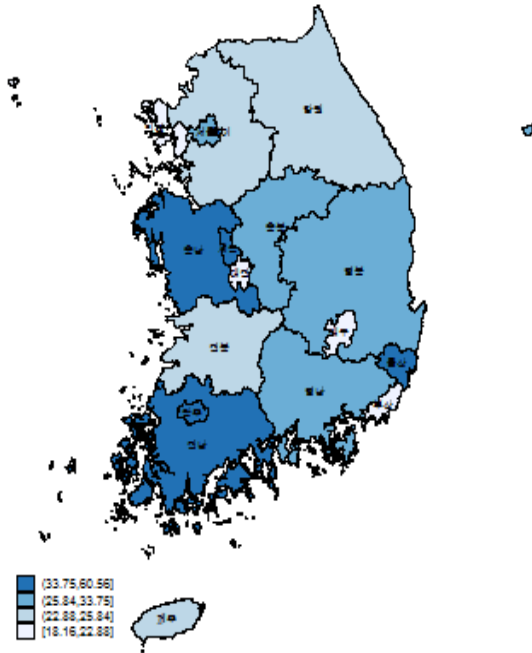
한편, 2010년에서 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충남(5.56백만 원)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고, 인천은 단지 0.50백만 원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에서는 도지역이 30.2백만 원으로 시지역(27.8백만 원)보다 2.4백만 원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영남권이 32.7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32.1백만 원), 수도권(26.9백만 원), 호남권(26.2백만 원), 강원/제주(23.4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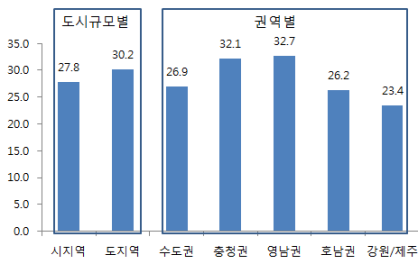
표 IV-126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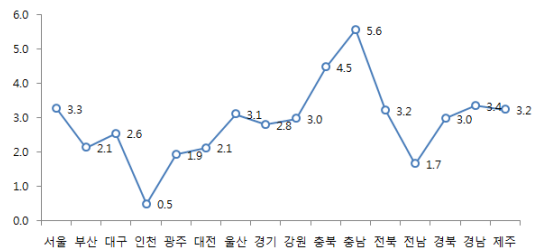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3-2010
서울	28.8	30.3	31.4	32.1	3.3
부산	18.4	19.3	19.8	20.5	2.1
대구	15.6	16.8	17.4	18.2	2.6
인천	22.4	22.5	22.3	22.9	0.5
광주	17.7	18.5	19.2	19.7	1.9
대전	18.3	19.5	20.1	20.4	2.1
울산	57.5	62.2	63.4	60.6	3.1
경기	23.0	23.4	24.1	25.8	2.8
강원	20.6	21.7	22.6	23.6	3.0
충북	25.9	27.6	28.2	30.4	4.5
충남	40.1	43.6	44.6	45.6	5.6
전북	20.4	22.2	22.5	23.6	3.2
전남	33.7	35.4	36.6	35.4	1.7
경북	30.8	31.2	32.3	33.8	3.0
경남	27.3	28.2	29.5	30.6	3.4
제주	19.9	21.4	22.7	23.2	3.2



【그림 IV-185】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그림 IV-186】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그림 IV-187】 지역경제수준 (1인당 지역내 총생산)(2013-2010)

(3) 지니계수

① 지표정의서

소득과 인구의 분포를 이용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C. 지니가 제시하였다. 가로축에 인구분포를 세로축에 소득분포를 각각 나타내되,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의 순서로 누적시킴으로써 그려지는 로렌츠 곡선과 45도 대각선에 의한 면적이 전체 사각형의 절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표 IV-127 지니계수

정의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²⁹⁾
단위	
산식	$Gini = 1 + (1 / N) - [2 / (m \cdot N^2)] [SUM (N - i + 1) y_i]$
대상	18~65세 남성 가구주 가운데 임금근로자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분기/반기, 2010~2014
출처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 ³⁰⁾

②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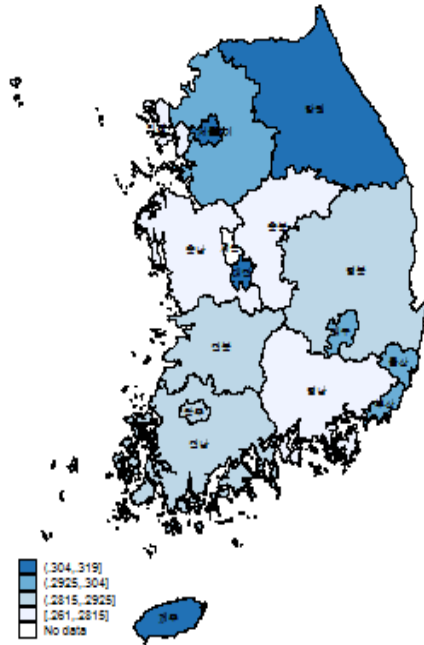
2014년 기준 지역별 지니계수는 서울이 0.3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이는 18~6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도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심함을 의미한다. 서울 다음으로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도가 높은 곳은 대전(0.317), 제주(0.316), 강원(0.305)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충남(0.261), 경남(0.266), 충북(0.275) 등으로 분석된다. 도시규모별 지니계수에서는 시지역이 0.30으로 도지역(0.29)보다 0.01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강원/제주가 0.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0.30), 영남권(0.29), 호남권(0.29), 충청권(0.28) 순으로 나타났다.

29)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 Stata SE 버전 13에서 "ineqdeco"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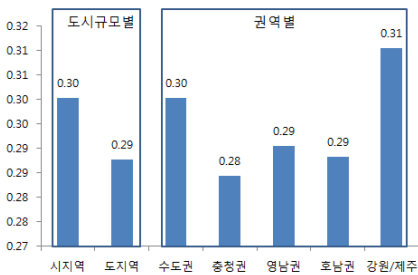
표 IV-128 지니계수(2010~2014)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서울	0.34	0.33	0.33	0.33	0.32	-0.02
부산	0.31	0.30	0.30	0.31	0.30	-0.01
대구	0.31	0.31	0.30	0.30	0.29	-0.02
인천	0.29	0.27	0.28	0.29	0.28	-0.01
광주	0.31	0.32	0.28	0.28	0.29	-0.02
대전	0.32	0.30	0.31	0.33	0.32	0.00
울산	0.29	0.30	0.29	0.30	0.30	0.01
경기	0.31	0.30	0.30	0.31	0.30	-0.01
강원	0.32	0.30	0.30	0.31	0.31	-0.02
충북	0.30	0.29	0.26	0.26	0.28	-0.02
충남	0.30	0.28	0.27	0.28	0.26	-0.04
전북	0.31	0.28	0.29	0.31	0.29	-0.02
전남	0.30	0.29	0.28	0.28	0.28	-0.02
경북	0.31	0.29	0.30	0.30	0.29	-0.02
경남	0.27	0.26	0.26	0.26	0.27	-0.01
제주	0.29	0.33	0.31	0.31	0.32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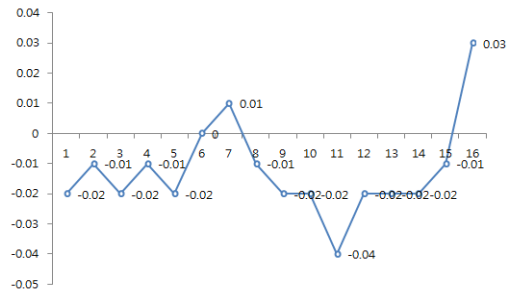


【그림 IV-188】 지니계수

*주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의 4/4분기 혹은 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니계수는 18세-65세 임금근로자 중 남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음.



【그림 IV-189】 도시규모별, 권역별 지니계수



【그림 IV-190】 지니계수(2014-2010)

2) 복지

(1) 사회복지지출 비율

① 지표정의서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IV-129 사회복지지출 비율

정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 ³¹⁾
단위	%
산식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분야 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³²⁾
대상	전연령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8~2014
출처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사회복지지출 비율

2014년 우리나라 전국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6.1%이며, 광역시도별로는 대전이 가장 높은 35.5%를 나타내고 서울(31.8%), 대구(32.8%), 광주(32.5%)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강원(19.8%), 전남(19.5%), 제주(14.9%)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0년에서 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서울(11.5%p)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제주의 경우 1%p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 사회복지지출 비율에서는 시지역이 30.9%로 도지역(21.8%)보다 8.2%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26.7%), 영남권(26.2%), 호남권(25.1%), 강원/제주(17.4%)순으로 나타났다.

31) ①적용회계 : 일반회계

②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③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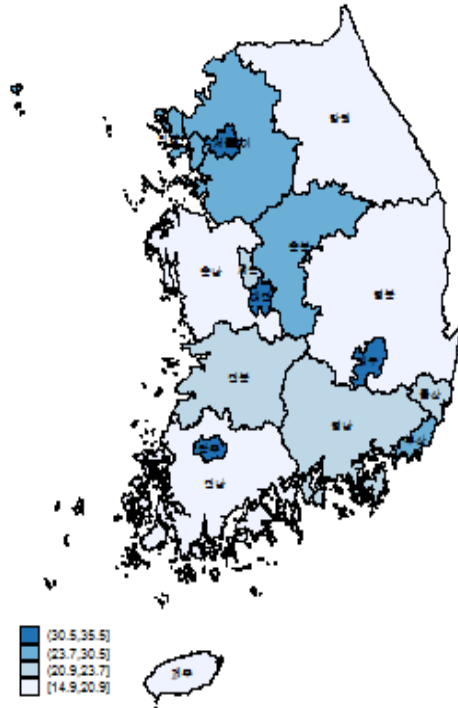
④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2)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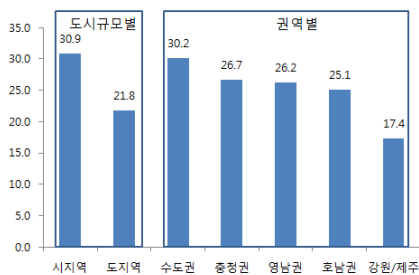
표 IV-130 사회복지지출 비율(2010~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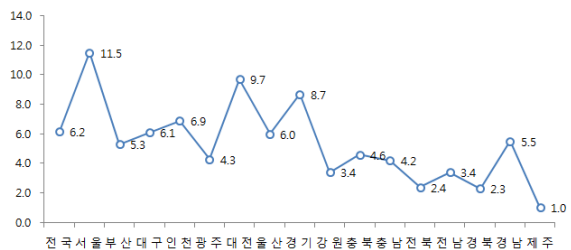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19.9	20.9	21.3	23.1	26.1	6.2
서울	20.3	22.3	24.2	29.7	31.8	11.5
부산	25.2	25.7	25.9	26.9	30.5	5.3
대구	26.7	28.2	27.7	28.4	32.8	6.1
인천	22.3	26.5	26.7	27.3	29.2	6.9
광주	28.2	28.1	28.1	28.6	32.5	4.3
대전	25.8	28.2	28.7	31.7	35.5	9.7
울산	17.7	20.3	19.1	20.8	23.7	6.0
세종				23.4	23.6	
경기	20.8	21.6	22.4	25.0	29.5	8.7
강원	16.4	17.4	17.5	17.8	19.8	3.4
충북	19.2	19.7	20.0	21.0	23.8	4.6
충남	16.7	17.7	17.7	18.1	20.9	4.2
전북	20.9	20.3	19.9	20.8	23.3	2.4
전남	16.1	16.3	16.3	17.0	19.5	3.4
경북	18.1	17.8	17.6	18.3	20.4	2.3
경남	18.2	18.8	19.2	20.6	23.7	5.5
제주	13.9	12.4	11.5	13.5	14.9	1.0



【그림 IV-191】 사회복지지출 비율



【그림 IV-192】 도시규모별, 권역별 사회복지지출 비율



【그림 IV-193】 사회복지지출 비율(2014-2010)

(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① 지표정의서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은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다.

표 IV-131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정의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단위	인구 10만명당 수혜자 수
산식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대상	10세~24세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2001~2014
출처	· 보건복지부(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2p.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3년 우리나라 전국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2,886명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전북(5,806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4,602명), 광주(5,404명), 전남(4,652명)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1,244명), 경기(1,533명)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2010년에서 2013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광주(2,403명)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울산은 367명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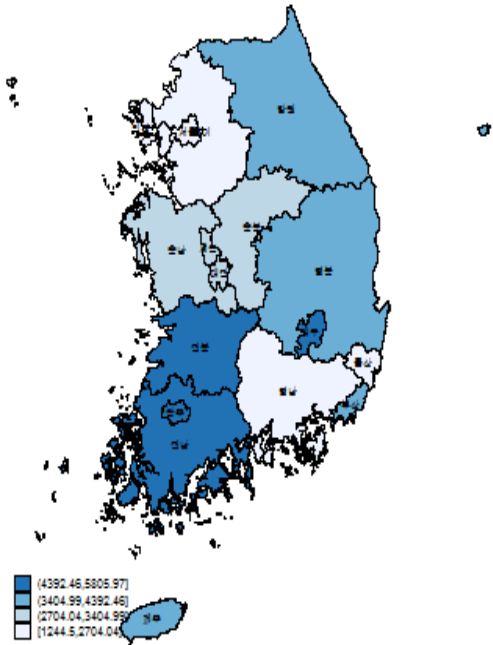
도시규모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에서는 도지역이 3,619명으로 시지역(3,374명)보다 245명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호남권이 5,2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4,181명), 영남권(3,297명), 충청권(3,033명), 수도권(2,130명)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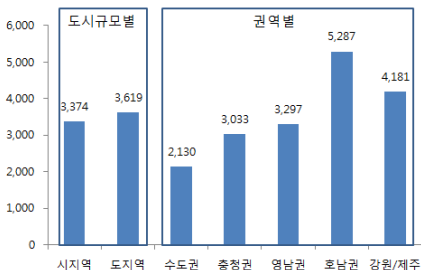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0~2014)

(단위: 인구 10만명당 수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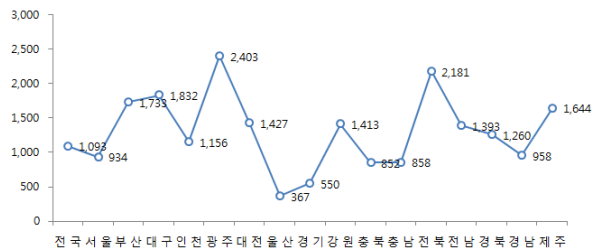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3-2010
전국	1,793	3,380	3,065	2,886	1,093
서울	1,220	2,365	2,197	2,154	934
부산	2,374	4,682	4,330	4,107	1,733
대구	2,770	5,272	4,813	4,602	1,832
인천	1,548	3,008	2,812	2,704	1,156
광주	3,001	5,856	5,521	5,404	2,403
대전	1,978	3,801	3,563	3,405	1,427
울산	878	1,555	1,322	1,244	367
세종			3,199	2,711	
경기	982	1,813	1,625	1,533	550
강원	2,556	4,755	4,282	3,969	1,413
충북	1,979	3,612	3,197	2,832	852
충남	2,003	3,564	3,117	2,861	858
전북	3,625	6,891	6,229	5,806	2,181
전남	3,258	5,983	5,241	4,652	1,393
경북	2,616	4,721	4,181	3,877	1,260
경남	1,695	3,173	2,875	2,653	958
제주	2,748	5,364	4,725	4,392	1,644



【그림 IV-19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그림 IV-195】 도시규모별, 권역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그림 IV-196】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2013-2010)

3) 고용

(1) 경제활동 참가율

① 지표정의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이다.

표 IV-133 경제활동 참가율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³³⁾
단위	%
산식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대상	15세 이상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9. 3/4 ~ 2015. 2/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I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경제활동 참가율

2014년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이며, 광역 시도별로는 제주가 가장 높은 68.0%를 나타냈고 경북(64.7%), 충남(64.6%), 인천(64.0%), 충북(63.7%)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강원(58.3%)을 비롯하여 부산(58.6%), 전북(59.1%)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2009-2014년 기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충북에서 3.1%p의 가장 높은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의 경우 2.1%p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도시규모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는 도지역이 62.9%로 시지역(61.1%)보다 1.8%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63.3%), 강원/제주(63.2%), 영남권(60.9%), 호남권(60.8%)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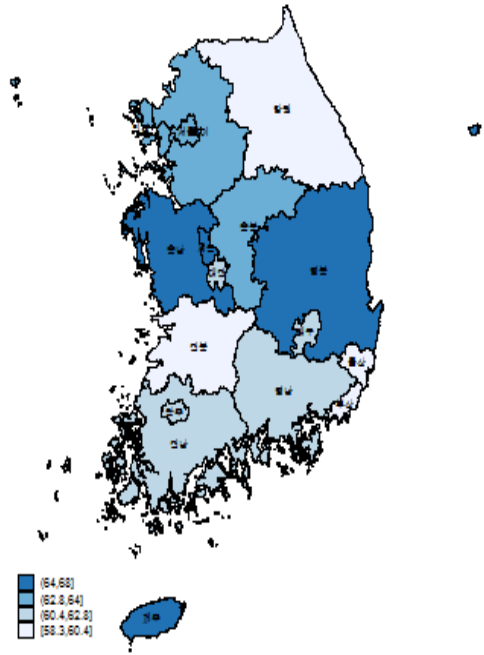
33) ①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김지경, 김옥태, 하한주, 2014).

② 김지경, 하한주, 김옥태(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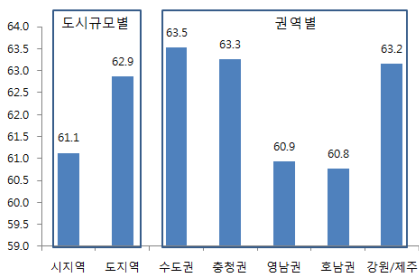
표 IV-134 경제활동 참가율(2010~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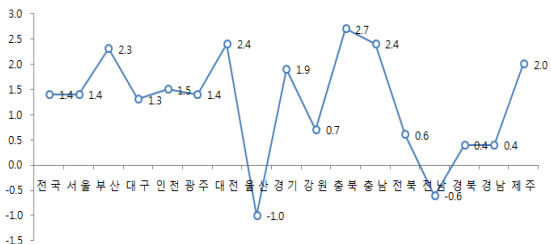
시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61.0	61.1	61.3	61.5	62.4	1.4
서울	61.8	62.5	62.3	62.3	63.2	1.4
부산	56.3	56.4	57.9	58.0	58.6	2.3
대구	59.4	59.0	60.2	59.6	60.7	1.3
인천	62.5	63.3	64.2	63.7	64.0	1.5
광주	59.0	58.4	57.8	58.7	60.4	1.4
대전	59.1	59.4	59.7	59.5	61.5	2.4
울산	60.5	60.7	60.8	60.0	59.5	-1.0
경기	61.5	61.2	61.6	61.8	63.4	1.9
강원	57.6	57.6	58.2	57.3	58.3	0.7
충북	61.0	61.1	59.9	61.0	63.7	2.7
충남	62.2	62.4	62.9	64.6	64.6	2.4
전북	58.5	59.1	58.6	59.3	59.1	0.6
전남	63.4	63.3	63.6	63.0	62.8	-0.6
경북	64.3	63.6	63.6	63.7	64.7	0.4
경남	60.8	61.5	60.7	61.1	61.2	0.4
제주	66.0	66.9	67.3	67.1	68.0	2.0



【그림 IV-197】 경제활동 참가율



【그림 IV-198】 도시규모별, 권역별 경제활동 참가율



【그림 IV-199】 경제활동 참가율(2014-2010)

(2) 실업률

① 지표정의서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즉,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이다(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표 IV-135 실업률

정의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산식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단위	%
대상	15세 이상
지표방향	-
주기 및 구축년도	1년, 1999/3/4 ~ 2015/2/4
출처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② 전국 실업률(2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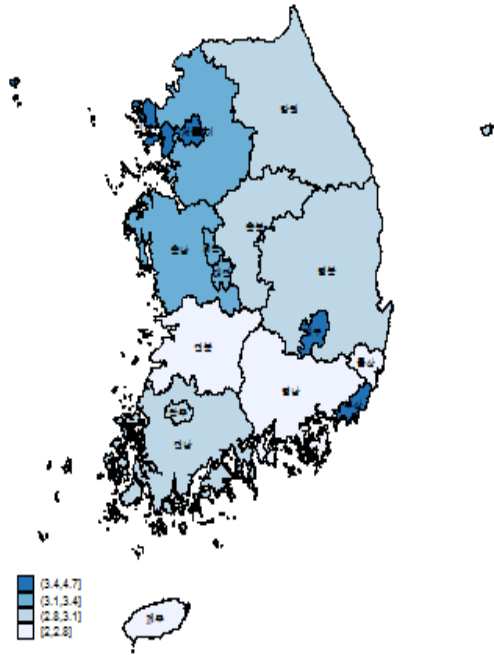
2014년에 전국의 실업률은 3.5%로 조사되고, 광역 시도별로 전국의 수치를 상회하는 지역은 인천(4.7%), 서울(4.5%), 대구(3.9%), 부산(3.8%)이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제주(2.0%), 전북과 경남(2.5%) 등이 해당한다. 반면, 2009년과 비교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지역은 울산(-1.5%p)와 광주(-1.0%p)이 해당하며 동기간 오히려 증가한 지역은 전남(1.3%p), 강원(1.1%p), 충북(0.9%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에서는 시지역이 3.7%로 도지역(2.9%)보다 0.8%p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실업률에서는 수도권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3.3%), 영남권(3.2%), 호남권(2.7%), 강원/제주(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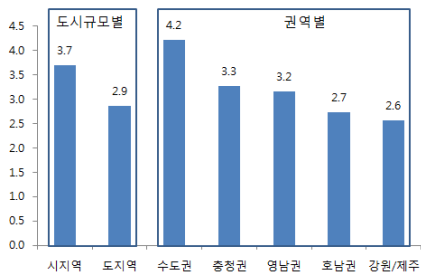
실업률(2010~2014)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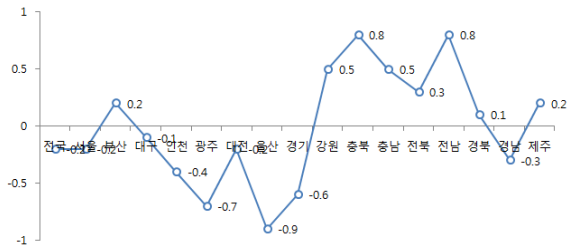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2010
전국	3.7	3.4	3.2	3.1	3.5	-0.2
서울	4.7	4.6	4.2	4.0	4.5	-0.2
부산	3.6	3.6	3.9	3.8	3.8	0.2
대구	4.0	3.7	3.3	3.3	3.9	-0.1
인천	5.1	4.8	4.5	4.2	4.7	-0.4
광주	3.5	3.1	2.7	2.9	2.8	-0.7
대전	3.6	3.6	3.7	3.1	3.4	-0.2
울산	3.6	2.8	2.6	2.1	2.7	-0.9
경기	4.0	3.5	3.3	3.0	3.4	-0.6
강원	2.6	2.2	2.5	2.4	3.1	0.5
충북	2.2	2.4	2.0	2.1	3.0	0.8
충남	2.9	2.3	2.3	2.8	3.4	0.5
전북	2.2	2.3	2.0	2.0	2.5	0.3
전남	2.1	2.0	1.6	2.1	2.9	0.8
경북	2.8	2.5	2.5	3.1	2.9	0.1
경남	2.8	2.2	1.9	2.1	2.5	-0.3
제주	1.8	1.7	1.6	1.8	2.0	0.2



【그림 IV-200】 실업률



【그림 IV-201】 도시규모별, 권역별 실업률



【그림 IV-202】 실업률(2014-2010)

영역	상위 지표	하위지표	설명문항	출처	척도	지표 방향	지표 종류	
관계		가족 관계만족도	나는 평소에 가족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YHC(2014), Q9-1)	5점	+	주관	
		부모 관계만족도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YHC(2014)	5점	+	주관	
		교우 관계만족도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YHC(2014), Q9-2)	5점	+	주관	
		교사 관계만족도	우리 지내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YHC(2014), Q9-3)	5점	+	주관	
		일반신뢰도 (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 이웃사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나요?	YHC(2014), Q9-3)	5점 4문항 (20점)	+	주관	
	직접적 관계	가족간의 대화시간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YHC(2014), Q9-4)	5점	+	객관 (설문)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학생은 일주일 평균 수업시간 외에 담임선생님과 몇 회 면담 하십니까?	YHC(2014), Q9-4)	5점	+	객관 (설문)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은 방과 후 하루 평균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YHC(2014), Q9-4)	5점	+	객관 (설문)
		이웃(지역사회)관계 만족도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YHC(2014), Q9-4)	5점	+	주관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나요?	YHC(2014), Q9-4)	5점 5문항 (25점)	+	주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지표	설문문항	출처	척도	지표 방향	지표 종류
주관적 웰빙		정서 상태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즐거움, 편안함, 행복함, 불안함, 슬픔, 우울함)	OECD(2013)	긍정 5점 3문항(15점), 부정 5점 3문항(-15점)	+	주관
		삶의 만족도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열 마나 만족하십니까?	OECD(2013)	11점 (0~10점)	+	주관
		유대모니아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OECD(2013)	5점	+	주관
건강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YHC(2014), Q1-1)	5점	+	주관
		스트레스 정도	나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YHC(2014), Q1-2)	5점	-	주관
	질병 유무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한국주거환경학회(2014)	2점	-	객관 (설문)	
	아침식사율	학생은 평소 일주일에 며칠 아침식사를 하십니까?	YHC(2014), Q2-1)	8점	+	객관 (설문)	
	고카페인 이용량	나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YHC(2014), Q2-2)	5점	-	객관 (설문)	
교육 효과		교과과정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YHC(2013), Q14-2)	5점	+	주관
		진로교육 만족도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5점	+	주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지표	설명문항	출처	최도	지표 방향	지표 종류
안전	사고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 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YHC(2014), Q10-2)	5점	+	주관
		학교시설 안전도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YHC(2014), Q10-1)	5점	+	주관
		위기상황대처 능력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있다	YHC(2014), Q10-4)	5점	+	주관
범죄	범죄 안전도	나는 우리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걸을때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YHC(2014) Q10-3)	5점	+	주관	
	사회안전망시설(CC TV) 구축인정도	나의 생활 주변 (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있다	YHC(2013), 교육부(2013)	5점	+	주관	
활동	활동 활동 기반	놀이친구점근성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YHC(2013), Q16-4)	5점	+	주관
		여기활동 시간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YHC(2014), Q14-1)	5점	+	주관
		여기활동 공간만족도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YHC(2014), Q14-2)	5점	+	주관
활동	여기활동 용돈만족도	여기활동 용돈만족도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이 충분하다	YHC(2014), Q14-3)	5점	+	주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설문문항	출처	척도	지표 방향	지표 종류
참여	참여 결정 요인	이동권리 인지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YHC(2013), Q18-4), 11)	5점	+	주관
		징계소명권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YHC(2013), Q18-7)	5점	+	주관
		학칙개정권	학교에서 교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YHC(2013), Q18-8)	5점	+	주관
참여	관용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YHC(2013), Q3-2)	5점	+	주관
		사회 참여	지역사회 유해 환경 인지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YHC(2013), Q18-6)	5점	+
환경	주거 환경 인식	지역사회 유해 환경 인지도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폐기물,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YHC(2013), Q2-10)	5점	+	주관
		주택만족도	우리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충남발전연구원(2012)	5점	+	주관
경제	소득/소비	가정경제만족도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환경(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통계개발원(2012)	11점 (0~10점)	+	주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출처(3차년)	단위	지표 방향	추출 날짜	대상 연령	지표 작성 주기	시계열 연도	수록 기간	산식	생산방식	지표 종류
건강	건강 상태	BMI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 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94-197.	%	-	.	중·고 등학생	1년	2010~2014	2005~2014	체중(kg)/[신장(m)] ²	행정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객관
		청소년 자살률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통계청,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2013015년7월20일인출.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2013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 http://kosis.kr/ 에서20157월20일인출	명 (10만명 당)	-	2014년 7월 20일 인출.	10~24세	1년	2010~2013	2000~2013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 인구 X 100,000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건강 결정 요인	건강	평균운동 시간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 박동이 정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38-141.	%	+	.	중·고 등학생	1년	2010~2014	2005~2014	.	행정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객관
		평균수면 시간	조사시점 직전 지난 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46-249.	시간	+	.	중·고 등학생	1년	2010~2014	2005~2014	.	행정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객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출처(3차년)	단위	지표 방향	추출 날짜	대상 연령	지표 작성 주기	시계열 연도	수록 기간	산식	생산방식	지표 종류
건강	건강 결정 요인	청소년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	-	.	중·고 등학생	1년	2010~2014	2005~2014	.	행정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객관
		청소년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96-99.	%	-	.	중·고 등학생	1년	2010~2014	2005~2014	.	행정자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객관
	인터넷 중독률	인터넷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	%	-	.	.	10~24세	1년	2010~2014	2004~2014	.	내부자료	객관
교육	교육 기회	학업 중단률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포락대책 지원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사망, 자살 제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교육통계연보/http://kess.kedri.re.kr/index에서2015년7월30일인출	%	-	.	초·중·고	1년	2010~2014	2010~2014	(학업중단 학생수/학생수) × 100	행정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객관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교육통계연보/http://kess.kedri.re.kr/index에서2015년7월30일인출	명	-	.	초·중·고	1년	2010~2014	1965~2014	1965~2014	학생수/학급수	행정자료 (교육통계 서비스)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업 성취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육부(2014). 2014년 학업성취도 보도자료	%	+	.	중3 고2	1년	2010~2014	2008~2014	.	보도자료 (학업성취도 보도자료)	객관
		사교육비 지출액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통계청(2014).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3에서2015년7월31일인출.	만원	※34)	2015년 7월 31일 인출.	전연령	1년	2010~2014	2009~2014	.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출처(3차년)	단위	지표 방향	추출 날짜	대상 연령	지표 작성 주기	시계열 연도	수록 기간	산식	생산방식	지표 종류
안전	사고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십만 명 당) (김지경 외, 2014)	도로교통공단(2014), 2014 년지역별교통사고통계, 국가 통계포털홈페이지, 2014년주 민등록인구연구인구. http://kosis.kr/에서2015년7월30 일인출.	명 (십만 명당)	-	2015 년7월 30일 인출.	10~2 4세	1년	2010~ 2014	2007~ 2014	(10~24세 교통 사고 사망자수 / 10~24세 주민 등록연인구) X 100,000	내부자료 (도로교통공단 통합DB)	객관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청소년 인구의 추락, 불의의 물에 빠짐,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기타 등으로 사망한 비율	통계청(201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m_path=13에서2015년7월30일인출.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2 년주민등록인구연구인구. http://kosis.kr/에서2015년7 월30일인출.	명 (십만 명당)	-	2015 년 7월 30일 인출.	10~2 4세	1년	2010~ 2013	2000~ 2013	(10~24세 안전 사고 사망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인구) X 100,000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안전	범죄	청소년 범죄 피해율	범죄피해율은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 (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성추행, 성폭력, 강간, 소매치기, 손괴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2012),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	-	.	.	2년	2010, 2012	2008~ 2012	.	내부자료 (형사정책 연구원)	객관
		이동학대 피해 경험률	18세 미만 이동·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당인수를 제외한 사례 중 이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 건수(김지경 외, 2014)	중영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 자료(2014), 국가통계포털홈 페이지, 2014년주민등록연인구. http://kosis.kr/에서20 15년7월30일인출.	10만 명당 건수	-	2014 년 : 2015 년 3월 17일 년마 감 기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1년	2010~ 2013	2001~ 2013	(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주민등록연인구) X 100,000	내부자료 (중영아동보호 전문기관)	객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출처(3차년)	단위	지표 방향	추출 날짜	대상 연령	지표 작성 주기	시계열 연도	수록 기간	산식	생산방식	지표 종류
안전	범죄	학교폭력 발생률	중1~고3 청소년 중 최근 1년간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	교육부(2013), 학교폭력대책자치자료/2013년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 서2015년7월30일인출.	학생 1000 명당 기해 건수	-	.	초중고 (8세~19세)	1년	2012~20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해학생수/학생수)×1000	내부자료 (교육부학교 폭력대책과)	개관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	지난 1년 동안 음악 연주회, 연극·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사회,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	통계청(2013), 2013 사회조사 원자료.	%	+	.	13~24세	2년	2011, 2013	2004~2013	.	행정자료 (통계청)	개관
활동	활동 상태	문화여가 지출비용	한달 평균 여가활동비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원	+	.	15세 이상	2년	2010, 2012, 2014	2006~2014	.	내부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개관
		동아리 활동 참여율	종교단체 제외한 청소년 시설·단체(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기관의 단체 포함),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예 : 인터넷 카페 등),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단체 포함)에 가입하여 참여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 (김지경 외, 2014)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회	+	.	9~24세	3년	2011, 2014			행정자료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개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출처(3차년)	단위	지표 방향	추출 날짜	대상 연령	지표 작성 주기	시계열 연도	수록 기간	산식	생산방식	지표 종류
활동	활동 상태	문화예술 시설 비율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	통계청(2013). 한국문화지표, p.344-345.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양인구. http://kosis.kr/에세이015년7월30일인출 .	인구 10만 명당 개소	+	2015년 7월 30일 인출.	전연령	1년	2011~2013	1979~2013	(문화예술시 설수/인구수) × 100,000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여성가족부(2014). 2013청 소년백서, p.418. 국가통계포 털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 인구연양인구. http://kosis.kr/에세이2015년7월30일인출 .	인구 10만 명당 개소	+	2015년 7월 30일 인출.	9~24세	1년	2010~2013	1991~2013	(청소년 활동 시설수/10~24세 청소년 인구) × 100,000	행정자료 (청소년백서)	객관
참여	사회 참여	청소년지 도시비율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3). 2013년 청소년수련 시설 통계 편람/국가통계 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양인구. http://kosis.kr/에세이2015년7월30일인출 .	명	+			1년	2012~2013	2012~2013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수련시설 수	행정자료 (청소년수련시 설 통계편람)	객관
		지인봉사 참여율	1년 동안 지인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통계청(2013). 2013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9P151R&com_path=33에세이2015년7월30일인출 .	%	+	2014. 06.08	13세 이상	2년	2011, 2013	2004~2013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환경	주거 기반	통학 소요시간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PA1018&com_path=3에세이2015년7월30일인출 .	분	-	2014. 06.07	12세 이상	5년	2010	2010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출처(3차년)	단위	지표 방향	추출 날짜	대상 연령	지표 작성 주기	시계열 연도	수록 기간	산식	생산방식	지표 종류
환경	주거 기반	복지 접근성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복지면적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녹색도시과/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ia/main/EachDIPageDetail.do?idx_cg=12052014년말도시공간현황2015년8월15일인출	m ²	+	2015년 8월 15일 인출	전연령	1년	2012~2014	2005~2013 (결정 면적), 2012~2014 (조성 면적)	(도시 공영 조성면적/ 도시지역인구) × (복지면적/ 인구)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지역경제 수준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시도))	지역 내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	재정고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백만 원	+	2015년 7월 30일 인출	전연령	1년	2010~2013	2003~2013	.	행정자료 (재정고)	객관
경제	소득/ 소비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	.	-		18~65세 남성 가구주 가운데 임금 근로자	분기/반기	2010~2014	2010~2014	$1 + (1 / N) - [2 / (m \cdot N^2)] \cdot \sum_{y=1}^{N-1} y$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복지	사회복지 지출 비율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	재정고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에서2015년7월30일인출	%	+	2015년 7월 30일 인출	전연령	1년	2010~2014	2008~2014	(사회복지분야 예산 / 자치단체예산 규모) × 100	행정자료 (재정고)	객관

영역	상위 지표	하위 지표	정의	출처(3차년)	단위	지표 방향	추출 날짜	대상 연령	지표 작성 주기	시계열 년도	수록 기간	산식	생산방식	지표 종류
경제	복지	이동 청소년 국민 기초생활 수혜비율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2p/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잉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인구 10만 명당 수혜 자 수	-		10~24세	1년	2010~2013	2001~2014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수/10~24세 주민등록연잉 인구) × 100,000	행정자료 (보고서_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과(국민기초생활보장 활보장 수급자 현황))	객관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_T_1DA7015&conn_path=3에서2015년7월30일인출	%	+	2015년 7월 30일 인출	15세 이상	1년	2010~2014	1999 3/4 ~ 2015 2/4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 100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고용	실업률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	재정고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에서2015년7월30일인출	%	-	2015년 7월 30일 인출	15세 이상	1년	2010~2014	1999 3/4 ~ 2015 2/4	.	행정자료 (통계청)	객관

34) 신행연구에 따라 +, -가 다를 수 있는 가치중립적 지표

10. 소결

1) 영역별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9개 영역, 68개 세부 지표-37개의 객관적 지표와 31개의 주관적 지표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영역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과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제주, 경기, 전북이다. 부산지역에서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제주지역에서 가족관계만족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경기지역에서 가족 간의 대화시간, 전북에서 담임교사와 면담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지역에서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향후 부산지역의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심층분석하거나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관계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어, 다른 지역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건강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대전, 제주, 전남, 충남, 충북, 서울, 경북이다. 부산지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인터넷 중독률이다. 즉 부산지역은 주관적 건강상태 만족도는 높으나 인터넷중독률이 높아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에서는 비만율(BMI), 질병유무가 높게 나타나 질병예방 및 비만을 낮추기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교육 및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서는 아침식사율, 평균수면시간,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청소년들이 음주율을 줄이기 위해 음주 예방 교육 및 금주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남지역에서 자살율, 충북지역에서 고카페인 이용량, 서울지역에서는 평균 운동시간, 경북지역에서는 흡연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육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부산이다. 서울지역에서는 학업중단율이 높아 나타났는데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경기지역

에서는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가, 대구지역에서는 학업성취율이, 서울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부산지역에서는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강원, 제주, 서울, 전남, 전북, 대구, 인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범죄안전도가, 강원지역에서는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이, 제주지역에서는 안전사고 사망률이, 서울지역에서는 범죄안전도가, 전남지역에서는 청소년 범죄피해율이, 전북지역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대구지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률이, 인천지역에서는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활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대전, 울산, 전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다. 대전지역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울산지역에서는 문화여가 지출비용이, 전남지역에서는 문화예술시설 비율이, 경기지역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비율이, 인천지역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비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공간만족도가, 전북지역에서는 여가활동시간만족도가, 강원지역에서는 여가활동 용돈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참여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제주, 대전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이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이, 제주지역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가, 대전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환경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제주, 부산, 인천, 세종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가, 부산지역에서는 주택만족도가, 인천지역에서는 통학소요시간이, 세종지역에서는 녹지접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서울, 울산, 대전, 전북, 제주, 인천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 지니계수가, 울산지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대전지역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전북지역에서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제주지역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인천지역에서는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과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대전, 전남, 충북, 광주, 강원, 울산, 전북이다. 대전지역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전남지역에서는 부모관계만족도가, 충북지역에서는 교우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광주지역에서는 교사관계만족도가, 강원지역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시간이, 울산지역에서는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가, 전북지역에서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울산, 전남, 인천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가, 전남지역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인천에서는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건강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전북, 강원, 경기, 세종, 울산, 충남, 경북, 서울, 광주, 대전, 대구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강원지역에서는 스트레스 강도, 질병유무, 음주율, 경기지역에서는 비만율(BMI)이, 세종지역에서는 자살률이, 울산지역에서는 아침식사율이, 충남지역에서는 고카페인 이용량이 경북지역에서는 평균 운동시간이 서울과 광주와 대전지역에서는 평균 수면시간이, 대구지역에서는 흡연율, 인터넷 중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세종, 전남, 울산이다. 부산지역에서 학업중단율이, 세종지역에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가, 전남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액이, 울산지역에서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충북, 전북, 세종, 서울, 광주, 충남, 경남, 전남이다. 충북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시설안전도가, 전북지역에서는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세종지역에서는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이, 서울지역에서는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율이, 광주지역에서는 범죄안전도가, 충남지역에서는 청소년 범죄피해율이, 경남지역에서는 학교폭력발생률이, 전남지역에서는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활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전남, 세종, 부산, 울산, 충북, 광주, 대전이다. 전남지역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 용돈만족도가, 세종지역에서는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부산지역에서는 문화예술시설비율이, 울산지역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비율이, 충북지역에서는 여가활동시간만족도가, 광주와 대전지역에서는 여가활동공간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전남, 전북, 울산, 제주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아동권리인지도, 징계소명권이, 전북에서는 학칙개정권, 학생대표 운영위 참여기회가, 울산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제주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환경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충북, 강원, 제주이다. 충북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가, 강원지역에서는 통학소요시간이, 제주지역에서는 녹지접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충북, 대구, 충남, 제주, 울산, 강원이다. 충북지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가, 대구지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충남에서는 지니계수가, 제주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율, 실업율이, 울산에서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강원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39 영역별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지표 영역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	-	+	-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제주: 가족관계만족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경기: 가족 간의 대화시간, 전북: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가족관계 만족도 전남: 부모관계만족도 충북: 교우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광주: 교사관계만족도 강원: 가족 간의 대화시간 울산: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일반신뢰도 (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가 전북: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행복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정서 상태(불안한, 슬픈, 우울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행복한) 전남: 삶의 만족도 인천: 유데모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 정서 상태 (불안한, 슬픈, 우울한)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주관적 건강상태 충남: 아침식사율, 평균수면시간 서울: 평균 운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인터넷 중독률 제주지역: 비만율 (BMI), 질병유무 대전지역: 스트레스 정도 충남: 음주율 전남: 자살율 충북: 고카페인 이용량 경북: 흡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주관적 건강상태 울산: 아침식사율 경북: 평균 운동시간 서울과 광주와 대전: 평균 수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스트레스 강도, 질병유무, 음주율 경기: 비만율 (BMI) 세종: 자살률 충남: 고카페인 이용량 대구: 흡연율, 인터넷 중독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학업성취율 서울: 사교육비 지출액 부산: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학업 중단율 경기: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학업성취도 전남: 사교육비 지출액 울산: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학업 중단율 세종: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지표 영역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	-	+	-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범죄 안전도 서울: 범죄안전도 인천: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제주: 안전사고 사망률 전남: 청소년 범죄피해율 전북: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대구: 학교폭력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전북: 위기상황 대처능력 세종: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광주: 범죄안전도 전남: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충남: 청소년 범죄피해율 경남: 학교폭력발생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동아리활동 참여율 울산: 문화여가 지출비용 전남: 문화예술시설 비율 경기: 청소년 활동시설비율 인천: 청소년 지도사 비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전북: 여가활동시간만족도 강원: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세종: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부산: 문화예술시설비율 울산: 청소년 활동시설비율 충북: 여가활동시간만족도 광주와 대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제주: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대전: 자원봉사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아동권리인지도, 징계소명권 전북: 학칙개정권, 학생대표 운영위 참여기회 울산: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제주: 자원봉사 참여율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부산: 주택만족도 세종: 녹지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통학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 제주: 녹지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통학소요시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가정경제만족도 울산: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전: 사회복지지출 비율 제주: 경제활동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지니계수 전북: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인천: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가정경제만족도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제주: 사회복지지출 비율 강원: 경제활동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지니계수 제주: 실업률 울산: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 도시규모별 특징

도시규모별 특징을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가족 간의 대화시간(시지역과 도지역이 같음)을 제외한 모든 하위 지표는 도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영역은 정서상태(시지역과 도지역이 같음)를 제외한 모든 하위 지표에서 도지역에 비해 시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영역에서 도지역에 비해 높은 시지역 하위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운동시간, 인터넷 중독률이다. 시지역에 비해 도지역이 높은 하위지표는 청소년 비만율(BMI), 질병유무, 청소년 자살률,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이다. 시지역과 도지역이 같은 하위지표는 아침식사율, 스트레스 정도이다. 교육영역에서 모든 하위지표는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에서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을 제외한 모든 하위지표는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활동영역에서 문화예술 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비율, 청소년지도사비율을 제외한 모든 하위지표들은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참여영역에서 자원봉사참여율을 제외한 모든 하위지표들은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환경영역에서 녹지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지표들은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경제영역에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외한 모든 하위지표는 시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표 IV-140 도시규모별 특징

지표 영역	도지역 > 시지역		도지역 < 시지역	
	+	-	+	-
관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가족 간의 대화시간(시지역과 도지역이 같음)		가족 관계만족도, 부모 관계만족도, 교우 관계만족도, 교사 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정서상태(시지역과 도지역이 같음)	

지표 영역	도지역 > 시지역		도지역 < 시지역	
	+	-	+	-
건강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비만율 (BMI), 질병유무, 청소년 자살률, 고카페인 이용량,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운동시간	인터넷 중독률
교육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학업중단을,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안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발생률	지역사회시설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범죄 안전도,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인지정도	청소년 범죄피해율
활동	문화예술시설비율, 청소년활동시설비율, 청소년지도사비율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참여	자원봉사참여율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기회	
환경	녹지접근성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 통학소요시간	
경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가정경제만족도, 사회복지지출 비율	지니계수, 실업률

3) 권역별 특징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관계영역에서 교우관계 만족도, 가족간 대화시간이고, 건강영역에서 평균운동시간이고, 교육영역에서 학업중단을,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수, 사교육비 지출액이고, 활동영역에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이고, 참여영역에서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이, 환경영역에서 통학소요시간이, 경제영역에서 가정경제만족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율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안전영역에서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발생률이고, 활동영역에서 문화예술시설비율이, 환경영역에서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이고, 경제영역에서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다.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건강영역에서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고카페인 이용량, 청소년 음주율이고, 안전영역에서 범죄안전도이다. 충청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건강영역에서 평균운동시간이고, 교육영역에서 진로교육 만족도이고, 활동영역에서 청소년활동시설비율이고, 참여영역에서 학칙개정권이고, 경제영역에서 지니계수이다.

영남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관계영역에서 교우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이고, 주관적웰빙 영역에서는 정서상태(즐거운,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이고, 건강영역에서는 인터넷 중독률이고, 교육영역에는 학업성취도이고, 안전영역에서는 위기상황 대처능력이고, 활동영역에서는 문화예술활동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이고, 경제영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다. 영남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관계영역에서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고, 건강영역에서 질병유무, 청소년 자살율이다.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관계영역에 담임교사와 면담횟수이고, 건강영역에서 자살률, 고카페인이용량, 청소년 흡연율이고, 안전영역에서 학교폭력 발생률이고, 환경영역에서 녹지접근성이고, 경제영역에서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다. 호남권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관계영역에서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이고, 주관적웰빙영역 전체이고, 건강영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청소년 비만율, 아침식사율, 평균수면시간이고, 교육영역에서

학업중단율, 학업성취도, 교과과정 만족도이고, 안전영역에서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이고, 활동영역에서 문화여가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이고, 참여영역에서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 운영위 참여기회이고, 환경영역에서 주택만족도이고, 경제영역에서 가정경제만족도,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강원/제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관계영역에서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고, 주관적웰빙영역에서 삶의만족도, 유데미니아이고, 건강영역에서 주관적건강상태, 비만율, 아침식사율, 평균수면시간이고, 교육영역에서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만족도이고, 안전영역에서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이고, 활동영역에서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비용, 여가활동용돈만족도이고, 참여영역에서 아동권리인지,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이고, 환경영역에서 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이고, 경제영역에서 지니계수이다. 강원/제주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교육영역에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사교육비 지출액이고, 안전영역에서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지정도이고, 활동영역에서 문화예술활동 참여율환경영역에서 통학소요시간, 녹지 접근성이고, 경제영역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사회복지지출비용, 실업률이다.

객관지표에서 기간에 대한 변화양상이 가장 큰 지역과 지표를 살펴보면, 건강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충북, 부산, 충남, 강원, 제주이다. 충북지역에서 자살률(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0년 12.4명에서 2013년 7.0명으로 5.4명 감소하였다. 부산지역에서 평균운동시간³⁵⁾이 2010년 9.2%에서 2014년 14.5%로 5.3% 증가하였다. 충남지역에서 평균수면시간이 2010년 6.3시간에서 2014년 6.6시간으로 0.3시간 증가했다. 강원지역에서 흡연율이 2010년 17.8%에서 2014년 8.1%로 9.7% 감소했고, 음주율이 2010년 25.4%에서 2014년 14.4%로 11.0% 증가했다. 제주지역에서 인터넷 중독률이 2013년 11.1%에서 2014년 5.4%로 5.7% 감소했다. 부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전북, 경북, 전남, 부산이다. 전북지역에서 자살률(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0년 9.8명에서 2013년 13.1명으로 3.3명 증가하였고, 비만율이 2010년 7.5%에서 2014년 10.5%로 3.0% 증가했다. 경북지역에서 흡연율이 2010년 9.9%에서

35)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014년 11.3%로 1.4% 증가했고, 비만율이 2010년 8.8%에서 2014년 11.8%로 3.0% 증가했다. 부산지역에서 인터넷 중독률이 2013년 11.0%에서 2014년 21.7%로 10.7% 증가했다. 부산지역에서 인터넷 중독률이 2013년 11.0%에서 2014년 21.7%로 10.7% 증가했다.

교육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서울, 대구, 부산이다. 서울지역에서 학업중단율이 2012년 1.5%에서 2014년 1.3%로 0.2% 증가했다. 대구지역에서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가 2010년 31.7명에서 2014년 27.0명으로 4.7명 줄었다. 부산지역에서 학업성취도가 2011년 80.2%에서 2014년 84.9%로 4.7% 증가했다.

안전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전북, 광주이다.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이 2010년 16.5명에서 2013년 7.5명으로 9.0명 감소하였고, 학교폭력 발생률이 2012년 9.0명에서 2014년 5.0명으로 4.0명 감소하였다. 광주지역에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2010년 66.4명에서 2014년 52.9명으로 13.5명 감소하였다. 부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대구, 울산, 전북, 제주이다. 대구지역에서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이 2010년 1,973명에서 2014년 2,512명으로 538명 증가하였다. 울산지역에서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이 2010년 8.1명에서 2013년 10.9명으로 2.8명 증가했다.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90.6명에서 2014년 272.4명으로 181.8명 증가하였다. 제주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률이 2012년 3.5명에서 2014년 4.8명으로 1.2명 증가하였다.

활동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대전, 전남, 강원이다. 대전지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 2011년 78.6%에서 2013년 92.7%로 14.1% 증가했고, 동아리활동 참여율이 2011년 19.4%에서 2014년 83.1%로 63.7% 증가했다. 전남지역은 2010년 75,820원에서 2014년 89,130원으로 13,310원 증가했고, 문화예술시설 비율이 2011년 58.0개에서 2013년 60.1개로 2.1개 증가했다. 강원지역에서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이 2010년 25.5개에서 2013년 30.3개로 4.8개 증가했다. 제주지역에서 청소년 지도사 비율이 2010년 0.8명에서 2013년 1.0명으로 0.2명 증가했다. 부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전남,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이다. 전남지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이 2011년 80.4%에서 2013년 73.2%로 7.2% 감소했다. 부산지역에서 2010년 271,591원에서 2014년 112,735원으로 158,866원 감소했다. 대전지역은 문화예술시설 비율이 2011년 31.5개에서 2013년 28.3개로 3.2개 감소했다. 울산지역에서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이 2010년 3.6개에서 2013년 3.3개로 0.3개 감소했다.

참여영역에서 대전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2011년 20.3%에서 2013년 24.8%로 4.5% 증가했고, 경북지역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2011년 24.6%에서 18.5%로 6.1% 감소했다.

활동영역에서 전남지역에서 녹지접근성이 2012년 15.7%에서 2014년 26.1%로 10.4% 증가했다. 세종지역에서 녹지접근성은 2012년 195.4m²에서 2014년 176.5m²으로 18.9m²로 감소했다.

경제영역에서 긍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충남, 서울, 충북, 울산이다. 충남지역에서 지니계수가 2010년에 0.30에서 2014년에 0.26으로 0.04감소했다. 서울지역에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010년에 20.3%에서 2014년에 31.8%로 11.5% 증가했다. 충북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61.0%에서 2014년 63.7%로 2.7% 증가했다. 울산지역에서 실업률이 2010년에 3.6%에서 2014년 2.7%로 0.9% 감소했다.

부정적으로 가장 큰 변화양상을 보인 지역은 제주, 광주, 울산, 충북이다. 제주지역에서 us 지니계수가 2010년 0.29에서 2014년 0.32로 0.03증가했다. 광주지역에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2010년 3,001명에서 2013년 5,404명으로 2,403명이 증가했다. 울산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60.5%에서 2014년 59.5%로 1.0% 감소했다. 충북지역에서 실업률이 2010년에 2.2%에서 2014년 3.0%로 0.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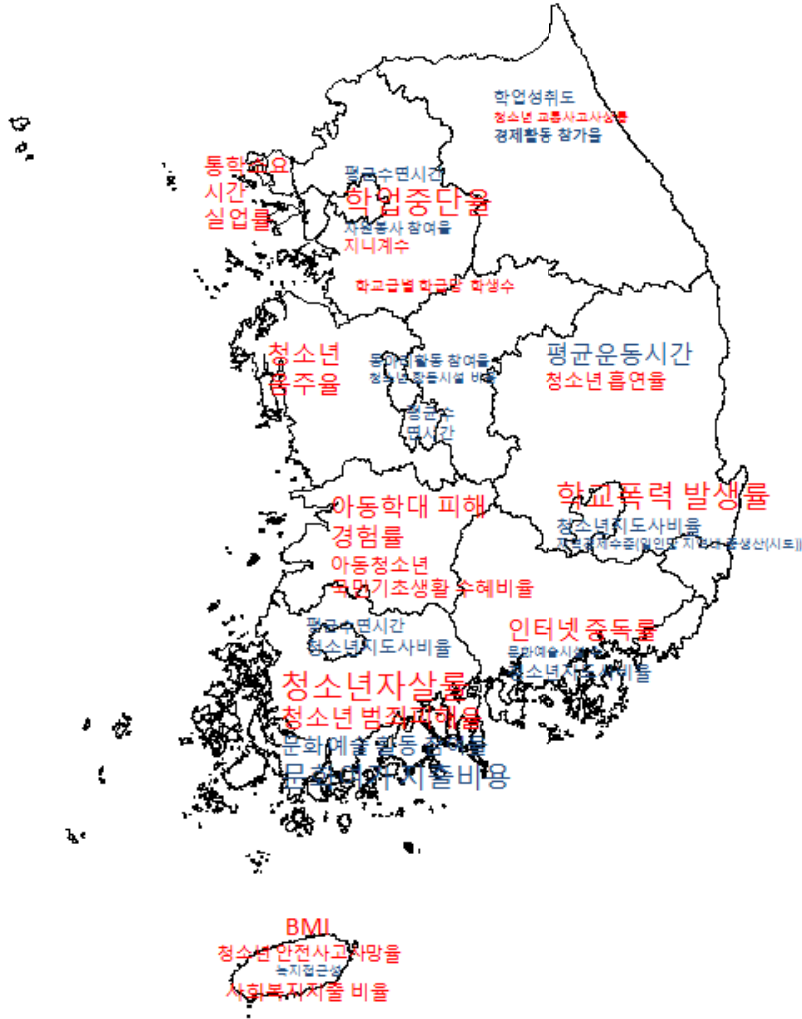
표 IV-141 권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측정결과 비교

	최상위 지표		최하위 지표	
	+	-	+	-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교우관계만족도, 가족간 대화시간 건강: 평균운동시간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활동: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놀이친구접근성, 여가활동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참여: 징계소명권, 학칙 개정권 경제: 가정경제만족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학업 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환경: 통학 소요시간 경제: 실업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문화예술시설비율 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경제: 아동·청소년 국민기초 생활 수혜비율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범의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고카페인이용량, 청소년 음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평균운동시간 교육: 진로교육 만족도 활동: 청소년활동시설비율 참여: 학칙개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지니계수

	최상위 지표		최하위 지표	
	+	-	+	-
영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교우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주관적웰빙: 정서상태 (즐거움, 편안한, 행복한) 교육: 학업성취 안전: 위기상황 대처능력 활동: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 비용 경제: 1인당 지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웰빙: 정서상태 (불안한, 슬픈, 우울한) 건강: 인터넷 중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질병유무, 청소년 자살율
호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환경: 녹지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자살률, 고카페인이용량, 청소년 흡연율 안전: 학교폭력 발생률 경제: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사람),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 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주관적웰빙: 전체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아침식사율, 평균수면시간 교육: 학업성취도, 교과과정만족도 안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위기상황대처능력 활동: 문화여가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놀이 친구접근성,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여가활동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참여: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 운영위 참여기회 환경: 주택만족도 경제: 가정경제만족도, 경제 활동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청소년 비만율 교육: 학업 중단율,

	최상위 지표		최하위 지표	
	+	-	+	-
강원/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유대모니아 •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아침식사율, 평균수면시간 • 교육: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만족도 • 안전: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 안전망시설(CCTV)구축인 지정도 • 활동: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비율, 여가활동용돈만족도 • 참여: 아동권리인지, 소수 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기회 • 환경: 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지니 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 간의 대화시간 •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 안전: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시설(CCTV)구축인 지정도 • 활동: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 환경: 녹지점근성 • 경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사회복지지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이용률,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인터넷 중독률 • 교육: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 환경: 통학소요 시간, • 경제: 실업률

4) 객관지표 가장 열악한 지역



【그림 V-203】 객관지표 가장 열악한 지역

표 IV-142 객관지표 가장 열악한 지역

	최상위 지표(-)	최하위 지표(+)
서울	학업중단율, 지니계수	평균수면시간, 자원봉사 참여율
부산	인터넷 중독률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지도사비율
대구	학교폭력 발생률	청소년지도사비율, 지역경제수준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시도)
인천	실업률	통학소요시간
광주		평균수면시간, 청소년지도사비율
대전		평균수면시간
세종		동아리활동 참여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경기		학교급별 학급당학생수
강원	청소년 교통사고사상률	학업성취도, 경제활동 참가율
충남	청소년 음주율	
전북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전남	청소년자살률, 청소년 범죄피해율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경북	청소년 흡연율	평균운동시간
제주	BMI,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	녹지접근성, 사회복지지출 비율

그림은 객관지표들이 가장 열악한 지역과 열악한 정도를 해당 지역 내 상이한 글자 크기의 지표명에 의해 표시하고 있다. 특히, 개별 객관지표들의 측정단위와 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객관지표를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화 변수로 전환한 후에 가장 열악한 지역의 값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 지표의 경우 수치가 가장 낮은 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반면에 부정적 지표는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학업 중단율, 지니계수, 평균수면시간, 자원봉사 참여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학업 중단율이 지니계수, 평균수면시간, 자원봉사 참여율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서울에서는 학업 중단율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인터넷 중독률,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지도사비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인터넷 중독율이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지도사비율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부산에서는 인터넷 중독율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구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률, 청소년지도사비율,

지역경제수준(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시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발생율이 청소년지도사비율, 지역경제수준(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시도))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대구에서는 학교폭력발생율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실업률, 통학소요시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실업률이 통학소요시간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인천에서는 실업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광주의 경우 평균수면시간, 청소년지도사 비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광주에서는 평균수면시간, 청소년지도사 비율에서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전의 경우 평균수면시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평균수면시간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의 경우 동아리활동 참여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동아리활동 참여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의 경우 학교급 별 학급당 학생수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학교급별 학급당학생수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외의 경우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학업성취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교통사고 사상률, 학업성취도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강원에서는 교통사고 사상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청소년 음주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음주율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이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전북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청소년자살률, 청소년 범죄피해율,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청소년자살률이 청소년 범죄피해율,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전남에서는 청소년자살률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경북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 평균운동시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평균운동시간이 청소년 흡연율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경북에서는 평균운동시간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주의 경우 BMI,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율, 녹지접근성, 사회복지지출 비율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해당한다. BMI가 청소년 안전사고사망율, 녹지접근성, 사회복지지출 비율에 비해 열악성이 심각하므로 제주에서는 BMI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17개 시도별 · 권역별 정리

표 IV-143 17개 시도별 · 권역별 정리

권역	17개 시도별				권역별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권역별 최상위 지표		권역별 최하위 지표	
	(+)	(-)	(+)	(-)	(+)	(-)	(+)	(-)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평균 운동시간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안전: 범죄인전도 경제: 가정경제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학업 중단율 경제: 지니 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평균 수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인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교육관계만족도, 가족간 대화시간, 건강: 평균운동시간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활동: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청소년 활동 시설 비율, 놀이친구 접근성, 여가활동시간 만족도, 여가활동공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학업 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환경: 통학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문화예술 시설비율 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 안전 사고 사망률, 이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 폭력발생률 경제: 아동 · 청소년 국민 기초생활수혜 비율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사회안전망시설 (CCTV) 구축인전정도 활동: 청소년 지도사 비율, 놀이친구 접근성, 여가활동공간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통학 소요시간 경제: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웰빙: 유테모니아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가족간의대화 시간 활동: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비만율 (B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경제: 가정경제만족도, 사회복지지출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실업률 		

권역별	17개 시도별				권역별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권역별 최상위 지표		권역별 최하위 지표		
	(+)	(-)	(+)	(-)	(+)	(-)	(+)	(-)	
수도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동아리활동 참여율 • 경제: 자원봉사 참여율 • 경제: 사회복지지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스트레스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 건강: 평균 수면 시간 • 활동: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녹지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학업성취도 • 안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 활동: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 활동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자살률 • 교육: 학교급별 학생 수,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고가 페인 이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교육관계 만족도, 일반 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 안전: 지역사회 시설안전도 • 활동: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 환경: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 • 경제: 가정경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범죄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고키페인 이용량, 청소년 음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평균운동 시간 • 교육: 진로교육 만족도 • 활동: 청소년활동 동시설비율 • 참여: 학력개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지니계수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아침식사율, 평균수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음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고키페인 이용량 • 안전: 청소년 범죄피해율 • 경제: 지니계수 					

충청권

권역별	17개 시도별				권역별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권역별 최상위 지표		권역별 최하위 지표	
	(+)	(-)	(+)	(-)	(+)	(-)	(+)	(-)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토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토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정부) 주관적행방: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함, 행복함), 삶의 만족도, 유대모니아 간강: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안전: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범죄 안전도 참여: 이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 개정권 환경: 주택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행방: 정서상태(불안함, 슬픈 우울함) 간강: 인터넷 중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문화예술 시설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학업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교우관계만족도,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토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정부) 주관적행방: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함, 행복함) 교육: 학업성취 안전: 위기상황 대처능력 활동: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경제: 1인당 지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행방: 정서상태(불안함, 슬픈 우울함) 간강: 인터넷 중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강: 질병유무, 청소년 자살율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학업성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학교 폭력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1인당 지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강: 흡연율, 인터넷 중독률 				

권역별	17개 시도별				권역별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권역별 최상위 지표		권역별 최하위 지표		
	(+)	(-)	(+)	(-)	(+)	(-)	(+)	(-)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문화여가 지출비용 • 경제:1인당 지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담임교사와 면담회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일반신투포(우 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 기관, 지방·중앙 정부) • 주관적웰빙: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함, 행복함) • 건강:이점사용 • 교육:교과과정 만족도, 진로 교육 만족도 • 활동:청소년 활동시설투입률 • 참여: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		(+)	(-)	(+)	(-)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흡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평균 운동시간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학교 폭력발생률 					

권역별	17개 시도별				권역별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권역별 최상위 지표		권역별 최하위 지표	
	(+)	(-)	(+)	(-)	(+)	(-)	(+)	(-)
시도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교서관계 만족도 건강:평균 수면시간 안전:범죄안전도 활동:여가활동 공간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가족관계 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시민도 (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랑,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일반시민도 (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주관직렬별: 전체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이웃(지역사회) 일반시민도 안전: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 주관직렬별: 전체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이웃(지역사회) 일반시민도 평균수면시간 교우:학업성취도 교과편정 만족도 안전:지역사회 일반안전도, 위기 상황대처능력 활동: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 활동 참여율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담임교사와면담 횟수 활동:여가활동시간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경제: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이웃 (지역사회)관계 만족도 건강:주관적 건강상태 안전:위기상황 대처능력 참여:학칙개정 권, 학생대표 운영위 참여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담임교사와 면담횟수 환경:복지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자살률, 고키메인 이용량, 청소년 흡연율 안전: 학교폭력 발생률 경제: 아동·청소년 국민기초 생활 수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청소년 비만율 교육: 학업중단율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문화예술시설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자살률 안전:청소년 범죄피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모관계 만족도 주관직렬별:삶의 만족도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안전: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인지도 활동: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권역별	17개 시도별				권역별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권역별 최상위 지표		권역별 최하위 지표		
	(+)	(-)	(+)	(-)	(+)	(-)	(+)	(-)	
권역									
시도									
호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친구접근성, 여기활동 옹돈만족도 • 참여: 아동권리 인지도, 징계소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친구접근성, 여기활동 옹돈만족도 • 참여: 아동권리 인지도, 징계소명권, 소수 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 운영의 참여 기회 • 환경: 주택만족도 • 경제: 가정경제 만족도, 경제활동참가율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여기활동 옹돈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청소년 교통 사고 사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 간의 대화시간 • 강원: 경제활동 참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음주율 • 환경: 통학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 간의 대화시간 •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 안전: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 구축(CCTV)구축인지도 • 활동: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 환경: 복지접근성 대한 관용적 태도, 경제: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음료,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인터넷 중독률 • 교육: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환경: 통학소시간, 		
강원/제주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관계만족도, 방과후친구와보내는 시간 • 참여: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비만율(BMI), 질병유무 • 안전: 안전 사고 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자원봉사 참여율 • 환경: 복지접근성 • 경제: 사회복지 지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스트레스 정도, 질병유무, 음주율 • 환경: 통학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유대모니아 •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아침식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가족 간의 대화시간 • 교육: 사교육비 지출액 • 안전: 범죄안전도, 사회안전망 구축(CCTV)구축인지도 • 활동: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 환경: 복지접근성 대한 관용적 태도, 경제: 1인당 		

권역별	17개 시도별				권역별			
	최상위 지역		최하위 지역		권역별 최상위 지표		권역별 최하위 지표	
	(+)	(-)	(+)	(-)	(+)	(-)	(+)	(-)
시도								
권역	<p>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 경제:경제활동참가율 				<p>평균수면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 안전:지역사회 시설안전도,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 시설(CCTV)구축인 지장도 • 활동: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비율, 여가활동용돈만족도 • 참여:아동권리인지,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 환경: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 		<p>지역내총생산 사회복지지출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실업률 	

제 V 장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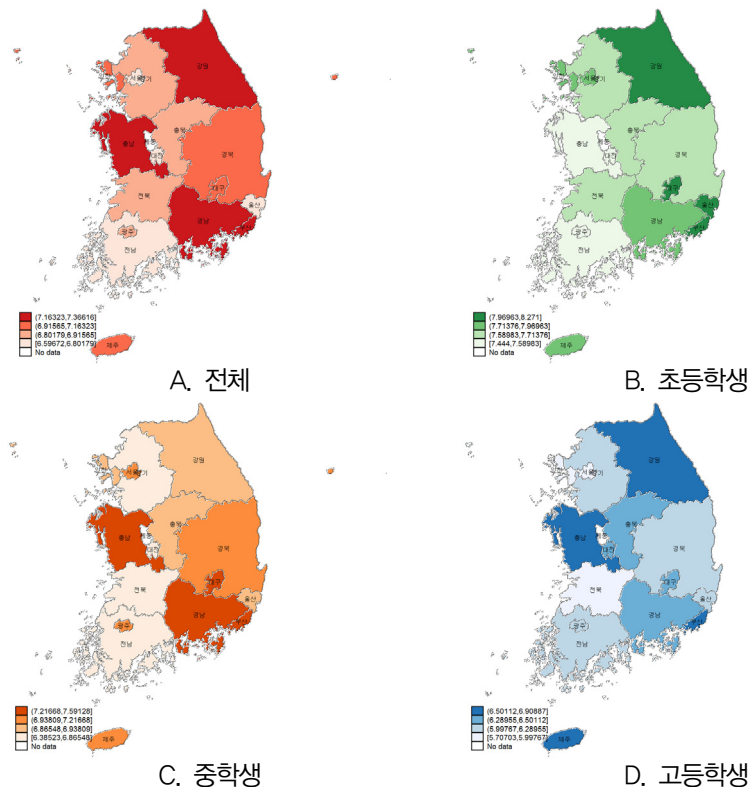
1. 삶에 대한 만족도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제 V 장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산출

1. 삶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부산, 강원과 충청, 경남과 제주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전남,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³⁶⁾



【그림 V-1】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36)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설문조사에서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령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강원, 대구, 부산, 울산, 등의 순으로 높고, 광주, 전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산, 대구와 충남, 경남, 경북 등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대전과 전남, 경기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 충남, 부산 등에서 6점대의 만족도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V-1 학교급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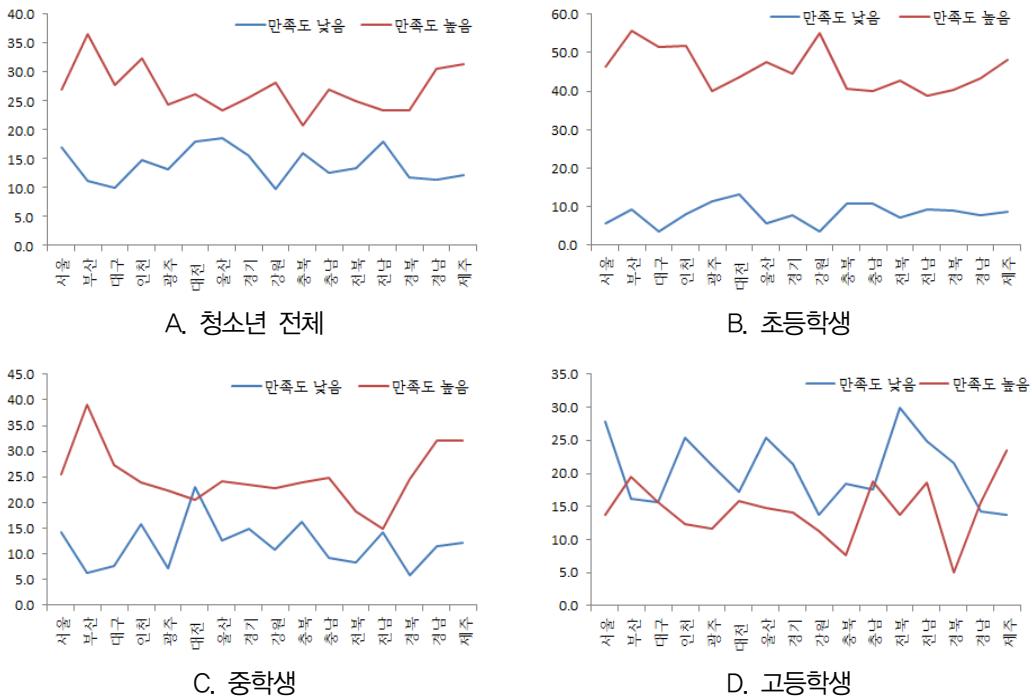
지역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서울	6.80	7.89	6.95	5.86
부산	7.37	8.15	7.59	6.55
대구	7.16	8.21	7.29	6.49
인천	7.06	7.87	6.88	5.89
광주	6.82	7.44	7.09	5.91
대전	6.80	7.56	6.39	6.48
울산	6.69	8.05	6.92	6.13
경기	6.80	7.69	6.80	6.19
강원	7.17	8.27	6.93	6.51
충북	6.84	7.62	6.90	6.39
충남	7.17	7.56	7.29	6.74
전북	6.82	7.65	6.85	5.71
전남	6.60	7.50	6.39	6.18
경북	6.99	7.67	7.18	6.09
경남	7.16	7.76	7.25	6.46
제주	7.16	7.73	7.16	6.91

* 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됨.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집단(9점 혹은 10점)과 그렇지 않은 집단(0~4점)의 비중 간 차이는 학령기가 높아질수록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만족하는 비중이 모든 지역에 걸쳐 만족하지 못하는

비중에 비해 높으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이 두 비중 간 격차가 좁혀지며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제주, 부산, 충남에서만 고등학생 가운데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전북, 경북, 인천, 서울, 울산 등에서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의 비중 대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중학생에 있어서도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중이 23.0%로 만족하는 비중인 20.5%에 비해 높은 유일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그림 V-2】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0~4점인 경우의 비중과 9~10점인 경우의 비중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주관적 웰빙) 이외의 개별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영역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관계영역에서는 부산(7.81점), 충남(7.66점), 대구(7.61점)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전북(7.05점), 전남(7.15점), 충북(7.18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³⁷⁾

37)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건강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국의 수치가 7.33점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7.67점을 기록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6.84점을 나타내는 전남으로 조사된다.³⁸⁾ 전국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을 비롯해 충남(7.54점), 인천(7.52점), 대구(7.50점) 등을 포함한다.

교육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부산(7.57점), 충남(7.34점), 인천(7.29점)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³⁹⁾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역은 전북으로 6.62점의 평균적인 만족도를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전남(6.66점), 울산(6.75점), 충북(6.87점)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보인다.

안전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부산에서 7.5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 7.51점, 인천 7.27점, 강원 7.22점 등을 포함한다.⁴⁰⁾ 한편,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6.68점의 평균 수치를 나타낸 전북에 해당하며 충북(6.76점), 전남(6.80점), 경기(6.91점)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참여영역에서의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개 영역에서 가장 낮은 6.07점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는 울산에서 5.56점으로 가장 낮고 이와 더불어 강원과 충북에서 5.83점, 경기에서 5.94점으로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⁴¹⁾ 반면에,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6.60점), 인천(6.47점)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산은 간접적 관계를 구성하는 두 세부 지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활동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이 6.86점에 해당하고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7.17점을 기록하는 반면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울산으로 6.35점의 만족도를 보인다.⁴²⁾

경제영역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남(7.66점), 제주(7.57점), 부산(7.56점) 등을 포함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83점), 충북(6.96점), 경기(7.22점), 대구(7.25점), 광주(7.26점) 등을 포함한다.⁴³⁾ 한편, 전국 평균 만족도는 7.32점으로 나타난다.

38)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는 “또래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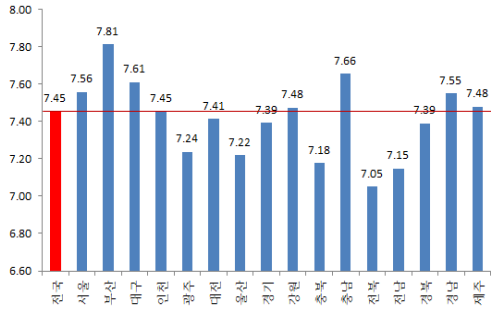
39)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40) 안전영역에서의 만족도는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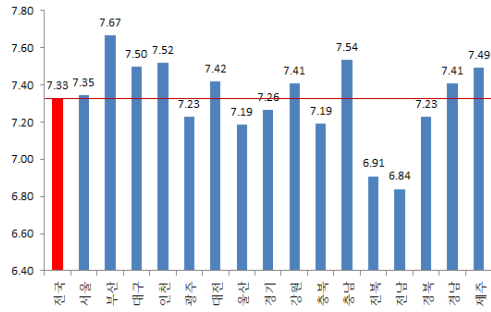
41) 참여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42) 활동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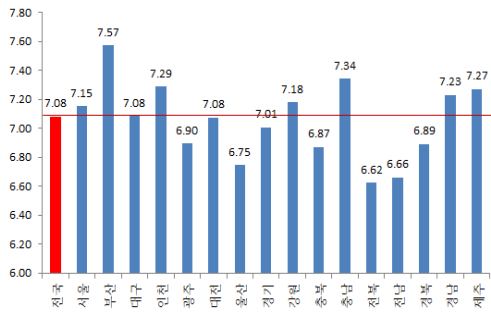
43)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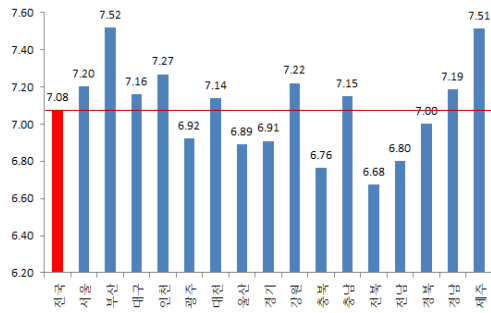
A.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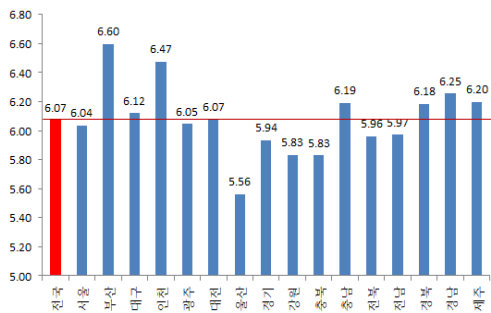
B.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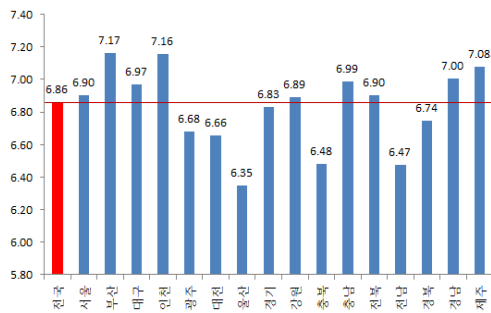
C.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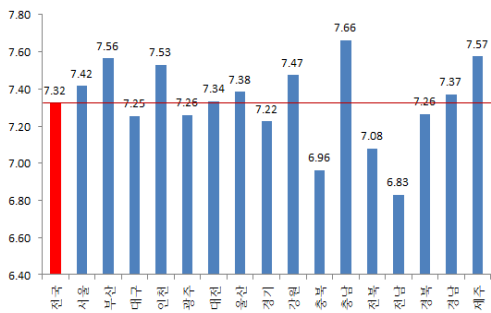
D.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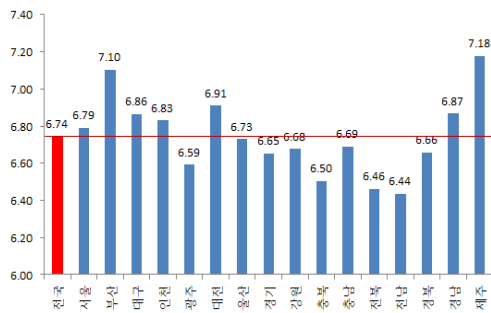
E. 참여



F. 활동



G. 경제



H. 환경

【그림 V-3】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환경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제주(7.18점), 부산(7.10점), 대전(6.91점) 등의 순으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6.44점), 전북(6.46점), 충북(6.50점) 등을 포함한다.⁴⁴⁾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1) 영역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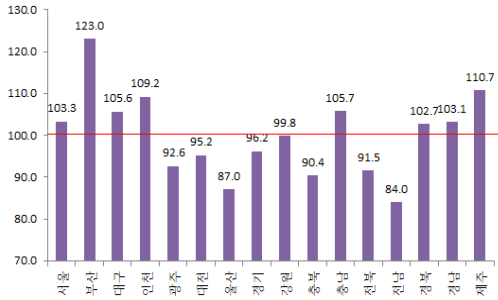
청소년의 행복은 68개 세부 지표(변수)를 포함하며 이를 이용해 23개의 상위 지표를 측정된 후에 다시 이를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지수를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지수를 측정한다. 측정단위와 분산이 상이한 세부 지표들을 이용한 상위 지표, 영역지수, 그리고 종합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 세부 지표에 대한 표준화 과정-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변수로 전환-과 함께 세부 지표들 간, 상위 지표들 간, 그리고 영역 간 가중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지표, 영역지수, 그리고 종합지수를 측정함에 있어 각각 세부 지표들 간, 상위 지표들 간, 그리고 영역지수들 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관계영역은 두 개의 상위 지표-직접적 관계와 간접적 관계-로 구성된다. 전자는 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부모·친구·교사·이웃에 대한 신뢰도, 가족 간의 대화시간, 선생님과의 면담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에 의해 측정되고, 후자는 이웃관계 만족도, 우리나라 전체·사이버 공간·지역사회 전문기관·지방정부·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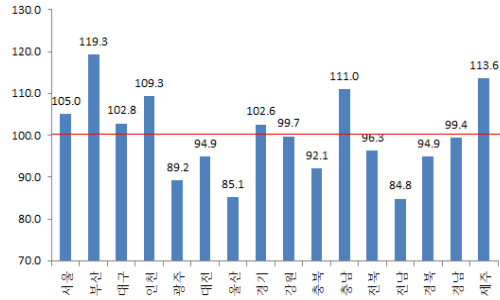
직접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산, 제주, 충남, 인천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울산, 전남, 광주, 충북 등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간접적 관계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수치가 높은 반면에 전남, 울산, 전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영역에 대한 지수는 부산, 제주, 인천 등에서 높은 반면 전남, 울산, 광주, 충북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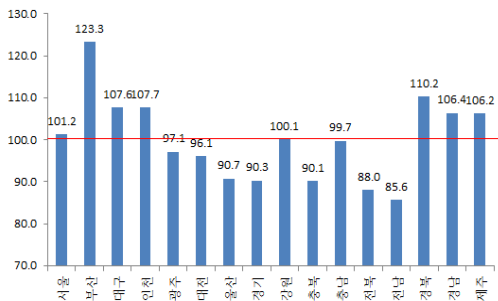
44) 환경영역에서의 만족도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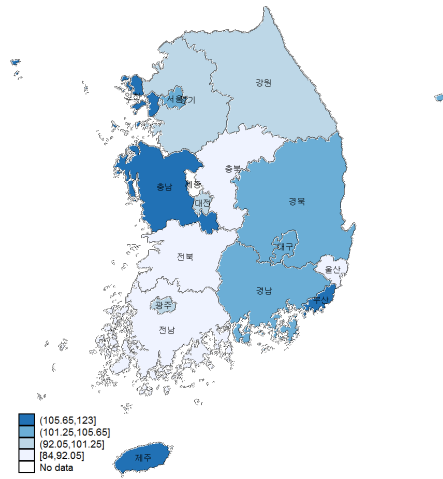
A. 관계



B. 직접적 관계



C. 간접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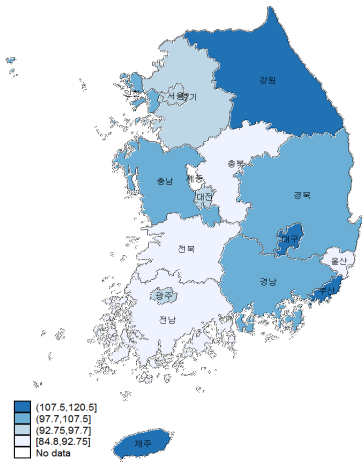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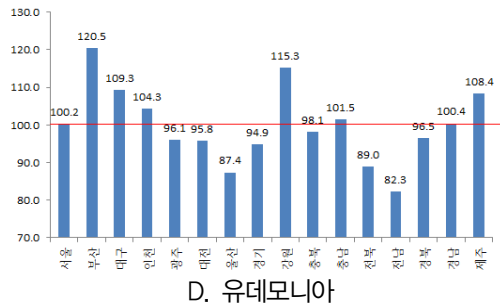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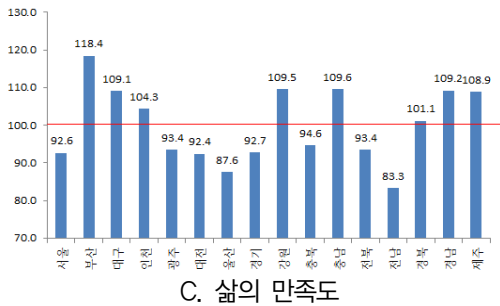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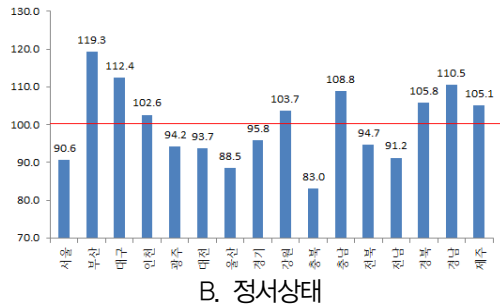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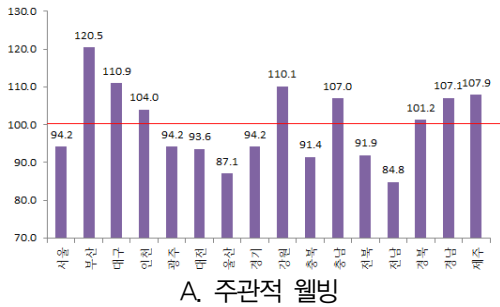
【그림 V-4】 관계영역

주관적 웰빙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는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를 포함한다. 정서상태는 최근에 느낀 즐거운 감정, 편안한 감정, 불안한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행복한 감정에 의해 측정되며, 유데모니아는 삶의 가치에 의해 측정된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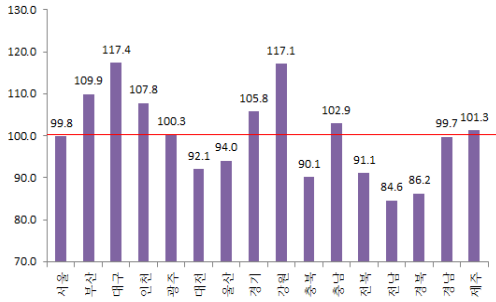
정서상태는 부산, 대구, 경남, 충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충북, 울산, 서울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삶의 만족도는 부산, 충남, 강원 등에서 높고, 전남, 울산, 대전 등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데모니아는 부산, 강원, 대구에서 높은 반면에 전남, 울산, 전북에서 낮게 나타난다.

45) 삶의 가치에 의한 유데모니아의 측정은 OECD의 권고를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설문에서는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로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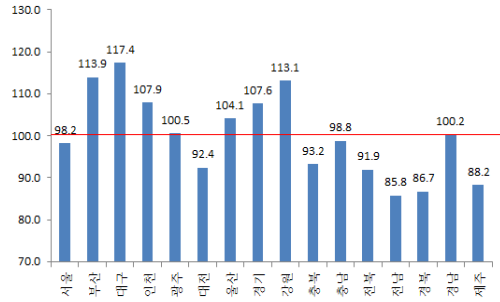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영역에 대한 지수는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경남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남, 울산, 충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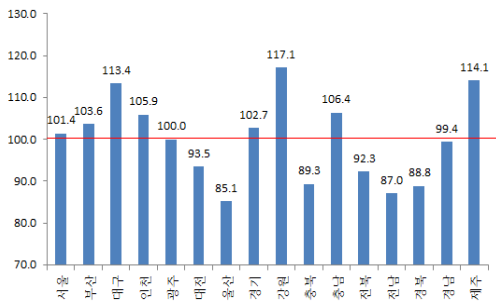
【그림 V-5】 주관적 웰빙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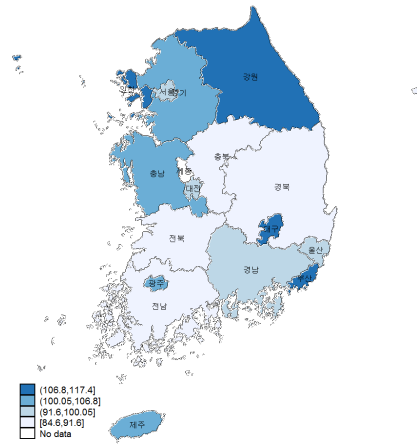
A. 건강



B. 건강상태



C. 건강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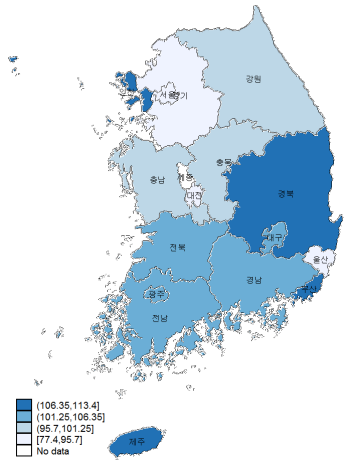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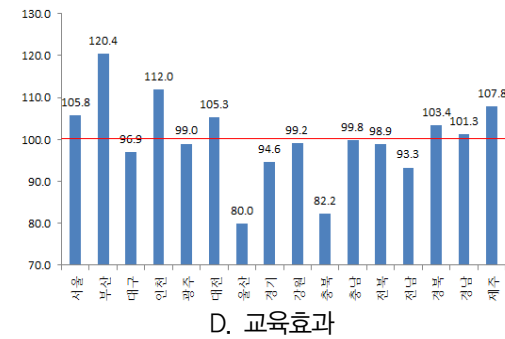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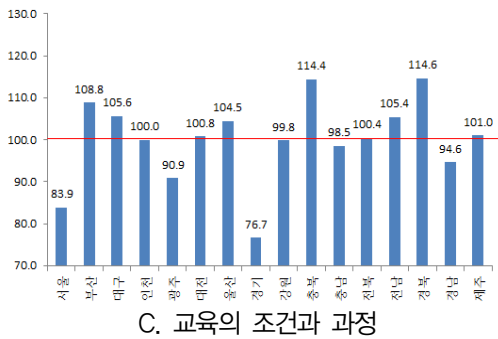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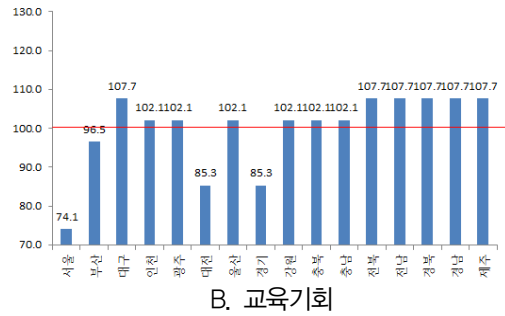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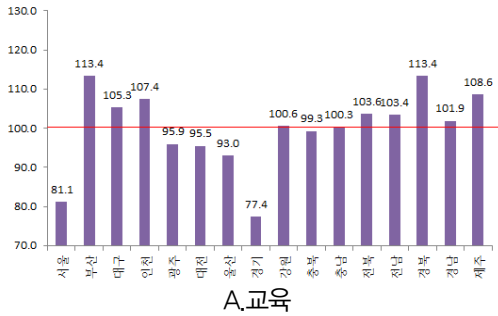


【그림 V-6】 건강영역

건강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는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정도, BMI, 질병 유무, 청소년 자살률에 의해 측정되고, 후자는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인터넷 중독률에 의해 측정된다.

건강상태는 대구, 부산, 강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전남과 경북,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구와 부산은 낮은 청소년 자살률과 높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강원은 스트레스 정도가 최하위로 나타난다. 반면, 전남은 청소년 자살률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제주는 BMI가 전국 최상위에 해당한다. 건강결정요인은 강원, 대구, 제주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울산, 경북,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강원은 가장 낮은 청소년 흡연률과 음주율을 나타내고 대구는 가장 낮은 인터넷 중독률을 나타낸다.

건강영역에 대한 지수는 대구, 강원,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높고, 경북, 전남, 충북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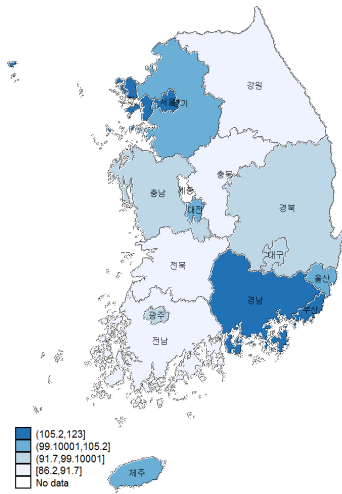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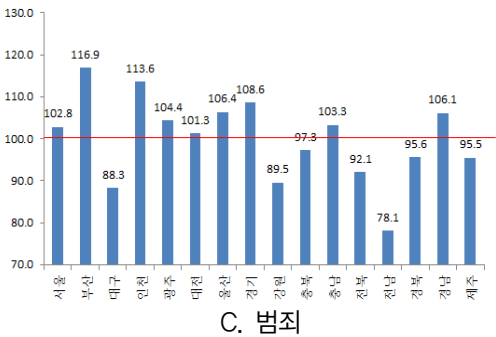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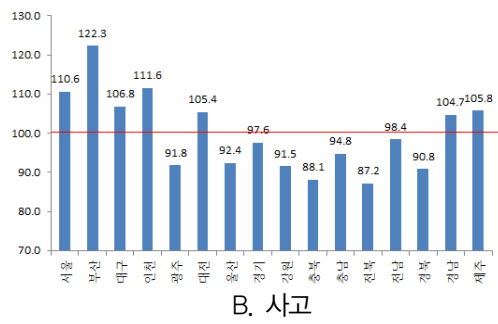


【그림 V-7】 교육영역

교육영역은 학업중단율로 측정되는 교육기회,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로 측정되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 그리고 교과과정 만족도와 진로교육 만족도로 구성되는 교육효과 이렇게 세 개의 상위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기회는 서울에서 특히 낮은 수치-낮은 교육기회는 높은 학업중단율을 의미하고 서울의

경우 1.3%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를 나타내고 대전과 경기(1.1%의 학업중단율), 부산(0.9%의 학업중단율) 등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기회를 나타낸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에서는 대구, 부산, 대전, 서울, 경북, 충북, 울산의 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경기, 강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구는 학업성취도에서 최상위에 해당하고, 경기는 학급당 학생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교육효과는 부산, 인천, 제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울산, 충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부산은 교과과정과 진로교육 각각에 대한 만족도에서 최상위에 해당하고, 울산은 교과과정 만족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다. 교육영역 전체적으로는 부산, 경북, 인천, 제주, 대구 등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경기에서 특히 낮고 울산과 충북 등에서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림 V-8】 안전영역

안전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로는 사고와 범죄를 포함한다. 전자는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로 구성되고, 후자는 범죄 안전도, 청소년 범죄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시설(CCTV) 구축 인지정도로 구성된다.

사고에 대한 지표는 부산, 인천, 서울 등의 순으로 높다. 부산의 경우, 지역사회 시설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도와 위기상황대처 능력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반면, 사고에 대한 지표의 수치가 낮은 지역은 전북, 충북, 경북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북은 학교시설 안전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지역사회 시설 안전도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범죄에 대한 지표는 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전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부산은 서울과 더불어 범죄 안전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청소년 범죄피해율과 학교폭력 발생률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전남은 청소년 범죄피해율에서 12.5로 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고, 학교폭력 발생률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안전영역에 대한 지수는 부산, 인천, 서울 등의 순으로 타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전남, 전북, 강원에서 낮은 지수값을 갖는다.

활동영역을 구성하는 상위 지표는 활동에 대한 상태, 기반, 인식을 포함한다. 활동상태는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 수,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을 세부 지표로 포함한다. 활동기반은 놀이친구접근성에 의해 측정되며, 활동인식은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시간, 공간, 용돈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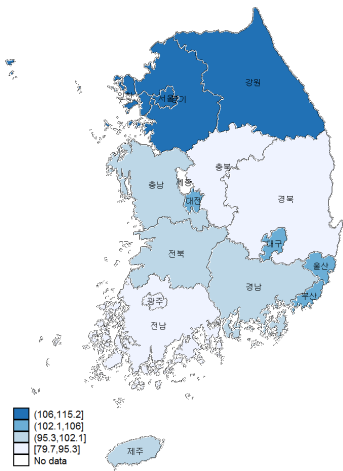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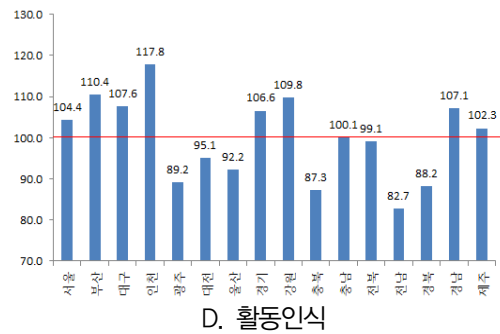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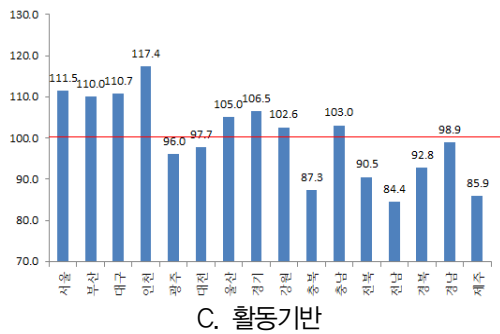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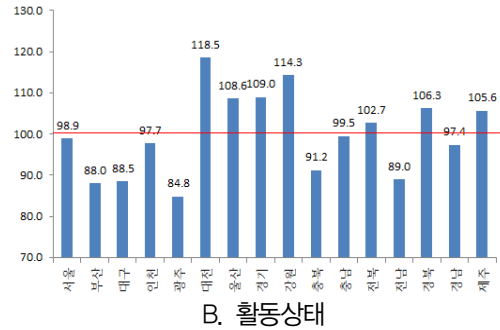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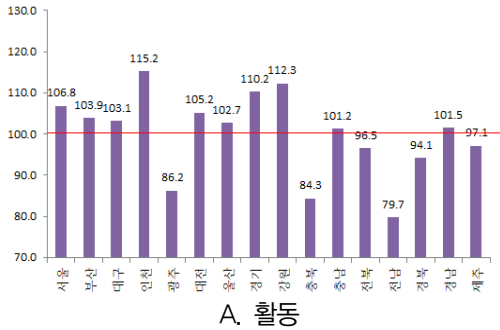
먼저, 활동상태에 대한 지표값은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더불어 강원, 경기, 울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볼 수 있다. 대전의 경우, 문화예술활동 참여율과 동아리활동 참여율에서 각각 92.7%와 83.1%로 단연 높게 나타난다. 한편, 광주, 부산, 대구, 전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남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율과 문화여가 지출비용에서 전국의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시설 수에서는 최상위 수준을 나타내는 등 세부 지표 간 대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활동기반에 있어서는 인천,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우수하며, 전남, 제주, 충북, 전북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활동인식은 인천, 부산, 강원 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인천의 경우, 여가활동공간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반면, 전남, 충북, 광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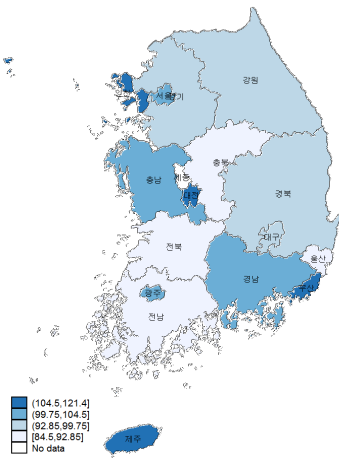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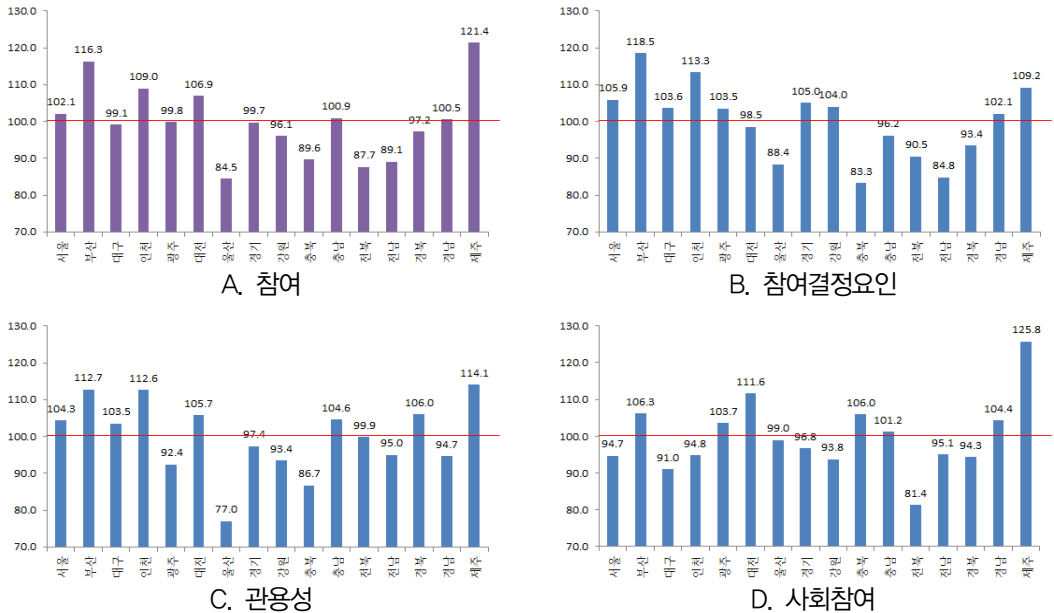
전남은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만족도에서 매우 낮은 값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활동영역의 지수는 강원, 인천, 경기,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전남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광주와 충북이 역시 타 지역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수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V-9】 활동영역

참여영역은 참여결정요인, 관용성, 사회참여의 상위 지표로 구성된다. 참여결정요인은 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에 의해 측정되고, 관용성은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 의해 측정되며, 사회참여는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참여율에 의해 측정된다.



【그림 V-10】 참여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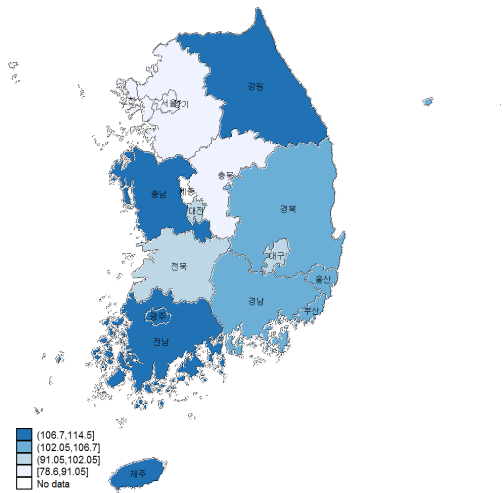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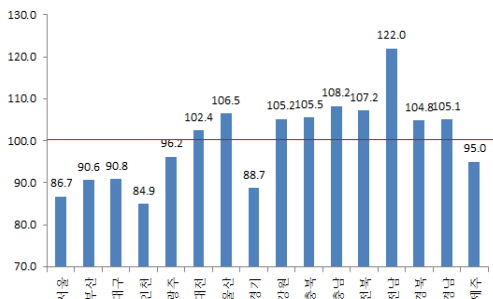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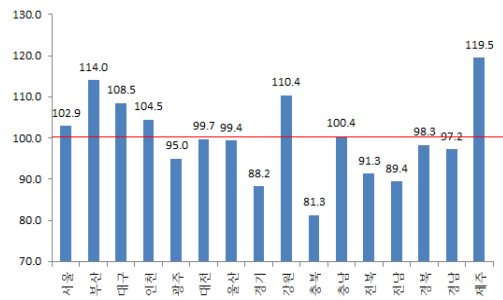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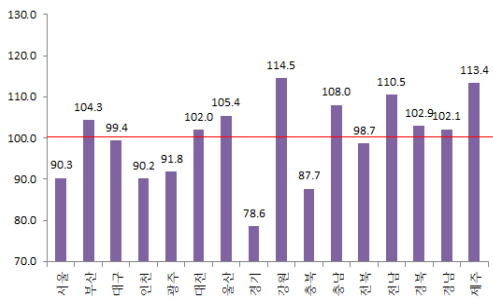
참여결정요인은 부산, 인천,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 충북, 전남, 울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부산은 참여결정요인을 구성하는 세 개의

세부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반면, 충북의 낮은 수치는 징계소명권과 학치개정 권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용성은 제주, 부산, 인천 등에서 높은 반면, 울산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충북, 광주 역시 상대적으로 관용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

사회참여는 제주에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이와 더불어 대전, 부산,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수치가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참여율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 타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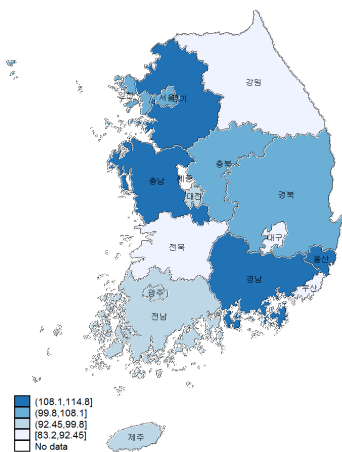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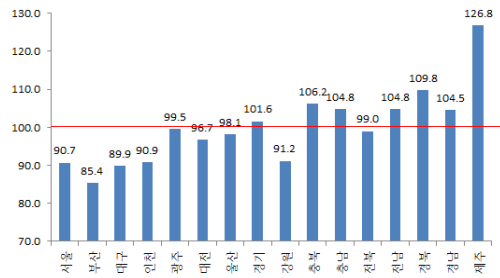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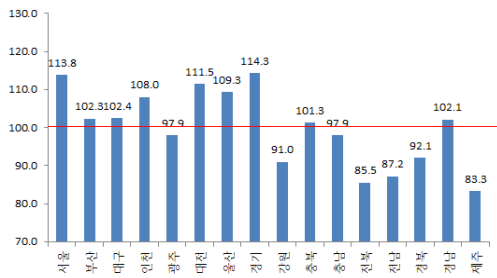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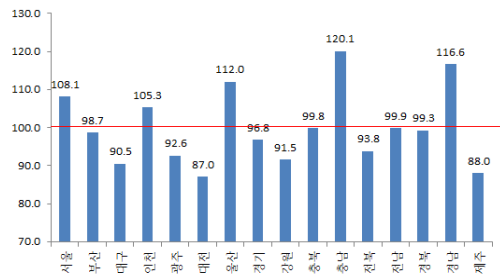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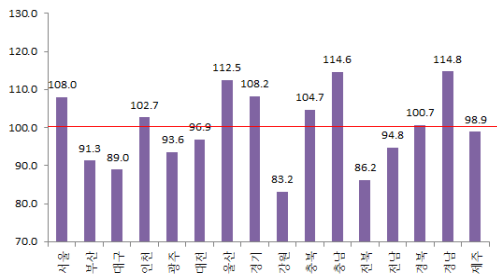
참여영역의 지수는 제주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산, 인천, 대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울산, 전북, 전남,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V-11】 환경영역

환경영역은 주거환경인식과 주거 기반으로 구분된 두 개의 상위 지표로 구성되며, 전자는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와 주택만족도를 포함하고 후자는 통학소요시간과 녹지접근성을 포함한다. 주거환경인식은 제주, 부산, 강원을 중심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주거 기반은 전남에서 단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환경영역의 지수는 강원, 제주, 전남 등의 순으로 높으며, 경기, 충북, 인천, 서울, 광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림 V-12】 경제영역

경제영역은 소득/소비, 복지, 고용의 상위 지표로 구성된다. 소득/소비는 가정경제만족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의한 지역경제수준,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에 의해 측정된다. 복지는 사회복지지출비율과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에 의해 측정되고, 고용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 의해 측정된다.

소득/소비에서는 충남, 경남, 울산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대전, 제주, 대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충남과 경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니계수를 지녀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있어 상대적으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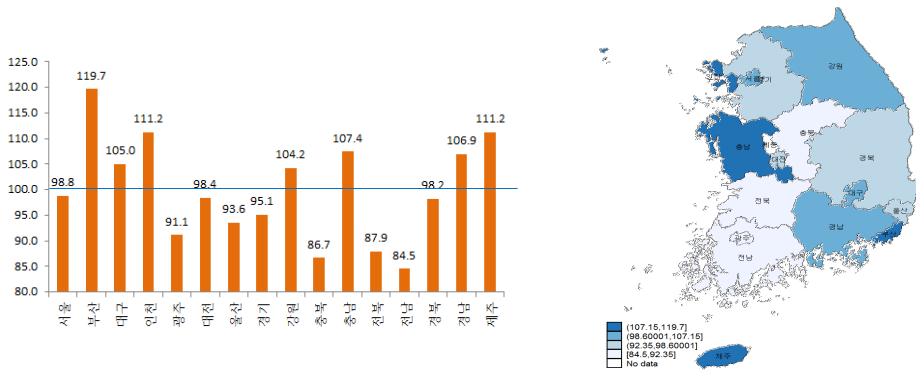
복지의 경우 경기, 서울, 대전, 울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제주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제주 이외에도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광주와 충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고용에 대한 상위 지표는 제주에서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은 경북, 충북, 전남과 충남, 경남 등의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한편, 부산, 대구, 서울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에 대한 지수는 경남, 충남, 울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강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이와 더불어 전북, 대구, 부산이 역시 낮은 수치를 갖는 지역에 해당한다.

2) 종합지수

9개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지수는 부산, 인천과 제주, 충남, 경남, 대구 등의 순으로 높으며, 이들 지역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남, 충북, 전북, 광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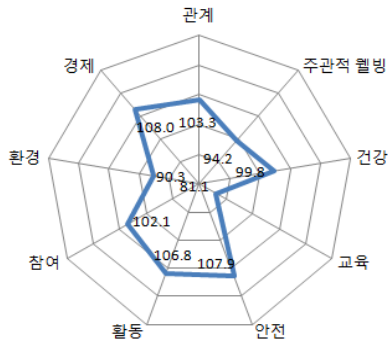


【그림 V-13】 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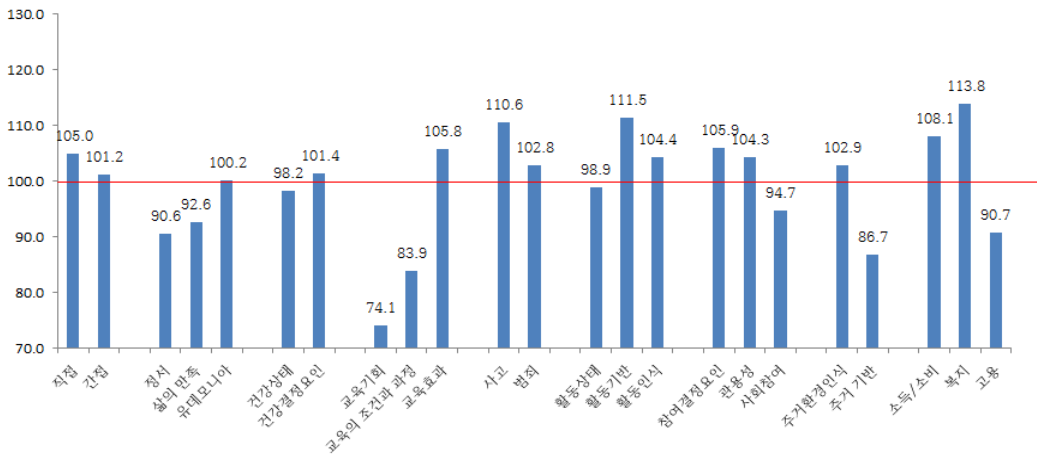
3) 지역별 지수

서울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로는 경제, 안전, 관계, 활동, 참여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환경, 주관적 웰빙, 교육, 건강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역들 간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고 교육영역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별 상위 지표의 수치를 살펴보면, 관계영역에서는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유데미아만이 전국 평균수준을 나타내고 정서와 삶의 만족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영역에서는 건강상태의 수치가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결정요인은 전국의 평균치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기회가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 향후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영역의 모두 상위 지표들은 관계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수치를 상회한다. 반면, 활동영역에서는 활동상태의 수치가 전국에 비해 다소 낮으며, 환경영역에서의 주거 기반과 경제영역에서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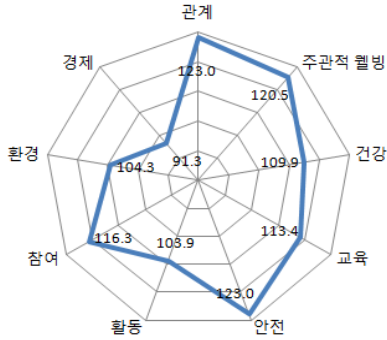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14】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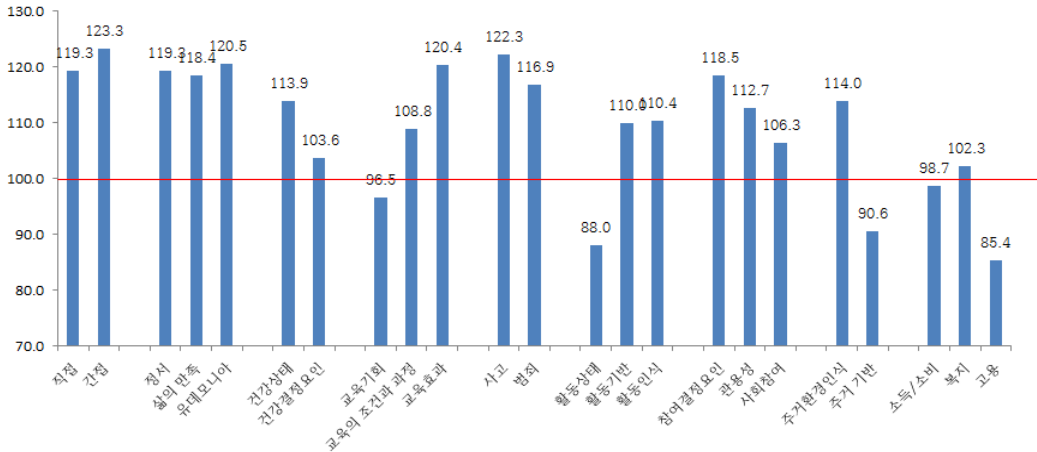
부산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9개 영역 가운데 경제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의 영역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관계, 안전, 주관적 웰빙영역에서의 수치는 타 지역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경제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에 영역들 간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활동, 환경, 경제 이렇게 네 영역에서만 전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위 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기회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활동영역에서는 활동상태가 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환경영역에서의 주거 기반이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제영역에서는

고용에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2014년 기준 58.6%로 강원 다음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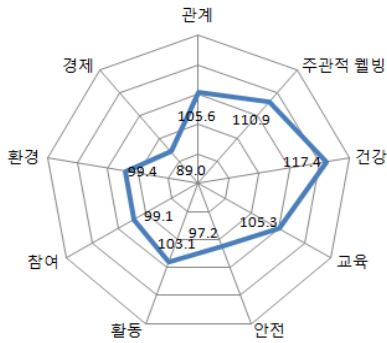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15】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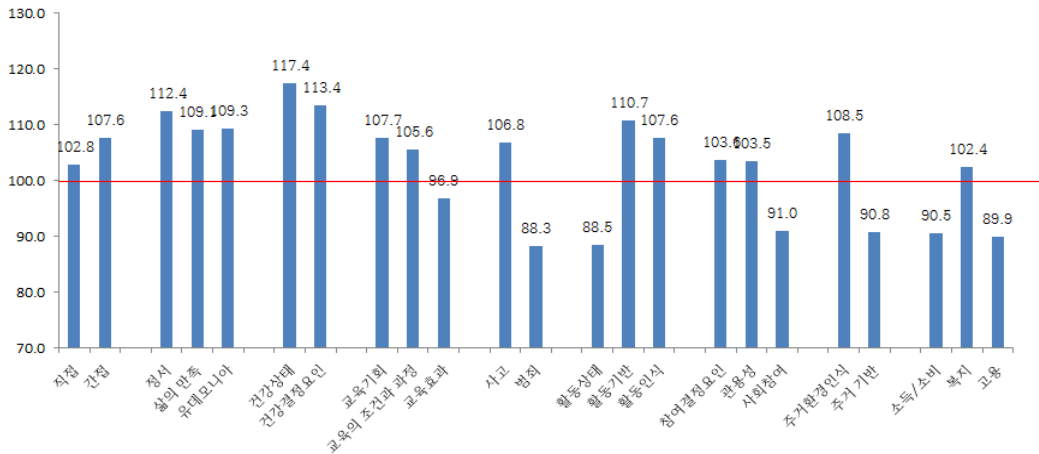
대구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들 간 균형은 건강영역에서의 다소 높은 수치와 경제영역에서의 다소 낮은 수치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잘 이뤄져 있으나 경제, 안전, 활동, 그리고 참여영역의 수치가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영역의 경우 직접적 관계에 비해 간접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관적 웰빙영역에서는 세 개의 상위 지표 모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건강영역 역시 건강상태와 건강결정요인 모두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9개 영역 가운데 타 지역 대비 수준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분석된다. 한편, 교육영역에서는

교육효과가 전국의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제시된다. 안전영역에서는 사고에 대한 상위 지표가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함을 볼 수 있으나 범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참여영역의 사회참여와 환경영역의 주거 기반이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 활동영역에서는 활동상태를 나타내는 상위 지표가 전국의 그것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경제영역 내 상위 지표 가운데 소득/소비와 고용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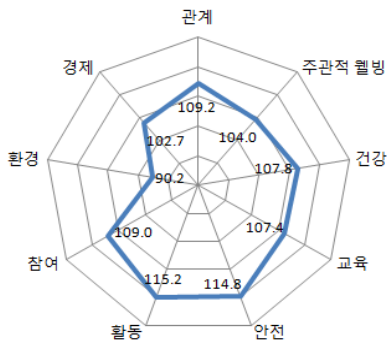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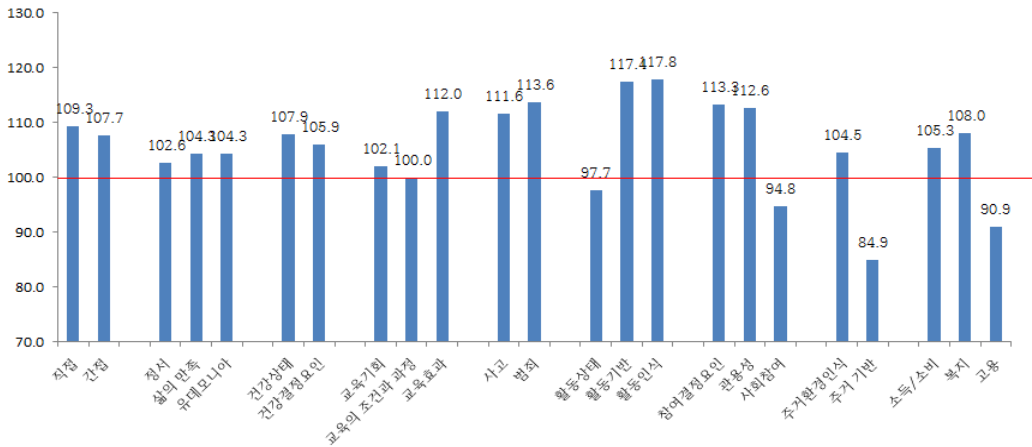
【그림 V-16】 대구

인천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제주와 더불어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는 경제영역과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크게 낮은 환경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활동영역과 안전영역에서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환경영역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활동, 참여, 환경, 그리고 경제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개별 상위 지표의 수치가 각각의 전국 평균을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의 경우 고용에 대한 상위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가운데 인천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2014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7%의 실업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영역에서 사회참여의 낮은 지표값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2013년 기준 18.6%)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영역에서 주거 기반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긴 통학소요시간(37.1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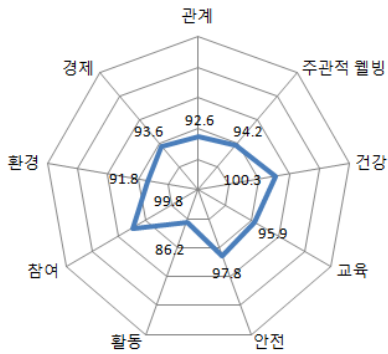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17】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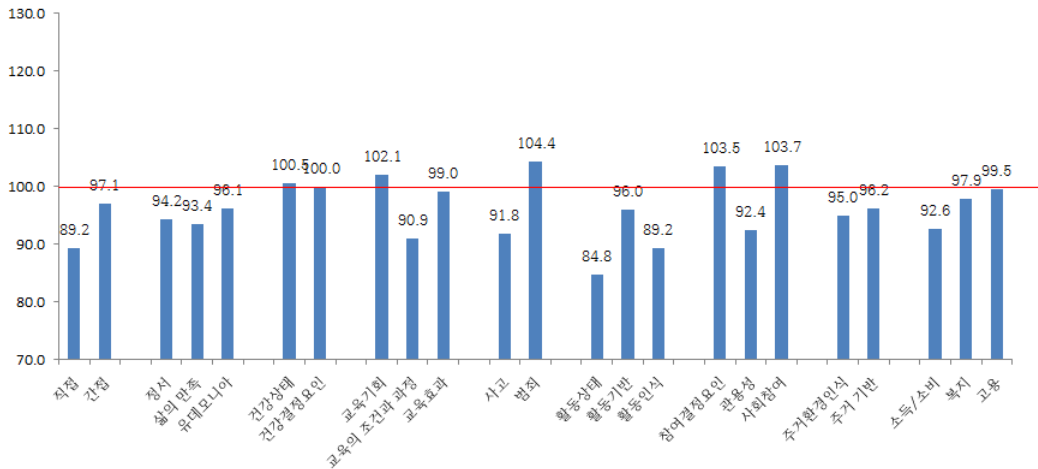
광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건강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지수값을 나타내며, 활동영역에서 특히 타 지역 대비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청소년의 활동영역에서의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 주관적 웰빙, 활동, 환경, 그리고 경제영역의 경우 이들에 속하는 상위 지표들 모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특히 관계영역에서 직접적인 관계와 활동영역에서의 활동상태는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교사관계 만족도와 교우관계 만족도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영역에서는 교육의 조건과 과정이 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안전영역에서는 사고, 참여영역에서는 관용성, 경제영역에서는 소득/소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 활동영역 가운데 활동상태의 낮은 수치는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에서의 낮은 수치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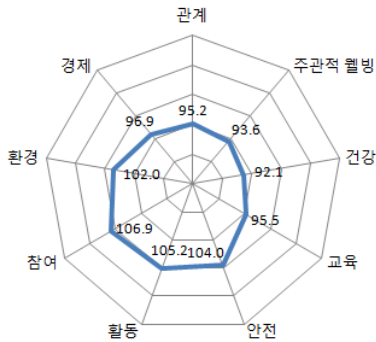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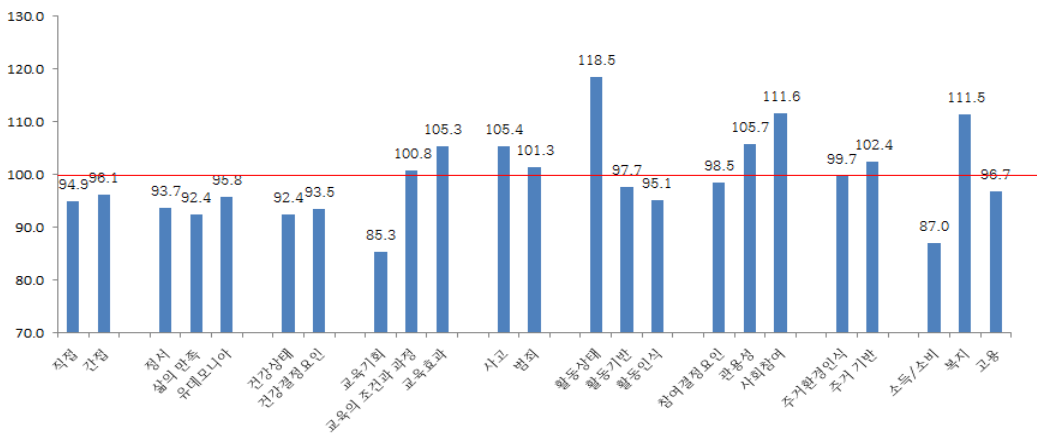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18】 광주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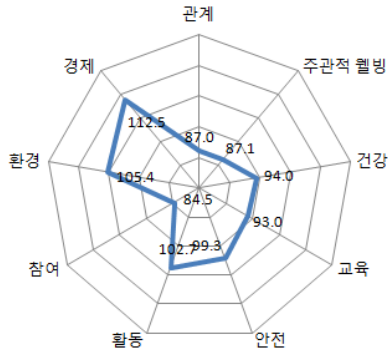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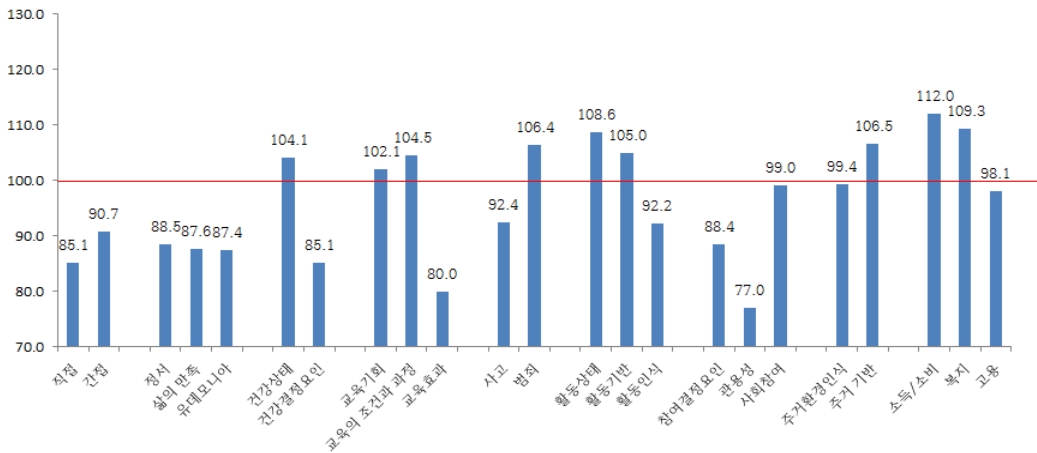
【그림 V-19】 대전

대전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으며, 9개의 영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개 영역-교육, 경제, 관계, 주관적 웰빙, 건강-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건강영역과 주관적 웰빙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으며 전체 영역과 더불어 이 두 영역에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그리고 경제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치를 갖는 상위 지표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에서 소득/소비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소득/소비의 낮은 수치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기회가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를 측정하는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기인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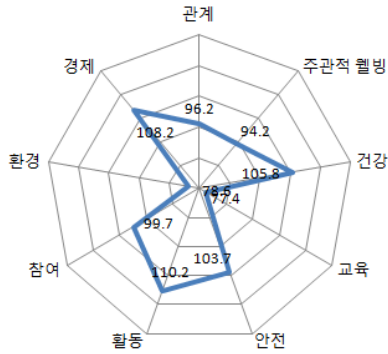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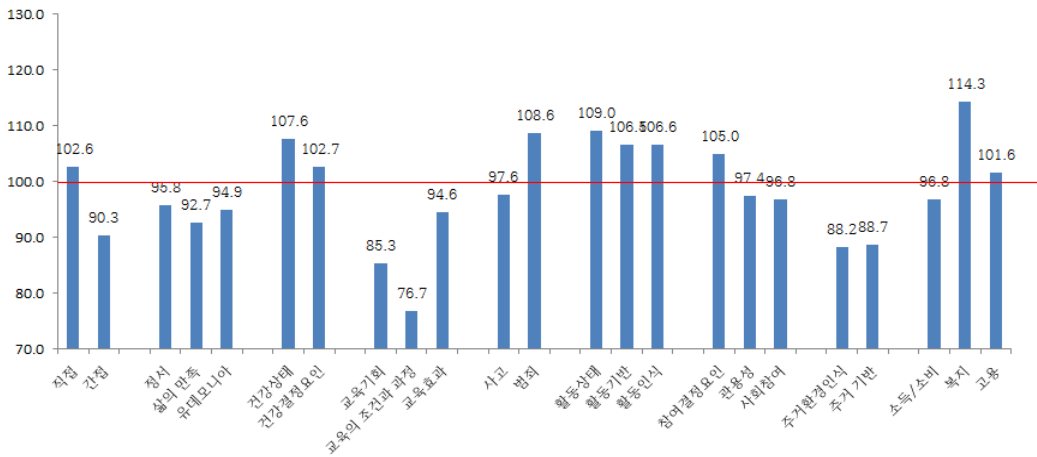
【그림 V-20】 울산

울산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 환경, 그리고 활동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관계, 참여, 주관적 웰빙 등의 영역에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 주관적 웰빙, 그리고 참여영역에서 상위 지표들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교육영역에서의 교육효과와 참여영역의 관용성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교육효과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교과과정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진로교육 만족도 역시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건강영역의 건강결정요인 역시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낮은 수준의 아침식사율과 높은 수준의 고카페인 이용량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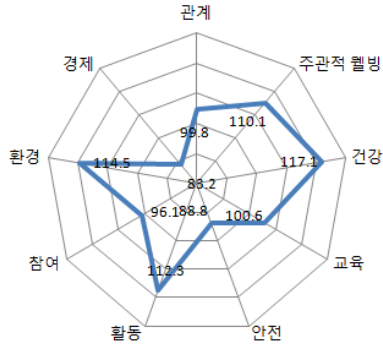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21】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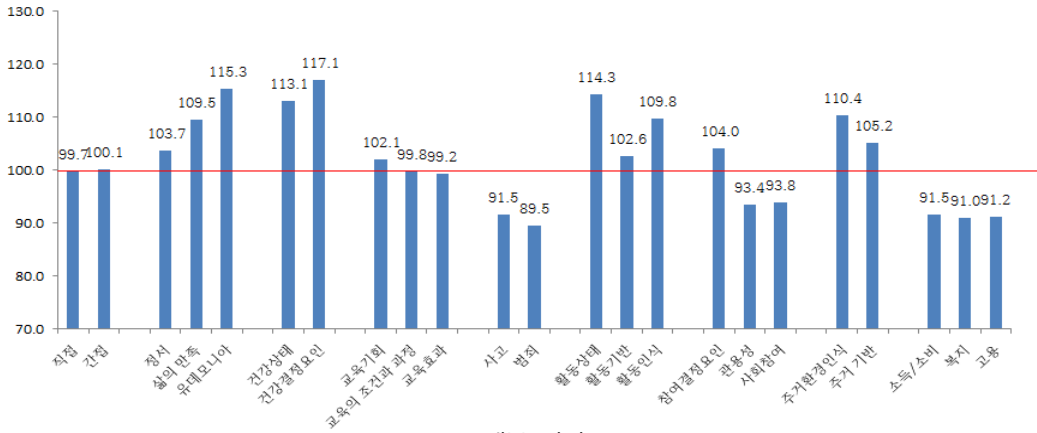
경기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수준을 다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9개 영역들 가운데 5개 영역들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를 하회할 뿐만 아니라 영역들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영역과 환경영역에서 각 영역별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이 외에도 주관적 웰빙과 관계영역에서의 수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교육, 그리고 환경영역에서 상위 지표들 모두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지닌다. 교육영역의 경우 교육기회는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하며, 이는 학업중단율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역시 현저하게 낮으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학업성취도가 이러한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역에서의 낮은 수치는 이를 구성하는 네 개의 세부 지표들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사회 유해환경 인지도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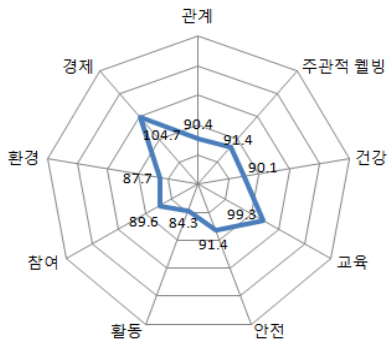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22】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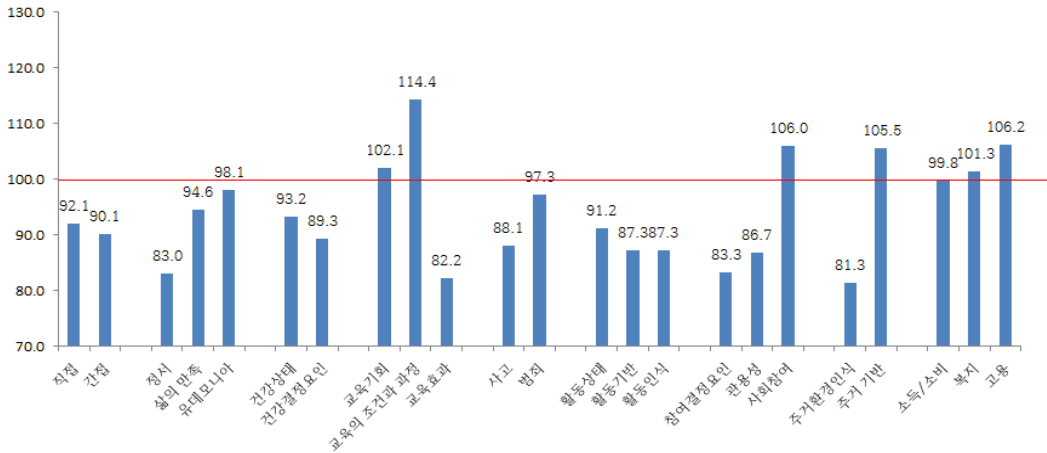
강원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영역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9개 영역들 가운데 5개의 영역에서만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 활동, 주관적 웰빙, 교육, 그리고 환경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넘는 지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안전, 경제, 그리고 참여영역에서의 지수값은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영역의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근접한 수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영역에서 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상위지표-소득/소비, 복지, 고용-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안전영역의 경우 범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학업성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로 인해 낮은 학급당 학생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위 지표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에서의 낮은 지표값은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범죄안전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영역에서는 참여결정요인만이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고 관용성과 사회참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을 볼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소득/소비, 복지, 고용 모두에서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용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하나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58.3%)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B. 세부 영역 【그림 V-23】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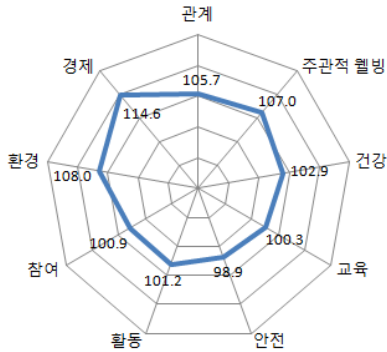
충북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낮은 뿐만 아니라 영역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며 9개 영역에서 경제영역을 제외한 모두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활동과 환경영역에서 상대적 열악성은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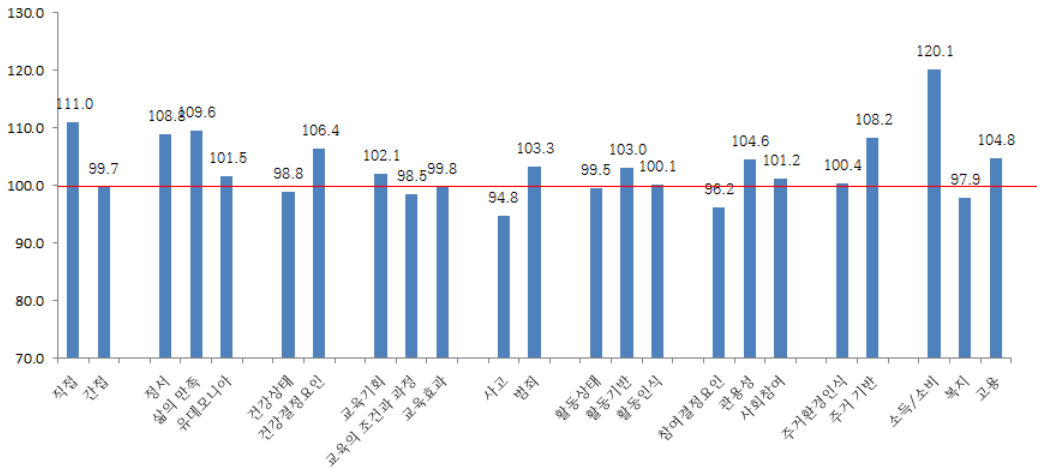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9개 영역에 걸친 23개 상위 지표들 가운데 교육영역의 교육기회와 교육의 조건과 과정, 참여영역의 사회참여, 환경영역의 주거 기반, 경제영역의 복지와 고용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 나머지 17개 상위 지표들의 수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 열악성이 큰 상위 지표는 주관적 웰빙영역의 정서, 교육영역의 교육효과, 참여영역의 참여결정요인, 환경영역의 주거환경인식 등이 해당한다.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세부 지표인 교과과정 만족도와 진로교육 만족도에서 충북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나타낸다. 참여결정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징계소명권에서 역시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부산, 제주,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영역별로는 경제, 환경, 관계, 주관적 웰빙, 건강, 그리고 활동영역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으나, 나머지 영역들 가운데 안전영역에서는 오히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조건과 과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와 학업성취도 모두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값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영역에서는 사고의 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이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세부 지표들 가운데 위기상황대처 능력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영역에서는 참여결정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지표값이 낮으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세부 지표들 가운데 학칙개정권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 다소 낮은 편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영역에서는 복지의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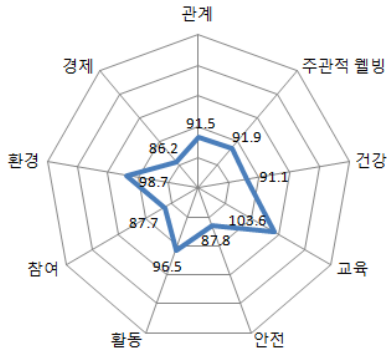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24】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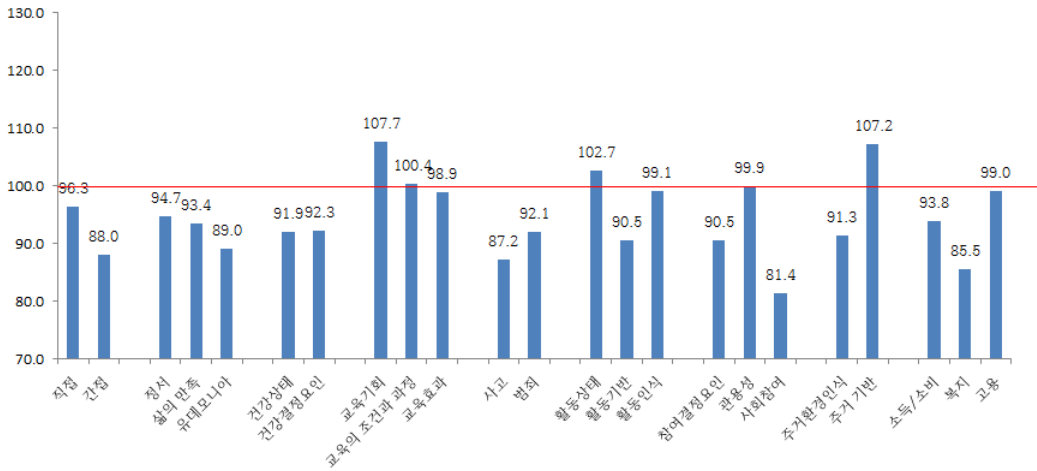
전북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개 영역들 가운데 교육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 수치를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 9개의 영역들 가운데 경제, 참여, 그리고 안전영역에서 전북의 취약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활동, 그리고 환경영역에서만 영역별로 전국 평균을 넘는 상위 지표가 존재하며,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모든 상위 지표들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계영역에서는 간접적 관계가 특히 상대적으로 보다 더 열악하고, 주관적 웰빙에서는 유데모니아의 수치가 정서나 삶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음을 볼 수 있다. 참여영역에서는 사회참여의 수치가 타 지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인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참여율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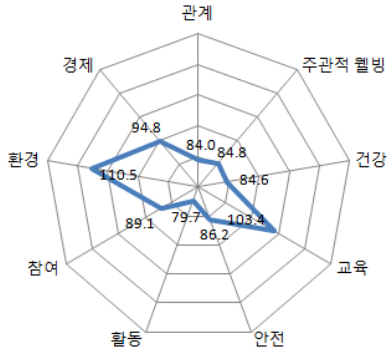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그림 V-25】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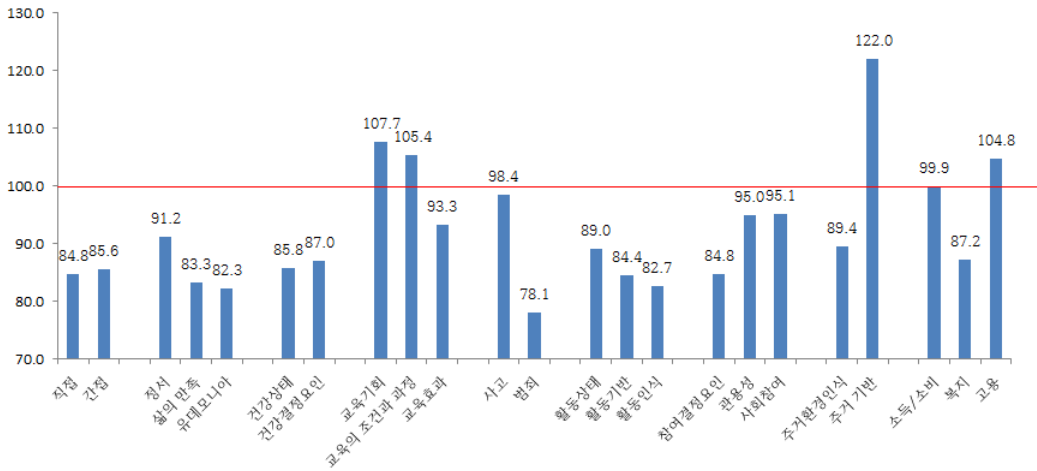
전남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이를 구성하는 9개 영역 가운데 환경영역과 교육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7개 영역 가운데 활동영역에서 상대적 취약성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의 교육기회와 교육의 조건과 과정, 환경영역에서의 주거 기반, 그리고 경제영역에서의 고용만이 해당 상위 지표의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9개 상위 지표의 수치들은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영역의 범주는 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 가운데 객관적 지표인 청소년 범죄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값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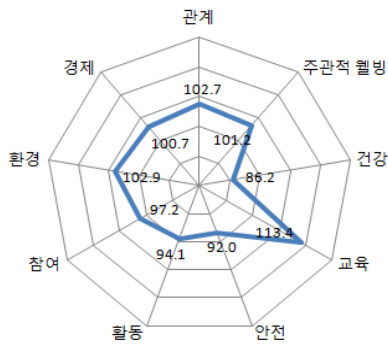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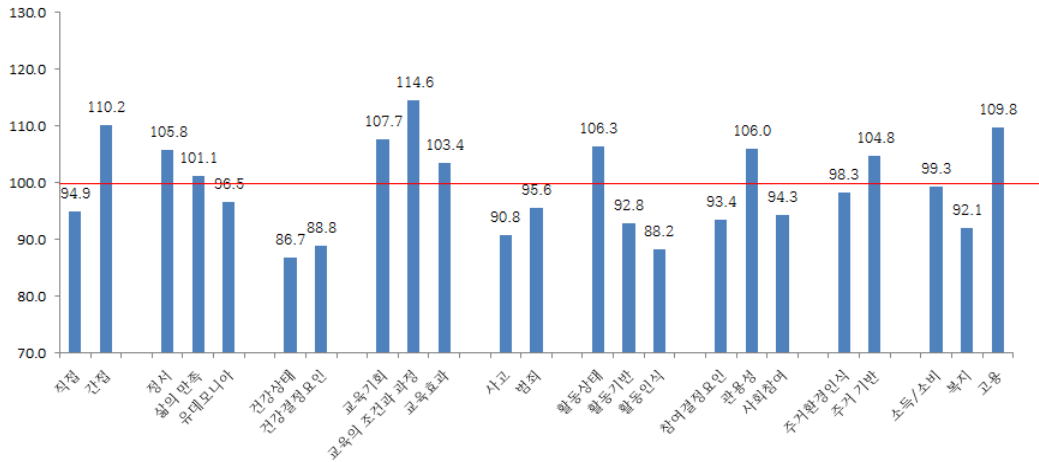
【그림 V-26】 전남

경북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며,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영역들 가운데 건강, 안전, 활동, 그리고 참여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 수준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건강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 대비 지수값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정책추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건강영역의 두 지표는 모두 해당 지표의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안전영역 역시 두 상위 지표인 사고와 범죄 모두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관계영역에서는 간접적 관계에 비해 직접적 관계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활동영역의 경우 활동기반과 활동인식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영역에서는 상위 지표들 가운데 관용성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경제영역에서도 세계의 상위 지표들 가운데 고용만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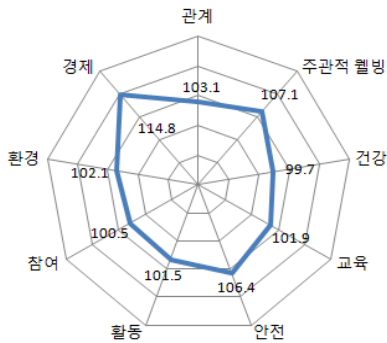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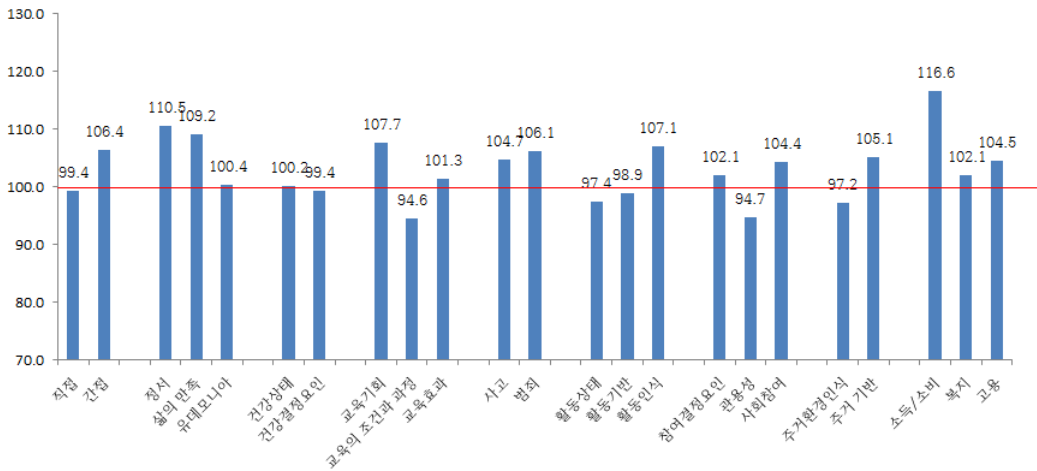
【그림 V-27】 경북

경남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영역별로는 경제, 주관적 웰빙, 안전, 그리고 관계영역에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의 수치만이 해당 영역의 전국 평균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 교육의 조건과 과정, 참여영역에서 관용성 등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을 측정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학업성취도 모두에서 경남은 타 지역 대비 다소 낮은 편에 해당한다. 주관적 웰빙영역의 경우 정서와 삶의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해당하며, 경제영역에서는 소득/소비가 타 지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A. 영역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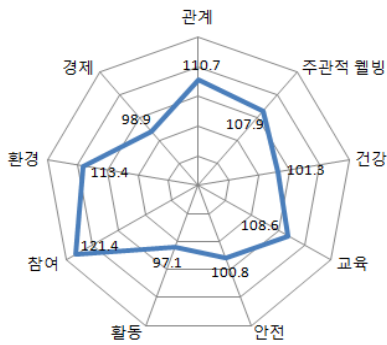


B. 세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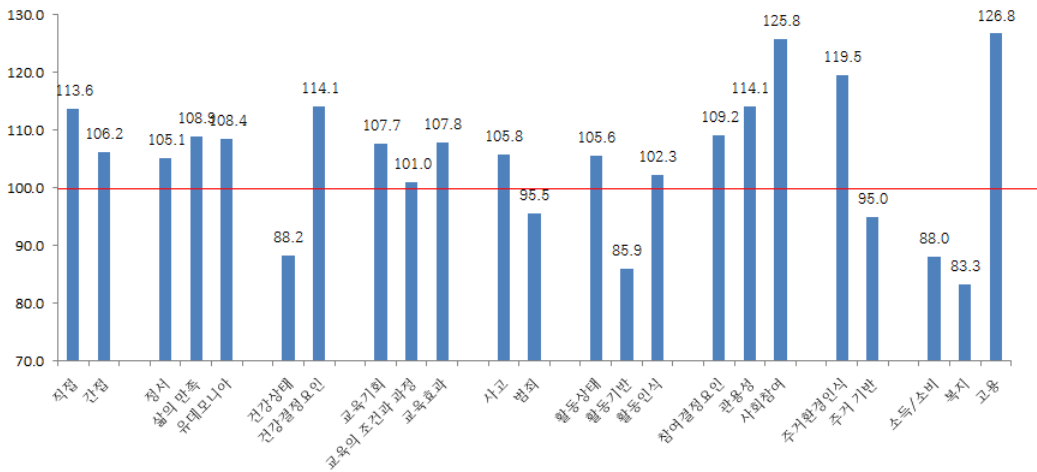
【그림 V-28】 경남

제주의 청소년 행복지수는 인천과 함께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영역별로는 경제영역과 활동영역의 지수값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7개 영역에서는 모두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며, 특히 참여, 환경, 관계,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영역별 상위 지표를 살펴보면, 관계, 주관적 웰빙, 교육, 그리고 참여영역에서 각 영역에 해당하는 상위 지표들의 수치가 해당하는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영역 내 상위 지표들 간 큰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테면, 건강영역에서 건강결정요인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경제영역의 경우 소득/소비와 복지 모두 타 지역의 해당 지표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복지를 측정하는 세부 지표 가운데 사회복지지출 비율에서 제주는 1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제주 다음으로 낮은 지역의 해당 수치가 19.5%임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으며 이로 인해 복지의 지표값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A. 영역 간



B. 세부 영역
【그림 V-29】 제주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행복은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명확한 정의조차 용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심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원론적 연구를 포함해 이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모색이 최근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학문적 영역도 사회학, 경제학, 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청소년의 삶을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대변하는 다양한 지표는 청소년 정책수립의 근본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 개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비록 행복에 대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은 연구자들 간 시각과 이념의 차이로 인해 어렵지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한 정도와 상당히 유사한 관계임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수 구축의 목적은 시도별 청소년 행복도의 개략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 탐색 및 이를 통한 구체적 청소년 행복증진 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도 및 결정요인

관계영역, 주관적 웰빙 영역, 건강영역, 그리고 교육영역 모두 남학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나아가 양부모가정, 한부모가 직업을 가질수록, 대도시 거주자이고, 종교를 가질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았고, 주관적 웰빙의 수치가 높았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했고, 학교교육과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영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위 세 영역에서 확인한 조건 이외에 직업을 한부모만이 가진 경우가 추가되었을 뿐 동일한 조건일수록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의식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안전망시설(CCTV)에 만족하고 있었다. 환경영역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도시거주자일수록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특징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참여와 활동부분이었다. 먼저 참여영역의 경우 성별의 특징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평등한 참여권이나 의사전달권 등 권리의 평등성에 대한 의식이 강했다. 이 외에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일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양부모가정일수록, 대도시거주자일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일수록 참여에 긍정적이었으며 평등한 권리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활동영역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남자 청소년들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도시거주자일수록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가족유형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역 내 운동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지표의 경우는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용돈의 충분성과 놀이친구 접근성 지표에 대해서는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해당 학생이 남학생이거나 연령이 적거나 외향적인 성격이거나 질병이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이를 선천적 질병과 후천적 질병 혹은 양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천적인 경우가 선천적인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친부모와 동거하거나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거나 학급 내 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가 주택 여부나 종교의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기존의 성인 대상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나타나지 않으며, 외향적 성격과 같은 기질에 의한 차이는 오히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 동거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내 성적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학교급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8개 영역 가운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함을 함축한다. 특히, 교육영역 만족도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관계영역의 그것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영역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며, 관계영역과 교육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이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영역에 비해 관계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반면에 중학교의 경우 이 두 영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영역에서의 만족도가 관계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영역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지나 이러한 관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안전영역의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강한 관계를 나타냈다.

영역별 만족도의 결정요인은 질병이 있는 경우 8개 영역 가운데 건강영역에서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낮춤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경우일수록 경제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타 영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보다 크게 높아짐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학생의 타고난 천성이나 기질 즉 본 연구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정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질병의 유무와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즉,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은 해당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음은 물론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영역들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혹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외향적인 성격의 청소년일수록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더불어, 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주관적 웰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 가운데 교육영역과 관계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족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인식차이

청소년은 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더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시설(CCTV)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놀이를 할 때 쉽게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여가 활동 시간과 공간과 용돈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이 학부모와 교사가 인식하는 것보다 불안함과 슬픔과 우울함을 느끼고, 을 느끼고, 걱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 이웃사람,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을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며, 외향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교과과정, 진로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시설이 안전하고, 위기상황이 생겼을때 잘 대처한다고 생각했다.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며, 벌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잘 말하고, 소수집단의 권리에 대해 관용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이웃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청소년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결정에 자유가 있고,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산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을 9개 영역, 68개의 세부 지표-37개의 객관적 지표와 31개의 주관적 지표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영역별 세부 지표에 기초해 영역지수를 측정하고, 다시 이를 이용해

전 영역에 걸친 종합지수를 측정하였다. 지표 간 측정단위와 분산 등에서의 차이를 감안해 영역지수와 종합지수의 측정시 표준화 과정을 거치며 세부 지표들 간 그리고 영역들 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영역지수는 영역별로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관계영역은 부산에서 단연 높은 반면 전남과 울산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관적웰빙 영역은 부산에서 높고 전남에서 낮다. 건강영역은 대구와 강원에서 높고 전남과 경북에서 낮다. 교육영역은 경북과 부산에서 높고 경기와 서울에서 낮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안전영역은 부산에서 매우 높고 전남, 전북, 강원에서 다소 낮다. 활동영역은 인천, 강원, 경기에서 높고 전남, 충북, 광주에서 낮으며, 이외의 지역들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다. 참여영역은 제주에서 가장 높은 반면 울산과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환경영역은 강원과 제주에서 높고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경제영역은 경남, 충남, 울산에서 높고 강원과 전북에서 낮다.

종합지수는 부산에서 가장 높고 인천과 제주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전남, 충북, 전북 등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9개 영역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는 교육영역, 부산, 대구, 강원, 그리고 전북은 경제영역, 인천은 환경영역, 광주, 충북, 전남, 그리고 제주는 활동영역, 대전, 경북, 그리고 경남은 건강영역, 울산은 참여영역, 그리고 충남은 안전영역이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 간 혹은 영역 간 지수의 차이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해당 지방정부의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지수측정결과는 지역별로 어느 영역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지를 제시해 주며 해당 영역의 세부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을 통해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구체적인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2. 정책제언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⁴⁶⁾

(1) 행복도가 낮은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행복도가 낮은 집단은 여자 청소년, 고등학생, 맞벌이 가구 청소년, 내향적인 청소년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남학생과 차별받는 학교 및 사회 풍토의 지양이 요구되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적과 연관성이 크다고 추정됨에 따라 입시제도의 개선이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생활만족도가 제고되도록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모가 취업한 경우는 맞벌이거나 한부모일 경우가 추정됨에 따라 맞벌이의 경우 방과후 방임 등이 우려되므로 방과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내향적인 청소년의 경우 행복도 및 여러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외향적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으므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이해 등이 필요한데, 향후 심층연구를 통해서 내향적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 제고 및 관계 맺기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2) 이해당사자들(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행복에 대한 인식의 개선

청소년 행복에 대해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 상당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청소년 행복지수의 측정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논의나 토론의 기회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입시위주 혹은 성과위주의 교육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6) 성윤숙, 홍성호(2015),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제언, 대전: 통계개발원 워크숍 자료집

(3) 청소년 행복지수 개선을 위한 지자체별 권고안 개발과 모니터링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영역지수와 세부 지표에 대한 지역별 시계열적 관찰의 결과는 해당 지자체의 타 지역 대비 여건과 시점 간 변화에 기초한 영역 간 정책 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지역별 행복지수 차이를 비교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요약·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력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권고안 및 대응책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별 인신매매 현황을 분석하고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아동인권위원회 권고안처럼 권고사항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팀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 만들어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이 조례안의 권고안을 모니터링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장치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전담센터는 관련 정부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주기적인 포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행복지표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청소년관련 무수한 정책들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간, 상위 지표 간, 세부 지표 간 영향의 차이를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관련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영역별로 구분하는 예산분석을 통해 정책추진이 미약한 영역을 도출하고 향후 이에 대한 정책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5) 행복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적 투자 강화 및 컨설팅 실시

본 연구에서 전남, 충북, 전북, 광주의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청소년 행복지수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적 투자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공공 캠페인 및 실천 운동 전개

자치단체별 행복지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행복친화적 지역정책을 위한 관련 인력·조직·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 캠페인 및 실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북구나 군산, 대구, 광주 등 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라도 할 수 있다.

(7) 청소년정책예산 DB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시계열 관리 및 평가

현재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도 미미하여 지방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 지자체별 각 행복지수 영역에 대한 청소년정책 예산을 분석하여 지자체별 청소년정책의 문제 도출과 정책방향 설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예산은 아동예산과 혼합되어 있어 사업 과제별 투입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아동예산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예산 코드를 분류하여 DB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한 영역별 예산 투입 실적과 산출 결과를 파악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진단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예산을 세목별로 분류하여 코드화 할 수 있는 메뉴얼 개발 및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정책 예산 규모의 분석과 청소년의 행복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8) 지역별 청소년 행복지수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전담기구가 설치·운영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청소년 관련 무수한 정책들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행복이나 삶에 대한 만족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성과지표로의 설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예산의 집행이 청소년 행복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세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지표들의 통일된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청소년의 행복지수 모니터링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행복지수의 작성과 관리는 객관적인 견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설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조사팀과 조사자료팀 2팀제가 필요하며 전임 연구원이 배치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행복지수의 지역 간 차이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정치적 간섭에 독립적인 국책연구기관에 부설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9) 패널자료 구축을 통한 행복지표의 관리

행복은 개인의 기질이나 타고난 천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행복지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의 구축과 이를 통한 행복지표-특히, 주관적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⁴⁷⁾ 패널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개별 청소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연구자로 하여금 행복 혹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해당 청소년 개인의 고유한 기질이나 천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기질이나 천성이 지역 간 상이하게 설문조사 대상 청소년이 표본으로 추출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수화와 결정요인분석의 결과는 변수누락이나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bias)를 포함하게 된다.

더불어, 자료가 시계열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지수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회귀분석과 결과에 기초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의 타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 지역 간 비교도 의미가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시계열 변화에 대한 원인 및 처방의 탐색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지표나 지수 생산의 원론적 목표는 '비교'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시기, 특정 공간에서의 지표값이나 지수값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오로지 비교를 통해 지표와 지수는 의미를 갖게 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값 및 지수값의 생산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 통계자료의 재정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구의 보완계획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영역별 자유로운 분석가능성이 요구된다. 특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47)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해당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임에 주장된다(hedonic adaptation). 일본의 내각부 산하 웰빙측정위원회 위원장인 오사카대학의 나오토 야마우치교수 역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자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독일의 사회경제패널이나 영국의 가구패널이 삶의 질이나 주관적 웰빙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Mining) 기법들”의 연계가 요구된다(김신영, 2006). 후속 연구로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지역별 조사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행복마을 연구 결과와 연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10) 관련 조사기관과의 DB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 및 지표항목의 첨가

지역사회청소년지표는 무수히 많은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단일기관이 관련된 모든 통계정보를 조사·산출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청소년지표 관리의 체계성과 정밀성을 제고하고 비용적 효율성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기관들의 조사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DB구축이 필요하다(김신영, 2006).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DB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통계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1) 청소년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지표에 관한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활용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계를 통계 DB화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 등 일반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제시 및 인포그래픽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12)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정립

각 영역별 또는 각 지역별 청소년 행복인식에 대한 최저선(Minimal Line), 적정선(Optimal Line)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사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처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행복기준(Local Happiness Minimum) 등과 같은 기준선을 제시하거나, 보다 발전적으로는 적정선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기존의 각 영역별 점수에서 최저점수(예를 들어, 평균점수

또는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최저선 설정)와 적정점수(예를 들어, 상위 25%를 기준으로 설정)를 설정함으로써, 각 지역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지향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지역별·영역별 정책제언

(1) 관계영역

본 연구에서 청소년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관계 및 교육영역 만족도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은 양질의 관계정립을 통해서 일어나며, 청소년 행복과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관계인 가족, 친구, 교사, 친지 등과의 관계를 풍부하게 갖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인간관계 기술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거나 가족간의 대화시간을 갖기 위해 가족이 함께 아침밥 먹기 캠페인, 귀가후 TV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는 가족규칙 제정 실천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부산지역에서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이웃(지역사회)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 정부)가 높게 나타났고, 제주지역에서 가족관계만족도,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경기지역에서 가족 간의 대화시간, 전북에서 담임교사와 면담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지역의 관계영역과 관련된 청소년정책이나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맺어 나가는 사회적 관계는 분명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 보다는 지역사회라는 생활공동체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지표를 보다 집중하여 이것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한 후 이것들과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행복간의 상호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지역사회 청소년 관계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영역

세계 행복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낮은 소득, 식량부족, 보건의료에의 낮은 접근성, 안전한 의식주 부족, 교육기회의 부족 등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 가치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적인 가치관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주의적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이것은 청소년의 실태를 쫓아다니는 정책보다도, 궁극적인 인성과 가치관 교육의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높은 학업성취, 경제소득, 복지시설이 있음에도 행복도가 높지 않은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 행복정책은 보편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완성되기 어렵다. 그 보다 인식전환, 가치교육, 긍정적 인성함양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영역의 세부 지표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서울지역이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초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 클리닉 지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학업속력제 등)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규제 및 통제, 수동적인 피학습자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문화를 적극 활성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배움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문화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

특히 경기지역이 학교급별 학생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교원수급과 교육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혁신학교와 같이 일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경우, 인근의 일반학교 학생수가 증가하므로 특정 정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역이 학업성취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세종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

기초 학력 미달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기초학습에 대한 책무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에서 교과과정 만족도와 진로교육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학생중심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서 토론 및 토의,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주제선택활동, 진로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역사회와 다양한 진로체험처가 학교 교육에 제공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모방주의 및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대중문화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영역의 만족도가 행복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자체의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청소년의 행복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주관적웰빙

주관적 웰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지역에서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향후 부산지역의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심층분석하거나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관계만족도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어, 다른 지역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관적웰빙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울산, 전남, 인천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정서상태(즐거움, 편안한, 불안한, 슬픈, 우울한, 행복한), 전남지역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인천에서는 유데모니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내향적인 청소년들이 주관적웰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기회제공과 행복교육과 행복가치관 교육이 학교에서 일반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이 요구 된다.

(4) 건강영역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병이며, 그 다음으로 외향적 성격, 성별, 학급 내 성적, 친부모와의 동거 여부, 연령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외향적 성격의 남학생으로서 학급 내 성적이 높으며 친부모와 함께 사는 나이 어린 학생일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청소년이 질병을 앓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환경과 가정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남지역이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자살방지를 위한 학교 상담프로그램을 보다 더 충실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남지역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재원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질병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각 학교에서 실시하여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청소년 환자에 대한 기금과 성금을 마련하여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활동영역

활동과 참여는 여러 영역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바, 여가 및 취미활동 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동상태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다. 부산, 대구, 광주, 전남이 90점 미만인 반면,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제주는 10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 이 지역적 편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활동 관련 지자체 예산 규모 등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전북과 전남 및 광주와의 비교는 이러한 작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전북과 전남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례조사 형식으로 탐색하는 것은 타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내용적 측면과 더불어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주말 활동과 문화적 기회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봉이 지난 영화를 상영하는 1달러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6) 참여영역

참여영역에서 지표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 제주, 대전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아동권리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이, 제주지역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가, 대전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울산, 전남, 전북이 청소년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 분석에서 참여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참여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 옴부즈맨 제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시정활동 청소년 모니터링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7) 환경영역

본 연구에서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향적 성격이며, 그 다음으로 질병, 친부모와의 동거, 학급 내 성적, 자가 주택, 연령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질병 없이 건강하고 친부모와 함께 살며, 학급 내 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 집에 사는 나이 어린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환경 만족도가 높다.

특히 경기, 충북, 인천, 서울, 광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환경과 주거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정적이며, 주택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통학소요 시간이 길며 녹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도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과거나 지금처럼 녹지대와 산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녹지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지역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에 대한 심각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8) 안전영역

범죄안전도 (실제로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지표를 보면 서울, 부산, 제주, 경기의 청소년이 높은 두려움을 나타냈으며, 강원, 광주, 경북의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두려움을 표시하였다. 실제범죄피해는 전남-대전-서울 순이며, 학교폭력발생은 대구-전남-경북 순이었다.

사회안전망시설 구축 인지는 인천-부산-울산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부산, 제주, 경기 등의 대도시, 외국인이 많은 지역, 화제가 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의 청소년들은 실제 범죄피해와 실제 학교폭력 발생에 관련없이 두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학교안전망, 지역순찰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에서 범죄를 다룰 때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화재성에 집중하고 자극적인 보도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좀 더 신중한 태도로 사건사고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9) 경제영역

서울지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 지니계수가, 울산지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대전지역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전북지역에서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제주지역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인천지역에서는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지역에서는 가정경제만족도가, 대구지역에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충남에서는 지니계수가, 제주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율, 실업율이, 울산에서는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이, 강원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경제영역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가 정신교육 및 소비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득격차 해소 및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3) 연구의 한계점

(1) 공간분석의 한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시도 단위의 분석은 해당 시도가 하나의 등질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 진다. 그러나, 해당 시도 내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해당 시도에 대한 청소년 행복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기술은 가능하나 정책적인 활용도는 낮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생태학적 오류’ 때문이다. 행복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개인의 행복도는 의외로 높을 수도 있다. 즉 지역별 특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 학군 혹은 개인에 관한 분석 결과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층인터뷰나 지역사회조사 연구를 통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보완

지수값의 생산을 위한 지표 간 가중치 설정에 관한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종합 지수의 생산을 위해 소위 ‘동일가중치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동일가중치전략은 미국에서 개발된 CWI(Child Well-being Index)에서 활용된 바 있다.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혼합되어 있음으로 인해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델파이 방법이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 주성분분석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행복도 측정인 경우 청소년이 가중치를 스스로 정할 수도 있다.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는 주성분분석 혹은 요인분석이 적절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승희, 홍성효 (2013).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전략연구 2013-01).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 교육부 (2012).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3).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6.8).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boardSeq=57767¤tPage=0&encodeYn=N&mode=view>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교육부 (2015.6.8).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boardSeq=57767¤tPage=0&encodeYn=N&mode=view>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교육부 (2015.6.8).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boardSeq=57767¤tPage=0&encodeYn=N&mode=view>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교육부 (2015.6.8).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boardSeq=57767¤tPage=0&encodeYn=N&mode=view>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pp. 36-39, 96-99, 128-141, 194-197, 246-249). 세종: 교육부, 세종: 보건복지부, 청주: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7.30). **2014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7.30). 201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7.30). 2011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7.30). 2012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7.30). 2013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5.7.30). 2014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2015.8.15). e-나라지표 2014년 말 도시공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에서 2015년 8월 15일 인출.
- 권세원, 이해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 청소년탄력성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2013).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36-247.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 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외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연구보고 06-R02-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한, 임영식, 김민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연구보고 14-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진 (2013). 개인-환경 적합성 모델을 이용한 노인의 주거만족도 및 거주 의사 분석. **주거환경**, 11(1), 51-62.
-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도로교통공단(2010).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2011).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2012).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2013).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2014). **통합 DB처**. 강원: 도로교통공단.
- 박소연, 이홍직 (201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위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21(2), 73-84.
- 박영균, 조홍식 (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행복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성윤숙, 홍성효(2015).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정책제언, 대전: 통계개발원 워크숍 자료집.
- 알프레드 아들러(2009). **인간이해**. 일빛.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백서**, 388.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2 청소년백서**, 404.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3 청소년백서**, 418.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2).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230. 서울: 여성가족부, 서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113. 서울: 여성가족부, 서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염유식, 김경미, 이미란, 이진아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연구보고 2014-2).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15-26.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울: 세이브더 칠드런.
- 이재현·고봉성 (2012).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0(3), 1-14.
- 이희길, 심수진, 박주연, 배현혜 (2013). 국민 삶의 질 측정.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이희길, 이윤석, 송정기, 김종수, 김양중, 이상진 외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전략연구 2012-02).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임준홍, 홍성호 (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충남지역을 사례로. **주거환경**, 12(2) 137-152.
- 임준홍, 홍성호 (2014).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0(3), 1-14.
- 장근영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3-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재정고 홈페이지(2015.7.3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I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 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최순중, 한정수 (2011).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7(0), 180-207.
- 통계청 (2015.7.3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018&conn_path=I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통계청 (2015.6.8).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3 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통계청 (2015.6.8).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I3 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통계청 (2013). **한국의 사회지표**. pp 344-345.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3). **2013 사회조사 원자료**.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5.7.30). **2013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SP151R&conn_path=I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통계청 (2015.6.8).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3 에서 2015년 6월 8일 인출.
- 통계청 (2015.7.20).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2 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 통계청 (2015.7.30).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I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통계청 (2015.7.30).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I3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준, 강석훈, 김석호, 서은국, 홍종호, 이희길 외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서울: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승애 (201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외국문헌〉

- Birgit N., & Lennart K. (2009). Core Indicators of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at the Municipal Level in Greenland. *Child Indicators Research*, 2(2), 221-244.
- Blanchflower, G., & Oswald, A. (2004). Money, Sex and Happiness: An Empirical Study. *Scandinavian Journal Economics*, 106(3), 393-415.
- Boarini, R., Comola, M., Smith, C., Manchin, R., & Keulenaer, F. (2012). *What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 Bradshaw, J., & Richardson, D. (2009).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2(3), 319-351.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o S. F., Alois S., Matthias B., Stephan M., Simon L. & Christine B.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Chawla, L. (2002). *Growing Up in and Urbanizing World*. London: Earthscan.
- Daniel K. & Angus, D. (2010).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well-being*. Center for Health and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08544.
- Deanton, A.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and Reder, M.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Academic Press, New York.
- Erickson, D., Clark, S., & Kohn, M. (2010). AD/H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Completed by Children or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3), 1-8.
- Helen, B., Michael, N., Gemma W. & Andrew D. (2008). A Geographical Profile of Chil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Child Indicators Research*, 2(2), 181-199.

- Helliwell, J., & Wang, S. (2011). *Weekends and Subjective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No 1718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James, E. D. (2002). Games, Motivation, and Learning: A Research and Practice Model. *Simulation & Gaming* December 2002, 33, 441-467.
- Bradshaw, J., Noble, M., Bloor, K., Huby, M., McLennan, D. & Rhodes, D. et al. (2009). A Child Well-Being Index at Small Area Level in England. *Child Indicators Research*, 2(2), 201-219.
- Joonkoo L., Vicki L. & Kenneth C. L. (2009).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1995–2005. *Child Indicators Research*, 2(4), 353-373.
- Kahneman, D. & Krueger, A.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3-24.
- Keetie R., Franziska G. & Chris N. (2009).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Definition for the Measurement of Child Poverty - the case of Vietnam. *Child Indicators Research*, 2(3), 245-263.
- Lucas, R. (2007). Long-Term Disability Is Associated with Lasting Changes in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717-730.
- Lucas, R., Clarke, A., Georgellis, Y., & Diener, E.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1), 8-13.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aris: OECD.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OECD (2012). *Draft OECD Guidelines o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 Oswald, F., Wahl, H., MollenKopf, H., & Schilling, O. (2003). Housing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n Two Rural Regions in Germany. *Research on Aging* 25(2), 122-143.
- Oswald, F., Wahl, H., MollenKopf, H., & Schilling, O. (2003). Housing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n Two Rural Regions in Germany. *Research on Aging* 25(2), 122-14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abine A., Klaus H. & Ulrich S. (2012). Care and Freedom: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of Children's Well-Being in Germany. *Child Indicators Research*, 5(3), 437-448.
- Sacks, W., Stevenson, B., & Wolfers, J. (2010). *Subjective Well-Being, Income,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1644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ilva, J., Keulenaer, F. D., & Johnstone, N. (2012). *Individu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Air 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based on Micro-Data, OECD Environment Directorate Working Paper* (forthcoming). Paris: OECD Publishing.
- Sinéad, H. (2009). From Rhetoric to Reality: Challenges in Using Data to report on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Child Indicators Research*, 2(1), 33-55.
- Stevenson, B. & Wolfers, J.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39(1), 1-102.
-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2012). *The 2012 KIDS COUNT data book: State Trend in Child Well-Being*. KIDS COUNT Data Book Collection.
-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UNICEF (2010).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A Facilitator's Guide*.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and Child Watch International.
- UNICEF (2013a).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http://www.unicef-irc.org>.
- UNICEF (2013b).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http://childethics.com/wp-content/uploads/2013/10/ERIC-compendium-approved-digital-web.pdf>.
- Weinhold, D. (2010). *How Big a Problem Is Noise Pollution? A Brief Happiness Analysis by a Perturbable Economist*. Unpublished Working Paper.
-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 1-15.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참고사이트〉

국민 삶의질 지표 홈페이지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Hea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Survey: <http://www.hbsc.org/>.

부 록

- 부록 1.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
-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 부록 3. 객관지표 통계자료

부록 1.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

DPIID
 ID

과제	교급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초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연구자: 성윤숙 연구위원 (044) 415-2218	실사진행기관: 미디어리서치 조사문의처: 문화정 부장 (02) 3488-2728
--	--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_____ 학교 _____ 학년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읍/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면접날짜	2015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면접원 ID/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매우 즐겁기 때문에 ⑤번을 선택합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문항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문항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배경문항 6.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6-1」로 가십시오

☞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②번을 선택하고, 6-1번으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PART I.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을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문2.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슬픈	①	②	③	④	⑤
5)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6)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목표한 것을 이룬다고 느낀다(성취감)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시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7.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문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문16-1」로 가십시오

문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PART IV. 교육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7.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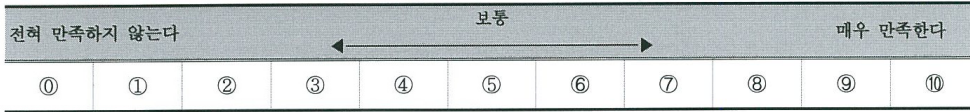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수업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안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시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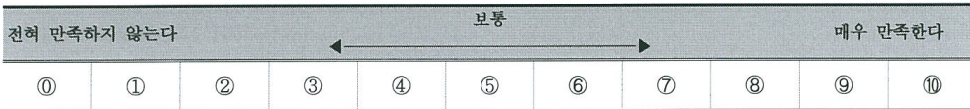


문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길을 떠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시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문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학교 규약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학생은 전반적으로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문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I. 경제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5.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PART IX. 환경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6.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문2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집은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8. 학생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자가(부모 등 가족소유) ② 전세 ③ 월세(보증금 있음) ④ 월세(보증금 없음) ⑤ 무상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⑦ 모름

PART IX.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예시 1 :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2 :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 | | |
|--------------------|----------|
| ① (외)할아버지 | ② (외)할머니 |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 ⑤ 새아버지 | ⑥ 새어머니 |
| ⑦ 형제 또는 자매 | ⑧ 친척 |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⑩ 없음 |


배경문항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5.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배경문항 6.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6-1」로 가십시오

배경문항 6-1.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음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PID

ID

과제	교급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학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학급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설문지연번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시진행기관: 미디어리서치
 담당연구자: 성윤숙 연구위원 (044) 415-2218 조사 문의처: 문화정 부장 (02) 3488-2728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_____ 학교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학년		_____ 동(읍/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면접날짜	2015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면접원 ID/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	--	-------	--	--------	--	--------	--

부
록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매우 즐겁기 때문에 ⑤번을 선택합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문항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문항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배경문항 6.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6-1」로 가십시오

☞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②번을 선택하고, 6-1번으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PART I.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학생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 학생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셨습니까?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슬픈	①	②	③	④	⑤
5)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6)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학생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 이웃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7.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문16. 학생은 질병(감기, 배탈, 몸살 등은 질병에서 제외)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 있다면 「문16-1」로 가십시오

문16-1. 학생의 질병에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선천적 질병(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병)
- ② 후천적 질병(태어난 후 얻어진 질병)

PART Ⅲ. 교육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7.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V. 안전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학생은 평소 생활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문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길을 떠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참여 영역 - 다음은 학생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문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벌 받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학생대표(학생회장, 반장, 부반장)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활동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3. 학생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에는 내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 경제 영역 - 다음은 학생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5. 학생의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VIII. 환경 영역 - 다음은 학생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6.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배경문항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5.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배경문항 6. 학생은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6-1」로 가십시오

배경문항 6-1.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음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PID ID

과제	교급
----	----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교사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미디어리서치
담당연구자: 성윤숙 연구위원 (044) 415-2218	조사문의처: 문희정 부장 (02) 3488-2728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년	_____ 학교 _____ 학년	학교소재지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읍/면)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작성 날짜	2015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면접원 ID/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부
록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와 담당 학급의 학생들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매우 즐겁기 때문에 ⑤번을 선택합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문항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문항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배경문항 4.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세요.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4-1」로 가십시오

☞ 종교가 있기 때문에 ②번을 선택하고, 4-1번으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PART I.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보통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은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귀하 담당 학급 학생이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슬픈	①	②	③	④	⑤
5)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6)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급 학생들은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학급 학생들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담당 학급 학생들의 개인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6. 귀하는 최근 어느 정도 행복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행복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을 10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7.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가치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전혀 가치없음을 10은 매우 가치있음을 의미).

전혀 가치없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8. 다음은 귀하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9.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급 학생들은 동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급 학생들의 학부모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의 주민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문12.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PART Ⅲ. 건강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담당 학급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이들의 또래집단과 비교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①

문1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급 학생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안 먹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우리 학급 학생들은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학급 학생들은 아침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V. 교육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는 담당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8.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교사)는 우리 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교사)는 우리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 안전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귀하는 담당 학급 학생들의 평소 생활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내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밤중에 혼자 길을 떠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의 생활주변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1.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권리에 대해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는 학생이 별 반기 전,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급 학생들은 출신지, 국적,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 활동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3. 귀하는 담당 학급 학생들의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급 학생들은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는 뛰어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급 학생들은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I. 경제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 담당 학급 학생들은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IX. 환경 영역 - 다음은 귀하의 담당 학급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6.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생활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는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X.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귀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석사 졸업)	대학원(박사 졸업)
①	②	③

배경문항 2. 귀하의 교사 경력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배경문항 3. 귀하는 담당 학급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졸업

배경문항 4.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4-1**」로 가십시오

배경문항 4-1.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음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PID ID

과제	교급
----	----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학부모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사진행기관:	미디어리서치
담당연구자:	성윤숙 연구위원 (044) 415-2218	조사문의처:	문화경 부장 (02) 3488-2728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http://www.nypi.re.kr>

학교 및 학교	_____ 학교 _____ 학년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읍/면)
---------	----------------------	------	---------------------------------------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일	_____ 년 _____ 월
작성 날짜	2015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면접원 ID/성명		S/V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	--	-------	--	--------	--	--------	--

부
록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학부모님과 자녀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우리 자녀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매우 즐겁기 때문에 ⑤번을 선택합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는 평소에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문항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문항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배경문항 8.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있다

→ 있다면 「배경문항 8-1」로 가십시오

☞ 종교가 있기 때문에 ②번을 선택하고, 8-1번으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PART I. 주관적 웰빙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의 자녀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 귀하 자녀는 최근 다음과 같은 감정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귀하 자녀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의 느끼지 못했다	보통이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슬픈	①	②	③	④	⑤
5) 우울한	①	②	③	④	⑤
6)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문3.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고(낙관적)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녀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녀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자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자녀는 자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자녀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다음은 귀하 자녀의 개인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5.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6. 귀하는 최근 어느 정도 행복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행복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전혀 행복하지 않음을 10은 매우 행복함을 의미).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7.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가치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세요. 0은 전혀 가치없음을 10은 매우 가치있음을 의미).

전혀 가치없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8. 다음은 귀하 개인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향적인(다른 사람과 쉽게 잘 어울리는)	①	②	③	④	⑤
2) 걱정이 많은	①	②	③	④	⑤

PART II. 관계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9. 귀하는 자녀의 전반적인 인관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문1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는 가족들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녀는 평소에 부모님(보호자)과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녀는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자녀는 평소에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자녀는 동네 이웃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다음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녀의 친구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녀의 담임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이웃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⑤

문12.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국공립 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앙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①	②	③	④	⑤

PART Ⅲ. 건강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자녀의 또래에 비해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4.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녀는 평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안 먹는다	적게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많이 먹는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우리 자녀는 고카페인 음료(예: 콜라나 커피, 핫식스, 박카스 등)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자녀는 아침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V. 교육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는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V. 안전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8. 귀하는 자녀의 평소 생활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9.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 학교의 교실 화장실 복도, 체육관 같은 시설과 자녀가 쓰는 책상 의자 등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녀 동네의 건물, 체육시설이나 공원의 운동기구, 놀이터의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시설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녀가 동네에서 밤중에 혼자 길을 떠나 공터나 놀이터를 혼자 지날 때,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자녀 생활주변(학교, 집근처)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 참여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0.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귀하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VII. 활동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평소 생활 중 활동(놀이, 여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1. 귀하는 자녀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활동(놀이, 여가 등)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2.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녀의 동네에는 뛰놀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자녀는 놀고, 쉬고, 즐기는 데 필요한 용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자녀의 동네에는 자녀가 놀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VIII. 경제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경제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3. 귀하 자녀는 전반적인 가정형편(경제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PART IX. 환경 영역 - 다음은 귀하 자녀의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4. 귀하는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만족의 정도를 0-10점으로 응답해주십시오. 0은 매우 불만족을 10은 매우 만족함을 의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25.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각종 유해환경(유해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X.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1. 귀하 자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예시 1 :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시 2 :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 | | |
|---------------------|----------|
| ① (외)할아버지 | ② (외)할머니 |
| ③ 아버지 | ④ 어머니 |
| ⑤ 새아버지 | ⑥ 새어머니 |
| ⑦ 형제 또는 자매 | ⑧ 친척 |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⑩ 없음 |

배경문항2.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귀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를 해주십시오.

-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배우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타당화를 위해 학계, 행정계,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내드린 질문지는 5월 1일(금)까지 이메일(first1004@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연구위원



(문의처: ☎ 044-415-2218,
044-415-2498)

※ 소정의 사례비 지급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성명					
주 소					
주 민 번 호					
은행/계좌번호					

※ 본 연구는 2014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에 CFCI(Child Friendly City Index), 유네스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아동 삶의 질 지수 등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지표를 타당화할 것입니다.

본 지표는 주관지표와 객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관지표는 전국의 초4~고3 재학중인 청소년 9,500명, 학부모 1,500명,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예를 들어 가족의 대화시간 등 객관적 지표 일부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객관지표는 17개 시도 광역시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사회지표 자료를 통해 산출할 예정입니다. 본 지표의 지역단위는 17개 시도 광역시입니다.

다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마인드맵([그림 1] 참조)을 참고하여 전체 지표를 보신 후, 예시(교육 영역)와 설명을 확인하여 지표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각영역에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을 예시에 맞게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시시오.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시오.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시시오.

4) 추가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 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해당 지표 관련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 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시오.

● 예시(교육 영역)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교육 기회	1. 직업교육 훈련기회	주관	○	△	△	◎	◎	◎	△	○	x	○	x	6	
			2. 학교중단율	객관	◎	◎	△	△	△	△	△	x	○	○	x	7	
			3. 학교급당 학생수	객관	◎	◎	△	◎	x	x	◎	◎	○	○	x	2	
			4. 학업성취도	객관	◎	◎	◎	◎	△	◎	◎	△	○	○	x	1	
		교육 효과	5. 사교육비 지출액	객관	◎	◎	○	○	△	○	○	◎	x	○	○	x	3
			6. 교과과정 만족도	주관	△	△	x	○	○	○	○	○	x	○	x	x	5
			7. 방과 후 교육활동	주관	△	△	x	○	○	○	○	○	x	○	x	x	8
			8. 프로그램 만족도	주관	△	△	x	○	○	○	○	○	x	○	x	x	4

* 위에 제시한 OECD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과 CIW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의 표시와 지표 우선 순위는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예시임을 참조

● 설명

1. OECD지표 선정기준

- 1) 결과(outcome)지표는 해당 지표가 투입(input)이나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를 나타내는데에 대한 여부
- 2) 시계열 측정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로 측정가능함에 대한 여부
- 3) 가변성은 해당 지표가 시계열(연도별)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여부
- 4) 보편성은 해당 지표가 삶의 질이나 웰빙 등에 관한 실험연구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5) 영역 간 중복은 해당 지표가 타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 6) 간결성은 해당 지표가 일반인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7) 적용성은 해당 지표가 **우리나라 17개 시도 광역시**에 대해 산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8) 선정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매우 부합함, ○ : 대체로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2. CIW(Canada Index of Well-being) 지표 분류 기준

- 1)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은 인간이 개인적 웰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
- 2)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은 지역공동체에서 전체 사회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공 영역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는 자원
- 3) 생태계자원(ecosystem resources)은 환경만을 포함하는 웰빙을 위한 자원
- 4) 지표 분류 기준에 대한 부합성은 ○ : 기준에 부합함, △ : 보통, x : 부적합으로 구분

1. 관계 영역 지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관계 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x: 부 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미시 체계	1. 가족 관계만족도	주관																
			2. 교우 관계만족도	주관																
			3. 교사 관계만족도	주관																
			4. 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주관																
		5. 일반신뢰도	주관																	
		6. 부모-교사 관계만족도	주관																	
		7. 부모-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주관																	
		8. 학교-이웃(지역사회) 관계만족도	주관																	
		9. 일반신뢰도	주관																	
		10. 기관신뢰도	주관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4) 추가로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초록색 영역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관계 영역 관련 새로운 지표가 있을 시에는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요.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작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5) 연구와 관련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요.

6) 관계 영역에 관한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님과과의 관계 만족도 2.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3. 가족(부모, 형제자매)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4. 일주일 평균 가족과의 식사 횟수 5.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6. 학교에 나의 문제나 고민을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담임선생님 이외)이 있는지 여부 7.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정도 8. 학교 친구들이 서로를 따돌리지 않고 존중하는 정도 9.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정도 10. 일주일간 교사와 평균 대화 시간 11. 학생 1인당 평균 단짝 수 12. 학교에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는지 여부 13. 친구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14. 친밀한 유대감을 맺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 여부 15. 이웃 사람들의 친절도 16.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족의 친구와도 친하게 지내는 정도 17.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른들이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는 정도 18. 이웃과의 모임(공부방, 종교단체, 조기 축구회, 지역사회 동호회 등) 참석 횟수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Korea (2013)	가족 관계의 질	1.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정도
		또래 관계	2. 긍정적인 또래관계 정도 3. 또래관계 정도
			1. 가족-부모-친구와의 관계/관계에 대한 만족 2. 이웃 간의 신뢰관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가족구조	1. 한부모 가정: 한부모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2. 의붓 가정: 의붓아버지/어머니와 같이 사는 학생의 비율 3.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지역식사를 하는 학생의 비율 4.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학생의 비율 5. 친구관계(진절하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한국방정환재단 (2014)	부모관계	1. 지역주민 간 유대감 2. 아동권리존중 3. 정보접근성 4.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5. 지역사회 정책결정과정 참여 6. 정책의 홍보 7.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8. 아동의 관점 반영
		친구관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UNICEF (2010)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포명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2007)	가족구조	1. 한부모 가구에 사는 아동비율
		가족관계	2. 재혼가구에서 사는 아동비율
		포대관계	3.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와 저녁식사(main meal)를 다고 보고한 아동비율 4.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대화시간을 할애한다고 보고한 아동비율 5. 또래들이 '친절하고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11세, 13세, 15세 아동비율
From Rhetoric to Reality: Challenges in Using Data to report on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Survey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Survey	부모와의 관계	1.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엄마와 쉽게 또는 매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한 0-17세 아동비율 2.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빠와 쉽게 또는 매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한 0-17세 아동비율 3.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진다고 보고한 15세 아동비율 4.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교생활이 어떤지 논의한다고 보고한 15세 아동비율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와 저녁식사(main meal)를 한다고 보고한 15세 아동비율 6. 동성친구가 3명 이상이라고 보고한 10-17세 아동비율 7.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10-17세 아동비율
		포대와의 관계	

2. 주관적 웰빙 영역 지표

-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주관적 웰빙 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표면성	영역 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1. 정서 경험												
				2. 삶의 만족도											
					3. 유메모니아										

-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표면성	영역 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14)		

4) 추가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초록색 영역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주관적 웰빙 영역 관련 새로운 지표가 있을 시에는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직접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5) 연구와 관련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십시오.

--

6) 주관적 웰빙 영역에 관한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Korea (2013)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행복감	1. 전반적인 행복감
			2. 나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의 만족도	3.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4. 학업 스트레스 정도*
			5. 학교 만족도
			6. 학교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가족에 대한 만족도	7. 가족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만족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한국방정환재단 (2014)	주관적 건강	1. 주관적 건강: 자신의 건강의 상태가 '전혀 좋지 않다', '별로 좋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2.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개인 행복	3. 삶의 만족도: 자신의 삶에 '다소', '매우' 만족하는 비율
			4. 부정적 생각: 소속감을 '전혀',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주변상황에 '전혀', '별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다소' 및 '매우'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2007)	건강	1. 자신의 건강을 '괜찮다' 또는 '나쁘다' 이상으로 평가한 아동 및 청소년(young people) 비율
			2. 학교를 무척 좋아하는 아동청소년 비율
		학교생활	3. 1생활만족도 척도'에서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 아동비율
			4. 본인의 행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한 아동 비율

3. 건강 영역 지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건강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x: 부 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세계 지표 측정	기변 성	보편 성	영역 간 중복	간결 성	적용 성	개인 적자 원	공적자 원	생 태 체 계 자 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건강상태	1. 주관적 건강인지율	주관														
			2. 스트레스인지율	주관														
			3. BMI	객관														
		4. 아침식사율	주관															
		5. 고카페인 이용량	주관															
		6. 평균운동시간	객관															
		7. 평균수면시간	객관															
		8. 청소년 흡연율	객관															
		9. 청소년 음주율	객관															
		10. 미디어 증독률	객관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자원	공적자원	상태적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6) 건강 영역에 관한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1. 주관적 건강만족도 2.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 3. 집 주변의 화장실 청결 정도 4. 집 주변에 쓰레기 더미와 고여 있는 더러운 물이 있는지 여부 5. 각종 악물(마약, 분드, 대마초 등) 이용 여부 6.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 7. 주중 평균 수면 시간 8. 정상체중률 9. 일주일간 아침식사 결식 비율 10. 청소년의 흡연율 11. 청소년의 음주율 12. 학교 급식의 질에 대한 만족도 13.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 14. 학교 식수대에 대한 만족도 15. 학교 냉난방이 잘 되는지 여부 16. 학교에서 안전한 성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지 여부 17. 학교 화장실이 깨끗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8. 연간 개인 위생, 흡연, 음주 교육경험률 19. 성교육 경험률 20. 동네에서 피임기구(콘돔, 피임약 등)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적 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Korea (2013)		21. 필요시 상담센터에서 각종 질병(빈혈, 감기, 우울증, 에이즈 등)에 관한 정보 및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22. 동네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안전한 정도
			23. 집 근처공기가 담배연기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
			24. 동네 환경이 깨끗하며 동네에서 놀이를 해도 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인지하는 정도
			25. 청소년 자살률
			26. 청소년 사망률
			27.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 센터 수
			28. 신체 및 정신건강(건강검진, 흡연, 음주, 성교육, 각종 중독, 우울, 자살 등 정서문제) 관련 상담 센터 이용률
			29.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수
			30. 청소년 발달관련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이용률
			31. 응급의료시설의 수
			32. 응급의료시설 이용률
			1. 건강문제로 한 달에 일주일 이상 결석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2. 만성질환 유병률*
3.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4. 일주일 간 운동을 일주일에 4일 이상, 30분간 한 아동의 비율			
5. 세 끼의 식사를 가정에서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			
6. 가정에서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			
7. 아동의 우울 정도(내제화)*			
		개인적 건강	
		주관적 건강	
		건강행동	
		정신건강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8. 필수예방접종 9. 보육지원센터 10. 에이즈예방교육 11. 폐임기구 접근성 12. 지역사회 내 의견반영기구설치
		영양급식	1. 규칙적인 식사 2. 영양상태 3. 학교주변 안전먹거리 장소 4. 학교급식 모니터링 운영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건강	5. 정상신체 충실도 6. 만성질환 유병률 7. 장애청소년 지원프로그램 8.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미 실시 비율 9. 공공의료서비스 기관 보급 및 공공의료진 수
		정서행동	10. 정신건강 문제 11. 행동문제 12. 흡연 및 음주 13. 인터넷 게임중독
		인프라	14. 건강 15. 정서 행동 문제 상담 및 예방센터 16. 건강관련기관 연계체계구축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17. 건강교육호보 18. 신문 인력 확보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2007)	0-1세 아동의 건강 예방보건의서비스 인건	1. 출산아1,000명당1세 미만 사망 영아수 2. 저체중아(2500g미만)로 태어나는 영아비율 3. 12~23개월 사이에 홍역,DPT, 소아마비예방접종을 받는 아동비율 4. 10만 명당 0-19세에 사고 및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 수
A Child Well-Being Index at Small Area Level in England.	PLASC(2004-2005) NPD(2004-2005)DfE Absence rate data(2004-2005) Child Benefit (2004-2006)		1. 각소지역(L.SOA)에 거주하는 모든 0-18세 아동 대비 0-18세 아동이 응급 입원한 비율 2. 각소지역(L.SOA)에 거주하는 모든 0-18세 아동 대비(0-18세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비율 3. 장애생활수당을 받는0-16세 아동비율
From Rhetoric to Reality:Challenges in Using Data to report on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Quarterly National Household Survey National Educational Welfare Board Statistics	저체중아출생	1. 저체중아(2500g미만)로 태어나는 영아비율(출산 및 사산)
		모유수유	2. 병원퇴원시점에서(a)모유수유만하거나(b)모유수유를 병행하고 있는 신생아 비율
		만성질환 및 입원	3. 아동의 입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질환
		장애	4. 지적장애로 등록된 18세 이하 아동 수 5. 신체 또는 감각장애로 등록된 18세 이하 아동 수
		아동학대	6. 아동보호 통보체계를 통해 사정된 아동 수 7. 학대가 입증되었다고 통보된 아동 수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1995-2005	Kids data.org database	영아 사망률	1. 출산아1,000명당 영아 사망 수
		저체중아 출산 시 영아의 체중	2. 저체중(<2,500g)으로 태어난 영아 비율
		아동-청소년사망률	3. 1-24세의아동/청소년100,000명당 사망 수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률	4. 0-20세 아동/청소년100,000명당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해로 입원한 수		
		친식 임원률	5. 0-14세 아동1,000명당 친식 임원수		
		임신3개월까지산전진료 를받은여성	6. 임신 3개월까지 산전 진료를 받은 여성의 비율		
		출생 시 아동 건강	1. 영아사망률(출산아1,000명당) 2. 지체중출산아(2.5kg이하) 3. 홍역예방접종률(12-23개월 아동100명당) 4. DPT3 예방접종률(12-23개월 아동100명당) 5. Pol3 예방접종률(12-23개월 아동100명당)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OECD PISA 2008 OECD Education at a Glance(2007) 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예방접종	6. 하루에 한번 이상 양치질하는 아동 7. 매일 과일을 먹는 아동 8. 학교 가는 날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아동 9. 아동의 신체 활동 10. 과체중아동(BMI)		
		아동의 건강 행동			
		아동사망	1. 0-17세 아동 100명 당 1년간 사망 아동 수		
		주요 상해	2. 0-17세 아동의 1년 간 병원 입원 발생 정도(손, 발, 머리 골절/ 감기/ 부식/ 화상/ 독극물/ 머릿속 출혈/ 자가 진단에 기초한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		
		상병 감염	3. 15-17세 아동 100명 당 상병 감염으로 통보된 사례 수		
		충치	4. 6세 아동 100명당 유치에 충치가 있는 아동 비율		
		건강문제	5.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두 가지 이상의 건강문제를 주1회 이상 경험하고 있는 6-11학년(2008년부터 6-10학년) 아동 비율(두통, 위통, 등의 통증, 불안, 우울, 짜증 등)		
		주관적 건강수준	6.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자신의 건강수준을 '나쁘다' 혹은 '괜찮다'로 평가한 6-11		
		Core Indicators of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at the Municipal Level in Greenland	Off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National Register on Diagnosis (Ministry of Health) The Department of Community Dentistry and Graduate Studies, University of Copenhagen HBSC Greenland(2006)	아동사망	1. 0-17세 아동 100명 당 1년간 사망 아동 수
				주요 상해	2. 0-17세 아동의 1년 간 병원 입원 발생 정도(손, 발, 머리 골절/ 감기/ 부식/ 화상/ 독극물/ 머릿속 출혈/ 자가 진단에 기초한 상해로 인한 병원 입원)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학년(2008년부터 6-10학년) 아동비율
		삶의 질	7.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Catril 사다리 척도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평가한 6-11학년(2008년부터 6-10학년)아동 비율 8.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100명당 Catril사다리척도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평가한 6-11학년(2008년부터6-10학년)아동비율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Statistics, Death statistic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Statistics.	저체중아	1. 2.5키로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비율: 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Kids count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아동청소년100,000명당 사망률	2. 1세에서 19세 사이 아동청소년의 100,000명 당 사망률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	3. 18세미만 아동 중에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있지 않은 아동의 비율
	UNICEF (2007)	알코올과 미약물 이용하는 청소년	4.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 가운데 약물에 의존하거나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된 청소년의 백분율
A child friendly cities	홍승애(2013)		1. 우리 동네에는 아플 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2. 우리 동네에는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다 3.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와 구정물이 없다 4. 우리 동네 공기는 깨끗하고, 연기와 악취가 없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1. 집과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 필수예방접종을 편리하게 지원 받고 있다. 3.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관리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4. 건강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실 같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p> <p>5. 10대 출산, 에이즈 등 출산, 보건의,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p> <p>6. 흡연, 약물,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p> <p>7. 우울, 공격성, 괴잉행동, 자살 등 정서, 행동문제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p> <p>8.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등 매체관련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p> <p>9.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가이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 등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p> <p>10.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p> <p>11. 학교 주변 안심 먹거리(Green Food Zone) 구역이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p> <p>12. 결식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이 잘 지원되고 있다.</p>

4. 교육 영역 지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교육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x: 부 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직접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교육 기회	1. 직업교육 훈련기회	주관													
			2. 학교중단율	객관													
		교육의 조건과 과정	3. 학교급당 학생수	객관													
			4. 학업성취도	객관													
			5. 사교육비 지출액	객관													
		교육 효과	6. 교과과정 만족도	주관													
			7. 방과후 교육활동	주관													
			8. 프로그램 만족도	주관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직접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장소년이 행북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4) 추가로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초록색 영역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교육 영역 관련 새로운 지표가 있을 시에는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기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5) 연구와 관련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시오.

--

6) 교육 영역에 관한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 보유비율(200권 이상) 2.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활용 정도 3. 매체(컴퓨터, 휴대폰, 인터넷망 등) 보유 여부 4. 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용 5. 학교의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6.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7. 장애 청소년 취학률 8. 학업중도 탈락률 9. 학교급당 학생 수 10.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11.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수 12. 학교 내 상담소 설치 학교 수 13. 학교 내 설치된 도서관 수 14. 대안학교 수 15. 동네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Korea (2013)	성취	16. 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원(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책 나눔, 교육 장소제공 등) 정도	
			17. 도서관 수	
			18. 도서관 이용률	
			19. 지역아동센터 수	
			20.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21. 방과후아카데미 수	
			22. 방과후아카데미 이용률	
			1. 학업성취도(전반적)	
			2. 학업성취도(국어)	
			3. 학업성취도(영어)	
			4. 학업성취도(수학)	
			5. 학교 밖에서 정규 과목 외 다른 과목 배우기	
			6. 학교 밖에서 재미를 위한 책 읽기	
			7. 학교 밖에서 숙제하기	
			교육참여율	1. 교육과정별 시험접수, PISA 평균접수, 국어/영어/수학접수, 학업 스트레스
				2. 취학률, 출석률, 졸업률, 유급률, 비활동(NIET) 청소년 비율
				3. 교육 관련 공적지출, 학급당 학생 수, 통학거리, 학교만족도, 학교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특수교육 현황
			공교육	4. 사설학원수, 사교육비용, 수준, 접근성
				1. 15세 학업성적: 일기시험점수/수학시험점수/과학시험점수
			사교육	2.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아동청소년 영양평가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2.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한국방정환재단 (2014)	교육참여	1. 15세 학업성적: 일기시험점수/수학시험점수/과학시험점수	
			2. 15~19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고용으로의 전환	3.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1. 교육혜택
			2. 교과과정만족도
			3. 남녀차별여부
			4. 교육보충교재제공여부
			5. 교사의 신뢰 및 유대감 만족도
			6. 영양교육
			7. 환경보호교육
			8. 아동권리교육
			9. 성교육
			10. 교사와의 의사소통
			11. 학교물리적환경의 안전성
			12. 충분한 휴식시간
			13. 안전한 식수공급
			14. 화장실위생
			15. 학교상'감사
			16. 디문화존중
			17. 학교도서관
			18. 학교의회참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UNICEF (2010)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 진취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19. 체벌금지 20. 학부모운영위원회 21. 또래간 따돌림 및 폭력 22. 직업교육프로그램 23. 대안교육프로그램 1. 학교중도탈락률 2. 학업성취수준 3.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청소년학습동아리구성 5. 창의적 인계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6. 학교급간의 상호연계활동 7. 지역사회인재나눔 프로그램 운영 8. 공공 및 민간 도서관
		교육기회	9. 학교 및 지역사회 진로교육 프로그램 10. 공공시설 연계작업 체험 학습 기회 11. 교육 및 진로관련 지원센터 배움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12. 교육관련 전문인력 확보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2007)	진로·직업	1. 문해능력의 평균적 성취정도 2. 수리능력의 평균적 성취정도 3. 과학능력의 평균적 성취정도
		인프라	4. 교육을 지속하는 15-19세 비율 5. 교육, 훈련, 취업 중에 있지 않은 15-19세 비율
		15세 때 학업성취 의무교육초과비율	취업으로의 이행률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A Child Well-Being Index at Small Area Level in England.	PLASC (2004-2005) NPD (2004-2005) DIE Absence rate data (2004-2005) Child Benefit (2004-2006)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중등학교 졸업률 계화률 고등교육 진학률	6. 저숙련직을 찾으려고 하는 15세의 비율 1. Key Stage 2(11세) 시험점수의 2년 연속 평균 2. Key Stage 3(14세) 시험점수의 2년 연속 평균 3. Key Stage 4(16세) 시험점수의 2년 연속 최고평균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 8과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관련 자격 중 가장 좋은 점수) 4. 해당 지역의 2년 평균 학교졸석률 대비 중등학교 졸업률 5. 학교를 다니거나 진학 또는 훈련 중이 아닌 16세 이상 아동비율 6.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21세 이하 비율 (2002-2005 4년 평균)
A Geographical Profile of Chil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Census of South Africa(2001)	교육적 결핍	1. 9-15세 아동 중 연령에 맞지 않는 학년의 아동 수 2. 7-15세 아동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수 생활환경 생활환경 결핍
From Rhetoric to Reality: Challenges in Using Data to report on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Quarterly National Household Survey National Educational Welfare Board Statistics	유아교육·보육서비스(ECEC)등록 ECEC의 질 학교출석 학교등록/학업완료 교육적 성취	1. 다양한 보육교육(ECEC)서비스를 이용하는 13세이하 아동수 개발 예정 지난해 학교를 20 일 이상 결석한 아동수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아동 비율 2. PISA의 국제 문해능력 척도에서 15세 아동평균점수 3. PISA의 국제 수리능력 척도에서 15세 아동평균점수 4. PISA의 국제 과학능력 척도에서 15세 아동평균점수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1995-2005	Kids data.org database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코스 수료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	1. 공립학교 12학년 졸업자 중 UC(University of California) 혹은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입학에 필요한 코스를 "C" 학점 이상으로 수료한 비율 2. 고등학교에서 중도 퇴학한 아이들의 비율을 인종/민족에 따라 추정(한 해 동안 수집한 자료에 기반하여 4년 내 중도 퇴학한 아이들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 3. 부모가 일하는 0-13세 아동 중 인가받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 비율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OECD PISA 2008 OECD Education at a Glance(2007) 2006 World Development	성취	1. 문해능력 점수 2. 수리능력 점수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Indicators	참여/등록	3. 과학능력접수 4. 모든 교육기관의 동일제 혹은 시간제 학생(15-19세 청소년비율) 5. 학령 전 아동들의 학교등록률(진체 아동 대비) 6. 15-19세의 비활동 청소년(NEET) 비율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Definition for the Measurement of Child poverty - the case of Vietnam	The Vietnam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6)	비활동 청소년	1. 모든 5세 아동 대비 학령전 교육을 받지 않는 5세 아동비율 2. 모든 6-10세 아동 대비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6-10세 아동 비율 3. 모든 11-15세 아동 대비 중등 교육을 받지 않는 11-15세 아동비율 4. 모든 11-15세 아동 대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11-15세 아동비율
Kids count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유아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읽기가 능숙하지 않은 4학년학생들 수학이 능숙하지 않은 8학년학생들	1. 3세에서 4세 사이의 아동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비율 2. 4학년 학생 중에 NAEP가 측정한 읽기 능력이 능숙하다고 판정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 3. 8학년 학생 중에 NAEP가 측정한 수학 능력이 능숙하다고 판정받지 못한 학생의 비율
A child friendly cities(CFC)	UNICEF (2007)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2. 학교에서는 남녀를 동등하게 대한다 3. 나는 종이, 연필, 책, 학용품을 가질 수 있다 4. 나는 필요 시 선생님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는다 5. 학교에서 건강해지는 법을 배운다 6. 학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p> <p>홍승애(2013)</p>			<p>7. 학교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아동권리협약을 배웠다</p> <p>8.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가르쳐준다</p> <p>9. 학교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p> <p>10. 학교에서 시합, 운동, 휴식하고 친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p> <p>11. 우리 학교에는 마시고 씻을 수 있는 수질 좋은 물이 넘쳐있다</p> <p>12. 우리 학교에는 손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이 있다</p> <p>13. 우리 학교에는 내 고민과 기분을 안심하고 이야기할 어른이 있다</p> <p>14. 우리 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종교, 인종, 국적, 문화를 초월해 존중받는다</p> <p>15. 우리 학교는 장애우를 존중하고 차별없이 똑같이 대한다</p> <p>16. 우리 동네와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다</p> <p>17. 우리 학교는 차별없이 훈계한다</p> <p>18. 학교 결정에 내 의견을 건넬할 기회가 있다</p> <p>19. 우리 학교나 지역 사회에 미래 직업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p> <p>20. 우리 학교는 장애우들도 이용할 수 있다</p> <p>1.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p> <p>2.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p> <p>3.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p> <p>4. 민관, 다문화, 조손 가정, 시설보호 아동 등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p> <p>5.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보충 수업자료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p> <p>6. 장애 아동·청소년도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많다.</p>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7. 학교시설은(운동장, 여가활동 공간 등)가족과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p> <p>8. 학교의 교실 면적, 복도 면적, 책상, 의자 등 교실의 시설물은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맞게 구비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p> <p>9. 학교의 급식시설, 화장실 등 시설물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p> <p>10. 학교는 채광, 난방, 환기, 전기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p> <p>11. 학교는 학교운동장(바깥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p> <p>12. 집과 가까운 거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도서관이 있다.</p>

5. 안전 영역 지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안전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x: 부 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개인적자원	공적자원		생태계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사고	1. 지역사회시설안전도	주관												
			2. 학교시설 안전도	주관												
			3. 위기상황대처 능력	주관												
			4. 유해환경	객관												
			5. 청소년 도로사고율	객관												
			6. 청소년 안전사고사망률	객관												
			7. 범죄 안전도	주관												
			8. 청소년 범범죄해율	객관												
			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객관												
			10. 학교폭력 발생률	객관												
			11. 청소년 범죄율	객관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결성	적용성	개인적자원	공적자원	생태계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14)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14)		

4) 추가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초록색 영역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안전 영역 관련 새로운 지표가 있을 시에는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5) 연구와 관련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십시오.

6) 안전영역 관련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청소년이 행부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2. 가정 내 사고(화재, 가스누출 등)로부터 안전한 정도 3. 불량주행차량 4. 학대 방임 발생률 5. 학교에서 실체적 처벌을 가하지 않는지 여부 6. 학교 학생들이 괴부씩,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정도 7.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정도 8. 학교의 건물이나 교실, 화장실, 복도, 책상, 걸상 등 학교의 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9. 혼자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0.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1. 학교폭력 발생률 12. 배움터지킴이 운영단 수 13. 교화권 CCTV 설치 비율 14.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 받거나 구타를 당할 때 동네 이웃 어른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5. 종교, 인종,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으로부터 존중 받는 정도 16.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도 17. 동네 나쁜 어른이나 동네 나쁜 형들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정도 18. 혼자 집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19. 집 밖에서 위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 어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20. 동네의 도로와 보도, 신호등, 건널목 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폭력행동	21. 만약 위험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아는 정도												
			위험행동	22.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동네 환경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학대와 방임	23. 동네가 각종 유해환경(유용업소, 불법 광고지,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사회적 보호	24.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에 안전한 정도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25. 동네를 밤에 걸어 다니다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6.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수							
								이동청소년영향평가	27.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단속 실적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28. 청소년 교통사고 발생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9. 청소년 성폭행피해 발생률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30. 청소년 상매매 발생률			
												이동청소년영향평가	31. 청소년 범죄율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32.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3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 건수
															이동청소년영향평가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1. 학교 폭력 피해(폭력) 아동의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 학교 폭력 피해(따돌림) 아동의 비율*													
		이동청소년영향평가	3. 아동의 지위비행 정도*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4. 아동의 범죄비행 정도*											
				이동청소년영향평가	1. 이동청소년학대 발생률, 조차결과, 재신고현황, 방임(방과후 방치)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2013)	2. 이동청소년보호: 요보호아동 (수, 발생유형, 보호유형), 청소년쉼터, 그룹홈 현황									
						이동청소년영향평가	2. 이동청소년 복지시설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및 이용 현황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한국방정환재단(2014)	비행 및 위험 행동	3. 아동·청소년 상남: 아동·청소년 상남소 현황, 고민사항, 상담실적, 청소년 긴급 전화 이용 현황
			4. 학교폭력: 학교폭력(아동·청소년 폭력, 따돌림): 실제 현황, 피해기에 경험률, 단속현황
			5. 약물사용: 흡연, 음주, 환각물질, 마약류 등
			6. 범죄: 강도·철도기물과손, 교정시설(소년원 보호관찰 현황)
			7. 상각 위험: 상강범, 피임율, 10대 출산율, 미혼모 현황, 성병,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현황
			8. 유해매체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정보구역 내 업소현황
			1. 영아사망률: 사망한 영아의 비율(출산 1,000명당)
			2. 저체중아 비율: 저체중아의 비율
사고사	UNICEF(2010)	영아건강	3. 질병 예방접종 여부: 홍역예방접종(12~23개월), 소아마비 예방접종(12~23개월), DTP3 예방접종(12~23개월)
			4. 아동 사고사: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학생의 비율(10만 명당)
			1. 교통체계의 안전성
			2. 범퍼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성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UNICEF(2010)	예방접종	3. 통학로의 안전성
			4. 독립적 이동성
			5. 깨끗한 환경
			6. 아동보호기관설치여부
			7. 다문화중증사회
			8. 청결한공공화장실
			9. 자전거도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물리적 환경	10. 악플금지
			11. 폭력예방센터
			1. 가정시설 안전도
			2. 학교시설 안전도
			3. 청소년시설 안전도
			4. 가로등
			5. 보안등 수
			6. 밝기 적정성
			7. 안전한 보행로 확보
			8. 학교주변 교통안전
			9. 청소년 비행발생
		유해환경	10. 성범죄로부터 안전
			11. 유해업소 수
			12. 통행금지 구역 및 제한구역범위
			13.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14. 학교폭력 상담 서비스
		위기응급상황	15. 체벌 없는 청소년관련 기관
			16. 마을주민 안전보호망 운영
			17. 가정폭력지원 및 예방센터
			18. 학교폭력
		인프라	19. 체벌
20. 차별 지원 및 예방센터			
21. 안전관련 기관 연계체계구축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2007)	0-1세 아동의 건강	22. 안전생활보호
		예방보건의서비스	23. 전문인력확보
		안전	24. 안전모나터링
			1. 출산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 영아수 2. 저체중아(2500g 미만)로 태어나는 영아비율 3. 12~23개월 사이에 홍역, DPT,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는 아동비율 4. 10만명당 0-19세에 사고 및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 수
A Geographical Profile of Child Deprivation in South Africa	Census of South Africa(2001)	적절한 보호의 결핍	1. 부모 모두 살아있지 않거나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아동 수 2. 소년소녀 가장 기구에 거주하는 아동 수
Care and Freedom: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of Children's Well-Being in Germany	the second World Vision Survey "Children in Germany 2010"	가장 학교 여가시간에서 아동의 시간사용	1. 성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보호의 지표로 평가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	2. 혼자 보내는 시간: 자기결정 및 자유의 경험
		개인적인 네트워크	3. 만나는 사람(성인 포함)의 수와 만나는 장소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 경험	4.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5가지 질문
		세대 출산률	5. 다른 사람들이 아동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여부
Compos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1995-2005	Kidsdata.org/database	심대 출산률	1. 15-19세 소녀 1,000명 당 출산 수
		청소년 범죄체포율	2. 10-17세 1,000명 당 청소년범죄로 인한 체포 수
		청소년 약물과 알코올 체포율	3. 10-17세 1,000명 당 약물 및 알코올로 인한 체포 수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2005/06 HBSC (Currie et al, 2008) Circa 2005 WHO Mortality Database 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폭력과 폭력행동	1.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신체적 싸움에 관련되었던 아동 2. 지난 2개월 동안 최소 2번 이상 다른 친구를 때물린 경험이 있는 아동	
		아동사망	3. 아동 100,000명 당 19세 미만 아동 사망수	
		위험 행동	출산시 저체중	4.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자청소년 1,000명 당 출산수)
			임신 중 담배 노출	5. 성관계 경험이 있는 15세 청소년
			임신	6.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15세 청소년
			사탕이나 청량음료 섭취	7. 주 1회 이상 흡연 경험이 있는 아동
			매일 흡연	8. 최소 2번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13-15세 청소년
			음주	9. 대마초 흡연 경험이 있는 15세 청소년
			데마초 흡연 시도	1. 출산아 100명 당 2,500g 이하 몸무게로 태어난 영아의 비율
Core Indicators of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at the Municipal Level in Greenland	Off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HBSC	아동사망	2. 출산아 100명 당 임신 중 어머니의 흡연으로 담배에 노출된 아동 비율	
		출산시 저체중	3. 15-17세 소녀 100명 당 임신비율	
		임신 중 담배 노출	4.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사탕이나 청량음료를 매일 먹는다고 보고한 6-11학년(2008년부터 6-10학년) 아동 비율	
		임신	5.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한 15세 아동 비율	
		사탕이나 청량음료 섭취	6.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음주로 인한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다고 보고한 15세 아동 비율	
		매일 흡연	7.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음주로 인한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다고 보고한 15세 아동 비율	
		음주	8.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흡연율을 하루 1시간 이하로 한다고 보고한 6-11세 아동 비율	
		데마초 흡연 시도	9. (HBSC) 동일연령의 참여아동 100명당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15-17세 아동 비율	
		신체활동	1. 나는 버스나 기타 교통편을 이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콘돔 사용	2. 나는 우리 동네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 안전하다			
A child friendly cities	UNICEF(2007)	콘돔 사용	3.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도움을 구할 곳을 알고 있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p>	<p>홍승애(2013)</p>		<p>4. 우리 동네에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다</p> <p>5. 나는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p> <p>6. 학교 교육을 받을 곳이 있다</p> <p>7. 나는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곳을 안다</p> <p>1.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상수도, 목욕시설, 화장실, 난방 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p> <p>2. 내가 살고 있는 집 안의 구조물(외벽, 가스시설, 전기시설, 부엌, 조리도수 등)은 내가 생활하기에 위험하지 않다.</p> <p>3.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한방에서 4명이상이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p> <p>4. 쓰레기 더미, 유해물질, 담배연기, 악취, 공기오염, 소음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p> <p>5. 아동·청소년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이 잘 되어 있다.</p> <p>6. 아동·청소년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잘 설치되어 있다.</p> <p>7. 건물과 시설, 공원 등에는 아동·청소년을 배려한 각종 편의시설(의자, 화장실, 손잡이, 발판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p> <p>8. 건물과 시설, 공원 등에는 장애 아동·청소년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엘리베이터, 화장실, 의자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p> <p>9. 나무와 숲 등 자연환경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동물과도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p> <p>10.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p> <p>11. 버스우편기시는 승하차 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배려한다.</p> <p>12. 아동·청소년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선이나 시간표 등 대중교통정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p> <p>13.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아동·청소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손잡이, 의자, 승·하차 발판 등)이 마련되어 있다.</p>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포명
			<p>14. 버스승강장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p> <p>15. (내가 자주 이용하는 길의) 보도는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서 다칠 위험이 적다.</p> <p>16. 차도와 인도는 분리되어 있어 안전하다.</p> <p>17. 아동·청소년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다.</p> <p>18.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예:가로등의 간격과 가로등의 밝기, 색깔)이 설치되어 있다.</p> <p>19.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에 적당하다.</p> <p>20. 학교주변은 스쿨존, 알람판, 안전패스, 교통안전 표지판 등 안전을 위한 장치마련이 되어 있다.</p> <p>21. 신체장애 아동·청소년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p> <p>22. 학교 주변, 집 주변 등에서 성인용 광고, 전단지, 성인용 광고판을 쉽게 볼 수 없다.</p> <p>23. 학교 주변, 집 주변 등에 단란주점, 모텔, 유흥주점 등 유해업소가 가까이 없다.</p> <p>24. 학교 주변, 집 주변에 술에 취한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없다.</p> <p>25. 아동,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어렵다.</p> <p>26.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이 잘되고 있다.</p> <p>27. 아동·청소년이용시설(FC방, 노래방, 밀디방, 보드게임방, 청소년전용클럽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규(심야시간 출입금지,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고용금지 등)를 준수하고 있다.</p> <p>28. 유희메체(음원인터넷사이트, 케이팝 방송의 성인용 영화 광고, 인터넷 도박게임 등)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이 잘 되어 있다.</p> <p>29. 아동학대, 방임, 유기, 성폭력, 가정폭력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p> <p>30. 위기가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p>

6. 활동 영역 지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활동 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 부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활동 상태	1.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	객관															
			2. 문화여가 지출비용	객관															
			3. 동아리활동 참여율	객관															
			4. 녹지 접근성	객관															
			5. 문화예술시설 수	객관															
			6. 청소년 활동시설 수	객관															
		활동 기관	주관																
		활동 인식	7. 놀이친구접근성	주관															
			8. 여가활동 시간인식	주관															
			9. 여가활동 공간인식	주관															
10. 여가활동 용돈인식	주관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3) 삭제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4) 추가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초록색 영역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활동 영역 관련 새로운 지표가 있을 시에는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요.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경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 간 중복	간헐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상태 체계 자원		

5) 연구와 관련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요

6) 활동 영역에 관한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놀이 및 휴식 시간의 충분도 2. 학교 내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의 충분도 3. 교과 외 문화 예술 활동 참여 시간 4. 동네에 실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 5. 동네에서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여부 6. 동네의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7. 동네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공원, 산, 들, 바다, 녹지 공간 등)이 가까운 곳이 있는지의 여부 8. 학교외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취미나 여가를 위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 여부 9.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율 10. 청소년 단체활동 참여율 11. 청소년 수련시설 경험률 12. 인구 1인당 녹지, 공원 면적 13. 도서관 수 14. 도서관 이용률 15. 체육시설 수
<p>아동·청소년 친화도시</p>	<p>UNICEF (20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 노동 금지 2. 지역사회 문화행사 3. 접근성 안전한 놀이 공간 4. 여가와 문화를 위한 공간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 진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5. 충분한 놀이와 여가시간 6. 장애아도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공간 7. 녹지 공간
		활동여가	1. 다양한청소년프로그램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참여 3. 동아리활동지원
		활동 및 여가시간-공간	4. 일주일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5. 방과 후 활동 및 여가시간 6. 학교활동 및 여가 공간 7. 지역사회활동 및 여가 공간 8.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9. 공공기관 활용도 10. 야외 녹지 공간 확보
		인프라	11. 활동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센터 12. 활동 및 여가관련단체 체계구축 13. 활동 및 여가와 관련된 정보 접근성 14. 활동 및 여가를 위한 기부보급 15. 활동 및 여가관련 전문 인력확보 16. 건강
		인프라	17. 정서·행동 문제 상담 및 예방센터 18. 건강 관련 기관 연계 체계구축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19. 건강 교육 호보 20. 전문 인력 확보
		건강한 행동	1. 아침을 먹는 아동의 비율 2. 날마다 과일을 먹는 비율 3. 신체적으로 활발한 비율 4. 과체중 비율 5. 15세 아동 흡연비율 6. 2번 이상 취한 적이 있는 아동비율 7. 대마초를 사용하는 비율 8. 15세까지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 9. 콘돔을 사용하는 비율 10. 10대 출산율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2007)	위험행동	11. 지난 12개월 동안 싸움을 한 적이 있는 11세,13세, 15세의 비율 12. 지난 2개월간 포래 괴롭힘(왕따)을 당했다고 보고한 아동비율
The Importance of Choice and Definition for the Measurement of Child Poverty –the case of Vietnam	The Vietnam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6)	폭력경험	1. 모든 0-4세 아동 대비 집에서 만들어진 구입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0-4세 아동 비율 2. 모든 0-4세의 아동 대비 그림책이나 아동용 책 을1개도 가지고 있지 않는 0-4세 아동비율
A child friendly cities	UNICEF(2007)		1. 우리 동네에는 놀이, 시합,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2. 나는 놀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p>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p>	<p>놀이와 여가환경</p>		<p>3. 우리 동네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있다</p> <p>4. 우리 동네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p> <p>5. 나는 축제, 문화행사, 타종교에 참여 또는 체험할 수 있다</p> <p>6. 나는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단체 또는 활동에 참가한다.</p> <p>1. 다양한 문화, 예술프로그램을 즐기며 활동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전용 시설이 있다.</p> <p>2. 아동·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아영장, 유스호스텔 등 공공기관)에는 다양한 수련활동,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p> <p>3. 아동·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 아동·청소년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 <p>4. 아동·청소년 시설(유스센터,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p> <p>5. 집과 가까운 거리에 연령에 맞는 놀이시설이 있으며 자유롭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넓고 광활한 놀이 공간이 있다.</p> <p>6.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 공간 및 공원이 있다.</p> <p>7. 집과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있다.</p> <p>8.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위험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p> <p>9. 지역사회 내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놀이를 즐기고, 이야기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오픈된 장소가 있다.</p> <p>10. 성인의 감독 없이 아동·청소년끼리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다.</p> <p>11. 놀이터나 놀이 공원 주변에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깨진 유리 등 더럽고 위험한 물건이 잘 정비되어 있다.</p> <p>12. 놀이시설은 차도와 분리되어 있어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다.</p> <p>13. 놀이시설물은 누슬거나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았다.</p> <p>14. 신체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도 함께 놀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이 있다.</p>

7. 참여 영역 지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참여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x: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척자원	공적자원	생태계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 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참여 결정요인	1. 아동권리 인지	주관																
			2. 징계소명권	주관																
			3. 학칙개정권	주관																
		관용성	4.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주관																
			역응성	5. 청소년 자살률	객관															
		사회 참여	6. 학생대표의 운영위참여도	주관																
			7. 자원봉사 참여율	객관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청소년이행복한 지역사회지표개 발및조성사업연 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2014)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이행복한 지역사회지표개 발및조성사업연 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2014)		

4) 추가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초록색 영역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참여 영역 관련 새로운 지표가 있을 시에는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십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 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헐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5) 연구와 관련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십시오.

6) 참여 영역에 관한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1. 가정 중요사 결정시 부모님은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2. 진로 및 상급학교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3.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 4. 학교에서 아동권리에 대해 배우는지 여부 5. 학교 공식 매체(학교 방송, 학교 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의사 표명 정도 6.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학생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7. 교내 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지 여부 8.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허용 여부 9.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10. 우리 동네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11.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계획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12.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들은 정도 13. 청소년이 시 의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본 경험 유무 14.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는 도시,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15. 우리 동네는 문화, 종교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축제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정도 16. 자원봉사 참여율 17.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율 18. 국제교류활동 참여율 19. 청소년자치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수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아동청소년영향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참여권	1. 권리해(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인권의식 수준 평가) 2. 권리행사(자기결정권, 조직제정에 참여, 의견존중의 경험, 개인적 네트워크) 3. 정보획득(행정정보 획득매체)
		발달권	4. 아동청소년의 사회생활과 참여(자원봉사, 사회단체, 지역문화행사 참여율, 국제교류 현황)
청소년친화마을 조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의견존중	1. 상급학교 선택 시 자녀의 의견 반영, 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반영, 3.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 의견 반영
		표현의 자유	4. 교내 징계 시 학생의 의사 소명권 보장 5.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6. 학교 운영회 학생참여 보장 7. 교내 자치회 운영 8. 인권을 위한 옹호기구 및 상담기관 9. 봉사활동 및 참여위원회 10. 온라인·미디어메체활동 11.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12. 국제교류 활동 13. 참여 관련 지원센터 14. 참여기관연계체계구축 15. 참여 관련 정보의 접근성 16. 전문 인력 확보 17. 청소년참여모니터링
		사회참여	1. 나는 우리 동네 변화 프로젝트를 돕는다 2. 나는 지역 사회를 위한 기획이나 결정에 참여한다
		인프라	
A child friendly cities(CFC)	UNICEF(2007)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홍승애(20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정부는 내 생활이나 동네*에 관한 나의 생각을 묻는다 *시 의회, 시장 등 4. 공영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아동 권리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5. 나는 인터넷에 접속해 우리 동네 너머 일어나는 일들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6. 나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예산에 대한 내 의견을 전달한다 1.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정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5.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행사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7.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잘 전달 받을 수 있다. 8. 내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인종, 문화,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 없이 서로 잘 지낸다. 9.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 10. 내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원봉사, 자조모임, 동호회 등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11. 내가 사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아동·청소년을 배려하고 권리는 존중해주며 친절하게 대해준다. 12.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나서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13. 내가 사는 지역주민들은 주민끼리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4.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애착감을 느낀다.

8. 경제영역 지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2014) 중 경제영역의 해당 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기준에 매우 부합함, ○: 대체로 부합함, △: 보통, ×: 부 적합), CIW 지표 분류 기준(○: 기준에 부합함, △: 보통, ×: 부적합)을 체크하신 후, 지표의 우선순위를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지표 우선 순위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생태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소득/소비	1. 가장경제만족도														
			2. 지역경제수준														
			3. 지니계수														
		복지	4. 사회복지지출 비율														
			5. 통학소요시간														
			6. 경제활동 참가율														

2) 수정이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추가하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하시고, OECD 지표 선정기준, OECD 지표 분류 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 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헐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문적 자원	생태 체계 자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14)																	

3) 삭제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지표영역과 지표명을 기재해주시시오.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4) 추가가 필요한 지표명이 있을 시 초록색 영역의 참조 지표를 참고하여 추가하시거나, 참조지표에는 없지만 경제 영역 관련 새로운 지표가 있을 시에는 지표를 추가하시고 출처, 영역, 지표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지표에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을 체크해주세요.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지표성격	OECD 지표 선정기준						CIW 지표 분류 기준					
					결과 지표	시계열 측정	가변성	보편성	영역간 중복	간접성	적용성	개인적 자원	공적 자원	상태 체계 자원		

5) 연구와 관련된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6) 경제영역에 관한 참조 지표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2. 한부모 가정 비율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적 연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Save the Children Korea (2013)	물질적 결핍	3. 실업률	
			4.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수업자료와 보충자료를 제공받는지 여부	
			5. 무상급식지원 예산	
			6. 방과 후 교육 지원 예산	
			7. 아동 빈곤율	
			8.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9. 근로청소년비율	
			10. 대상별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11. 총인구대비 청소년 인구 구성비	
			12. 청소년 1인당 청소년 예산	
			13. 청소년 1인당 행정공무원 1인당 청소년 수	
			14. 청소년 1인당 공무원의 평균 청소년 담당 근무연수	
			빈곤	1. 물질적 결핍 상황에 있는 아동의 비율*
				2.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 정도
3. 소유한 재화(1): 재화목록 중 가지고 있지 못한 물건의 수*				
4. 소유한 재화(2): 재화목록 중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의 수*				
5. 소유한 도서의 양이 10권 미만인 아동의 비율*				
6. 차상위 빈곤가구 비율*				
7. 부모의 경제활동 미참여 비율*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아동청소년의 빈곤율	1. 빈곤율(상대·절대), 차상위계층 여부
		복지급여 수급여부	2. (아동·청소년)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연령대별 현황
		생활필수품의 부족	3. 식품, 도서·학용품, 기초적인 가계도구의 부족
		미성년 가구	4. 미성년 가구 수 및 발생 원인별 현황
		보호자의 고용불안정	5. 가구 내 성인의 실직, 정규직 여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한국방정환재단(2014)	상대적 빈곤	1. 중위수입의 50% 이하: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미취업 가정	2.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 비율
		결핍	3. 교육여건: 교육자재를 6개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4.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권미만 있는 아동의 비율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DWP(2005) HMRC(2005)		1. 소득부조를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2. 소득에 기반한 구직수당을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3. 최저생활보장연금(Pension Credit)을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결핍	4. (주택수당을 제외한) 소득이 주거비용을 포함한 중위 소득(the median before housing cost)의 60% 이하이면서 아동세액공제를 받고 근로세액공제를 신청한
			5.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6. (주택수당을 제외한) 소득이 주거비용을 포함한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소득부조, 소득 기반 구직수당, 최저생활보장연금 또는 근로세액공제의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아동세액공제를 신청한 가구에 거주하는 0-15세 아동
Composit Indices of Changes in Child and Youth Well-Being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State of California, (1995-2005)	Kidsdata.org database	빈곤 아동	1.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가구에 사는 0-17세 아동 비율
		중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	2. 중위소득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비율

연구제목	Data Source	세부영역	지표명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Europe	2006 EU-SILC 2006 OECD PISA (2008)	결핍	1. 소비재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아동가구(비율) 2. 경제적 부담을 보고하는 아동 가구(비율) 3. 교육적인 물건이 6개 이하인 학생 (비율) 4. 집에 책이 10권 이하인 학생 (비율) 5. 0-17세 빈곤 아동(이전 후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6. 0-17세 아동의 상대적 빈곤격차(중위소득의 60%) 7. 직업이 없는 가구에 살고 있는 0-17세 아이들
Kids count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실직 아동 빈곤 높은 주택비용 부담이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 고용이 불안정한 부모를 둔 아동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	1. 가구소득이 미국 빈곤선의 100% 이하인 가족의 구성원인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 2. 세전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백분율 3. 부모 모두가 일년 내내 풀타임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 4. 16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

부록 3. 객관지표 통계자료

3-1-1 청소년 비만률(BMI) (2014)

(단위:%)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 전체
전국	13.7	6.1	10.1
서울	13.9	5.6	9.9
부산	14.5	6.1	10.5
대구	14.9	4.9	10.2
인천	14.3	7.7	11.1
광주	12.7	5.5	9.2
대전	13	6.2	9.7
울산	14	6.0	10.2
경기	12.3	5.7	9.1
강원	15.9	7.3	11.8
충북	11.9	7.2	9.7
충남	15.1	7.1	11.3
전북	13.5	7.2	10.5
전남	13.2	5.8	9.7
경북	15.4	7.7	11.8
경남	13.9	5.6	10.0
제주	17.1	8.5	13.0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94-197.

주1)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2)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²(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1-2 청소년 자살률 (2013)

(단위: 명)

구분	10~24세 청소년 자살 인원	10~24세 청소년 인구	청소년자살률 (10만명당)
전국	793	9,672,831	8.2
서울	169	1,799,147	9.4
부산	46	635,168	7.2
대구	37	503,133.00	7.4
인천	38	561,531.00	6.8
광주	27	322,971	8.4
대전	26	315,302	8.2
울산	15	239,695.00	6.3
세종	1	19,842	5.0
경기	180	2,396,525.00	7.5
강원	21	286,667.50	7.3
충북	21	298,602.00	7.0
충남	34	368,140	9.2
전북	25	358,786	7.0
전남	45	344,435	13.1
경북	42	474,833	8.8
경남	55	629,898.00	8.7
제주	11	118,157.00	9.3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11&conn_path=2 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3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주1)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한 청소년의 비율

2) 청소년 자살률 = (10-24세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1-3 평균운동시간 (2014)

(단위: %)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 전체
전국	19.2	8.0	13.8
서울	21.2	8.1	14.9
부산	17.9	10.8	14.5
대구	20.3	7.7	14.4
인천	20.3	7.2	14
광주	19.1	8.2	13.9
대전	16.4	7.5	12.2
울산	17.7	7.8	13.1
경기	19.8	8.2	14.2
강원	20.5	7.2	14.1
충북	16.4	7.7	12.2
충남	18.3	6.4	12.6
전북	18.1	7.2	12.9
전남	18.5	5.9	12.5
경북	14.7	6.8	11
경남	18.6	8.9	14
제주	19.5	9.0	14.5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138-141.

주1) 최근 7일 동안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1-4 평균수면시간 (2014)

(단위: 시간)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 전체
전국	6.6	6.1	6.3
서울	6.4	5.9	6.2
부산	6.5	6.2	6.4
대구	6.6	6.2	6.4
인천	6.6	6	6.3
광주	6.4	6	6.2
대전	6.4	5.9	6.2
울산	6.5	6.1	6.3
경기	6.6	6.1	6.4
강원	6.8	6.3	6.5
충북	6.7	6.3	6.5
충남	6.8	6.3	6.6
전북	6.6	6.3	6.4
전남	6.6	6.2	6.4
경북	6.6	6.2	6.4
경남	6.6	6.2	6.4
제주	6.5	6.2	6.4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246-249.

주1) 조사시점 직전 지난 주 주중(월~금요일) 수면시간의 평균(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1-5 청소년 흡연율 (2014)

(단위: %)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 전체
전국	14.0	4.0	9.2
서울	13.1	3.9	8.7
부산	13.5	4.2	9.1
대구	11.8	3.4	7.8
인천	13.6	3.9	8.9
광주	14.7	4.1	9.6
대전	12.7	4.0	8.5
울산	14.6	5.2	10.2
경기	13.1	4.4	8.9
강원	14.2	1.4	8.1
충북	17.1	4.0	10.8
충남	16.3	3.9	10.4
전북	14.3	5.2	9.9
전남	17.9	3.5	11
경북	16.8	5.0	11.3
경남	15.4	2.7	9.4
제주	10.9	6.1	8.6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36-39

주1)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1-6 청소년 음주율 (2014)

(단위: %)

시도	남학생	여학생	청소년(중1~고3) 전체
전국	20.5	12.6	16.7
서울	21.0	12.0	16.7
부산	19.6	13.8	16.9
대구	18.2	10.8	14.7
인천	19.0	11.0	15.2
광주	18.0	11.4	14.8
대전	19.1	12.2	15.8
울산	19.7	12.7	16.4
경기	20.4	12.7	16.7
강원	19.3	8.9	14.4
충북	24.5	12.1	18.6
충남	25.8	15.2	20.8
전북	20.7	15.0	17.9
전남	23.1	15.4	19.4
경북	19.5	12.7	16.3
경남	21.3	13.4	17.6
제주	18.2	10.9	14.7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제10차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pp.96-99.

주1)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1-7 인터넷 중독률 (2014)

(단위: %)

구분	인터넷 중독률
전국	12.5
서울	14.9
부산	21.7
대구	4.4
인천	9.9
광주	12.1
대전	16
울산	17.9
세종	12.1
경기	11.8
강원	7.3
충북	6.9
충남	6.7
전북	10.7
전남	11.4
경북	12.9
경남	15
제주	5.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원자료.
 주1) 인터넷 사용자 중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

3-2-1 학업중단율 (2014)

(단위: 명, %)

시도	초등	중등	고등				학업중단 학생수	초중고 학생수	학업 중단율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전국	15,908	14,278	19,224	1,572	8,782	804	60,568	6,311,109	0.93
서울	4,948	3,561	4,100	540	866	119	14,134	1,069,408	1.28
부산	716	865	896	74	866	101	3,518	377,324	0.89
대구	478	496	517	174	658	56	2,379	321,350	0.71
인천	724	743	962	77	494	35	3,035	356,089	0.83
광주	310	349	713	49	289	19	1,729	221,483	0.76
대전	746	538	482	82	392	39	2,279	303,540	1.05
울산	230	294	363	13	309	27	1,236	157,513	0.76
세종	40	35	29	10	15	2	131	16,084	0.91
경기	5,327	4,352	6,029	168	1,636	110	17,622	1,629,271	1.06
강원	289	299	541	7	477	22	1,635	189,352	0.84
충북	244	362	549	59	356	56	1,626	200,732	0.79
충남	371	490	834	62	339	47	2,143	261,105	0.81
전북	297	382	665	25	414	44	1,827	243,760	0.73
전남	204	340	463	58	595	73	1,733	231,242	0.73
경북	331	424	761	43	496	36	2,091	310,256	0.65
경남	567	651	1,053	125	486	16	2,898	430,819	0.66
제주	86	132	267	6	94	2	587	84,944	0.68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유예, 면제, 자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요청 또는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사망, 자살 제외)(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2) 학업중단률=(학업중단 학생수/학생수) ×100

3-2-2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초~고)
전체	22.8	30.5	30.9	26.8
서울	24.3	30.2	30.9	27.6
부산	22.0	29.8	28.9	25.9
대구	22.3	31.2	32.1	27.1
인천	23.2	32.5	30.1	27.2
광주	23.4	32.4	34.7	28.4
대전	23.1	31.4	32.7	39.8
울산	22.8	29.8	32.6	27.2
세종	20.0	23.1	25.0	21.8
경기	25.2	32.1	32.0	28.6
강원	18.6	28.3	29.4	23.5
충북	20.8	29.0	31.5	25.4
충남	20.6	29.3	30.6	25.1
전북	19.7	29.7	29.3	24.6
전남	18.8	27.9	27.7	23.3
경북	20.7	27.8	28.5	24.6
경남	21.7	30.1	30.3	25.9
제주	22.1	31.9	33.3	27.0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교육통계연보 /<http://kess.vedi.re.kr/index>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학급 수 대비 학생 수

2)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생수/학급수

3-2-3 학업성취도

(단위: %)

시도	중학생 학업 보통이상				고등학생 학업 보통이상				중·고등학생 학업 보통이상			
	국어	수학	영어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국어	수학	영어	전체
서울	86.2	68.9	76.5	77.2	81.6	80.0	80.4	80.7	83.9	74.5	78.5	79.0
부산	88.9	71.5	78.8	79.7	91.0	89.8	89.3	90.0	90.0	80.7	84.1	84.9
대구	90.1	73.5	80.2	81.3	91.9	89.9	90.6	90.8	91.0	81.7	85.4	86.1
인천	90.4	69.0	77.8	79.1	89.9	89.1	88.9	89.3	90.2	79.1	83.4	84.2
광주	84.5	67.3	75.2	75.7	92.0	89.6	90.5	90.7	88.3	78.5	82.9	83.2
대전	88.8	70.0	77.6	78.8	91.1	91.6	91.5	91.4	90.0	80.8	84.6	85.1
울산	90.3	72.5	80.6	81.1	90.1	90.0	90.5	90.2	90.2	81.3	85.6	85.7
세종	86.9	60.8	72.8	73.5	84.5	79.9	77.2	80.5	85.7	70.4	75.0	77.0
경기	87.3	64.4	74.2	75.3	83.5	79.4	80.7	81.2	85.4	71.9	77.5	78.3
강원	84.8	57.8	67.8	70.1	86.9	81.2	82.2	83.4	85.9	69.5	75.0	76.8
충북	89.8	68.8	78.3	79.0	91.9	92.7	93.0	92.5	90.9	80.8	85.7	85.8
충남	86.3	59.2	70.4	72.0	85.7	89.4	85.6	86.9	86.0	74.3	78.0	79.5
전북	84.9	62.0	69.2	72.0	88.6	84.8	84.4	85.9	86.8	73.4	76.8	79.0
전남	84.1	60.1	69.4	71.2	87.8	84.9	84.6	85.8	86.0	72.5	77.0	78.5
경북	88.8	69.6	76.6	78.3	90.9	90.1	89.6	90.2	89.9	79.9	83.1	84.3
경남	85.3	65.7	73.5	74.8	85.5	84.3	83.1	84.3	85.4	75.0	78.3	79.6
제주	88.1	71.3	77.5	79.0	91.2	87.6	89.0	89.3	89.7	79.5	83.3	84.2

*출처: 교육부(2014), 2014년 학업성취도 보도자료

주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의미함(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이상 비율의 평균).

3-2-4 사교육비 지출액 (2014)

(단위: 만원)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사교육비 지출액(평균)
전국	23.2	27.0	23.0	26.9	24.2
서울	30.0	34.9	37.1	42.1	33.5
부산	20.1	26.8	22.5	27.4	22.7
대구	22.1	26.7	24.9	30.4	24.2
인천	20.4	22.6	20.9	25.8	21.1
광주	23.6	27.3	18.5	21.4	23.1
대전	26.1	27.1	23.7	28.3	25.7
울산	21.2	25.4	20.6	24.6	22.2
세종	18.4	21.5	16.0	19.0	18.6
경기	24.5	29.1	25.3	28.5	26.0
강원	16.1	20.4	14.1	16.7	16.7
충북	20.4	21.6	13.7	17.5	18.8
충남	21.7	20.2	10.5	12.2	18.1
전북	17.9	23.4	14.1	17.1	18.3
전남	16.3	21.3	12.1	15.9	16.4
경북	20.3	22.5	14.1	16.8	19.1
경남	20.6	23.3	16.8	19.3	20.3
제주	21.8	22.8	13.8	16.0	19.9

*출처: 통계청(2014). 사교육비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1일 인출.

주1)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3-3-1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2014)

(단위: 명)

시도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상자수	10~24세 인구수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전국	377	201,499	201,876	9,529,607	2,118.41
서울	44	30,401	30,445	1,757,282.00	1,732.51
부산	9	10,840	10,849	617,601.00	1,756.64
대구	17	12,327	12,344	491,490.50	2,511.54
인천	13	10,757	10,770	553,741.50	1,944.95
광주	13	8,227	8,240	319,166.50	2,581.72
대전	11	7,003	7,014	310,628	2,258.01
울산	12	4,321	4,333	235,103	1,843.02
세종	2	190	192	23,218.00	826.94
경기	100	43,081	43,181	2,384,311.00	1,811.05
강원	14	7,613	7,627	283,092	2,694.18
충북	18	6,905	6,923	294,639.50	2,349.65
충남	19	9,711	9,730	364,486	2,669.51
전북	23	8,112	8,135	352,809.50	2,305.78
전남	19	6,299	6,318	338,596.00	1,865.94
경북	29	11,443	11,472	464,162	2,471.55
경남	30	11,103	11,133	620,452.00	1,794.34
제주	4	2,764	2,768	118,830.00	2,329.38

*출처: 도로교통공단(2014). 2014년지역별교통사고통계.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4년주민등록인구연간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청소년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십만 명 당)

2)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10~24세 교통사고 사상자수 / 10~24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3-3-2 청소년 범죄피해율 (2012)

(단위: %)

시도	14~19세 청소년 범죄피해율	14~19세 청소년 범죄피해율
전국	4.2	4.7
서울	9.4	8.8
부산	1.4	2.6
대구	2.0	5.2
인천	4.1	3.4
광주	3.6	2.4
대전	7.7	11.7
울산	0.0	0.0
경기	1.2	1.4
강원	3.1	3.8
충북	5.1	3.3
충남	0.8	1.1
전북		3.9
전남	10.2	12.5
경북	5.5	4.7
경남	3.6	6.5
제주	2.7	4.2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청(2012),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 원자료.

주1)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사기, 절도, 강도, 폭행 및 상해, 성추행, 성폭력, 강간, 소매치기, 손괴 등)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3-3-3 아동학대피해 경험률 (2014)

(단위: 건, 명)

시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학 대	방임	중복	아동학대 발생건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0만명당)
전국	1,453	1,582	308	1,870	4,814	10,027	9,297,603	108
서울	183	120	31	155	465	954	1,611,129.00	59.2
부산	101	49	3	73	166	392	547,576	71.6
대구	39	57	7	62	197	362	449,878.00	80.5
인천	43	47	5	95	305	495	534,778	92.6
광주	58	17	12	28	49	164	309,950.00	52.9
대전	32	64	3	55	132	286	304,168.00	94
울산	54	45	5	57	187	348	230,143.00	151
경기	454	401	69	423	1,154	2,501	2,455,565.00	102
강원	90	68	9	65	132	364	266,160	137
충북	24	91	21	96	223	455	292,074	156
충남	38	55	18	130	242	483	384,379	126
전북	80	164	39	220	429	932	342,122	272
전남	84	79	52	143	283	641	331,537.00	193
경북	76	130	10	112	285	613	451,699	136
경남	61	142	21	98	427	749	633,769.00	118
제주	36	53	3	58	138	288	123,864.00	233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내부자료(2014),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4년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콜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현황 중 일반상담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건수(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아동학대피해 경험률=(학대 및 방임 발생건수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3-4 학교폭력 발생률 (2014)

(단위: 건수)

시도	학교폭력 발생률
전국	4.6
서울	4.6
부산	3.9
대구	7.5
인천	4.2
광주	4.5
대전	3.5
울산	4.6
세종	5.4
경기	3.9
강원	5.4
충북	4.6
충남	5.0
전북	5.0
전남	5.9
경북	5.5
경남	3.6
제주	4.8

*출처: 교육부(2013).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2013년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중1~고3 청소년 중 최근 1년간 폭행, 갈취, 협박, 왕따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4-1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2013)

(단위: %)

시도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관람	박물관(유 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 예, 서화, 전시회 포함)	문화예술활 동 참여율
전국	19.6	23.9	2.7	78.5	20.6	17.2	84.0
서울	23.7	33.9	3.7	82.2	22.9	22.8	86.9
부산	17.0	20.9	1.4	81.8	21.0	18.9	86.9
대구	18.7	25.4	1.6	76.9	19.1	14.5	83.9
인천	19.2	22.3	2.4	75.1	21.9	17.4	81.1
광주	16.9	12.5	1.8	81.9	16.3	15.8	85.5
대전	25.5	18.1	3.3	89.0	22.5	19.8	92.7
울산	22.2	15.4	2.2	78.5	19.8	12.1	83.0
경기	18.5	28.7	3.4	78.0	20.0	17.3	84.5
강원	26.0	19.4	0.7	73.6	20.4	12.9	78.3
충북	19.1	15.2	2.0	68.8	23.5	16.0	75.1
충남	15.3	18.0	2.3	75.3	18.5	13.3	81.2
전북	21.4	15.1	2.5	79.1	20.2	14.6	84.9
전남	13.4	15	1.6	66.2	22.9	15.1	73.2
경북	16.8	19.3	2.6	81.1	17.8	14.5	84.9
경남	18.4	16.5	1.8	76.7	18.2	10.8	82.4
제주	16.6	19.5	1.4	72.1	26.0	20.8	78.1

*출처: 통계청(2013). 2013사회조사원자료.

주1) 지난 1년 동안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을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4-2 문화여가지출비용 (2014)

(단위: 원)

시도	문화여가 지출비용(월 평균)
전체	128,109
서울	122,631
부산	117,000
대구	138,575
인천	143,487
광주	113,413
대전	141,635
울산	160,688
세종	115,462
경기	132,943
강원	141,282
충북	132,653
충남	129,377
전북	119,020
전남	81,260
경북	141,379
경남	124,235
제주	109,238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

주1) 문화여가 지출비용(월평균)의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이며, 조사의 기준일은 2011.3.1부터 2014.8.31까지임(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4-3 동아리활동 참여율 (2014)

(단위: %)

시도	청소년시설단체가입1)	인터넷동아리가입2)	기타단체가입여부3)	동아리4)
전국	22.8	21.0	26.7	52.3
서울	22.4	20.9	28.1	53.3
부산	21.1	20.5	28.1	53.0
대구	25.3	17.5	26.6	50.6
인천	21.0	14.6	24.2	48.4
광주	14.9	26.4	23.0	49.4
대전	37.3	25.3	44.6	83.1
울산	17.6	17.6	18.9	39.2
세종	50.0	43.8	43.8	68.8
경기	23.3	21.6	28.6	55.3
강원	34.3	22.5	26.5	57.8
충북	20.3	18.8	18.8	45.3
충남	22.2	18.5	26.7	51.9
전북	11.8	16.8	23.5	40.3
전남	17.4	27.3	27.3	44.6
경북	25.0	30.0	17.5	50.6
경남	20.5	15.1	24.4	46.8
제주	37.3	23.5	33.3	64.7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원자료

주1)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9-1) “청소년 시설단체”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9-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단체나 동아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9-3) “기타 단체나 동아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

4) 위의 3개 문항에서 하나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사례수(N)는 응답자 중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 수로, 동아리 관련 문항에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4-4 문화예술시설 비율 (2013)

(단위: 개소, 명)

시도	공연 시설	공연장				전시시설			문예 회관	문화원	도서관	문화예술 시설수	2014년 인구	문화예술 시설 수 (십만명당)
		전체	대 공연장	중 공연장	소 공연장	전체	박물관	미술관						
전국	984	1227	105	965	157	944	754	190	220	229	12691	16295	50,763,158	32.1
서울	377	466	38	380	48	151	116	35	16	25	1502	2537	9,970,992.50	25.44
부산	50	64	4	49	11	21	16	5	11	14	670	830	3,485,394	23.81
대구	50	57	6	34	17	17	14	3	11	8	470	613	2,477,822.50	24.74
인천	38	45	3	33	9	27	23	4	8	8	552	678	2,863,670	23.68
광주	29	32	1	23	8	17	10	7	7	5	333	423	1,465,396.50	28.87
대전	29	33	5	22	6	19	14	5	3	5	341	430	1,521,389.50	28.26
울산	14	16	1	14	1	9	9	-	4	5	252	300	1,154,816.50	25.98
세종	-	1		1		5	5	-	1	1	45	53	138,270.50	38.33
경기	124	165	20	117	28	174	131	43	32	31	2513	3039	12,196,188.50	24.92
강원	42	53	1	48	4	88	76	12	19	18	686	906	1,529,766	59.22
충북	24	25	2	18	5	48	41	7	13	12	517	639	1,565,580	40.82
충남	31	43	2	40	1	52	44	8	17	16	790	949	2,041,139	46.49
전북	33	42	4	33	5	41	34	7	15	14	797	942	1,860,008	50.64
전남	35	46	2	42	2	66	47	19	18	22	951	1138	1,893,159.50	60.11
경북	39	51	5	43	3	66	57	9	24	23	1032	1235	2,682,403	46.04
경남	43	60	8	47	5	62	54	8	19	20	1029	1233	3,321,034.50	37.13
제주	26	28	3	21	4	81	63	18	2	2	211	350	596,127.50	58.71

*출처: 통계청(2013). 한국의사회지표, p.344-345.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3년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지역 인구 십만 명 당 문화예술 시설(공연시설, 공연장(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 수(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2) 문화예술시설 비율= (문화예술시설수/인구수)×100,000

3-4-5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2013)

(단위: 개소, 명)

시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수	2013년 10~24세 인구수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전국	186	230	179	43	134	9	781	9,672,831	8.1
서울	33	18	3	0	4	6	64	1,799,147	3.6
부산	8	9	4	2	1	0	24	635,168	3.8
대구	5	6	2	0	1	0	14	503,133	2.8
인천	8	6	5	6	4	0	29	561,531	5.2
광주	5	5	1	0	0	0	11	322,971	3.4
대전	3	7	2	0	1	0	13	315,302	4.1
울산	1	6	1	0	0	0	8	239,695	3.3
세종	0	1	0	0	0	0	1	19,842	5.0
경기	29	46	46	4	23	1	149	2,396,525	6.2
강원	16	29	17	7	17	1	87	286,667	30.3
충북	8	10	17	1	11	0	47	298,602	15.7
충남	10	9	13	2	14	0	48	368,140	13.0
전북	11	19	14	3	7	1	55	358,786	15.3
전남	13	13	9	7	6	0	48	344,435	13.9
경북	17	13	15	5	17	0	67	474,833	14.1
경남	16	14	25	3	13	0	71	629,898	11.3
제주	3	19	5	3	15	0	45	118,157	38.1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3청소년백서, p.418. 국가통계포털홈페이지. 2013년주민등록인구연방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9~24세 청소년 인구 십만 명 당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2)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 활동시설수/10~24세 청소년 인구)×100,000

3-4-6 청소년 지도사 비율 (2013)

(단위: 명)

시도	청소년 지도사 비율
전국	0.9
서울	0.9
부산	0.8
대구	0.8
인천	1.0
광주	0.8
대전	1.0
울산	1.0
세종	1.0
경기	0.9
강원	1.0
충북	0.9
충남	0.9
전북	1.0
전남	1.0
경북	0.9
경남	0.9
제주	1.0

*출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3), 2013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 편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 연간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청소년 수련시설 당 청소년 지도사 수를 의미함.

2) 청소년 지도사 비율=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수련시설 수

3-5-1 자원봉사 참여율(2013)

(단위: %)

시도	자원봉사 참여유형별 비율						자원봉사 참여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환경보전, 범 죄예방 등	자녀교육 등	국가 및 지역 행사 등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 복구 등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전국	62.4	19.4	6.6	7.7	3.9	15.3	19.9
서울	64.6	16.0	8.2	7.9	3.3	14.3	17.7
부산	69.1	15.3	4.9	7.2	4.0	12.7	18.7
대구	77.2	11.0	5.1	6.6	2.0	8.4	19.0
인천	74.4	13.0	6.7	6.2	4.4	9.4	18.6
광주	65.4	14.4	7.7	6.8	4.9	17.4	23.5
대전	72.3	14.7	4.4	6.8	5.6	11.3	24.8
울산	65.7	14.2	4.2	10.7	3.1	26.7	21.5
경기	56.6	20.5	9.3	7.1	3.4	16.5	19.7
강원	62.7	17.4	6.2	11.3	3.5	20.1	19.4
충북	47.4	34.9	3.3	9.6	4.2	23.5	21.7
충남	52.8	34.3	5.2	8.8	4.7	13.5	23.0
전북	67.8	14.4	3.8	10.1	8.4	13.3	18.0
전남	68.4	21.1	6.2	10.3	4.4	7.5	22.1
경북	51.8	25.3	4.6	6.0	2.9	23.7	18.5
경남	56.9	25.2	4.0	7.3	4.2	18.3	23.4
제주	70.4	19.8	5.0	5.3	4.0	7.4	24.2

*출처: 통계청(2013). 2013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SP151R&conn_path=3 에서 2014년 6월 8일 인출.

주1) 설문문항은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활동시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로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각각의 항목(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환경보전/범죄예방관련, 자녀교육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재해지역 및 시설 복구 관련,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에 대한 횟수와 평균시간으로 조사되었음(김지경, 김옥태, 하한주, 2014)

2)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함. (지역별 자원봉사 참여율)

3) 13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함.

3-6-1 통학소요시간 (2010)

(단위: 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전체
전국	13.2	18	26.2	52.7	51.7	30.5
서울	14.7	18.5	27.4	63.1	56.1	35.4
부산	13.5	19.2	28.2	46.4	47.3	31.3
대구	13.1	17.2	24.9	43	52.3	29.7
인천	13.3	19.4	28.1	70.3	76.2	37.1
광주	12.5	18.3	27.3	34.9	38.8	26.7
대전	11.8	16.3	23.1	38	36.5	25.1
울산	11.9	17.4	25.5	50.6	48.4	26.6
경기	12.7	17.3	26.3	64.4	74	34.5
강원	13.2	18.5	22.5	32.1	24.3	21.6
충북	13.1	17.6	25.3	39.2	27.6	23.5
충남	13.2	18.8	25.8	38.1	28.5	24.1
전북	12.4	17.6	26.2	33.7	29.6	23.8
전남	13.8	18.7	23.8	35.1	35.1	23.1
경북	13.1	18.6	25.5	36.3	29.4	23.8
경남	13	17.6	25	42.5	43.2	25.4
제주	12	17.9	27.3	37.1	39.1	25.2

*출처: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A1018&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통학시간(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6-2 녹지접근성 (2013)

(단위: m²)

시도	1인당 도시 공원 면적	1인당 녹지면적	1인당 도시공원 및 녹지면적
전국	8.6	2.43	11.03
서울	8.3	0.45	8.75
부산	5.7	2.15	7.85
대구	4.5	1.86	6.36
인천	7.6	1.42	9.02
광주	6.1	1.71	7.81
대전	10.2	1.28	11.48
울산	11.4	5.13	16.53
세종	154.9	21.56	176.46
경기	7.2	2.38	9.58
강원	7	3.21	10.21
충북	7	5.41	12.41
충남	10.3	5.05	15.35
전북	11.7	2.52	14.22
전남	19.7	6.41	26.11
경북	9.3	2.87	12.17
경남	10.6	3.49	14.09
제주	4.3	0.9	5.2

*출처: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녹색도시과/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2014년
말도시공원현황 2015년 8월 15일 인출

주1)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김지경, 김옥태, 하현주, 2014)

3-7-1 1인당 지역내 총생산(지역경제수준) (2013)

(단위: 백만원)

시도	1 1인당 지역내 총생산(지역경제수준)
서울	32.1
부산	20.5
대구	18.2
인천	22.9
광주	19.7
대전	20.4
울산	60.6
경기	25.8
강원	23.6
충북	30.4
충남	45.6
전북	23.6
전남	35.4
경북	33.8
경남	30.6
제주	23.2

*출처: 재정고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801&conn_path=3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지역 내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지역 내 총인구수로 나눈 값

3-7-2 지니계수 (2014)

시도	지니계수
서울	0.32
부산	0.30
대구	0.29
인천	0.28
광주	0.29
대전	0.32
울산	0.30
경기	0.30
강원	0.30
충북	0.27
충남	0.26
전북	0.29
전남	0.28
경북	0.29
경남	0.27
제주	0.32

*출처: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직접 계산

주1)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과 대비시킨 비율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으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더 평등함을 의미(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2) 지니계수= $1 + (1 / N) - [2 / (m \cdot N^2)] [\text{SUM} (N - i + 1) y_i]$

3-7-3 사회복지지출비율 (2014)

(단위: 천원, %)

시도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사회복지지출비율
전국	33,004,144,101	126,464,637,765	26.1
서울	5,530,496,104	17,402,398,111	31.8
부산	2,091,379,944	6,861,195,945	30.5
대구	1,568,576,392	4,783,951,076	32.8
인천	1,738,805,594	5,946,987,563	29.2
광주	1,010,275,311	3,110,473,113	32.5
대전	982,394,911	2,770,158,407	35.5
울산	602,826,542	2,545,015,118	23.7
세종	115,042,287	486,731,728	23.6
경기	6,526,545,934	22,118,717,178	29.5
강원	1,331,740,935	6,729,871,029	19.8
충북	1,279,971,201	5,381,750,710	23.8
충남	1,582,630,593	7,560,005,292	20.9
전북	1,724,201,345	7,413,430,455	23.3
전남	1,825,227,616	9,340,323,043	19.5
경북	2,293,566,359	11,227,689,569	20.4
경남	2,421,847,298	10,239,496,488	23.7
제주	378,615,735	2,546,442,940	14.9

*출처: 재정고홈페이지. http://lofin.mosp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3.jsp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자치단체예산 규모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3-7-4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2013)

(단위: 명)

시도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수	2013년 10~24세 인구수	인구10만명당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자 비율(2013)
전국	279,135	9,672,831	2,885.8
서울	38,745	1,799,147	2,153.5
부산	26,085	635,168	4,106.8
대구	23,155	503,133	4,602.2
인천	15,184	561,531	2,704.0
광주	17,454	322,971	5,404.2
대전	10,736	315,302	3,405.0
울산	2,983	239,695	1,244.5
세종	538	19,842	2,711.4
경기	36,731	2,396,525	1,532.7
강원	11,377	286,668	3,968.7
충북	8,455	298,602	2,831.5
충남	10,532	368,140	2,860.9
전북	20,831	358,786	5,806.0
전남	16,022	344,435	4,651.7
경북	18,408	474,833	3,876.7
경남	16,709	629,898	2,652.7
제주	5,190	118,157	4,392.5

*출처: 보건복지부(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2p.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비율

2)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10~24세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수 / 10~24세 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

3-7-5 경제활동 참가율 (2014)

(단위: 천명, %)

시도	경제활동인구 (천명)	15세이상인구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전국	26,536	42,513	62.4
서울	5,386	8,519	63.2
부산	1,733	2,957	58.6
대구	1,264	2,080	60.7
인천	1,541	2,407	64.0
광주	758	1,255	60.4
대전	792	1,288	61.5
울산	561	943	59.5
경기	6,442	10,159	63.4
강원	734	1,259	58.3
충북	835	1,311	63.7
충남	1,198	1,855	64.6
전북	897	1,517	59.1
전남	936	1,491	62.8
경북	1,463	2,263	64.7
경남	1,673	2,734	61.2
제주	323	475	68.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5&conn_path=3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김지경, 김옥태, 하헌주, 2014).

2)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3-7-6 실업률 (2013)

(단위: %)

시도	실업률
전국	3.5
서울	4.5
부산	3.8
대구	3.9
인천	4.7
광주	2.8
대전	3.4
울산	2.7
경기	3.4
강원	3.1
충북	3.0
충남	3.4
전북	2.5
전남	2.9
경북	2.9
경남	2.5
제주	2.0

*출처: 재정고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01&conn_path=12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주1)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함.

Abstract

Research project III to develop a local community where the youth are happy and the associated indicators: Measurement of the indicators and index for a local community where the youth are happ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concrete and in-depth analysis of the weak and strong points of creating a youth-friendly environment in a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roject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difference, by school level and region, i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the youth. Based on 16 indicators per region, the project comprehensively measured and calculated indicators about a local community where the youth are happy. The methodologies used were surveys, expert opinions and consulting, and workshop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s of relationships, subjective well-being, health, and education from the total nine areas,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higher, the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was hig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was fine, and the school and career education satisfaction levels were high in general for male students in a lower grade who lived in a large city, had a religious affiliation, and were from a family with two parents where one parent had a job.

Second, in almost all areas, the students' temperament or tendency, so called the "level of extroversion," the existence of a disease, and living with the biological parents turned out to b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happiness.

Third, the indexes per area showed a big difference by region. The relationship index was high in Busan but low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Ulsan. The subjective

well-being index was high in Busan and low in South Jeolla Province. The health area was high in Daegu and Gangwon but low in South Jeolla Province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education area was high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low in Gyeonggi Province and Seoul. The safety area was very high in Busan. The activity area was high in Incheon, Gangwon, and Gyeonggi Province and low in South Jeolla Province,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Gwangju. Jeju showed the highest index in the participation area but it was relatively low in Ulsan and North Jeolla Province. The environment area index was high in Gangwon and Jeju and relatively very low in Gyeonggi Province. The economic area was high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Ulsan and low in Gangwon and North Jeolla Province.

Fourth, the comprehensive index was the highest in Busan, followed by Incheon and Jeju. The comprehensive index was relatively low in the order of South Jeolla Province,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North Jeolla Province.

Fifth, among the nine areas per region, each region had a relatively weak area as follows: the education area for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economic area for Busan, Daegu, and North Jeolla Province, the environment area for Incheon, the activity area for Gwangju, North Chungcheong Province, South Jeolla Province, and Jeju, the health area of Daejeo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participation area for Ulsan, and the safety area for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is analysis shed new light on the detailed areas wher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set up policies for youth happiness and set the direction for policy efforts.

This paper also provides the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and research mentioned above. To utilize these indicators in policies to create local communities where the youth are happy,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youth groups with low happiness level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venue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to

improve and resolve the gap in awareness of youth happiness among the stakeholders (the youth, parents, and teachers). This paper provides concrete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ing measures to improve the youth happiness index per local government and its monitoring, prioritizing policy based on the happiness indicator analysis, improving social welfare investment, consulting local communities with a low happiness index, launching public campaigns and activities to improve the youth happiness index, developing a time-series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youth policy budget database, establishing baseline data for the setup and operation of organizations designated for surveys on and policy development of the youth happiness index per region, managing the happiness indicators by establishing panel data, establishing a cooperative DB network system with related survey organizations and adding indicators, building a database of the youth survey and online service on the homepage, establishing the Local Happiness Minimum, which is the minimum criteria related to youth happiness, etc.

Keywords : Indicators of a local community where the youth are happy, index of a local community where the youth are happy, creation of a youth-friendly environment, policies for the happiness of the youth.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구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정윤미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관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VI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VI : 데이터분석보고서I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문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혜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오해섭·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대표 김연숙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74-8 94330

979-11-5654-060-1 (세트)